

## 발간사



용인향교 전교 이양구

龍仁은 山水가 秀麗하고 人心이 淳厚하며 産業이 發達하고 交通이 便利한 京邑의 要衝입니다. 龍仁이란 이름이 생긴 지 이미 600년이 지났고 歷史 이래로 이러한 龍仁의 位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現代에 이르러 龍仁이 갖는 重要性이 더 커지고 있으며 都農複合市로 躍進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龍仁은 京都의 咽喉에 比喩되었고 三南으로 이어지는 關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龍仁의 地理的 位相은 전혀 變하지 않아 高速道路가 四通八達로 連結되고 尖端産業이 雲集하여 人口 100萬을 넘는 雄府로 跳躍하고 있습니다. 가히 龍仁은 五千年 歷史의 中心이요 三千里 江山의 中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人傑은 地靈이라는 말이 있듯이 龍仁은 圃隱 鄭夢周先生을 비롯하여 靜庵 趙光祖先生, 竹窓 李時稷先生, 秋潭 吳達濟先生 등과 더불어 國恩 李漢應 烈士와 忠正公 閔泳煥先生에 이르는 忠節이 깃든 고장입니다. 그런가하면 藥泉 南九萬先生이나 陶庵 李穡先生과 같은 儒學과 磻溪 柳馨遠先生같은 實學의 故鄉이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鄒魯의 遺香이 龍仁땅에 고루 미치고 先賢의 教化가 가득 넘친다는 反證일 것입니다.

그러나 西勢 東漸以來 不幸히도 道德精神이 衰退하고 物質과 貪慾이 蔓延하는 世上이 되었으니 어찌 痛嘆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刊行하는 우리 龍仁鄉校誌가 어두운 世上을 다시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고 汚染된 社會를 淨化하는 밑거름이 된다면 더할 수 없는 보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鄉校誌 編纂과 刊行의 懇切한 뜻을 오랫동안 간직해 왔고, 역대 典校님들이 精誠을

다했으나 如意치 않고, 어려움이 또한 적지 않았는데, 有志者事竟成이라는 말처럼 趙吉生 龍仁文化院長님과 江南大 洪順錫 教授님의 積極的인 도움으로 豫算을 確定하고 編纂의 틀을 세워 마침내 龍仁鄉校誌가 結實을 보게 되었으니 眞實로 고마울 따름입니다.

더구나 鄉校 管內 여러 門中과 個人, 機關의 精誠어린 獻誠金이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니, 漢陽趙氏 晦谷公派, 韓山李氏 陰崖公派, 慶州金氏 十淸軒公派, 葛川公派, 順川金氏 門中과 全州 崔氏 平度公派, 德水李氏 등 여러분의 協助에 紙面을 빌어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豫算支援에 큰 힘을 보태주신 鄭燦敏 龍仁市長님과 金重植 龍仁市議會 議長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趙吉生院長님과 鄭亮和 編纂委員長님을 비롯한 文化院關係者여러분의 勞苦에도 感謝를 드립니다.

또한 金東海 龍仁鄉校儒道會長님과 監修를 맡아주신 金學珉先生님과 늘 염려하여주신 朴社榮 前 典校님, 崔진홍 구성농협장님, 한규혁 기흥농협장님, 朴漢哲 深谷書院長님, 李秉穆 忠烈書院長님, 鄭誠教 諮問, 李明烈 元老掌儀님과 崔海植 事務局長, 都淑姬 部長의 勞苦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典校로서 或時 있을지도 모르는 資料의 漏落이나 誤字, 脫字 等に 惠諒을 빌며 印刷를 맡아 수고해주신 韓國文化社 金鎮洙 社長 및 任職員들께도 感謝드립니다.

이번 龍仁鄉校誌 發刊으로 龍仁鄉校의 發展과 큰 跳躍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2017년 11월

龍仁鄉校 典校 李亮求 謹識

## 발 간 사



용인문화원장 조길생

조선은 건국과 함께 국가 통치 이념을 불교에서 유교로 교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제의 확립과 이념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교화를 위해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 아래 전국 각지에 향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원래 향교가 처음 설립된 것은 고려시대이지만 인재를 양성하고 선현에 제사를 지내는 교화의 중심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당시 향교가 일종의 향촌 자치 기구로서 기능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용인향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탄생한 용인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자 유교적 제향 공간이었습니다. 용인향교는 조선 초기 건립 이후 많은 유학자를 배양하며 교육적 기능은 물론 선현에 봉사(奉祀)하는 제향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지역의 세거 문중들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으며 향촌 자치기구로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용인향교는 교육 및 향촌 자치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제향적 기능만이 남게 되었고 향교 건축물도 현 위치로 이진되어 다소 초라한 모습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용인현이 생원, 진사시인 소과에서 139명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였고, 대과인 문과에서 53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여 전국의 현(縣) 단위 지역에서 가장 많은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것은 용인향교가 지역 교육 기능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용인향교는 조선시대 용인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

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용인향교지』를 발간하게 된 것은 우리 고장의 교육사 및 학술사를 새롭게 규명하는 의미가 있고, 특히 지역의 수많은 문화원형들을 문화 콘텐츠화 하고 있는 본 문화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또 다른 결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용인향교지 발간을 위해 적극 앞장서신 이양구 전교님과 향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필을 이끄신 정양화 편찬위원장과 홍순석 교수님,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집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신 용인문화재단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후원금을 기탁하신 각 문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향교지 발행이 지역의 학술 및 교육사를 바르게 규명하고 후세들에게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이어가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1월

용인문화원장 조길생

## 祝刊辭



成均館長 金煥根

선비의 고을로 이름난 龍仁鄉校 李亮求 典校를 비롯한 僉章甫가 鄉校誌 編纂을 마치고 不佞에게 祝刊辭를 請하니 欽慕하는 글을 보냅니다.

龍仁은 고구려 때 駒城 또는 滅烏라고 했고, 이후 朝鮮 太宗 13년에 龍駒와 處仁 두 縣을 합친 고을입니다. 金壽寧의 新亭記에 의하면 ‘龍仁은 작은 고을이지만 王都와 隣接한 까닭으로 밤낮으로 모여드는 賓客이 이곳을 經由하지 않음이 없으니 南北으로 통하는 길목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歷史 깊은 고을입니다. 일찍이 庠序學校를 設置하여 人倫을 가르쳤으니, 어진 선비를 養成하는 方法은 文化政策의 成果로 證明되었습니다. 聖人을 높이고 스승을 尊重하는 禮法과 元氣를 培養하는 儀式은 國家의 準則입니다. 數千年 동안 우리 民族은 끊임없는 外勢의 侵掠과 挑戰에도 屈服하거나 同化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民族力量은 儒敎文化에 根底한 民族正氣와 自負心이 우리 마음 속에 內在했기 때문입니다. 歷史와 傳統을 記錄 繼承하고 美風良俗을 保存하여 後世에 남기는 일은 崇高한 使命이며 儒林의 責務가 아닐 수 없습니다.

近世期 西洋文物의 潮流에 휘말려 우리의 아름다운 典章은 定着地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綱常倫理의 沮喪과 지나친 個人主義의 氾濫으로 因해 國家와 民族의 正體性과 自矜心이 毀傷되는 現實을 打破하고 우리가 指向해야 할 理想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鄉校誌를 編纂하는 事業은 此際에 風紀와 文化의 中心인 儒敎의 歷史를 保存하여 後世에 물려주고 이 시대에 걸맞는 價値觀을 확립하는 일인 만큼 그 意義는 重且大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龍仁鄉校 僉章甫의 勞苦에 敬意를 表하고, 鄉校誌 發刊을 契機로 合心團結하여 龍仁鄉校가 洋洋하게 發展하여 斯文振作의 一翼을 擔當해 주기를 期待하며 삼가 祝賀의 뜻을 드립니다.

孔夫子誕降 2568年 丁酉 11月

成均館長 金煥根 謹識

## 축간사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장 정찬민입니다. 먼저, 100만 용인시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용인향교지』를 편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용인시는 포은 정몽주, 정암 조광조, 도암 이재 선생 등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의 유교 문화의 전통을 유지해 온 유서 깊은 고장으로, 선비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많은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지역에 이어져 내려온 소중한 정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승·보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용인향교 관련 각종 문헌 및 현장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발굴·정리함으로써 용인향교지 편찬을 공동으로 추진하신 조길생 용인문화원장님과 이양구 용인향교 전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용인향교지』 편찬은 우리지역의 교육사 및 향교에서 배출된 인물들을 되돌아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향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신문화유산을 전달하는 중요한 교육적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100만 대도시 용인이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전통을 바탕으로 향교문화의 현대적 가치 계승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용인지역 고유문화 및 역사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향교문화가 문화유산적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인향교지』 발간에 힘쓰신 용인문화원 및 용인향교 관계자 분께 감사드리며, 용인의 소중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용인시장 정찬민

## 축 간 사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 용인을 기대하며

『용인향교지』 발간을 100만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 전통문화의 가치를 새로이 발굴하여 다양한 전통문화 사업으로 용인시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고 용인시의 정체성을 높이는 데 헌신해 오신 용인문화원 조길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교는 공교육 기관으로,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일종의 중등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향교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바로 문묘라는 제사문화와 결합한 유교문화를 통한 지방민의 교화(教化)였습니다.

향교는 각 지방의 고유문화와 어우러져 교육과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 『용인향교지』 발간을 계기로 우리 용인 지역 향교의 역사적, 문화유산적, 현대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우리 용인시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으로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용인향교지』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신 용인문화원 조길생 원장님과 용인향교 이양구 전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용인시의회도 용인의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7. 11.

김 중 식

용인시의회 의장

## 축 간 사



국회의원 표창원

용인의 대표 문화유산인 용인향교의 역사를 집대성한 『용인향교지』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록은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합니다. 기록이 없다면 과거와 미래가 서로 단절되는 상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급속한 개발로 인구 100만 대도시를 이룬 용인은 과거와 참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서 깊은 본래의 용인을 자칫 잊을 수도 있는 이때에 『용인향교지』의 발간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하며,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용인향교는 그 위치만으로도 용인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용인향교가 있는 현재의 구성동과 그 일대가 과거에는 용인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용인 사람들은 용인향교에서 공부하며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용인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과거제 폐지 이후에도 계속되어 명륜학교에서 용인보통학교로, 그리고 현재의 신갈초등학교로 이어집니다.

현재의 용인향교는 지역의 문화생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를 시연하는 기로연을 열기도 하고, 한문·예절·서예·충효사상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교적 측면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선현들을 추모하며 석전대제를 봉행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길러 낸 맹보순 선생이 머무르며 교육을 하던 곳, 6·25전쟁으로 일부 건물이 파손되며 아픔을 겪었던 곳, 지금은 아파트 숲속에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마음의 여유를 주는 곳으로 시대에 따라 용인향교의 모습은 변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용인향교지』를 통해 많은 사람이 과거와 현재의 용인향교를 이해하고 미래의 후손들도 용인향교와 함께 호흡하길 바랍니다.

2017. 11. 국회의원 표창원



## 축 간 사



국회의원 이우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용인(갑) 국회의원 이우현입니다.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용인향교의 향교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용인향교가 있기까지 많은 애를 써 주신 이양구 전교님을 비롯한 용인향교 어르신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승구하고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용인향교 교지의 발간은 지역 유교문화 및 역사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고, 향토사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앞으로 용인향교지가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유산을 제대로 알려 용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용인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향교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모든 사람들이 읽고 애용하는 용인향교의 역사기록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자유한국당 용인갑 국회의원 이우현

## 祝 刊 辭



京畿道鄉校財團  
理事長 趙南喆

龍仁鄉校의 오랜 宿願事業인 鄉校誌를 今番에 發刊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生覺하며 眞心으로 祝賀를 드립니다.

朝鮮 1400년(정종 2)에 創建된 龍仁鄉校는 600餘年の 歷史를 지닌 鄉土 遺蹟으로 향교의 過去事와 現代史를 綿密히 照明하여 後世들에게 孔夫子의 仁 思想과 現時代의 儒教 文化를 集大成 하였음에 깊은 感謝와 致賀를 드립니다.

龍仁은 現在 人口100만 都農複合都市로 鄉校의 今後 할 일은 어느 鄉校보다 任務가 莫重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8.15.解放을 맞이하여 西歐 文明이 流入되고 農耕社會가 工業社會로 發展 되어 가는 와중에 現實은 物質萬能의 風潮가 漫然하고 父母를 직접 奉養하고 生活하는 時代가 稀薄하여졌지만 今番 鄉校誌 發刊에 즈음하여 사람답게 사는 教育을 보다 內實化하여 龍仁의 山 實體인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고장으로 보다 發展하게 하기 爲하여 다음 몇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溫故知新의 教育을 活性化하여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으로 昇華 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修己治人의 精神을 涵養하여 이기적이 아닌 누구나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知命行爲의 精神을 깃들게 하여 正義로운 社會 公正한 社會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향후 儒林社會의 큰 發展을 위하여 女性, 青年儒道會의 強化를 기대하며 指導者 위치에

있는 분부터 疏通과 配慮의 精神으로 모든 일에 率先垂範 함은 물론 향교의 精神文化와 傳統文化를 繼承發展시키기 위하여 專門人力을 持續的으로 養成하여 주실 것을 當付드립니다.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향교지 發刊을 위하여 心血을 기울이고 계신 李亮求 典校님과 推進委員 여러분께 深深한 激勵의 말씀을 드리며 龍仁鄉校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孔紀 2568(2017)年 11月

京畿道鄉校財團 理事長 趙南喆

## 祝 刊 辭



成均館長儒道會  
京畿道本部 會長 李圭衡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龍仁鄉校에서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될 龍仁鄉校誌를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서기 1400년 창건되어 오늘날까지 繼承發展 되어온 용인향교는 儒教的 傳統 속에 살아온 우리들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忠孝仁義禮智信의 전통적 윤리관을 중요시하여 왔으나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절벽 등으로 가족 구조의 변화와 물질만능의 풍조가 개인 이기주의 팽배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道德性的 상실로 법과 질서를 외면하여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용인향교가 선량한 시민의 생활지표로 삼을 수 있는 鄉校誌를 창간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孔夫子는 창조적인 이념을 제시한 탁월한 思想家요 歷史家요 教育者입니다. 공부자의 사상적 핵심은 溫故而知新이며, 溫故를 통해 知新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은 溫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知新에 있는 것입니다. 溫故는 知新을 위한 전제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溫故에도 익숙하지 못하면서 마치 溫故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 知新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知新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찾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역사를 단절하고 主體로부터 逸脫하는 현상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 儒家의 法道가 이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교는 조선시대에 국민들이 신의를 바탕으로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루는데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전국 향교에서 鄕校誌를 발간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것이므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역사 속에 용인 儒門의 발자취를 鄕校誌에 실어 풍요로운 용인 건설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또한 용인향교가 知新의 참뜻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발간되는 龍仁鄕校誌는 100만 용인시민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인 선비정신을 좀 더 심도 있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창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鄕校誌 발간을 위하여 勞心焦思하시며 이루어 낸 李亮求 典校님, 그리고 조길생 용인문화원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 함께 애써주신 편찬위원님, 집필위원님 그리고 실무를 맡아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成均館儒道會 京畿道本部 會長 李 圭 衡

## 축간사



성균관유도회 용인향교지회  
지부장 김동해

향교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덕목을 가르치고 人性을 함양하여 儒道를 선양하는 곳으로 예로부터 예절바르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비록 오늘날에 이르러 서양풍조가 만연하고 물질이 정신을 압도하는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향교는 昏衢秉燭의 기치를 굳게 들고 도덕교화에 기여해 왔고 龍仁鄉校 또한 앞장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仁義禮智의 가르침이야말로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민주사회를 지향해가는 오늘날에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文宣王 공부자의 仁이나 亞聖이신 맹자의 王道政治, 안자의 孝와 같은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만고불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선현들의 도덕정신이 살아 숨 쉬고 절의를 실천하신 수많은 英靈이 깃들어 있는 충절의 고장 우리 용인에서, 유교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용인향교의 숙원사업이던 龍仁鄉校誌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향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과정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통예절을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교화 및 교육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鄉校誌 발간은 용인향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鄉校誌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정성을 다해주신 편찬위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李亮求 典校님을 비롯한 용인향교 관계자 여러분과 趙吉生 원장님을 비롯한 용인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7. 11.

成均館儒道會

龍仁鄉校支會 支部長 金 東 海

## 祝 刊 辭



大韓老人會 器興區支會  
支會長 趙英在

龍仁鄉校誌의 歷史的 出刊을 眞心으로 慶賀드립니다.

悠久한 歷史를 지닌 龍仁鄉校는 龍仁 遺跡 第1號로서 조선시대 科擧에 及第한 人才를 排出한 教育의 産室 이요, 19世紀 末에는 儒學子이신 孟輔淳 께서 後學을 가르쳐 金燮 將軍, 李永善, 魚大善 等の 獨立運動家들을 排出한 民族運動의 産室이요,

1906年 西洋醫學의 教育機關을 設立한 李道宰 學部大臣께서 明倫學校을 設立하시어 龍仁中等 教育의 嚆矢를 이루신 新舊 學文의 産室이기도 합니다.

近世에 와서는 先聖先師에 대한 祭享을 받들어 鄉校 遺風을 維持 保存하고 있습니다만, 由緒 깊은 龍仁 鄉校 자리에 老人大學을 設立하여 長壽時代에 進入한 老人學習의 場을 만들어 다시 한 번 教育의 産室을 再現 시켜 주시길 大韓老人會가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龍仁鄉校가 創建 이래 鄉校誌 發刊을 위하여 이양구 典校님의 智惠와 誠力에 깊은 敬意를 포함니다.

發刊을 위해 協力하신 모든 분께 深深한 感謝를 드립니다

孔紀 2568年 11月

大韓老人會 器興區支會 支會長 趙 英 在 謹識



## 축 간 사



NH구성농협 조합장 최진홍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느 지방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지역 고유의 역사적인 사실과 선조들의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고장 향토유적 제1호 용인향교는 유림들의 학습장으로써 이곳을 지나가는 행인은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는 하마비가 있고, 매년 음력 8월 27일 석전대제 등을 올리는 행사가 이어지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전통문화 유적을 찾아내어 자라나는 새세대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조상의 얼을 전해주기 위하여 용인향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용인향교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애독하여 우리고장의 향토문화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조들의 숨결과 발자취를 더듬어 참다운 우리고장의 역사와 생활의 지혜를 찾아 가꾸어 내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춧돌로 삼아 새롭게 번영하는 내고장 건설에 기여하고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한편의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라며 『용인향교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노력 해주신 용인문화원 조길생 원장님과 용인향교 이양구 전교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성농협도 향토 문화발전을 위하여 정신 및 물질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지혜

와 슬기를 모아 사장된 문화재 발굴이나 고문헌 및 도서를 찾아내고 전설이나 유래에 의해 고증될 수 있는 자료수집에 전력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고, 후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하며 화합과 단결로 미지의 발굴과 개발에 총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용인향교지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NH구성농협 조합장 최진홍

## 차례

화보 .....	3
발간사_용인향교 전교 이양구 .....	33
발간사_용인문화원장 조길생 .....	35
祝刊辭_성균관장 김영근 .....	37
축간사_용인시장 정찬민 .....	38
축간사_용인시의회 의장 김종식 .....	39
축간사_국회의원 표창원 .....	40
축간사_국회의원 이우현 .....	41
祝刊辭_경기도향교재단이사장 조남철 .....	42
祝刊辭_경기도유도회장 이규형 .....	44
축간사_용인유도회장 김동해 .....	46
祝刊辭_기흥노인회장 조영재 .....	48
축간사_구성능협장 최진흥 .....	49
범례 .....	57

## 제1장 | 성균관·향교의 개관

제1절 성균관 개관 .....	60
1. 조선시대의 성균관 .....	61
2. 조선후기의 성균관 .....	65
3. 근·현대시기의 성균관 .....	66
제2절 향교(鄕校) 개관 .....	69
1. 향교의 기능과 운영 .....	69
2. 향교 건물의 구성과 배치 .....	77

제3절 대성전 배향인물	80
1. 공부자(孔夫子)	80
2. 사성(四聖)	87
3. 송조 2현(宋朝二賢)	91
4. 동방 18현(東方十八賢)	93

## 제2장 | 용인의 유학 교육과 유교 문화 유적

제1절 조선시대 용인지역의 유학 교육	116
1. 조선시대 용인 유학교육의 산실	116
2. 조선시대 용인의 학맥	117
3. 근·현대 용인지역의 유학교육	120
제2절 용인의 유교문화유적	130
1. 용인의 유교문화유적: 서원, 향교	131
2. 용인의 유교문화유적: 묘소	138
2. 용인의 유교문화유적: 사당, 재실	144

## 제3장 | 용인향교의 사적

제1절 용인향교의 설립과 변천	166
1. 용인지역의 변천	166
2. 용인향교의 설립과 이건(移建)	168
3. 용인향교 건축물의 배치 및 증수(增修)	172
제2절 근현대 시기의 용인향교	179
1. 한말 향교 제도의 변화와 용인향교	179
2. 명륜학교 설립	183
3. 일제의 향교 운영과 용인향교	185
4. 해방 후 용인향교의 변화	190

## 제4장 | 용인향교의 입지와 건축물

제1절 향교건축 입지(立地) 선정의 배경 .....	196
제2절 향교 건축의 배치와 공간구조 .....	197
1. 향교 건축 배치의 구성요소 .....	197
2. 향교 건축의 배치형식 .....	197
3. 향교의 공간구조 .....	198
제3절 용인향교 건축의 변천 .....	200
제4절 용인향교의 입지 .....	203
1. 용인향교의 위치 .....	203
2. 용인향교 건축물의 배치와 평면 .....	203
제5절 용인향교의 건축물 .....	206

## 제5장 | 용인향교의 조직과 운영

제1절 용인향교의 조직 .....	218
1. 용인향교 .....	218
2. 용인향교 유도회(龍仁鄉校儒道會) .....	227
3. 용인향교 여성유도회(女性儒道會) .....	231
제2절 용인향교의 운영 .....	235
제3절 용인향교의 자산과 예산 .....	237
1. 용인향교의 기본자산 .....	237
2. 용인향교의 예산 .....	239

제4절 용인향교의 사업 ..... 253

- 1. 충효·도의 선양 교육 ..... 253
- 2. 용인향교 명륜대학의 운영과 교육사업 ..... 257
- 3.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 ..... 263

## 제6장 | 용인향교의 향사의례

제1절 석전대제(釋奠大祭) ..... 284

- 1. 석전제 개관 ..... 284
- 2. 향사 일정과 분정 집사 ..... 288
- 3. 대성전 봉안 위패의 배치 ..... 290
- 4. 석전제의 준비 ..... 291
- 5. 봉행절차 ..... 310
- 6. 흥가와 축문 ..... 316

제2절 식망례(朔望禮) ..... 339

제3절 고유제(告由祭) ..... 342

제4절 성년례(成年禮) ..... 347

- 1. 전통시대의 성년례 ..... 347
- 2. 현대의 성년례 ..... 351

## 제7장 | 용인향교 인물록

제1절 한국유학의 조종 포은 정몽주 ..... 356

제2절 정암 조광조와 기묘명현 ..... 359

1. 도학 정치를 주도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	359
2. 용인 출신의 기묘명현 .....	361
제3절 도암 이재 선생과 그의 제자들 .....	366
1. 기호학과 낙론의 종장 도암(陶菴) 이재(李緯) .....	366
2. 도암 문하에서 배출된 용인의 유학자 .....	370
제4절 조선시대 용인의 유학자 .....	372
제5절 조선시대 용인 출신 급제자 .....	381
제6절 근현대 용인의 유학자 .....	403

## 제8장 | 용인향교 문헌록

제1절 고문헌 소재 기사 .....	416
1. 『조선왕조실록』 소재 기사 .....	416
2. 『학교등록(學校謄錄)』 소재 기사 .....	420
3. 지지류(地誌類) 문헌 소재 기사 .....	425
제2절 향교, 서원 개인소장 문헌 .....	427
1. 용인향교 상량문(龍仁鄉校上樑文) .....	427
2. 경기 용인현 향교 단청과 포진이 풀어져 훼손된 곳을 개수할 때 먼저 고유하며 올리는 글 (京畿龍仁縣鄉校丹青鋪陳滄傷處修改時先告事由文) .....	430
3. 용인향교 통고문(龍仁鄉校通告文) .....	431
4. 용인 명륜당 중건 상량문(龍仁明倫堂重建上樑文) .....	432
5. 용인향교 명륜당 중건기(龍仁鄉校明倫堂重建記) .....	436
6. 용인향교 중수기(龍仁鄉校重修記) .....	438
7. 용인향교교궁중수기(龍仁鄉校校宮重修記) .....	441
8. 전 전교 이영희 공적기(前典校李英熙功績記) .....	442

9. 윤리도의 선양교육 기금 조성에 대한 취지문  
 (倫理道義宣揚教育 基金造成에 對한 趣旨文) ..... 444

제3절 용인명륜향교 일기 ..... 446

용인명륜학교일기(번역문) ..... 457

龍仁明倫學校日記(原文) ..... 509

## 부록

용인향교 정관 및 제규정 ..... 530

용인향교 소장문서 목록 ..... 549

용인향교 장서목록 ..... 553

대한노인회 용인지회 임원 현황 ..... 572

역대 용인군수·시장 현황 ..... 573

역대 용인군의회 시의회회장 현황 ..... 575

역대 기흥구청장 현황 ..... 576

지역과 상생하는 기흥농협 ..... 577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구성농협 ..... 579

용인향교 휘보 ..... 581

용인향교지 발간 성찰록 ..... 613



## 범례

이 책은 용인향교의 역사적 변천과 조직·운영·향사의례·교육사업·주요 행사·문헌 등을 정리한 향교지로, 다음과 같이 편찬되었다.

### 용인향교지의 편찬 개요

1. 이 책은 용인향교와 용인문화원이 공동으로 편찬위원회와 편찬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여 제작하였다.
2. 이 책의 간행경비는 용인시의 보조금과 용인유림들의 헌성금으로 충당하였다.
3. 이 책의 편찬 실무는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편찬실무위원회가 주관하였으며, 용인향토사연구가의 협조로 추진하였다.
4. 이 책은 용인향교의 관할구역(수지·기흥·구성·포곡·모현·남사·이동, 구 용인읍내권) 범위의 현장조사와 용인향교 관련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기획, 구성하였다.

### 용인향교지의 구성

이 책은 총 8장과 부록으로 구성하였으며, 용인향교가 용인의 유학 교육의 산실임을 감안하여 용인의 유교문화를 함께 수록하였다.

1. 이 책의 권수에는 용인향교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화보로 구성하였다.
2. 제1장은 개관편으로 성균관과 향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소개하였다.
3. 제2장은 용인의 유학교육과 유교문화유적편으로 용인의 유교문화에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유교 문화유적은 서원·향교·누정·묘역·사당·재실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4. 제3장은 용인향교의 사적편으로 용인향교의 역사적 변천과 향교 건축물의 이진, 신개축 등을 수록하였다.
5. 제4장은 용인향교의 입지와 건축편으로 현재 용인향교의 공간 배치와 건축물에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서 배치도면과 함께 수록하였다.
6. 제5장은 용인향교의 조직과 운영편으로 용인향교, 성균관유도회 용인지부, 용인여성유도회의 구성과 활동을 정리해 수록하였다. 운영에서는 기본자산과 예산을 도표로 정리해서 설명하였다. 사업에는 청소년충효교육, 명륜대학, 유교아카데미, 전통문화시연회, 기타 중요 사업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7. 제6장은 용인향교의 향사의례편으로 석전대제, 삭망례, 고유제, 성년례의 전모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

수록하였다.

8. 제7장은 용인향교 인물록으로 포은 정몽주, 정암 조광조선생과 기묘명현, 도암 이재선생과 문하생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용인의 유학자와 과거급제자, 근현대시기의 유학자 등을 정리해서 수록하였다.
9. 제8장은 용인향교 문헌록이다. 용인향교와 관련 고문헌자료의 기사와 용인향교 소장 자료 등을 원문과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특히 『용인명륜학교일기』는 근대시기 용인향교의 정황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해제, 번역, 원문을 모두 수록하였다.
10. 이 책의 부록에는 용인향교의 제반규정, 소장문서와 도서목록, 용인 관내 주요기관의 역대 단체장 명단을 첨부하였다.
11. 이 책의 권말에는 용인향교의 휘보와 용인향교지 편찬사업 헌성금을 기부해주신 문중과 단체, 유지들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 용인향교지의 편집체제

이 책의 표기와 서술체제는 향토사료지 편찬의 일반적인 관례를 따랐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집하였다.

1. 이 책의 서술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한자표기가 필수적인 부분은 괄호에 넣어 처리하였다.
2. 연대표기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간지나 왕력이 필요한 경우는 괄호에 넣어 처리하였다.
3. 본문과 함께 수록한 <도표> <도면> 등은 용인향교 소장 문서를 바탕으로 도숙희 사무부장이 제공한 것을 편집한 것이며, <사진>은 주로 홍순석·정양화·박선식·우상표 집필위원이 제공한 것이다.
4. 제7장 용인향교 인물록에 수록된 인물은 편찬실무위원회 조사위원이 문헌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배열순서는 인명 가나다순으로 정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도표>에는 수록하였으나 집필하지 못한 인물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용인의 유학인물과 유교문화유적』과 같은 책자 간행시 보완할 예정이다.
5. 용인향교는 3차례에 걸쳐 이진하였으며, 복원된 향교 건물마저 6.25전쟁으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향교의 장서고에 현존하는 자료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책의 편집에서 일부 항목에 편중되거나 소략해서 부실한 항목도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지속적인 자료의 발굴과 함께 향후 보완해야할 과제이다.

### 용인향교지 자료의 사용권한

1. 용인향교지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 <도면> <사진>의 사용권한은 용인향교와 용인문화원에 있음을 밝혀둔다.

제1장 | **성균관·향교의 개관**



## 제1절 성균관 개관

성균관은 한국의 옛 대학(大學)으로 그 명칭은 고려 충선왕 때 국학(國學)을 성균관으로 개명한 데서 비롯하였다. 공민왕 때는 국자감(國子監)이라 부르다가 곧 성균관으로 복귀되었는데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기까지 조선 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다.

우리나라 최고학부의 명칭으로 ‘성균(成均)’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298년(충렬왕 24)에 ‘국학(國學)’

을 ‘성균감(成均監)’이라 개칭한 데서 비롯된다. ‘성균’은 『주례(周禮)』의 「대사악(大司樂)」에 나오는 용어로, 음악을 조율하는 것과 같이 어그러짐을 바로잡고, 지나치고 모자라는 것을 고르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뒤 1308년에 충렬왕이 죽고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성균감’을 ‘성균관’이라 개칭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는 배원정책(排元政策)에 따른 관제의 복구로 국자감으로 환원되었다가, 1362년 다시 성균관으로 복구되었다. 한편 공민왕 즉위초에는 종래까지 성균관(국자감)에 유교학부(儒敎學部)와 함께 설치되어온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 등의 기술학부를 완전히 분리시켜 따로 교육시키게 함으로써, 성균관은 명실공히 유학교육만을 전담하는 최고학부가 되었다.

성균관은 고구려 때부터 나라의 최고교육기관을 가리키던 이름인 태학(太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으며, 반궁(泮宮)·현관(賢關)·근궁(芹宮)·수선지지(首善之地)라고도 하였다.

성균관은 조선 왕조가 들어선 뒤에도 그대로 존치되었다. 조선왕조의 한양천도(漢陽遷都)에 따라 새 도읍지의 동북부지역인 숭교방(崇敎坊) 부근(지금의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구내)에 터가 정해져서 1395년(태조 4)부터 건축공사가 시작되어 3년 만에 대성전(大聖殿: 단종 때 大成殿으로 개칭됨.)과 동무(東廡)·서무(西廡)의 문묘(文廟)를 비롯하여 명륜당(明倫堂)·동재



성균관 대성전

(東齋)·서재(西齋)·정록소(正錄所)·식당(食堂)·양현고(養賢庫) 등의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 밖에도 도서관인 존경각(尊經閣)과 반궁제(泮宮制)의 필수적인 요소인 반수(泮水)는 1478년(성종 9)에 갖추어졌다.

## 1. 조선시대의 성균관

### 1) 직제

조선 개국 초에는 고려시대의 직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대사성(大司成, 정3품) 1인, 췌주(祭酒, 종3품) 1인, 악정(樂正, 정4품) 2인, 직강(直講, 정5품) 1인, 전부(典簿, 정6품) 1인, 박사(博士, 정7품) 2인, 순유박사(諄諭博士, 종7품) 2인, 진덕박사(進德博士, 정8품) 2인, 학정(學正, 정9



성균관 명륜당

품) 2인, 학록(學錄, 정9품) 2인, 직학(直學, 종9품) 2인, 학유(學諭, 종9품) 4인을 두고, 서리(書吏) 2인을 배속시켰다.

또한 2품 이상의 대신(大臣) 가운데 학덕이 높은 자를 성균관제조(成均館提調) 또는 겸대사성(兼大司成)에 겸임시켜 교육에 임하도록 하는 제도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그리고 성균관의 겸관(兼官)으로 지사(知事)와 동지사(同知事)가 설치되었다. 1401년(태종 1)에 직제의 일부가 개정되어 췌주가 사성(司成), 악정이 사예(司藝), 전부가 주부(注簿)로 개칭되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의 관제 대개혁 때 성균관의 직제도 바뀌어 정비되었다. 『경국대전』에 명문화된 성균관 직제는 지사(정2품, 겸관) 1인, 동지사(종2품, 겸관) 2인, 대사성(정3품) 1인, 사성(종3품) 2인, 사예(정4품) 3인, 직강(정5품) 4인, 전적(典籍, 정6품) 13인, 박사(정7품) 3인, 학정(정8품) 3인, 학록(정9품) 3인, 학유(종9품) 3인을 두고, 서리 10인을 배속시켰다.

## 62 제장 성균관·향교의 개관

사성 이하 전적 이상의 관원 중 5인은 종학(宗學)의 교관을 겸하였고, 전적 이하의 관원중 16인은 사학(四學)의 교관을 겸하였다.

### 2) 입학 자격과 정원

성균관은 관리후보생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으므로 입학하여 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대체로 양반사대부 자제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반사대부 자제라 하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였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① 생원과 진사, ② 사학생도 중 15세 이상으로 『소학』 및 사서(四書)와 오경 중 1경에 통한 자, ③ 공신과 3품 이상 관리의 적자(嫡子)로서 『소학』에 통한 자, ④ 문과 및 생원·진사시의 초시인 한성시(漢城試)와 향시(鄉試)에 합격한 자 ⑤ 관리 중 입학을 원하는 자에게만 입학자격이 주어졌다.

성균관유생의 정원은 개국 초에는 150인이었으나, 1429년(세종 11)에는 200인으로 증원되었다. 이 중 반은 상재생(上齋生) 또는 상사생(上舍生)이라 하여 생원(生員)·진사(進士)로서 입학한 정규생(正規生)이었으며, 나머지 반은 기재생(寄齋生) 또는 하재생(下齋生)이라 하여 유학(幼學) 중에서 선발된 자들이었다. 기재생은 대체로 사학생도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한 승보기재(升補寄齋)와 부조(父祖)의 공덕으로 입학한 문음기재(門蔭寄齋) 등이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재정의 궁핍과 성균관 재원의 감소로 입학정원이 75인으로 대폭 감축되었으나, 1742년(영조 18)에 126인으로 다소 늘어났다. 그 중 106인은 생원·진사이고, 나머지 20인은 기재생이었다.

### 3) 교육재원

유생들은 동재와 서재에서 기숙사생활을 하는 동안 음식과 학용품 등의 생활필수품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관비생이었다. 성균관 유생들의 교육경비로 쓰이는 전곡(錢穀)의 출납은 양현고(養賢庫)에서 담당하였다. 이같은 비용은 국가에서 성균관에 내려준 학전(學田)의 세수(稅收)와 성균관 외거노비(外居奴婢)의 신공(身貢)으로 충당되었다. 성균관 노비는 선상노비(選上奴婢)와 외거노비(外居奴婢)로 구분되는데, 선상노비는 성균관내의 잡역에 종사하였고, 외거노비는 지방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신공을 바쳤다. 이 밖에 조선 중기 이래 성균관의 수세지로 각 지역의 토전(土田)을 절수(折受: 몇 번에 나누어서 받음.)받기도 하였다.

학전은 개국 초에 지급된 1,035결(結)과 1431년(세종 13)에 지급된 965결을 합쳐 2,000결

이던 것이, 1447년과 1484년(성종 15)에 더 보충이 되어 2,400여결이 되었다. 성균관 노비는 개국 초에 그 수가 약 300명이었는데, 대부분 고려 충렬왕 때 성균관을 재건하는 데 공이 컸던 안향(安享)이 기증한 사노비(私奴婢)의 후손들이었다. 1419년(세종 1)에 왕이 노비 100명을 더 내려주고, 그 뒤의 여러 왕들도 유학진흥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비를 내려주는 예가 있어서 그 수는 4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조선 초기인 성종 때에 2,400여 결이나 되었던 학전은 17세기 중엽인 효종대(孝宗代)에 358결로 크게 감소되었으며, 그 뒤 400결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속대전』에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절수 받은 토전도 조선 후기에는 여러 궁가(宮家) 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빼앗기는 지경이었다. 한편 『태학지』에 의하면, 노비의 수는 조선 초기에 400인 정도이던 것이 18세기 전반 경에는 신공을 바치는 장노비(壯奴婢)의 수가 크게 늘어나 7,000여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성균관 노비가 1750년(영조 26)에 호조(戶曹)로 이속됨으로써, 이후로는 호조에서 신공을 거두어 1750년에 거둔 성균관 노비의 신공총액만큼을 성균관에 보내게끔 되었다.

#### 4) 학령(學令)

성균관에 입학한 유생들은 동재와 서재에 나누어 기숙하면서 공부하였는데, 이들은 아침·저녁 식사 때마다 식당에 비치된 명부인 도기(到記)에 서명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원점(圓點)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아침·저녁 두 번 식당에 들어가 서명해야 원점 1점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원점은 오늘날의 출석점수와 같은 것으로서 성균관 유생들로 하여금 동·서재에 기숙하면서 학업에 열중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 원점 300점을 취득한 자, 즉 성균관에서 통산 300일 이상 기숙하며 공부한 유생에게만 관시(館試: 성균관유생에게만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준 문과 초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한편 성균관유생들은 재학중 학령(學令)의 적용을 받았는데, 학령은 성균관 학칙인 동시에 관학(官學) 일반의 학칙으로서 주자학정신(朱子學精神)이 철저히 반영되어 있으나 그 윤리적 기초는 소학정신(小學精神)에 두고 있었다.

학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관일강(學官日講: 經書試驗)과 순과(旬課: 製述試驗)를 실시하며, 그 성적은 연말에 종합하여 식년시(式年試)에 참작한다. ② 노(老)·불(佛)·백가자집

(百家子集)을 읽는 자, 고담이론(高談異論)을 좋아하는 자는 별한다.

③ 조정을 비방하는 자, 사장(師長)을 모독하는 자, 권세에 아부하는 자, 주색(酒色)을 말하는 자는 별한다. ④ 오륜(五倫)을 범하는 자, 절개를 굽힌 자, 교만한 자, 스스로 자랑하는 자, 사치한 자,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민 얼굴빛으로 남의 환심을 사려는 자 등은 재(齋)에서 쫓아낸다.

⑤ 고강분수(考講分數: 講經試驗의 점수)는 대통(大通)·통(通)·약통(略通)·조통(粗通)으로 나누며, 조통 이하는 별한다. ⑥ 매월 8일·23일은 정기휴일로 세탁하거나 부모를 찾아뵈오는 여가를 준다.

⑦ 해마다 품행이 단정하고 시무(時務)에 밝은 유생 1, 2인을 천거하여 서용한다. 성균관의 교육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사서와 『예기』, 『춘추』, 『시전』, 『서전』, 『주역』의 오경을 비롯하여 『근사록 近思錄』, 『성리대전 性理大全』, 『통감 通鑑』, 『좌전 左傳』, 『송원절요 宋元節要』, 『경국대전』, 『동국정운』 등이었는데, 과거과목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시(詩)·부(賦)·송(頌)·책(策)과 같은 글을 짓는 방법을 비롯하여 왕희지(王羲之)와 조맹부(趙孟頫)의 필법도 익히게 하였다. 주자학(朱子學) 이외의 이단서(異端書)는 학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철저히 배격되었다.

성균관 유생들이 재학중 학습한 내용에 대한 교육평가로는 학령에 명시되어 있는 학관일강과 순과를 비롯하여 예조월강(禮曹月講)이 있었는데, 그 성적은 연말에 종합되어 식년시와 천거(薦擧)에 참작되었다.

한편, 성균관유생들은 과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전을 부여받았는데, 관시·알성시(謁聖試)·춘추도회(春秋都會) 등이 그것이며, 그 밖에 천거의 특전을 받기도 하였다.

성균관은 문과 준비를 위한 과업교육(科業教育)을 담당하는 기관이었기에, 입학규정은 엄하면서도 일정한 재학기간이나 졸업일이 없었다. 과거에 합격하는 날이 바로 졸업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생들이 재학하는 동안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은 그들의 기숙사인 동·서재였다. 재에서의 유생들의 생활은 규칙이 엄격하였고, 이 규칙은 유생들의 자치활동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태학지 太學志』에 의하면 유생들의 자치기구로 재회(齋會)가 있었고,



그 임원으로 회장적인 장의(掌議)를 비롯하여 색장(色掌)·조사(曹司)·당장(堂長) 등이 있었다. 유생들은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는 재회를 통해서 자치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런데 유생들의 자치활동은 때로 대외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즉 조정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시정 요구, 선대의 유신(儒臣)에 대한 문묘배향(文廟配享) 요구, 이단에 대한 배척 요구 등이 있을 때는 재회를 열어 소두(疏頭)를 뽑고 유소(儒疏)를 올렸으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행(疏行: 집단시위)이나 권당(捲堂: 수업거부, 단식투쟁) 또는 공관(空館: 동맹휴학) 등의 실력행사로 맞섰다.

## 2. 조선후기의 성균관

성균관은 대체로 인재양성의 기능과 함께 선성(先聖)과 선현(先賢)에 대한 봉사(奉祀)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 있어서는 성균관이 주자학을 연구, 보급하는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기능과 주자학 이념에 입각하여 관리를 양성하는 관리양성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지배사상과 관료체제를 재편성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공신·훈신(勳臣)의 자제들에 대한 각종의 과거·교육 특전이 부여됨으로써 성균관은 주자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집권 양반자제들의 입신출세의 도구로 이용되게 되어 성균관교육은 침체되어 버렸고, 그 대신 주자학의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사학(私學), 즉 서원(書院)이 지방 양반자제들의 과거준비교육기관으로 발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시대의 사학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선 초기 성균관의 교육주도권은 다시금 사학인 서원에 되돌려주게끔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성균관은 관념적인 면에서 19세기말 신교육제도가 실시될 때까지 ‘풍화지원(風化之源)’·‘현사지관(賢士之關)’으로서의 위치는 면면히 지켜왔다.

연산군의 폭정으로 한때 연락(宴樂)의 장소로 화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던 성균관은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려 폐허화되고 말았다.

그 중건공사는 전쟁이 끝난 뒤인 1601년에 시작되어 1606년까지 대성전·동무·서무의 문

묘와 동재·서재·명륜당 등의 주요건물이 다시 세워졌고, 1626년(인조 4)에 존경각·정록청·식당·양현고 등의 부속건물도 증건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 비천당(丕闡堂)·일량재(一兩齋)·벽입재(關入齋)·계성사(啓聖祠)·육일각(六一閣) 등의 새로운 시설이 건립되어 그 규모가 전보다 확대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성균관의 직제가 일부 바뀌어 왜주(정3품) 1인과 사업(司業, 정4품) 1인을 새로 설치하는 대신 사성(宗3품)·사예(정4품) 각 1인을 감축하였으며, 서리 10인을 21인으로 증원시켰다.

그리고 실제 운영상의 직제로서 임시직이거나 겸직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법전인 『속대전』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태학지』에는 명시되어 있는 겸직강(兼直講) 1인 및 겸박사(兼博士)·겸학정(兼學正)·겸학록(兼學錄)·겸학유(兼學諭) 각 3인이 증설되었다.

입학자격은 다소 완화되어 『경국대전』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 이외에 ① 서울과 지방의 유생 중 시강(試講)에 뽑힌 자, ② 과시(科試)의 하나인 통독(通讀)에서 기준점수는 얻었으나 합격하지 못한 자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양반신분이 아닌 서출(庶出)의 생원·진사도 입학하였는데, 이들은 남현(南軒)에 있으면서 공부하였기에 남반(南班)이라 불렸다.

한편, 성균관 유생에 대한 과거의 특전은 초기에 비하여 확대되어서 관시·알성시·춘추도회 외에 전강(殿講), 춘추도회를 확대시킨 절일제(節日製: 節製 또는 泮製라고도 함.), 황감제(黃柑製), 도기과(到器科), 응제(應製) 등이 있었다. 그리고 관시의 응시에 주로 적용된 원점 300점의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1744년(영조 20)에는 50점으로 낮추어졌다.

### 3. 근·현대시기의 성균관

대체로 조선 후기에는 성균관 자체의 교육재정이 궁핍해지고, 과업교육(科業教育)의 기능까지 담당하는 서원이 발달한 데다 성균관 유생들이 당쟁에 휩쓸려 학업을 소홀히 하고, 집권층인 벌열(閥閥)들이 과거시험을 불공정하게 운용함으로써 성균관은 그 교육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부진하게 되었다.

1876년(고종 13) 개항이 된 뒤 개화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던 구교육의 총본산인 성균관은 더욱 침체하게 되었다. 이에 성균관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1887년(고종

24) 성균관에 경학원(經學院)을 부설하였지만, 이것이 특수 귀족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종래의 유학교육만을 답습함으로써 당시의 개화풍조에 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

그 뒤 1894년(고종 31)에 갑오경장의 단행으로 대부분의 관제가 근대적으로 개혁되고, 과거제도의 철폐와 함께 새로운 관리등용법이 마련됨으로써 성균관은 인재양성의 교육기능을 상실한 채 학무아문(學務衙門)의 성균관 급 상교서원국(成均館及庠敎書院局)으로 변신되고 말았다.

그러나 다음해인 1895년에 성균관은 관제가 새로이 마련되어 장(長: 學部 奏任官이 겸임) 1인, 교수(敎授: 學部 判 奏任官이 겸임) 2인, 직원(直員: 判任) 2인이 두어졌고, 경학과(經學科)의 설치로 교육기능이 부활되었다.

이때의 성균관은 종전의 성균관과 달리 개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적인 유학과 도덕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근대화에 대처해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었다.

따라서 경학과의 학제도 옛 학제와 달리 3년제 학교로서 학급이 편성되고 학년이 전·후 2학기로 구분되었으며, 입학시험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20세 이상 40세까지의 연령제한을 두었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졸업증명서를 주어 졸업시켰다.

학과목도 많이 달라져서 유학 등의 전통적 과목 외에 본국역사(本國歷史)가 필수과목으로, 만국역사(萬國歷史)·본국지리(本國地誌)·만국지리(萬國地誌)·산술이 선택과목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듬해인 1896년에는 선택과목도 모두 필수과목으로 바뀌었다.

그 뒤 1905년(광무 9)에 성균관의 관제가 개정되어 장이 칙임관(勅任官)으로, 교수가 3인으로 늘어나면서 판임관(判任官)으로 바뀌고, 박사(博士: 판임관) 3인이 신설되었다. 박사는 1907년(융희 1)에 사업(司業)으로 개칭되었다.

그 다음해에는 성균관이 경학 외에 기타 학과, 즉 신학문도 학습하는 곳으로 법규가 바뀌었다. 그러나 일본에 병탄된 지 1년 만에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강요당하여 경학원(經學院)으로 개칭되면서, 최고학부로서의 교육기능을 상실당하고 석전향사(釋奠享祀)와 재산관리를 주임무로 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대한제국 고종 때인 1887년에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成均館)은 경학원(經學院)으로 개칭되었으며 1894년에 폐지되었다. 그 후로도 성균관은 유생(儒生)의 교육기관

으로서 명목만은 유지해갔으나, 1910년 일제에 국권이 침탈된 이후 유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마저 상실되었고, 폐지되었던 경학원으로 개칭되어 경전을 가르치는 사설 전문학원으로 전락하였다. 1945년 10월 17일 군정법령 제15호 제국대학명칭변경에 의해 경학원은 성균관으로 명칭을 회복하였다. 광복 이후 유림의 대표 김창숙 선생의 주도하에 성균관의 학통을 이어 1946년 전국 향교의 재산을 모아 성균관대학이 설립됐다. 이후 재단분규가 있었고, 이로 인해 1963년에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와 재단법인 성균관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회장이 1965년부터 1979년까지 성균관대 재단이사장을 맡아 대학을 지원했고, 1996년 삼성그룹이 다시 재단에 참여해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의 성균관은 성균관대학교는 별도로 재단법인으로 개편되어 유교 및 전통문화 전문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단법인 ‘성균관’은 윤리정신에 기하여 도의의 천명, 윤리의 부식(扶植), 문화의 발전 및 공덕의 진흥을 위하여 1963년 12월 1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이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에 있다. 주요사업은 문묘향사, 성균관 및 유도회의 유지관리, 지방향교의 통합관리, 학술 및 문예의 연구보급, 교화 및 사회사업의 경영 및 보조, 유도신문의 간행 등이다.

## 제2절 향교(鄕校) 개관

### 1. 향교의 기능과 운영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국도(國都)를 제외한 각 지방에 관학이 설치된 것은 고려 이후에 이루어졌다. 고려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경(京) 12목(牧)을 비롯한 군현에 박사와 교수를 파견하여 생도를 교육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향학(鄕學)의 시초이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건립된 최초의 향학은 서경의 학원(學院)으로 그 뒤 1003년(목종 6)까지는 최소한 3경 10목에 향학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향학을 곧 향교의 전신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인가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1127년(인종 5)에 인종이 여러 주(州)에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렸고, 각 군현에 학교가 설립된 여러 사례들이 나타남을 감안할 때 이 시기를 향교의 성립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향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삼국 중 가장 먼저 고대국가 수준에 도달한 고구려가 왕경에 태학(太學)을 두어 유학을 가르쳤다는지, 이어 백제가 박사를 두고 신라가 대학(大學)을 세웠던 사실은 새로운 정치이념과 권력구조의 모형을 유교 속에서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뒤 통일신라기를 거쳐 고려에 이르면 지금까지 상징적 기능만으로 이해되던 유교적 이념과 유교적 정치구조의 내용이 새로운 시대의 지표로 인식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고려 초 왕건(王建) 이후 역대 고려왕들은 이 새 정치이념인 유교를 새 사회의 질서의 근간으로 하여 정치권력구조를 조직하려 하였다. 이러한 역사의 추세 가운데에서 왕경이나 왕실의 정치구조뿐만 아니라, 기층사회까지 유교이념을 침투시키려는 정치의지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구현하는 기구로 향교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이러한 하향적인 통치방향과 함께 신라 말 고려 초에 등장한 지방호족들의 정치·사회활동에 대한 일정한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교였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학원을 세워

유교를 교육하였다. 즉 5소경에 이른바 학원의 설치는 하향적 관제체제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호족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 운영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 학원은 지방사회 내부에서 자기발전의 도구로서 유학교육의 필요가 절실하였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파악할 때 향교는 상향적·하향적 요구의 합치점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향교는 상향적 역사운동에서 나타난 측면보다는 하향적 운동과정에서 형성된 교육기관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정치권력이 기층사회에 침투하려는 구체적 역사현상은 군현제가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따라서 향교는 군현제의 운영과 함께 이해되는 것이 그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군현제의 운영은 후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의 군현이 속현(屬縣)의 상태로서 외관(外官)이 부재한 상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군현제 운영의 부진상은 향교운영에도 동일한 문제점을 노출하는 것이었다.

성종 때 12목에 외관의 파견과 함께 경학박사·의학박사를 파견하였던 것은 지방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나 아직 완벽한 지방교육제도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교의 적극적인 유학교육의 면모를 우리 역사에서 나타내는 것은 조선에 이르러 군현제의 재정비와 강력한 운영이 실시되던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향교교육은 과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제도는 유학교육의 성과를 수렴하는 제도라고 할 때 지방에서의 유학교육도 과거제도와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의 과거제도에는 향공(鄉貢)이라 하여 지방에서의 천거가 있었다.

이는 개경과 함께 지방에서의 교육의 실상을 시사하는 것이고, 특히 인종 이후 강화된 향학 운영의 자료는 지방군현에서의 유학교육의 면모가 일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려의 모든 시기를 통하여 본다면 향교교육의 실태는 군현제의 강화와 함께 실시되는 조선시대의 향교제도와 비교할 수 없는 저조한 수준이다.

고려시대에 하향적 교육정책, 즉 교화적 정책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 유학교육기관으로서 향교의 실상은 오히려 고려의 사사로운 기구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육적 성과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교는 조선왕조의 성립과 함께 정책적으로 그 교육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을 확대, 강화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교의 전반적 설명은 조선왕조에서 전개된 역사상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진다.

## 1) 향교의 재정

향교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향교의 교사(敎舍) 등 시설물의 설치·보수·유지, 교수관(敎授官)의 후생비, 교생들의 숙식비, 학업활동에 부수되는 제반비용, 그리고 향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석전례·향음례 등에 이르는 비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조선왕조는 막대한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향교를 각 군현에 세우고 유학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이른바 학전(學田)과 학노비(學奴婢)를 공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승유억불적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태종과 세종연간에 지급된 학전과 학노비의 내용은 [표 1] 과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전(稟田과 祭位田 포함)과 학노비가 향교운영에 적정한 수준인가는 알 길이 없다. 서울인 한성에 사부학당의 교사가 세워지고 사학(四學)으로서의 체제가 잡혀진 것이 1430년(세종 12) 8월경으로 그 이전에는 사찰(寺刹)을 빌려 교육하였던 것으로 미루어보면, 향교가 독립건물을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 태종연간에 지급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규모는 실제 소요되는 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었나 짐작된다.

[표1] 향교의 학전과 학노비

구 분	學田(結)				學奴婢(口)	
	태종		세종	성종	태종13년	태종17년
	襄田	祭典				
留守官	50	6	15	10	20	30
大都護府·牧	40	4	10	10	15	25
都護府(有)	15	4	4	10	10	20
都護府(無)	10	4	4	10	10	20
郡(有)	15	4	4	7	7	15
郡(無)	10	4	4	5	7	15
縣	10	4	2	5	5	10
開城府	20	6	20			

1) ( ) 안의 有·無는 有敎授官·無敎授官임.  
2) 태종 6년 윤7월에는 도호부에 품전 15결씩 지급됨.

그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후생문제, 학생들의 숙식문제, 그 밖에 학교의 운영문제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는 이들 학전으로 충당하였는지는 의문스럽다. 특히 초기 학전의 운영방식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즉 초기에 학전의 경우는 과전법(科田法) 운영방식을 따랐다면 수조(收租)

를 통해서 그 재정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향교운영의 책임을 지는 주체는 수령이었기에 향교의 독립적 운영에 타격이 컸으리라 추측된다. 수령의 책임 아래 운영되는 향교는 자연히 수령의 개별적인 행정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한 이상 향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면할 형편은 아니었다. 이에 1484년(성종 15)에는 <제읍향교급전절목 諸邑鄉校給田節目>을 제정하였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 1492년에 반포된 『대전속록 大典續錄』의 호전(戶田)·학전조에는 성균관을 비롯해서 주·부·군·현 등에 각각 400결·10결·7결·5결씩을 지급하여 수세(收稅)하여 그 재정수요를 수령에게 검색하도록 하였다.

향교의 재정은 개국 초로부터 향교에 급여된 위토(位土) 전답의 수세 외에도 지방관이 분급한 전곡 및 요역(徭役) 그리고 향교에 바치던 전곡의 식리로 충당되었다.

향교가 소유한 전토는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언양향교(彦陽鄉校)의 경우 1895년(고종 32) 당시 답(沓) 69두락의 위토를 소유하였고, 안의향교(安義鄉校)는 1788년(정조 12) 당시 전답은 7결 77부(負)를 소유하는 등 지역 및 향교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위전(學位田) 이외의 수입원으로는 모군(募軍)의 대납전(代納錢), 어장의 망세(網稅), 그리고 향교경비의 보충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섬학전(瞻學田)·광학전(光學田) 등 기금의 이식이 있었다.

그 밖에도 중건·중수의 공역이 있을 때에는 관청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였고 필요하면 유전(儒錢)을 각출하거나 그 지방 유지의 보조를 받기도 하였다. 향교에서 지출되는 비용의 세목은 춘추 석전(釋奠)의 제수(祭需)와 교임(校任)의 공궤(供饋), 백일장과 과거응시에 참가하는 유생에 대한 조전(助錢), 교복(校僕) 등의 식료(朔料)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2) 향교의 교관(教官)

『경국대전』에는 교수관을 교수(教授, 종6품)와 훈도(訓導, 종9품)로 구분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군현은 약 330여개 소에 달하였으나 수령을 파견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었던 조선 초기에는 교수관의 충원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정식 관인이 아니면서 교수직을 감당하는 자들은 교도직(教導職), 또는 학장(學長) 등의 이름으로 재지(在地) 신분의 생원·진사 중에서 선발하여 충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제상 교수관으로 부임을 하여야 하는 도호부 이상의 군현의 교수관은 문과 급제자들 중 삼관(三館: 成均館·校書館·承政院)의 권지(權知)들로 교수관을 보임하였다. 또는 시기가 좀 늦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문신좌천자(文臣左遷者)로 보임하기도 하였다.

훈도 또는 학장 등도 생원이나 진사, 최악의 경우는 지방에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선발하여 보임시켰다. 그러나 조선 전기부터 향교교관의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 이유는 문과에 합격한 자가 지방의 교관직에 부임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원·진사들도 과거를 통하여 중앙의 행정관료로 진출하는 것을 희망하였고 교도직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태종·세종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교관직에 대한 유인책과 논공행상의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교관직에 대한 기피현상은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종종 때에는 일경(一經)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군역을 면하려는 방편으로 교관직에 머무르는가 하면 명종은 어느 정도의 학식이 있는 자가 있으면 사회적 신분에 관계하지 않고 학장으로 임명하는 교육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교수관의 배치는 교육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예가 허다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가면 보다 관료적인 기능의 교관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1586년(선조 19)에 보이는 제독관(提督官) 혹은 교양관(教養官)이라고 하는, 교수관보다 더 관료적인 교관으로서 계수관(界首官)에 해당하는 관원을 도나 향교에 파견하여 향교교육을 독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향교교육은 관료적 범주 안에서 정상화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였던 조선왕조는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기함으로써 관료적인 교육정책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영조 때의 『속대전』에서 향교의 모든 교관은 없어지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관료적 조직으로 유교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서 유능한 학도들은 강학능력을 상실한 향교를 멀리하고, 서원·서당·정사 등 사학기관을 찾게 되었다.

향교는 이제 문묘의 향사를 하는 관학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였고, 지방 양민들의 군역을 피역하는 장소로 전락하였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향교의 강학기능을 회복하고자 지방관은 따로 양사재(養士齋)·흥학재(興學齋)·육영재(育英齋) 등을 향교 부속으로 건립하기도 하였고, 1886년에는 향교의 재정으로 관학원(官學院)을 설립하도록 지시하여 3인의 훈장을 두고 강학에 임하도록 하였으나 그 성과 및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 3) 향교의 교생(校生)

조선이 신분제 사회임을 전제한다면 향교에서 유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사회적 신분은 명백해진다. 즉 16세기에 오면 “향교에는 균역을 담당할 농민, 즉 양민들이 교생이 되고 있어 교생들에게 주어지는 면역(균역)의 혜택을 받고자 하니, 양민들 중 교생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비등한 것으로 보아, 조선왕조의 양반의 신분만이 향교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논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유교교육은 양인(養人)과 교화라는 양면적 목표를 가지고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는 개국 초부터 국역의 대상이 되는 신분이라도 누구나 독서를 원하면 향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던 것이다. 세종 때에 신백정(新白丁)에게 향교입학을 허락한 것이나 조선 초기부터 자주 보이는 농민들에게 향교교육을 허락한 점은 그러한 반증이다.

16세기에 와서 실록자료에 ‘교생은 양반이어야 한다.’는 논리의 주장이 보이는 것은 이 시기에 조선왕조의 신분제적 편제가 강화되는 것을 배경으로 상위신분의 양반이 유교교육에 보다 전력하여야겠다는 명분적인 뜻이 강한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양반신분층의 배타적인 교육기회의 독점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생들의 사회적인 신분은 개국 초부터 이른바 양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으며, 16세기 이후 강화 양반신분 중심의 사회체제 속에서도 교생은 평민들이 상당수 점유하고 있었다. 이른바 동재(東齋)·서재(西齋)로 기숙사의 구별을 나타내기도 하고, 액내(額內)와 액외(額外)로 양반과 평민 교생들을 구분하였다.

일단 교생이 되면 그들의 사회신분이 양반이건 평민이건 법제적으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균역의 문제라든지, 과거시험을 응시하는 자격을 얻는다든가 하는 점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었다.

즉, 향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생원·진사시험 회시에 직접 응시하는 특전을 부여받거나 일강(日講)·월과(月課)에 우등한 자는 호역(戶役)을 면제받는 다든지 할 때, 다만 교생이라는 신분만이 요구되는 것이지 양반이나 평민이냐는 문제되지 않았다.

다만 교생들의 신분구성이 다양하였던 관계로 나중에 그들의 직업선택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생원·진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에서부터 역학생도(譯學生徒)와 각사(各司)의 이서직(吏

書職)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하는 길이 있었다.

개국 초에는 교생의 정원은 부·대도호부·목에 50명, 도호부에 40명, 군에 30명, 현에 15명으로 배당되었으나, 『경국대전』에는 이것이 증액되어 각각 90명·70명·50명·30명으로 재조정되어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교생의 정원은 법적으로 16세부터 국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되는 숫자이다.

따라서 16세 미만인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향교에서 교육이 가능하며 이들이 이른바 ‘동몽’들이다. 교생들의 교육연한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다. 군액(軍額)의 대상이 부족할 경우는 연령의 상한선을 20세까지 제한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40세까지는 향교에 머무르며 학생신분을 허락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 4) 향교의 교육과정

향교는 시문(詩文)을 짓는 이른바 사장학(詞章學)과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는 경학(經學)을 교과내용으로 한다. 경학은 경전뿐만 아니라 사서(史書)를 함께 공부하였다.

이렇게 관인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향교교육의 내용은 제도적으로 과거제와 일정한 관계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 향교에 일정기간 출석한 자에 대하여 과거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원점법(圓點法)의 적용이 그 예이다.

또한 향시의 예정 합격인원을 도별로 제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표2]는 향시의 도별 합격예정자의 수와 향교의 정원수를 대비한 것이다. [표2]와 같이 서울과 지방과의 향시 합격률에는 차이가 난다.

[표2] 향시의 합격예정자수 및 향교정원

구 분		館試	한성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평안	황해	함경	계
합격	문과시		40	20	25	25	30	15	15	10	10	240
예정자	생원시	50	200	60	90	90	100	45	45	35	35	700
수	진사시		200	60	90	90	100	45	45	35	35	700
향 교 정 원		200	400	1,770	2,100	2,350	2,870	1,240	2,160	1,140	1,320	15,330
1) 한성부의 향교 정원은 4부학당의 정원임. 2) 각도의 향교정원은 경국대전과 각 군현의 향교 정원을 토대로 산출한 것임.												

서울의 4부학당 정원 400명에 생원·진사 초시 합격예정인원 400명은 100%합격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각도 향시의 경우는 7% 내외의 저조한 합격률을 보여준다. 향교가 관인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기능이 있다고 해도 그 문호라는 것은 지배신분인 양반 신분이 집중되어 있는 한양과는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또한 기층신분인 평민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향교의 교과과정은 생원·진사의 시험과목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생원초시의 시험과목이 오경의(五經義)·사서의(四書疑) 2편(編)이며, 진사초시에는 부(賦) 1편, 고시(古詩)·명(銘)·잡(箴) 중 1편을 짓게 되어 있다. 복시(覆試)의 경우도 초시의 것을 되풀이한다. 사장(詞章)인 제술(製述)과 경학공부를 병행하도록 시험이 출제되었던 것으로 보아, 향교교육도 이에 준하였을 것이다.

또한 세종이 “15일 동안은 시문을 제술하고 15일 동안은 경서와 제사(諸史)를 강독하게 하며, 제술과 강론에서 우등한 자는 5인씩 녹명(錄名)하여 예조에 보고하여 바로 생원회시에 응시하게 한다.” 고 한 자료는 대체로 향교교육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경국대전』 장려조에는 “교생으로서 독서한 일과를 매월말에 수령이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가 순행하여 고강(考講)하고, 영에 따라 권장함을 문부(文簿)에 기록하였다가 교관이 전최(殿最)할 때에 그의 월과 일강을 빙고하여 우등한 자는 호역(戶役)을 헤아려 감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향교에서의 공부내용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관찰사의 고강에 낙강한 교생은 교생신분을 박탈당하였다.

양란 이후에 등장한 납속면강첩은 고강을 통하여 교생으로부터 박탈되는 것을 납속으로 면제받고자 한 것이었다. 한편 교생들이 강습한 교재는 『소학』, 사서오경을 비롯한 제사와 『근사록 近思錄』, 『심경 心經』 등으로 성균관이나 서원의 그것과 크게 차이는 없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학』과 『가례』는 조선 초기부터 교생들에게 권장된 책으로서, 각종의 고강이나 과거의 시험과목으로 부과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향교는 교육용 서책의 부족을 심하게 겪었고, 이는 향교교육 자체를 곤란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 2. 향교 건물의 구성과 배치

향교의 배치는 배향공간과 강학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지고, 이 밖에 일부 변형된 방법들도 쓰이고 있다. 향교가 자리잡은 대지가 평지인 경우는 전면이 배향공간이 오고 후면에 강학공간이 오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를 이루고, 대지가 구릉을 낀 경사진 터이면 높은 뒤쪽에 배향공간을 두고 전면 낮은 터에 강학공간을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이룬다.

그러나 밀양향교(密陽鄕校)에서처럼 동쪽에 강학공간을, 서쪽에 배향공간의 두는 예외적인 배치법도 있다. 평지에 건축된 나주향교(羅州鄕校)의 배치와 평면을 살펴보면, 이는 전묘후학의 배치로 남쪽 정문인 외삼문(外三門)을 들어서면, 배향공간의 중심으로 출입하는 정문인 내삼문(內三門)까지 직선의 길이 나 있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대성전(大成殿, 보물 제394호)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대성전에는 공자(孔子)의 위패를 비롯하여 4성(四聖)과 우리 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일반적으로 향교에서는 대성전 앞, 동과 서 양쪽에 공자의 제자들과 현인들의 위패를 모시는 동무와 서무가 건축되나, 이곳에서는 그 자리만 남아 있다.

대성전 뒤로는 담장을 쌓아, 그 뒤쪽에 있는 강학공간과 구분하였고, 대성전과는 동쪽 모서리에 만든 셋문으로 출입하고 있다. 강학공간은 대성전의 중심축상, 제일 안쪽으로 중심공간인 명륜당(明倫堂)을 두고, 그 앞 동쪽과 서쪽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숙식하는 동재와 서재를 두고 있다. 명륜당은 중앙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중심건물을 두고 그 양쪽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 되는 건물을 약간 사이를 띄워 건축하였다.

동재와 서재는 좌우대칭으로 정면 4칸, 측면 1칸반으로 전면 반칸은 뒷마루이고 나머지는 모두 온돌방이다. 동재 앞쪽에는 비각이 있고, 동쪽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살림을 맡아 해주는 교직사(校直舍)가 자리잡고 있다.

다음으로 구릉지에 건축되어 전학후묘의 배치를 이루고 있는 영천향교(永川鄕校)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쪽 제일 앞쪽으로 누문인 풍화루(風化樓, 정면 3칸, 측면 2칸 중층)가 있고, 이 누의 아래층에 낸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명륜당이 있고, 그 앞쪽 양쪽에 동재와 서재가 자리잡고 있다.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3칸으로 중앙에 큰대청(정면 3칸·측면 3칸)을 두고 그 좌우 양쪽으로 온돌방(1칸×3칸)이 하나씩 있다.

동재와 서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대청(1칸×2칸)과 온돌방(1칸×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륜당 뒤쪽 높은 곳에는 내삼문이 있고 이 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배향의 중심전각인 대성전이 서 있으며 그 앞 동서 양쪽에 동무와 서무가 자리잡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내부는 통간(通間)으로 되어 있으며, 동무와 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장방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밀양향교에서는 외삼문을 들어서서 동북쪽으로 진입하면 풍화루가 자리잡고 있고, 이 누의 아래층에 있는 삼문을 통하여 명륜당 마당에 이른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중앙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대청을 두고 좌우에는 온돌방(1칸×1.5칸)을 하나씩 두었으며 앞에 반칸 너비의 툇마루를 두었다.

명륜당 남쪽 동서 양쪽에는 동재와 서재가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정면 6칸, 측면 1칸으로 남쪽에서부터 마루(1칸)·온돌방(2칸)·대청(2칸)·온돌방(1칸)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향공간은 명륜당 뒤쪽에 자리잡은 것이 아니라 명륜당 서쪽 터에 있어 명륜당 앞마당을 돌아 들게 되어 병렬형 배치를 이루고 있다.

대성전의 정문인 대정문은 정면 9칸 측면 1칸의 장방형 평면을 이루는 회랑에 삼문을 만들어 강릉향교의 대성전에서와 유사한 모습을 이루고 있다. 정면 높은 터에 남향한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통간이며 이의 앞쪽 동서로 자리잡은 동무와 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되어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향교의 배치는 평지에서는 전묘후학이고 구릉지에서는 전학후묘가 일반적이거나 때로 배향공간과 강학공간이 나란히 배치될 때도 있다. 또 각 건물의 평면을 살펴보면 강당은 중앙에 대청을 두고 좌우로 온돌방을 두며, 동재와 서재는 온돌방과 대청 또는 온돌방만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성전과 동·서무는 통간의 장방형 평면을 이루며 내부의 바닥은 전바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배향공간과 강학공간 이외에 향교의 살림을 맡는 교직사는 부엌·방·대청·광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일반 민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 공간은 강학공간과 가까이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존경각(尊經閣)은 방형(方形)의 단일평면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고 때로 동무나 서무의 한 곳을 존경각으로 할 때도 있으며, 이때에는 존경각이라 하지 않고 경판고(經板庫)라 부른다.

향교건축의 구조양식은 대성전·동무·서무·명륜당·동재·서재 등 개별 건물들이 일률적으로

하나의 건축구조양식을 이루지 않고 대략 세 가지 양식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주심포(柱心包) 양식, 익공(翼工)양식, 그리고 민도리집양식이 일반적으로 대성전은 주심포양식(예: 강릉향교 대성전·장수향교대성전·나주향교대성전)과 익공양식(예: 안성향교대성전·온양향교대성전)으로 나누어진다.

동무와 서무는 익공양식이 주류를 이룬다. 다음 명륜당은 익공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동재와 서재는 익공양식과 민도리집 양식으로 건축된다. 한편 교직사는 일반주택과 같은 공간구성을 하고 있는 만큼 민도리집 양식을 이루고 있으며 존경각은 익공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상에서 고찰한 주심포·익공·민도리집 등의 기둥구조양식 이외의 다른 구조상의 요소들, 즉 기단·초석·창호·지붕 등은 모두 어떤 일정한 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각마다 다양하게 구성됨으로써 일반 건축물에 나타나 있는 모든 양식들을 볼 수 있다. 향교는 선현의 배향과 학생의 교육인 강학을 기능으로 하는 만큼 이 두 공간이 전체에서 핵심공간이 된다.

그리고 이들 두 공간 중에서도 선현의 배향공간을 우위에 둠으로써 대성전이 항상 명륜당보다 우위의 위치에 오는 것은 사학(私學)의 서원에서와 같다.

그러나 서원에서는 평지라 하더라도 대성전에 해당되는 사당을 대지의 가장 안쪽에 두어 신성시하는 것과는 달리 향교에서는 그것을 강학공간의 앞쪽에 두어 전체 공간에 있어 우위에 있게 하고, 구릉지에서는 반대로 강학공간보다 높은 터에 두어 고저 차이로 우위에 있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또 배향공간을 우위에 두는 방법은 배치에서 뿐만 아니라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즉 대성전은 주심포건축이 주류를 이루고 명륜당은 익공건축이거나 민도리집 계통인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또 배치에 있어 중심공간이 배향과 강학의 두 공간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균형을 이루어 공간에 어떤 위엄을 가지도록 한 것이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사찰배치가 비좌우대칭균형을 이루는 것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역시 비대칭균형을 이룸으로써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공통적인 배치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남한에 남아있는 향교는 1900년에 창설된 오천향교(鰲川鄕校)를 끝으로 234개의 향교가 있다.

## 제3절 대성전 배향인물

### 1. 공부자(孔夫子)

공자



공자(B.C 551-479)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의 대 사상가이며 교육자로 유교의 개조(開祖)이며 성인으로 일컬어진다. 공(孔)은 성이고 자(子)는 남자의 미칭(美稱)으로 ‘선생’의 뜻이며,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이다. 노나라 창평향 추읍(지금의 산둥성 곡부현 남쪽 추현) 출신이다.

아버지는 숙량홀(叔梁紇), 어머니는 안징재(顏徵在)이다. 안징재는 공자를 낳기 위해서 니구산(尼丘山)에 기도를 들였다 하는데, 공자의 이름이 구(丘)이고 자가 중니(仲尼)인 것도 니구산과의 관계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공자는 용모나 몸집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고 한다. 『사기』에는 “키가 9척 6촌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키다리라 부르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라고 하였고, 또 공자가 정(鄭)나라에 가서 제자들과 떨어져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의 모습을 정나라 사람의 입을 빌어 “이마는 요임금 같고 목은 고요같고 어깨는 자산과 같으나, 허리 아래편은 우임금보다 3촌이 모자라며 초상난 집의 개처럼 축 늘어져 있더라.”라고 표현하였다. 『공자가어』 [곤서(困書)]에서는 ‘키는 9척 6촌이며 눈두덩이가 평평하고 긴 눈에 특 불거진 이마를 지녔다.’라는 형용을 보았으며, 한 때 공부(孔)의 『공충자』가언에서는 장홍(弘)이 공자의 인상을 표현하여, “눈두덩이가 평평하



고 꼬리가 긴 눈과 불거진 이마는 황제(黃帝)의 모습이요, 긴 팔에 거북 같은 등을 하고 9척 6촌의 키를 지니고 있는 것은 탕(湯)임금의 용모이다.”라고 하였다. 이같이 공자는 용모가 비범하였고 체력도 강했다 한다

### 1) 청소년기

공자의 가계는 훌륭했으나 공자가 태어났을 당시 공자의 집안은 가난하고 보잘 것이 없었다. 더욱이 공자가 세 살 되던 해(B. C 549)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그 뒤로는 더욱 어렵게 살았다. 『논어』 [자한]에는 공자 스스로 “나는 어려서 빈천했기 때문에 천한 일도 많이 할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 기사가 있다. 또한 공자가 24세 때(B. C 528)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서야 사람들에게 물어 아버지 무덤을 찾아 합장했다고 하였으니(『사기』)공자는 극히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 [공자세가]에 “공자는 아이 때 언제나 제기를 벌여놓고 예를 갖추는 소꿉놀이로 장난을 하였다.”라고 한 것을 보면, 젊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공자이지만 비교적 바르고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자는 스스로 “나는 나면서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며, 옛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배운 사람이다.”(『논어』 [술이])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공자가 어떻게 공부를 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논어』 [자장]에서 자공이 공자의 학문방법에 대하여, 어디에서도 배웠으며 일정한 스승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팔일]에는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서서는 매사를 물으셨다.”라고 한 것에서 미루어 보면, 공자는 옛 글뿐만이 아니라 눈에 띄는 모든 일에 대하여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견식을 넓혀갔던 듯하다.

『논어』 [태백]에서는 증자가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사람에게 묻고 많이 알면서도 적게 아는 사람에게 묻는다.”라고 말하였듯이, 공자는 실제로 자기만 못한 사람도 찾아가 묻고 공부하였다. 『사기』 [공자세가]에는 공자가 사양자(師襄子)에게 가서 금(琴)을 배웠으며, 또 [노장신한열전]에는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 예에 대하여 물었다는 기록도 있으며, 『공충자』에는 주나라로 가서 장홍에게서 음악을 공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공자 자신이 만년에 자기 일생의 학문 과정을 회고하면서 “나는 열다섯 살에 배움에 뜻을 두었다.”라고 하고 또 “서른 살에는 자립하였다.”(『논어』 [위정])라고 하였으니, 그는

열다섯 살에는 이미 유학을 이룩하기 위한 학문의 길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를 공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학문이 서른 살에는 어느 정도 원숙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학문은 개인적으로는 인의예지에 바탕하여 개인윤리를 확충해서 이상적 인간형인 군자에 이르는 길을 깨우쳐 주었고, 정치적으로는 요, 순, 우, 탕, 문왕, 무왕의 도를 이어받아 도덕을 기초로 해서 꽃피운 문물제도를 되살려 잘 조화되고 질서 있는 세상을 재현시키는 것이었다. 그 조화와 질서는 예악(禮樂)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라 가르쳤다.

공자는 19세 때(B. C 533)노나라의 위리(委吏)벼슬을 하였고 그 해에 기관씨 집안 딸에게 장가들어 다음 해에 아들 이(鯉)를 낳았다.(『공자가어』) 위리는 나라 창고의 물건을 관장하는 낮은 관직으로서, 생활을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라는 해설이 있다. 다시 21세에는 승전리(乘田吏: 『궤리지연보』에 의거, 『사기』에는 사직리라 하였다)가 되었는데, 역시 나라의 가축을 기르는 낮은 관직이었다. 24세에 어머니 안징재가 돌아가셨다.(『궤리지연보』)

## 2) 장년기

공자는 스스로 자립하였다고 말한 30대로 접어들면서 학문과 경륜이 더욱 원숙해졌다. 따라서 이 무렵부터 그의 명성도 커져서 문하에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공자의 제자에 관한 기록으로 가장 확실하고 빠른 것은 『춘추좌씨전』 소공 20년에 보이는 금장(琴張)이다. 이미 공자가 20대에도 제자를 거느렸을 가능성은 있으나, 본격적인 유가사상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30대 무렵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노나라의 정치는 이 무렵 더욱 혼란해져 노나라의 정권은 완전히 삼환씨(三桓氏)의 손에서 돌아났다. 그 중에서도 계씨(季氏)의 세력은 더욱 커서 노나라 임금마저도 안중에 두지 않을 정도로 방자했었다. 공자가 35세 되던 해(소공 25년) 공자로서는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곧 계평자의 방자함을 참지 못한 소공이 후씨와 합세하여 무력으로 계씨를 제거하려다가 삼환씨가 합세하여 반격하는 바람에 경우 목숨만 건져 제나라로 도망한 것이다.

제나라에서는 소공을 도와 다시 노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려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소공은 7년 동안 타국에서 산 뒤 객사하고 말았다. 공자는 이런 극도의 비리를 보고 노나라에서는 자신의 정치이념을 실현할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같은 해 소공이 망명한 제나라로

갔다. 제나라로 가서의 행적은 확실하지 않으나 『사기』[공자세가]의 기록에 의하면 공자는 제나라로 가서 대부 고소자(高昭子)의 가신이 되어 고소자의 힘을 빌어 경공(景公)을 만났다. 이때 경공은 공자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공자에게 니계(尼谿)의 땅을 떼어주고 중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여러 신하들의 반대로 결국 경공은 등용을 포기하였다. 그래서 공자는 37세 되던 해(B. C 515) 겨울에 다시 노나라로 돌아왔다.

공자는 제나라를 여행하면서 제나라의 음악 책임자인 태사를 만나 음악을 논하기도 하고, 순임금의 음악인 소를 듣고 크게 감동하기도 하는 등 음악 공부에 대하여 이해를 넓히는데 성과를 얻었다.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온 뒤 노나라의 정치는 더욱 어지러워졌다. 공자가 42세 되던 해에는 노나라 소공이 제나라에서 객사하여 정공이 그 뒤를 이었으나, 정공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또한 노나라 권세가인 계씨 집안도 질서가 어지러워져 실제로는 계씨의 가신인 양호(陽虎:『논어』에서는 양화(陽貨)가 권력을 잡고 있었다. 특히 계평자가 죽은 뒤로 모든 권력은 완전히 양호에게로 돌아갔다. 『논어』[양화]를 보면, 양호는 권력을 잡은 뒤 공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공자는 이러한 혼탁 속에서도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더욱 분발하여 자신의 학문을 닦는 한편 제자들의 교육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이 무렵에는 공자의 명성도 더욱 커졌고 먼 곳으로부터도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계환자가 양호를 몰아낸 다음해(공자 51세) 공자는 노나라의 중도재(中都宰)라는 벼슬에 올랐다. 중도재란 중도를 다스리는 장관으로, 공자가 그 벼슬을 맡은 지 일년만에 중도는 다른 고을이 모두 본받을 정도로 질서가 잡히고(『사기』) 예의와 윤리의 기틀이 잡혔다(『공자가어』)

다음해인 노나라 정공 10년(공자 52세)에 노나라 정공과 제나라 경공이 화평을 위해 협곡에서 회합을 하였는데, 이때 공자가 예를 돌보는 관리로 정공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공자는 정공과 경공의 사이에서 외교상의 공로를 세움으로써, 제나라는 노나라의 영지였던 세 고을을 다시 노나라에게 돌려주고 화해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공자는 다음해 곧 육경의 하나로 국토를 관장하는 벼슬인 사공에 임명되고, 다시 다음 해에는 나라의 법을 다스리는 벼슬인 사구(司寇)에 임명되었다. 공자는 사구에 임명되자 곧 삼환씨의 세력을 누르고 노나라 공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삼환씨의 세 고을을 허물기로 하였다. 세 고을이란 계손씨의 비(費), 숙손씨의 후, 맹손씨의 성(成)으로서 이 세 고을을 헐어 없앤다는 것은 노나라 임금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군사적 통일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숙손씨와 계손씨에게서는

이루어졌으나 맹손씨에게서는 그 자신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 밖에도 공자는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히던 대부 소정묘(少正卯)를 처단하기도 하였다. 공자는 굳은 신념과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사구의 직책을 수행하여 명성이 국내외에 높아졌다. 그 때문에 다시 다음 해에는 사구에 재상의 일까지 겸임하였다. 이러한 공자의 혁신정치가 효력을 나타내자 이웃한 제나라에서는 크게 경계하고 공자를 제거할 계책을 꾸민 끝에 결국 벼슬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들었다. 곧, 제나라에서는 정공과 계환자에게 악무에 능한 미녀 80명과 좋은 말 120필을 선물로 보냄으로써, 정공 등이 즐거움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행하도록 하였다. 공자는 이를 말리다가 결국 벼슬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 3) 주유열국(周遊列國)

모든 벼슬을 버린 다음해인 B. C 497년(노 정공 13년 공자 55세)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나라와 임금을 찾아서 국외로 망명길에 올랐다. 그 뒤 B. C 481년(노 애공 11년, 공자 68세)노나라로 되돌아오기까지 13년 동안 공자는 여러 나라의 임금들과 만나 도덕정치의 이념으로 설득을 하였다. 그런데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잡으려는 이 긴 여정에서 공자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곧, 위(衛)나라를 떠나 진(陳)나라로 가다가 광(匡)땅에서 양호로 오인 받아 그곳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았으며, 두 번째로는 위(衛)나라를 떠나 조(曹)나라를 거쳐 다시 진나라에 가려고 송나라를 지나다 송나라의 대장군 사마환퇴가 공자를 죽이려한 일을 겪었다. 세 번째로는 진나라에서 삼년 가랑 머물다가 다시 위나라로 돌아가려고 광땅 근처의 포 지역을 지나다가 포땅 사람들의 방해로 받았다. 또한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초나라 소왕이 공자를 초빙하였을 때, 진나라와 채나라에서는 공자가 강한 초나라로 가게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공자의 가는 길을 막았다. 그 때문에 공자 일행은 꼼짝도 못하게 된 채 양식도 떨어지고 병든 제자가 생기는 등 고생을 겪었다.

이렇게 공자의 13년간의 주유는 수많은 고난이 뒤따랐으나 한편으로는 이미 이론과 실천을 겸한 정치가로서 명성이 높았고, 뛰어난 학문과 심오한 사상으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는 처지였으므로 찾아간 곳마다 상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난세의 사람들은 공자의 사상에 한결같이 공감하고 찬동은 하면서도 도덕을 바탕으로 한 이상사회 건설에 발벗고 나서

는 군왕은 없었다. 공자의 이상 실현을 위한 노력은 결국 당세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진나라를 방문한 뒤에는 스스로 탄식하면서 노나라로 돌아갈 뜻을 비추었다. 결국 B. C 484년(노 애공11년, 공자68세), 계강자의 초청을 계기로 공자는 위나라를 떠나 노나라로 돌아왔다.

#### 4) 만년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국로(國老)의 대우를 받으면서 국정의 자문에 응하기도 하였다. 그가 힘을 기울인 것은 전적(典籍)의 편찬과 제자 교육이었다. 당시의 제자들은 염유를 비롯하여 자공·자로·자유·자하·재여 등이 각기 정치에 참여하여 중요한 벼슬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자는 이 무렵 후세에 전할 전적으로서 육경(六經)을 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이상을 후세 사람들에게 교육하려 하였다.

공자의 교육은 비교적 성공적이어서, ‘제자가 삼천명’(『사기』[공자세가])이라 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때 제자들 중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 노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했으므로 스승인 공자도 높은 명성과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불행이 거듭되었다. 69세 되던 해 외아들 리(鯉, 자는 백어(伯魚))가 50세의 나이로 먼저 죽었으며, 다음 해에는 공자가 가장 사랑하고 기대를 걸었던 제자 안연이 죽었다.

공자는 이때, “아!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噫 天喪予 天喪予: 『논어』[선진])!” 라고 통곡하였다. 공자에게 안연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으며 절망에 가까운 슬픔을 안겨주었다. 다시 그 다음 해인 B. C 481년(노 애공 14년, 공자 71세 때) 노나라 서쪽에서 기린이 잡혔다 기린은 예로부터 어진 짐승으로서 훌륭한 임금에 의해 올바른 정치가 행해지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난세에 잘못 나와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잡힌 기린을 보고, 공자는 자신의 운명과 비춰서 슬퍼하였으며, 『춘추』의 저술도 이 ‘서수획린(西狩獲麟)에서 끝맺고 있다.

그 다음 해(공자 72세)에는 오랜 제자로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던 자로가 위나라에서 벼슬하다가 그곳 내란에 휩쓸려 비명으로 갔다. 이러한 겹친 불행을 겪고서 B. C 479년(노 애공16년 공자 73세) 4월 기축일 공자는 일생을 마쳤다. 공자가 서거하자 노나라 애공도 공자의 그 높은 덕을 추모하는 뇌문(誄文)을 지어보냈다.(『사기』 『예기』 [단궁]을 보면, 공자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칠일 전에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다. 곧 공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뒷짐을

지고 지팡이를 끌고 문 앞을 거닐면서 “태산이 무너지려는도다, 들보가 부러지려는도다, 철인이 시드려는도다!”라고 읊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칠일 후에 돌아가셨다고 쓰여있다. 노나라 성 북쪽의 사상(泗上)에 장사지냈는데, 오늘날 이곳을 공림이라 부른다.

공자는 만년에 일생의 학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슬회하고 있다. “나는 열 다섯살에 배움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자립하였으며, 마흔 살에는 미혹되지 않게 되었고, 쉰 살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으며, 예순 살에는 귀로 듣는 대로 모든 것을 순조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일흔 살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좇아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게 되었다(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논어』 [위정]).” 칠십 세에 이르러 도달한 경지는 바로 성인의 경지이다. 공자는 칠십 평생 끊임없는 학구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드디어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 5) 공자의 제자들

『사기』 [공자세가]에는 공자의 제자 수가 3천명이었는데, 그 중 육예(六藝)에 통달한 사람이 72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책의 [중니제자열전]에는 공자로부터 학문을 전수 받아 이에 통달한 제자가 77명이었다고 하였다. 이밖에 『맹자』 [공손추], 『대대례』 [위장군문자], 『회남자』 [요략], 『한서』 [예문지] 등에 모두 공자의 제자 수를 70명이라 하고 있다.

『사기』 [중니제자열전]이나 『공자가어』 [제자해] 등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들은 모두 80명 정도이다. 『논어』에는 27명의 이름이 보이는데, [선진]에는 이른바 공문 사과(孔門四科)의 십철(十哲)로서 안연·민자건·염백우·중궁·재여·자공·염유·자로·자유·자하를 들었다. 공자는 하은주 삼대의 문물제도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해서 유교사상을 확립시켰다. 그는 어릴 적부터 부지런히 배우고 날날이 익혀 드디어는 인사백반(人事百般)에서 우주진리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내 몸을 닦아 남을 편안히 한다(수기안인:修己安人)는 신념으로 정치에 뜻을 두었으나 결국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만년에 조국 노나라로 돌아온 이후에는 『시경』, 『서경』, 『역경』 등 전적 편찬과 제자 교육에 열중하였다. 그를 만세의 스승이라고 일컫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위대성을 기리는 동시에 그가 남긴 가르침이 실천 도덕에 바탕을 둔 인류의 영원한 생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공자는 인의 실천에 바탕을 둔 개인

적 인격의 완성과 예로 표현되는 사회 질서의 확립을 강조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이상국가를 지상에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만년에 공들이 육경을 편정한 것은 후세에 그의 이상을 전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이었으며 3천여의 제자를 가르친 것 또한 지칠 줄 모르는 인간에 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를 꺼린 공자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그의 사상 또한 실천을 전제로 한 도덕이 핵심을 이루고 있고 교육 방법도 현실적인 가치체계를 중요시하였다. 그의 교과목은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 등 육예로서, 이 육예에 통달해야 군자라 할 수 있고 완인(完人) 전인(全人)이라 할 수 있었으며, 제자 중에는 72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공자의 이상과 사상은 『논어』에 그대로 표현되어있다.

공자의 가르침은 그의 생시에는 실행되지 못하였고, 사후에 제자들이 각지에 전파하였으나 제자백가가 일어남에 따라 교세가 약해졌다. 이를 다시 일으킨 이는 맹자였으며, 또 전국시대 말기에 순자도 이를 계승하였다. 그후 한 나라의 무제가 유교를 국교화함으로써 공자의 지위는 부동의 것이 되었고 이후 2천여 년 간 동양의 사상계를 이끌어왔다. 후세의 제왕들도 공자의 봉작을 계속 높여, 왕(王)과 성(聖)의 칭호로 올림으로써 지극히 존송받게 되었으며, 각지에 ‘공묘(孔廟:文廟)’가 세워져 춘추로 석전을 받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력5월 11일(돌아가신 날)과 9월 28일(태어나신 날)에 성균관과 전국의 향교에서 석전을 봉행하고 있다. 한편 공자의 후예는 중국에서 연성공(衍聖公)에 봉해져 세전(世傳)되고 있다.

## 2. 사성(四聖)

### 1) 연국복성공 안자(兗國復聖公 顏子) 동배향(東配享) 제1위(第一位)

공자의 제자로 춘추 말엽 노(魯)나라 사람이다. 성은 안(顏)이고 이름은 회(回)이며 자가 자연(子淵)이기 때문에 안연(顏淵)으로도 일컬어진다. 공자보다 30여세가 적으며, 집안은 청한(淸寒)하였다. 16-7세 때부터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계속하여 공자의 학습 생활을 따랐으며 종신토록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안회는 공문제자 중에서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고, 사람됨이 총혜(聰慧)롭고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내성적인 성격으로 침정(沈靜)한데다가 엄격하고도 근면하였다. 그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 덕행수양(德行修養)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 공자는 제자들을 평가하면서

덕행 면에서 안연을 제일로 지목하고 그의 인(仁)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안회는 안분지족(安分知足)으로 자기를 지켰고, 예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명리(名利)에 담박하여 안빈낙도(安貧樂道)하였고, 자신의 장점과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다.

안회는 스승인 공자를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줄곧 따랐으며 공자의 말에 맹종하여 일언반구의 어김도 없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사(早死)하여 공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이처럼 안회는 전적으로 공자의 학설을 신봉하였고 또 조사하였기 때문에 독창적인 의견이 없어 사상, 학술 면에서 후세에 끼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동한(東漢) 명제(明帝) 15년(72)부터 ‘72제자’에게 제사했는데 안회의 신위를 모든 제자 중 수위(首位)에 놓았으며, 공자에게 시제(時祭)를 올릴 때도 유독 안회만은 배향하였다고 한다. 당태종 정관 2년(628)에 추존하여 선사(先師)라 하였고, 당 현종 개원 27년(739)에 연공(兗公)에 추봉되었으며, 송 진종 대종상부 2년(1009)에 연국공으로 가봉(加封)되었고 다시 원 지순(至順) 원년(1330)에 연국복성공(兗國復聖公)으로 가봉되었으며 명 세종 가정 9년(1530)에 복성한자(復聖顏子)로 개칭되었다.

## 2) 성국 종성공 증자(郕國 宗聖公 曾子) 서배향(西配享) 제1위(第一位)

공자의 제자로 춘추 말엽 노나라 남무성(南武城) 사람이다. 성은 증(曾)이고 이름은 삼(參)이며 자는 자여(子輿)이다. 추존하여 증자(曾子)라고 하였으며 공자보다 46세가 적다. 집안은 몰락한 귀족으로 빈한하였으며, 그의 부친 증점(曾點)도 공자에게서 수학하였다.

공자는 증삼을 노둔하다고 평하였는데 이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일을 신중히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학습하고 수양한 것은 주로 ‘내성(內省)’과 ‘신독(愼獨)’이다. 즉 『논어』 [학이편]에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살핀다.”라고 하여 내성을 말하였고 『예기』와 『대학』에 “군자는 반드시 그 혼자 있을 때 삼가야 한다”라고 하여 신독을 말하였다. 그는 유가의 최고 덕목인 인(仁)의 실현을 자신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과제로 여겼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아주 근신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였으며 결코 자기가 취해야 할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증삼은 특히 효행으로 이름났다. 공자의 제자 중에 효행이 뛰어난 사람으로는 민자건(閔子騫)도 있지만 후세에 끼친 영향은 민자건보다 증자가 훨씬 크다. 그는 효의 전형으로서 어리석을 정도로 몸소 효도를 실천하였는데 『사기』 [중니제자열전]에 의하면 공자는 그를 효도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효경』은 바로 증자가 지었다고 하였다.

남송때 안회(顔回), 증삼, 자사, 맹자를 사배(四配)로 추존하였는데 후에 다시 안회는 ‘복성(復聖)’으로, 증삼은 ‘종성(宗聖)’으로 추존하였다. 당(唐) 고종 총장(總章) 원년(668)에 태자소보(太子少保)에 봉하였다. 당 현종 개원 27년(739)에 성백(郕伯)으로 봉하였으며 송 진종 대중상부 2년(1009)에 성후(郕侯)로 봉하였고, 정화 원년에 무성후(武城侯)로 개봉하였다. 도종 함순(咸淳) 3년(1267)에 다시 성국공(郕國公)으로 봉하였으며, 원 지순 원년(1330)에 성국 종성공으로 봉하였고, 명 세종 가정 9년(1530)에는 종성증자(宗聖曾子)로 개칭하였다.

### 3) 기국 술성공 자사(沂國 述聖公 子思) 동배향(東配享) 제2위(第二位)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이자 유가학파의 중요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성은 공(孔) 이름은 급(伋) 자는 자사(子思)로 공자의 적손이다. 대략 주나라 경왕 37년에 태어나서 주나라 위열왕 24년에 졸(卒)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사는 일찍이 증자를 사사하여 그 종전을 얻었다. 때문에 『맹자』 [이루 하]에는 ‘증자 자사 동도(曾子子思同道)’라고 되어 있다. 그의 학술과 주요 사상은 『중용』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공자의 중용사상을 계승 발전시켜서 성(誠)으로써 핵심적인 철학체계를 세운 것이다. 자사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 하나는 생이지지(生而知之)하여 안이행지(安而行之)하는 사람과 학이지지(學而知之)하여 이이행지(利而行之)하는 사람, 그리고 곤이지지(困而知之)하여 면강이행지(勉強而行之)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또 자사는 유가의 사회 윤리관을 개괄하여 군신 부자 부부 곤제 봉우의 교(交)를 천하의 달도(達道)라 하였으며 지인용(智仁勇) 세 가지를 천하의 달덕(達德)이라 하였다. 정치 사상으로는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 수신(修身), 존현(尊賢), 친친(親親), 경대신(敬大臣), 체군신(體群臣), 자서민(子庶民), 내백공(來百工), 유원인(柔遠人), 회제후(懷諸侯)의 구경을 제시하였다.

송나라 휘종 승녕 원년(1102)에 기수후(沂水侯)로 봉해졌고 대관 2년(1108)에 종사되었으며, 이종 단평 2년(1235)에 ‘십철(十哲)’로 올려서 배향되었다가 도종 함순 3년(1267)에 기국공(沂國公)으로 봉해졌고, 배향을 승격시켜 원 지순 원년(1330)에 기국술성공(沂國述聖公)으로 추증(追贈)되었는데 명 세종 가정 9년(1530)에 술성자사자(述聖子思子)로 개칭되었다.

## 4) 추국 아성공 맹자(鄒國 亞聖公 孟子) 서배향(西配享) 제2위(第二位)

전국시대 사상가이자 정치가, 교육가로 유가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성은 맹(孟), 이름이 가(軻)이며, 자는 자거(子車) 또는 자여(子輿)로 노나라 추읍(鄒邑) 사람이다. 아버지는 맹손격(孟孫激)이고 어머니는 장씨라고 하나 선계가 분명치 않다.

그가 40세를 전후했을 때 추목공은 그를 발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추의 정치는 극히 혼란하여 맹자는 자기 나라에서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펼칠 수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는 곧 추를 떠났다. 그리고 그는 일생동안 왕도정치로써 제, 량, 노, 추, 등, 설, 송 등의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제후들에게 유세하였고, 제선왕의 공경이 되기도 하였다.

맹자가 평생 목표로 삼았던 것은 사상 면에서는 유학을 드높이는 것이었고 정치면에서는 왕도정치의 실천 곧 유가의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의 사상 면에서 두드러진 점은 성선설(性善說)이다. 『맹자』 7장은 이러한 성선설의 정신으로 일관되어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고자]와 [진심]두 편에는 이러한 이론이 여러 군데 등장한다.

또 그는 인성 수양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네 가지 항목, 즉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을 주장하였다. 정치사상은 왕도정치로 집약된다. ‘백성은 중요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국군(國君)은 대단치 않다’는 것이 맹자 정치론의 핵심이다. 이러한 맹자의 주장은 당시 대다수의 평민들이 전쟁과 학정에 무참히 시달리고 있는데 반하여 군주를 위시한 극소수의 특권층만이 사치와 횡포를 자행하는 것을 목격한 데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정자는 국민에 대하여 언제나 정치상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올바른 정치가 행해지지 않을 때 임금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그 자리를 내놓고 물러나야 하며, 결주(桀紂)같이 포악 무도할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다는 것이 맹자의 견해이다.

송나라 신종 원풍 6년(1083)에 추국공으로 봉해졌고 7년에 지성(至聖)의 성묘(聖廟)에 배향되었다. 원 지순 원년(1330)에 추국아성공(鄒國亞聖公)으로 추증되었으며 명 세종 가정 9년(1530)에 아성맹자(亞聖孟子)로 개칭되었다.

### 3. 송조 2현(宋朝二賢)

#### 1) 예국공 정호(豫國公 程顥, 1032-1085) 동배향(東配享) 제1위(第一位)

북송 때의 저명한 철학자로 ‘북송오자’ 중의 한 사람이며, 송 명리학 창시자 중 한 사람이다. 자는 백순(伯淳)인데 세칭 ‘명도선생(明道先生)’이라고 하였으며, 하남(河南) 낙양(洛陽)사람으로 송 인종 명도(明道) 원년(1032)에 출생하여 송 신종 원풍 8년(1085)에 졸하였다. 진사(進士)에 합격하여 조약(調), 상원(上元)의 주부(主簿)로 발탁되었고, 진성(晉城), 부구(扶溝)의 현령(縣令)을 지냈으며, 후에 여공저(呂公著)의 천거에 의하여 태자중윤(太子中允), 감찰어사(監察御史)이 되었다. 젊었을 때 그의 아우 정이(程頤)와 함께 주돈이(周惇頤)에게 배웠으므로 이정(二程)으로 병칭 되었고, 그들이 장기간 낙양에서 강학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학을 낙학(洛學)이라고 하였으며, 송유(宋儒)들은 정호를 공맹의 도(道)를 계승하고 크게 발달한 진유(眞儒)로 여겼다고 한다.

정치적으로는 사마광(司馬光), 소옹(邵雍)과 같은 입장에서 왕안석(王安石)의 신정을 반대했으며, 인종에게 개혁 방안 <치법십사(治法十事)>를 올려 토지 검병의 제지와 병역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농업 생산을 강조하였다. 철학적으로는 천리를 핵심으로 하는 유심주의의 철학체계를 창립하였는데, 인심(人心)으로부터 출발하여 천리를 해석하여 이(理)와 심(心) 그리고 주관 객관은 융합하여 일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공자의 ‘인(仁)’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仁)이란 만물과 혼연하게 한 몸이 되는 것이다”([식인편(識仁篇)])라 하여 인(仁)을 주관과 객관의 상호 융합으로 보았다. 인식 방법으로는 인심(人心)의 자성(自省)과 내구(內求)를 중시하여, “학자는 반드시 멀리서 구하지 말고 가까이 자신에게서 취해야 한다”(『유서』)고 하였다.

정호의 이론과 그의 아우 정이의 학설은 남송의 주희(朱熹)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어 송원명청(宋元明清)의 통치 사상이 되었으니. 이를 정주학파(程朱學派)로 일컬었다. 저서로는 『정성서(定性書)』, 『식인편(識仁篇)』 등이 있으며, 후인들이 그와 정이(程)의 저서를 합편한 『이정전서(二程全書)』가 있고, 『이정집(二程集)』이 있다.

송나라 영종이 가정 13년(1220)에 순공(純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종 순우 원년(1241)에 공자의 묘정에 종사되었으며 하남백(河南伯)에 봉해졌다. 원나라 문종 지순 원년(1330)에 예국공(豫國公)으로 가봉되었다.

## 2) 휘국공 주희(徽國公 朱熹, 1130-1200) 서배향(西配享) 제1위(第一位)

남송의 유학자로 복건성의 우계(尤溪) 출생이다. 자는 원회(元晦), 중회(仲晦)이고 호는 회암(晦庵), 회옹(晦翁), 운곡산인(雲谷山人) 창주병수(滄洲病瘦), 둔옹(遯翁) 등이며, 이름은 희(熹)다.

선조는 대대로 휘주무원(徽州婺源: 안휘성)의 호족으로 아버지 위재(韋齋)는 관직에 있다가 당시의 재상 진회(秦檜)와의 의견 충돌로 사직하고 우계에 우거하였다. 주자는 이곳에서 14세 때 아버지가 죽자 그 유명에 따라 호적계, 유백수, 유병산에게 사사하면서 불교와 노자의 학문에도 흥미를 가졌으나, 24세 때 이연평(李延平)을 만나 공부하면서 유학에 복귀하여 그의 정통성을 계승하게 되었다.

그의 강우(講友)로는 장남현(張南軒), 여동래(呂東萊)가 있으며, 또 논적(論敵)으로는 육象山(陸象山)이 있어 이들과 상호 절차탁마하면서 주자의 학문은 비약적으로 발전 심화하여 중국 사상사에 사변철학과 실천 윤리의 체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주희의 철학은 이기철학(理氣哲學)이라 하는데 형이하학적인 기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이(理)를 세워 이와 기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생성론(生成論), 존재론(存在論)에서 심성론(心性論), 수양론(修養論)에 걸쳐 이기에 의하여 일관된 이론 체계를 완성시켰다.

그의 학문을 저서를 통해서 관찰해보면 46세까지를 전기, 이후 60세까지를 중기, 61세 이후를 후기로 하는 3기로 대별할 수 있다. 전기의 저서로는 『논어요의(論語要義)』, 『정씨유서(程氏遺書)』, 『논맹정의(論孟精義)』,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 『통서해(通書解)』, 『정씨외서(程氏外書)』, 『근사록(近思錄)』 등이 있다. 중기에는 『논맹집주혹문(論孟集註或問)』, 『시집전(詩集傳)』, 『주역본의(周易本義)』, 『소학서(小學書)』, 『대학장구(大學章句)』, 『중용장구(中庸章句)』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서(四書)의 신주(新註)’를 완성한 것이다. 60세 때는 『중용장구』에 서문을 붙여 상고에서 후대까지 도학을 전한 성현의 계통을 밝혀 도학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후기에는 오경(五經)에 손을 대어 『석전례의(釋奠禮儀)』, 『맹자요로(孟子要路)』, 『예서(禮書)』, 『한문고이(韓文考異)』, 『서전(書傳)』 등을 저술하였다. 주자의 정치에 대한 의견은 『임오응소봉서(壬午應詔封事)』나 [무신봉사(戊申封事)]에 나타나 있으며, 또 절동(浙東)의 지방관으로 있을 때 기근을 구제하였다는 실적도 있으나 만년에는 권신의 미움을 사 그의 학문이 위학(僞學)이라 하여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해금(解禁)이 있기 전에

죽었다. 그 후 그의 학문이 인정되어 시호가 내려지고 다시 태사(太師), 휘국공(徽國公)으로 추증되었다. 사후에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 『주자어류(朱子語類)』가 편찬되었다.

송나라 영종 가정 원년(1208)에 문공(文公)이라 시호하였다. 이종 보경(寶慶) 2년(1226)에 태사를 추증하였고 신국공(信國公)으로 봉해졌다가 다시 소정(紹定) 3년(1230)에 휘국공으로 봉해졌다. 순우 원년(1241)에 문묘에 종사되었다.

#### 4. 동방 18현(東方十八賢)

##### 1) 홍유후 설총(弘儒侯 薛聰) 동배향(東配享) 제2위(第二位)

본관은 경주(慶州), 신라 경덕왕(742-765) 때의 사람으로 자는 총지(聰智)이다. 설총의 부친은 원효대사이며, 모친은 요석공주이다. 『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와 『삼국사기』의 열전에 의하면, 설총은 천성이 명민하고 슬기로웠으며, 나면서부터 도를 깨달아 경서와 역사에 널리 통달했다고 한다. 또한 중국과 외이(外夷)의 각 지방 풍속과 물건 이름 등에도 통달하였고 육경(六經)과 문학을 훈해(訓解)하여 후생을 훈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해서 고려말, 조선 초에 설총의 이두창제설(吏讀創製說)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설총의 출생 이전에 이미 [진흥왕순수비]나 [서동요] [혜성가] [풍요(風謠)] 등에 향찰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설총은 이두를 창제한 것이 아니라 집대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설총은 많은 글을 지었으나 세상에 전하는 것이 없고, 다만 남쪽에 설총이 지은 비명이 있지만 글자가 결락되어 읽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이 『삼국사기』 열전에는 신문왕을 풍간(諷諫)한 [화왕계]가 실려 있다. 이 작품은 꽃을 의인화하여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라는 우언(寓言)으로, 유교주의적 정치윤리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이 [화왕계]는 내용뿐 아니라 문체 또한 변려문(駢儷文)을 본받은 수준 높은 글로 되어 있어 당시 한문학의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설총은 이두로 유교 경전을 해석하여 후학을 훈도 하였으며, 동시에 우리나라 유학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고려 현종 13년(1022)에 홍유후(弘儒侯)로 추증되어 문묘

에 종사되었으며, 경주의 서악서원(西岳書院)에 제향되었다.

## 2) 문창후 최치원(文昌侯 崔致遠, 857- ?) 서배향(西配享) 제2위(第二位)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고운(孤雲) 호는 해운(海雲), 신라 사랑부 사람이다. 6두품 출신으로 12세의 나이로 중국 당나라에 유학했는데 그 당시 부친 최견일(崔肩逸)은 “10년 안에 과거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로 격려하였다. 그 후 7년 만에 18세(874)의 나이로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하였고, 이후 2년간 낙양(洛陽)을 두루 유람하며 시작(詩作)에 몰두하였다. 876년에 당나라 선주 표수현위(宣州 漂水縣尉)가 되었다가 그 후 회양 절도사 고변(高駢)의 관역순관(館驛巡官)이 되었다. 그러나 문창후가 문명을 천하에 떨치게 된 것은 고변의 종사관이 되어 879년 일어난 황소의 난을 토벌하면서부터 인데,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은 바로 이때에 지은 것이다. 당시의 공적으로 승무랑전중시어사내공봉(承務郎展中侍御史內供奉)으로 도통순관(都統巡官)에 승차되었으며, 882년에는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 받았다. 이 당시 고변의 종사관으로 지은 글과 시 등을 모은 것이 바로 『계원필경(桂苑筆耕)』 20권이다. 문창후는 현강왕 11년(885) 귀국할 때까지 17년 동안 당나라에 머물면서 여러 문인들과 사귀었고, 또 중국 전역에 문명을 떨쳤다.

29세의 나이로 귀국하여 시독 겸 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지서서감사(侍讀兼翰林學士 守兵部侍郎 知瑞書監事)가 된 최치원은 귀국 후 의욕적으로 경륜을 펼치려 하였지만 신분의 한계와 혼란한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이에 외직을 자원하여 대산군(大山郡: 지금의 전북 태인), 천령군(天嶺郡: 지금의 경남 함양) 등지의 태수를 지내며 세월을 보냈다. 그 후 진성여왕 8년(894) 임금에게 시무책 10여 조의 개혁안을 올렸고, 이러한 공으로 6두품 으로서는 최고의 관직인 아찬(阿餐)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혁안은 실행될 수 없었고 결국 40여 세의 나이로 관직을 버리고 은거의 길에 오른다. 문창후는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산천을 유람하다 죽었다고도 하며, 신선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최치원은 신라 말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어지러운 신라의 현실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6두품의 신분적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삼최(三崔)로 일컬어진 최승우(崔承祐)는 후백제의 견훤에게 종사했으며, 최언위는 고려의 왕건에게 가서 자신의 뜻을 펼쳤으나, 문창후는 이들처럼 역사적 전환기에 주동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은거하여 최후의 신라인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그의 문인들은 대거 고려정권에 참여하여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최치원은 유학을 불교의 부수적인 학문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학에 입각한 정치사상은 그 후 최승로 등으로 이어져 고려의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는다. 『제왕연대력(帝王年代歷)』은 바로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또한 한국한문학의 비조(鼻祖)로도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의 문장은 아름다운 수사에 정제된 형식미를 가진 변려체(駢麗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최치원은 불교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으며 도교와 노장사상 등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불도의 삼교사상에 대하여 각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였고, 이들 사상이 근본적으로 상통한다는 이로동귀(異路同歸)의 삼교회통(三教會通)을 주장하였다. 이 사상을 통해 모든 사상과 종교가 대립 갈등을 해소하고 대동화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창후의 삼교관은 우리의 고유사상이라 할 수 있는 풍류도(風流徒)를 탐구하는 데에도 적극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난랑비서문(鸞郎碑序文)]의 현묘지도(玄妙之道)에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고려 현종 11년(1020)에 내사령(內史令)에 추증되고, 다음해에 문창후로 증시(贈諡)되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문묘에 종사되었다. 조선조에는 서악서원(西岳書院), 백연서원(栢淵書院), 고운영당(孤雲影堂), 계림사(桂林祠) 등에 제향되었다. 문창후는 많은 저술을 하였으나, 『동문선(同文選)』에 실린 글과 『계원필경(桂苑筆耕)』, 『사산비명(四山碑銘)』 등의 약간의 글만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 3) 문성공 안유(文成公 安裕, 1243-1306) 동배향(東配享) 제3위(第三位)

본관은 순흥이고, 초명은 유(裕)이었으나 나중에 향(珦)으로 고쳤다. 그러나 조선 문종(文宗)의 이름과 같았기에 이를 휘(諱)하여 유로 바꾸었다. 자는 사온(士蘊)이며, 호는 회현(晦軒)으로 남송 주희(朱熹)의 호인 회암(晦庵)을 본뜬 것이다. 고려 순흥 사람이다.

18세 때인 원종 1년(1260)에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랑(校書郎)을 시작으로 벼슬이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에 이르렀다. 안유는 원종 11년(1270) 삼별초의 난 때에 강화에 억류되었다가 탈출하였고, 이를 계기로 원종의 신임을 받게 된다. 그 후 충렬왕 1년(1275)에 상주판관으로 나간 일은 특히 유명한데, 그는 백성을 현혹시키는 무당을 엄히 다스려 미신을 타파하고, 민풍

을 쇄신시켰으며, 유학을 장려하였으며 왕을 호종하여 여러 차례 원에 다녀왔다. 1289년(충렬왕 15) 11월에는 충렬왕과 공주를 호종하여 원나라에 갔다가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손수 베끼고 공자와 주자의 화상을 그려 돌아왔다. 그 뒤 1296년(동왕 22) 12월에는 자신의 집 뒤에 정사(精舍)를 짓고, 공자와 주자의 화상을 모셨다. 1303년(동왕 29)에는 국학학정 김문정을 중국에 보내 공자와 70제자의 화상 및 문묘에 사용할 제기와 육경, 제자, 주자서 등을 구해 오게 한다.

또한 6품 이상의 관리는 은 1근을, 7품 이하는 포(布)를 내게 하여 장학재단인 양현고(養賢庫)를 설립하였으며, 1304년(충렬왕 30) 5월에는 섬학전(瞻學田)을 마련하여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6월에 대성전이 완성되자 공자와 선성(先聖)의 화상을 모시게 하였다.

1306년(충렬왕 32) 안유가 서거한 후, 1318년(충숙왕 5)에 임금의 명으로 그의 화상을 그리게 하였고, 조선 명종때 다시 그의 화상을 그렸으니 현재 국보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충숙왕 6년에 이러한 공로로 문묘에 배향되었다. 그의 문인으로는 백이정(白頤正), 우탁(禹倬), 권부(權溥)를 들 수 있으며, 백이정의 문인으로 이제현(李齊賢) 등을 들 수 있다. 곧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보좌하고 조선을 건국하는 등 격변기의 역사를 이끌어간 무수한 신흥 사대부들은 바로 그의 노력에 의해 배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542년(중종 37)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은 주자의 백록동 서원을 본떠 백운동 서원을 세워 안유를 제향하였다. 그 후, 1549년(명종 4)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에 의해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명종의 친필 사액(賜額)이 내려졌으니 사액서원의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있는 장단의 유생들에 의해 1643년(인조 21)에 세워진 임강서원에 제향되어 있으며, 곡성의 회현영당에도 제향되어 있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 4) 문충공 정몽주(文忠公 鄭夢周, 1337-1392) 서배향(西配享) 제3위(第三位)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 본관은 영일(迎日), 초명은 몽란(夢蘭)이었으나 몽룡(夢龍)으로 고쳤고, 뒤에 다시 몽주(夢周)로 개명하였다. 고려 연일 사람으로 고려 말 삼은(三隱)의 한 사람이다. 1357년(공민왕 6)에 감시(監試)에 합격하고, 1357년(공민왕 9)에 문과에 장원하여 벼슬이 시중에 이르렀다.



1367년(공민왕 16) 예조정랑 겸 성균관 박사가 되었고, 다시 성균관 사예, 직강, 사성 등을 역임했다. 정도전, 정몽주, 이승인 김구용 등이 학관이 되어 경학을 강론했는데, 특히 정몽주는 사서삼경에 두루 밝아 이치를 깊이 깨달았다고 평하였으며, 이색 또한 정몽주를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원조로 극찬하였다.

1376년(우왕 2) 정몽주는 성균관 대사성이었는데, 이인임(李仁任) 등이 주장하는 배명친원(排明親元) 정책에 반대하여 언양(彦陽)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당시 권문세족은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일본에 가서 왜구의 단속을 요청하게 했으나, 정몽주는 오히려 이를 무사히 마치고 잡혀갔던 수백 명의 백성을 데리고 온 일이 있었다. 또한 명나라에 여러 차례 사신으로 가서, 명과의 국교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동북면도지휘사(東北面都指揮使) 한방신(韓邦信)의 종사관으로 종군할 때에는 이성계와 함께 여진족을 토벌하였으며, 1389년(창왕 1)에는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영립(迎立)하였다.

정몽주는 성리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당시 불교의 의식에 따라 상제(喪祭)를 치렀지만 그는 사서(士庶)에게 『가례(家禮)』에 따라 사당을 세우게 하였으며, 서울에 오부학당을 세우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어 교육을 진흥 시켰다.

정몽주는 고려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정몽주가 고려 왕실을 존속시키려는 온건개혁파의 입장이었음에 반해, 이성계는 고려 왕실을 폐지하려는 역성혁명파였다. 결국 이성계를 제거하려 하던 정몽주는 이방원(李芳遠)의 문객 조영규에 의해 살해된다.

그 후 태종 5년 권근의 요청으로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의정부사 수문전대제학 감예문춘추관사 익양부원군(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府使 修文殿大提學 監藝文春秋館事 益陽府院君)으로 추증된다. 그리고 1517년(중종 12)에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에 의해 문묘에 배향되었다. 묘의 비석도 이때에 세워졌는데 고려의 벼슬만 쓰고 조선의 추시(追諡)는 쓰지 않아 그가 두 왕조를 섬기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태종 원년 신사년(1401)에 영의정에 추증하고 시호를 문충이라 하였고 중종 12년에 문묘에 종사하였다. 송양서원(崧陽書院) 등 11개 서원에 제향되었으며, 포은영당, 임고서원 등에 그의 초상이 봉안되어 있다.

5) 문경공 김굉필(文敬公 金宏弼, 1454-1504) 동배향(東配享) 제4위(第四位)

자는 대유(大猷), 호는 한훤당(寒暄堂)이며, 본관은 서흥(瑞興)이다. 1480년(성종 11)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이때에 척볼과 유학의 진흥에 관한 장문의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1494년(성종 25)에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남부참봉(南部參奉)이 된 후, 벼슬이 형조좌랑(刑曹佐郎)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오사화(1498)때는 김종직의 문도로 봉당을 만들었다 하여 평안도 희천(熙川)에 유배되었다가 순천으로 이배되었다. 그 후 갑자사화(1504) 때는 무오당인(戊午黨人)이라는 죄목으로 극형에 처해졌다.

그는 어려서는 성품이 호방하고 거리낌이 없었으나, 점차 성장하면서 학문에 힘썼다. 그 후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 들어 『소학』을 배우게 되었다. 김굉필은 소학을 매우 좋아하여 스스로를 ‘소학동자’라 하며 30이 넘어서야 다른 책을 접하고 육경(六經)을 섭렵하였다.

『소학』을 수신(修身)의 기본으로 삼은 그는 ‘존양(存養)’을 학문의 목표로 삼고, 거기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성(誠), 경(敬)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사장(詞章)에 힘쓰는 당시 유학계에서는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었다. 그는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력하였는데, 특히 희천 유배시절에는 조광조에게 도학을 전수하여 성리학의 정통을 잇게 하였다. 그가 배출한 많은 인재는 중종반정 이후의 사림의 개혁정치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이 후진들은 기호사림파(畿湖士林派)를 형성함으로써 한국 유학사에 큰 기여를 하였다.

1568년(선조 원년)에 우의정에 추증되었고 1574년(동왕 7)에 문경이라 증시(贈諡)되었으며, 1610년(광해군 2) 문묘에 종사되었다. 도동서원(道東書院), 인산서원(仁山書院), 상현서원, 화곡서원, 옥천서원 등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경현록(景賢錄)』, 『한훤당집(寒暄堂集)』, 『가범(家範)』 등이 있다.

6) 문헌공 정여창(文獻公 鄭汝昌, 1450-1504) 서배향(西配享) 제4위(第四位)

자는 백옥(伯鬪), 호는 일두(一蠹)·수옹(睡翁)이며, 본관은 하동이다. 부친을 일찍 여의고 혼자 독서하다가 김종직의 문하에서 김굉필과 함께 수학하였다.

1480년(성종 11)에 성균관에 유시를 내려 행실을 닦고 경학에 밝은 사람을 구하자 성균관에서 정여창을 천거하였다. 지관사(知館事)였던 서거정(徐居正)이 경연에서 진강하게 하려 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483년(성종 14)에 성균관 상사(上舍)의 동렬(同列)에서 그를 이학(理

學)으로 추천하였으며, 이 해에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다. 정여창은 경명행수(經明行修)로 여러 번 천거되기도 하였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 후 1490년(성종 21)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였고, 그 후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가 되었으나 동궁(연산군)이 좋아하지 않았다.

1495년(연산군 1) 안음현감(安陰縣監)이 되었는데, 당시 정여창은 백성들의 질고가 부럼(賦斂)에 있다고 보고 편의수십조(便宜數十條)를 시행하여 백성으로부터 큰 칭송을 들었다. 그러나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종성(鐘城)에 유배되었으며 그 곳에서 생을 마쳤으며 그 해에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부관참시 되었다.

정여창은 성리학의 근원을 연구하여 진일보 시켰다. 그의 학문은 심학(心學)에 근거한 이학(理學)으로 특히 『중용』, 『대학』에 정밀하였다. 그는 평생 많은 저술을 하였지만, 모두 소실되었고 『일두유집(一蠹遺集)』 정도가 전한다. 철학사상을 볼 수 있는 주요 논문으로는 [이기설], [선악천리론(善惡天理論)], [입지론(立志論)]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기설]에서는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하였으며, [선악천리론]에서는 선악이 모두 천리에서 나온 성이라고 하였고, 또한 기(氣)보다는 이(理)를 중시한 주리론자(主理論者)였다. 정여창은 입지를 중시하여, [입지론]에서는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막아야한다”고 역설하였다.

중종반정 이후 사람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우의정에 추증되었고, 1610년(광해군 2)에 문묘에 종사되었다. 경현서원(景賢書院), 도남서원(道南書院), 남계서원(濼溪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일두유집』이 있다.

### 7) 문정공 조광조(文正公 趙光祖, 1482-1519) 동배향(東配享) 제5위(第五位)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庵),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개국공신 온(溫)의 5세손으로 감찰 원강(元綱)의 아들이다. 부친이 어천도찰방(魚川道察訪)으로 부임하자 그 곳에 따라갔다가 17세(1498) 때에 무오사화로 인해 이웃 고을인 희천(熙川)으로 유배온 김굉필에게 나아가 수학하였다. 1510년(중종 5) 29세의 나이로 사마시(司馬試)에 장원급제하고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34세때에 성균관 유생들의 천거와 이조판서 안당(安塘)의 추천으로 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라는 관직에 초임되었으나 사양하고, 같은 해 알성시(謁聖試)에 급제하여 본격적인 벼슬을 시작하였다. 중종의 총애를 받은 조광조는 불차탁용(不次擢用)을 거듭하여 4년여 만에 대사헌

(大司憲)에 이르렀다. 그러나 급진적인 개혁정치를 추구한 조광조는 안팎의 많은 비판 속에 1519년(중종 14) 12월 훈구대신의 탄핵에 의하여 사사되었다.

조광조의 개혁사상은 지치주의(至治主義: 유학의 이념에 의해 천리가 구현된 이상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한 정치이념이자 실천운동)에 입각한 왕도정치(王道政治)라 할 수 있다. 조광조는 1517년(중종 12) 정 5품인 교리(校理)로서 경연시독관(經筵試讀官)과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겸임하면서, 중종의 두터운 신임을 배경으로 개혁 작업을 실행한다. 그 첫 번째 작업은 바로 향약보급운동이라 할 수 있는 ‘여씨향약(呂氏鄉約)’을 8도에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향촌에 구현하고 동시에 향촌은 사림파가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사장(詞章) 중심의 학풍을 변화시키는 물론, 『가례(家禮)』의 보급으로 조선의 풍습을 일변시켰다. 1518년(동왕 13)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소격서(昭格署)를 폐지시켰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중 2품인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올라 사실상 모든 실권을 장악한다. 두 번째 개혁 작업은 현량과(賢良科)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인재를 과거제도가 아닌 천거로 등용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사림의 세력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광조는 이러한 사림 세력을 배경으로 1519년(중종 14)에 훈구세력인 반정공신(反正功臣)을 공격한다. 그는 반정공신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위훈삭제(僞勳削除)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공신의 3/4에 해당하는 76인이 훈작을 삭탈 당하게 된다. 결국 사림파의 독주에 불만을 느낀 중종은 훈구파의 탄핵을 받아들여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고, 조광조는 유배지에서 사사되었다. 당시 조광조가 옥에 갇히자 성균관 유생을 비롯한 1천여 명의 유생들이 광화문에 모여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조광조의 실패에 대해, 이황과 이이는 나라 다스릴 재주는 타고났으나 학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계에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평하였다.

1567년(선조 즉위년)에 사림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자 신원되어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를 문정(文正)이라 하였으며, 1610년(광해군 2) 문묘에 종사되었다. 죽수서원(竹樹書院), 양현사(兩賢司), 심곡서원(深谷書院) 등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 『정암집(靜庵集)』이 있다.

#### 8) 문원공 이언적(文元公 李彦迪, 1491-1553) 서배향(西配享) 제5위(第五位)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 본관은 여주(驪州)이다. 초명은 ‘적(迪)’이었으나, 중종의 명으로 ‘언(彦)’자를 더하게 되었다.

2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시작했다. 1530년(중종 25) 사간이 되어 김안로(金安老)의 등용에 반대하다가 파직되자 경주 자옥산(紫玉山)에 독락당(獨樂堂)을 짓고 성리학 연구에 전념했다. 그 뒤 1537년(중종 32) 김안로가 몰락하자 다시 벼슬길에 올라 좌찬성(左贊成)에까지 이르렀다. 을사사화(乙巳士禍, 1545)가 일어나자 추관(推官)이 되었으나, 사림의 문초에 소극적으로 임한 이유로 파직되었다. 그 후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 1547)에 연루되어 강계(江界)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저술을 하다 1553년(명종 8)에 생을 마쳤다.

이언적은 조선조 성리학의 방향과 성격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니, 바로 주희(朱熹)의 주리론(主理論)을 조선조 정통 유학의 흐름으로 정립시킨 것이 그것이다. 이언적의 이러한 학문은 스승에게 전수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인 학문을 수립한 것이다. 다만 호가 ‘회재(晦齋)’인 점에서 회암(晦庵: 주희의 호)의 학문을 따르려 한 점을 알 수 있다. 이언적은 27세(1517)에 조선조 성리학사상 최초의 본격적 논쟁이라 할 수 있는 태극(太極)에 대한 개념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언적은 영남의 학자인 손숙돈(孫叔墩)과 조한보(曹漢輔) 사이에 전개된 무극태극론(無極太極論)에 가세한 것인데, 그는 정통 주자학의 주리론의 입장에서 이기선후설(理氣先後說)과 이기불상잡설(理氣不相雜說)을 주장하였다. 곧 태극의 이(理)가 기(氣)보다 선행하여 인륜도덕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이우위설(理優位說)의 견해는 이황에게 전수되어 영남학과 성리설(性理說)의 선구가 된다.

이언적은 만년의 강계에서의 유배생활(1547 - 1553)동안 많은 저술을 하였다.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1549)와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은 비록 주자의 『장구(章句)』와 『혹문(或問)』의 보충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주자와 다른 견해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1553)는 주자의 『중용장구』나 『중용혹문』의 체제를 벗어나 구경(九經: 『중용』 22장,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修身, 尊賢, 親親, 敬大臣, 體群臣, 子庶民, 柔遠人, 懷諸侯)을 중심으로 중용을 해석하려는 독창적인 저술이라 할 수 있다. 『구인록(求仁錄)』(1550)에서는 유학의 핵심개념인 ‘인(仁)’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또 실천 규범인 예(禮)를 제시하였다. 『봉선잡의』(1550)는 조선조 예학파의 선구작이라 할 수 있다. 1567년(선조 즉위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를 문원(文元)이라 하였으며, 1610년(광해군 2)에 문묘에 종사되었다. 옥산서원(玉山書院) 등에 제향되어있다.

## 9) 문순공 이황(文純公 李滉, 1501-1570) 동배향(東配享) 제6위(第六位)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 도옹(陶翁)이며, 본관은 진성(眞城)이다. 12세에 숙부에게 『논어』를 배웠고, 14세경 부터는 혼자 독서하기를 좋아하였으며, 도연명(陶淵明)의 시를 좋아하여 흠모하였다. 20세 경에는 침식을 잊고 『주역』에 몰두하다 건강을 해쳤으며, 이후로 병을 항상 달고 다녔다고 한다. 1527년(중종 22)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그 다음해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33세경에 다시 성균관에 들어갔는데, 이 무렵 『심경부주(心經附註)』를 얻고 그 내용에 크게 심취하였다 한다. 1534년(동왕 29) 34세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시작하였다. 39세에는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이 되었다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그러나 중종 말년에 정국이 혼미해지자 낙향의 뜻을 세우던 중, 43세 때에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에 제수되자 성묘를 핑계로 낙향하였다. 이후 관직을 사퇴하거나 임관하지 않은 것이 20여회에 이르렀다. 46세 때는 낙동강 상류 토계(兎溪)에 양진암(養眞庵)을 짓고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이 무렵에 호를 ‘퇴계(退溪)’라 하였다. 그러던 중 자주 임관의 명을 받자, 중앙관직을 피하여 외직을 지망하였다. 48세 때에 풍기군수가 되었는데, 전임군수인 주세붕(周世鵬)이 창설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편액(扁額), 서적(書籍), 학전(學田)의 하사를 청하여 이루어졌으니 바로 조선조 사액서원의 효시가 된 소수서원(紹修書院)이다. 이 사액서원은 그 후 향약과 함께 사람들이 거둬 흥기 할 수 있었던 주요한 기반이 된다. 1552년(명종 7)에 학교가 폐이(廢弛)함을 근심하여 문행(文行)이 있는 자를 사유(師儒)의 장(長)으로 삼고자 했다. 이에 이황을 발탁하여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아 학문을 진작시키도록 했다.

60세(1560)에는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짓고 7년간 기거하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68세에는 선조의 명으로 대제학 지경연에 출사하여, 성군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조목인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疎)]를 올린다. 그리고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성리학을 10장의 그림으로 풀이한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지어 올린다.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선조는 3일간 정사를 폐하고 애도하였다 한다.

조선조의 학자들이 성리학을 체계적이고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주자학을 집대성한 이황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이황은 특별한 스승이 없이 거의 독학으로 대성하였다. 이황은 중종 38년인 43세 때에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입수하여 풍기군수를 사퇴한 49세 이후에 심독하여 자신의 학문을 완숙시켰으며, 또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53세(1553)에는

정지운(鄭之雲)의 『천명도설(天命圖說)』을 개정하였고, 이로 인해 기대승(奇大升)과 7년 여에 걸쳐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54세에는 노수신(盧守愼)의 [숙흥야매잠해(夙興夜寐箴解)]에 대해 논쟁하였다. 57세에는 『역학계몽전의(易學啓蒙傳疑)』를 완성하고, 58세에는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와 『자성록(自省錄)』을 완성하였다. 63세(1563)에는 『송원이학통록(宋元理學通錄)』을 지었고, 66세에는 『심경후론(心經後論)』을 지었으며, 68세에는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완성한다.

이러한 이황의 학문은 후일 영남학과를 형성함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도 전파되어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실로 이황은 동양 삼국의 학자들에 의해, 주자를 이은 최대의 학자로 칭송되며 성인으로써 일컬어지고 있다. 1970년 서울에 퇴계학 연구원이 창립된 이후, 일본 동경에 이퇴계연구소, 대만 국립사범대학 내에 퇴계학 연구회가 부설되었으며, 근래에는 미국의 워싱턴, 뉴욕, 하와이, 독일의 함부르크, 본에 퇴계학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76년 이래 해마다 세계 도처에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1570년(선조 3) 영의정에 추증하고 1576년(동왕 9)에 문순(文純)이라 증시(贈諡)하였으며, 1610년(광해군 2)에 문묘에 종사되었다. 이후 도산서원(陶山書院)을 비롯하여 이황을 종사한 서원은 전국에 40여 곳에 이른다.

#### 10) 문정공 김인후(文正公 金麟厚, 1510-1560) 서배향(西配享) 제6위(第六位)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 담재(湛齋)이고, 본관은 울산(蔚山)이며, 대대로 호남의 장성에서 살았다. 부친은 참봉 김령(金齡)이며, 모친은 옥천(玉川) 조씨이다.

열 살 때 김안국(金安國)에게 『소학』을 배웠으며, 1531년(중종 26)에 성균사마시(成均司馬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했다. 1540년(중종 3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가 되었고, 그 다음해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543년(중종 38) 홍문관박사(弘文館博士)겸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 및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이 되어 세자를 보도(輔導)하였다. 부모 봉양을 위해 옥과 현감으로 나아갔다가 중종이 승하하자 제술관(製述官)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그러나 채 1년도 안되어 인종이 승하하고 을사사화(1545)가 일어나자 병을 칭탁하고 낙향하였다. 그 후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등에 제수 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김인후는 인종을 지극히

사모하여 매년 인종의 기일인 7월 1일이 되면 집 남쪽 산골짜기에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돌아왔다 한다.

김인후는 조예가 초월하고 기상이 호매하여 도학, 절의, 문장을 겸비한 대표적인 학자로 손꼽히는데, 도학(道學)에 관한 저술보다는 시문집을 더 많이 남겼다. 그러나 그의 성리학적 성과는 유학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학에 정통한 호남의 거유를 뽑자면 당연 김인후를 뽑을 수 있다. 김인후는 이항(李恒)과 기대승(奇大升)이 태극음양설(太極陰陽說)에 대해 논쟁을 벌이자, 기대승의 설에 동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대승이 주정론(主情論)을 세우는 데 중요한 일조를 하게 된다. 또한 노수신의 [숙흥야매잠해]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는데, 이항은 김인후의 뛰어난 견해에 미칠 수가 없다며 극찬을 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김인후는 천문, 지리, 의약, 율령 등에 이르기까지 두루 정통하였다.

1796년(정조 20)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 옥과의 영귀서원(詠歸書院)에 제향되었다. 대광보국 승록대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大匡輔國 崇祿大夫 領議政 兼 令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司)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저서로는 『하서집』, 『주역관상편』, 『서명사천도(西銘四天圖)』, 『백련초해(百聯抄解)』 등이 있다.

### 11) 문성공 이이(文成公 李珣, 1536-1584) 동배향(東配享) 제7위(第七位)

자는 숙헌(叔獻), 호는 울곡(栗谷), 석담(石潭), 우재(愚齋),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부친은 증좌찬성(贈左贊成) 원수(元秀)이며, 모친은 사임당(師任堂) 신씨(申氏)이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학문을 배웠고, 1548년(명종 3) 13세의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6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간 시묘(侍墓)를 하고 19세에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한 후, 다음해에 다시 유학에 전념하였다. 23세(1558)에 이항(李滉)을 방문하고, 그해 겨울에 별시에서 [천도책(天道策)]으로 장원한 후, 전후 아홉 번 장원하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불려졌다. 29세에 호조좌랑(戶曹佐郎)으로 처음 벼슬을 시작하여 우찬성(右贊成)에까지 이르렀다.

이이는 4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의 사상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려 하였을 뿐더러 학문적으로도 큰 업적을 이루었다. 이이는 19세부터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교류해 왔는데, 37세(1572)에 이르러 성리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이루어진다. 성혼은 기대승과 이황 사이에서 벌어진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에 있어서 이황의 설을 따르려고 하였다. 성혼은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이이에게 물었고 이로 인하여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 논쟁을 두 사람의 호를 따서 ‘율우논변(栗牛論辯)’ 이라한다. 여기서 이이는 이황과 기대승은 물론, 서경덕, 노수신, 나흠순 등의 논평뿐 아니라 경전의 본의와 송 대 제유(諸儒)의 설을 집약적으로 논술하게 된다. 이이는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 제유의 설을 비판하였으며, 특히 서경덕의 주기론에 대해서는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을 주장하고,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대해서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한다. 이 논쟁의 요지는 『성학집요』와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모두 들어있다.

이황이 이기호발설을 주장하여 주리론적 관점에 서게 되고, 이이는 기발이승일도설을 주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주기론적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정치활동에도 연결된다. 이황의 경우 정치 현실을 떠나 산림에 이이는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섰다. 곧 34세에 올린 현실 개혁에 관한 『동호문답(東湖問答)』이나 39세에 지은 [만언봉사]와 십만양병설과 대동법의 시행 등을 주장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그의 정치사상과 심오한 학문은 많은 저술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전술한 『동호문답』, [만언봉사] 외에도 40세에 지은 『성학집요』 45세 때 지은 『기자실기(箕子實記)』 47세에 임금의 명으로 지은 [인심도심설]과 이해에 지은 [김시습전]과 [학교모범] 48세 때의 [사무육조] 등을 들 수 있다. 이황이 남인 중심의 영남학파를 형성한 데 비하여, 이이는 서인 중심의 기호학파를 형성하여 영남학파와 함께 쌍벽을 이루게 된다.

1623년(인조 원년 계해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를 문성(文成)이라 하였다. 1681년(숙종 7)에 성혼과 함께 문묘에 종사되었으나 1689년(동왕 15) 일시 출향(黜享)되었다가 갑술환국(甲戌換局, 1694) 때에 다시 종사되었다. 자운서원, 신향서원, 송담서원 귀암서원, 운전서원, 백록동서원 등 20여개 서원에 제향되어있다.

## 12) 문간공 성혼(文簡公 成渾, 1535-1598) 서배향(西配享) 제7위(第七位)

자는 호원, 호는 우계(牛溪), 묵암(默庵), 본관은 창녕이다.

1551년(명종 6) 생원, 진사 초시에는 모두 합격했으나 복시에 응시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

하였다. 1554년(명종 9)에 같은 고을의 이이와 사귀면서 평생의 지기가 되었다. 1568년(선조 1)에는 이황을 만나게 되고, 이후 깊이 존경하게 된다. 같은 해 경기감사 윤현의 천거로 전생 서참봉에 봉해졌고, 이후 벼슬이 좌참찬까지 이르렀으나 대부분 사양하거나 부득이 벼슬에 나아가더라도 곧 사퇴하였다. 대신에 서실의(書室儀) 22조를 지어 벽에 걸어 놓고 학문과 제자 양성에 전념하였다. 성혼은 임진왜란 전까지는 임금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나, 이후로 점점 미움을 받았다. 왜란 중 유성룡과 함께 강화를 주장하였는데, 강화를 주장한 이정암의 입장을 옹호하다 선조의 분노를 사자 사직하고 파주로 돌아갔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서인의 영수에 해당하며, 학문적으로는 이이 사후에 사실상 기호학파의 주도자였다. 그러나 성혼은 정치가라기보다 학자에 가까운 인물이라 하겠다. 그는 자신의 학문을 이이와의 토론을 통해 체계화시켰다. 성혼과 이이 사이에 벌어진 인심도심논쟁인 이 ‘울우논변(1572)’은 성리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논의는 성혼이 기대승과 이황과의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에 있어서 이황의 설을 지지하면서, 이이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시작되어 1년에 9차례의 서신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계속하였다.

파주로 돌아간 이후로 성혼은 조정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많은 참소를 당하였으니, 사후에도 기축옥사(己丑獄事, 1602)에 연루되어 관직이 추탈되기까지 하였다. 1633년(인조 11)에 복직되어,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문간이라 시호하였다. 1681년(숙종 7)에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1689년(동왕 15)에 출향 되었다가 갑술환국 때 다시 종사되었다. 저서로는 『우계집』과 『주문지결(朱門旨訣)』, 『위학지방(爲學之方)』 등이 있다. 죽림서원, 물계서원 파산서원, 운전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 13) 문원공 김장생(文元公 金長生, 1548-1631) 동배향(東配享) 제8위(第八位)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1578년(선조 11)에 학행으로 천거되어 창릉참봉이 되었으며, 동왕 14년 부친인 김계휘를 따라 명나라에 다녀왔다. 1592년(동왕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호조정랑으로 명나라 군사의 군량조달에 많은 공을 세웠다. 1597년(동왕 30)에는 낙향해 있다가 호남지방에서 군량을 모으라는 명을 받고 이를 수행하여 군사감첨정(軍資監僉正)이 되었으며, 그 후 안성 군수가 되었다. 계축옥사(癸丑獄事, 1613)때 동생이 관련되었다 하여 연좌되었으나 무혐의로 풀려난 후

관직을 버리고 연산에 은둔하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 후 원자보도(元子輔導)의 직을 맡기도 하였다. 정묘호란 때 (1627)에는 의병을 모아서 공주로 내려온 세자를 호위하였다.

김장생은 여러 차례 벼슬을 받기는 하였으나 나아가려 하지 않았고 또 나아가도 오래지 않아 사직하여 낙향하곤 했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의 영수 격으로 그 영향력은 매우 컸다. 그는 향리에서 줄곧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고, 이에 그의 문하에는 송시열, 송준길, 장유, 최명길 등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김장생의 스승으로는 이이, 송익필, 성혼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예학에 대해서는 송익필에게 영향 받은바가 크다. 그는 예학을 깊이 연구하여 아들 김집에게 전수시켜 조선 예학의 태두가 되었으니, 예를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격상시켜 독립된 학문으로 체계화시킨 것이다. 조선의 오현중 예의 대표자로 손꼽히는데, ‘동방예가의 대성자’로 칭송되듯 그의 학문에서도 예학이 가장 월등하다 하겠다. 이이와 성혼을 배향하는 서원을 세웠고, 1만 8천자에 달하는 이이의 행장을 짓기도 했다. 그리고 이이가 집필하다 마치지 못한 『소학집주(小學集註)』를 완성하여 발문을 붙였다.

그는 많은 저술을 하였는데 중요한 것으로 『경서변의(經書辯意)』,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가례집람(家禮集覽)』, 『전례문답(典禮問答)』 등을 들 수 있다. 1636년(인조 14)에 이조판서를 추증하고 1657년(효종 8)에 문원이라 증시하였으며, 1717년(숙종 43)에 다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돈암서원(遯巖書院), 도기서원(道基書院) 등 10여 개 서원에 제향되어 있다.

#### 14) 문렬공 조헌(文烈公 趙憲, 1544-1592) 서배향(西配享) 제8위(第八位)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 도원, 후율, 본관은 배천이다.

집이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하였고, 어려서부터 매우 효성스러웠다. 1565년(명종 20)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2년 후 식년문과 병과에 급제하였다. 1568년(선조 1)에 처음으로 관직에 올라 정주목, 파주목, 홍주목 등의 교수를 역임하여 사품을 바로잡는데 힘썼다. 1575년(선조 8)부터 호조좌랑, 예조좌랑,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을 거쳐 경기도 통진의 현감을 지내기도 했다. 조헌은 언론이 과감하고 직언을 서슴지 않아 자주 임금의 노여움을 샀으며, 이로 인해 파직되기도 했다. 1572년(선조 5) 이후 도서관의 정자, 저작, 박사를 지내면서 불사봉향(佛寺封香)을 반대하는 글을 올려 임금의 진노를 사기도 했다. 또한 1587년(동왕 20)에 일본 사신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고, 동인의 영수 이산해를 논박하는 상소를 올려 임금을 진노하게 했다. 동왕 22년에는 지부상소(持斧上訴)를 하여 동인의 전횡과 시정의 폐단을 극론하다가 삼사로부터 탄핵을 받고 길주 영동역에 유배되었으며, 그 후 정여립의 모반사건으로 동인이 실각하자 풀려났다. 1591년(동왕 24)에는 풍신수길의 사신을 보내 ‘정명가도(征明假道)’ 운운하자, 옥주에서 상경, 지부상소를 올리며 3일간 대궐 밖에서 일본 사신의 목을 벨 것을 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해에 다시 왜의 사신이 오자 지부복궐소(持斧伏闕訴)를 올려 왜적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주장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 1,600여명을 모아 8월에 승군과 합세하여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그러나 관군에 의해 의병이 강제 해산 당하자, 남은 700명의 군사로 왜병과 금산에서 전투중 전사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조현은 고경명, 김천일, 곽재우 등과 함께 임진 4충신으로 추앙 받고 있다. 그의 생애로 미루어 보면, 절의가 매우 뛰어나서 도학적인 면모를 갖추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도학과 절의를 겸비한 이물로 이이와 이지함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조선 중기 개혁론의 기수가 된다. 또한 후에 실학파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1574년(선조 7)에 명나라에 다녀와 올린 『동환봉사(東還封事)』에는 그의 개혁사상이 집약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선진 문물제도를 따를 것을 건의하면서, 시무에 급한 문제를 다룬 [팔조소]와 위정의 근본이 되는 문제를 다룬[십육조소] 등이 실려 있다.

그의 학문은 실천궁행으로 주장을 삼고 거경에 힘써서 근독공부(謹獨工夫)를 꾸준히 하였다. 또한 천문 지리 등에 능통하였으며 경세의 대지가 있었다.

1604년(선조 37)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었고, 1734년(영조 10)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1883년(고종 20)에 문묘에 배향되었다. 표충사, 문화서원, 우저서원, 상현서원, 성곡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1971년 금산의 순절지인 칠백의총이 성역화되었다. 저서로는 『증봉집』이 있다.

#### 15) 문경공 김집(文敬公 金集, 1574-1656) 동배향(東配享) 제9위(第九位)

본관은 광산, 자는 사강(士剛), 호는 신독재(慎獨齋), 시호는 문경(文敬)이며, 부친은 문묘에 배향된 김장생이며, 모친은 창녕 조씨이다.

8세에 송상현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나 학통은 가학을 이었다. 18세에 진사시에 2등으로 합격하였고, 1610년(광해군 2)에 현릉창봉으로 제수 되었으나 사직하였다. 인조반정(1623) 이후 부여현감과 임리현령, 공조참의 등을 지냈으나 사직하고 학문에 몰두하였다. 그는 관직 생활보다는 부친 김장생과 함께 은거하여 학문 연구와 교육에 전념한 기간이 더 길었다. 1650년(효종 즉위년)에 다시 등용되어 동부승지(同副承旨), 공조참판(工曹參判), 예조참판(禮曹參判), 대사헌(大司憲) 등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임하였다. 그러나 태학의 유생들이 벼슬에 더 있게 해달라는 상소를 올리는 등 그의 덕을 흠모하는 자들이 많았다. 76세에 김상현의 청으로 이조판서에 임명되어 효종과 함께 북벌을 계획하기도 했다. 80세에 좌참찬이 되었고, 81세에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

김집은 부친에게서 예학을 전수 받아 이를 체계화시켰다. 그는 관혼상제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후 예학의 방향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예학은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고례(古禮)를 보다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는 이이와 김장생의 학문을 이어받아 송시열에게 전수해주어 기호학과를 형성시켰다. 문인으로는 송시열 외에도 송준길, 이유태, 유계, 윤선거 등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1883년(고종 20)에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문묘와 효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돈암서원, 봉암서원, 창주서원, 문정서원, 부산서원, 월봉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고례에 입각해 당시 상례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 『고금상례이동의(古今喪禮異同議)』 외에도 『신독재문집(愼獨齋文集)』, 『의례문해속(儀禮問解續)』 등이 있다.

#### 16) 문정공 송시열(文正公 宋時烈, 1607-1689) 서배향(西配享) 제9위(第九位)

아명은 성뢰(聖賚), 자는 영보(莢甫)이며, 호는 우암(尤庵), 본관은 은진이다.

8세 때부터 친척인 송준길의 집에서 함께 공부했으며, 후에 김장생과 그의 아들인 김집에게 배웠다. 1633년(인조 11)에 생원사에서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를 논술하여 장원하였고, 이로 인해 명성이 크게 알려졌다.

1635년(인종 13)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사부가 되었으나 병자호란으로 봉림대군이 볼모로 잡혀가자, 낙향하여 모든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자 비로소 벼슬에 나아갔다. 그는 [기축봉사(己丑封事)]를 올려 춘추대의와 복수설치(復讐雪恥)를

역설하여 효종과 의지를 일치시키기도 했으며, 효종으로부터 북벌의 밀지를 여러 차례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청의 압력으로 물러난 뒤, 충주목사, 사헌부 집의, 동부승지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658년(효종 9) 효종의 간곡한 부탁으로 다시 찬선에 임명되어 북벌계획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5월 효종의 급서와 조대비의 복제 문제 등으로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벼슬을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1668년(현종 9)에 우의정에, 1673년에 좌의정에 잠시 임명되기도 하지만 곧 사퇴하고 재야에 머물러 있었다. 비록 재야에는 있었지만 그는 조정의 공론을 좌지우지 하였고 대신들도 매사를 그의 의견을 물어야 할 정도로 사람의 중망과 함께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674년(현종 15) 효종비의 상으로 인해 일어난 2차 예송에서 서인들이 패배하자, 그도 덕원, 장기 등으로 유배되었다. 그후 경신환국(庚申換局, 1680)으로 다시 정계에 복귀하였으나 1683년(숙종 9)에 사직하고 괴산의 화양동에 은거하였다. 1689년(숙종 15) 세자책봉은 시기상조라고 상소하였다가 제주에 유배되었으며, 그 해 6월 서울로 압송되던 중 정읍에서 사사되었다.

송시열은 이이 김장생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대표적 인물로 당대뿐 아니라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암은 평생동안 주자를 연구하였으며, 또 가장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평해진다. 또한 춘추대의에 입각하여 존왕양이에 따른 북벌론을 주장하였으며, 일생을 ‘명의(名義)’ 두 글자를 위해 살다간 인물로 평해진다. 그는 사변적 이론보다는 실천적 수양과 사회적 적용을 중시하여, 현실 개혁책으로 군제변통(軍制變通)과 공안개정(貢案改正), 서얼허통(庶孽許通), 사창제(社倉制)실시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권상하, 김창협, 이단하, 송상민 등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특히 권상하의 문인으로 한원진, 이간 등을 배출함으로써 조선 후기 기호학파의 주류를 형성함은 물론, 그의 학맥은 조선말기의 척사위정론(斥邪衛正論)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우암은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신원 되었으며, 다음해에 문정이라 추시되었다. 효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1756년(영조 32)에 영의정에 추증되어 송준길과 함께 문묘에 배향되었다. 대로사(大老祠), 화양동서원(華陽洞書院), 매곡서원, 초강서원 등 전국 의 수많은 서원에 제향되었다. 그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주자대전차의』, 『주자어류소분(朱子語類小分)』, 『정서분류(程書分類)』, 『송자대전(宋子大全)』(215권 102책) 등이 있다.

## 17) 문정공 송준길(文正公 宋浚吉, 1606-1672) 동배향(東配享) 제10위(第十位)

자는 명보(明甫), 호는 동춘당(同春堂), 본관은 은진이다.

어려서부터 이이를 사숙하였고, 20세 때에 김장생의 제자가 되었다. 1624년(인조 2) 진사가 된 뒤 학행으로 천거되었고 동왕 8년 세마(洗馬)에 제수된 뒤, 동몽교관, 예안현감, 형조좌랑, 한성부판관 등에 임명되었으나 대부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효종이 즉위(1649)하면서 송시열과 함께 발탁되어 통정대부에까지 이르러, 송시열과 함께 효정의 북벌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결국 물러나게 된다. 1658년(효종 9)에 대사헌. 이조참판 겸 제주(祭酒)가 되었다. 그러나 다음해에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하면서 자의대비의 복상문제로 인해 예송이 일어나자, 남인의 삼년 설을 누르고 기년설을 관철시켰다. 이 해에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곧 사퇴하고 이후 여러 차례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계속 사퇴하였다. 사후 1673년(현종 14)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나 이듬해의 2차 예송에서 서인이 패하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자 1675년(숙종 1) 관작을 삭탈 당했다가 1680년(숙종 6)에 갑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관작이 복직되었다.

송시열과는 동족, 동문이며 학문의 경향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니 송시열과 함께 양송(兩宋)으로 칭해졌다. 그리고 송시열이 독선적이고 강직한 성품으로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데 비하여, 인품이 원만하고 규각(圭角)을 드러내지 않아 비교적 비판이 적었고 인간관계도 원만하였다. 학문적으로는 이이의 학설을 지지하였고, 또한 예학에도 밝았다. 일찍이 그의 스승인 김장생은 그가 동방 예가의 종장이 될 것이라 칭찬하였다 한다. 문하에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는데 대부분 송시열의 문하에도 같이 출입했으며, 송상민, 남구만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681년(숙종 7) 문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1756년(영조 32)에 문묘에 배향되었다. 승현서원, 충현서원, 봉암서원, 돈암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어록해(語錄解)』와 『동춘당집(同春堂集)』이 있다.

## 18) 문순공 박세채(文純公 朴世采, 1631-1695) 서배향(西配享) 제10위(第十位)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 남계(男溪),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그는 명문가에서 태어났는데, 증조부 응복은 대사헌이며, 조부 동량은 형조판서이며, 신희의 외손이다. 또한 박세당, 박태유, 박태보 등과는 친족간이며, 송시열의 손자를 사위로 삼았다.

1649년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651년(효종 2)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문제를 두고 영남 유생이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박세채는 이에 대해 이를 비판하는 글을 냈다가 효종의 꾸지람을 듣자,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651년(효종 2)에 김집에게 수학하였으며, 1659년(동왕 10)에 익위사세마(翼衛司洗馬)로 천거되었다. 이해 5월 효종이 승하하고 예송이 일어나자, 송시열의 기년설을 지지하여 관철시켰다. 그러나 2차 예송에서 패하자, 그도 관직을 삭탈당하고 양근, 원주 등지에서 6년간 유배생활을 하게 된다. 그 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1680)으로 다시 등용되어 벼슬이 대사헌과 이조판서 등을 거쳐 우참찬에 이르렀다. 1684년(숙종 10) 노론과 소론의 대립을 막으려 하였으나, 결국 소론을 지지하게 된다. 1689년(동왕 15) 기사환국이 일어나자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다시 갑술옥사(1694) 이후 좌의정에 올랐으며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에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6년간의 유배생활과 기사환국 이후의 은거 생활을 통해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우선 유배기간 동안에는 여러 경서의 난해한 곳을 풀이한 『독서기(讀書記)』와 『춘추보편(春秋補編)』을 비롯하여 ‘경(敬)’에 대한 여러 학자의 설을 정리한 『심학지결(心學至訣)』 등을 지었다. 그리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는 윤증(尹拯), 정제두 등 소론계 학자들과 학문을 토론하였다. 『이학통록보집(理學通錄補集)』,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등을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 도학의 연원을 밝혔으며, 『양명학변(陽明學辨)』 등의 글을 통해 양명학을 비판하여 도통수호에 전력하였다. 또한 그는 예학의 대가로, 『남계선생예설(南溪先生禮說)』, 『육례의집(六禮疑輯)』 등을 통해 오류의 근거를 밝히고 구체적인 예의 절차까지 탐구하여 예학을 한 차원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17세기의 성리학은 예학적 전개 양상을 띠게 된다.

오관서원, 자운서원, 반계서원, 비봉서원, 구봉서원, 문회서원 등에 제향되었으며, 1698년(숙종 24)에 문순이라 증시하였고, 1764년(영조 40)에 문묘에 종사되었다. 저서로는 위에서 든 것 외에도 『남계집』, 『가례요해』, 『성현유법』 등 수백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하였다.



## ■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대학지(太學志)』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한국교육사자료』Ⅱ(국사편찬위원회, 1975)  
『성균관대학교사』(성균관대학교사편찬위원회, 1978)  
「이조학교풍속고」(김동욱, 『중앙대학교논문집』 3, 1958)  
「성균관창립고」(양대연, 『성균관대학교논문집』 4, 1959)  
「선조의 성균관연구」(이성무, 『역사학보』 35·36합집, 1967)  
「고려시대에 있어서의 성균관의 성립과 변천」(민병하, 『대동문화연구』 6·7합집, 1970)  
「이조초기의 성균관의 정비와 그 실태」(신석호, 『대동문화연구』 6·7합집, 1970)  
「이조후기에 있어서의 성균관의 변천과 개혁」(김윤곤, 『대동문화연구』 6·7합집, 1970)  
「여말선초의 과업교육」(이병휴, 『역사학보』 67, 1975)  
「성균관-조선전기-」(신석호, 『서울육백년사』 1, 1977)  
「성균관-조선후기-」(신해순, 『서울육백년사』 2, 1978)  
「조선전기의 공관(空館)연구」(이의권, 『사학연구』 28, 1978)  
「성균관-개화기-」(신해순, 『서울육백년사』 3, 1979)  
「조선후기의 공관·권당연구(空館·捲堂研究)」(이희권, 『사학연구』 30, 1980)
- 『문화재대관』(문화재관리국, 1968)  
『한국문화사대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8)  
『한국건축미』(주남철, 일지사, 1983)  
「조선초기의 향교」(이성무, 『이상옥박사회갑기념논문집』, 1969)  
「조선시대의 향교교육정책에 관한 연구」(한동일, 『성대논문집』 17, 1971)  
「전국향교현황조사」(임한영, 『성대논문집』 17, 1972)  
「조선전기의 교생신분(校生身分)」(이범직, 『한국사론』 3, 서울대학교, 1976)  
「조선전기 유학교육과 향교의 기능」(이범직, 『역사교육』 20, 1976)

114 제1장 성균관·향교의 개관

「청주(淸州)향교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이재현, 『청주대논문집』 13, 1980)

「조선시대 교육공간에 관한 고찰」(서상우, 『건축』 25-101, 1981)

「16세기 이후의 향교교육제도」(한동일, 『대동문화연구』 17, 1983)

『공자통기(孔子通紀)』

『사해(辭海)』

『대학지(太學志)』

대성전 [大成殿]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향교 [鄕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성균관 [成均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제2장 | **용인의 유학 교육과  
유교 문화 유적**



## 제1절 조선시대 용인지역의 유학 교육

### 1. 조선시대 용인 유학교육의 산실

조선시대의 지방교육은 주로 향숙(鄉塾)·향교(鄕校)·서원(書院) 등에서 실시되었다. 용인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용인지역의 교육기관으로 조선 초기에는 용인향교와 양지향교가 있었으며, 조선 숙종 이후에 충렬서원(忠烈書院)·심곡서원(深谷書院)이 건립되면서 서원에서의 사교육이 실시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한천서원(寒泉書院)이 건립되었다. 도암 이재의 기록에 의하면 용인향숙(龍仁鄉塾)에서도 여러 명의 학생들이 수강하였다.

조선시대 용인지역 교육의 실상은 <심곡서원학규> <충렬서원학규> <용인향숙절목> 등에서 살필 수 있다. 이들 자료는 모두 『도암집』에 수록되어 있다. <심곡서원학규>는 심곡서원 강당에 현액되어 있어 당시의 교육실체를 실감할 수 있다. <심곡서원 학규>는 주자의 <백록동서원학규(白鹿洞書院學規)>와 율곡의 <학규모범(學規模範)>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재의 서문과 총18개 조목의 규칙이 열거되어 있다.

도암 이재는 서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 학규를 지은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배움이라 함은 사람됨을 배우는 것을 말함이다. 사람다워지는 방도는 한 권의 『소학』에 실려 있다. 주자께서 말씀하기를 ‘그것이 사람의 모양을 만드느니라’ 하였는데 무릇 선비가 배움에 뜻을 가졌다면 이 책을 제하고는 어디서 찾겠는가? 우리 문정공 정암 선생은 실로 동방 도학의 중주인데, 그의 배움은 곧 『소학』을 위주로 하여 사서와 『근사록』에 이른 것이다. 대개 듣는 바로는 한훤당 김굉필 선생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소학동자’라 자처하였다고 하니, 정암 선생은 소시에 한훤당으로부터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 책을 독실하게 믿는 것이니, 이와 같은 연원은 스스로 있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향리에는 다행히 여러 번 선생이 머물렀던 곳이며 의대와 신발과 조두를 모시고 있음으로 무릇 우리는 봉맥지사라 할 것이니, 어찌 흥기하여 돈독하게 하지 않으리오. 이제로부터 서원에 있는 자는 선생의 그림자를 따라 의당 선생이 읽으신 바의 글을 읽으며, 선생께서 읽으시려고 했던 글을 읽고자 하며, 또한 스스로 『소학』부터 시작하여 서로 면려함이 옳을 것이다.」

<심곡서원 학규>의 내용을 보면 독서의 차례, 장의와 직월의 임무, 서원 내에서의 행실, 강설 불참자에 대한 체벌과 상벌에 관한 사항, 원장이 해야 할 일, 서원 운용과 재정에 관한 사항, 서원내 장서의 반출과 수납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춘추 향사에 관하여 선비들이 습득하고 행하여야 할 의식과 유생 상호간에 지켜야 할 예의, 서원의 전곡 수납에 관한 사항, 강학할 서책의 복습과 예습에 관한 사항, 강회 참여 유생의 출석과 근태 등을 세세히 열거하였다.

충렬서원의 학규 역시 이재가 지은 것으로 심곡서원과 다르지 않다. 독서의 차례는 우선 소학(小學)을 읽고, 대학 겸혹문(大學兼或問)·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시경(詩經)·서경(書經)·역경(易經)·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가례(家禮) 등 여러 책을 순환하여 읽었다. 서원에서는 과업문자(科業文字)를 짓지 못하게 하였으며, 오직 의리지설(義理之說)에만 전념토록 하였다.

용인향속의 구성원은 사장(社長) 1-2인, 동몽훈회(童蒙訓誨) 1인, 직월(直月) 1인이며, 매일 5일과 20일에 설강하였다. 강독서는 우선 소학을 읽고, 다음으로 사서육경, 때때로 선현들의 성리서와 사기를 읽었다. 나이가 30이하인 자는 배강(背講)하였다. 매달 삭망에는 강원(講員) 모두 서원의 강학에 참가하여야 한다.

## 2. 조선시대 용인의 학맥

용인지역은 예로부터 유학과 관련이 깊다. 고려말엽에는 이석지(李釋之)가 남곡에 은거하여 학문에 몰두하였다. 조선건국 이후 1406년(태종 6)에 포은선생의 묘역을 모현면 능원리에 천장함으로써 전국유림들의 주목을 끌었다. 조선조의 수도인 한양과 근접한 용인지역에는 용인향교와 양지향교가 다른 지역보다도 빨리 건립되었다. 일찍이 유학의 기틀이 마련된만큼 과거급제자도 다른 군현보다 많았다. 구체적인 사례로, 강여중(康汝中)은 1419년(세종 1)에 문과 급제하여 보령현감을 지냈다. 황효원(黃孝源)은 1444(세종26)에 장원급제하여 우참찬에 올랐다. 그의 아들 강효문(康孝文)은 1450(세종32)에 문과급제 후 예조참판에 올랐다. 백암면 옥산리 출신 박원형(朴元亨)은 1423년(세종 14)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알성문과에 급제한 뒤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이말손(李末孫)은 1480년(성종 11)에 진사시에, 양지에 사는 유문창(柳

文昌)과 허신(許信)은 생원시에 합격하는 등 한 해에 3명이 급제한 사례가 있다. 이사온(李思溫)은 1483년(성종 14)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조광조는 부친상을 당하고 3년간 시묘하는 동안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유학에 몰두하였다. 이는 용인지역 선비들의 유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6세기 이후 기묘명현들의 활약도 용인지역의 학문 경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조선 초기 향교 중심의 관학에서 사학 우선으로 변화하는 계기도 이때부터 형성되었다. 용인 유림의 공의(公議)로 정몽주와 조광조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서 두 선생의 묘도(墓道) 중간지점인 죽전에 죽전서원(竹田書院)을 창건하였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죽전서원이 소실되자 충렬서원, 심곡서원을 건립하였다.

용인지역에 충렬서원·심곡서원이 건립되면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 차례 사화와 전란을 겪고 난 조선왕조는 의리사상(義理思想)과 왕도정치(王道政治)를 공고히 하고자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면으로 정몽주를 동방이학의 조종으로, 조광조를 도학의 종장(宗匠)으로 추송하였다. 따라서 충렬서원·심곡서원에는 당대 최고의 학덕을 갖춘 인물들이 원장에 추대되기에 이른다.

충렬서원은 기호학과 중에서도 노론계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수선지지(首善之地)로 사론(士論)을 형성하고 공론(公論)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서원으로 인식되었다. 충렬서원의 역대원장을 기록한 <충렬서원선생안>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충렬서원의 원장으로 역임한 인물 가운데 이정구·오윤겸·조익·김육·홍명하·송시열·김석주·민정중·박세채·권상하·이재·이정보·김원행·홍직필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경대부(京大夫)들이 서원의 원장인 관계로 “조선시대 사대부의 자제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한 이가 많았다고 하며, 한때는 능골에 400여호가 살았다”고 전한다. 충렬서원을 중수하던 당시의 제반 상황을 기록한 <충렬서원중수록>에서도 충렬서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서원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용인지역에서 충렬서원·심곡서원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강학이 이뤄지자 서원을 중심으로 사숙(私塾)에서 수학한 인물들이 사회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시직(李時稷)을 들 수 있다. 그는 용인에서 출생하여 기호학파를 형성한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을 수학하였다. 1624년(인조 2)에 문과 급제하여 시임봉상판관(時任奉常判官)이 되었다. 이시정(李時程)은 광해군 때 폐모론이 일자 모현면 능골로 낙향하여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을 가르쳤다. 18세기를 전후하여 정제두와 정찬조 역시 충렬서원을 출입하며 학문을 연마하였다. 이재는 이동면 노루실에서 태어나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으로 율곡선생을 사숙했다. 영조 초기에 노론의 입장에서 소론을 배척하는 상소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용인으로 낙향하여 저술과 후진을 가르치며 일생을 마쳤다. 이재의 제자인 이행상(李行祥)은 은적암(隱寂菴), 충렬서원, 서재사(書齋祠)를 오가며 후학을 가르쳤으며, 기호학파의 학맥을 계승하였다. 이행상의 『왕림유고(旺林遺稿)』에 충렬서원에서 수학한 문인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재의 문하에서 수학한 제자들의 성명을 부기(附記)하였는데 충렬서원의 유생인 정규채(鄭奎采)·김성로(金星魯), 한천서사(寒泉書社) 유생인 이경증(李景曾)·이채(李采), 용인유생인 박현수(朴玄壽)·정성채(鄭星采) 등과 송황중(宋瑬中)·최석경(崔錫慶)·신덕우(辛德羽)·성봉묵(成鳳默)·정환흠(鄭煥歆)·이청수(李清秀) 등의 이름이 들어 있다.

용인지역은 한 때 남인계와 서인계가 공존하기도 하였으나, 서인계가 노론·소론으로 분화되자 이재의 영향으로 노론계가 주도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표6-1〉 용인지역 유학교육의 선도자

시기	구분	유학자
조선중기	기묘명현	조광조(趙光祖), 조광보(趙光輔), 조광좌(趙光佐), 이자(李籽), 김세필(金世弼), 공서린(孔瑞麟), 이성동(李成童)
조선중기	충렬서원	이시직(李時稷), 이시정(李時程), 정찬조(鄭繼祖), 정찬휘(鄭繼輝), 정찬창(鄭繼昌), 정제두(鄭齊斗), 이행상(李行祥), 정규채(鄭奎采), 김성로(金星魯)
	한천서원	이경증(李景曾), 이채(李采)
조선후기	용인향교	박현수(朴玄壽), 정성채(鄭星采), 송황중(宋瑬中), 최석경(崔錫慶), 신덕우(辛德羽), 성봉묵(成鳳默), 정환흠(鄭煥歆), 이청수(李清秀)
근대시기	명륜학교	이도재(李道宰), 맹보순(孟輔淳), 김학조(金學祖), 어대선(魚大善), 외
	기타	정관해(鄭觀海), 유정(柳珽), 이종현(李鍾賢), 이병주(李秉宙)

이원명교수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용인은 전국 3백여개 현(縣)에서 생원, 진사시인 소과에서 139명, 대과인 문과에서 53명의 급제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용인향

교·충렬서원·심곡서원·한천서원·용인향속의 교육적 역량이 얼마나 지대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1871년에 서원철폐령으로 충렬서원이 훼철되기 전까지는 용인지역은 유학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곳이며, 기호학파의 산실이었다. 그러나 갑오경장으로 인하여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서원을 중심으로 발전하던 용인지역의 유학은 크게 위축되었다.

### 3. 근·현대 용인지역의 유학교육

#### 1) 용인의 근대 교육기관 설립과 유학 교육

전근대 시기 전국 향촌에서 유학교육은 서당과 향교, 서원 등에서 이루어졌다. 서당에서는 기초적 한문 교육을 받았으며, 좀 더 수준 높은 유학 교육은 향교와 서원에서 실시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받은 향교에서 유학교육을 주도해나갔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은 서원과 문중 사우가 건립되면서 지방의 유학 교육의 수요를 흡수해갔다.

향교와 서원은 향사와 강학의 기능만 가진 것은 아니었다. 지역 사족인 유생들은 향교와 서원에 교생(校生)과 원생(院生)으로 등록하고 향촌의 세력기반으로 삼았다. 결국 지역 사족들은 향교와 서원을 통해 향촌의 사회통제와 유교에 입각한 교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19세기 말 대원군에 의해 서원이 정리되기 전까지 용인의 유학 교육기관으로는 용인향교와 양지향교가 있었으며 서원은 충렬서원, 심곡서원, 한천서원이 있었다. 그러나 전국의 서원이 47개로 정리하면서 용인에는 심곡서원만 존치하고 나머지 두 서원은 철폐되었다.

서원 정리로 지방의 유생은 대부분 향교에 귀속하게 되었다. 아울러 개항 이후 유입된 신문물과 사상에 대항하여 전통적 가치의 상징으로 향교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더구나 서원 정리 이후 향교는 대부분의 군현에서 거의 유일한 교육 교화기관으로 향촌 사족을 집결시키는 구심체가 되었다.

그러나 한말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신문물을 흡수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 아래 신식학교



가 설립되었다. 그러면서 향교를 중심으로 집결되었던 향교 유림 집단도 신분제도의 혁파와 과거제도의 폐지 등의 개혁에 따라 새로운 질서에 따라 개편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외세의 의한 국권 상실이라는 민족적 수난을 겪게 되면서 조선시대 국가 이념인 유학 교육을 담당했던 향교의 권위는 약화되었다. 아울러 향교를 둘러싸고 향촌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향교를 둘러싼 유림 집단은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격하되어갔다.

1895년 갑오개혁을 뒤 이은 을미개혁으로 학부(學部)의 개설 이후 성균관 및 향교에 대한 규정은 삭제해 버렸다. 이로 인해 성균관 및 향교는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신식학교에 빼앗기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학교 정책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었던 비중이 급속도로 격감되었다.

1907년에는 학부에서 아예 성균관과 향교를 전담할 부서를 없앴다. 그 이듬해에는 학무국 내 제일과라는 하위부서에다 향교업무를 다른 부대업무로 처리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대단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성균관과 향교를 중심으로 한 구교육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축소 외면하였다.

더구나 1908년 10월 29일 칙령 제76호 성균관관제 개정의 건 중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향교에 직원(直員) 1인을 두되 판임관(判任官)으로 하고 당해군(當該郡) 유림중으로 선임함. 향교 직원은 문묘를 직수(直守)하며 교내 서무에 종사함. 향교 직원은 봉급을 급(給)치 아니 함.”<sup>1)</sup> 이어 1909년 9월 24일 고시에 의하면 향교의 장의 등 임명폐지의 건에 의해 칙령 76호에 의해 각 부군 향교에 직원을 임치하였으니 종전의 장의(掌議), 재임(齎任) 등 일체의 임명은 자동적으로 폐지되므로 이를 계속 임명하면 관제를 무시한 것이므로 엄중하게 처분한다고 하였다. 1910년 4월 28일에는 향교 직원에 대한 학부훈령에서 향교 직원은 향교 및 지방 문묘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신 학제의 반포로 관공립학교가 계속적으로 설립되고 아울러 민족적 성격을 띤 사립학교의 증가로 신학문 교육이 점증하자 일부 유림은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근대학교 설립에 적극적인 경우가 생겨났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종래 사대부로서의 신분적 계급적 지위유지를 위한 향촌 사회의 통제의 거점이 되었던 향교나 서원에서 신학문을 교육하기 위한 신학교의 부설이 이루어졌다.

용인에서는 향교나 서원에서 유생들의 강화 활동에 대한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1 한말 근대법령, 한국근대사 기초 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그런데 오산(烏山)에 궐리사(闕里祠)가 복설되면서 서정순이나 심의운이 여기서 강학을 한 기록이 있다. 한편 이들의 제자인 맹보순도 1896년에 상집례의 동반수로 강학에 참여하였다.<sup>2)</sup> 따라서 용인향교와 양지향교와 함께 용인에서 훼손되지 않은 유일한 서원인 심곡서원에서도 지역 내 명망있는 유생을 초빙하여 강학활동이 이루어졌으리라 볼 수 있다.

맹보순은 태어난 것은 진천이지만 9세 때 용인으로 와서 누이의 시조부(媼祖父)인 운수(雲水) 김좌상(金佐商)<sup>3)</sup>에게 유학을 배웠다. 그 뒤 서정순의 제자가 되었으며, 1894년 32살 되던 해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용인 갈천의 금화산(金華山)으로 집을 옮기고 학강(學講)을 열었으며 오산의 궐리사에서 강학 활동을 하였다. 1897년에는 생질인 성재(聖齋) 김학조(金學祖)가 상촌(桑村)에 강사(講舍)를 지어 외숙인 그에게 강학하도록 하였다.<sup>4)</sup>

1900년대 들어 용인지역<sup>5)</sup>에서도 인근 지역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근대적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용인지역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한 근대적 교육기관 및 교육활동과 관련한 신문기사나 자료는 <표 1>과 같다.

용인지역에 설립된 근대학교 중 최초로 기록에 보이는 것은 1900년경 오혁선(吳赫善)이 현 기흥구 서천동에 설립한 사립소학교였다. 이 사립소학교는 처음에 부교원 하석우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다가 중추원(中樞院) 의관(議官)과 시종(侍從)을 지내던 오철선(吳喆善)과 같은 형제의 도움으로 공립소학교의 인허를 받았다. 하지만 계속 보조금 지원과 교원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902년에 가서 하석우의 뒤를 이어 전재규와 이근형이 부교원으로 부임하였지만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자 1904년 이후 폐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인에는 많은 학교들이 설립되어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들 학교들이 모두 유학교육에 전념한 것은 아니다. 유학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진 학교는 용인향교에 설립된 명륜학교 정도일 것이다. 양지향교에 설립된 추양학교(秋陽學校)와 같이 유교적 소양이 깊은 지역의 유지에 의해 설립된 학교는 신학문을 중심으로 교육하며 기초적 유학적 지식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다.

2 『華城 闕里祠誌』, pp.152~155, 2011

3 『경주김씨 갈천공파 족보』에 따르면 金雲水是 본명이 佐商이며 金學祖에게는 증조부가 된다. 김학조의 생부이자 맹보순의 姊兄인 華植의 조부이다.

4 맹보순, 『行狀』『東田文集』, 三槐堂, 2001, p.113-127

5 당시 용인지역은 1914년 일제에 의해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까지 용인군, 양지군과 죽산군의 일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표 1〉 구한말 용인지역 교육활동 관련 기사

자료 명	게재 일자	학 교 명	주요 내용	비고
皇城新聞	1900.7.3	私立小學校	吳赫善 학교 설립하여 학도가 40명에 이룸, 교원은 河錫禹	
皇城新聞	1901.2.5	公立小學校	吳仁泰 학교 설립 반년이 넘음, 공립인허 보조 및 교원 파견위한 시찰 요구	
皇城新聞	1901.8.3	私立學校	용인 사립학교 우등생 시상	
皇城新聞	1901.12.10	器谷面 書川公立小學校	부교원 河錫禹 학교 설립 3년 운영경비 부족 보조비 예산안 편성 요구	기흥구 서천동
皇城新聞	1902.6.13	龍仁公立小學校	河錫禹 해임, 全在圭 임명	
皇城新聞	1902.11.6	龍仁公立小學校	田在圭 해임, 李根炯을 임명	
皇城新聞	1904.4.15	龍仁公立小學校	李根炯 해임	
明倫學校日記 (李鎔建 기술)	1907.2.~7. (음력)	明倫學校	孟輔淳이 용인향교에 설립 李道宰 교장, 金學祖 재정지원	언남동
大韓每日申報	1908.1.15		千百春, 李敏根이 용인군 김량장시 학교 설립	김량장
皇城新聞	1908.4.1	進明學校	千百春, 李培根이 김량장에 진명학교 설립 宋鍾憲은 생도 40명이 단발하자 백미 1석 기부	김량장
皇城新聞	1908.4.3	秋陽學校	양지군 紳士 宋鍾憲, 李晚承, 柳章根, 申亮均, 柳碧말기 추양학교 설립, 군수 沈宜赫, 재무서장 등 義捐	양지면 양지리
皇城新聞	1908.6.27	進明學校	김량장 학교장 李培根 학교 보조 요구 행패	김량장
皇城新聞	1908.9.17	私立 明新學校	죽산 좌찬 有志紳士 李必 등 학교 설립, 취지서 발표	원삼면 좌향리
大韓每日申報	1908.9.19	三岳學校	원삼면 능촌에 呂準이 吳台善, 吳龍根과 설립 吳恒善이 자기집 기부	원삼면 죽릉리
皇城新聞	1908.10.20		용인군 郡會에서 의무교육 결의 면장 이장 의연	
大韓每日申報	1909.6.9		용인군수 尹弼求 학교 설립 1달 80-90명 자원 의연	
大韓每日申報	1909.10.22	明新學校	죽산군수 李潤永 원일면 명신학교 경비 50원 의연	
大韓每日申報	1909.11.25	明新學校	竹山郡守 李潤永, 紳士 沈鎮奎, 근이면 울리 명신보통학교 설립	백암면 용천리
皇城新聞	1910.1.16	薰陶學校	죽산군 원이면 분촌 陸永世 금 5환 의연	원삼면 미평리
大韓每日申報	1910.5.4	勞動夜學	죽산군 근삼면 두평에 李夔夏, 李範俊, 李範寬 가 설립	백암면 근곡리
大韓每日申報	1910.5.18	三岳學校	김학득 중제 상옥의 학비 부담	
全弼淳 審問書	1920.3.1	鳳陽學校	1912년 全弼淳 졸업	백암면 용천리

1908년 원삼면 죽릉리에 설립된 삼악학교는 다른 교육기관과 성격이 달랐다. 신유학과 신식 학문에 능통한 여준(呂準)<sup>6)</sup>에 의해 설립되어 유학보다는 민족주의적 신학문을 주로 교육하였다.

기흥구 서천동의 용인공립소학교의 뒤를 이어 기록에 보이는 학교는 1906년 5월 7일 맹보순(孟輔淳)에 의해 용인향교에 세워진 명륜학교(明倫學校)이다.<sup>7)</sup> 『명륜학교일기(明倫學校日記)』에 의하면 교장은 모현면 능곡 출신으로 학부대신과 농상공부대신을 지낸 이도재(李道宰)였으며 실제 교육활동을 벌인 교사는 맹보순이었다. 명륜학교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맹보순의 생질인 김학조가 계속 학교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명륜학교는 1907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에 의연금을 모금하여 민족운동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애국적이고 충효와 형제간 우애, 스승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창가를 지어 보급하여 민족의식을 일깨우기도 하였다.<sup>8)</sup>

그러나 1908년 용인군수로 강경한 개화파인 고청룡(高靑龍)이 부임하자 명륜학교 학생들에게 단발을 강요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맹보순은 학생들을 이끌고 수원으로 학교를 옮기자 학도가 수백명에 이르렀다. 이곳에서는 학과를 나누어 교수하면서 사서오경을 위주로 하고 여러 학문도 가르쳐 신구학문이 함께 나아가게 교육했다.<sup>9)</sup> 맹보순이 명륜학교를 수원으로 옮겨 문학, 실업, 법률, 유석(儒釋) 등 4개 과를 개설했으며 학도는 100여명에 달했다.<sup>10)</sup>

이를 통해 보면 용인향교에 있었던 명륜학교에서도 학과를 나누고 실업과목도 가르치며 신구학문을 병행하여 가르친 교수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명륜학교가 1908년 말 맹보순에 의해 수원으로 옮기고 난 후 용인향교의 학교 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다음해인 1909년 6월 19일 학교 재산 일체를 인수하여 사립 용인보통학교가 개교하였다.<sup>11)</sup> 이 학교는 이전 명륜학교와는 관계가 단절되고 1910년 4월 1일 용인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되었다. 이 후 용인군청이 김량장으로 옮겨가서 현재 구성 지역이 쇠락해지자 1917년 학교를 현재 신갈초등학교가 있는 신갈동 65번지로 이전하였다.<sup>12)</sup> 이로서 명륜학교

6) 呂準의 자세한 행적은 김태근 《여준의 민족운동 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5 참고

7) 정광순 <용인명륜학교일기에 관하여>, 《제14회 향토문화연구 논문집》, 1999. p237-265

8) 李鎔建 <명륜학교 일기> 《구성면지》 용인향토문화연구소, 1998. p916

9) 맹보순, 앞의 책 p.117 및 <日省錄>, 1908년 9월 7일자 기사, 裁下內部任免奏 “龍仁郡守로 高靑龍을 任命...”

10) 《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5일 雜報

11) 《大韓每日申報》 1909년 6월 9일

가 수원으로 이전하며 향교에서 유학 중심 교육은 중단되었다. 1917년 이 용인보통학교마저도 신갈로 이전하여 교육기능도 끝이 났다. 용인향교는 문묘에 대한 향사 기능만 담당하게 되었다.

## 2) 용인지역의 유지에 의한 근대학교 설립운동

1908년 이후부터 유지에 의해 용인지역에 학교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근대 교육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유교 교육보다 새로운 시대 조류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신학문을 교육한 곳이 많았다.

1908년 1월 15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의하면 “천백춘(千百春)과 이민근(李敏根)이 용인군 김량장시에 학교를 설립하였다.”<sup>12)</sup>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신문 1908년 4월 1일자에는 “송중현(宋鍾憲), 천백춘, 이배근(李培根)이 김량장에 진명학교(進明學校)를 세웠는데 송중현은 생도 40명이 단발하자 백미 1석을 기부하였다.<sup>14)</sup>라고 보도하고 있다. 앞의 기사인 1월 15일자 기사의 학교는 진명학교로 볼 수 있는데 이 진명학교는 이미 1908년 1월 15일 이전에 개교하였으며 당시 일진회장을 지낸 송병준의 아들인 송중현이 이 학교에 의연하고 있다.<sup>15)</sup> 이 진명학교의 교장 이배근은 앞의 기사의 이민근과 같은 인물이며 또한 일진회원으로 짐작된다.<sup>16)</sup>

1908년 4월 1일에는 양지리에 추양학교가 개교하였으며 교장은 송중현이 맡았다.<sup>17)</sup> 같은 해 4월 3일자 <황성신문>에는 “양지군 신사 송중현, 이만승(李晩承), 유장근(柳章根), 신양균(申亮均), 유벽(柳碧) 제씨가 발기해서 추양학교를 설립하였는데 본 군수 심의혁(沈宜赫)씨와 재무서장(財務署長) 정규현(鄭奎鉉)씨의 도움으로 재정보조, 서적 및 물품 구입과 교사(校舍)를 수리하고 학생을 모집하는데 군민 전체가 일체가 되어 학교의 장래에 희망이 보인다.”고 보도

12) 신갈국민학교동창회, 앞의 책 p20

13) 《大韓每日申報》 1908년 1월 15일

14) 皇城新聞 1908년 4월 1일

15) 김종준, 일진회 지회 활동과 향촌사회의 동향,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2, p35-40에 의하면 송병준이 관계했던 一進會는 文明開化를 주장하며 斷髮을 하고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진회의 작폐 역시 심했기 때문에 지방민이 이에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의병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大韓每日申報> 1907년 9월 5일 잡보에 의하면 용인지역에서도 의병이 일진회원을 공격하자 용인지역 일진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송병준의 사저에 일진회원 700~ 800명이 피신하였다.

16)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27일

17) 양지초등학교, 개교80년사, 1986, p21

하고 있다.<sup>18)</sup>

추양학교에서 초창기 사용한 교과서를 보면 설립당시 명칭은 추양의숙(秋陽義塾)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유근(柳瑾)과 원영의(元永義)가 저술한 『신정동국역사(新訂東國歷史)』를 교과서로 사용하였으며 이 책 표지에 ‘私立秋陽義塾之書’로 표기되어있으며 ‘秋陽義塾之印’이란 학교의 직인이 찍혀있다.<sup>19)</sup>

유근은 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인 양지군 주서면(朱西面) 출신이며 동향 친척인 유장근과 유백이 학교설립에 참여하였으므로 교과서 등 나름대로 지원방법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양학교는 학교 설립에 있어서 군수와 재무서장 등 관공서의 기관장과 일진회 및 부호의 의연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설립에 참여한 사람들은 송중헌을 교장으로 적극 추대한 결과로 짐작된다.

양지향교 역시 용인향교처럼 향교내 추양학교가 설립되면서 유학 중심의 강학기능은 상실한 것이다. 이 후 이 지역 유림들에 의해 대성전에 분향하고 매년 석전제만 올리게 되었다.

당시 죽산군 지역이었던 원삼면과 백암면 지역에서도 전기한 삼악학교 이외에도 근대 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황성신문> 1908년 9월 17일자에 의하면 현 원삼면 좌항리인 죽산군 좌찬 유지 이필(李泌) 등 제씨가 사립 명신학교(明新學校)를 설립하고 ‘취지서’를 발표하였다.<sup>20)</sup>

이 취지서에 따르면 당시 유지 신사들이 유학과 신학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모든 산업은 학문에 의해 발전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죽산군 지역이 벽지에 있기 때문에 세계 문명의 변천과 풍속의 차이를 모르고 있으며, 선비들이나 백성들 모두 옛것을 따르고 있는데도 각 면리에 소학교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제를 교육하고 풍속을 개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여 신학문을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신학문을 가르칠 학교를 설립하는데 학교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 학교 건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학교의 이름 역시 『대학』의 ‘덕을 밝혀 백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明明德 新民)’는 뜻에서 명신학교(明新學校)라고 지었다는 것이다. 치신(治

18) 황성신문, 1908년 4월 3일,

19) 유기송(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61 거주)씨가 보관해오다 2001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이 책은 그의 조부인 유기수(추양학교 1회 졸업)씨가 사용하던 책으로 휘문의숙에서 간행한 것을 필사한 것이다.

20) <皇城新聞>, 1908년 9월 17일 雜報

身), 치가(治家), 치국(治國)은 학문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모든 산업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교육을 강조하며 이렇게 취지문을 발송한다고 하며 유지와 신사는 기피말고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당시 용인지역에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를 설립하거나 의연하는 것은 유지신사 뿐 아니라 지방관들에게도 커다란 관심사였다. 1908년 10월 20일자 <황성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용인군에서 군회를 개최하고 면장과 리장은 의연금을 내어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할 정도였다.<sup>21)</sup>

현 백암면 근곡리인 근삼면 두평에 이기하(李夔夏), 이범준(李範遵), 이범관(李範寬)이 노동야학(勞動夜學)을 개설했다는 기사도 발견된다. 노동야학은 전기한 사립학교와는 달리 사설강습회 강습소 등에서 야간에 실시한 교육으로 교육내용은 문맹 퇴치를 위한 것이 많았다.<sup>22)</sup>

### 3) 일제이후 용인의 유학교육

일제는 국권을 피탈하기 전부터 향교 재산을 엄연한 공공재산으로 인식하고 소유권을 빼앗으려 하였다. 그들은 조선을 강점하기 직전 향교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각 도의 향교 소유지 실측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1908년 7월 23일 「향사이정(享祀釐正)에 관한 건」을 발하여 향교재산을 정부 소관으로 이속시켰다.

이어 1910년 4월 23일에는 학부령 제2호로 「향교재산관리규정」을 발표하였다.<sup>23)</sup> 이 규정에 따르면 향교재산은 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부윤 혹은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향교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향교가 소재한 군내 공립학교의 경비 또는 관찰사가 지정한 학교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20년 6월 29일에 부령 제91호로 「향교재산관리규칙」을 발표하였다.<sup>24)</sup> 이를 1910년 4월 23일에 발표된 「향교재산관리규정」과 비교해 보면, 향교재산을 부윤·군수·도사가 관리하며 매각·양여·교환·담보제공 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같았지만, 지출내용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즉 향교재산 수입 중 보통학교의 경비 또는 관찰사가 지정한 학교의

21) 《皇城新聞》 1908년 10월 20일자

22) 김형목, <한말 경기지역 야학운동의 배경과 실태> 《중앙사론》 10,11합집, p171

23) 『官報』 1910년 4월 28일.

24)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6월 29일.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없어진 것이다.

언론에서는 유생단체의 희망에 따라 종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의 대부분을 공립보통학교의 경비로 충용케 하던 것을 폐지하고 향교재산 조성의 본뜻에 따라 향사비에 충용하기로 했다면서 『향교재산관리규칙』의 개정 요지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총독부가 향교재산 수입을 지방교화비로 사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일제는 1910년대에 향교재산을 보통학교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교화방법을 택했던 것을, 1920년대에는 향교재산을 직접 사회교화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의도했던 것이다.

일제는 향교 직제에 대해서도 변화를 꾀하였다. 1908년 10월 29일 칙령제76호로 『성균관관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교임(校任)을 모두 폐지하고 각 향교에 직원 1인만을 두도록 하였다. 해당지역 유림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직원은 무보수로서 향교를 지키고 교내 서무에 종사하는 직책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또 1910년 4월 26일에는 향교 직원으로 하여금 지방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1911년 10월에 『문묘직원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sup>25)</sup> 문묘 직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향교’를 ‘문묘’로 지칭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한 총독부의 입장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향교의 격을 낮추어 문묘라 지칭하는 것이라 짐작된다. 이는 향교가 지방관학으로서 인재양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제향기능만을 유지하고 있었던 데 배경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향교의 의례기능만을 중요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민지의 원활한 지배를 의도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원은 우리나라의 선현 존경과 후진 장학을 실현하기 위한 봉사(奉祀) 및 사립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1868년과 1871년 두 차례 서원 철폐령으로 전국의 600여 곳의 서원 중 47곳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훼손되었다. 용인에는 충렬서원과 심곡서원, 한천서원이 있었지만 심곡서원만 남고 2곳은 훼손되었다.

심곡서원은 갑오개혁과 신식학교 설립으로 유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자 선현 봉사기능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1920년대 이곳에서 맹보순이 강장(講長)이 되어 인근 출신 학도를 모아유교 강학이 실시되었다.<sup>26)</sup> 하지만 1932년 맹보순이 세상을 떠나자 안종웅(安鍾雄)씨가 이곳에서 천자문, 명심보감 등을 계속하여 가르쳤다.

25)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28일.

26) 맹보순, 『行狀』 『東田文集』, 三槐堂, 2001 p.113-127.



충렬서원은 1871년에 훼손 되었지만 1911년 유림의 탄원으로 복원이 허락되어 1920년대에 정택기, 맹보순, 김학조의 조력으로 복원하고 서원 서쪽에 20평정도 크기의 교사(校舍)를 짓고 사립 모현강습소를 열어 교육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향교와 서원은 향사 기능을 중심으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하였지만 6.25전쟁으로 건물이 소실되거나 전적이 불타며 큰 손실을 겪어 활동이 정지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950년대 이후 유림들의 노력으로 점차 향사기능은 회복되어갔다.

용인향교는 1960년대 소실된 일부 건물을 복원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 교육과 기본예절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충효교육관을 건립하고 2002년 4월에 명륜대학(明倫大學)을 설립하여 상설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생활 예절과 취미 및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양지향교와 심곡서원도 기본 전통예절과 천자문 명심보감 등을 교육하고 서예와 같은 취미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용인의 향교와 서원은 본래 향사의 기능은 회복하여 춘추로 봉사(奉祀)하고 있지만 강학의 기능은 현대의 수요에 부응하여 유교 중심교육 보다는 전통 예절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제2절 용인의 유교문화유적

유교유물유적은 크게 유적 자료와 유물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용인 지역에서 전해 오는 유적 자료로는 서원, 향교, 사우, 누정, 정려, 비석 등의 건축물 등을 들 수 있다. 또 유물 자료로는 서원·향교 등에서 제사 의식 때 사용하는 신주(神主)와 제기, 유교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문집과 가문의 역사를 담은 기록인 족보 등이 있다.

용인시에 있는 대표적인 유교 관련 유적 자료로는 건축물인 용인향교와 양지향교, 심곡서원과 충렬서원을 들 수 있다. 1986년 5월 31일 용인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용인향교는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데, 대략 조선 전기인 1400년(정종 2)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양지향교는 1523년(중종 18)에 초창된 것으로 전하며,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3호로 지정되었다.

정암 조광조의 신위가 주향되어 있는 수지구 상현동의 심곡서원은 1972년 5월 4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으며, 역시 같은 날 경기도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충렬서원은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에 있는데, 포은 정몽주의 신위가 주향되어 있다.

이밖에 유적 자료로는 누정·사우·정려·비석 등을 들 수 있다. 누정으로 대표적인 것은 기흥구 지곡동에 있는 ‘사은정(四隱亭)’을 들 수 있다. 지곡동 지곡천 골짜기의 서쪽 산줄기에 남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은정은 조선 중기의 인물들인 조광조·조광보·조광좌·이자 등 네 분이 모여 수양을 하고 학문을 논하던 유서깊은 곳이다.

“사거용인(死居龍仁)”이란 말도 있듯이 용인에는 유력한 가문의 묘산이나 별서(別墅)가 산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사우가 많이 세워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몽주와 관련한 영모재(永慕齋)와 포은영당(圃隱影堂), 조사(趙師)를 모신 조사 사당(趙師 祠堂), 남구만(南九萬)을 모신 약천별묘(藥泉別廟) 등이다.

정려를 보면, 묘소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된 심대 정려각을 비롯하여 김영희 효자정문, 김치복 효자정려문, 유복립 정려각, 목원규 효자정려각, 박인영 효자정려각, 송지렴 효자정려각 등 22기가 있다.

용인시에 있는 유교 유물자료로는 용인향교에서 석전제기(釋奠祭器)로 사용하던 조선 전기의 동제 국당초문 주준(酒樽) 한 점과 백자준 한 점이 있는데, 현재 경기도박물관에 위탁보관

중이다. 양지향교에는 전하는 유물이 없다. 심곡서원에는 조광조가 심었다고 전하는 은행목 1주와 괴목 1주가 있으며, 장서각에는 많은 서적이 있었으나 도난당하여 거의 소실되었다. 충렬서원에는 조선시대의 화사 장경주가 모사한 정몽주의 영정이 있었으나 도난당했다. 전적으로는 용인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충렬서원 중수록』과 『충렬서원 선생안』이 전한다. 이밖에 광주정씨, 순흥안씨, 해주오씨 등 용인 지역에서 세거하는 각 문중에서 문집과 족보 등 다양한 유물 자료들이 전해 온다.

## 1. 용인의 유교문화유적: 서원, 향교

### 1) 충렬서원(忠烈書院)

충렬서원은 고려 후기의 충신이자 동방 성리학의 시조로 불리는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1337~1392)의 학덕과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조선 중기인 1576년(선조 9)에 지은 서원 건물이다. 그후 마을 이름도 충신을 사모한다고 해서 ‘모현면’으로, 정몽주의 묘소와 서원이 있다고 해서 ‘능원리’로 이름붙였다.



충렬서원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마을 뒤쪽의 야산 기슭에 동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면에는 문수산, 뒤로는 불곡산, 좌로는 문형산, 우로는 법화산이 위치하여 경관이 수려하다.

충렬서원은 1576년(선조 9)에 이계(李檠)·이지(李贄)를 비롯한 지방 유림의 공의로 정몽주(鄭夢周)와 조광조(趙光祖)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처음에는 정몽주와 조광조의 묘소 중간 지역인 지금의 죽전동에 세웠으며, 서원 이름도 죽전서원(竹田書院)이라고 불렀다. 임진왜란 때 서원 건물이 회진되자 1605년(선조 38)에 경기도관찰사 이정구(李廷龜)가 현감 정종선(鄭從善)·이시윤(李時尹) 등과 논의하여 정몽주의 묘소 아래에 서원을

증건하였다.

3년여의 공사 끝에 사우 3칸, 동 서재 각 2칸, 문루(門樓) 3칸을 지었다. 이때 조광조의 위패는 심곡서원(深谷書院)으로 옮겨 배향하였다. 중창과 함께 1609년(광해군 1)에 ‘충렬(忠烈)’이라 사액되었으며, 설곡(雪谷) 정보(鄭保)와 죽창(竹窓) 이시직(李時稷)을 추가 배향하였다. 1706년(숙종 32)에 다시 후손 정제두(鄭齊斗)·정찬조(鄭纘祖)를 비롯한 여러 유림의 공의로 옛터에서 조금 서쪽인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그후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1871년(고종 8)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절되었다. 이어 1911년에 유림에서 사우를 증건하고, 1956년에는 강당을 복원하였다. 1972년에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사당을 전면 보수하고, 강당 및 내삼문을 해체 증건하였으며, 1975년에 홍살문과 외삼문을 신설하여 오늘에 이른다.

충렬서원은 앞쪽에 강당을 배치하고 사당을 뒤쪽에 배치한 전학후묘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입구의 홍살문과 내삼문·외삼문·사당이 거의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강당이 축에서 벗어나 사당과 나란히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 재실·장서각·교직사 등 부속건물이 없이 사당과 강당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내에는 6칸의 사우, 내삼문, 외삼문, 동서 협문,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된 8칸의 강당 등이 있다. 서원 입구에는 홍살문을 세웠다.

사우에는 정몽주를 주벽으로 하여 좌우에 정보와 이시직의 위패를 배향하였다. 매년 3월 중정과 9월 중정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祭品)은 4변 4두이다. 1972년 5월 4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림의 결의로 오달제 선생을 추가 배향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능원리 주민들의 조직인 보린회에서 충렬서원에 강습소를 열고초등교육을 실시하여 모현 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

## 2) 심곡서원(深谷書院)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조광조를 모신 서원이다.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1482~1519)는 조선 중종[재위 1506~1544] 때 사람파의 대표로 급진적인 사회개혁정치를 추진하다가 1519년 기묘사화 때 죽임을 당하였다. 심곡서원은 1650년(효종 원년)에 ‘심곡(深谷)’이라는 사액현판과 토지와 노비 등을 임금에게 하사받았다.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에도 무사했던 47개 서원 중 하나로, 선현들의 제사와 지방 교육을 담당하였다.

심곡서원은 국도 43호선의 동쪽에 형성된 서원말 뒤쪽 야산의 서향에 자리하고 있다. 심곡서원 뒤편에는 임야의 수목이 에워싸고 있었으나 근래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경관이 훼손되었다. 조광조의 묘소는 서원 앞 500m 지점에 남향하고 있다.



심곡서원

조광조의 묘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서원을 세우기 위하여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재력이 부족하여 포은 정몽주를

제향하는 용인 충렬서원에 입학하였다가 1605년(선조 38)에 위패를 옮겨왔다. 1631년(인조 9)에 용인의 진사 유문서(柳文瑞)가 상소하여 사액을 요청하였으나 인조는 “서서히 하라”고 답하였다.

유문서의 상소 이후 19년이 지난 1650년(효종 원년)에 이르러 용인의 유생 심수경(沈壽卿) 등이 다시 상소를 올리자 그 해 10월에 임금이 허락하여 ‘심곡(深谷)’이라는 사액과 노비와 전결을 하사하였다. 이때에 양팽손(梁彭孫: 1488~1545)을 추가 배향하였다. 1673년(현종 14)에 강당을 증건하였고, 1974년과 1975년에 중수하였다. 2008년에 담장을 수리하고 없어진 동서재를 복원하였고, 2012년 7월 말에 사당은 보수하였다.

심곡서원은 경사지에 홍살문·외삼문·강당·내삼문·사당을 잇는 중심축을 구성하여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으로 배치되었다. 경내의 건물로는 사우(祠宇)·일소당(日昭堂)·장서각(藏書閣)·내삼문(內三門)·외삼문(外三門) 등이 있다. 외삼문과 내삼문은 솟을삼문 형식이다. 외삼문의 가운데 칸 전면에는 ‘심곡서원(深谷書院)’이라 쓴 현판을 걸었다.

강당인 일소당은 전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 팔작지붕 건물로 처마는 부연을 단 겹처마로 되어 있다. 기둥에는 약한 흘림을 두었으며, 기둥머리에는 간결한 형태의 익공을 구성하였다. 벽체는 각 칸마다 목판벽(木板壁)과 판자문비(板子門扉)를 달아 사면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당은 원내의 여러 행사 및 유림의 회합과 학문의 강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강당 북동쪽에는 장서각이 배치되어 있다. 장서각은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맞배지붕 건물이다. 외별대기단 위에 방형 초석을 놓고 겹처마를 구성하였다. 전면 여칸에는 판문을 달고 문인방 위에

‘藏書閣(장서각)’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좌우 뒷간에는 중방 이하를 심벽으로 막고 상부에는 창문을 달았다.

장서각 맞은편에는 고직사가 있다. 고직사는 향사를 준비하거나 배향할 때 참례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사당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에는 뒷간을 두어 개방하였다.

장대석 기단 위에 다듬은 초석을 놓고 각기둥을 세웠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결구하고 지붕가구는 5량가로 구성하였다. 맞배지붕의 측면에는 방풍판을 가설하고 측벽 중방 이하는 화방벽으로 구성하였다.

사우에는 조광조와 양팽손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최근에 조광조의 초상을 봉안하였다.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中丁)일에 향사를 지낸다. 제품(祭品)은 4변 4두이다. 강당 안쪽 벽에는 숙종 어제어필의 현판을 비롯하여 서원의 규약·중수기·제영 등이 걸려 있다. 최근에 간행된 『심곡서원지』와 문정중학교 전신인 강습소 사진 몇 장이 보관되어 있다.

장서각에는 67종 486책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1985년에 도난당하여 현재는 『정암집』 외에 몇 권만 남아 있다. 심곡서원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국가문화재 사적 제530호로 지정되었다. 서원 서쪽 담장 밖에는 조광조가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 수령 500년 정도 된 느티나무가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느티나무 앞에는 연당이 있다.

### 5) 충현서원(忠賢書院)

충현서원은 기흥구 보라동 한국민속촌 안에 있는 서원으로 충절순국공신의 우국 충절을 기리고 뜻을 널리 펼쳐 받드는 곳이다.

본래는 민속촌 개설 당시 충남 논산의 연암서원을 본떠 지어 관람객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시설이었으나 이후 공식적으로 선현을 배향하여 향사를 올리고 있다.



충현서원

대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구시재 강당과 강연을 위한 보인당이 있고 오른쪽 뒤편에 판서각인 이야각이 있다. 서원 중심부에 강학을 하는 박약당이 있고 그 뒤편에 충절사라는 사당이 있다. 박약당 오른쪽에는 서원에서 생활하는 유생들이 숙식과 일상생활을 하는 고직사(庫直舍)가 있다.

사당에는 고려 말의 문신 정몽주(鄭夢周) 선생, 조선 중기 병자호란 때 활약한 문신 오달제(吳達濟) 선생, 대한제국 말기의 순국열사 민영환(閔泳煥) 열사, 김석진(金奭鎭) 선생 등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해마다 봄과 가을에 이들을 기리는 춘추향제를 올리고 있다.

#### 4) 양지향교(陽智鄉校)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조선시대 국립 교육기관이다.

양지향교는 1523년(중종 18)에 초창되었다고 전한다. 1981년에 실시된 대대적인 보수 작업 당시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내삼문(內三門)을 해체하여 복원하는 도중 1697년(숙종 23)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망와 한 개와 수막새 한 개가 발견되었다.



양지향교

또 명륜당이 해체되었을 때는 들보에서 상량문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건륭(乾隆) 임자년(1792) 3월 29일 묘시(卯時)에 상량한다”라는 기록과 함께 당시 공사에 관여하였던 용인현감 이술원(李述遠), 좌수(座首) 윤화찬(尹華燦) 등 11명의 명단이 있었다. 또한 『양지군읍지』를 보면 1899년 당시에 대성전, 명륜당, 동서재, 공사청, 전사청, 내대문, 외대문, 창고 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1928년과 1967년에 중수되었고, 1971년에는 앞면 3칸, 측면 2칸이던 명륜당을 앞면

5칸, 측면 2칸으로 증축하였다. 1981년에는 대성전, 명륜당, 내삼문을 해체하여 복원하였고, 1987년에 외삼문과 전면 계단, 홍살문을 신설하였다. 현재는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외삼문 등 4동의 건물과 홍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지향교는 전체적으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대성전과 명륜당이 종축선상에 자리하지 않고 동재터가 명륜당 오른쪽에 남아 있다. 이러한 배치는 일반적인 전학후묘의 배치 형식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양지향교의 특징이다.

내삼문과 외삼문은 솟을삼문 형식이다. 내삼문은 앞면 5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좌우 퇴칸에는 온돌방을 들여 제기고(祭器庫)를 겸하고 있다. 외삼문은 앞면 3칸, 측면 2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대성전은 앞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로 앞면에는 개방된 퇴칸을 둔 이익공계 맞배지붕이다. 맞배지붕에 좌우로 방풍판이 있다. 1고주(高株) 5량가(樑架) 구조인데, 앞면 기둥은 8각 기둥으로서 경기도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측면과 뒷면은 벽체로 막은 형태인데, 중방을 설치하였고, 그 하단부는 모두 화방벽으로 구성하였다. 앞면 어칸 상부 중앙에 “대성전(大成殿)”이라고 쓴 현판을 걸어 놓았다. 명륜당은 앞면 5칸, 측면 2칸의 민도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내부는 좌우 대칭으로 중앙 3칸에 마루를 설치하고 좌우에는 통칸으로 온돌방을 들였다.

대성전 내부에는 뒷면 어칸 벽에 기대어 공자의 신위를 봉안하고, 그 앞쪽으로 4성의 신위를 봉안하였다. 송조 6현 중 2현과 해동 18현의 신위는 측벽에 붙여 봉안하였다. 매년 음력 8월 27일 석전제(釋奠祭)를 봉행하고 있다.

근래에 서쪽 담 밖에 향교 입구에 교육관이 건립되었다. 수목은 외삼문 왼쪽 담 안쪽에 수령이 150년가량 된 은행나무가 있으며, 명륜당 영역의 좌우 담장을 따라 향나무와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양지향교는 전학후묘의 배치를 갖추고 있으나 명륜당이 좌측으로 치우쳐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건축물로는 대성전의 8각 기둥, 전퇴부의 선반 구성, 이익공의 화각 첨차 등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1910년대 현재 양지초등학교 전신인 추양의숙이 설립 교육 기능을 담당하였고, 1950년대 현 용동중학교 전신인 신생학원이 운영되어 양지향교는 20세기 중반까지 교육기능을 담당해 왔다.



## 5) 사은정(四隱亭)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두암산에 있는 조선 전기 정자이다.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정암 조광조, 음애 이자, 방은 조광보, 회곡 조광좌 등이 모여 학문을 논하기 위해 지은 정자이다. 정자의 이름을 사은(四隱)이라 한 것은 정암, 음애, 방은, 회곡이 서로 친하게 지내며 도의(道義)로써 사귀어 더불어 즐거워하고, 농사 짓고[耩], 나무하고[斲], 낚시질하며[釣], 나물 캐는[菜] 네 가지를 낙으로 삼아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정자를 지었기 때문이다.



사은정

사은정은 1519년의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전에 세웠으므로 16세기 초에 초창된 것으로 보인다. 『사은정 중수기』에는 1796년(정조 20)에 중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조 때 중수하면서 단청을 다시 하고 서재(書齋)를 짓고 승사(僧舍)를 두어 보호하게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주변에 사은정 외에도 다른 건물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99년(고종 36)에 이용구(李容九)가 지은 중수기에 “예부터 정자가 있었으므로 지금 새로 복원하면서도 편액은 옛날 그대로 사은이라 하였다”고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정조 때의 중수 이후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퇴락하였다가 조선 말기에 다시 중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원래의 규모에 외벽을 시멘트벽으로 바꾸고 전퇴에도 벽을 막아 좌우 칸에는 유리창을 달고 가운데 칸에는 출입문을 두었다. 1989년에는 옛 문헌을 고증하여 전면 3칸, 측면 2칸 팔작집으로 중창하면서 마루를 높게 가설하여 누각처럼 꾸며 정자로서의 외관이 회복되었다.

평면 구성을 보면 전면 3칸, 측면 2칸인데, 향좌측 두 칸에 걸쳐 누마루를 구성하고 오른쪽에는 방을 들였다. 측면 2칸 중 방 앞쪽을 반 칸으로 나누어 전퇴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양쪽 측면 전퇴칸과 앞면에는 쪽마루를 덧달고 계자각(鷄子脚)으로 꾸민 난간을 설치하였다. 앞면 가운데 칸에는 누마루 바닥 높이까지 4단의 계단을 놓았는데, 내민 난간 때문에 마치 함입식

계단처럼 보인다. 지붕은 팔작으로 구성하였다.

사은정은 현재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산줄기의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사은정 내에는 민중현(閔鍾顯)이 지은 『중수사은정기(重修四隱亭記)』, 이용구(李容九)가 지은 『사은정 중수기(四隱亭重修記)』, 정범조(鄭範祖)가 지은 『사은정기(四隱亭記)』가 전한다. 정자의 앞면 처마에는 사은정(四隱亭)이라는 현액이 걸려 있다.

## 2. 용인의 유교문화유적: 묘소

### 1) 정몽주 묘(鄭夢周墓)

정몽주는 고려 후기에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세우고 개혁을 주도하였다. 조준, 정도전 등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 하자 정몽주는 고려왕조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자 이방원의 부하 조영규 등이 정몽주를 살해하였다. 성리학에 매우 밝았던 정몽주는 오부학당, 향교를 설치하여 유학을 진흥시켰다. 정몽주는 1517년(중종12)에 태학생(太學生) 등의 상소로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정몽주 묘소

정몽주의 묘는 본래 원형봉토분으로 곡담이 있었고, 석물은 계체석과 상석 2기, 묘표 1기, 문인석 2기만 있었다. 1972년 경기도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면서 동년 12월에 상석을 교체하였고, 1974년에는 곡담 35m를 보수한 것을 비롯하여 봉분에 호석과 난간석을 돌렸으며 문인석·양석·장명등을 새로 조성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묘를 수축하고 재실 경역에 있는 민가 3채를 이전하였고, 마을 입구에 있는 신도비에 비각(碑閣)을 건립하였다.

이후 2003년에는 전사청인 모현당(慕賢堂)을 신축하고 2005년에는 관리사인 경모사(敬慕

숨)를 신축하였다. 이후 잔디광장을 신설하였고 묘역 입구를 새로이 단장하였다.

봉분 중앙에는 장명등이 있고 우측에는 묘표가 1기 세워져 있다. 상석 좌우로는 망주석 1쌍, 상석 1쌍, 문인석 2쌍, 석양 2쌍이 배치되어 있고, 봉분 주위에는 곡담이 둘러쳐져 있다.

묘표는 방부운수(方趺雲首) 양식이며, 비신의 윗면은 ‘凸’ 모양으로 다듬어 운수를 그 위에 얹어 놓았다. 운수의 앞뒤에는 구름무늬를 가득 장식하였다. 건립 연대는 1517년(중종 12)으로 추정된다. 총 높이는 약 220cm로, 비신높이는 151cm, 너비는 62cm, 두께는 15cm이다.

신도비는 묘역 입구에 있는 사모지봉 비각 내에 서향(西向)으로 안치되어 있다. 신도비는 방부개석(方趺蓋石) 양식으로 1696년에 세웠고, 1699년에 기록을 하였다. 방부의 비신 세우는 곳에 3단으로 층계를 마련하여 입체감을 살리고, 개석의 처마곡선 양끝을 경사지게 올린 것이 특징이다. 총높이는 약 388cm로 비신 높이는 238cm, 너비는 89cm, 두께는 39.5cm이다.

묘표의 비신 앞면 중앙에는 한 줄로 “고려수문하시중정몽주지묘(高麗守門下侍中鄭夢周之墓)”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는 음기를 각자하였다. 찬자(撰者)와 서자(書者)는 미상이다.

신도비에는 “황명고려수문하시중익양군충의백포은정선생신도비명병서(皇明高麗守門下侍中益陽郡忠義伯圃隱鄭先生神道碑銘并序)”라고 쓰여 있다. 비문은 좌의정 송시열(宋時烈)이 찬(撰)하고,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김수증(金壽增)이 서(書)하였으며,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전(篆)을 올렸다.

정몽주의 묘는 경기도기념물 제1호답게 잘 정화되어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일대에는 영일정씨와 연안이씨 일가의 묘역이 분포되어 있다.

정몽주 선생 묘역은 1970년대에 대대적인 정비작업으로 원형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몽주 선생의 신도비는 당대 최고의 명사들이 제작에 참여하여 금석학적으로 그 가치가 높다.

## 2) 조광조 묘(趙光祖墓)

조광조는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으로,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庵),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중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유교를 통해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 왕도정치를 실현하려고 했고, 소격서(昭格署)의 폐지를 단행했다. 대사헌에 올라 신진사류를 과감히 등용하였고, 정국공신의 훈공을 대폭 삭제하는 등 급진적 개혁을 단행하여 훈구파(勳舊派)의 반발을 샀다.

훈구파인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의 무고로 능주(綾州)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사사(賜死)되었다. 선조(宣祖) 초에 신원(伸寃)되어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문집으로 『정암집(靜庵集)』이 있다.



조광조 묘

조광조의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심곡서원 맞은편 응봉산[236m] 산자락의 남동쪽에 자리잡은 한양조씨 세장지의 상부에 안장되어 있다.

조광조의 묘는 돌아간 다음해에 선영이 있는 용인으로 이장되었다. 이장한 뒤 묘역을 조성하고 그의 평생 사적을 기록한 신도비를 건립하였다.

묘는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된 이씨(李氏)와의 합장묘이며, 원형의 봉분이다. 봉분 중앙에 묘표와 혼유석·상석·향로석이 있고, 상석 좌우로 문인석·망주석이 각각 한 쌍씩 배치되어 있다.

비좌와 월두형의 비신으로 된 묘표(墓表)는 봉분 중앙에 세워져 있다. 장방형 비좌의 4면에는 국화문 및 안상과 상부에 복련문이 수려하게 조각되어 있다. 백색 대리석으로 된 비신 앞면에 종5열로 묘주인 조광조의 주요 관직과 부인인 정경부인 이씨가 명기되어 있다. 신도비(神道碑)는 묘소 입구에 세워져 있는데 묘표와 같은 양식이다.

신도비 앞면 상단에는 전자(篆字)로 “문정공정암조선생신도비명(文貞公靜庵趙先生神道碑銘)”이라 횡서(橫書)했다. 비문은 노수신(盧守愼)이 짓고, 이산해(李山海)가 글씨를 썼으며, 김응남(金應南)이 전액을 썼다. 비의 규모는 총높이 약 311cm, 비신의 높이 244cm, 폭 93cm, 두께 34cm이다. 신도비는 1585년(선조 18)에 건립되었다.

조선 중기 사대부의 묘제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묘소 입구에 세워져 있는 신도비의 비문은 당대의 명문장가와 명필이 만든 것으로 금석학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평가된다.

### 3) 이자 묘(李紆墓)

이자(李紆)[1480~1533]의 본관은 한산, 호는 음애(陰崖), 시호는 문의(文懿)이며 목은 이색의 후예이다. 이자가 남긴 『음애일록』은 1509년(중종 4) 윤9월부터 시작하여 1516년(중종 11) 12월까지의 기록으로, 당시의 정치상황은 물론이고, 왜구와 교섭한 일, 농사에 관한 옛 풍속, 유자광 공훈삭제의 전말, 여말의 유종(儒宗) 이종학(李種學)의 행적 등을 신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이자 묘

이자는 기묘사화로 조광조와 함께 옥에 갇혔다가 그 해 12월에 최숙생과 함께 관작을 삭탈당하고, 음성의 음애 고을에 은거하면서 스스로의 호를 음애라 부르며 그곳에서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

이자의 묘는 한산이씨 묘역에 있다. 한산이씨 묘역 맨 윗자리에는 아버지 이예견(李禮堅)의 묘가 있고, 중간에는 이자의 만형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 이자의 묘는 그 아래에 있다. 이자의 묘는 원형 쌍분이며, 묘 앞에는 문인석과 망주석, 묘표 1좌가 있다. 묘비의 후면에는 음기가 없다. 묘비는 1636년에 세운 것으로, 이자가 타계한 지 103여년 만에 세운 셈이다.

비신은 규석이고 비좌는 화강암으로, 상단에는 12판의 복련을 두었고, 각 면에는 동자주와 안상을 조식하였다. 한산이씨 묘역의 특징은 봉분 하단의 전면 좌우에 묘문으로 상징되는 장대석을 ‘八’자 형식으로 벌려 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여타 사대부가의 분묘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묘표의 앞면에는 “조선자헌대부 의정부우참찬 증승정대부 의정부좌찬성 시문의 이공지묘배 정경부인 의령남씨 후배 정경부인 인천채씨부좌(朝鮮資憲大夫 議政府右參贊 贈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 諡文懿 李公之墓 配 貞敬夫人宜寧南氏 後配 貞敬夫人 仁川蔡氏附左)”라고 새겨져 있다.

이자의 묘는 당초에는 용인군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되었다가 2000년 4월 7일 경기도기념물 제172호로 격상되었다.

#### 4) 김세필 묘(金世弼 墓)

이 묘역은 이조참판을 지낸 문간공 김세필(金世弼)[1473~1533]의 묘를 중심으로 한 경주김씨의 세장지이다. 김세필은 기묘사화 때 화를 당했고, 김세필의 삼남 김저는 을사사화 때 화를 당하였다. 김세필을 비롯하여 김세필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이곳에 세장되었다.



김세필 묘

문간공 김세필 묘역에는 김세필의 어머니 진천 송씨의 묘가 가장 위쪽에 자리잡고 있

고, 그 아래에 김세필과 김세필의 정부인 고성이씨가 합장된 묘가 있다. 그 아래에는 김세필의 둘째아들 김구의 묘가 있다. 김구의 묘는 정부인과 계배의 삼합장묘이다. 셋째아들 김저의 묘는 증정부인 고령신씨와 합장묘이다.

다음으로 김구의 첫째아들 김원경과 공인(恭人) 하동장씨의 합장묘가 있다. 그 밑으로는 김구의 둘째아들 김중경, 김중경의 셋째아들 김의, 그의 손자 김득곤 등의 묘가 세대별로 자리잡고 있다.

묘 하단에는 1980년에 건립된 김세필의 신도비, 1985년에 건립된 김저의 신도비가 있으며, 김저의 신도비 우측에는 1996년 건립한 충민공(忠愍公) 고결시비(告訣詩碑)가 있다. 고결시에는 사화를 입어 남쪽에서 북쪽지방으로 이배(移配)되면서 형(김구)의 둘째아들로 후사를 이어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세필과 그 후손들의 묘역은 후대에 들어와 묘역이 개축되면서 본래의 형태가 많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몇 대에 걸쳐 조성된 묘역으로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문간공 김세필의 묘역은 1400년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조성되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묘제 양식의 변천을 보여준다.

#### 5) 최유경 묘(崔有慶墓)

최유경(崔有慶)[1343~1413]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경지(慶之), 호는 죽정(竹亭), 본

관은 전주이다. 고려 공민왕 때 태어나 1392년 이성계를 도와 개국원종공신이 되었고, 1393년 축성도감이 되어 한양성을 축성하였다.

최유경은 태조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을 반대하여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으나 이성계가 “사역충 생역충(死亦忠, 生亦忠)이요 진역충 퇴역충(進亦忠 退亦忠)이라 하였으니 경이 충의지신임을 자부하거든 천의(天



최유경 묘

意)의 향배를 따라 과인을 도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자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출사하였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쳤고 71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태종 때 청백리로 녹선(祿選)되었고, 청주시 송천서원과 전주시 예산서원에 제향되었다.

최유경의 묘 봉분 하단에는 방형의 호석이 있으며, 부인의 묘 역시 남편의 신분에 따라 격식을 갖춘 방형분이다. 크기는 길이 좌우 4.4m, 전후 5.4m, 높이 1.7m에 이르며 묘 한가운데에 원수(圓首)의 묘표가 있다.

묘표 앞으로 상석과 향로석, 장명등이 있고, 동자석과 문관석 등 묘전석이 정렬되어 있다. 최유경의 묘 앞으로 아들인 최사강(崔士康)의 묘가 있으며 이 분묘 역시 방형의 쌍분이다. 최유경의 손녀가 각각 함령군(咸寧君)과 금성대군(錦城大君)에게 출가하여 왕가의 외척이 됨으로써 각별히 예장된 분묘임을 알 수 있다. 맨 하단에는 원형 봉토분인 최유경의 8세손 최노침의 묘가 있다.

최유경의 묘표에는 “정헌대부 참찬 의정부사 증시 평도공 최공유경지묘(正憲大夫 參贊 議政府事 贈諡 平度公 崔公有慶之墓) 일선군부인 김씨(一善郡夫人 金氏) 상락군부인 김씨(上洛郡夫人 金氏) 고성현부인 이씨(固城縣夫人 李氏)”라고 새겨져 있고, 왼쪽에 있는 부인의 묘 앞에는 “고성현부인 이씨지묘(固城縣夫人 李氏之墓)”라고 기록되어 있다.

최유경 묘역은 조선 초기부터 병자호란에 걸친 시기의 분묘 양식이 복합되어 있어 조선시대 분묘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문화재이다. 최유경 묘역은 용인시 향토유적 제33호로 지정되었다가 2003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0호로 격상되었다.

## 2. 용인의 유교문화유적: 사당, 재실

### 1) 포은선생영당(圃隱先生影堂)

소재지: 처인구 모현면 충렬로 26-1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75-2 )

포은선생영당(圃隱先生影堂)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1337~1392]의 종택에 있는 사당으로, 조선 후기인 1679년(숙종 5)에 처음 지어졌다. 영당이란 원래 이름난 이의 화상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사당을 말한다. 포은선생영당에서는 음력 4월 4일에 포은 선생의 제사를 모시고, 음력 12월 12일에는 부인 경주이씨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



포은영당

포은선생 영당은 포은 종택 남측에 토석담장으로 별도 구획을 이룬 곳에 있다. 포은선생영당과 종택은 솥돌봉의 동쪽 자락에 남향으로 들어서서, 능원천을 사이에 두고 앞쪽으로 포은 선생의 묘소가 있는 문수산을 바라보고 있고, 서쪽으로는 가까운 곳에 충렬서원이 있다.

1679년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을 통해 많은 선비들이 참배하는 데 장소가 구애됨을 고하여, 숙종이 건축에 필요한 물전을 하사하여 사당을 건축하도록 하였다. 그후 포은선생영당은 몇 차례 중수를 거듭하다 기존의 건물을 모두 헐고 1991년에 종택과 함께 새로 고쳐 지었다. 현재의 배치는 영당이 종택의 가묘와 같이 되어 있으나, 원래는 지금의 종택 위치에 서원이 있고, 종택은 동남쪽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하므로, 당시에는 서원의 사당이었던 것이 종택의 가묘 형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전퇴를 두어 마루를 깔았다. 장대석 외벌대로 기단을 마련하고 전면 3개소에 계단석을 놓았다. 동근 초석 위에 원기둥을 세우고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두고 소로수장으로 격식을 갖추었다. 지붕은 부연을 둔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처마끝에는 암수막새를 장식하고 측면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영당 안에는 감실을 설치하여 영정을 모셨다. 서실에는 정몽주의 위패와 함께 임고서원본인 철향된 구본 초상이 궤(櫃)에 모셔져 있다.



포은선생영당은 종택의 경내에 위치하여 종택 남측으로 마련된 소슬문을 통해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영당의 전퇴칸 내부에는 중앙간에 우암 송시열이 쓴 “포은선생영당(圃隱先生影堂)”이란 편액이 걸려 있다. 이곳에는 포은 선생과 관련한 유물로 선생의 친필 고간(古簡) 한 점과 숙종어제어필 포은 시첩 한 점, 1641년 여름에 썼다는 기록이 있는 우암 송시열 선생 친필 편액 한 점, 포은 선생 문집에서 유상(遺像)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 숙종이 지었다고 전하는 시를 1727년 정호(鄭澥)가 판각한 액자 한 점, 해창도위(海昌都尉) 오태주가 발문을 실은 숙종어제판액 한 점, 숙종어제 『단심가』 판액 한 점 등이 보관되어 있다.

포은선생영당은 종택에 마련된 가묘의 형식으로, 격식을 잘 갖춘 건물로, 정몽주의 묘와 충렬서원 등이 잘 어울려 있다. 특히 포은선생영당에 있는 초상화는 고려 후기의 화양(畫樣)과 화격(畫格)을 따른 그림으로 조선시대 회화사 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 2) 음애공 부조지묘(陰崖公不祧之廟)

소재지: 기흥구 지삼로 198번길 30-4 (기흥구 지곡동 297-2)

한산이씨 음애공파의 사당은 기흥구 지곡동에 있으며 바로 옆에 경기도민속문화제10호로 지정된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이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5칸의 목조건축으로 맞배지붕에 방풍판을 달았으며 전통 한식기와를 올렸다. 처마는 겹처마로 굴도리 소로수장의 초익공구조이며



부조지묘(한산이씨)

기둥은 둥근 원주이다. 정면 기둥과 도리에는 화려한 문양을 가진 낙양장식이 있다. 전면에는 부조지묘(不祧之廟)라고 쓴 현판이 있으며 사방을 전통 담장으로 둘러쌌으며 전면에 태극문양을 그린 대문이 있고 측면에 음애공 고택으로 이어지는 쪽문이 있다.

## 3) 약천별묘(藥泉別廟)

소재지: 처인구 모현면 파담로 70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521-3)

약천별묘는 본래 갈담리 파담 마을에 전해졌던 사당으로 약천 남구만 선생의 신위와 영정이

모셔졌던 곳이다. 약천 선생은 이곳으로 낙향하여 21년간 은거하였다고 전해진다. 선생은 1771년 82세를 일기로 하세한 후 처음에는 양주의 불암산 화접동 정좌지원(丁座之原)에 장사하였다가 후에 모현면 초부리로 이장하였고 후손들은 선생이 거처하던 마을에 가묘(家廟)를 세우고 봉사(奉祀)하였다.



약천별묘

본래의 사당은 전면 1칸, 측면 1칸이며 정평 주초위에 각주를 세웠고 전면에 퇴를 달았다. 지붕은 한식 골기외를 얹은 팔작지붕이며 겹처마에 단청을 두었다. 사방에는 막돌담장을 돌렸고 전면에 세운 일각문에는 이중의 박공판을 달았다. 당초 사당의 2분합문은 후에 유리창호로 개조되었고 띠문의 감실안에 신주를 모셨다. 바닥은 우물마루이다. 18세기말에 축조된 이 사당은 누차 보수를 거듭해 오던 중 1991년의 홍수로 인하여 지붕과 벽체가 무너진 후 철거하였다. 이후 몇 년간 방치되었다가 1998년에야 지금의 사묘를 신축하였다. 신축된 사묘는 시멘트 구조로 본채 외에 관리인 거소, 별묘(別廟)를 두었다. 경내에는 약천선조유지비(藥泉先祖遺趾碑)와 약천부조묘 묘정비(藥泉不祧廟廟庭碑)가 세워져 있으며, 이 비석은 모두 7대손 남정렬(南廷烈)이 1998년도에 건립한 것이다. “동창이 밝았느냐 ~” 시조를 새긴 시가비도 있다. 별묘에는 최근에 모사한 영정을 봉안하였다. 약천선생의 친필『梅蘭竹』을 새긴 판액도 걸려 있다.

#### 4) 효렴사(孝廉祠)

소재지: 기흥구 고매로 95(기흥구 공세동 51-2)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조선전기 문신인 평도공(平度公) 최유경(崔有慶)의 사당이다. 최유경은 효성과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이름이 높아 태종 때에는 청백리로 녹선되고, 세종 때에는 효자정문이 내려졌다. 이곳에 소재한 사우(祠宇)를 효렴사(孝廉祠)라 한 것은 그의 청렴한 기상과 효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효렴사는 지방도 393호선을 따라 기흥초등학교에서 고매동 고매마을로 향하는 셋길로 약 900m 가량 지나면 좌측에 최유경 묘역이 있는 자봉산 골짜기가 나오는데, 효렴사는 묘역

입구 도로변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1413년 평도공 최유경의 사후에 조정에서 공세리 자봉산 아래 구동을 사패지(賜牌地)로 내려 이곳에 최유경의 묘소와 사당이 마련되었다. 효렴사는 원래 평도공 묘역 골짜기를 북동쪽으로 감싸는 산자락 끝에 남동향으로 위치해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일부가 소실되고, 1960년대 후반에 화재를 당해 나머지 건물도 모두 소실되었다. 1986년



효렴사

에 후손들이 건립을 발의하여 3년 뒤인 1989년에 중창이 완료되었다.

효렴사는 뒤로 산을 등지고 앞쪽으로 시야가 트여 전답이 펼쳐진 배산임수의 형세에 자리잡아 석축을 쌓아 지대를 높여 건축하였다. 장대석 기단 위에 전면 5칸, 측면 2칸으로 구성하여 전퇴를 놓아 화강석을 깔고, 기둥 위에는 이익공을 두고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내부에는 뒷면에 붙여 위패를 모시는 단을 꾸미고, 그 위로는 닷집을 만들었으며, 앞쪽을 넓게 비워 놓아 마치 사찰의 불전과 같은 구성이다.

효렴사 주변에는 담장을 둘러 경역을 나누고, 앞쪽으로 소슬삼문을 세워 창덕문(彰德門)이라고 현판하였다. 창덕문 앞 좌우에는 계단 위에 해태상이 있다. 전면 향우측에 있는 신도비는 귀부와 이수를 갖춘 것으로, 비명과 음기는 본래 조선 전기에 변계량이 찬한 것인데 한국전쟁 때 파괴되어 새로 세웠다.

일반적으로 사당은 복잡한 장식을 피하고 단정한 모습을 갖는 것에 비해 효렴사는 규모나 장식에서 당당하고 화려하여 근래에 신축된 사당의 취향을 보여준다. 또한 사당건축이지만 기능상 재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5) 고인사(故仁祠)

소재지: 기흥구 중부대로773번길 37 (기흥구 상하동 산 44-7)

고인사는 곡부공씨 미수공파(眉壽公派) 재실이다. 고인재는 기흥구 상하동마을에 있으며 정사각형의 자연석으로 쌓은 전통담장이 두르고 있다. 2단으로 된 화강석 장방형 기단위에 목조 전통한옥으로 축조되었다. 재실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구조로 전면의 반 칸은 퇴를 달은

형식으로 바닥은 기단과 동일하다. 원형주 초위에 원주를 세우고 굴도리 소로수장의 겹처마양식으로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좌우 양편에 방풍판을 돌렸으며 단청이 화려하다. 가운데 고인사(故仁祠)란 현판이 있다. 정면에 태극문양을 그린 삼문이 있는데 정면 중앙에는 효림문(孝林門)이라고 쓴 현판이 있다.



고인사(곡부공씨)

### 6) 동원사(東園祠)

소재지: 처인구 포곡읍 부곡로 104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435-9)

동원사(東園祠)는 포곡읍 영문리 나주정씨의 사당이다. 영모재의 오른쪽에 있다. 동원사는 측면2칸 정면3칸의 맞배지붕으로 사당은 7평이고 삼문(三門)은 3평이며 단청(丹靑)을 하였다. 동원사는 1999년 10월 20일에 착공하여 2000년 5월 20일에 준공되었으며 대목장과 와공은 영모재(永慕齋)를 지은 정영진(丁榮鎭)과 유영민(劉永民)이다.



동원사

### 7) 연화사(延華祠)

소재지 : 처인구 이동면 구수동로 6번길 116 (처인구 이동면 서리 108)

연화사는 연안이씨 침사공파의 재실이다. 서리 불당골 선영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향교나 서원의 배치를 원용하고 있다. 외삼문인 조옹문(祖翁門)을 들어가면 좌우 대칭으로 4동의 건물이 있다. 오른쪽으로 비각이 있는데 왼쪽에는 이귀령의 신도비가 있고 가운데는 연안이씨의 시조인 이무의 신도비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이원발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이 가운

데 왼밭의 신도비는 본래 아래편 마을 입구에 있던 것이다. 다시 위편으로는 오른쪽에 은봉서원(隱峰書院)의 편액을 올린 도서관이 있고 왼편으로는 수신전당(修身典堂)의 편액을 올린 종친회관이 있다. 다시 위편으로는 내삼문인 숭례문(崇禮門)을 오르면 재실의 중심인 연화사(延華祠)가 나오는데 화려한 단청과



연화사(연안이씨)

장식을 자랑하고 있다. 내부에는 닷집형태의 장식이 있고 벽쪽으로 단을 두고 위에 위패를 모셨으며 바닥은 마루로 마감하였다. 재실의 뒤편에는 샘이 있으며 바깥쪽으로는 팔각정을 지어 놓았다. 연안이씨 첨사공파의 재실인 연화사는 기본 배치는 전통적인 유교 유적을 따르고 있으나 건물의 장식이나 단청은 불교사찰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연화사는 그 규모에 있어서 재실의 새로운 모습으로 타 문중의 재실건축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8) 충현사(忠賢祠)

소재지: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885번길 16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 852-1)

충현사는 순흥안씨 의랑공파 재실로 이동면 묘봉 하리에 있다. 철근콘크리트로 지었으며 한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원형기둥과 서까래 부연과 공포 등은 모두 시멘트로 만들었고 전면에 한식 문을 달았다. 전면 3칸 측면 2칸의 형태로 내부는 방으로 되어 있다. 전면 중앙에 안홍국장군의 화상(畫像)이 모셔져 있고 화상의 좌우에 교지를 걸어 놓았다. 재실뒤편에는 종손이 살고 있는 살림집이 있다. 재실은 2005년에 건축되었으며 매일 음력 10월 9일에 시제를 지내고 있다.



충현사(순흥안씨)

### 9) 표절사(表節祠)

소재지: 처인구 남사면 처인성로 827번길 116-3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361-4)

표절사는 심대장군의 사당이다. 남사면 완장리 중동마을 웃말에 있으며 오른쪽에는 신도비가 있다. 자연석을 이용하여 쌓은 담장에는 기와를 올렸고 정면의 문에는 태극문양이 그려져있다. 문은 맞배지붕형태이나 아래편의 기둥부분은 적벽돌로 마감하였다. 표절사는 정면 3칸에 측면 1칸 반으로 맞배지붕으로 양옆에 방풍판을 달았다.



표절사(청송심씨)

다. 시멘트기와를 올렸으며 전면은 퇴를 단것 같은 형식이며 표절사라는 현판이 있다.

### 10) 구성재(駒城齋) 추원사(追遠祠)

소재지: 기흥구 흥덕4로30번길 23 (기흥동 영덕동 55)

구성재는 용인이씨 대중회의 재실로 속칭 잔다리마을에 있으며 구성부원군 이증인 묘가 왼편에 있다. 외삼문은 맞배지붕에 방풍판을 달았고 입구 왼편에 구성재가 있다. 구성재는 장방형의 화강석 기단위에 원주를 세우고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에 겹처마로 전통양식을 따랐으며 맞은편에 관리사가 있다. 구성재는 평소에 강당겸



구성재(용인이씨)

회의실로 사용하며 우천시에 제향을 올리기도 한다. 마당 정면에 내삼문인 경덕문(景德門)이 솟을삼문 양식으로 되어 있고 계단을 오르면 사당인 추원사(追遠祠)가 있다. 추원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양편에 방풍판을 달았으며 측면 2칸 중 1칸은 전, 후면으로 반 칸씩 퇴를 두었다. 전면의 퇴는 개방형으로 건물 바닥과 높이가 동일하고 후면의 반 칸은 감실부분이다.

추원사는 용인이씨의 시보인 태상공(太師公) 이길권(李吉卷)부터 13세(2위)까지 14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으로 매년 음력 3월 14일에 추모제향을 봉행하고 있다.

### 11) 규성재(糾城齋)

소재지: 기흥구 동백8로113번길 63 (기흥구 동백동 69-2)

규성재는 밀양박씨 규정공파의 일파인 명창(命昌)후손 친족회에서 세운 재실이다. 재실의 이름은 규성재(糾城齋)인데 앞의 규는 규정공파(糾正公派)의 규자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재실은 높다란 화강석 계단위에 삼문이 있고 전통담장을 둘러싸고 다시 내부 계단을 올라가면 규성재가 있다. 규성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콘크리트로 지



규성재(밀양박씨)

었으며 한옥의 원주와 초익공, 굴도리소로수장과 겹처마에 팔작지붕 양식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으며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하였다. 전면 반 칸은 퇴를 달은 형식인데 마루는 없고 바닥이 방형기단과 동일한 높이를 보이고 있다. 재실 정면 오른쪽에는 효자성호박환규의 효자비가 서있고 왼편에는 밀양박씨성산종친(密陽朴氏城山宗親)들이 세운 박혁거세오십구세손명창성역화취지문(朴赫居世五十九世孫命昌聖域化趣旨文)비가 세워져 있다.

### 12) 문강재(文康齋)

소재지: 처인구 모현면 능곡로56번길 13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228)

문강재는 저현 이석형(李石亨)선생을 비롯 연안이씨(延安李氏) 문중의 선조를 향사하는 곳이다. 1988년도에 축조한 문강재는 문중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공간인 재실과, 위패를 봉안한 사묘가



문강재(연안이씨)

있다. 전통기와를 얹은 팔작지붕의 목조건물이며 정면 5칸, 측면 3칸의 15칸 건물이다. 그중 정면의 1칸은 마루이기 때문에 재실은 10칸 규모이다. 들레에는 담장을 들렀고 출입문은 전통적인 삼문(三門)을 갖추고 있다. 주로 저현 이석형선생의 제사를 올리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정월초하루 다례를 올리는 데도 사용한다. 한 번 제사를 모실 때는 약 50~7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며, 한식이나 팔월한가위는 주로 산소에서 차례를 모시지만 비가 오거나 할 경우 재실을 이용한다. 주변에 계일정(戒溢亭)이 있다.

본래 문강재가 있었던 터에는 서재사(書齋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재사는 문헌기록에 위하면, 저현 이석형의 후손들이 저현공의 묘소가 있는 능골에 서재를 짓고, 그 후손들이 이곳에 와서 독서와 학문을 연마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종학(宗學)과 같은 형태를 띤 사우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능골에 서재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곳에 서재사가 건립되어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 13) 보덕재(輔德齋)

소재지: 처인구 이동면 묘봉로 173번길 73-5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 212-4)

보덕재는 묘봉상리에 있는 평택임씨 재실이다. 전면 4칸 측면 2칸의 목조건물로 한식 전통기와를 올렸다. 전면에 보덕재라고 쓴 현판이 있고 가운데 2칸은 마루로 되어 있으나 좌우의 마루는 조금 높고 난간을 가진 누마루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한식기와를 올린 담장을 들렀으며 재실의 뒤편 산위에는 임정의 묘가 있다. 매년 음력 10월 1일에 시제를 지내고 있다.



보덕재

### 14) 보라재(甫羅齋)

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11번길 25 (기흥구 보라동 398-11)

보라재는 한양조씨 회곡공파(晦谷公派)의 문중의 재실로 기흥구 보라동에 있으며 조선 초기



의 문신인 양경공(良敬公) 조연(趙涓)을 모신 재실이다. 본래의 재실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전면의 반 칸은 퇴를 달았었다.

2013년 6월 회곡공파종회가 주관하여 7억여 원의 예산으로 대지 357㎡(108평), 총건평 263㎡(79.5평)의 보라재(甫羅齋)를 준공해 노후되고 협소했던 부조묘를 새로 개축하였다.

조연(趙涓)선생을 모시는 부조묘는 보라재 뒤편에 높게 지어졌는데 사방1칸의 맞배지붕으로 굴도리소로수장에 초익공 구조이며 기둥은 원주이다. 처마는 홑처마로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했으며 정면에 양경공부조묘(良敬公不祧廟)라고 쓴 현판이 있다. 앞에 있는 재실인 보라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겹처마구조로 기둥과 벽체는 콘크리트로 지어졌다. 기둥에 한양조씨회곡공파종중회(陽趙氏晦谷公派宗中會)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다. 전면에는 정문 좌우로 사괴석에 전벽돌로 쌓은 전통담장이 둘러져 있고 좌우에는 양경공 행장을 기록한 스텐판과 오석제비석이 세워져 있다.



보라재(한양조씨)

### 15) 사심재(士深齋)

소재지: 처인구 호동로 32번길 19 (처인구 호동 96-5)

사심재는 남원양씨 재실이다. 처인구 동부동 호동마을에 있으며 위에는 입향조인 양이해의 묘를 비롯한 선영이 자리잡고 있다.

재실은 전통한옥양식으로 건축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다. 2층으로 되어있고 아래층에는 관리인이 거주하며 2층은 재실로 사용하고 있다. 전면 3칸 측면 2칸의



사심재(남원양씨)

팔작지붕으로 전통한옥의 크기보다 크게 지어졌다. 기둥은 원주(圓柱)이며 상방과 도리 공포 등도 콘크리트로 건축되었으며 창문도 유리로 되어있다. 처마는 부연을 달았으며 화려하게 단청으로 마감하였다. 전면 처마 밑에 사심재(士深齋)라고 편액을 걸었다. 콘크리트 벽돌과 철책으로 울타리를 둘렀고 북쪽 입구에 삼문(三門)을 두었다.

남원양씨 재실은 겉으로는 전통양식을 따르면서 안으로는 양옥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최근의 재실건축양식을 따르고 있다. 해마다 음력 10월에 시제를 지낸다.

### 16) 산양재(山仰齋)

소재지: 수지구 죽전로264번길 12 (수지구 죽전동 1384)

산양재는 수지구 죽전동 김세필선생 묘역 아래 있으며 경주김씨 십청헌공파 재실이다. 재실은 2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며 아래층에는 사무실과 관리인 주거공간이 있고 2층은 회의실 겸 재실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 외관은 전통한옥 건축방식을 따랐으며 겹처마에 초익공 구조를 하고 있으며 2층에는 난간을 둘렀다. 열은 황토색으로 건물을 칠하고 가칠단청 수준의 문양을 시문하였다.



산양재(경주김씨)

맞은 편에는 전통한옥 양식으로 건축된 와운정사(臥雲精舍)가 있다. 전면 5칸 측면 2.5칸 구조이며 기둥은 원주이며 초익공 굴도리 겹처마 양식이다. 전면에 와운정사라고 쓴 편액이 있고 우측에 출입문인 기여문(起予門)이 있다. 기여문은 솟을삼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문양편에는 방을 들였다.

산양재는 십청헌 김세필 선생의 재실이고 와운정사는 김세필선생의 증손자인 참의공(參議公) 윤(崙)의 재실이라고 한다. 또 평소에는 위편에 있는 묘소에서 시제를 올리나 우천시에는 재실에서 올리기도 한다.

## 17) 성산재(城山齋)

소재지: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85 (기흥구 중동 724-14)

성산재는 성주이씨 재실로 기흥구 중동에 있다. 장방형의 넓은 부지위에 경사면을 활용하여 계단식으로 재실부지를 조성하고 막들로 쌓은 전통담장을 둘러쌌다. 정면에는 높직한 계단위에 솟을삼문이 있고 가운데 위편에 은덕문(恩德門)이란 현판이 있다. 재실은 장방형의 장대석으로 쌓은 석축 기단위에 원형주초를 놓고 원주를 세웠으며 굴도리에 겹처마를 올린 초익공 구조이며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양편에 방풍판을 달았다. 크기는 정면 3칸, 측면 1.5칸 구조이며 전면은 퇴를 달았고 전통 한식창호로 마감하였다. 중앙 상단에는 성산재(城山齋)라고 쓴 현판을 걸었다.



성산재(성주이씨)

재실의 전면 양옆에 좌우로 똑같은 크기의 건물이 2동 있는데 서원이나 향교건축의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은 배치를 보인다. 장대석으로 쌓은 기단위에 원형 주초를 놓고 원주를 세웠으며 굴도리 소로수장의 겹처마에 팔작지붕을 올렸다.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좌우의 두 건물이 크기가 같다. 재실의 모든 건물은 목재부에 옷칠을 하여 단아한 기품이 돋보이고 부식과 변형을 방지하고 있다. 재실 위편에는 계단식으로 문중의 묘지를 조성해 놓았다.

## 18) 숙경재(肅敬齋)

소재지: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614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산 54)

숙경재는 함중어씨 재실로 송전에서 오산방향으로 나가는 안어고개 왼편에 있다. 옆에는 함중어씨 3대 효자정문과 더불어 함중어씨 세장지임을 알리는 비석이 있다.



숙경재(함중어씨)

재실은 회색벽돌로 쌓았으며 기둥을 붉은 빛깔로 마감하였다. 형태상으로는 측면 1칸 전면 3칸 정도로 보이거나 전통한옥과 비교하기 어렵다. 서까래는 부연을 올리지 않았으며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청기와로 마감하였다.

### 19) 승모재(崇慕齋)

소재지: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51-5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257-2)

개성왕씨 재실인 승모재는 모현면 일산리 하마산마을에 있다. 국도변에서 훤히 보이는데 입구 도로가에는 개성왕씨봉천비(開城王氏奉遷碑)가 세워져 있다. 승모재는 전통 한옥양식이 아니라 시멘트구조물에 화강석판을 외장한 형태로 건축되었다. 현대식 박물관 건물처럼 보이는 흰색 재실은 평상시에는 거의 닫혀있고 매년 음력 10월에 올리는 시향 때만 사용하고 있다. 내부에는 시향때 사용하는 제기류와 취사도구가 보관되어 있다. 재실의 중앙 상단에 승모재 현판을 달았다. 재실 뒤편에는 왕효곤(王孝坤)묘를 비롯한 개성왕씨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승모재(개성왕씨)

### 20) 승모재(崇慕齋)

소재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172-3

승모재는 사천목씨(泗川睦氏) 직장공과 첨정공종중 재실이다. 승모재는 본래 삼배울 마을에 있었으나 2009년 새로이 건축 준공하고 이전하였다. 바로 옆의 부지는 덕성산업단지이며 산업단지로 편입된 임야에 산재하던 10여기에 달하는 종중 묘소를 재실 위편으로 이전하고 묘역을 새로이 정비하였다.



승모재(사천목씨)

재실은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2층의 방형기단위에 전면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형태의 전통한옥양식을 따라 건축하였다. 초익공의 겹처마구조로 열린 황토색 바탕의 칠을 한 뒤에 가칠단청 수준의 문양을 시문하였다.

## 21) 송모재(崇慕齋)

소재지: 처인구 이동면 서리로 214 (처인구 이동면 서리 530-1)

송모재는 행주은씨 재실로 이동면 서리 상반마을에 있으며 뒤편에는 행주은씨 시조단을 조성해 놓았다. 전면3칸 측면 1칸 반으로 전면의 반 칸 폭은 마루로 되어 있다. 비가 오거나 할 때 시제를 올리는 공간으로 평소에는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다. 베이지색 페인트로 도색되어 있으며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한식기와의를 올렸다.

## 22) 송천재(崇泉齋)

소재지: 기흥구 동백7로 131-30 (기흥구 동백동 14-1 )

송천재는 남양홍씨 시정공파 재실로 기흥구 동백동 석성산 능선 하단에 있다. 화강석으로 된 2단 계단 위에 삼문이 있고 위에는 송조상문(崇祖尙門)이라고 쓴 현판이 있다. 재실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콘크리트로 지었으며 한옥의 원주와 초익공, 굴도리소로수장과 겹처마에 팔작지붕 양식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으며 화려한 단청으로



송천재(남양홍씨)

장식하였다. 좌우측면에는 산수화를 그려 벽을 장식했고 내부에도 사찰의 금단청처럼 단청이 화려하며 천정은 우물천정으로 연화문을 장식했다. 뒷벽으로 퇴를 달고 감실을 만들어 신위를 모시게 되어 있고 정면의 반칸은 퇴를 달아 마루를 깔았다. 송천재는 3칸에 1.5칸 구조이긴 하지만 기둥사이가 넓고 건물이 높아서 전통한옥구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문 아래편에 관리사가 있고 왼편에는 남양홍씨판중추공세천비(南陽洪氏判中樞公世阡碑)가 세워져 있다.

### 23) 영모재(永慕齋)

소재지: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293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126-1)

광산김씨 척약재공파 재실인 영모재는 전통한옥 형태로 건축되었으며, ㄱ자형의 안채에 일자형의 바깥채를 두어 국도변에서 직접 보이는 것을 피하고 있다. 재실 안에는 제향에필요한 제반 집기류가 보관되어 있다. 재실 중앙에 영모재(永慕齋)라고 쓴 현판을 달았고 그 옆에 척약재공이 명나라 사행길에서 지은 한시를 판각하여 걸어 놓았다.



영모재(광산김씨)

### 24) 영모재(永慕齋)

소재지: 처인구 남사면 통삼로 355번길 34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790-1)

능성구씨 판안동파 재실인 영모재(永慕齋)는 남사면 통삼리 북정동마을에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건물이며 정면의 기둥은 원주(圓柱)이다. 공포(栱包)와 부연을 갖추었고 단청을 올렸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한식전통기와로 이었으며 오른쪽에 조립식 건물이 있다. 조립식으로 지은 방은 제향시 제물을 준비하고 음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담은 시멘트블록으로 쌓았으며 올라가는 계단 옆에 영모제 준공기념비라는 표식이 있다. 내용을 보면 1997년에 팔천팔백만원을 들여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모재(판안동파 능성구씨)

아랫마을인 통곡에도 능성구씨 재실이 있는데 현판은 없다. 적벽돌로 건축하였으며 알미늄제 문을 달았다. 내부는 벽에 감실형태로 신위를 모셨으며 특별한 장식은 없다.

아랫마을인 통곡에도 능성구씨 재실이 있는데 현판은 없다. 적벽돌로 건축하였으며 알미늄제 문을 달았다. 내부는 벽에 감실형태로 신위를 모셨으며 특별한 장식은 없다.

## 25) 영모재(永慕齋)

소재지: 처인구 모현면 능곡로 45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219)

영모재는 영일정씨포은공파의 재실로 포은 정몽주선생의 묘하에 있다. 17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오는데 문간채는 정면 5칸의 납도리 5량가로 솟을 맞배지붕을 갖추고 있으며 재실인 영모재는 장대석 바른 층 기단 위에 덩병 주초를 놓고 원주를 세웠으며 정면 5칸에 측면 5칸에 한식 골기와를 올린 팔작지붕형이다. 안에는 우암 송시



영모재(영일정씨 포은공파)

열선생의 친필로 된 영모당(永慕堂)이란 편액이 있다. 이 시기는 1636년(인조 14)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미 이전에 영모재가 건립되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영모재 바로 옆에 관리사가 있으며, 전사청인 모현당(慕賢堂)과 관리인이 거주하는 경모사(敬慕舍)가 잇달아 있다.

## 26) 영모재(永慕齋)

소재지: 남사면 완장리 산78

전주최씨 재실인 영모재는 남사면 완장리 상동마을 북쪽 전주최씨묘역 아래편에 있다. 정면 3칸에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다. 양옆에 방풍판을 달았고 한식 전통기와를 올리고 단청을 하였다. 둥근 화강석제 주초위에 원주(圓柱)를 세웠으며 공포를 올리고 부연을 달았다. 안에는 정면 중앙에 감실을 두어 신위를 모실 수 있게 하였으며 마루를 깔았다.



영모재(전주최씨)

영모재는 묘역을 옮겨오면서 새로 건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판은 30세 손 호진(虎鎭)이 썼다. 전주최씨 영모재는 음력 3월 3일에 제향을 올리는데 10월에 올리는 시제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2017년에는 재실 뒤편 선영에 있는 효자 5인을 모신 효자비각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7) 영선재(永仙齋)

소재지: 처인구 남사면 삼인로 61번길 45  
(처인구 남사면 북리 798)

능성구씨 재실인 영선재는 남사면 북리 삼인동마을 능성구씨 묘역 아래편에 있다. 맞배지붕으로 양옆에 방풍판을 달았고 정면 3칸 측면 1칸이나 전편의 퇴를 단 것으로 보면 1칸 반으로 보인다. 정면의 기둥은



영선재(능성구씨)

원주이며 서까래와 부연을 달았는데 지붕의 기와는 시멘트기와이다. 단청은 없으나 붉은색으로 마감하였고 양옆과 뒷면은 적벽돌로 건축하였다. 영선재(永仙齋)라고 쓴 현판이 있고 오른쪽에 조립식으로 지은 작은 콘테이너가 있는데 제향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인다. 매년 음력 10월에 시제를 올리고 있다.

### 28) 용모재(龍慕齋)

소재지: 처인구 한터로 275번길 7-27 (처인구 고림동 116-3)

용모재는 무송윤씨 장령공파 재실이다. 처인구 고림동 임원마을 동쪽에 있으며 뒤에는 무송윤씨 장령공파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용모재(무송윤씨)

용모재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단층으로 전통목조건축으로 팔작지붕으로 올렸으며 처마는 부연을 더하였고 단청으로 화려하게 마감하였다. 정면 중앙의 3칸은

빈 칸 쪽으로 마루를 놓았고 위에는 용모재(龍慕齋)라고 쓴 현판이 있다. 둘레에는 회색벽돌로



쌓은 담을 둘렀으며 기와지붕을 올렸다. 정면에는 삼문이 있는데 사슬문(思瑟門)이라는 편액이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가운데 문의 지붕의 높이가 더 높게 건축되었다. 입구에는 석조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양 옆에는 석조호랑이상이 세워져 있다.

## 29) 유덕재(維德齋)

소재지: 처인구 모현면 오산로61번길 29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98-1)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에 있는 조선 중기 문신 오윤겸의 재실이다. 1636년(인조 14)에 오윤겸이 별세하자 모현촌에서 장사를 지내고 묘소 아래에 재실과 사당을 지었다.



유덕재(해주오씨)

본래는 재실과 사당이 나란히 있었으나 건물이 낡고 퇴락하여 1980년대 중반에 중건하면서 현재와 같이 재실을 앞면에 두고 그 뒤에 사당을 둔 형식으로 바뀌었다. 앞면에 외삼문을 두었고, 재실인 유덕재가 놓였으며, 그 뒤로 내삼문을 두어 사당 공간을 분리하였다. 담장 밖으로 고직사가 있다. 원래는 한식 건물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콘크리트 건물이다.

중창된 재실 건물은 정면 4칸이고 측면 3칸인데, 전퇴를 구성하여 마루를 들었다. 내부에는 벽을 두지 않고 전체를 통칸으로 띄어놓았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앞면에 전퇴를 구성하였다.

재실과 사당 모두 장대석을 세벌대로 놓아 바른층쌓기로 기단을 구성하고, 다듬은 초석 위에 두리기둥을 사용하였다. 재실은 초익공을 써서 간결하게 구성한 반면 사당에는 출목익공을 두고 모로단청을 써서 재실보다 장엄하게 꾸몄다. 지붕은 모두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구성하고 암수막새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재실 및 사당 건축으로서는 규모도 호대하고 장식도 풍부하여 근래에 새로 고쳐 세운 재실의 취향을 보여준다.

### 30) 응봉재(鷹峰齋)

소재지: 처인구 포곡읍 석성로819번길 125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220-3)



응봉재

응봉재는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에 있으며 한양조씨 가천제공파 후손중 현령공계 재실이다. 재실은 콘크리트 건물로 한옥건 축양식을 따라 지었으며 2층이다. 아래층에는 관리인이 거주하며 2층을 재실로 사용하고 있다. 원주를 세우고 굴도리 소로수장에 익공양식을 따른 팔작지붕에 겹처마이다. 단청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으며 정면 중앙상단에 응봉재(鷹峰齋)라고 쓴 현판을 달았다. 크기는 전면 4칸에 측면 2칸 구조이며 오른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2층은 계자난간을 돌렸다. 벽돌로 쌓은 담장이 있고 중앙에 솟을 삼문이 있는데 양지문(仰止門)이란 현판이 있다.

### 31) 청덕재(淸德齋)

소재지: 기흥구 청마로 29-18 (기흥구 청덕동 57-1)



청덕재(영일정씨)

청덕재는 기흥구 청덕동 속칭 물푸레울 마을에 있으며 영일정씨 주부공파의 재실이다. 자연석을 다듬어 쌓은 높은 계단위에 솟을삼문이 있고 좌우 네모난 담장 안에 재실이 있다. 재실은 장대석을 다듬어 쌓은 장방형 기단위에 세워졌는데 원형주초를 놓고 원주를 세웠으며 팔작지붕에 겹처마 구조이다. 기둥에는 주련을 걸었고 단청이 금단청으로 화려하나 실내에는 가칠단청수준이다. 전면3칸 측면 2칸 구조이며 전면의 반 칸은 퇴를 달고 마루를 놓았으며 뒷면의 반 칸은 전면에 비해 폭이 좁아 신위를 모신 감실을 둔 것으로 보인다. 재실을 두른 담장 좌우로 쪽문이 있으며 입구 왼편에 안내판과 영일정씨주부공파세거지천(迎日鄭氏注簿公派世居之阡)이라고 쓴 오석제 비석이 있다. 재실 왼편 능선으로

문중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2002년 인근에 청덕지구가 개발되면서 현위치로 이장하고 재실도 옮겨 지은 것이다.

### 32) 치천재(致川齋)

소재지: 처인구 모현면 오포로25번 길 6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128-4)

고려 후기의 문신인 조사의 사당으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에 있다. 조사(趙師)의 본관은 한양(漢陽), 호는 가천재(嘉川齋)로 태조의 생질이다. 태조가 조선 개국 후 중추부사를 제수하였으나, 고려 공양왕 밑에서 벼슬한 일을 내세워 조정에 나아가지 않고 양양(襄陽)에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죽기 전에 후손에게 포은 정몽주의 묘소 근처에 묻어주기를 유언하여, 포은 선생 묘 근처에 묘소를 썼으며, 충렬서원과 포은선생영당 근처에 사당을 세웠다고 전한다.



치천재(조사사당)



제3장 | **용인향교의 사적**



## 제1절 용인향교의 설립과 변천

### 1. 용인지역의 변천

용인향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彦南洞) 335번지에 있다. 본 향교의 관할지역인 용인시는 1414년(조선 태종14) 용구현(龍駒縣)과 처인현(處仁縣)이 합친 지역으로 용구현은 본래 고구려의 구성현(駒城縣:一名滅烏)인데 신라 경덕왕때 거서(巨黍)라 고치고, 광주(廣州)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초에 용구(龍駒)라고 고쳤고, 현종 때 광주의 속현이 되었으며, 명종(재위:1171~1197)때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후에 현령(縣令)으로 승격하였다. 처인현은 본래 수원부(水原府) 처인부곡(處仁部曲)이었는데 조선 태조 6년에 현령을 두었고, 1414년에 용인현에 병합되었다.

〈표1〉 조선시대 용인현 관할 지역

방곡(坊曲)	위치	현재 위치
읍내면(邑內面)	사방 3리	구성면 북동, 남동, 상미곡, 하마곡, 구교동, 언동, 운정동
동변면(東邊面)	현 동쪽, 관문에서 15리	구성읍 상하리, 청덕리, 중리
서변면(西邊面)	현 서쪽, 관문에서 10리	구성읍 이현, 독정리, 보정리
구흥면(駒興面)	현 남쪽, 관문에서 10리	기흥읍 신갈리, 구갈리
수진면(水眞面)	현 서쪽, 관문에서 25리	수지읍 죽전, 풍덕천, 동천리, 고기리, 신봉리, 성북리
지내면(枝內面)	현 서쪽, 관문에서 25리	수원시 이의동, 기흥읍 영덕리
기곡면(器谷面)	현 남쪽, 관문에서 30리	기흥읍 신갈리, 하갈, 서천, 농서, 지곡, 공세 보라
수여면(水餘面)	현 동쪽, 관문에서 30리	역삼동, 중앙동, 동부동, 유림동
포곡면(蒲谷面)	현 동쪽, 관문에서 30리	포곡면 일대
모현면(慕賢面)	현 동쪽, 관문에서 30리	모현면 일대
현내면(縣內面)	현 남쪽, 관문에서 50리	남사면 아곡리 완장리 창리
도촌면(道村面)	현 남쪽, 관문에서 45리	남사면 봉무리, 북리
서촌면(西村面)	현 남쪽, 관문에서 45리	남사면 원포, 봉명, 동천, 동막, 사후
남촌면(南村面)	현 남쪽, 관문에서 50리	남사면 원암리, 전궁리, 진목리
상동촌면(上東村面)	현 남쪽, 관문에서 40리	이동면 묵리, 덕성리, 서리, 천리
하동촌면(下東村面)	현 남쪽, 관문에서 50리	이동면 시미리, 송전리, 화산리, 묘봉리, 어비리

그 후 1895년(고종 32)에 충주부 용인군으로 개편하였다.<sup>1)</sup> 이때 군의 치소를 현 기흥구 언남동에서 현 처인구 김량장동(당시 수여면 소화동)으로 옮겼다. 1896년 8월 4일 경기도 용인군으로 개편하였다. 1914년 4월 1일 용인군, 양지군(현 양지면·동부동과 안성시 고삼면)과 죽산군의 일부(현 원삼면·백암면)를 통합하여 용인군으로 개편하였다.<sup>2)</sup> 이때 수여면·포곡면·모현면·읍삼면·수지면·기흥면·남사면·이동면·내사면·고삼면·외사면·원삼면 등 12개면으로 개편하였다.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용인시로 승격하고, 용인읍을 4개의 행정동으로 분동하였다. 수지면이 수지읍으로 승격하고, 외사면을 백암면으로, 내사면을 양지면으로 개칭하였다. (2읍 8면 4행정동)

2005년 10월, 3개 구(처인구·기흥구·수지구)가 신설되었다. 수지출장소가 수지구로 승격하면서 2개 행정동이 추가로 설치되고, 기흥구 관할인 기흥읍이 신갈동·구갈동·상갈동·기흥동·서농동으로, 구성읍은 구성동·마북동·어정동·보정동으로 분동하였으며, 처인구 관할의 포곡면이 포곡읍으로 승격하였다. (3구 1읍 6면 22행정동)

2017년 12월, 이동면과 모현면이 이동읍, 모현읍으로 승격하였다(3구, 3읍 4면 24행정동)

용인시 권역 내에는 광주산맥의 여맥이 기복하여 구릉이 각처에 발달하고 소분지가 점재하며, 하천은 중앙지대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흐른다. 하천으로는 탄천이 북류(北流)하여 한강에 합하고, 구흥천이 남으로 흘러 평택시를 지나 분향만으로 유입하며, 동남쪽으로 청미천의 상류가 흐르며 유역의 소분지를 관개한다. 용인 일대는 광주산맥의 낮은 구릉이 경안(京安)과 김량장의 침식곡으로 동서로 분단된 서쪽 지방이다. 용인시의 땅 모양이 거북과 같다 하여, 이른바 풍수지리에서 이야기하는 길지로 알려진 곳이 많다.

용인시의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5.8% 해당하는 591.36km<sup>2</sup>이며,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인구는 1,019,654명, 370,549세대이다

1) 칙령 제98호 地方制度改正件 (1895년 음력 5월 26일)

2)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해동여지도



광여도



경기도지도

## 2. 용인향교의 설립과 이건(移建)

### 1) 용인향교의 설립

일반적으로 향학(鄉學)의 시초는 국도(國都)를 제외한 각 지방에 관학이 설치된 고려 이후에 이루어졌다. 고려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경(京) 12목(牧)을 비롯한 군현에 박사와 교수를 파견하여 생도를 교육하게 하였는데,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건립된 최초의 향학은 서경의 학원(學院)으로 그 뒤 1003년(목종 6)까지는 최소한 3경 10목에 향학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향학을 곧 향교의 전신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인가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1127년(인종 5)에 인종이 여러 주(州)에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렸고, 각 군현에 학교가 설립된 여러 사례들이 나타남을 감안할 때 이 시기를 향교의 성립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고려 성종 때 12목에 외관의 파견과 함께 경학박사·의학박사를 파견하였던 것은 지방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나 아직 완벽한 지방교육제도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교의 적극적인 유학교육의 면모를 우리 역사에서 나타내는 것은 조선에 이르러 군현제의



재정비와 강력한 운영이 실시되던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향교는 조선왕조의 성립과 함께 정책적으로 그 교육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을 확대, 강화하였다. 따라서 향교의 전반적 설명은 조선왕조에서 전개된 역사상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진다.

용인향교의 설립 시기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대략 조선조 정종 2년(1400년) 경으로 추정된다.”고 연혁에 기록해 오고 있다.<sup>3)</sup> 이에 대해 이원명 교수는 “용인향교는 1400년(정종 2)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나 ‘용인’이란 지명이 1413년(태종 13)에 생겼으므로 그 이후에 창건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sup>4)</sup>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용구현은 고려 태조 때 용흥(龍興)과 구성(駒城)의 합친 이름이고,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한 시기에는 구성(駒城)으로 지칭하였으며, 용인향교가 ‘구성향교(駒城鄉校)’로도 불려졌음을 감안하면 용인현 설치 연혁만으로 용인향교의 설립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용인향교가 설립되던 당시의 처음 이름이 ‘구성향교’였다가 1414년(태종 14)<sup>5)</sup> 용인현으로 개칭된 이후 ‘용인향교’로 개칭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그리고 1447년(세종 29) 식년사에서 용인출신 강효문(康孝文)·최인로(崔仁老)·신종양(辛從暘)·이유인(李有仁) 등이 생원시와 진사시에 급제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이처럼 세종 때 용인향교의 유생이 과거에 급제한 정황을 감안하면 용인향교의 설립 시기가 조선 초기임은 확실시된다.

참고로 용인시 관내 양지향교는 1523년(중종 18)에 설립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인근의 평택향교는 1413년(태종 13), 안성향교는 1533년(중종 28)에 설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천향교는『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권근의 기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경위와 설립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설립 시기는 1402년(태종 2) 8월이다.<sup>6)</sup>

용인향교와 관련된 기사가『조선성종실록』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1471년 4월 7일에 박유(朴瑠) 딸의 혼서(婚書)를 위조한 사건을 문초한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서 박유의 아우인 박자후(朴自厚)가 용인향교의 동료들에게 편출당할까 두려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였다.<sup>7)</sup>

3) 이기창(李起昌), <용인향교연혁>, 2007, 용인향교 소장문서.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용인문화재총람』 등에도 용인향교 설립시기를 140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4) 이원명, <용인향교>, 『디지털용인문화대전』, (yongin.grandculture.net)

5) 龍駒와 處仁을 병합하여 龍仁縣으로 설치한 시기를 1413년(태종 13)으로 알려졌는데, 1414년(태종14)이 정확하다.

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8, 경기/이천도호부, [학교].

## ○ 성종 21년 경술(1490, 흥치 3)/윤 9월 15일(갑오)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영릉(英陵)을 배알하고 여러 고을을 순수(巡狩)해 살피니, 경기의 백성이 모두 그 폐단을 받았다. 그러나 어가가 머문 땅에는 노고와 소비가 더욱 많았으니, 사리로 보아 마땅히 넉넉하게 돌보아야 할 것이다. 여주(驪州)·이천(利川)·양지(陽智)·용인(龍仁)·광주(廣州)의 인민들에게는 금년의 전조(田租)를 절반으로 감할 것이며, 여주·이천 향교에 각각 쌀 30석을, 용인 향교에는 20석을 내려 주어서 유생들의 학과를 권장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라.”하였다.<sup>8)</sup>

## ○ 중종 23년 무자(1528, 가정 7)/9월 8일(정축)

승정원이 경술년에 성종이 영릉에 참배한 전례를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다른 으레 하는 일은 다 임시하여 하겠으나 여주(驪州)에서 사람을 뽑는 일은 이번에 거행해야 할 것인데, 미리 중외(中外)에 하유(下諭)하여 사람을 뽑으면 관복(冠服) 등 여러 일도 미리 갖추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환궁할 때에 지나는 각 고을의 향교(鄉校)에도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해야 하겠다. 연안 부부인 전씨(延安府夫人田氏: 대비(大妃)의 어머니)의 묘(墓)가 용인(龍仁)에 있는데, 갈 때에는 재계(齋戒) 때문에 치제할 수 없으나, 환궁할 때에 친제(親祭)할 수는 없더라도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해야 하겠다.”하였다.<sup>9)</sup>

## ○ 중종 23년 무자(1528, 가정 7) /9월 13일(임오)

“또 여주(驪州)의 향교에서 친제(親祭)하시는 일을 하문하셨습니다마는, 이달에는 이미 문묘(文廟)에서 친제하려 하시는데 제사는 번거롭게 할 수 없으니,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또 인물을 시취(試取)하는 일은, 각각 그 고을에서 시취하면 대가

7) 裒孟達來啓曰: “臣, 去丁未歲, 娶龍仁人朴瑠女子爲妾…(中略)…臣於龍仁官納招稱正妻者, 以朴之弟自厚, 恐爲鄉校儕輩所黜, 哀乞故云耳” <成宗實錄, 3册/ 卷10:7b>

8) 『傳旨戶曹: 殿謁英陵, 巡省諸邑, 畿甸之民竝受其弊. 然駐蹕之地, 勞費尤多, 理宜優恤. 驪州、利川、陽智、龍仁、廣州人民, 減今年田租之半, 驪州、利川鄉校各賜米三十碩, 龍仁鄉校二十碩, 以爲勸課之資.』 <成宗實錄, 38册/ 卷245:9a>

9) 『政院以庚戌年成宗拜英陵之例書啓. 傳曰: “他餘例事, 則皆當臨時爲之, 取人于驪州之事, 則今當可行, 預諭中外. 若取人則冠服諸事, 亦可以預備. 還宮時所經各邑鄉校, 亦當遣官致祭也. 延安府夫人田氏【大妃母氏】墓在龍仁. 往時以齋戒, 不可致祭也, 還宮時, 雖不可親祭, 亦當遣承旨致祭也.” <中宗實錄, 32册/ 卷63:7b>

(大駕)가 멈추는 폐단이 많이 있을 것이니, 용인(龍仁)과 이천(利川)의 유생(儒生)을 여주에 모아서 시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sup>10)</sup>

### ○숙종9년 무자(1683, 康熙 22년) / 3월 5일(정미)

지금 듣건대 용인향교에서 송조사현(宋朝四賢)의 위치(位次)가 옛 제도에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령(縣令) 장훤(張愼)이 석채일(釋菜日)에 고을의 유림과 상의해서 개정(改正)하였습니다. 성묘(聖廟)의 모든 일에 있어서 조정의 분부가 있지 않으면, 각 읍(邑)이 감히 멋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장훤이 생소하고 망령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잘못을 깨달은 뒤에야 감사(監司)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죄를 문책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때마침 감사가 활에 맞아서 아직 상계하지 못하였습니다. 일의 실체를 말씀드리면 장훤은 마땅히 망술(妄率)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망령되게 한 것은 생소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설진(設賑) 때 수령을 체직하여 바꾸는 것은 또한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장훤은 중죄(重罪)로 추고(推考)하십시오. 지방을 맡은 지위(知委)가 각도의 향교 봉안에 행차할 때는 작도(作圖)를 함께 올려 보내어 개정할 것인지를 고찰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길 “그렇게 하라. 장훤은 생소한데서 나온 것이니 중죄로 추고함이 옳다.”고 하였다. 출전: 예조등록(禮曹謄錄) 11)

## 2) 용인향교의 이건(移建)

용인향교는 문헌 기록에 의하면 3차례에 걸쳐 이건하였다. 1531년(중종 26)에 편찬한『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용인향교는 현의 동쪽 2리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현재 기흥구 마북

10) 『且驪州鄉校親祭事下問。但於今月，既欲親祭于文廟，祭不可煩瀆，雖遣官致祭甚當。且取人事，若各於其官取之，則大駕多有留停之弊。龍仁、利川儒生，聚于驪州試取似當』<中宗實錄, 32冊/ 卷 63:10a>

11) 『左議政閔鼎重所啓，頃者從祀時，禮曹之知委外方者，不能詳悉，以致各邑之奉行，多不如儀。今聞龍仁鄉校，宋朝四賢位次，有違於舊制，縣令張愼，乃於釋菜之日，邑儒相議改正，聖廟凡事，非有朝家分付，則各邑，不敢自擅，而愼，生疏妄作，及其覺悟之後，具報監司，請被罪譴，適值監司遭彈，姑未啓聞。以事體言之，愼，宜有妄率之罪，而然其妄作，出於生疏之致，況此設賑之時，守令遞易，亦甚重難。張愼，則從重推考，知委外方，各道鄉校奉安次第，並皆作圖上送，以爲考察改正之地，何如？上曰，依爲之。張愼，出於生疏之致，從重推考，可也。出禮曹謄錄』<承政院日記, 297冊/탈초본 15책> 151a-b>

동(麻北洞)에 ‘구교동(舊校洞)’이란 자연마을이 있는데 바로 향교가 있었던 옛터란 뜻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런데 1665년(효종 6) 무렵에 간행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는 “[향교] 옛날에는 현의 동쪽 2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현의 북쪽 1리로 옮겼다.(舊在縣東二里 今移縣北一里)”고 하였다. 현재 기흥구 언남동(彦南洞)의 자연마을인 ‘하마비(下馬碑) 마을’ 뒷산에 해당한다. 한양조씨운곡공파 후손인 조운행(趙雲行)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자료 가운데 <용인향교상량문(龍仁鄉校上樑文)>이 있는데, 이 당시의 기록으로 보인다.

『우리 향교 명륜당은 병란을 한 번 겪고 나서 오랫동안 대들보를 중창하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에 생도들이 학업을 익힐 장소가 없어서 청아(菁莪)한 교화가 시들었고, 식자(識者)들이 교육하는 자리가 비워져 탄식하게 되면서 무성한 잡초만 자랐다. 다행히 문옹(文翁)의 교화를 입어 멀리 태고의 도연(陶然)함에서 나아갔으며, 무성(武城)의 현가(絃歌)가 마침내 공부자의 미소에 들어갈 수 있다.』<sup>12)</sup>

18세기 중엽에 간행된 『용인현읍지(龍仁縣邑誌)』공해(公廡)조에는 “[향교] 북쪽에 위치하여 남쪽을 향하고 있다(子坐午向)”고 기록할 뿐이다. 위치가 변동 없었음을 증빙한다.

용인향교를 3차 이기한 시기는 1894년(고종 31)으로 하마비마을에서 현재의 위치인 기흥구 언남동 335번지(용인향교로 12-6)로 이건하였다. 이 건 당시에는 문묘(文廟)만 복원하여 향사만 받아들여왔다.

### 3. 용인향교 건축물의 배치 및 증수(增修)

#### 1) 조선시대 용인향교 건축물<sup>13)</sup>

1760년(영조 36)에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 공해(公廡)조에는 위치나 좌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건축물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12) 『惟我鄉校明倫堂 奧自兵燹之一經 久欠樑木之重剗 生徒無隸業之所化息菁莪 識者有倚席之嘆 鞠爲茂草 幸賴文翁教化 遠出太古之陶然 武城絃歌 遂入夫子之莞爾』 <龍仁鄉校上樑文>

13) 용인향교의 증수 현황에 대해서는 고문헌 기록과 2007년 당시 전교로 있던 이기창(李起昌)이 각 증빙서류를 조사 참조하여 기록한 『鄉校增修 및 現況』을 근거로 정리하였다.

[향교] 성전(聖殿) 3칸으로 앞에 퇴를 달음. 신문(神門) 3칸. 전사청(典祀廳) 3칸. 제기고(祭器庫) 3칸. 명륜당(明倫堂) 3칸으로 좌우측 앞에 퇴를 달음. 대문(大門) 3칸. 동서협문(東西挾門) 각 1칸. 행랑(行廊) 7칸.<sup>14)</sup>

1871년(고종 8)에 간행된 『용인현읍지』와 1899년(광무 3)에 간행된 『용인군지도읍지(龍仁郡地圖邑誌)』에는 동서협문(東西挾門) 각 1칸. 행랑(行廊) 7칸이 없는 대신 동재·서재·외삼문·홍살문 등이 추가로 신축되었다.

[향교] 성전 3칸. 대청 3칸. 앞에 퇴를 달음. 신문 3칸. 전사청 3칸. 제기고 3칸. 명륜당 3칸. 좌우측 앞에 퇴를 달음. 동재 4칸. 서재 4칸. 외삼문 3칸. 홍살문 1칸.<sup>15)</sup>

다음 기록에서 보듯이 『조선고종실록』의 1865년(고종 2), 1868년(고종 5), 1872년(고종 9) 기사 가운데 용인향교의 대성전 및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이하의 여러 곳이 비가 새고 퇴락하여 경기감사 유치선·이의익·박영보가 예조에 공문을 보내어 처리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 ○고종 2년 을축(1865, 동지 4)/7월 30일(임진)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유치선의 공문을 접하니 ‘용인현 향교 대성전의 바깥 들보와 바깥 서까래에 비가 새서 천정의 흙이 떨어졌습니다. 장차 올 가을 석전(釋奠)과 함께 올릴 고유제와 되돌려 봉안하는 제사의 향축을 본조가 계품하여 내려 보내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용인현 향교 대성전을 개수하는 일에 있어서, 올가을 석전을 겸하여 올릴 개수 고유제와 옮겼다가 되돌려 봉안하는 제사의 향축을 즉시 해사로 하여금 관례에 의거하여 마련하여 내려 보내게 하고, 축문 속의 조사도 지어내도록 하는 것도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4) [公廡] 鄉校; 聖殿三間 前退 神門 三間 典祀廳 三間 祭器庫 三間 明倫堂 三間 左右前退 大門 三間 東西挾門 各一間 行廊 七間(『輿地圖書』公廡)

15) [鄉校] 聖殿 三間 大廳 三間 前退 神門 三間 典祀廳 三間 祭器庫 三間 明倫堂 三間 左右前退 東齋 四間 西齋 四間 外三門 三間 紅箭門 一間

조선시대 용인향교 이건 개축 현황			
西紀	王歷	主要記事	典據
1400	정종2년	용인향교 건립	용인향교 연혁
1531	중종26	용인향교는 현의 동쪽 2리에 위치함	신증동국여지승람
1665	효종6	용인향교를 현의 북쪽 1리로 옮김	동국여지지
1760	영조36	대성전 3칸으로 앞에 퇴를 달음. 신문 3칸. 전사청 3칸. 제기고 3칸. 명륜당 3칸. 좌우측 앞에 퇴를 달음. 대문 3칸. 동서협문 각 1칸. 행랑 7칸	여지도서
1871	고종8	대성전 3칸. 대청 3칸. 앞에 퇴를 달음. 신문 3칸. 전사청 3칸. 제기고 3칸. 명륜당 3칸. 좌우측 앞에 퇴를 달음. 동재 4칸. 서재 4칸. 외삼문 3칸. 홍살문 1칸.	용인현읍지
1872	고종9	용인향교의 대성전·동무(東廡)·서무(西廡) 등 여러 곳의 기와와 바닥을 새로 깔고 이안(移安)을 2월 1일로 정함.	고종실록
1899	고종36	대성전 3칸. 대청 3칸. 앞에 퇴를 달음. 신문 3칸. 전사청 3칸. 제기고 3칸. 명륜당 3칸. 좌우측 앞에 퇴를 달음. 동재 4칸. 서재 4칸. 외삼문 3칸. 홍문 1칸	용인군지도읍지

#### ○고종 5년 무진(1868, 동치 7)/7월 29일(갑진)

「또 아뢰기를, “조금 전에 경기감사 이의익(李宜翼)이 보낸 이문을 보니 ‘용인현 향교의 성전(聖殿)이 건립한 지 오래되어 동서의 무너진 곳을 수리하는 일이 몹시 시급하다. 이에 이번 가을 석채(釋菜) 때 겸하여 사유를 고하고 수리하고자 한다. 그러니 고유제(告由祭)·이안제(移安祭)·환안제(還安祭)를 지내는 데 쓸 향축(香祝)을 본조에서 계품한 다음 내려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용인현 향교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 이번 가을 석채 때 겸하여 사유를 고한 뒤 거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니 고유제·이안제·환안제를 지낼 때 쓸 향축을 즉시 해당사로 하여금 전례대로 마련해서 내려 보내게 하고, 축문 가운데 넣을 내용을 지어내는 일도 일체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고종 9년 임신(1872, 동치 11)/1월 21일(병오)

「또 아뢰기를, “방금 전에 경기감사 박영보가 보낸 공문을 보니, ‘용인현 향교의 대성전 및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이하의 여러 곳이 비가 새고 퇴락하여 지금 막 기와를 새로 이고 바닥을 새로 깔았는데, 이안(移安)하는 것은 오는 2월 1일에 하기로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니 고유제와 이안제, 환안제를 지내는 데 필요한 향축을 예조에서 계품한 다음 내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용인현 향교의 대성전을 수리할 때 고유제와 이안제, 환안제를 지내는 데 필요한 향축을 즉시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전례에 비추어 마련해서 내려 보내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경기감사가 예조에게 공문을 보내 용인향교의 건축물을 수리해줄 것을 간청하였으며, 고종 임금도 윤희하였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1872년(고종 9)에야 이루어지고 2월 1일에 이안(移安)하였다.

## 2) 근대시기 이후의 증수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에 의하여 과거제도가 없어지며 전국적으로 낡고 퇴락한 향교 건물은 철거하였다. 일제식민통치 시기에는 지방 유림들의 정서를 생각하여 문묘(文廟)만 존치하여 석전제를 거행하게 하였다. 용인향교는 이 시기에 지금의 위치인 언남동 335번지로 이전하였다. 이기창 전교가 정리한 『용인향교 증수 및 현황』에 의하면, 이 당시 용인향교 이 건축양식은 다음과 같다.

향교 건물의 배치는 전학후묘의 양식으로, 대성전은 전면이 3칸에 측면이 3칸이며, 앞에 퇴를 달았다. 바닥은 마루로 되어있고, 연동 천장에 초익공이다. 지붕은 맞배지붕에 겹처마이고, 좌우측에는 방풍판을 대었다. 지붕 전면 끝에는 암수막새가 있으며 후면에는 없다. 명륜당은 전면 3칸에 측면 2칸로 팔작지붕에 한식개와를 엮었다. 기초는 막



1930년대 용인향교

돌기단 위에 콘크리트 주초에다 방형목주이고 바닥은 마루이고 연두 천장에 민도리집이었다.

1911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구한국의 학부소관으로 된 후 일부 전결(田結)이 정리 되는 등 쇠락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6.25 전쟁시 삼문이 소실되고 주초만 남아 있었던 명륜당은 1963년에 개축하여 복원한 현재의 건물이다. 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은 <용인향교통고문(龍仁鄉校通告文)><sup>16)</sup>과 <용인명륜당중건상량문> <용인명륜당중건기>를 통해 살필 수 있다. 먼저 <용인향교통고문>

은 6.25전쟁시 소실된 용인향교를 재건하기 위해 1959년 여름에 발송한 통문이다.

『그러자면 龍仁郡 駒城面 彦南里所在 龍仁鄉校는 大成一棟만 겨우 남아 있고 其他 明倫堂 外 東西齋와 內外三門이 모두 없어졌으므로 秋季釋奠舉行時에 祭官들이 暫時라도 居處할 곳이 없아오니 困難莫甚이라 急急한 處地로서는 于先 明倫堂一棟과 內三門만이라도 建設해야 할 터인데 財力을 求出할 方途가 없아오니 可歎可歎이라 郡內에 계신 儒林諸氏께서 誠心誠意를 다 하시고와 協助하여 주셔서 成事가 되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입니다.』



1960년대 용인향교

위 통문을 보면, 6.25전쟁으로 대성전 한 채만 남고 명륜당, 동서재, 내외삼문이 모두 소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962년 10월에 지은 <용인명륜당중건상량문>의 일부이다.

『又況六二五當時에 全爲頽敗하야 至于今空墟餘存하다가 幸得蒙恩하야 方在建築中에다라 寅破寅建은 十三年之間이요 破時建日은 亥子之月이라 天運이 無往不復일새 此堂之既破而重新也라 一念之欲新은 不泆歲而煥然即新은 況人之五倫具於心而欲自心이오 以至德日新則德之流行이 可以致新于國矣리라 革命爲勢에 政府는 欲効唐虞之治하고 儒道復明에 士林은 力學鄒魯之道하면 此豈非至高 至大也哉아 五鄉爽儒는 肯構肯堂하고 學詩學禮하야 不外乎斯門之道矣哉인저 重建 明倫堂文 新貌 - 經營輪爲하야 極備燦然矣 1962年(壬寅年) 冬 十月 三十(晦)日』<sup>17)</sup>

위의 상량문에서 1960년대 혁명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소실된 향교를 재건하기 위해 지원함으로써 이에 힘입어 용인향교도 명륜당을 복원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963년 3월에 지은 <용인명륜당중건기>의 일부이다.

『此明倫堂則 六、二五事變當詩에 頽敗而 但有空墟矣라 己亥夏月에 自典校로서 重建通文을 發行하고

16) <龍仁鄉校通告文>『竹軒文集』『書』

17) <龍仁鄉校明倫堂重建上樑記>



累次協議에 吾鄉 儒林中은 頓無重建之妙策이러니 天運이 無往不復하여 自成均館長이 道于文教部하여 南韓各校에 全五拾萬圓式恩賜하므로 本校則特受六十萬圓也라 此額으로 明倫建築責에 太半不足임으로 數年을 經過타가 幸有本面事務所 宿直室을 賣渡云 故로 郡職員과 鄉校任員이 互相協議하여 以廉價로 買受矣러니 僥倖木材與蓋瓦가 可合也故로 卽爲壬寅仲冬에 始役하여 翌年三月에 告竣하니 可謂不日成之格也라 此堂間數則 總 六間에 大廳三間 兩便挾室各一間半으로 構成也라 18)

위의 기문을 정리해 보이면, 6.25전쟁 당시 명륜당이 소실되어 빈터만 남게 되자 1959년 여름에 전교로부터 중건 통문을 발행하고 누차 협의하였으나 용인지역 유림의 힘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성균관장이 문교부에 소통하여 남한의 각 향교에 50만환씩 지원할 때 용인향교는 특별히 60만환을 받았다. 이 금액으로는 명륜당 건축비에 부족하므로 수년 동안 경과하다가 다행히 본 면사무소 숙직실을 매도한다는 말이 있으므로 군면(郡面)의 직원과 향교 임원이 호상협의를 하여 염가로 매수하였다. 다행히 목재와 기와가 합당하기에 즉시 1962년[임인년] 겨울에 공역을 시작하여 다음해 3월에 준공을 하였다. 이 당시 명륜당의 칸수는 모두 6칸인데 대청(大廳)이 3칸, 양쪽의 협실(夾室)이 각각 1칸 반으로 구성되었다.

1971년도에는 대성전의 개와를 보수하고 좌우측에 방풍판을 교체하였다.<sup>19)</sup>

1980년대에는 대성전의 계단 및 담장을 보수하고, 명륜당과 수복실을 신축하였다. <용인향교교궁중수기(龍仁鄉校校宮重修記)>에 당시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六二五動亂后 明倫堂은 一次 重修하였으나 校宮이 全般의으로 頹落하고 垣牆은 全壞된 實情에 趙成來甫가 典校로 赴任하여 京畿道廳 및 龍仁郡 當局에 修築 要請을 하는 한 便, 儒林總會에서 駒城面 所在 垜地를 賣渡하여 南四面에 位土를 買受하고 餘裕資金으로 大成殿 앞뜰 階段을 修築하고 關係官署에서 積極 協助 많은 豫算을 投立 左記와 如히 諸工事を 完工하니 校宮에 面貌가 一新되다.』<sup>20)</sup>

이 당시 전교는 조성래(趙成來)로 구성면 구교동의 향교부지를 매도하고, 용인군 당국의 지원을 받아 공사가 이뤄졌다. 이 기문에 1983년부터 1990년도까지 공사한 내역도 다음처럼 정리하였다.

18) <龍仁鄉校明倫堂重建記>

19) 李起昌, 『鄉校增修 및 現況』, 용인향교.

20) 이 자료는 용인향교에 소장된 『鄉校增修 및 現況』 서류철에 수록된 원고본을 전재한 것이다.

工事名	工事年度	施工内譯
大成殿 앞 階段工事	一九八三. 七. 一四	鄉校自體資金
守僕室新築	一九八六. 六. 二四	
明倫堂新築	一九八七. 七. 八	龍仁郡廳(예강환)
大成殿 앞 內三門 垣牆一部	一九八六. 三. 一五	
外三門, 紅箭門, 垣牆一部	一九八九. 七. 一二	
守僕室 앞 垣牆 및 通行門 設置	一九九〇, 一	龍仁市廳(김학규)

1986년에는 유림의 성금으로 내삼문 앞 계단을 석축으로 개축하였으며 향교주위 토담도 보수하였다. 그리고 수복실 역시 성금으로 개축하였다.

1990년에는 대성전 앞 독에 잔디 심는 공사와 수복실 앞 담장 공사와 통행문 시설 공사를 하였다.

1992년 정하선(鄭夏璿)이 지은 <용인향교중수기(龍仁鄉校重修記)>에서도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조성래 전교가 공사를 시작하여 이영희 전교 때 완공되었는데, 착공한 지 3년 남짓하여 준공하였다. 경비는 향교 대지를 매각하여 일부는 위답(位畓)을 구입하고 남은 몇 백만원과 본군 출신으로 당시 문공부장관인 이용희(李雄熙)와 도지사 및 군수에게 청원하여 관재(官財) 1억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당시 대성전을 중수하고, 명륜당을 중건하고, 내외삼문·담장·수복사(守僕舍) 일체를 수축(修築)하였다.

2001년도 3월 15일에 대성전과 명륜당 및 외삼문 수리, 홍살문 복원, 진입로 확장 공사를 위해 남사면 원암리 위토를 매각하였다. 해당 문서에 의하여 영선 경비 내역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001년도 향교건물 영선 경비 내역

所在地	地番	面積	定價價	補常金	備考
南四面 元岩里	386-1	371 m <sup>2</sup>	25,000	9,275,000	
	386-2	779m <sup>2</sup>	7,450	5,803,550	
	386-3	7m <sup>2</sup>	25,000	175,000	
受領額	鄉校分			13,753,550	
	鄉校財團分			1,500,000	

## 제2절 근현대 시기의 용인향교

### 1. 한말 향교 제도의 변화와 용인향교

향교는 조선시대 정치이념과 사회질서를 지배한 유학의 상징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설치된 교육기관이었다. 향교는 일읍 일교(一邑 一校)를 원칙으로 전국 대부분의 군현에 설치되어 국가의 정치적인 배려 아래 꾸준히 유지되었다. 또한 지방의 향촌 사족들의 세력기반의 하나로 존립하고 있었다.

향교는 향촌에서 문묘를 두어 공자이하 성현의 위패를 봉안하여 향사하는 문묘(文廟) 봉사의 기능과 학생을 모아서 유학의 경서를 강론하는 거접강학(居接講學)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각지에 세워진 서원이 향교를 대신하여 향촌의 사회통제와 유교에 입각한 교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19세기 말 대원군에 의한 서원의 철폐는 일부 서원이 존치된 몇몇 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에서 유생은 대부분 향교에 귀속하게 되었다. 아울러 개항이후 전개된 신문물과 사상에 대항하여 전통적 가치의 상징으로 향교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더구나 서원 철폐 이후 향교는 대부분의 군현에서 거의 유일한 교육 교화기관으로 향촌 사족을 집결시키는 구심체가 되었다. 하지만 서원 철폐에도 불구하고 향교는 점점 피폐해졌다. 이렇게 피폐한 향교를 방치해 둘 수 없었으므로 고종은 유학의 진흥을 위하여 향교를 기반으로 학원을 창설한다는 절목을 발표하였다.<sup>21)</sup>

“국학에는 별도로 경학원(經學院)을 건립하고 각 도에는 영학원(營學院)을 두며 각 읍에는 관학원(官學院)을 설치한다. 그 고을 안에 대대로 사는 문학과 행실이 있는 선비 3인을 골라 훈장으로 삼고 학도는 고을 자제 중에서 수재를 택하여 그 정원을 정하며, 세 훈장은 교대로 가르침을 관장하며, 학업하는 장소는 교궁(校宮)에서 하거나 양사재(養士齋)에서 한다. 3년 동안 학도 중에서 스스로 수립하는 자는 가숙(家塾)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선발하여 정수를 맞추도록 하는 것을 일상적인 규범으로 삼으며, 훈장 중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근면하고 좋은 자는 감영(監營)에 보고하고 장계를 올려 포상하는 일을 하며, 학도 중에서 총명한 자도 그렇게

21) 官學院勅設節目, 1886, 『한말 향교유림의 동향연구』, 『부산사학』 17, 강대민, 1989, 재인용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학교 시설과 재원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강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거기에다 새로운 신문물에 대응할 지식을 흡수하고 창출하는 교육체제가 당시로서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한말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신문물을 흡수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 아래 신학교가 설립되면서 향교를 중심으로 집결되었던 향교 유림 집단도 신분제도의 혁파와 과거제도의 폐지 등의 개혁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서에 따라 개편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외세의 의한 국권 상실이라는 민족적 수난을 겪게 되면서 향교와 향촌의 유림 집단은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격하되어갔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예조가 폐지되고 학부아문(學務衙門)이 창설되면서 학부는 별도의 신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었다. 이로써 성균관이나 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향교의 근본적 변화는 학부 개설에 따른 신학교의 창설 및 육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 교육제도를 담당할 부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sup>22)</sup>

- 1894년 7월 20일 勅令 제12호 - 禮曹를 폐지하고 學務衙門을 창설하고 이에 總務廳, 成均館及庠序事務局, 專門事務局, 普通學校局, 編輯局을 둠
- 1895년 3월 25일 勅令 제46호 - 學部 官制: 大臣(協辦), 學務局長(2등), 編輯局長(3등), 각 1인, 參書官 3인, 主事 11인을 둠.
- 1900년 4월 28일 칙령 제16호 - 學務局長(2등에서 1등으로), 참서관(3인에서 4인으로 개정).
- 1904년 7월 26일 칙령 제23호 - 技手 1인 증치, 편집국장 3등에서 2등으로
- 1906년 4월 11일 칙령 제18호 - 侍學官 2인 증치, 주사 11인에서 13인으로
- 1907년 12월 13일 칙령 제54호 - 學部에 學務局, 編輯局 2국을 통합하고 다른 기구는 폐지

학부국에서는 다음에 열거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범교육에 관한 사항, 보통교육 및 유치원

22) 學部視察府郡廳各訓令合抄, 강대민, 앞의 책, p.13 재인용

에 관한 사항,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각종 학교에 관한 사항, 교원검정과 허장(許狀)에 관한 사항, 통속교육과 교육회에 관한 사항, 학교위생과 학교 건축에 관한 사항, 외국 유학생에 관한 사항, 교육비 보조에 관한 사항,

편집국에서는 다음에 열거한 사무를 관장한다. 도서의 편집·번역 및 출판에 관한 사항, 도서 급여 및 발매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검정에 관한 사항, 역서(曆書)에 관한 사항이다. 학부 서기관은 전임 7인으로 한다. 학부 사무관은 전임 4인으로 한다. 학부에 기사 전임 3인을 두되 주임으로 한다. 기사는 상관의 명령을 받들어 기술을 관장한다. 학부 번역관은 전임 2인으로 한다. 학부 주사는 전임 28인으로 한다. 학부에 기수(技手) 전임 6인을 두되 판임으로 한다. 기수는 상관의 지휘를 받들어 기술에 종사한다. 도서 편집과 검정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을 둘 수 있다.<sup>23)</sup>

○1909년 1월 학부 분과 규정 중 개정

제5조 학무국 제1과에서는 좌의 사무를 장함

성균관에 관한 사항, 외국어학교에 관한 사항, 실업학교에 관한 사항, 각종 학교에 관한 사항, 학회 및 통속학교에 관한 사항, 일본 유학생에 관한 사항

제6조 학무국 제2과

사범학교에 관한 사항, 고등학교에 관한 사항, 고등여학교에 관한 사항, 보통학교에 관한 사항, 학교인정에 관한 사항, 교원검정허장에 관한 사항, 학교 건축 및 영선에 관한 사항

1895년 학부의 개설 이후 성균관 및 향교에 대한 규정은 삭제해 버렸다. 이로 인해 성균관 및 향교는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신학교에 빼앗기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학교 정책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었던 비중이 급속도로 격감되었다.

1907년에는 아예 성균관과 향교를 전담할 부서를 없애고, 그 이듬해에는 학무국내 제일과라는 하위부서에도 향교업무를 다른 부대업무로 처리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대단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성균관과 향교를 중심으로 한 구교육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축소 외면하였다.

○1908년 10월 29일 칙령 제76호 성균관관계 개정의 건 중 제십조

23) 承政院日記, 1907(순종1년, 정미년) 음11월9일, 칙령(관계개정),

향교에 직원 1인을 置히되 判任官으로 ्ह고 當該郡 儒林中으로 選任함. 鄉校 直員은 文廟를 直守히며 校內 庶務에 從事함. 鄉校 直員은 俸給을 給치 아니 함.<sup>24)</sup>

이어 1909년 9월 24일 고시에 의하면 향교의 장의 등 임명폐지의 건에 의해 칙령 76호에 의해 각 부군 향교에 직원을 임치하였으니 종전의 장의, 재임 등 일체의 임명은 자동적으로 폐지되므로 이를 계속 임명하면 관제를 무시한 것이므로 엄중하게 처분한다고 하였다.

1910년 4월 28일에는 향교 직원에 대한 학부훈령에서 향교 직원은 향교 및 지방 문묘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sup>25)</sup>

종전의 향교의 소임은 도유사를 위시하여 장의와 재임 등은 향론에 따라 선임되고 그것을 지방 수령이 별 이의없이 인정하는 매우 자율적인 기관이었다. 거기에서 교임(校任)을 거친 인물과 향촌의 원로로 이루어지는 당회의 전체적인 여론을 거쳐 향교의 제반 업무가 논의되고 향론이 수렴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향교의 소임은 향촌사회에서 상당한 신분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칙령 76호에 의한 장의와 재임의 폐지는 향교를 향교 유림의 자치적 관할에서 관청의 직접적인 통제로 바꾸겠다는 의도임과 동시에 향촌사회의 공론을 무시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우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향교 직제의 개정은 유림을 지방관의 직접적인 관할 아래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말 용인향교의 소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명륜학교 일기에 의하면 교장은 학부대신과 농상공부 대신을 역임한 이도재(李道宰)가 맡았다. 실제 교생을 가르치는 훈장은 맹보순(孟輔淳)이 담당하였으며 진사인 김학조(金學祖)도 향교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1907년 4월 기록에는 유사 어른으로 김교연(金教演)을 들고 있다.<sup>26)</sup> 이 김교연이 유사로서 용인향교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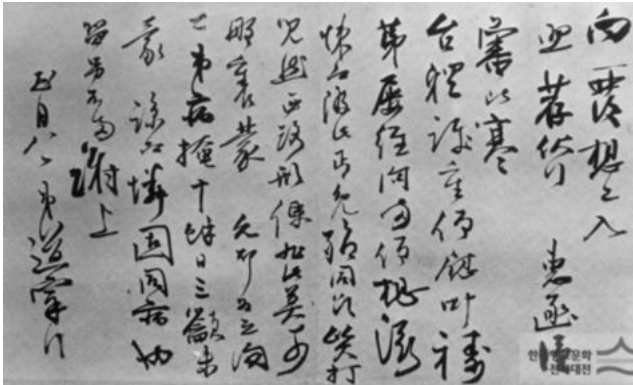


맹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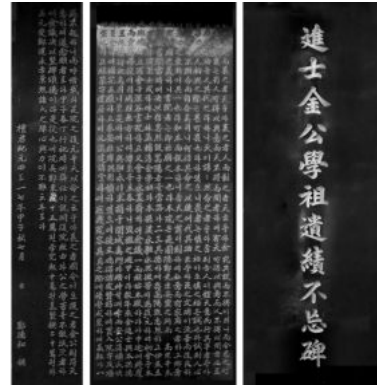
24) 한말 근대법령, 한국근대사 기초 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25) 學部視察府郡廳各訓令合抄, 강대민 앞의 책 p.13 재인용

26) 李鎔建, 『명륜학교 일기』, 『구성면지』, 용인향토문화연구소, 1998. p916



이도재의 유묵



김학조의 공적비 탁본

## 2. 명륜학교 설립

갑오개혁 이후 신 학제의 반포로 관공립학교가 계속적으로 설립되고 아울러 민족적 성격을 띤 사립학교의 증가로 신학문 교육이 점증하자 일부 유림은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근대학교 설립에 적극적인 경우가 생겨났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종래 사대부로서의 신분적 계급적 지위유지를 위한 향촌 사회의 통제의 거점이 되었던 향교에서도 신학문을 교육하기 위한 신학교의 부설이 이루어졌다.

용인향교에서도 1906년 5월 7일 맹보순에 의해 명륜학교가 신설되어 신구학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sup>27)</sup>

명륜학교는 맹보순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피해 용인 갈천의 금화산으로 집을 옮기고 학당을 열었던 것에서 출발한다. 1897년에는 생질인 김학조가 상촌에 강사를 지어 외숙인



용인 명륜학교 졸업식

그에게 강학하도록 하였다. 1906년에 이르러 학생들이 넘쳐나 학당에 수용하기가 어려워지자 용인군의 향교에 들어가 교육을 실시하였다.<sup>28)</sup>

27) 정광순 「용인명륜학교일기에 관하여」, 『제14회 향토문화연구 논문집』, 1999. p237-265

당시 명륜학교의 사정을 알려주는 자료로는 1907년 음력 2월 1일부터 동년 7월 2일까지만 5개월 2일 동안 이 학교 학생인 이용건이 쓴 <명륜학교일기>가 있다. 이 일기에 의하면 교장은 모현면 능곡 출신으로 학부대신과 농상공부대신을 지낸 이도재였으며 실제 교육활동을 벌인 교사는 맹보순이었다. 명륜학교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김학조가 상촌의 학당에 이어 계속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06년 용인향교 명륜당으로 이전하여 사립 명륜학교를 정식으로 개교한 이후에도 계속 학교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명륜학교는 1907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에 의연금을 모금하여 민족운동에 참가하였다. 또한 애국적이고 충효와 형제간 우애, 스승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창가를 지어 보급하여 민족의식을 일깨웠다.<sup>29)</sup>

1908년 용인군수로 부임한 고청룡은 개화를 주장하며 명륜학교 학생들에게 단발을 강요하였다. 이때 맹보순은 학생들을 이끌고 수원으로 학교를 옮겼는데 학도가 수백명에 이르렀다.<sup>30)</sup> 명륜학교를 수원으로 옮긴 것은 당시 수원향교의 장의와 도유사를 지냈던 심의운(沈宜允)의 역할이 컸을 것을 것이다.<sup>31)</sup>

수원의 명륜학교에서는 학과를 나누어 교수하면서 사서오경을 위주로 하고 신식 실업과목 등 여러 학문도 가르쳐 신구학문을 함께 교육했다.<sup>32)</sup>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5일자에 의하면 “수원군에 사는 맹보순은 수원군의 유림의 영수이자 저명한 학자인데, 시국변천을 개탄하여 유림 몇몇과 협의하여 수원군에 명륜학교를 세우고 문학, 실업, 법률, 유석 등 4개 과를 개설했으며 학도는 1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sup>33)</sup>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용인향교에 있었던 명륜학교의 교수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명륜학교가 1908년 말 맹보순에 의해 수원으로 옮기고 난 후 용인향교의 학교 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다음해인 1909년 6월 19일 학교 재산 일체를 인수하여 사립 용인보통학교가

28) 맹보순, 『行狀』, 『東田文集』, 三槐堂, 2001 p.113-127

29) 李鎔建 『명륜학교 일기』, 『구성면지』, 용인향토문화연구소, 1998. p916

30) 맹보순, 앞의 책 p.117 및 <日省錄>, 1908년 9월 7일자 기사, 裁下內部任免奏 “龍仁郡守로 高靑龍을 任命...”

31) 沈宜允은 맹보순의 스승인 徐廷淳과 함께 任憲晦의 제자였다. 아울러 맹보순과 함께 오산의 闕里祠에서 강학 활동을 하였다.

32) 『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22일자 雜報 기사에 의하면 “맹보순이 수원 명륜학교를 설립하자 유지신사와 각면의 출연금이 70만냥에 달하고 사람들은 守舊하던 유림의 목탁이 되겠다고 칭송이 자자하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유학 중심의 교육을 펼친 것이다.

33) 『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5일 雜報



개교하였다. 1909년 6월 9일 <대한매일신보> 기사에 의하면 윤필구(尹弼求) 용인군수가 학교를 설립하여 1달에 80명에서 90명을 자원 의연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sup>34)</sup> 시기적으로 볼 때 군수 윤필구가 세운 이 학교는 사립 용인보통학교로 볼 수 있으며 1년 후인 1910년 역시 윤필구 군수에 의해 관청의 지원을 받는 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립 용인보통학교를 현재까지 계승하고 있는 학교는 기흥구 신갈동의 신갈초등학교이다. 신갈초등학교의 연혁을 보면 개교일에 관하여 1909년 5월 10일 사립보통학교 인가를 받아 6월 19일 명륜학교의 재산을 인수하여 개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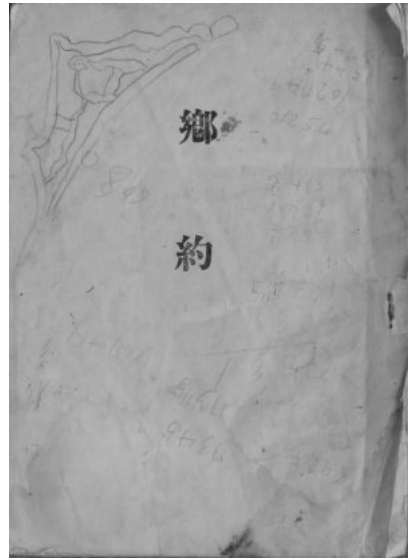
### 3. 일제의 향교 운영과 용인향교

일제는 국권을 피탈하기 전부터 향교 재산을 엄연한 공공재산으로 인식하고 소유권을 빼앗으려 하였다. 그들은 조선을 강점하기 직전 향교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각 도(道)의 향교 소유지 실측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1908년 7월 23일 「향사리정에 관한 건」을 발하여 향교재산을 정부 소관으로 이속시켰다. 이어 1910년 4월 23일에는 학부령 제2호로 「향교재산 관리규정」을 발표하였다.<sup>36)</sup>

#### <郷校財産管理規程>

第一條 郷校財産은 觀察使의 指揮監督을 受<sup>하</sup>야 府尹·郡守가 此를 管理<sup>함</sup>. 但 特別

한 事情이 有<sup>한</sup> 時는 府尹·郡守는 觀察使의 認可를 受<sup>하</sup>야 特定管理人을 置<sup>하</sup>야 管理케 함을 得<sup>함</sup>. 此 境遇에는 府尹·郡守는 特定管理人의 管理事務를 監督<sup>함</sup>.



향약

34) 『大韓每日申報』, 1909년 6월 9일

35) 신갈국민학교동창회, 『개교70년사』, 1981년, p19

36) 『官報』 1910년 4월 28일.

第二條 鄉校財産은 賣拂, 讓渡, 交換, 抵當, 質入 又는 費消홀 事를 得지 못함. 但 特別의 事由가 有홀 時는 府尹 又는 郡守로서 其 事由를 具호야 觀察使를 經由

호야 學部大臣의 指揮를 受함이 可함.

第三條 鄉校財産에서 生호는 收入은 鄉校所在 郡內의 公立學校 又는 觀察使의 指定호는 學校의 經費에 使用호는 者로 함. 前項 以外에 觀察使가 必要로 認호는 時는 特히 鄉校 又는 文廟의 修理費 及 享祀費에 使用함을 得함.

第四條 府尹·郡守는 每年 鄉校財産의 收支豫算을 定호야 觀察使의 認可를 受함이 可함. 府尹·郡守는 鄉校財産의 收支決算을 觀察使에게 報告함이 可함.

第五條 鄉校財産으로브터 生호는 收入의 保管及出納에 關호는 事務는 府尹, 郡守가 此를 行호는. 鄉校財産 中의 現金及收入金은 郵便局所, 金融組合 又는 銀行에 預置함이 加함.

第六條 府尹, 郡守는 鄉校財産 原簿를 作호야 其 謄本을 觀察使에게 提出함이 加함.

第七條 觀察使는 本 規定에 依호야 鄉校財産에 關호는 報告를 受하거나 又는 認可를 與호는 時는 此를 學部大臣에게 報告함이 可함.

第八條 觀察使는 本規程 施行에 關호는 細則을 設호는 事를 得함.

이 규정에 따르면 향교재산은 관찰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부윤 혹은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교재산은 방매·양도·전당·교환·소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부대신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으며, 향교재산의 예산 수립은 물론 수입의 보관과 출납의 권한도 부윤·군수의 몫이었고, 관찰사를 통해 학부대신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향교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향교가 소재한 군내 공립학교의 경비 또는 관찰사가 지정한 학교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제는 즉시 언론을 통하여 「향교재산관리규정」을 발포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37)</sup>

“地方 各 府郡에 存在호는 鄉校는 古來 我國 育英 養士호기 爲호야 設立되얏을 뿐더러 兼하야 先聖 先賢을 尊崇호는 意를 寓호는 者임은 今에 多言을 不要홀 바인즉 此의 費用에 供호는 附屬財産도 惑은 政府 官憲의 下附호는 者도 有호고 或은 地方 儒林의 鳩財에 基호는 者도 有호야 其 移付의 沿革이 自然 一致치

37) 『官報』 1910년 4월 28일 學部訓令제3호

아니하나 此를 其 成立의 要素及 來歷에 徵하면 一種 公共의 財産으로 地方教育을 爲하여 設定된 者임은 容疑할 바이 無호거늘 年所漸久호야 其 沿革이 模糊에 漸至함을 乘호야 或은 該財産으로써 單히 地方儒林의 私의 公有에 屬호는 者로 誤認호며 甚則 擅自 放賣 又는 廢鎖호는 者 往往有之호다. 聽聞이 有호바 今에 該財産에 對호야 相當호는 管理의 途를 講치 아니호면 從來 慕聖育英을 本旨로 호야 設定된 鄉校財産이 散逸耗盡호야 收拾기 難호는 境에 遂至호지니 此 本大臣의 深히 憂慮호는 바이오 今回 學部令第二號로 鄉校財産管理規程을 頒布호에 至호는 所以라. 地方官及 鄉校直員은 此意를 善體호야 該規程頒布의 趣意를 明히 호야 該規程으로써 鄉校財産의 管理를 確保호는 同時에 兼호야 其 成立의 趣旨에 依호야 此의 收入은 專主호야 地方教育及 育英及 文廟鄉校의 費用에 充當호미 可호는 旨를 洽히 管下士民에게 訓諭傳佈호야 豫히 此의 誤解를 去호야 流言荒說을 傳播호는 等事가 無호도록 注意호미 爲可事.”

1920년 6월 29일에 부령(府令) 제91호로 「향교재산관리규칙」을 발표하였다.<sup>38)</sup>

#### 鄉校財産管理規則

第一條 鄉校財産은 府尹·郡守·島司가 此를 管理호.

第二條 鄉校財産을 賣却·讓與·交換 又는 擔保로 供호고져 호는 時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受호미 可호.

第三條 鄉校財産은 教育 其他 教化의 事業에 供호기 爲호여 必要가 有호는 境遇를 除호는 外 無料로 此를 貸付호며 又는 使用케 호를 不得호.

第四條 鄉校財産에서 生호는 收入은 此를 文廟의 費用 其他 教化의 費用에 使用호미 可호.

第五條 府尹, 郡守, 島司는 每年度 鄉校財産의 收支豫算을 定호야 道知事의 認可를 受호미 可호. 前項 鄉校財産의 收支豫算은 道知事의 定호는 바에 依호야 選任호는 掌議의 意見을 徵호야 此를 定호미 可호.

第六條 鄉校財産에서 生호는 收入의 保管及 出納에 關호는 事務는 府尹·郡守·島司가 此를 行호. 鄉校 財産에 屬한 現金及 收入金은 郵便局所·金融組合 又는 銀行에 預入호미 可호.

第七條 府尹·郡守·島司는 鄉校財産原簿를 備호고 財産에 異動을 整理호미 可호.

第八條 道知事는 本令 시행에 關호는 細則을 設호를 得호.

附 則

38) 『朝鮮總督府官報』 1920년 6월 29일.

本令은 發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隆熙 四年 學部令 第二號는 此를 廢止함.

이를 1910년 4월 23일에 발표된 『향교재산관리규정』과 비교해 보면, 향교재산을 부윤·군수·도사가 관리하며 매각·양여·교환·담보제공 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같았지만, 지출내용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즉 향교재산 수입 중 보통학교의 경비 또는 관찰사가 지정한 학교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없어진 것이다.

언론에서는 유생단체의 희망에 따라 종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의 대부분을 공립보통학교의 경비로 충용케 하던 것을 폐지하고 향교재산 조성의 본뜻에 따라 향사비에 충용하기로 했다면서 『향교재산관리규칙』의 개정 요지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총독부가 향교재산 수입을 지방교화비로 사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일제는 1910년대에 향교재산을 보통학교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교화방법을 택했던 것을, 1920년대에는 향교재산을 직접 사회교화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의도했던 것이다.

일제는 향교 직제에 대해서도 변화를 꾀하였다. 1908년 10월 29일 칙령제76호로 『成均館官制』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교임(校任)을 모두 폐지하고 각 향교에 직원(直員) 1인만을 두도록 하였다. 해당지역 유림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직원은 무보수로서 향교를 지키고 교내(校內) 서무에 종사하는 직책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또 1910년 4월 26일에는 향교 직원으로 하여금 지방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1911년 10월에 『문묘직원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sup>39)</sup> 문묘 직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 <文廟直員에 關한 件>

文廟 直員에 관한 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府郡에 있는 文廟에 직원 1인을 둔다. 직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府尹·郡守의 지휘를 받아 文廟를 直守하고 庶務에 종사한다.

直員의 進退는 府尹·郡守의 신청에 의해 道知事가 행한다.

부칙

본령은 명치(明治) 44년(1911년) 1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본령 시행 시 鄉校 直員인 자는

39)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28일.

본령에 의해 文廟 直員에 임명된 것으로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향교’를 ‘문묘’로 지칭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한 총독부의 입장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향교의 격을 낮추어 문묘라 지칭하는 것이라 짐작된다. 이는 향교가 지방 관학으로서 인재양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제향기능만을 유지하고 있었던 데 배경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향교의 의례기능만을 중요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민지의 원활한 지배를 의도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향교 재산 관리권이 관에 귀속되고 직원제가 실시되면서 향교의 실질적인 운영은 부윤이나 군수의 감독을 받은 향교 직원이 맡게 되었다.

1915년과 일제 말기의 용인지역 향교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15년도 용인관내 향교의 재정 상황<sup>40)</sup>

1) 세입 및 세출

세 입 (円)				세 출 (円)						
소작료	예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계	공립학교 경비	향사비	수리비	잡비	공과	예비비	계
546	0	1	547	362	24	20	54	71	16	547

2) 향교의 재산

구분	답	전	대	잡지	계	건물	수익금
면적(坪)	36,150	39,222	3,600	0	79,050	64	
금액(円)	7,230	1,179	114		8,523	1,280	527

○ 용인소재 향교의 유림수<sup>41)</sup>

구분	유림수		향교 경비	
	1939년	1942년	1939년	1942년
용인(구성)문묘	291	218	2,706	471
양지문묘	411	256		470

40) 『朝鮮總督府 京畿道 統計年報』, 1915년

41) 『教育と 宗教要覽』, 1939년, 1942년

위의 표는 용인향교와 양지향교를 합친 수치이다. 용인향교와 양지향교는 여러 정황을 보면 재정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중 1915년 용인군내 향교에서 공립학교 경비로 362원을 지원하였는데 용인향교에서는 용인보통학교에 학교 경비 중 188원을 지원하였다.

그 후 용인보통학교가 1917년 기흥면 신갈리로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1920년 6월 29일에 부령 제91호로 「향교재산관리규칙」이 발표되면서 용인보통학교에 대한 경비지원도 없어졌다. 이로써 용인향교에서 교육의 기능은 막을 내리고 이곳 유림들에 의해 대성전에 분향하고 매년 석전제만 올리게 되었다.

#### 4. 해방 후 용인향교의 변화

해방과 더불어 유교뿐 아니라 향교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유림세력은 1945년 11월 30일 전국유림대회를 열어 성균관대학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이듬해인 1946년 9월 재단법인 명륜전문학교는 미군정의 인가를 받고 성균관대학교가 되었다.<sup>42)</sup> 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성균관내 유림조직으로 유도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유림단체가 무질서하게 설립되어 유림사회가 어지러워지게 되었고, 이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김창숙(金昌淑)은 난립된 유도회 조직을 통합하여 유도회총본부로 개편하고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1949년 5월 8일 전국유림대회에서는 이른바 ‘위패매안운동(位牌埋安運動)’이라는 문묘 배향 성현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을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창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조선 사람으로서 중국을 존송하는 것은 이전 사대사상의 인습이 아님이 없으니 독립하여 영구히 자주권을 보존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생각을 타파해야 한다. 대성전에 배향된 우리나라 현자들은 적고 말석에 자리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갑절이나 되고 상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또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오늘 천재일우의 기회로 멀리서 오셔서 유림의 큰 사업에 협력해 주시니 나는 한국의 완전한 독립이 이로부터 기초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다.”<sup>43)</sup>

42) 류미나, 「식민지기 조선의 명륜학원」, 『교육사학연구』, 17, 교육사학회, 2007, 72

43) 박민희, 『해방 후 위패매안과 전주향교의 대응』, 전주대학교 석사논문, 2013, 15면

위패매안의 내용은 문묘의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 나뉘어 모셔져 있던 우리나라 18현<sup>44)</sup>의 위패를 대성전으로 옮겨 종향하여 위상을 강화시키고, 5성(孔子, 顏子, 子思, 曾子, 孟子)과 송조 2현(程子(程顥), 朱子)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130현의 위패는 매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문묘가 생긴 이래 봉안위치에 대한 가장 큰 변혁으로 해방 직후 고조되고 있던 민족주의적 분위기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었다.<sup>45)</sup>



용인향교(1970)

유림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김창숙의 의견에 찬성하여 5월 15일 성균관에서 분향한 후 위패를 매안하였고, 각 향교는 6월 1일까지 매안하도록 지시하였다.

유림대회에서는 위패매안과 더불어 재원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1년에 2차례 지내던 석전을 한번만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결국 춘추 석전을 폐하고 공자 탄강일인 음력 8월 27일에만 기념 석전을 봉행하였다.



용인향교 대성전(1970)

이후 지방 유림들의 반발과 노력 끝에 1953년에는 매안했던 공문십철(孔門十哲)과 송조사현(宋朝四賢)<sup>46)</sup>을 복위시키고, 1961년에는 석전 기일을 중춘 중추 상정일로 환원하여 봉행하였다. 현재는 음 8월 27

일 추계향사만 봉행하고 있다. 원래 석전은 제후국의 학교인 반궁(泮宮)의 차원에서 봉행해왔으나, 1990년부터는 천자국의 학교인 벽옹(辟雍)<sup>47)</sup>의 차원에서 봉행하기로 하여 현재에 이르

44) 薛聰·崔致遠·安珮·鄭夢周·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李滉·金麟厚·李珥·成渾·金長生·趙憲·金集·宋時烈·宋浚吉·朴世采로 신라2현·고려2현·조선14현이다.

45) 그러나 이와 같은 변혁은 당시 보수적 성향의 일부 지방 유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기도 하였으며 일부 향교에서는 위패를 다시 만들어 봉안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良齋 田愚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보수유림들은 이 일을 심산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확대해나가는 계기로 삼았다.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육백년사』, 1998. 334면.

46) 孔門十哲은 顏淵·閔子騫·冉伯牛·仲弓·宰我·子貢·冉有·季路·子游·子夏로 덕행·언어·정사·문학에 뛰어난 공자의 제자들이고, 宋朝四賢은 周敦頤·程頤·邵雍·張載를 가리킨다.

고 있다.<sup>48)</sup>

용인향교는 해방 이후 재정형편이 어려워 삭망 분향(朔望焚香), 석전제를 봉행하기도 힘들었으며 1950년 6.25전쟁으로 대성전을 제외한 향교건물이 전소되고 말았다. 하지만 지역 유림들의 노력으로 석전제의 명맥만큼은 계속 유지하였다. 1963년에는 명륜당을 재건하고 1971년에는 대성전의 기와와 방풍판을 보수하면서 이전 향교의 모습을 되찾았다.

1983년에는 구성면의 대지 1,539평을 팔고 남사면 방아리의 논 4,334평을 매입하여 여기의 수익금으로 향교의 향사와 운영비에 충당하였다.

1986년부터 용인지역 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충효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용인고, 태성고, 신갈고, 용인상고 학생 1,195명을 대상으로 삼강오륜, 충효정신, 전통예의, 가정윤리 등을 교육하였다. 1987년에는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과 함께 효자 효부 선행자 표창도 함께 하였다.

1996년부터 성균관에서 충효교육 강사를 위촉하여 용인시 청소년예절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2000년에는 상설로 충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충효교육관 건립을 시작하여 2001년 8월에 개관할 수 있었다. 2002년에는 명륜대학 강사를 선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4월에 1기 입학식을 개최하고 6개월간 명심보감과 생활예절 등을 교육시켜 10월에 1기 26명을 배출하였다.

2005년부터 여성 유도교육을 진행하며 붓펜, 현대문학, 민요, 풍물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부터 명륜대학의 프로그램으로 흡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용인향교 대성전(1980)



용인향교(1998)

47) 辟雍에는 四面에 물이 둘러섰는데, 고리 형태로 둘러친 물의 공간이 옛 玉璧과 같았다. 또 雍은 물 가운데 지어진 방이 있는 高臺를 말한다. 泮宮은 半面에만 물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벽옹과 반궁은 이와 같은 형상에 의해 지어진 이름이다.

48) 장진영, 『일제강점기 釋奠의 변질과 해방 후의 規正』, 『고전과 해석』 17, 2014



하는 충효교육은 시대적 부응에 맞춰 청소년 인성교육으로 바뀌 학교를 방문하여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기존 명륜대학 이외에 유교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였다. 충효교육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문강좌와 교양강좌, 독서토론 등이 있으며 청소년대상으로 인성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현재는 충효교육으로 문인화와 사군자를 가르치고 명륜대학에서 맹자, 서예, 현대 문학을 교육하며 유교아카데미에서 전문강좌와 교양강좌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용인향교는 예전의 향교의 기능인 문묘 봉사와 함께 시대에 맞춰 성격이 변화하긴 했지만 강학 교육 기능이 복원된 셈이다.



2000년대 용인향교



구성향교 임원



구성향교 안내판

2014년 용인향교



2015년 용인향교



2017년 용인향교 경내



## 제4장 | 용인향교의 입지와 건축물



## 제1절 향교건축 입지(立地) 선정의 배경

향교 건축 입지선정의 배경은 물리적 특성으로서의 자연 환경적 요인인 풍수지리와 역(易) 사상, 그리고 인문환경적 요인인 사회문화적 측면이 중요하였다.

풍수지리(風水地理)는 당시에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체계로 인식되었다. 또한 성리학의 이론적 배경과의 유사성으로 유가들은 풍수지리에 조예가 깊었다. 따라서 풍수지리는 입지선정의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각 현(縣)이나 군(郡)마다 설치되어야 하는 지리적 제약 때문에 풍수적으로 적절한 위치를 구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 중기 이후 향유(鄉儒)들이 풍수를 문제 삼아 향교 이건(移建)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역(易)은 유교경전의 하나로서 우주운행의 원리와 자연법칙에 관한 이론으로 입지 선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성리학이 역(易)에서 근원했기 때문에 근본사상은 주역(周易)에서 나온 것이다. 역(易)과 성리학의 이러한 관계에 의해 성리학자들은 역적(易的) 사유체계를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역(易)이 입지선정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조선초 유교이념의 보급으로 토속신앙이 유교식으로 대체되어 각 읍마다 향교가 설치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서 보면, 대부분의 향교위치가 군이나 현의 행정적 중심으로 부터 4리 이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것도 1리나 2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행정중심 지역과의 관련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향교의 입지가 마을 후면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고 행정중심인 마을을 후면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유교가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지향하기 때문인 것으로 산림처사(山林處士)로 자처하는 성리학자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서원이나, 또는 사찰과 다른 입지조건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제2절 향교 건축의 배치와 공간구조

### 1. 향교 건축 배치의 구성요소

향교 건축배치의 주된 구성요소는 문묘공간과 강학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묘 공간은 대성전(大成殿)과 동서무(東西廡)로 구성된다. 성균관의 대성전은 5칸, 그 외에는 3칸으로 남향이며 모두 무(廡)가 있지만 현(縣)에는 무(廡)가 없었다.

대성전의 평면 형식은 퇴간(退間)의 유무로 구분된다. 조선 초 향촌사회에 머물던 지식계층인 지방 사림의 세력이 약한 곳에서는 그런대로 사찰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방 사림의 세력이 강하여 성리학이 보편화되었던 지역에서는 사찰을 혁파하고 향교로 이용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학 공간은 명륜당(明倫堂)과 동서재(東西齋)로 구성된다. 명륜당은 훈도(訓導) 등이 거처하는 곳이고 재(齋)는 교생(校生)들이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곳이다. 명륜당의 규모는 교관과 교생의 수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전면 3~5칸, 측면 2~3칸이 가장 많다. 동·서재는 읍(邑)의 크기에 따라 교생의 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강학기능의 쇠퇴와 함께 일부 읍에서는 규모가 축소된 듯하고 현재는 3-4칸 형식이 가장 많다.

### 2. 향교 건축의 배치형식

향교의 배치는 배향공간과 강학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지고, 이 밖에 일부 변형된 방법들도 쓰이고 있다. 향교가 자리 잡은 대지가 평지인 경우는 전면이 배향공간이 오고 후면에 강학공간이 오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를 이루고, 대지가 구릉을 낀 경사진 터이면 높은 뒤쪽에 배향공간을 두고 전면 낮은 터에 강학공간을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이룬다. 공간 형편에 따라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배치 형식도 있다. 용인향교는 구릉을 낀 경사진 터에 전학후묘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는 문묘공간이 강학 공간 앞에 오면서 일직선 축을 형성하는 방

식으로 공통점은 모두 평지에 건립된 점이다. 즉 평지에 향교가 건립될 때에는 앞쪽에 대성전을 세워 문묘공간을 두고, 뒤쪽에 명륜당을 세워 강학공간을 두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를 이룬다. 성균관의 경우 동서무가 각각 11칸, 동서재 각각 18칸으로 위계성에 의해 문묘공간이 앞에 위치하게 되었다.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는 일반적으로 대성전이 명륜당 보다 앞쪽에 위치한 전묘후학 형태가 정석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전학후묘의 구조가 많다. 이것은 산지가 70%를 넘는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오히려 앞(前)과 뒤(後)라는 수평성보다 위(上)와 아래(下)라는 수직성이 위계표현에 적합했고 또한 문묘(文廟)는 음(陰)의 공간으로서 후면에 배치하여 폐쇄성을 강조했다. 이는 수직적 신분질서를 강조하는 성리학적 예(禮)의 영향으로 보이며, 유교사상을 표현한 전형적인 배치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배치는 강학공간과 문묘공간이 좌우로 배치되는 경우로 역시 지형적인 요인도 있지만 일직선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후기에 강학기능의 쇠퇴로 강학공간은 주로 평민의 자제들이 이용하면서 강학공간과 문묘공간의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문묘공간에 대한 상징성 표현과 양반들의 권위성 표현에 적합했던 까닭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치방식 중 좌묘우학(左廟右學)이 대부분인 것은 좌우의 위계를 고려한 배치방법이라 하겠다.

### 3. 향교의 공간구조

향교 건축은 우리의 전통사상인 유교를 바탕으로 위계질서가 조영된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예를 기본으로 상하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공간구조에 있어서 문묘공간과 강학공간 그리고 지원공간으로 크게 구성되고 있으며, 각 공간이나 건물의 구성은 일반 관아건축이나 서원건축보다 그 지역의 경계가 확실하고 위계적이다. 또한 건물의 독립성이 대체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간의 구성에서는 진입과정으로부터 진입공간→과정적공간→본공간(강학공간)→승화공간(제향공간)의 순서로 위계성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지원공간을 적당한 위치에 적절히 배치하였다. 그 중 경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문묘공간에 유현을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청으로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를 각각 두고 그 전면에 내삼문을 놓고 있다.

그리고 공자의 사상을 받들어 유생을 모아 강습하는 강학공간에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청으로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각각 두고 그 전면에는 외삼문이나 누각을 배치하고 있다. 그 외에 제향과 교육의 기능을 보조하는 제기고, 전사청, 존경각 등의 지원건물들이 문묘와 강학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전체적인 건물의 위계를 적절히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다.

### 제3절 용인향교 건축의 변천

용인향교는 조선시대 용인의 읍치(邑治)였던 구성면에 소재한다고 해서 일명 구성향교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용인향교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명칭이다. 현재는 기흥구 언남동에 있으나 과거에는 구성면 마북리 구교동에 있던 것으로, 구교동(舊校洞)이란 속명은 향교가 있던 ‘구터(옛터)’라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용인향교는 조선 초기에 설립된 이후 여러 차례 부침을 거듭하면서 관련 자료들이 사라진 관계로 역사적 변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읍지(邑誌)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그 건축의 변천을 이해할 수 있다.

용인향교가 창건된 시기는 1400년(정종 2)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분명치 않다. 용인은 1414년(태종 14) 용구현(龍駒縣)과 처인현(處仁縣)을 합하여 지금의 이름인 용인(龍仁)으로 개명하여 읍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용인향교의 창건은 용인의 읍치를 최초로 정비한 1414년(태종 14)이거나 그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정종 2년에 향교가 창건되었다는 기존의 설이 구전(口傳)인지 아니면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가 모호한 셈이다. 현재 파악될 수 있는 읍지(邑誌)를 중심으로 그 건축 변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중반의 읍지에는 용인향교의 좌향(坐向)이 자좌오향(子坐午向), 즉 정남향이라는 사실만이 기술되어 있다. 반면 1871년, 1891년, 1899년의 자료에는 모두 동일한 내용인긴 하나 그 건축규모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19세기 중반의 용인향교 건축 제도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홍살문과 외삼문의 진입영역이 있고, 명륜당과 동서재를 중심으로 한 강학영역, 전사청, 제기고, 내삼문, 대성전 등의 제향영역이 구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읍지에 나타나는 용인향교의 본래 규모를 살펴보면 대성전은 3칸에 대청이 3칸이고 앞에 퇴(退)를 달았다고 하는데 지금의 규모와 같다. 그 외에도 신문(神門-내삼문)이 3칸이었고 제를 지내던 전사청(典祀廳)이 따로 있었으며 제기고(祭器庫)가 3칸이었다. 또 명륜당(明倫堂)은 좌우에 퇴(退)를 달았고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각 4칸이었으며 그 앞으로 외삼문이 3칸이고 홍살문이 1칸으로 삼문 앞에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읍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용인향교의 규모는 꽤 크고 짜임새가 갖추어져 있었으나 1894



년(고종 3) 말에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낡고 퇴락한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였으나 지방 유림들의 정서를 생각하여 문묘(대성전)만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고, 춘추 향사만을 받들어 오다가 1911년 조선 총독부령에 의하여 구한국 학부 소관으로 되어 있던 향교의 전결(田結)이 정리되어 전용되는 등 쇠락의 길을 걸었다.

1930년 향교의 대성전 건물만 언덕에 흥가처럼 남아 있던 것을 60년대 들어서 명륜당을 복원하였고 1971년도에 대성전 기와를 고치고 무너져 내린 박공판을 보수하였고 방풍판을 달았다. 1990년대에 들어 자체 재원과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명륜당 지붕의 기와를 교체한 것을 비롯하여 내삼문, 외삼문을 복원하였고 향교 내외 곡담을 복원하는 한편 내삼문 앞에 계단석을 신설, 지금의 모양을 갖추었다. 용인향교는 그야말로 국운의 성쇠에 따라 영욕을 함께 해 온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重修記)를 몇이라도 찾아 낸 것은 향교를 지키고자 했던 유림들의 절실함으로 보인다. 이에 관여해 온 유림들 역시 여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도표〉 용인향교 건축물 개수신축 현황

일자	공사내역
1983.07.14	대성전 앞 계단공사
1985.03.05	전기가설
1985.08.20	우물공사
1986.06.24	수복실 증축
1987.07.08	명륜당 개축
1989.03.15	내삼문 담장 일부공사
1989.07.12	외삼문 담장 일부공사
1990.	수복실 앞 담장공사. 통행문 설치. 대성전 앞 경사지 잔디공사
1992.	대성전 20평, 신삼문 3칸, 명륜당 15평, 외삼문 3칸, 홍살문 1칸, 수복실 30평
1997.08.19	전사청 복원 건의
1998.08.19	전사청 복원 건의
1998.10.12	시공보실 담당계장 내방 전사청 건축부지 검토
2000.03.22	충효교육관 40평 설계 계획을 2층 60평으로 건립할 것을 시와 협의 확정

202 제4장 용인향교의 입지와 건축물

일자	공사내역
2000.08.11	충효교육관 건립 착공(2001.02.20. 완공)
2002.08.10	향교대성전 명륜당 내삼문 수리 및 단청시공
2007.05.29~08.29	대성전 및 향교제반 공사 개시 내용: 기와, 기둥 6개, 벽면/ 내. 외삼문 기와/ 명륜당 계단) 시행: 용인시 문화관광과/ 시공: 주)세이프건설
2008.02.26	충효교육관 판넬 및 차단기 교체공사
2008.04.21	명륜당 좌측 담장보수(용인시)
2009.08.19~24	담장쌓기 명륜당 옆 4칸 명륜당 독 및 경 내외 채우고 고름
2009.09.14	보일러실 외벽공사
2010.06.08~90.04	향교진입로 정비, 배수로, 오수관 공사 진입로 확장 및 홍살문 보수
2011.10.19	담장 부분 보수
2012.4.10~30	교육관 둘레 바닥 방수공사
2013.04.29~07.27	향교 정면 우측부터 대성전 뒤쪽 담장공사
2015.02.28	콜로키움 대비 충효교육관 계단 전등설치
2015.08.27~11.24	서가(용서재)신축공사 (용인시 문화관광과) -예산: 1억7천만원 -면적 10평 -방 3칸 - 바닥 마루 -둘레 마루 -여닫이문
2016.09.29	화장실 신축공사: 면적 27.94㎡ 용인시 자체 공사(공사비 2억) 구분: 남 3칸, 여3칸, 장애인 1칸, 수납 1칸 공사기간 9. 19~12. 19(90일간)
2016.11.01~30	충효교육관 및 서가 리모델링 공사비총 44백만원(문체부 39백만원/ 용인시 5백만원) 교육관: 천장텍스, 냉난방, 전등, 바닥장판, 벽 페인트, 싱크대, 수도, 수납장, 신발장, 칠판(사무실: 창문, 바닥, 페인트, 전등) 용서재: 책장, 책상, 의자, 냉난방기 이전
2017.01.24	향교표지석 하마비건립(제막식 03.07, 조영재 기부)
2017.04.29~05.14	단청공사 명륜당, 용서재, 교육관테두리(용인시)

## 제4절 용인향교의 입지

### 1. 용인향교의 위치

용인향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향교로 12-6에 있다. 북쪽은 법화산(法華山 385.2m) 남쪽 지봉에 자리잡고 있다. 법화산 북쪽으로 이어진 대지산(大池山 327.2m) 동쪽은 모현면 능원리로 충렬서원과 포은 정몽주(鄭夢周)의 묘소가 있다. 대지산 서편으로 이어진 지봉에는 십청천 김세필(金世弼)의 묘소가 있다.

동쪽으로 석성산(石城山 471.5m) 남방에는 100만 용인시민의 전당인 용인시청, 용인경찰서, 용인세무서, 용인교육청등 행정타운을 이루고 있다. 부근에는 변암 채제공(蔡濟恭)의 묘소가 있다. 기흥구 마북동에는 충정공 민영환(閔泳煥)의 묘소가 명당에 모셔져 있다. 포곡읍 전대리에는 에버랜드가 자리 잡고 있다.

남쪽으로는 부아산(負兒山 403.6m)에 이어진 지봉은 기흥구 지곡동 마을로 음애 이자(李耜)의 고택과 묘소가 있다. 북쪽으로 2Km 마을도로변에는 사은정(四隱亭)이 있다. 인근에는 한국 민속촌이 자리 잡고 있다.

서쪽 광교산(光敎山 582m)에는 수지구 신봉동과 수원시가 접해 있다. 수지구 상현동에는 심곡서원과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묘소가 있다.

용인향교는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국철 교통편으로는 신분당선(수원~왕십리) 구성역 하차하여 동쪽으로 800m 구성동사무소 50m에 접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에 진입하여 신갈오거리에서 좌회전 신갈~성남방향 1.5Km 지점의 구성동사무소가 있으며, 용인향교는 바로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 기흥구 언남동 용인향교로 도로변에 접해있는 곳이다.

### 2. 용인향교 건축물의 배치와 평면

용인향교 건축물의 배치와 평면을 살펴보면, 입구의 홍살문을 지나 정문인 외삼문(外三門)

까지 직선의 길이 나 있으며 외삼문을 들어서면 마당이 나타나고 마당 정면에는 명륜당이 있고 좌측에는 관리사 및 충효교육관이, 우측에는 최근에 지은 화장실이 자리 잡고 있다. 충효교육관으로 들어가는 대문을 설치하고 담장을 둘러 공간을 구분하였다. 충효교육관은 2층 건물로 1층에는 수복실과 사무실이 있고, 2층은 교육을 위한 공간이다.

마당 정면으로는 높은 단 위에 세워진 명륜당이 보인다. 명륜당은 가파른 경사지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내삼문 쪽을 향해 건축되었다. 외삼문 쪽이 후면이 되는 셈이다. 이는 대성전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형국인데, 제향영역과 강학영역 간의 이러한 배치법은 17세기 이후의 서인 계열 서원이나 향교에서 주로 발견되는 수법으로 지형상 명륜당과 전면마당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채택된 결과로도 보인다.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3칸으로 중앙에 큰대청(정면 3칸·측면 3칸)을 두고 그 좌우 양쪽으로 온돌방(1칸×3칸)이 하나씩 있다.

명륜당 정면에서 내삼문에 오르면 정면에 배향의 중심전각인 대성전이 서 있다. 대성전 일곽은 최근에 개발된 고층 아파트 숲에 둘러 싸여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내부는 통간(通間)으로 되어 있다.

장서각(藏書閣)은 용서재(龍書齋)로 부르며 명륜당과 평면에 위치해 있으며 충효교육관 2층의 강학공간과 복도로 연결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용인향교는 여러 차례의 부침을 겪었던 까닭에 현재의 위치로 대성전만 이견되었고, 최근에 이르러 명륜당을 갖춘 일정한 규모로 회복되었으나 부지가 급경사지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예전 그대로의 규모로 복원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용인향교\_드론사진



용인향교 배치도



용인향교 전망

## 제5절 용인향교의 건축물

용인향교의 건축물은 조선시대 군현 단위의 향교 규모로 창건되었으나 세 차례나 소실되었다가 복원되었거나 이진(移建)되는 과정에서 크게 달라졌다. 현재의 건축물은 6.25전쟁으로 소실되었던 것을 1963년도에 사당인 대성전만 겨우 복구하였다가 점차 강당인 명륜당을 복원하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도 공간이 협소하여 동재와 서재를 갖추지 못하였다.

현재 용인향교의 건축물은 전통 양식인 대성전과 명륜당, 내·외삼문, 홍살문, 하마비 등이 있으며, 현대시설인 충효교육관, 화장실이 최근 건립되었다. 서고인 용서재(龍書齋)는 옛 건물인 장서고(藏書庫)에 해당하는데, 최근 충효교육관과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였다.

### 대성전(大成殿)

대성전은 공부자를 비롯하여 사성(四聖), 송조2현(宋朝二賢), 동방십팔현(東方十八賢)의 위패를 봉안한 곳이다. 본래 음력 2월과 8월 처음 정(丁)이 든 날에 석전대제를 지내던 곳인데 지금은 공부자 탄신일에만 향사를 지낸다. 삭망분향례, 고유제도 이곳에서 봉행한다.

용인향교 대성전의 배치는 경사지에는 높은 곳에 문묘 등을 낮은 곳에 명륜당 등을 조성하는 고묘저학(高廟底學)의 구조로 건축되었다. 현재의 건축물은 1992년도에 개수한 것으로 동서 5영(楹)이고 남북 3영의 15칸이다. 2007년도에 지붕의 개와와 벽면을 개수하고 단청을 하였다. 대성전 건물 처마 중앙에 걸린 ‘大成殿’이란 현판은 주자(朱子)의 글씨를 모각한 것이다. 대성전의 외관은 장중하고 장식이 간결하며 2익공의 모양과 결구(結構)가 단순하고 소박하다.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기단은 허튼층 쌓기로 되어있고 방형의 정평주초가 있으며 기둥은 원주(圓柱)이다. 바닥은 마루로 되어있고 연등천정에 초익공의 맞배지붕으로 지붕 전면에는 막새기와가 있으나 후면에는 없다. 처마는 겹처마이고 좌우의 방풍판은 1971년도에 보충한 것이다. 대성전은 통간의 장방형 평면을 이루며 연등천정으로 양토를 발랐고, 내부의 바닥은 전돌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용인향교의 경우는 우물마루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면을 제외한 측면과 배면은 화방벽을 쌓아 막았으며 전퇴는 개방하였다. 정면의 각 칸에는 널문을 달았다. 정면은 겹처마 후면은 홑처마이며 측면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초석은 모두 방형이며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은 형상이다. 기단은 장대석과 자연석을 혼용하

여 축조하였으며 전면에 계단 3좌를 두었다. 대성전 우측(서측)에는 망료위(望燎位)가 시설되어 있다.



대성전



대성전 현판



대성전 내부

2007년 대성전 보수공사



대성전 보수 전 이안 고유제  
(2007.6.5)



대성전 보수 모습(2007.6)



대성전 보수 후 이안 고유제  
(2007.8.13)

### 명륜당(明倫堂)

용인향교의 명륜당은 가파른 경사지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내삼문 쪽을 향해 건축되었다. 외삼문 쪽이 후면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계단을 올라서 좌우측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된다.

명륜당의 건축양식은 익공양식의 전통적인 모습이다. 정면 4칸, 측면 3칸으로 중앙에 큰대청(정면 3칸·측면 3칸)을 두고 그 좌우 양쪽으로 협실(夾室)인 온돌방(1칸×3칸)이 하나씩 있다. 좌우 협실 칸에만 전퇴를 부설했다.

민도리집 건물로 대들보는 기둥에 사괘를 내어 도리와 함께 짜 넣었다. 도리는 모두 납도리이며 중도리 위치는 대들보를 3분한 위치에 가깝게 잡았다. 중앙의 당(堂)은 문 없이 그대로 개방되었고 후면은 각 칸마다 널판의 바라지창을 달았다. 좌우 협실에는 궁판있는 쌍여닫이문을 한 짝씩 달았고 후면에는 중방과 상인방 사이에 세살창을 달았다. 홀처마이며 와구토로 마감하였다. 기단은 단층의 외별대이며 잡석 허튼층으로 쌓았다.

1987년 7월에 개축한 바 있으며, 1992년 전면적인 보수를 하면서 15평 규모로 신축하였다. 2002년 8월에는 단청을 하였다.

명륜당은 본래 강학을 하던 공간인데, 충효교육관이 건립된 이후에는 주로 향사의례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좌우측의 협실에는 제복이나 제기 등을 보관하고 있다. 대청마루인 당(堂)의 중앙 상단에 ‘명륜당(明倫堂)’이란 현판을 걸었다. 2016년도에 한석봉의 글씨를 최해식 사무국장이 판각한 것이다. 그 양쪽에 <용인향교중수기> <전전교이영희공적기> 액자를 걸었다.



용인향교 명륜당



명륜당 현판





명륜당 현판식

### 내삼문(內三門) · 외삼문(外三門)

일반적으로 신삼문(神三門)이라 부르기도 한다. 신삼문이라는 것은 문을 세 칸으로 나누어 출입구를 셋으로 만든 데서 비롯된 말이며, 외삼문과 내삼문으로 구분된다.

외삼문은 종묘나 문묘에 들어가는 초입의 문을 이르는 말이고, 내삼문은 경내에 들어가서도 다시 신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따로 설치하여 잡인의 출입을 금하고 정결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항상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신문을 셋으로 나누어 만든 것은 신의 출입과 사람의 출입을 구분하기 위함이며, 엄격히 따진다면 3문 중 중앙은 신문(神門)이고 양쪽의 문은 인문(人門)이라 하였다. 신문은 항상 닫아 두는 것이 상례이고, 인문은 열어 두어 일반 참배객의 내왕을 허용하고 있다. 중앙의 신문은 제향 때에만 열어놓고, 현관 및 제집사자 일반 참여 객들은 동문으로 들어가서 서문으로 나오도록 출입이 명시되어 있다.

신문의 건축양식은 대동소이하여 일주문·이주문·삼주문의 형태로 되어 있고, 크기는 묘원(廟院)의 규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상례일 뿐 일정한 규격이 없다. 또한, 묘원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 외삼문만 있고 내삼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일정하지 않다.

현재 용인향교의 내삼문과 외삼문은 1992년에 신축한 것으로 일반적인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규모는 각각 3칸이다. 대성전 앞의 내삼문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문 앞의 공간이 협소하다. 동입서출(東入西出)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 외삼문은 편의상 동쪽의 문만 사용하고 있다.



용인향교 내삼문



용인향교 외삼문

### 홍살문(紅箭門)

홍살문은 서원이나 향교 또는 묘 등의 입구에 세우는 문의 한 종류이다. 둥근 기둥 두 개를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대신 가로대 두 개를 높이 가로질러 양 기둥을 꿰뚫는다. 가로대에는 화살 모양의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 놓는데 그 중간쯤에 삼지창이 있고 그 밑에는 태극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를 붉은색으로 칠한다.



홍살문

홍살문은 담장과 문짝이 없어 길 위에 홀로 서 있다. 담장과 문짝이 없으므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세운 것은 아니다. 홍살문이 있는 곳에서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문이다. 그래서 홍살문은 서원·향교·묘 등 예를 갖추고 조심해서 행동해야 하는 장소에 세워진다. 홍살문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용인향교 입구에 세워진 홍살문은 1992년에 향교의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면서 새로 건립한 것이다.

### 하마비(下馬碑)

하마비는 서원이나 향교 외에도 왕이나 장군·고관·성현들의 출생지나 무덤 앞에 세워놓기도 하였다. 성역의 표시인 셈이다. 기록에 의하면, 1413년(태종 13) 2월에 처음으로 예조에서 건의하여 왕의 허가를 받아 나무로 만든 표목(標木)을 세웠다. 표목 전면에는 “대소 관리로서 이곳을 지나가는 자는 모두 말에서 내리라(大小官吏過此者皆下馬).”고 쓰여 있다. 그리고 그 내리는 지점도 품계에 따라 각기 다르게 거리를 표시하고 있는데, 1품 이하는 쉼문으로부터 10보, 3품 이하는 20보, 7품 이하는 30보 거리에서 말에서 내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표목은 후일 석비로 만들기도 하여 오늘날까지 그 실물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많다.

용인향교 입구에 세워졌던 하마비는 언제 조성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현존하는 용인향교의 조성물 가운데 가장 오랜 것으로 생각된다. 규모는 높이 105cm, 폭 42cm, 두께 13cm이다. 현재 충효교육관 출입문 좌측에 옮겨져 있다. 대신 2017년에 새로 만든 하마비를 향교 입구에 건립하였다.



하마비(구비)



하마비 및 향교표지석(향교진입로)

### 충효교육관(忠孝教育館)

충효교육관은 안으로 들어가는 대문을 설치하고 담장을 둘러 공간을 구분하였다. 충효교육관은 2층 건물로 1층에는 수복실과 사무실이 있고, 2층은 교육을 위한 공간이다. 2000년 8월

11일에 착공하여 다음 해 2월 20일에 완공하였다. 본래는 1층의 수복실(守僕室)이었는데 2층으로 개축하면서 1층은 수복실과 사무실로, 2층은 교육공간으로 변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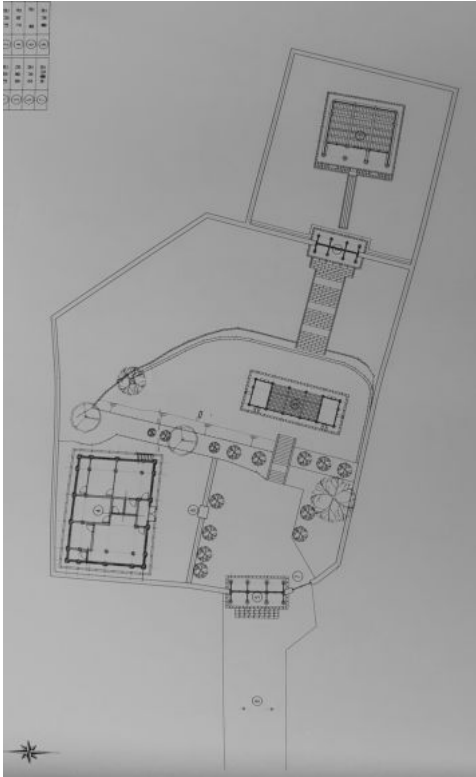
수복실은 옛날부터 향교의 건물과 향사 준비를 위한 시설로 일반 전통민가 양식의 건물이다. 용인향교 연혁을 살펴보면 수복실은 1986년에 증축한 바 있으며, 1992년에 30평 규모로 신축하였다. 그리고 2000년도에 충효교육관을 신축하면서 훼손된 것이다. 수복실의 배치 현황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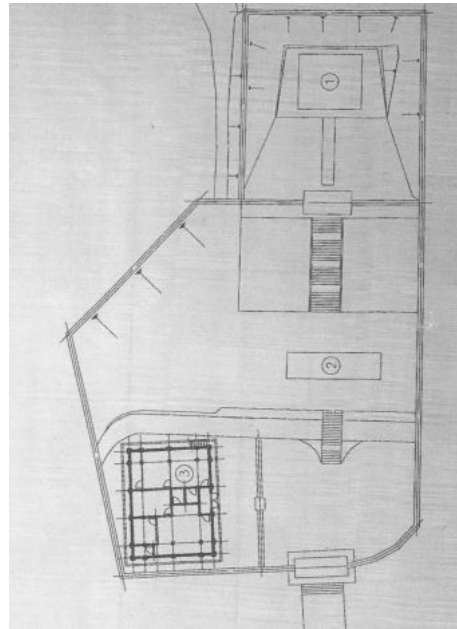
충효교육관



충효교육관 현판



용인향교 충효교육관 배치도(2000년)



용인향교 수복실 배치도(1986년)

### 용서재(龍書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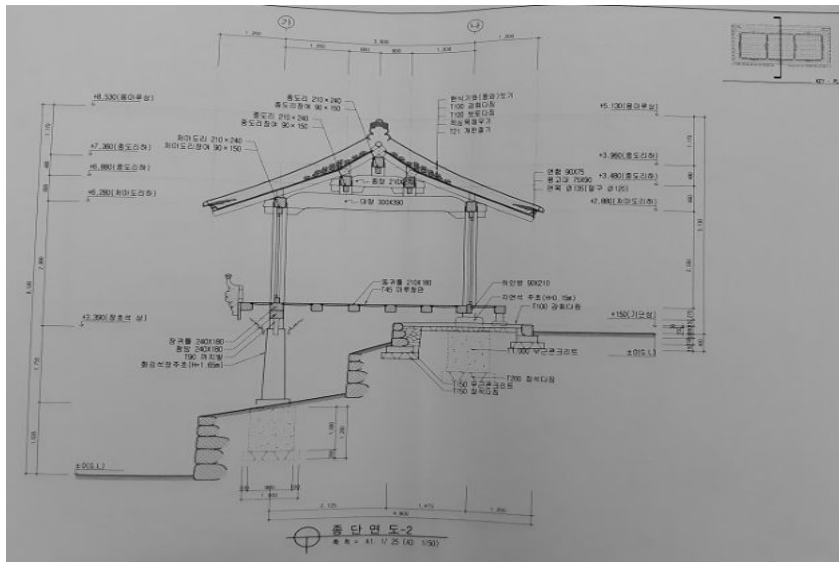
용서재는 용인향교의 서고(書庫)이다. 본래의 향교 건축물에는 장서고(藏書庫)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6.25전쟁으로 소실된 이후 복원되지 못하였다. 사무실 공간에 비축하였던 향교 관련 문서와 장서를 보관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신축하였다.

용서재(서고)는 명륜당 우측면에 누각 형태로 위치해 있으며, 충효교육관 2층의 강의 공간 출입구와 연결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

용서재의 건축양식은 전통한식목구조로 규모는 9.80평(34.20m<sup>3</sup>)이다. 건축양식은 一자 평면 구조로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삼량가로 민도리 양식이다. 우진각+맞배지붕에다 흘처마를 달았다.



용서재(장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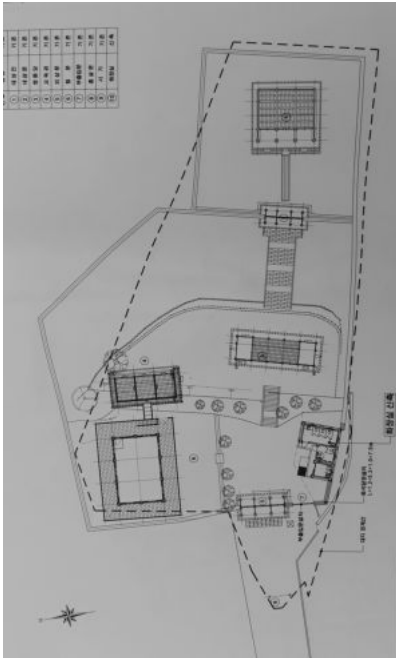


용서재(장서각) 종단면도

### 화장실

화장실은 용인향교 내 편의시설로 방문객 및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에 신축한 건축물이다. 주요 공사는 화장실이 신축되는 위치의 기존 담장과 부출입구를 철거하고, 화장실과 외삼문 사이에 담장과 부출입구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주변에 관목을 식재하는 등 조경공사를 하였다.

신축된 화장실의 건축양식은 ㄱ자 평면 구조로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삼량가로 민도리 양식이다. 우진각+맞배지붕에다 홑처마를 달았다. 처마도리 이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처마도리 이상은 한옥목구조로 축조되었다.



용인향교 화장실배치도



화장실

2014년 협문해체 복원공사  
(대문제작 보관 말려서 15년 장착 17년 단청)



2015년 서가 신축



2016년 화장실 신축



2017년 단청(명륜당, 옹서재, 협문, 교육관 테두리)





## 제5장 | 용인향교의 조직과 운영



## 제1절 용인향교의 조직

### 1. 용인향교

용인향교의 구성원은 전교(典校)·지부장(支部長)·원로(元老)·고문(顧問)·감사(監事)·총무(總務)·장의(掌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인원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용인향교 임원 (2017년 현재)		
임원	인원	주요 임무
전교	1	향교를 대표하며 향교 내의 사무를 총괄함.
지부장	1	유도회지부회를 총괄하며 유림총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원로	4	정관상 ‘원로위원’이라 칭하며 원로회의 구성원으로서 향교의 시책추진을 자문함. 원로는 향교전교, 유도회지부장을 역임한 이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이를 전교가 추대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함.
고문	7	용인향교 일체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감사	1	감사는 본 향교의 세입세출 예산 결산 기타 재산 관리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총무	1	용인향교의 전체적이며 일반적인 사무와 일을 맡아봄.
장의	58	장의는 전교를 보좌하고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 운영에 임하며 향교 내 제반에 참여하여 실행함.

용인향교 조직 (현재)		
직위	성명	주소
용인향교 전교	이양구	용인시 기흥 한보라 2로 14번길 4-9 3층 3호
지부회장	김동해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70-6
감사	장관희	용인 기흥구 구성로 90 삼성래미안A203-1403
사무국장	최해식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63번길 14
사무부장	도숙희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63번길



전교 이양구



유도회장 김동해



사무국장 최해식



사무부장 도숙희

용인향교 임원 명단 (2017년 현재)

職位	姓名	住 所
典校	李亮求	기흥구 한보라 2로 14번길 4-9
支部長	金東海	기흥구 구성로 168-1
元老	李起昌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234
元老	趙潤元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41
元老	李明烈	기흥구 원고매로 75-3
元老	朴汝熙	기흥구 하갈로 86번길 45
顧問	朴址榮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175번길 4-10
顧問	李秉穆	처인구 모현면 과담로 140-15
顧問	柳康熙	처인구 신성로 115-37
顧問	李鍾麒	수지구 정평로 73
顧問	李大熙	처인구 초부로 106번길 33-2
顧問	李壽吉	기흥구 구성로 174
顧問	朴漢哲	기흥구 이현로 29번길 84-14
監事	張寬熙	기흥구 구성로 90
總務	崔海植	기흥구 구성로 63번길 14

## 용인향교 장의 명단

(2017년 현재)

職位	姓名	住 所
掌議	柳千熙	처인구 동부로 151번길 11-1
掌議	任熙昌	처인구 김량장동 503
掌議	朴鎭元	처인구 명지로 312번길 10-3
掌議	李柱哲	처인구 고림로 74번길 18
掌議	李仁性	처인구 모현면 파담로 91번길 2
掌議	李秉和	처인구 모현면 갈담로 153-2
掌議	鄭斗和	처인구 모현면 충렬로 22
掌議	李世九	처인구 모현면 충렬로 8번길 8-4
掌議	金昌植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164
掌議	崔光燮	수지구 현암로 89번길 14
掌議	李建述	수지구 샘말로 89번길 6
掌議	韓光錫	기흥구 중부대로 819번길 3
掌議	朴性萬	기흥구 중부대로 773번길 17
掌議	金泰洪	기흥구 언남로 27-4
掌議	金成福	기흥구 구성로105-15
掌議	朴開一	기흥구 언동로 219-17
掌議	昔仁甫	처인구 중부대로
掌議	鄭德教	기흥구 사은로 162
掌議	孔重根	기흥구 용구대로 1842
掌議	朴弼遠	기흥구 공세로 90번길 11-6
掌議	尹相源	기흥구 보정동 1193-11번지
掌議	韓建植	수지구 용구대로 2772번길 3-6
掌議	李鍾銀	기흥구 구성로105-15
掌議	鄭誠教	처인구 포곡 영문로 64
掌議	李成熙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 2186번길 128
掌議	吳成春	기흥구 마북로 139
掌議	金明福	기흥구 마북로
掌議	李根求	기흥구 신구로 22번길 7-31
掌議	金榮鶴	기흥구 용구대로 2374
掌議	최병희	수지구 죽전동
掌議	金正九	기흥구 구성로 279번길 34-3
掌議	安孝男	기흥구 마북로 240번길 11
掌議	尹得源	기흥구 마북로 244-1

職位	姓名	住 所
掌議	朴基福	기흥구 마북동
掌議	朴長淳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27-19
掌議	尹文熙	기흥구 구성로 99
掌議	朴昌燮	기흥구 마북로 55-6
掌議	宋亨鎬	기흥구 상하동 286-2
掌議	李英燮	기흥구 중동
掌議	安光明	기흥구 언남동 439
掌議	尹道福	기흥구 신갈동
掌議	梁南錫	처인구 동부로 335번길 15
掌議	朴高遠	처인구 명지로 312번길 5-3
掌議	趙鳳行	기흥구 구성로 77-11
掌議	禹今茸	기흥구 마북동 240번길
掌議	김진철	기흥구 관곡로 53
掌議	宋熹鳳	기흥구 구성로 40
掌議	李宗求	기흥구 지삼로 201번길
掌議	李晋珪	기흥구 지삼로 201번길
掌議	李泰求	수원 영통구 봉영로1526
掌議	崔鍾實	기흥구 지삼로 291
掌議	金學慶	기흥구 구갈동
掌議	安金鏞	기흥구 마북로 53
掌議	崔允植	기흥구 청마로 17번길
掌議	李載奎	기흥구 중동 826-1
掌議	智太煥	기흥구 신갈로 102
掌議	張恩周	기흥구 마북로 55-6
掌議	申鍾燮	기흥구 마북동 295-5
掌議	趙成麟	기흥구 민속촌로 55번길 11
掌議	趙烈元	기흥구 보라동 564
掌議	趙煥元	기흥구 한보라 2로 14번길
掌議	李相九	기흥구 보정동 신수로 351

역대 용인향교 전교

			
1代 鄭禹鎔	2代 權重哲	3代 金命鎬	4代 李昌烈
			
5代 許 埰	6代 鄭雲象	7,8,9,10代 趙成來	11,12代 李英熙
			
13,14代 金建中	15,16,17代 李起昌	18,19代 朴址榮	20,21代 李亮求

용인향교 역대 전교(典校) 명단

代	姓名	雅號	住所	就任	退任
1대	鄭禹鎔	松圃	용인군 용인면 남리		
2대	權重哲	山下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1957.01.31
3대	金命鎬		용인군 구성면 죽전리	1957.02.01	1963.10.13
4대	李昌烈		용인군 포곡면 신원리	1963.10.14	1973.09.11
5대	許 埰		용인군 유방리 347번지	1973.09.12	
6대	鄭雲象		용인군 김량장리 254번지	1973.09.23	1979.03.23
7대	趙成來	松菴	용인군 역북리 78번지	1979.12.24	1984.01.20
8대				1984.01.21	1985.12.05
9대				1985.12.06	1987.12.21
10대				1987.12.22	1989.12.25
11대	李英熙	延安	용인읍 모현면 초부리 174	1989.12.26	1992.02.17
12대				1992.02.18	1993.01.27
13대	金建中	昇岩	용인시 김량장동 373	1993.09.10	1996.04.14
14대				1996.04.03	2000.03.15
15대	李起昌	松隱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 423	2000.03.16	2002.08.16
16대				2002.08.17	2005.08.16
17대				2005.08.17	2008.08.16
18대	朴址榮	巨松	용인시 기흥구 중동 31-2	2008.08.16	2011.08.15
19대				2011.08.16	2014.08.15
20대	李亮求	器汕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로 14길 4-9	2014.08.16	2017.08.15
21대				2017.08.16	현재

용인향교 역대 전교의 주요 실적		
전교	일자	내역
趙成來 (7대~10대)	79.03.14	전교 취임
	83.05.14	남사면 방아리 논 4,334평 매수
	83.07.14	대성전 앞 계단공사
	83.04.11	구성면 대지 1,539평 매각
	84.02.25	전교임명장 수여(성균관장 李載瑞)
	85.03.05	전기가설
	85.08.20	우물공사
	86.06.24	수복실 증축
87.07.08	명륜당 개축	
李英熙 (11대·12대)	89.03.26	전교 취임
	89.03.15	내삼문 담장 일부공사
	89.07.12	외삼문 담장 일부공사
	90.	수복실 앞 담장공사. 통행문 설치. 대성전 앞 경사지 잔디 공사
92.	대성전 20평, 신삼문 3칸, 명륜당 15평, 외삼문 3칸, 홍살문 1칸, 수복실 30평	
金建中 (13대·14대)	93.09.10	전교 취임
	97.03.05	안성유기점에서 오성위잔 15조를 구입함
	97.04.12	향교제복구입비 보조금 신청
	97.04.17	전교회의 개최
	97.05.01	석전대제 축문 수정
	97.08.19	전사청 복원 건의
	97.08.28	제복 5착, 관복 2착 구입.
	98.08.19	전사청 복원 건의
	98.09.20	천막 2개, 배석 20장, 제기구 구입
	98.10.12	시공보실 담당계장 내방 전사청 건축부지 검토
李起昌 (15대~17대)	00.03.16	전교 취임
	00.03.22	충효교육관 40평 설계 계획을 2층 60평으로 건립할 것을 시와 협의 확정
	00.08.11	향교 충효교육관 건립 착공(2001 02. 20완공)
	02.08.10	향교대성전 명륜당 내삼문 수리 및 단청시공(용인시)
	03.05.29	충효교육관 교육용 책상 및 사무용 책상 27조 구입. 컴퓨터 1조구입
	07.05.29~08.29	대성전 및 향교제반 공사 개시



전교	일자	내역
		내용: 기와, 기둥 6개, 벽면/ 내. 외삼문 기와/ 명륜당 계단) 시행: 용인시 문화관광과/ 시공: 주)세이프건설
	07.08.17	냉 난방기(사무실, 교육관) 설치(용인시)
	07.08.30	정수기 사무실 직수설치(용인시) 교육관 이동식 대여
	08.02.26	충효교육관 판넬 및 차단기 교체공사(용인시)
	08.04.21	명륜당 좌측 담장보수(용인시)
朴址榮 (18대·19대)	08.08.16	전교 취임
	08.10.13	향교 전압승압(용인시)
	08.11.07~10	용인시 목조문화재 방연제도포공사 실시(용인시)
	08.11.17	소화전공사 실시(용인시 문화관광과)
	09.08.19~24	담장쌓기 명륜당 옆 4칸(7.3 폭우담장유실) 용인시
		명륜당 독 및 경 내외 채우고 고름(7.12장마유실)기흥구청
	09.09.14	보일러실 외벽공사(용인시)
	10.06.08~90.04	향교진입로 정비, 배수로, 오수관 공사(용인시) (진입로 확장 및 홍살문 보수)
	11.10.19	담장 부분 보수(용인시)
	12.4.10~30	교육관 둘레 바닥 방수공사(용인시)
13.04.29~07.27	향교 정면 우측부터 대성전 뒤쪽 담장공사 (용인시)	
李亮求 (20대·21대) 2016	14.08.16	전교 취임
	14.08	典校 器油 李亮求 “기산록(器油錄) -삶의 발자취-” 발간 1936.12.12~2013.12월의 삶의 기록을 남기고과 어릴적 기억을 더듬고 일기장을 뒤적여 연보와 연수기, 산행기,관광기를 정리 고향의 부아산을 넣어 “기산록(산과 물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란 뜻의 표지명으로 발행
	15.02.28	콜로키움 대비 충효교육관 계단 전등설치
	15.04.02	구성교회 땅에 대성전 차폐용 나무식목
	15.07.13	향교 사무실 방충망 설치
	15.08.27~11.24	서가(용서재)신축공사 (용인시 문화관광과) -예산: 1억7천만원 -면적 10평 -방 3칸 - 바닥 마루 -둘레 마루 -여닫이문
	16.07.27	청소년(어린이 2~3학년용)유건도포 구입
	16.09.29	화장실 신축공사: 면적 27.94m <sup>2</sup> 용인시 자체 공사(공사비 2억)

전교	일자	내역
		구분: 남 3칸, 여3칸, 장애인 1칸, 수납 1칸 공사기간 9. 19~12. 19(90일간)
	16.11.01~30	충효교육관 및 서가 리모델링(예산지원) 공사비총 44백만원(문체부 39백만원/ 용인시 5백만원) 교육관: 천장택스, 냉난방, 전등, 바닥장판, 벽 페인트, 싱크대, 수도, 수납장, 신발장, 칠관(사무실: 창문, 바닥, 페인트, 전등) 용서재: 책장, 책상, 의자, 냉난방기 이전
	17.01.02	안영희 TV 기증
	17.01.24	향교표지석 하마비건립(제막식 03.07, 조영채 기부)
	17.04.29~05.14	단청공사 명륜당, 용서재, 교육관테두리(용인시)
	17.05.18~06.13	향교 홍보 리플렛 제작(용인시)
	17.07.05	사무실누수 및 명륜당 외부 수도공사(용인시)
	17.04~12	2017년 향교지발간 사업추진(용인문화원 합동)
	17.09.01	김민기 의원 향교지 촉발간사 요청으로 향교지 내용 관련 질의 및 향교 애로사항 질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서 제출관련 답변 김대정 의원 및 김언년 구성동장 향교방문: 사업계획서 제출 의 성당 주차부지에 수녀숙소 추진 중으로 향교의 주차가 문제 될 것을 토론 함



용인향교 임원 사진(2001)

## 2. 용인향교 유도회(龍仁鄉校儒道會)

### 1) 설립 목적과 사업

용인향교유도회는 1996년 3월 2일에 발족하였다. 공식명칭은 ‘용인향교 용인지부 유도회(龍仁鄉校 龍仁支部 儒道會)’이다. 용인향교 내에 조직을 두고 수지·기흥·구성·포곡·모현 지회를 두고 있다.

유도회의 회칙을 보면, 유도회는 “유교정신에 입각하여 도의의 천명과 윤리의 부식(扶植)을 실천하여 수제지평(修齊治平)의 대도(大道)를 선양하여 사회질서를 순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경전 및 학술연구 발표 ② 지방향교 및 유림기관의 발전육성에 관한 사항 ③ 교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④ 유림연수 친목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사업을 경영한다.

그리고 유도회의 경비는 특별회비·찬조금으로 한다.

### 2) 유도회의 구성

유도회의 구성은 본회의 교지(教旨)에 찬동하여 등록된 자로 한다. 단, 이교단체(異敎團體)에 가입한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유도회의 임원은 고문 약간 명과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운영위원 5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 정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여타 임원은 회장이 인선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용인향교 유도회 임원의 구성 및 임무

직책	인원	임무
회장	1인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운영한다.
부회장	2인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중 고령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	1인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운영위원	5인	교화 및 도의선양·운동·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감사	2인	본회의 규율유지와 회원의 심사 및 표창·징계·복권에 대한 사항과 경리의 사무를 감사하여 정례회의시에 보고한다.
고문	약간명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용인향교 유도회 임원명단 (2017년 현재)		
직 위	성 명	주 소
전교	이 양 구	용인시 기흥 한보라 2로 14번길 4-9 3층 3호
지부회장	김 동 해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70-6
고문	이 기 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곡현로(일산리 234)
고문	조 윤 원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41
고문	이 명 렬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 75-3
상임고문	박 지 영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175-5번길 4-10
상임고문	유 강 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762번길
상임고문	이 종 기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73 극동임광A 302-902
상임고문	이 대 희	용인시 처인구 초부로 106번길 33-2
상임고문	이 수 길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74
상임고문	박 한 철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29번길 84-14
부 지부회장	박 성 만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73번길 17
수지 지회장	한 건 식	용인 수지구 용구대로 2772번길 3-6
기흥 지회장	임 희 창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503 신우A 103-1403
구성 지회장	최 해 식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63번길 14
포곡 지회장	정 성 교	용인 처인 포곡 영문로64베네치아A105-1404
모현 지회장	이 병 목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파담로 140-15
감 사	김 영 학	용인 기흥 용구대로2374 아남빌라 가동 401
사무장국장	이 영 섭	용인시 기흥구 중동 월드메르디앙 102-902

용인향교 유도회 역대임원명단					
대 수 (재임기간)	직 위	성 명	대 수 (재임기간)	직 위	성 명
12代 (2006.02.10 ~ 2009.02.11.)	지부회장	박지영	15代 2014.02.18 ~ 2015.03.09	지부회장	이양구
	부 지부회장	김진혁		부 지부회장	박성만
	수지 지회장	한건식		수지 지회장	한건식
	기흥 지회장	공중근		기흥 지회장	공중근
	구성 지회장	박개일		구성 지회장	박성만
	포곡 지회장	정성교		포곡 지회장	정성교
	모현 지회장	이병목		모현 지회장	이병목
	감 사	김영학		감 사	김영학
	사무국장	이대희		사무국장	이영섭
13代 2009.02.12 ~ 2012.02.14	지부회장	백우현	16代 2015.03.10~ 현재	지부회장	김동해
	부 지부회장	김진혁		부 지부회장	박성만
	수지 지회장	한건식		수지 지회장	한건식
	기흥 지회장	공중근		기흥 지회장	임희창
	구성 지회장	박개일		구성 지회장	최해식

	포곡 지회장	정성교		포곡 지회장	정성교
	모현 지회장	이병목		모현 지회장	이병목
	감 사	김영학		감 사	김영학
	사무국장	이대희		사무국장	이영섭
14대 2012.02.14 ~ 2014.02.17	지부회장	이대희			
	부 지부회장	김진혁			
	수지 지회장	한건식			
	기흥 지회장	공중근			
	구성 지회장	박개일			
	포곡 지회장	정성교			
	모현 지회장	이병목			
	감 사	김영학			
사무국장	정덕교				

역대 성균관유도회 용인지부장 명단

代	姓名	雅號	住所	就任	退任
1대	趙成來	松菴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78번지	1977.10.17	1979.10.16
2대	金建中	昇岩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동 373	1979.10.17	1984.01.
3대	鄭雲象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254번지	1984.01.	1985.10.
4대	金弘基		용인군 용인읍 삼가리 285번지	1985.10.	1987.12.21
5대	柳正熙		용인군 용인읍 운학리 715	1987.12.22	1990.05.03
6대				1990.05.04	1993.02.17
7대				1993.02.18	1996.03.17
8대	李起昌	松隱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423	1996.03.18	1999.03.03
9대				1999.03.04	2000.05.16
10대	李敦寧		처인구 김량장동 133-128	2000.05.17	2002.09.01
11대	柳康熙		처인구 마평동 342	2002.09.02	2005.02.09
12대	朴址榮	且松	기흥구 중동 31-2	2006.02.10	2009.09.11
13대	白禹鉉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408-14	2009.02.12	2009.02.13
14대	李大熙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190-1	2012.02.14	2014.02.17
15대	李亮求	器汕	기흥구 한보라로 14길 4-9	2014.02.18	2015.03.09
16대	金東海	槿源	기흥구 구성로 170-6	2015.03.10	2018.03.09

역대 성균관유도회 용인지부장			
			
1代 趙成來	2代 金建中	3代 鄭雲象	4代 金弘基
			
5~7代 柳正熙	8~9代 李起昌	10代 李敦寧	11代 柳康熙
			
12代 朴址榮	13代 白禹鉉	14代 李大熙	15代 李亮求
			
16代 金東海			

### 3. 용인향교 여성유도회(女性儒道會)

성균관 여성유도회는 유도회 총본부 산하에 설치된 여성유림단체로 1975년에 설립하였다. 1978년에는 명덕학당(明德學堂)을 개설하여 전통예절과 차(茶)생활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소정의 사범과정을 마치면 사범자격증을 받고 예절강사로 활동한다. 1980년에는 신부학교(新婦學校)를, 1989년에는 여성유림지도자를 양성하는 여성예학원(女性禮學院)을 부설, 운영하였다.

성균관 내에 중앙회가 있고 광역시를 비롯하여 전국 및 해외에 90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인의예지의 유교 가르침을 실천하며, 유교정신에 입각한 여성운동을 전개하여 공덕의 진흥을 목적으로 1975년에 설립된 이회는 가정예절교육·계몽강좌·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용인향교 여성유도회는 한때 서예, 붓펜, 문학, 풍물, 민요반을 개설하여 봉사, 문화 활동 등을 활발히 하였으나 장소와 예산상의 문제로 문학, 서예반만 향교 명륜대학 과목으로 남겨 진행되고 있다



여성유도회의 사회봉사활동

龍仁鄉校 女性儒道會 會員名單(1979~2003)

職位	姓名	住 所
회장	박청자	용인시 역북동 454-20
부회장 1	박정옥	기흥읍 하갈2리 157-2
부회장 2	황순영	기흥읍
용인읍 회장	유기정	김량장동 신우A 103-1304
포곡면 회장	강옥자	포곡면 전대 2리 139-6
모현면 회장	조순중	모현면 일산4리 408-7
기흥읍 회장	김병희	기흥읍 구갈리 385 풍림 A 103-204
구성읍 회장	우일출산	구성읍 언남리
용인부회장	이완상	김량장동 신우 A 203-2
구성부회장	오영자	구성읍 동백리 259-10
포곡부회장	최인병	포곡면 전대 2리
이 사	이숙자	김량장동 335-2 유장그린맨손 1동 401
조직부장	박옥봉	김량장동
봉사부장	심영수	김량장동 132
교육부장	박순혜	기흥읍
이 사	이순미	기흥읍 성훈양국
이 사	강숙자	구성읍
이 사	조경순	김량장동 293-7
이 사	고복자	용인읍 역북리
고 문	홍부남	유방동
감사	권부자	김량장동 335-19 우원 A 601
재무부장	구본선	구성읍 중 5리 259-4
이 사	박봉순	용인읍 김량장동
이 사	조선희	용인읍 김량장동
이 사	김윤수	용인읍 주공A
고 문	김보현	용인읍 김량장동
회원	홍부남	유방동
	이미영	용인읍 역북리
	박순혜	기흥읍
	박명순	용인읍 역북리 475-29
	이명순	용인읍 역북리
	김난식	용인읍 김량장동
	양옥자	용인읍 김량장동
	김용희	이동면 덕성리
	이종숙	용인읍 역북동
	임병희	용인읍 역북동 454
	김경순	용인읍 김량장동 140
	박영희	용인읍 김량장동
	박호숙	용인읍 김량장동
	윤윤현	용인읍 김량장동
	최인순	용인읍 김량장동
	서순신	용인읍 역북동
	김일래	기흥읍 상갈리



龍仁鄉校 女性儒道會 會員名單 (2003~)

職位	姓名	住所
會長	鄭榮淑	용인 구성읍 마북리 우림
副會長	元順業	용인 모현면 능원리
	趙鹿榮	용인 구성읍 마북리 운정마을
會計	林孟禮	용인 구성읍 언남리
總務	崔貞淑	용인 구성읍 마북리 삼성래미안
部總務	都淑姬	용인 구성읍 언남리
會員	洪兌弦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崔季子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成玉子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金和子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高善子	용인 구성읍 마북리
	金紛經	용인 구성읍 마북리 삼성쉐르빌
	林幸日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孫守榮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蔡善町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姜淑現	용인 구성읍 미북리 현대
	文敏姬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崔成子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柳玉子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白枳妙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부
	吳香任	용인 구성읍 마북리 현대필그린
	朴貞惠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申淸喜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李啓淳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金和子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朴点熙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權仙英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洪甲順	용인 구성읍 언남리 신일
	權貞淑	용인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
	朴連任	용인 구성읍 보정리 동아솔레시티
	辛相姬	기흥구 마북동 현대필그린
	安順男	기흥구 마북동 현대홈타운
	姜明姬	기흥구 상하동 신일유토빌

李点淑	기흥구 구성 3로
呂運玉	기흥구 보정동 연원마을 성원
林基淑	기흥구 언남동 240-1 동부
崔碭蘭	기흥구 언남동 뉴-현대맨션
韓明淑	기흥구 언남동 구성로 90 삼성래미안
許念伊	기흥구 구성로 동부
元昱善	기흥구 구성로 90 삼성래미안
朴仁成	기흥구 구성로 90 삼성래미안
宋炳淑	기흥구 마북동 삼성래미안
朱明玉	기흥구 마북 2동 현대홈타운
金正花	기흥구 청덕동 576 물푸레마을
金美淑	기흥구 구성로 90 삼성래미안
姜明姬	기흥구 상하동 신일유토빌
金善鄉	기흥구 마북동 연원마을
林鍾男	기흥구 마북동 벽산
李信子	기흥구 마북로 154번길



여성유도회 특강

## 제2절 용인향교의 운영

용인향교 운영은 2000년도에 제정한 <용인향교 정관>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용인향교의 정관 가운데 중요사항만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목적과 사업

용인향교는 유도정신(儒道精神)에 입각하여 도의천명(道義闡明)과 윤리(倫理)의 부식(扶植)을 실천하고 대도(大道)를 선양하여 사회질서를 순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① 문묘(文廟)의 유지관리 ② 유교교의(儒敎敎義)의 실천과 연구 ③ 유림인구의 관리와 교육 ④ 명륜대학 운영을 통한 유교의 계승과 전파 ⑤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 2) 의결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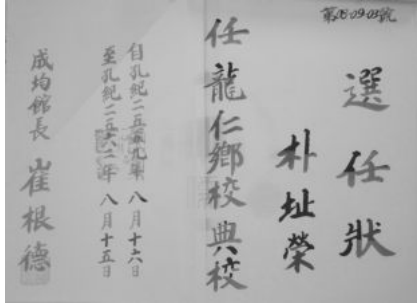
유림총회는 향교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구성한다.

- ① 향교 임원 전원(전교, 장의, 감사)
- ② 유도회지부회 임원전원(지부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 ③ 향교의 교구(校區) 내 각 읍면별 유림 대표 5인 이내. 단, 향교의 교구는 용인읍, 포곡면, 모현면, 수지면, 구성면, 기흥면, 남사면으로 한다.
- ④ 유림총회의 회원은 향교 교구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 ⑤ 유림대표 선출 방법은 성균관장이 따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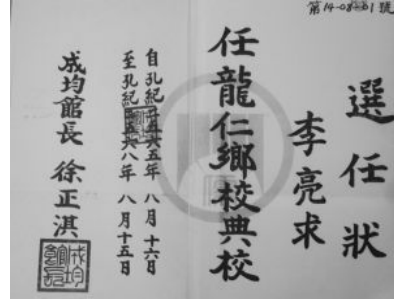
### 3) 임원 선출

용인향교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전교는 유림총회에서 선출하여 성균관장이 임명한다.
- ② 장의는 전교가 추천하여 유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성균관장이 임명한다.
- ③ 감사는 유림총회에서 선출한다.



임명장(박지영)



임명장(이양구)

#### 4)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전교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여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5) 업무 분장

향교 운영을 원활히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장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분장을 한다.

- ① 의전장의: 문묘관리를 하며 일반의전도 총괄한다.
- ② 총무장의: 직인관수, 예산편성, 결산보고서 작성. 문서수발,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장하며 형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섭외장의: 섭외 선전 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④ 간사: 전교가 임명하고 향교 운영업무에 종사하며 형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6) 향교 회의

향교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2월중에 개최하며 ① 전교 및 임원 선출 ② 정관 제정 및 개정 ③ 세입세출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④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⑤ 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⑥ 기타 향교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 7) 원로회의

향교의 중요 시책 수행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로회의를 둘 수 있으며, 원로위원은 전교, 유도회지부장을 역임한 자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전교가 추대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전교의 자문으로 의결권은 없다.

## 제3절 용인향교의 자산과 예산

### 1. 용인향교의 기본자산

용인향교의 운영은 기본자산과 용인시 보조금, 향교재단 보조금, 기타 성금으로 이뤄진다. 기본 자산으로는 현재의 향교 건축물과 구향교 부지의 매각으로 조성된 전답이 전부이다. 기본자산의 규모는 2017년도 기준시가로 건물 122,731,050원과 전답 3,466,057,100원 정도이다.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5에 소재한 용인향교의 기본재산(건물)대장을 도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용인향교 기본재산(건물)대장						
연번	지목 또는 구조	면적		평가액 ( $m^2 \times$ 공시지가)	용도	비고
		평	$m^2$			
1	목조와가	15.09	49.80	15,736,800	대성전	
2	"	12.39	40.95	12,940,200	명륜당	
3	"	3.49	11.55	3,799,950	내삼문	
4	"	5.07	16.75	5,510,750	외삼문	
5	"	1칸		329,000	홍살문	
6	철근콘크리트	14.97	49.50	15,642,000	사무실	1층
7	"	24.47	80.88	43,432,560	주택	1층
8	"	21.23	70.17	37,681,290	교육관	2층
9	목조와가	10	32.4		서가	
10	철근목조와가	9	27.94		화장실	
	소계	116.71	379.94	122,731,050		

그리고 구향교 부지를 매각하고 구입한 용인관내의 전답 재산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용인향교 기본재산(토지·임야)대장

연 번	소재지(지번)	지 목	면 적		평가액 (m <sup>2</sup> ×공시지가)	등기일자	용도	비고 (공시지 가m <sup>2</sup> )
			평	m <sup>2</sup>				
1	처인구 고림동 42	답	974	3,220	241,822,000	1972.02.01	휴경	75,100
2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17-2	답	116	383	26,656,800	1983.08.24	답	69,600
3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17-3	답	630	2,083	144,976,800	1983.08.24	답	69,600
4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 85-2	전	625	2,066	122,513,800	1980.12.31	답	59,300
5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 110	답	438	1,448	88,328,000	1980.12.31	답	61,000
6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274	답	611	2,020	111,504,000	1983.08.24	답	55,200
7	처인시 남사면 방아리 277	답	1992	6,585	363,492,000	1983.08.24	답	55,200
8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281	답	975	3,223	222,387,000	1983.08.24	답	69,000
9	처인구 남사면 창리 741-2	대	267	883	164,502,900	1980.12.31	대	186,300
10	기흥구 언남동 335	대	741	2,469	1,964,336,400	1980.12.31	대	795,600
11	기흥구 언남동 335-5	대	2.41	8	2,666,400	2010.03.08	대	333,300
12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 87-1	전	319	1,055	12,871,000	2015.11.12	전	12,200
	계		6,397.41	21,168	3,466,057,100			1,841,400

## 2. 용인향교의 예산

용인향교의 예산 출입관련 서류를 참고하면, 2010년도 이후 연간 예산규모는 5천 5백만원 정도이다. 고정적인 수입원은 전답수입료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와 용인시보조금 4천만원 정도이다. 기타 용인향교 임원과 유도회 회원의 헌성금, 지역 유림과 유지들의 기부금이 행사비로 소요된다. 2015년~2017년도엔 유교문화 활성화사업단의 사업보조금으로 일시적으로 운영비가 증가되었다.

2010년도 이후 용인향교의 연도별 예산 내역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용인향교 연도별 예산 규모				
내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운영비총액	56,116,488	53,055,576	54,273,095	58,349,223
전년이월일반통장	6,507,706	5,906,668	2,305,876	3,831,135
전년도 적립예금	42,000,000	43,000,000	44,000,000	44,000,000
일반수입총액	7,608,782	4,148,908	7,967,219	10,518,088
내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운영비총액	56,499,248	54,894,075	55,759,909	
전년이월일반통장	7,666,533	2,503,743	3,262,804	5,467,415
전년도 적립예금	44,000,000	44,000,000	44,000,000	41,000,000
일반수입총액	4,832,715	8,390,332	8,497,105	

위의 예산 내역에서 적립예금은 역대 전교님들과 향교를 아끼시는 분들의 마음들이 모여 형성된 자본이며, 용인향교 제 11·12대 이영희 전교 재임당시 자손들이 70세 희수연을 하고자 했으나 마다하고 2백수십여만원을 본 향교 교육기금으로 기탁하여 유도회에서 장의 회의시 참여회원 각 1만원의 회비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용인향교지 발간 사업비로 5백만원을 인출하였다.

용인향교 연도별 예산내역				
연도	회계별	총 수입	총 지출	잔 액
2010년	계	98,135,388	49,228,720	48,906,668
	일 반	56,116,488	7,209,820	48,906,668
	용인시보조금	42,018,900	42,018,900	0
2011년	계	90,563,896	44,258,020	46,305,876
	일 반	53,055,576	6,749,700	46,305,876
	용인시보조금	37,508,320	37,508,320	0
2012년	계	93,293,090	45,461,955	47,831,135
	일 반	54,273,095	6,441,960	47,831,135
	용인시보조금	39,019,995	39,019,995	0
2013년	계	100,373,320	48,706,787	51,666,533
	일 반	58,349,223	6,682,690	51,666,533
	용인시보조금	42,024,097	42,024,097	0
2014년	계	87,890,767	41,387,024	46,503,743
	일 반	56,499,248	9,995,505	46,503,743
	용인시보조금	31,391,519	31,391,519	0
2015년	계	135,956,335	88,693,531	47,262,804
	일 반	54,894,075	7,631,271	47,262,804
	용인시보조금	35,384,768	35,384,768	0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45,677,492	45,677,492	0
2016년	계	155,959,894	109,492,479	46,467,415
	일 반	55,759,909	9,292,494	46,467,415
	용인시보조금	79,399,985	79,399,985	0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20,800,000	20,800,000	0
2017년	계			
	일 반			
	용인시보조금	42,985,000	42,985,000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15,840,000	15,840,000	0



2010년도 이후 용인향교의 수입 내역은 다음 도표와 같다.

용인향교 수입 내역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내역/ 계	7,608,782	4,148,908	7,967,219	10,518,088
과년도 전답수입	150,000	210,000	2,170,000	2,300,000
전답수입(추가)	1,830,000	0	0	2,160,000
석전대제 성금	650,000	450,000	450,000	600,000
기로연 성금	300,000	50,000	400,000	300,000
향교재단보조	2,200,000	2,000,000	2,000,000	2,600,000
기타성금	1,000,000	100,000	1,311,100	1000,000
이자수입	1,478,782	1,338,908	1,636,119	1,558,088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내역/ 계	4,832,715	8,390,332	8,497,105	5,227,390
과년도 전답수입	0	2,160,000	1,920,000	
전답수입(추가)	0		1,680,000	
석전대제 성금	700,000	900,000	1,500,000	1,420,000
기로연 성금	300,000	400,000	600,000	770,000
향교재단보조	2,200,000	2,200,000	800,000	900,000
유도회(총회)	583,000		451,000	81,000
명륜대전기세지원		600,000	536,990	200,000
장소대여		900,000		220,000
서가신축공사 전기		257,660		
기타성금		230,000		1,100,000
이자수입	1,558,088	972,672	679,115	536,390

그리고 기본 자산이 여유 있게 확보된 다른 지역 향교의 경우와는 달리 용인향교는 대부분의 예산을 용인시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사무국의 구성도 상임 근무자는 도숙희 사무부장 1명뿐이다.

2010년도 이후 용인시의 보조금 내역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242 제5장 용인향교의 조직과 운영

용인시보조금 내역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항목/ 계	42,018,900	37,508,320	39,019,955	42,024,097
향교운영비	12,000,000	12,000,000	12,000,000	15,000,000
전기사용료	4,320,000	4,320,000	4,800,000	4,800,000
명륜대학 교육	18,000,000	13,755,000	14,000,000	14,000,000
충효도의선양교육	2,700,000	2,430,000	3,000,000	3,000,000
석전대제	1,800,000	1,800,000	2,000,000	2,000,000
전통문화시연회	3,192,000	3,192,000	3,192,000	3,192,000
이자발생 반납	6,900	11,320	27,995	32,097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항목/ 계	31,391,519	35,384,768	79,399,985	42,990,470
향교운영비	15,000,000	15,000,000	19,800,000	25,000,000
전기사용료	4,800,000	4,800,000		
명륜대학 교육	7,985,000	7,985,000	7,985,000	7,985,000
충효도의선양교육	0	3,000,000	3,000,000	4,000,000
석전대제	2,000,000	2,000,000	2,000,000	3,000,000
전통문화시연회	1,594,000	2,590,000	2,590,000	3,000,000
교육관리모델링(시&문체부)			44,000,000	
이자발생 반납	12,519	9,768	24,985	5470

참고로 한시적인 예산이지만 2015년~2017년도에 확보된 유교문화 활성화사업단의 보조금 규모는 다음과 같다.

유교문화활성화사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내역/ 계	45,677,492	31,600,000	15,840,000
아카데미성인전문과정	10,108,800	2,580,000	7,200,000
아카데미성인교양과정			3,600,000
아카데미성인독서토론	5,724,000	0	0
아카데미청소년	5,430,000	2,520,000	
아카데미문화관광	20,000,000	13,000,000	
관광참여자부담	4,410,000	2,700,000	
사업단집행(인건비)	0	10,800,000	1,800,000
향교집행(운영비)	0	20,800,000	3,240,000
이자발생 반납	4,692	0	0

## 용인향교 연도별 성금내역

1986.04.14~1999.10.06

일자	기금명칭	직위	성명	금액
1986.04.14	성금			30,000
1986.04.15				20,000
1986.04.17				30,000
1986.04.18				50,000
1986.04.21				20,000
1986.09.05				30,000
1986.09.20				30,000
			계	
1986.03.04	찬조금			150,000
1986.03.10				150,000
1986.04.22				10,000
1986.04.30				120,000
1986.05.08				20,000
			계	
1986.09.10	축의금			218,000
1987.09.25	석전대제	계		505,000
1988.09.22	석전대제	계		375,000
1989.09.04	석전대제	계		612,000
1990.06.04	성금		고명주	10,000
1990.04.12	전 전교 기념품대			290,000
1990.09.19	석전대제	계		930,000
1991.09.15	석전대제	계		1,350,000
1992.04.10	헌성금	성균관장		300,000
1992.09.28	석전대제	계		1,280,000
1992.12.28	성금	구성면장		100,000
1993.09.23	석전대제	계		1,810,000
1994.09.08	석전대제	계		2,210,000
1995.09.03	석전대제	계		1,900,000
1996.10.09	석전대제	계		2,470,000
1997.09.28	석전대제	계		2,150,000
1998.10.17	석전대제	계		1,620,000
1999.05.08	향교방문 봉심	재단 이사장 사무국장		200,000
1999.10.06	석전대제	계		1,570,000

244 제5장 용인향교의 조직과 운영

2000.09.24 ~ 2006.10.10.

일자	기금명칭	직위	성명	금액
2000.09.24	석전대제	계		1,310,000
2001.08.28	시계(교육관)		김건중	
2001.08.28	충효교육관 준공식 성금	계		2,100,000
2001.10.13	석전대제	계		690,000
2001.10.22	임원선진지견학잔액찬조	계		240,560
2002.10.03	석전대제	계		700,000
2002.10.17	기로연	계		180,000
2003.09.15	장구·장구받침(16개)	유도회장	박지영	
2003.10.13	기로연	용인시의회 의원	김순경	50,000
		용인시 구성읍장	김동해	50,000
		구성농협 조합장	김기선	100,000
		구성읍마복리	이종선	50,000
		계		250,000
2004.06.09	여성유도회농악부회사	유도회장	박지영	3,000,000
2004.10.10	석전대제	계		350,000
2005.09.30	석전대제	구성 농협장	김기선	100,000
		구성읍장	박관택	50,000
		용인문화원장	홍재구	100,000
		계		250,000
2005.10.24	기로연	구성 읍장	박관택	50,000
		구성 농협장	김기선	100,000
		용인문화원장	홍재구	100,000
		장의	오성춘	50,000
		회원	유성희	50,000
		계		350,000
2006.02.14	총회시 찬조금	수지구 풍덕천동	이종기	1,000,000
2006.05.10	시계(사무실)	유도회장	박지영	
2006.10.10	전화기	유도회장	박지영	

2006.10.18.~2007.10.19

일자	기금명칭	직위	성명	금액
2006.10.18	석전대제	신갈 농협장	김종기	100,000
		구성 농협장	최진홍	100,000
		시경제환경국장	김동해	50,000
		구성 동장	남덕희	30,000
		장의	공금돌	100,000
		장의	오성춘	50,000
		미확인		50,000
		계		480,000
2006.11.20	기로연	백설컨벤션웨딩홀사장	박기동	200,000
		신갈 농협장	김종기	100,000
		구성 농협장	최진홍	100,000
		장의	오성춘	50,000
		구성 동장	박관택	50,000
		계		500,000
2007.10.07	석전대제	동백통장 협의회장	홍성구	100,000
		신갈 농협장	김종기	100,000
		보정 동장	신낙현	50,000
		구성 동장	이은우	50,000
		구성 농협장	최진홍	100,000
		백설컨벤션웨딩홀사장	박기동	200,000
		회원	이재규	50,000
		기흥구청장	김동해	100,000
		장의	오성춘	50,000
		계		800,000
2007.10.19	기로연	구성 농협	문종원	100,000
		전 용인시의원	안영희	100,000
		백설컨벤션웨딩홀사장	박기동	100,000
		보정 동장	신낙현	50,000
			조성두	50,000
			이재근	50,000
		구성 동장	이은우	50,000
		장의	오성춘	50,000
		계		550,000

2008.09.26.~ 2009.06.03.

일자	기금명칭	직위	성명	금액
2008.09.26	향교발전성금	라성	정형기	3,000,000
2008.09.26	석전대제	구성 동장	이은우	50,000
		마북 동장	전병삼	50,000
		동백통장 협의회장	홍성구	100,000
		보정 동장	신낙현	50,000
		구성 농협장	최진홍	100,000
		백설컨벤션웨딩홀사장	박기동	200,000
		전 용인시의원	안영희	100,000
		구성동자치위원장	김순경	100,000
		노인회 기흥지회장	이양구	50,000
		장의	오성춘	50,000
		동백 동장	조남숙	50,000
		회원(마북동)	이동빈	100,000
		회원(동백동)	박선아	30,000
		계		1,030,000
2008.10.17	기로연	장의	송형호	50,000
		동백통장 협의회장	홍성구	50,000
		구성 동장	이은우	50,000
		마북 동장	전병삼	50,000
		보정 동장	신낙현	50,000
		동백 동장	조남숙	50,000
		회원(마북리)	이종선	50,000
		백설컨벤션웨딩홀사장	박기동	200,000
		구성 농협장	최진홍	100,000
		장의	오성춘	50,000
계		700,000		
2009.04.17	진공 청소기	서예 화요반 일동	서예반	
2009.06.03	도포(어른)8벌	원로장의	박여희	

2009.10.20.~2010.12.29

일자	기금명칭	직위	성명	금액
2009.10.20	석전대제	보정 동장	조남숙	50,000
		마북 동장	전병삼	50,000
		상하 동장	윤의섭	50,000
		회원(마북동)	민병일	100,000
		전 용인시의원	안영희	100,000
		회원(마북동)	이종선	50,000
		구성 동장	이혁우	50,000
		일공공일 안경원	홍장섭	100,000
		구성 농협장	최진홍	100,000
		문학반 강사	김태호	100,000
		회원(중동)	이재규	100,000
		장의	오성춘	50,000
		계		900,000
2010.10.04	석전대제	회원(마북동)	이동빈	100,000
		문학반 강사	김태호	100,000
		회원(중동)	이재규	100,000
		구성 농협장	최진홍	100,000
		노인회 기흥지회장	이양구	50,000
		마북 동장	김진배	50,000
		구성 동장	이은우	50,000
		장의	오성춘	50,000
		동백 동장	이혁우	50,000
계		650,000		
2010.10.22	기로연	노인회 기흥지회장	이양구	50,000
		장의	오성춘	50,000
		구성 동장	이혁우	50,000
		기흥 유도회	유도회	100,000
		회원	라보철	50,000
		구성 농협장	최진홍	100,000
		기흥 구청장	김명진	50,000
		보정 동장	조남숙	50,000
		계		500,000
2010.12.29	경서구입성금	한문 중용반(마북동)	이동빈	1,000,000

248 제5장 용인향교의 조직과 운영

2011.06.10.~2012.10.18

일자	기금명칭	직위	성명	금액
2011.06.10	향교 방문 성금	지평향교	지평향교	100,000
2011.09.24	석전대제	구성 농협장	최진홍	100,000
		회원(마북동)	민병일	100,000
		용인시의회 구 부의장	안영희	100,000
		회원(중동)	이재규	100,000
		장의(마북동)	오성춘	50,000
		계		450,000
2011.10.06	기로연	노인회 기흥지회장	이양구	50,000
		장의(마북동)	오성춘	50,000
		회원	임명순	50,000
		구성 농협장	최진홍	100,000
		계		250,000
2012.01.02	명륜대학 수료사진대금	한문 중용반 회원	이재규	251,000
2012.10.12	석전대제	노인회기흥지부회장	이양구	100,000
		구성농협 조합장	최진홍	100,000
		장의(중동)	이재규	100,000
		향교 문학반 강사	김태호	100,000
		장의(현대필그린)	오성춘	50,000
		계		450,000
2012.10.18	기로연	서예수요반 회원	나보철	50,000
		장의(현대필그린)	오성춘	50,000
		구성동장	박재섭	50,000
		노인회기흥지부회장	이양구	50,000
		구성농협 조합장	최진홍	100,000
		구성유도회원(마북동)	민병일	100,000
		계		400,000



2013.10.01.~2014.09.20

일자	기금명칭	직위	성명	금액
2013.09	석전대제용 천막	용인향교장의	박여희	
2013.09	석전대제용 천막	용인향교장의	한건식	
2013.10.01	석전대제	장의(중동 826-1)	이재규	100,000
		대한노인회회장	이양구	50,000
		향교 문학반 강사	김태호	100,000
		장의(현대필그린)	오성춘	50,000
		구성유도회원(마북동)	민병일	100,000
		전 시의회 의원	안영희	100,000
		구성농협조합장	최진홍	100,000
		계		600,000
2013.10.07		대한노인회 지회장	이양구	50,000
		구성농협조합장	최진홍	100,000
		구갈동	지태환	100,000
		구성동장	박재섭	50,000
		계		300,000
2014.05.26	향교 깃발	한산이씨 음애공 종중	음애공종중	
2014.05.26	유도회 깃발	유도회 총무	공중근	
2014.05.26	태극기 대외용	노인회기흥지부회장	이수길	
2014.09.20	석전대제	향교 전교	이양구	100,000
		장의	김동해	50,000
		구성동장	한상영	50,000
		전 시의회 의원	안영희	100,000
		구성농협 조합장	최진홍	100,000
		대한노인회 지회장	이수길	50,000
		장의	이재규	100,000
		향교 문학반 강사	김태호	100,000
		농협중앙회신갈지점	노길호	50,000
		계		700,000

250 제5장 용인향교의 조직과 운영

2014.10.07.~2015.10.09

일자	기금명칭	직위	성명	금액
2014.10.07	기로연	전교(기념타올)	이양구	
		대한노인회 지회장	이수길	100,000
		구성농협 조합장	최진홍	100,000
		신갈농협 지점장	김종기	100,000
		계		300,000
2015.03.05	성균관발전기금	향교 전교	이 양 구	100,000
		향교 국장	최 해 식	50,000
		장의	이 재 규	100,000
		장의	공 중 근	50,000
		장의	안 광 명	100,000
		장의	박 개 일	50,000
		장의	오 성 춘	50,000
		원로장의	이 명 렬	100,000
		장의	이 근 구	50,000
		계		650,000
2015.05.20	복사기 증	시온비즈니스솔루션	최재봉	
2015.10.09	석전대제	향교 전교	이양구	100,000
		노인회기흥지부회장	이수길	50,000
		장의	이재규	100,000
		문학반 강사	김태호	100,000
		구성농협 상무	이상국	50,000
		구성농협 조합장	최진홍	100,000
		기흥농협	기흥농협	100,000
		서예 금요반 일동	서예반	100,000
		사군자문인화반일동	사군자반	100,000
		향교 장의	김학경	100,000
		계		900,000

2015.10.31.~2016.10.11

일자	기금명칭	직위	성명	금액
2015.10.31	기로연	구성농협 조합장	최진홍	100,000
		신갈농협	신갈농협	100,000
		대한노인회기흥지회장	이수길	50,000
		경기 6.25 지부장	신현기	50,000
		용인시 전 시장	서정석	100,000
		계		400,000
2016.03.08	의사봉	원로장의	이명렬	
2016.03.08	총회시 특별성금	장의	최종실	100,000
2016.04.14	감사성금	문화관광 1차 참여자	강추자	30,000
2016.05.25	청소년도포구입	문화관광 3차 참여단체	강명희외9인	100,000
2016.09.27	석전대제	향교 전교	이양구	100,000
		유도회 회원일동	유도회	200,000
		장의	이재규	200,000
		장의	지태환	100,000
		향교 전 유도회장	유강희	100,000
		사군자문인화반 일동	사군자반	100,000
		한산이씨 음애공종중 회장	이진규	100,000
		향교 문학반 강사	김태호	100,000
		구성농협 조합장	최진홍	100,000
		용인문화원 원장	조길생	100,000
		심곡서원 원장	박한철	50,000
		구성동장	김언년	50,000
		전 시의회 의원	안영희	100,000
		계		1,400,000
		2016.10.11	기로연	유도회 회원일동
구성농협 조합장	최진홍			100,000
문학반 회원일동	문학반			100,000
서예 금요반 강사	장정숙			100,000
서예금요반 일동	서예2반			100,000
계				600,000

252 제5장 용인향교의 조직과 운영

2017.01.02.~2017.03.07

일자	기금명칭	직위	성명	금액
2017.01.02	TV 30인치	전 시의회 의원	안영희	
2017.01.24	향교 표지석·하마비 건립기금	기흥구 사양로 71	조영재	1,000,000
2017.03.07	총회시 특별성금	구성농협 조합장	최진홍	100,000
2017.10.16	석전대제	용인향교 전교	이양구	100,000
		유도회 회원일동	유도회	200,000
		사군자 문인화반 일동	사군자반	100,000
		향교 장의	이재규	200,000
		향교 장의	지태환	100,000
		용인문화원장	조길생	100,000
		향교 문학반 강사	김태호	100,000
		심곡서원 원장	박한철	100,000
		구성농협장	최진홍	100,000
		기흥농협장	한규혁	100,000
		대한노인회기흥지회장	조영재	50,000
		새마을지도자	김주길	100,000
		강남대학 교수	홍순석	50,000
		용인향교 회원	이환수	20,000
		계		1,420,000
2017.10.31	기로연	용인향교 전교	이양구	100,000
		유도회 회원 일동	유도회	200,000
		서예 금요반 일동	서예2반	100,000
		대한노인회기흥지회장	조영재	50,000
		구성농협장	최진홍	100,000
		서예 금요반	김정화	50,000
		용인시 교육문화국장	조남숙	100,000
		구성동장	김언년	50,000
		서예 금요반	이신자	20,000
		계		770,000
2017.12.06	복사기 증	시온비즈니스솔루션	최재봉	
2017.12.29	향교발전성금	전유도회장	유강희	100,000

## 제4절 용인향교의 사업

용인향교의 주요사업은 향사의례와 유교 교육 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향사의례로는 문묘의 석전제(釋奠祭)를 비롯하여 삭망제(朔望祭), 고유제(告由祭) 등의 분헌례(焚獻禮)를 봉행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6장의 향사의례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용인향교의 유교교육 사업으로는 전래로 운영해온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과 명륜대학 교양 강좌, 유교아카데미, 선진지 탐방 및 문화탐방 등의 기타 사업이 있다.

### 1. 충효·도의 선양 교육

용인향교에서는 명륜대학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주로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을 실시해 왔다. 주로 용인지역 관내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초중등학교에 찾아가서 특강을 실시했으며, 청소년 교육관이 건축된 이후에는 하기 방학기간 중에 위탁교육방식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해왔다.

학교방문 특강은 주로 충효 정신과 도덕 예절을 중점으로 교육하고, 방학기간 중의 교육에서는 한문 및 예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은 이러한 예절교육을 통해 ‘기본전통예절’에서부터 ‘조상의 얼’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본예절을 배우고, 인간성, 즉 인간다운 성품을 길러내는 교육과 도덕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2000년 이전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실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1996년도의 기록을 보면, 5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기수별로 모집하여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사는 김건중·이기창·유봉상·백우현·원창식 등 용인향교 전교나 유도회 원로들이 담당하였다. 대상은 유도회 회원, 노인대학 회원, 청소년이었다. 강의장소는 구성면, 모현면 등의 면사무소 회의실이나 단위농협 회의실, 신갈다목적복지회관, 초중등학교 강당을 이용하였다.

용인향교에 소장된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현황은 2001년도부터이다. 우선, 2001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현황을 도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충효도의선양교육 현황

연도	강의수	강사수	수강인원	연도	강의수	강사수	수강인원
2001년	5회	4	150	2008년	7회	5	58
2002년	6회	4	150	2009년	7회	4	55
2003년	4회	6	48	2010년	5회	6	358
2004년	5회	0	0	2011년	5회	4	20
2005년	5회	4	348	2012년	5회	5	45
2006년	5회	5	43	2013년	5회	4	21
2007년	10회	6	53				

용인향교 충효교육도의선양교육 현황(1996년도)

교육명칭	기간	강사	대상	인원	장소
윤리도덕	7.16~	김건중 이기창	유교회원 노인회원	190명	구성면회의실
윤리도덕	8.6	김건중 이기창	유교회원 노인회원	105명	모현면회의실
윤리도덕	9.17	김건중 이기창	유교회원 노인회원	100명	모현면단위 농협회의실
윤리도덕	9.20	김건중 이기창	유교회원 노인회원	100명	기흥읍단위 농협회의실
96하계 충효및윤리도덕	7.22~8.9	김건중 이기창 유봉상	청소년	735명	용인향교 명륜당
충효및생활예절교육	12.10~12.31	김건중 이기창 유봉창	청소년	750명	신갈다목적 복지회관
충효교육	5.1~12.12	김건중 이기창	청소년	4,526명	초등학교 30개교
충효및생활예절교육	5.1~12.12	백우현 유봉상	청소년	4,449명	중학교 9개교
충효및생활예절교육	5.1~12.12	김건중 원창식	청소년	2,025명	고등학교 3개교
교육인원 총계				12,980명	

충효도의선양교육 현황 (2001~2013)

연도	기간	강사	대상	인원	장소
2001년	07.23~27	이기창, 조운원, 백우현, 이세구	청소년	150명	태성중학교
2002년	7.22~27	이기창, 조운원, 백우현, 이세구	청소년	150명	구성초등학교
2003년	7.21~25	이기창, 조운원, 백우현, 이세구	마북초등학교학생	48명	마북초등학교
2005년	09.08~12	이기창, 유강희, 조운원, 백우현	청소년	348명	용인초등학교
2006년	07.31~08.04	이기창, 조운원, 박지영, 백우현 오성춘	청소년	수강43명 수료36명	연동초등학교
2007년	07.30~08.04	이기창, 조운원, 박지영, 백우현 오성춘, 도숙희	청소년	수강32명 수료30명	교동초등학교
	수강21명 수료27명			향교 충효교육관	
2008년	7.24~30	박지영, 조운원, 오성춘, 이대회 도숙희	청소년	수강58명 수료55명	교동초등학교
2009년	7.23~29	박지영, 조운원, 백우현, 정덕교	청소년	갑반28명 을반27명 수료55명	구성초등학교
2010년	12.13~17	박지영, 조운원, 백우현, 오성춘 정덕교, 이수길	청소년 5,6학년	358명	포곡초등학교
2011년	7.25~29	박지영, 이기창, 조운원, 정덕교	청소년 2,4,5,6학년	20명	어정초등학교
2012년	8.5~8.9	박지영, 조운원, 이근구, 이대회 정덕교	청소년 4,5,6학년	45명	지곡초등학교
2013년	8.5~8.9	박지영, 조운원, 이근구, 정덕교	청소년 4, 5학년	21명	나곡초등학교

위의 표를 참고하면, 2001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주로 이기창·조운원·백우현·이세구·박지영·오성춘·정덕교 원로들이 교육을 담당하였다. 2010년부터는 박지영·조운원·백우현·오성춘·정덕교·이수길 원로가 교육을 담당하였다.

2015년도 이후부터는 유교문화 활성화사업단의 지원으로 유교아카데미 강좌에 별도의 청소년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리 도덕 회복 결기대회



강사: 이기왕 (순효교육) ↓



강사: 박지영 (한문교육) ↑  
강사: 조윤원 (생활예절) →



← 강사: 오성훈 (예제교육)  
강사: 조윤원, 도숙희 (예제) ↓





## 2. 용인향교 명륜대학의 운영과 교육사업

용인향교는 물론 전국의 향교에서 공간 활용을 위해 명륜대학을 운영해 오고 있다. 조선시대의 향교가 지방의 공교육을 담당해 왔음을 근거로 해서 전통적인 의미를 복원하고, 인문학 진흥, 선비정신의 함양, 시대정신에 맞는 가치관의 확립, 지역주민에게 유교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발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향교의 주요사업이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유교문화 활성화사업단을 조직하여 전국 향교의 명륜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명륜’이라 함은 “인륜을 밝힘”인데, 이때 “인륜”은 단순히 도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적인 삶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명륜”이란 인간으로서 사물에 대한 통찰과 세계에 대한 안목을 갖고 건전한 삶을 공동체 안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삶의 총체를 밝혀 가르치는 일을 말한다. 이는 인의예지의 덕성을 함양하는 한편 실사구시의 자세로 지성을 연마하여 수기치인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전통적인 유학의 교육이념이다.

### 1) 용인향교 명륜대학의 설립과 운영

용인향교에서는 명륜대학 운영규정을 2002년 2월 8일에 제정하여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명륜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유학의 근본인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정신을 본받아 유도진작과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윤리와 도덕선양, 사회질서 국가관 구현의 신념을 양성하며, 교육을 통한 문화정서함양 및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향교 명륜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용인향교 제반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을 참고로 중요 사항만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명륜대학의 학장은 전교가 당연직으로 한다. 그리고 부학장 1인을 둔다.
- \* 학장은 유학의 전문교육 및 강사와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한다.
- \* 수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에 입학하고 동년 10월에 수료한다.
- \* 교육일정은 매주 2회 이상으로 하고, 수업일에 2시간씩 수강하기로 한다.
- \* 교육과정은 유학, 생활예절, 한문지도, 지역사회의 유림 활동 등으로 한다.
- \* 입학자격은 유도회원 및 성인 남녀노소 불문코 전교가 인정하는 사회단체 및 개인 지원자 중에서 선발한다.

- \* 학생정원을 각반 50명으로 하고 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액무료로 하며 수강시 필요한 교재대는 일부 징수할 수 있다.
- \* 운영 경비는 시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특지가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용인향교 명륜대학은 전적으로 용인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 찬조금으로 운영된다. 일정한 기본 자산과 교육기금이 없이 운영되는 만큼 강좌의 개설과 운영이 불안정한 실태이다.

## 2) 용인향교 명륜대학의 교육사업 현황

2003년도 명륜대학 개강 당시부터 2007년도까지의 실태를 보면 용인향교 원로들이 강사로 위촉되어 수강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명심보감』과 생활예절을 교육하는 정도였다.

2008년도엔 『명심보감』, 생활예절 강좌 외에 붓펜, 현대문학, 서예반이 개설되었으며, 수강생도 전체 261명이 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개설된 강좌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강사가 전문화 되고, 수강생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문반의 강좌가 『명심보감』에서 사서(四書)로 확대되었다. 서예반의 경우는 2개반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붓펜반은 예산상 이유로 유지할 수 없었으며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 생활예절은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된 상태이다.

연도별 명륜대학 강좌 현황

연도	강좌수	강사수	수강인원	연도	강좌수	강사수	수강인원
2002년				2010년	5	5	142
2003년	2	4	32	2011년	5	5	151
2004년	2	6	30	2012년	5	5	152
2005년	2	6	32	2013년	5	5	124
2006년	2	7	23	2014년	4	4	125
2007년	2	6	23	2015년	5	5	132
2008년	5	8	173	2016년	5	5	117
2009년	5	5	163	2017년	5	5	117



수강생모집 현수막



한문반(전철근)



한문반 특강(성백효)



서예1반(최은일)



서예2반(장정숙)



서예반 전시회



문학반(김태호)



문학반 전시회



사군자반(정태균)



사군자반 전주기행



명륜대학 문화유적지 탐방



유교아카데미 성인전문반



유교아카데미 교양반



유교아카데미 콜로키움



청소년 충효반



청소년 충효교육 수료식

2003년도 이후 2017년까지 개설된 명륜대학 강좌의 현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륜대학 강좌현황					
연도	교육명칭	기간	강사	인원	장소
2003년도	명심보감	04.12	이기창	32명	충효교육관
	생활예절	~11.12	유강희, 백우현, 이수길		
	수료식	11.12		26명	
2004년도	명심보감	03.02 ~10.30	이기창	30명	충효교육관
	생활예절		유강희, 조운원, 백우현, 조록영, 이수길		
	수료식	11.04		30명	
2005년도	명심보감	03.02 ~10.30	이기창	32명	충효교육관
	생활예절		유강희, 조운원, 백우현, 조록영, 이수길		
	수료식	11.02		32명	
2006년도	명심보감	03.02 ~10.30	이기창	23명	충효교육관
	생활예절		유강희, 조운원, 박지영, 조록영, 오성춘, 이수길		
	수료식	11.08		23명	
2007년도	명심보감	3.1 ~11.30	이기창	23명	충효교육관
	생활예절		조운원, 박지영, 조록영, 오성춘, 이수길		
	수료식	12.18		23명	
2008년도	명심보감	3.1 ~11.30	이기창	37명	충효교육관
	생활예절		박지영, 조운원 라보철, 오성춘	37명	
	붓펜		주수영	25명	
	현대문학		김태호	53명	
	서예		주수영	21명	
	수료식	12.17		88명	
2009년도	한문(대학)	3.1 ~12.30	이기창	48명	충효교육관
	서예(화)반		주수영	24명	
	붓펜		주수영	39명	
	서예(수)반		주수영	34명	
	현대문학		김태호	18명	
	수료식	12.30		88명	5개반 합동
2010년도	한문(중용)	3.1 ~11.30	이기창	46명	충효교육관
	서예 화반		주수영	24명	
	붓펜		주수영	43명	
	서예 수반		주수영	29명	
	현대문학		김태호	18명	
	수료식	11.30		84명	5개반 합동

262 제5장 용인향교의 조직과 운영

연도	교육명칭	기간	강사	인원	장소
2011년도	한문 중용	3.1 ~11.30	이기창	40명	충효교육관
	서예(화)반		주수영	30명	
	붓펜		주수영	32명	
	서예(수)반		주수영	30명	
	현대문학		김태호	19명	
	수료식	11.30		87명	5개반 합동
2012년도	한문 논어	3.1 ~11.30	이기창	29명	충효교육관
	서예 화반		주수영	30명	
	붓펜		주수영	35명	
	서예 수반		주수영	27명	
	현대문학		김태호	31명	
	수료식	11.30		101명	5개반 합동
2013년도	한문 논어	3.1 ~10.31	이기창	21명	충효교육관
	서예 화반		주수영	24명	
	붓펜		주수영	29명	
	서예 수반		주수영	30명	
	현대문학		김태호	20명	
2014년도	한문 논어	3.1 ~10.31	전철근	49명	충효교육관
	서예목.금		최은일	30명	
	한글.한자		장정숙	27명	
	현대문학		김태호	19명	
2015년도	한문 맹자	3.1 ~10.31	전철근	47명	충효교육관
	서예목.금		최은일	24명	
	한글.한자		장정숙	22명	
	현대문학		김태호	18명	
	사군자		정태균	21명	
2016년도	한문 맹자	3.1 ~10.31	전철근	39명	충효교육관
	서예목.금		최은일	21명	
	한글.한자		장정숙	21명	
	현대문학		김태호	16명	
	사군자		정태균	20명	
2017년도	한문 맹자		전철근	39명	충효교육관
	서예목.금		최은일	21명	
	한글.한자		장정숙	21명	
	현대문학		김태호	16명	
	사군자		정태균	20명	

### 3.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

용인향교에서는 2015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인 유교문화활성화 사업 단체로 선정되어 유교아카데미 전문·교양강좌와 청소년 인성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패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인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은 향교·서원 공간 활용 인문학진흥, 선비정신함양 시대정신에 맞는 가치관 확립하고, 지역주민에게 유교문화의 기회제공, 열린 유교지향 대중적 이미지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은 매년 전국의 향교·서원 가운데 30여 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용인향교는 강남대학교 홍순석 교수와 문양서당 김학경 선생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3년간 지속해 오고 있다.

유교아카데미는 해당 향교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전문강좌·교양강좌·독서토론·청소년인성교육·문화탐방(1박2일) 등으로 개설 운영되는데, 용인향교에서는 2015년도에는 유교아카데미 지원 분야 전체를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용인향교에서 3년간 실시한 유교아카데미 사업의 개황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연도	사업비	강좌수	강의회수	강사인원	수강인원
2015년	45,677,492	5개 강좌	74강(37회)	20명	331명
2016년	20,800,000	4개 강좌	72강(36회)	14명	203명
2017년	15,840,000	2개 강좌	36강(18회)	17명	90명
소계	82,317,492	11개 강좌	182강	51명	624명

유교문화활성화사업 유교아카데미 성인·청소년 강좌



성인 전문교양 강사 홍순석



성인 전문교양 강사 김학경



성인 전문교양 강사 황희경



청소년 인성교실 강사 박기숙



청소년 인성교실 강사 방동민



청소년 인성교실 강사 허익현



## 1) 2015년도 유교아카데미 강좌

2015년도에 실시한 유교아카데미 강좌의 현황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2015년도에는 전문강좌·교양강좌·독서토론·청소년인성교육·문화탐방(1박2일) 지원 사업분야 전체를 개설하였다. 전문강좌와 교양강좌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인 대학교수나 연구자에게 의뢰하여 1회차 2시간씩 강의를 진행하였다. 독서토론 강좌는 유교 경전(經典)이나 유교철학 관련 서적을 개별적으로 독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도 용인향교 유교아카데미 강좌 현황

교육명칭	기간	강사	대상	인원	장소
전문강좌	2.4~4.29 (수) 9~11시	황희경, 유승상, 홍순석, 임현규, 박상리, 안은수	성인	50명	충효교육관
교양강좌	2.4~4.19 (수) 11~13시	김학경, 권혁범, 홍정우, 방동민, 이오규	성인	50명	충효교육관
독서토론	2.25~4.29 (수) 19~21시	송중서, 황종원, 박상리, 유승상, 김학경	성인	20명	충효교육관
청소년 인성교육	3.21~5.9 (토) 10~12시	김학경, 허익현, 방동민, 박기숙, 한영희	청소년	39명	충효교육관 명륜당
배움여행 여유 (1박2일)	1차(3.14~15)	유사 우금용 해설 김학경	구분 없음	51명	용인향교 정몽주묘역 심곡서원 민속촌 화성행궁 수원화성
	2차(3.28~29)	분향 최해식 특강 엄명희		44명	
	3차(4.25~26)	해금 이선아 보조 장관희		40명	
	4차(5.15~16)	송희봉 박창섭 도숙희		37명	

청소년 인성교육 강좌는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용인향교 청소년교육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였다. 이전의 청소년 인성교육 강좌는 초청 학교를 방문하여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용인향교의 원로가 특강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였었다. 이론식 강의를 지양하고 체험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도 이전의 교육과 다른 점이다. 특히 예절 교육은 참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유도하여 성과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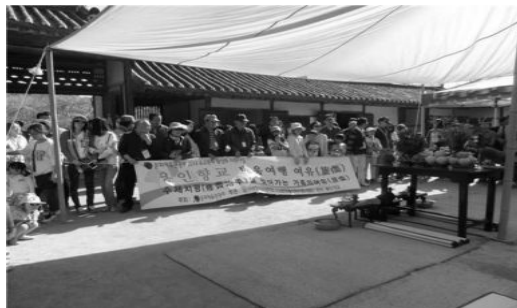
배움여행 여유(용인향교)



용인향교(분향례 체험)



배움여행 여유(심곡서원)



배움여행 여유(민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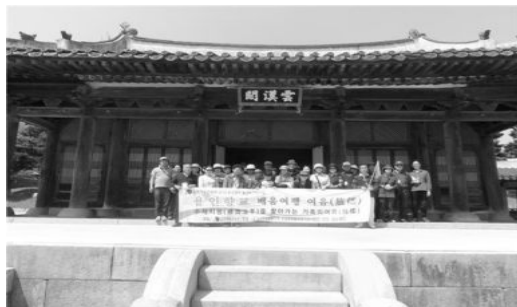
가족의 의미(강사 방동민)



대금(이승철)



전통춤(이순자)



화성행궁

문화탐방 프로그램인 ‘배움여행 여유(旅儒)’는 참여 대상의 구별이 없이 신청자를 접수하여 1박 2일간 실시하였다. 문화탐방 1일차는 용인향교에서 유교전통의 분향례를 배우고 실습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어 포은 정몽주선생의 묘역을 탐방하고, 심곡서원에서 서원 관련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1일차 체험 학습을 마치고 민속촌에서 숙박하는 일정에서도 가족의 의미와 친목을 도모하는 특강을 실시하고, 해금 연주와 전통춤 공연을 해설과 함께 감상하였다. 2일차 탐방은 수원 화성행궁과 성곽을 탐방하였다.

2015년에 처음 실시한 문화탐방 프로그램인 ‘배움여행 여유(旅儒)’는 4차례에 걸쳐 172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2) 2016년도 유교아카데미 강좌

2016년도에 실시한 유교아카데미 강좌는 4개 강좌로 2015년도에 실시한 독서토론 강좌가 개설되지 못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전문강좌와 교양강좌는 이전의 현황과 같다. 청소년 대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이전보다 다양하게 개설되었다. 문화탐방 체험학습은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탐방지와 체험 학습 내용은 거의 같으나 민속촌 숙박지에서의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2016년도에 실시한 유교아카데미 강좌의 현황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2016년도 용인향교 유교아카데미 강좌 현황					
교육명칭	기간	강사	대상	인원	장소
전문강좌	2.25~5.19 (목) 2~4시	황희경, 유승상, 홍순석, 임헌규, 박상리, 안은수	성인	34명	충효교육관
교양강좌	2.25~5.19 (목) 4~6시	김학경, 권혁범, 홍정우, 방동민, 이오규,	성인	34명	충효교육관
청소년 인성교육	3.5~5.28 (토)10~12시	김학경, 허익현, 방동민, 박기숙, 한영희	청소년	33명	충효교육관
문화관광 (1박2일)	1차(4.9~10) 2차(4.30~5.1) 3차(5.22~22)	유사 박소연 해설 김학경 분향 최해식 대금 송준화 보조 장관희 도숙희	구분 없음	35명	용인향교 정몽주묘역 심곡서원 민속촌 화성행궁 수원화성
				33명	
				34명	

### 3) 2017년도 유교아카데미 강좌

2017년도에 실시한 유교아카데미 강좌는 2개 강좌로 2015~16년도에 실시한 청소년인성교육 강좌와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하였다. 유교문화 활성화사업단의 지원 예산이 축소된 때문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전문강좌와 교양강좌는 이전의 현황과 같다. 우선 2017년도에 개설된 강좌 현황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용인향교 유교아카데미 강좌 현황					
교육명칭	기간	강사	대상	인원	장소
전문강좌	7.13~11.6 (목) 2~4시	황희경, 한상구, 박상리, 황종원, 홍순석, 안은수, 유승상, 황미숙, 안장리	성인	45명	충효교육관
교양강좌	7.13~11.6(목) 4~6시	김학경, 최해식, 홍정우, 김경미, 방동민, 김성일, 이한성, 권혁범	성인	45명	충효교육관

2017년도에 실시한 유교아카데미 강좌의 특징은 전문강좌 과정에서 수강생이 2015~16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준이 향상되는 양상에 따라 보다 전문화되었다.

2017년도에 개설된 유교아카데미 전문강좌는 수강 인원이 30명으로 7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14:00~16:00에 실시하였다. 전문강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인다.

2017년도 유교아카데미 전문강좌 내용			
회차	날 짜	주 제	담당교수
1	7.13	현대 중국과 유학	황희경(영산대)
2	7.20	현대 유학의 동향과 유교 문화의 발전	황희경(영산대)
3	7.27	근대 문화의 발달과 공동체 의식	한상구(교원대)
4	8.03.	지역 문화의 뿌리	한상구(교원대)
5	8.10	유교의 이해 및 경전 강독 II	박상리(성균관대)
6	8.17	유교의 이해 및 경전 강독 III	황종원(단국대)
7	8.24	유교의 이해 및 경전강독 IV	황종원(단국대)
8	8.31	지역 문화와 유교 문화의 발전	홍순석(강남대)
9	9.07	성리학의 발전과 계승	홍순석(강남대)
10	9.14	성리학의 발전과 계승	안은수(성균관대)

11	9.21	지역 문화와 유교문화의 발전	안은수(성균관대)
12	9.28	중국 고대 상의 이해	유승상(성강대)
13	10.12	논어에서 배우고 맹자에서 생각하기	황미숙(중앙대)
14	10.19	교양으로 살펴보는 한국사의 기본 이해	황미숙(중앙대)
15	10.26	한문학의 이해 및 유교 문화 I	안장리(한중연)
16	11.02	한문학의 이해 및 유교 문화 II	안장리(한중연)
17	11.09	유교의 이해 및 경전 강독 I	박상리(성균관대)
18	11.16	한비자를 통해 본 인간 경영	유승상(서강대)

2017년도 유교아카데미 교양강좌도 전문과정 일정과 같이 매주 목요일에 실시되었으며, 시간만 16시부터 18시까지 개설되었다. 교양강좌의 강사진은 주로 유교 교육분야에서 강의하는 강사로 구성되었다. 전문과정의 이론식 강의보다는 현실사회에서의 유교문화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강의로 구성되었다.

#### 2017년도 유교아카데미 교양강좌 내용

회차	날 짜	주 제	담당교수
1	7.13	용인의 유교문화	김학경(문양서당)
2	7.20	유교의 기본	김학경(문양서당)
3	7.27	용인향교의 역사	최해식(용인향교)
4	8.03	유교와 소통	홍정우(오픈스페이스)
5	8.10	유교의 발전과 미래	김학경(문양서당)
6	8.17	다도의 이해	김경미(성남사회교육원)
7	8.24	유교 문화의 실천	방동민(석전이수자)
8	8.31	유교 문화관련 한문 기초 강좌	김성일(정자중학교)
9	9.07	산동성에서 만나는 공자, 맹자	이한성(동국대평생교육원)
10	9.14	한양(漢陽)은 오상(五常)의 땅	이한성(동국대평생교육원)
11	9.21	퇴계선생의 건강법,도인체조(導引體操)	이한성(동국대평생교육원)
12	9.28	겸재 정선의 그림 속 한시읽기	이한성(동국대평생교육원)
13	10.12	우리 말 속 한자어(漢字語) 속담(俗談)	이한성(동국대평생교육원)
14	10.19	옛사람의 풍류 파자(破字), 측자(測字)	이한성(동국대평생교육원)
15	10.26	중국의 유교 문화와 현대 중국의 이해	권혁범(삼호인문아카데미)
16	11.02	유교의 현대적 이해와 소통	권혁범(삼호인문아카데미)
17	11.09	유교 문화의 미래	김학경(문양서당)
18	11.16	용인향교의 역사	최해식(용인향교)

#### 4) 전통문화 시연회



용인향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유림전통문화 시연회는 기로연(耆老宴)에서 비롯한다. 조선시대의 기로연은 1394년(태조 3) 한양천도 후 태조 자신이 60세의 나이로 기로소에 들어가면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늙은 신하들을 모아 잔치를 베푼 것이 처음이었다. 태조는 또 잔치비용 마련을 위하여 토지·노비·염분(鹽盆) 등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매년 상사(上巳: 음력 3월상순의 巳日, 혹은 3월 3일)와 중양(重陽: 9월 9일)에 보제루(普濟樓)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기로연에는 정2품의 실직(實職)을 지낸 70세 이상의 문과출신 관원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종친(宗親)으로 70세에 2품 이상인 자, 정1품관, 경연당상관들을 위하여는 훈련원이거나 반송정(盤松亭)에서 기영회(耆英會)라는 잔치를 베풀었다. 이들 잔치에는 왕이 술과 1등급 풍악을 내렸다.

기로연의 잔치는 예조판서가 주관하여 준비하였고, 왕명을 받은 승지가 특별히 파견되어 감독하였다. 잔치에 참가한 문신들은 먼저 편을 갈라 투호(投壺)놀이를 한 뒤, 진 편에서 술잔을 들어 이긴 편에 주면, 이긴 편에서는 읊하고 서서 술을 마시는데, 이때 풍악을 울려 술을 권하였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본격적인 잔치를 열어 크게 풍악을 울리고 잔을 권하여 모두 취한 뒤에 파하였고, 날이 저물어야 서로 부축하고 나왔다. 태조·숙종·영조와 고종과 같이 나이 많은 왕들은 직접 이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용인향교에서는 매년 10월 중 날을 택일하여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차와 음식을 대접하고 전통놀이를 함께하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행사를 치르고 있다.

용인향교에서 실시하는 유림전통문화 시연회는 △장기대회 △웃놀이 △제기차기 △투호 대회를 기본으로 행해진다. 그리고 이날을 기하여 명륜대학 서예반, 사군자 문인화반, 현대문학반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겸한다.

전통유림문화 시연회의 경비는 용인지역 유림들의 헌성금과 지역 기관장의 성참금, 용인시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시연회 행사는 용인향교 주관으로 고유제를 행하고, 간단한 의례로 국기에 대한 의례, 윤리선언문 낭독, 전교의 환영인사, 귀빈 축사, 공로자 표창 등을 마치고, 전통놀이를 즐긴 다음, 오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문화시연회를 고유하는 의례는 대성전 공자 신위 전에 분향과 축문은 읽는 것으로 간략하게 행해진다.

용인향교에서는 전통문화 시연회 옛 놀이의 규칙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 △ 장기대국 수칙

장기대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칙을 정한다.

1. 호선장기(선후 수 결정)는 장기의 색으로 결정하며 청색을 쥔 쪽이 선수가 된다(먼저 청·홍 집는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한다).
2. 총 소요 시간은 20분으로 한다.(20분이 될 때까지 시간은 알리지 않는다).
3. 한번 두는 시간은 30초로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한수 쉬어야 한다. (20초가 지나면 25초 30초를 알린다.)
4. 후수(홍)이 먼저 차린 후 선수(청)이 차리며 선수 자가 차린 후 후수 자는 바꿀 수 있다.
5. 한번 만진 기물은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 수 쉬어함
6. 상대방 기물을 잡기위해 만졌을 때는 반드시 잡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 수 쉬어야 한다.
7. 자기가 졌다고 인정할 때는 공을 공외로 내놓아야 한다.
8. 승패가 나지 않고 시간이 지났거나 무승부(빅입)가 되었을 경우는 남은 기물로 점수를 계산한다.(점수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
9. 각 점수는 (차 13점·포 7점·마 5점·상·사·각 3점·졸·병·각 2점)으로 계산한다. 후수로 둔 사람에게는 1.5점을 가산한다.
10. 장외(외부)에서 혼수를 하면 혼수 받은 사람은 한수 쉬어야 한다.

### △ 윷놀이 수칙

윷놀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칙을 정한다.

1. 윷놀이는 2인 1조가 되며 4인이 한판에서 논다.
2. 윷판에서 윷가락이 2개가 나가면 낙판 무효로 한다.
3. 윷 높이는 말 4개를 먼저 나면 승자가 된다.
4. 윷가락은 최소한 1가락이 앉은키 이상 올라가야 한다.
5. 윷가락이 기대어 서 있는 것은 엎어진 것으로 본다.
6. 윷판에 조금이라도 얹혀있는 것은 유효로 본다.
7. 기타 사항은 일반 윷놀이 방식에 준하여 심판의 결정에 따른다.

### △ 투호 놀이의 수칙

투호놀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칙을 정한다.

1. 투호에 살을 많이 넣는 사람이 승이다.
2. 살은 10개를 가지고 한다.
3. 투호에 넣은 살수가 동수일 때는 다시 살을 추가로 던져 많이 넣은 사람이 승자가 된다.
4. 투호를 던지는 거리는 3m로 한다.
5. 기타 사항은 심판의 결정에 따른다.

### △ 제기차기 수칙

1. 제기차기 시합은 3번 차서 합산으로 한다.
2. 제기는 손으로 한번 떠나 발에 닿지 않으면 다시 찬다.
3. 제기를 차다가 손으로 받으면 다시 찬다.
4. 제기 차는 방식은 한발차기, 양발차기, 또는 외발 들고차기 등 다 유효하다.
5. 한 방법으로 차다가 차는 방법을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6. 기타 사항은 일반 제기차기 방식에 의하며 심판의 결정에 따른다.



5) 기타 사업

용인향교에서는 청소년 충효도의선양교육, 명륜대학 교양강좌, 유교아카데미 전문교양강좌 외에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실시한다.



시연회 고유제



장기



웃놀이



투호



제기차기



명륜대 문학반 시화전



풍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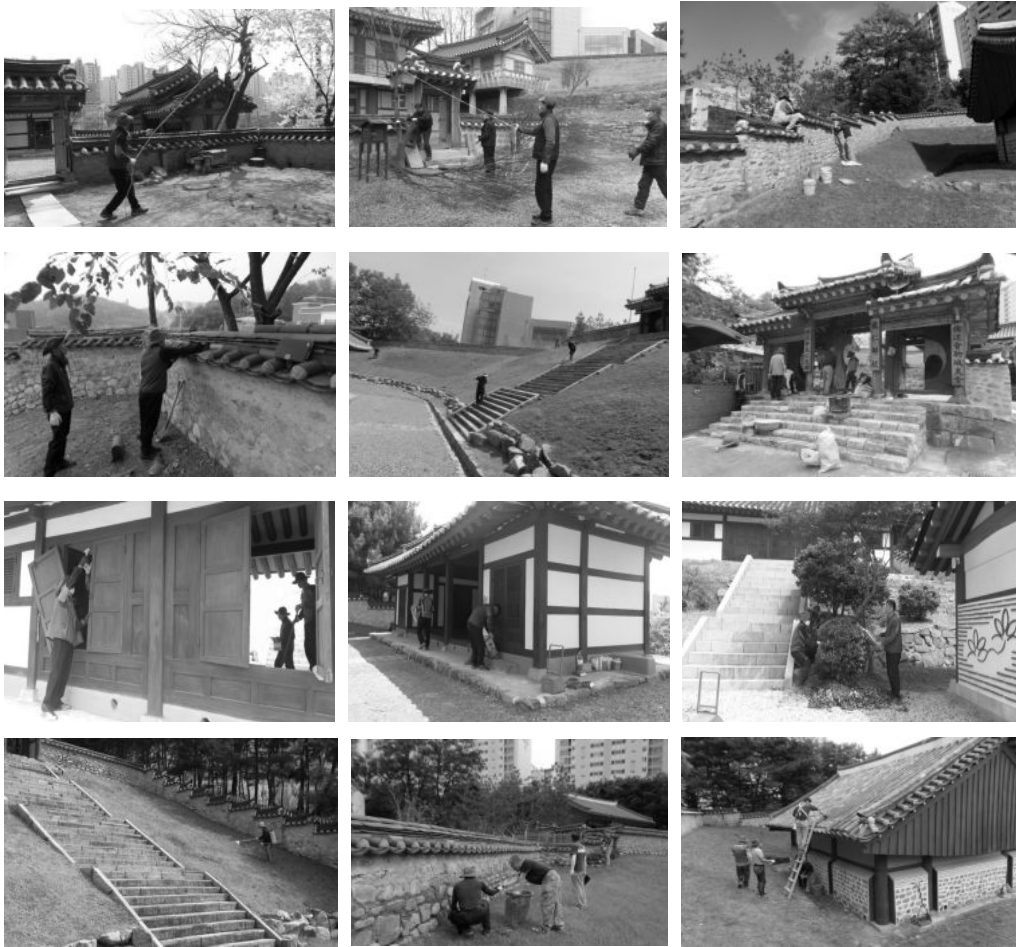
명륜대 서예반전시회

6) 경기도 문화재 돌봄 사업단과 용인시 파견 향교관리 활동

2017년 용인향교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단이 향교를 방문하여 도와 주고 있다. 문화재 돌봄사업단 팀장 이병준 외 김종화, 이환진, 이승희를 중심으로 한 달에 2번 방문 문화재 시설물 및 조경, 담장 등 정성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용인향교의 보수해야 할 곳 점검과 팀원들로 역부족한 부분은 문화재청에 전문보수를 요청한다. 문화재 돌봄사업단

은 다른 팀원들 및 임원진들과의 소통과 관심으로 향교의 시설물들이 제 면모를 찾아가고 있다.

용인시에서 2014년부터 파견 중이신 제초를 담당해 주시는 양원주는 수시로 향교를 방문하여 경 내외를 살피며 잔디와 풀이 자랄 틈이 없게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석전대제, 기로연, 추석 등 향교의 방문객들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특별히 관심을 쏟으며 향교가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 역대 용인향교 수상 및 표창 현황

일자	수상명	소속	수상자	수여기관	비고
1987.08.11	효자상	모현면	남풍희(南豐熙)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교육
1989.08.18	효부상	남사면	차호숙(車好淑)	경기도향교재단	도의선양교육
1989.08.18	효부상	마평리	박청자(朴淸子)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교육
1997.09.12	효부상	구성면	김민자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교육
1997.09.12	효부상	수지	김성숙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교육
1997.09.12	공로상	기흥여성유도회	김병희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교육
1998.12.30	공로패	용인향교	조성래(趙成來)	경기도향교재단	98-23호
1998.12.30	공로패	용인향교	이재복(李在福)	경기도향교재단	98-24호
1998.12.30	공로패	용인향교	맹두섭(孟斗燮)	경기도향교재단	98-25호
1998.12.30	공로패	용인향교	이수길(李壽吉)	경기도향교재단	98-26호
1998.12.30	표창패	용인향교	유강희(柳康熙)	경기도향교재단	98-70호
1998.12.30	표창패	용인향교	구자관(具滋寬)	경기도향교재단	98-71호
1999.03.02	표창패	용인향교	박지영(朴址榮)	경기도향교재단	99-17호
1999.03.02	표창패	용인향교	박여희(朴汝熙)	경기도향교재단	99-18호
1999.10.06	표창패	수지읍	이학의	용인향교(석전대제)	제 99-5호
1999.10.06	표창패	기흥읍	이강신	용인향교(석전대제)	제 99-6호
2000.10.04	효자상	수지	최광섭	경기도유도회본부	도의선양교육
2001.10.04	효부상	모현면	김민자	경기도유도회본부	도의선양교육
2001.08.28	감사장	용인시청	예강환(芮剛煥)	용인향교	2001-1호
2001.08.28	감사장	용인향교	김건중(金建中)	용인향교	2001-2호
2001.08.28	감사장	서강종합건설	장인식	용인향교	2001-3호
2002.04.16	공로상		조남숙	용인향교	명륜대개강시
2002.10.08	효자상	용인지부	임승규(林承奎)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교육
2002.10.08	효부상	용인향교	이복자(李福子)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교육
2003.08.14	효자상	모현면	백재화(白在和)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교육
2003.08.14	효부상	풍덕천동	우성숙(禹聖淑)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교육
2003.11.12	정근상	언남리	김경남(金敬男)	용인향교명륜대학	2003-1호
2003.11.12	정근상	언남리	도숙희(都淑姬)	용인향교명륜대학	2003-2호
2003.11.12	감사장	마북리	정영숙(鄭榮淑)	용인향교명륜대학	2003-3호
2004.10.22	효자상	용인향교	이수길(李壽吉)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교육
2004.10.22	효부상		이현자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교육
2004.	감사장		박상섭(朴商燮)	용인향교	2004-1호

일자	수상명	소속	수상자	수여기관	비고
2004.11.04	감사장	언남리	김화조(金花朝)	용인향교명륜대학	2004-2호
2004.11.04	감사장	마북리	오향임(吳香任)	용인향교명륜대학	2004-3호
2004.11.04	상 장	청덕리	김영순(金英順)	용인향교명륜대학	2004-4호
2005.03.05	표창장	용인향교	도숙희	사)한국전례원	제 05-8호
2005.10.30	특별상	용인향교	민요반	사단법인우리소리	우리 05-10-21
2005.11.03	감사장	마북동	백미순(白美順)	용인향교명륜대학	2005-1호
2005.11.03	감사장	구성동	김화자(金花子)	용인향교명륜대학	5005-2호
2005.11.03	상 장	구성동	한광옥(韓光昱)	용인향교명륜대학	2005-3호
2005.11.03	상 장	구성동	김매자(金梅子)	용인향교명륜대학	2005-4호
2006.06.10	가작 (일반부)	향교 문학반	김수자(金秀子)	사)한국문인협회용 인지부	2006년 “사랑의편지 쓰기” -3호
2006.08.04	상 장	언동초등학교	박성렬	용인향교충효교육	2006-1호
2006.08.04	상 장	언동초등학교	박승식	용인향교충효교육	2006-2호
2006.08.04	상 장	언동초등학교	노지수	용인향교충효교육	2006-3호
2006.11.08	상 장	마북동	염철하(廉哲夏)	용인향교명륜대학	2006-4호
2006.11.08	상 장	언남동	임점순(林点順)	용인향교명륜대학	2006-5호
2006.11.08	감사장	상하동	김수자(金秀子)	용인향교명륜대학	2006-6호
2006.11.08	감사장	상하동	조갑조(趙甲祚)	용인향교명륜대학	2006-7호
2006.11.18	감사장	용인시지역 경제과장	박관택	용인향교(시연회)	2006-8호
2007.03.08	공로패	처인구	유강희(柳康熙)	용인향교	2007-1호
2007.04.24	최우수상	향교명륜문학	전영자	용인시장	용인여성 기에경진대회
2007.04.24	우수상	향교명륜문학	이은경	용인시장	
2007.04.24	장려상	향교명륜문학	공영란	용인시장	
2007.04.29	입선 (일반부)	향교명륜문학	김수자(金秀子)	사)한국문인협회용 인지부	“가족사랑나무 사랑”편지쓰기 행사 -23호
2007.06.09	북돋움상	여성유도회	향교 풍물, 민요	사)전통예술원	수원화성 주부국악제
2007.08.04	상 장	교동초등학교	최이나	용인향교충효교육	2007-2호
2007.08.04	상 장	교동초등학교	이지혜	용인향교충효교육	2007-3호
2007.08.04	상 장	교동초등학교	김남정	용인향교충효교육	2007-4호
2007.08.04	상 장	교동초등학교	김무경	용인향교충효교육	2007-5호
2007.08.25	상 장	초당초등학교	박호성	용인향교충효교육	2007-6호

일자	수상명	소속	수상자	수여기관	비고
2007.08.25	상 장	초당초등학교	조은솔	용인향교충효교육	2007-7호
2007.08.25	상 장	마성초등학교	민선홍	용인향교충효교육	2007-8호
2007.08.25	상 장	초당초등학교	박호경	용인향교충효교육	2007-9호
2007.08.25	상 장	초당초등학교	박수빈	용인향교충효교육	2007-10호
2007.08.25	상 장	초당초등학교	박호연	용인향교충효교육	2007-11호
2007.08.25	상 장	초당초등학교	김주영	용인향교충효교육	2007-12호
2007.10.07	공로상	상하동	송형호	용인향교(석전대제)	2007-13호
2007.10.07	효부상	언남동	이효균	용인향교(석전대제)	2007-14호
2007.10.24	효자상	삼가동	홍준순	용인향교(기로연)	2007-15호
2007.10.24	효부상	모현면	임선경	용인향교(기로연)	2007-16호
2007.12.18	상 장	보정동	라보철(羅浦澈)	용인향교명륜대학	2007-17호
2007.12.18	상 장	기흥구	김수자(金秀子)	용인향교명륜대학	2007-18호
2007.12.18	상 장	마북동	박선아(朴善雅)	용인향교명륜대학	2007-19호
2007.10.12	효행상	수지구	이인숙(李仁淑)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 교육
2007.10.12	효부상	처인구	백애경(白愛敬)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 교육
2008.05.16	입선(행서)	향교서예반	이상범(李尙範)	성균관유도회 총본부	제3회대한민국 유림 서예대전
2008.05.16	입선(해서)	향교서예반	도숙희(都淑姬)	성균관유도회 총본부	제3회대한민국 유림 서예대전
2008.07.30	상 장	교동초등학교	박예지	용인향교충효교육	2008-1호
2008.07.30	상 장	교동초등학교	김은지	용인향교충효교육	2008-2호
2008.07.30	상 장	교동초등학교	강채현	용인향교충효교육	2008-3호
2008.07.30	상 장	교동초등학교	임진아	용인향교충효교육	2008-4호
2008.07.30	상 장	교동초등학교	김홍민	용인향교충효교육	2008-5호
2008.07.30	상 장	교동초등학교	김지호	용인향교충효교육	2008-6호
2008.07.30	상 장	교동초등학교	윤정빈	용인향교충효교육	2008-7호
2008.07.30	상 장	교동초등학교	박상성	용인향교충효교육	2008-8호
2008.08.25	효부상	보라동	김영순(金英順)	용인향교(기로연)	2008-9호
2008.08.25	효자상	모현면	임순택(林舜澤)	용인향교(기로연)	2008-10호
2008.08.30	특선(해서)	향교서예반	도숙희(都淑姬)	사)한국서화교육협 회경기도지부	제7회경기도 서화대전-45호
2008.12.17	상 장	언남동	김방자(金芳子)	용인향교명륜대학	2008-11호
2008.12.17	상 장	보정동	배부례(배부례)	용인향교명륜대학	2008-12호
2008.12.17	상 장	언남동	임화자(林和子)	용인향교명륜대학	2008-13호

일자	수상명	소속	수상자	수여기관	비고
2009.02.12	공로패	용인향교	이기창(李起昌)	용인향교	2009-1호
2009.07.29	상 장	구성초등학교	김유희	용인향교충효교육	2009-1호
2009.07.29	상 장	구성초등학교	김솔비	용인향교충효교육	2009-2호
2009.07.29	상 장	구성초등학교	김유인	용인향교충효교육	2009-3호
2009.07.29	상 장	구성초등학교	곽유진	용인향교충효교육	2009-4호
2009.07.29	상 장	구성초등학교	고지윤	용인향교충효교육	2009-5호
2009.07.29	상 장	구성초등학교	조민진	용인향교충효교육	2009-6호
2009.07.29	상 장	구성초등학교	윤주성	용인향교충효교육	2009-7호
2009.10.01	특선(전서)	향교서예반	도숙희(都淑姬)	사)한국서화교육협회 회경기도지부	제8회경기도서 화대전-263호
2009.10.15	효부상	하갈동	김주기	용인향교(석전대제)	2009-8호
2009.10.15	효자상	동백동	이상명	용인향교(석전대제)	2009-9호
2009.10.16	효자상	마북동	장기원(長基元)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 교육
2009.12.30	상 장	언남동	이상범(李尙範)	용인향교명륜대학	2009-10호
2009.12.30	상 장	언남동	이영자(李英子)	용인향교명륜대학	2009-11호
2009.12.30	상 장	마북동	안순남(安順男)	용인향교명륜대학	2009-12호
2009.12.30	상 장	강남마을	김수자(金秀子)	용인향교명륜대학	2009-13호
2009.12.30	상 장	언남동	김방자(金芳子)	용인향교명륜대학	2009-14호
2009.12.30	상 장	마북동	이동빈(李東彬)	용인향교명륜대학	2009-15호
2009.12.30	상 장	언남동	임화자(林和子)	용인향교명륜대학	2009-16호
2009.12.30	상 장	동백동	박선아(朴善雅)	용인향교명륜대학	2009-17호
2009.12.30	상 장	마북동	신상희(辛相姬)	용인향교명륜대학	2009-19호
2009.12.30	입선(해서)	향교서예반	이상범(李尙範)	남부서예협회	제4회남부서예 공모대전 221
2010.08.02	효부상	마평동	김남옥(金南玉)	유도회경기도본부	충효교육 시
2010.09.04	특선(행초)	향교서예반	도숙희(都淑姬)	사)한국서화교육협회 회경기도지부	제9회경기도 서화대전 -6호
2010.09.25	입선	향교서예반	도숙희(都淑姬)	사)한국서가협회	제18회대한민 국서예전람회
2010.10.22	공로상	하갈동	박여희(朴汝熙)	용인향교(기로연)	2010-1호
2010.10.26	입선(해서)	향교서예반	송병숙(宋炳淑)	성균관유도회 충본부	제5회대한민국 유림서예대전
2010.10.26	입선(해서)	향교서예반	도숙희(都淑姬)	성균관유도회 충본부	제5회대한민국 유림서예대전
2010.11.30	상 장	언남동	조성진(趙成辰)	용인향교명륜대학	2010-2호

일자	수상명	소속	수상자	수여기관	비고
2010.11.30	상 장	마북동	안순남(安順男)	용인향교명륜대학	2010-3호
2010.11.30	상 장	언남동	임기숙(林基淑)	용인향교명륜대학	2010-4호
2010.11.30	상 장	언남동	방종임(方鍾任)	용인향교명륜대학	2010-5호
2010.11.30	상 장	마북동	이동빈(李東彬)	용인향교명륜대학	2010-6호
2010.11.30	상 장	언남동	임화자(林和子)	용인향교명륜대학	2010-7호
2010.11.30	상 장	마북동	오성춘(吳成春)	용인향교명륜대학	2010-8호
2010.11.30	상 장	중동	이재규(李載奎)	용인향교명륜대학	2010-9호
2010.11.30	상 장	언남동	이은경(李恩敬)	용인향교명륜대학	2010-10호
2010.11.30	상 장	호동	강순원(康淳源)	용인향교명륜대학	2010-11호
2011.10.	효행상	기흥구	모효순(牟孝順)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교육
2011.10.	효행상	모현면	김정기(金定基)	유도회경기도본부	2008-12호
2011.07.29	상 장	어정초등학교	박민규	용인향교충효교육	2011-1호
2011.07.29	상 장	어정초등학교	송인원	용인향교충효교육	2011-2호
2011.07.29	상 장	어정초등학교	윤지환	용인향교충효교육	2011-3호
2011.07.29	상 장	어정초등학교	이 준	용인향교충효교육	2011-4호
2011.10.06	효부상	상하동	김현경	용인향교(기로연)	2011-5호
2011.10.14	효부상	모현면	김정기(金定基)	경기도유도회본부	충효교육시
2011.11.30	상 장	마북동	안순남(安順男)	용인향교명륜대학	2011-6호
2011.11.30	상 장	마북동	이동빈(李東彬)	용인향교명륜대학	2011-7호
2011.11.30	상 장	언남동	임화자(林和子)	용인향교명륜대학	2011-8호
2011.11.30	상 장	중동	이재규(李載奎)	용인향교명륜대학	2011-9호
2010.11.30	상 장	언남동	이은경(李恩敬)	용인향교명륜대학	201-10호
2012.08.11	상 장	지곡초등학교	민수필	용인향교충효교육	2012-1호
2012.08.11	상 장	지곡초등학교	강지은	용인향교충효교육	2012-2호
2012.08.11	상 장	지곡초등학교	장유정	용인향교충효교육	2012-3호
2012.08.11	상 장	지곡초등학교	임은성	용인향교충효교육	2012-4호
2012.09.08	특선(행서)	향교서예반	도숙희(都淑姬)	사)한국서화교육협 회경기도지부	제11회경기도 서화대전-149
2012.11.30	상 장	언남동	조성진(趙成辰)	용인향교명륜대학	2012-5호
2012.11.30	상 장	마북동	안순남(安順男)	용인향교명륜대학	2012-6호
2012.11.30	상 장	언남동	임화자(林和子)	용인향교명륜대학	2012-7호
2012.11.30	상 장	중동	이재규(李載奎)	용인향교명륜대학	2012-8호
2012.11.30	상 장	언남동	공영란(孔英蘭)	용인향교명륜대학	2012-9호
2013.08.09	상 장	나곡초등학교	박주원	용인향교충효교육	2013-1호

일자	수상명	소속	수상자	수여기관	비고
2013.08.09	상 장	나곡초등학교	명혜은	용인향교충효교육	2013-2호
2013.09.14	입선(전서)	향교서예반	도숙희(都淑姬)	사)한국서화교육협 회경기도지부	제12회경기도 서화대전-252
2014.09.16	공로패	용인향교	박지영(朴址榮)	용인향교(천망회의)	2014-1호
2014.09.28	표창장	용인향교	박지영(朴址榮)	성균관 모성회	2014-241호
2014.09.30	특선(예서)	향교서예반	안순남(安順男)	대한민국유림서예 대전운영위원회	제9회대한민국 유림 서예대전
2014.09.30	입선(한문)	향교서예반	한명숙(韓明淑)	대한민국유림서예 대전운영위원회	제9회대한민국 유림 서예대전
2014.10.13	입선(한문)	향교서예반	한명숙(韓明淑)	의왕문화원	제14회백운서 예문인화대전
2014.11.26	입선(한문)	향교서예반	한명숙(韓明淑)	사)한국미술협회 성남지부	제2회전국공 모모란전통미 술대전
2015.06.13	입선(예서)	향교서예반	김정화(金正花)	사)한국서가협회경 기도지회	제20회경기도 서예전람회
2015.06.13	입선(한글)	향교서예반	도숙희(都淑姬)	사)한국서가협회경 기도지회	제20회경기도 서예 전람회
2015.07.01	입선(해서) 입선(행초서)	향교서예반	이동빈(李東彬)	사)한국서화교육협 회경기도지부	제14회 경기도 서화대전
2015.07.10	감사패	배움여행 여유	용인향교	유교문화활성화 지원사업단	사)한국 관광학회
2015.07.10	감사패	유교 아카데미	용인향교		
2015.07.10	감사패	용인 향교유사	우금용 (배움여유)		
2015.09.12	입선(한문)	향교 유도회장	김동해(金東海)	대한민국삼봉서화 대전	제3회대한민 국삼봉서화대 전 -063호
2015.09.12	특선(한글)	향교서예반	도숙희(都淑姬)	대한민국삼봉서화 대전	제3회대한민 국삼봉서화대 전 -063호
2015.10.06	입선(해서) 입선(행초서)	향교서예반	심춘무(沈春茂)	사)성균관 유교총연합회	제10회 성균관 유림 서예대전
2015.10.06	입선(행초서) 입선(행초서)	향교서예반	이동빈(李東彬)	사)성균관 유교총연합회	제10회 성균관 유림 서예대전
2015.10.06	입선(예서)	향교서예반	안순남(安順男)	사)성균관 유교총연합회	제10회 성균관 유림 서예대전



일자	수상명	소속	수상자	수여기관	비고
2015.10.06	입선(행초서)	향교서예반	홍완순(洪宛順)	사)성균관 유교총연합회	제10회 성균관 유림서예대전
2015.10.06	특선(예서)	향교서예반	한명숙(韓明淑)	사)성균관 유교총연합회	제12회 성균관 유림 서예대전
	입선(예서)				
2015.10.20	효부상	마북동	이혜선(李惠仙)	유도회경기도본부	충효교육시
2015.11.07	입선(행초서)	향교서예반	안태평(安泰平)	전국서예대전대회	제15-11-661호
2015.11.07	특선(한문)	향교서예반	한명숙(韓明淑)	전국서예대전대회	제9회전국서 예대전 662호
2016.03.08	감사장	용인향교	공중근(孔重根)	유도회용인지부	2016-01호
2016.03.08	감사장	용인시청	이동수(李東洙)	용인향교(정기총회)	2016-02호
2016.03.08	감사장	하갈동	공중근(孔重根)	용인향교(정기총회)	2016-01호
2016.06.11	입선(예서)	향교서예반	김정화(金正花)	사)한국서가협회경 기도지회	제22회경기도 서예 전람회
2017.06.11	입선(한글)	향교서예반	도숙희(都淑姬)	사)한국서가협회경 기도지회	제22회경기도 서예 전람회
2016.09.	우수상 (행초)	향교유도회장	김동해(金東海)	사)대한노인회경기 도연합회	제27회 노인 회호대회
2016.10.05	입선(해서)	향교서예반	심춘무(沈春茂)	사)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제11회 성균관 유림 서예대전
	입선(행초서)				
	입선(전서)				
2016.10.05	입선(예서)	향교서예반	안순남(安順男)	사)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제11회 성균관 유림 서예대전
2016.10.05	특선(예서)	향교서예반	김정화(金正花)	사)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제11회 성균관 유림 서예대전
2016.10.05	입선(행서)	향교서예반	이승호(李承浩)	사)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제11회 성균관 유림 서예대전
2016.10.05	입선(행서)	향교서예반	심춘무(沈春茂)	사)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제11회 성균관 유림 서예대전
2016.10.05	입선(행서)	향교서예반	홍완순(洪宛順)	사)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제11회 성균관 유림 서예대전
2016.10.05	입선(한글)	향교서예반	도숙희(都淑姬)	사)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제11회 성균관 유림 서예대전
2016.07.11	공로상	용인향교	용인향교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6-109호
2016.12.24	삼채상	향교서예반	홍완순(홍완순)	전국서예대전대회	제10회전국서 예대전 076호

일자	수상명	소속	수상자	수여기관	비고
2017.01.25	입선(한글)	향교서예반	도숙희(都淑姬)	대한민국명인미술대전	제5회대한민국명인미술대전 071호
2017.03.07	감사장	기흥구	조영재(趙英在)	용인향교	2017-01호
2017.03.07	감사장	용인시청	황규섭	용인향교	2017-02호
2017.03.07	감사장	재성종합건설	윤민경	용인향교	2017-03호
2017.05.16	입선(사군자)	향교서예반	홍완순(홍완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문화예술부분	제49회신사임당의날기념대회
2017.06.10	입선(해서)	향교서예반	김정화(金正花)	사)한국서가협회경기도지회	제22회경기도서예전람회
2017.06.10	입선(한글)	향교서예반	도숙희(都淑姬)	사)한국서가협회경기도지회	제22회경기도서예전람회
2017.07.01	입선(예서)	향교 서예반	심춘무(沈春茂)	사)성균관유교총연합회	제12회 성균관유림 서예대전
	입선(행초서)				
2017.07.01	입선(행초서)	향교 서예반	홍완순(洪宛順)	사)성균관유교총연합회	제12회성균관유림 서예대전
2017.09.13	삼체상	향교 서예반	안순남(安順男)	사)한국미술협회 용인지부	제14회대한민국미르인예술대전
2017.09.13	특선(전서) 입선(해서)	향교 서예반	김정화(金正花)	사)한국미술협회 용인지부	
2017.10.13	용인시장상	향교문학강사	김태호(金兌浩)	용인시	향토문화유산발전 유공자
		향교 장의	박개일(朴開一)	용인시	
		향교 장의	박창섭(朴昌燮)	용인시	
		향교 장의	장관희(張寬姬)	용인시	
2017.12.03	특선(행서) 입선(한글, 전서, 예서, 해서)	향교 서예반	김정화(金正花)	사)동양서예협회	제14회한중일대한민국동양서예대전
2017.12.12	성균관장상	향교 전교	이양구(李亮求)	사)성균관	향교발전공로상

## 제6장 | 용인향교의 향사의례



## 제1절 석전대제(釋奠大祭)

### 1. 석전제 개관

석전(釋奠)은 성균관의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先聖)과 선현(先賢)에게 제사를 올리는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석전은 모든 유교적 제사 의식의 전범(典範)으로 가장 규모가 큰 제사이며, 이때문에 석전을 가장 큰 제사라는 의미로 석전대제(釋奠大祭)라고 부르기도 한다.

향교에서의 의례는 당연히 석전제(釋奠祭)가 핵심이다. 석전제는 공부자(孔夫子)의 인의도덕(仁義道德)을 근본 삼아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실천과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도리를 천명함에 있어 배사모성(拜師慕聖)의 예로써 춘추길일(春秋吉日)을 택하여 생폐예제(生弊禮齊)를 헌설(獻設)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전례(奠禮)를 봉행하는 것이다.

석전제는 오례(五禮) 가운데 길례(吉禮)에 속하며 대부분의 향교에서는 공부자와 4성(四聖)을 더해 오성이라 하여 중앙에 모시고 양옆에 우리나라의 18현(十八賢)을 모시고 전례를 봉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향교에서는 공문10철(十哲), 송(宋)나라 2현(二賢: 정명도(程明道)·주자(朱子)), 3현[三賢: 2정(二程)·주자(朱子)], 4현[四賢: 주자(周子)·이정(二程)·주자(朱子)], 6현을 모시기도 한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강릉향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성전에는 5성(五聖)과 10철(十哲) 및 송조 6현(六賢)의 위패를 모시고, 동무와 서무에는 중국 97현(九十七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곳도 있다.

석전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는 『주례』와 『예기』 등 유교 경전에 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본래 석전은 산천에 베풀기도 하고 혹은 묘사에 베풀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학교에서 올리기도 했으나, 시대를 내려오면서 학교의 의식만을 뜻하는 것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즉 산천·묘사에는 이밖에도 여러 제향(祭享)이 있는 반면에 학교에서는 오직 석전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석(釋)은 ‘놓다(舍也)’, ‘두다(置也)’의 뜻이고, 전(奠)은 ‘그치다(停也)’의 뜻으로서, ‘제물을 올릴(薦饌)’ 따름이고 ‘시동을 맞이하는(迎尸)’ 등의 제사 절차는 갖추어 베풀지 않았다.

석전과 유사한 제례 의식으로는 석채(釋菜)가 있다. 석채(釋采)라고도 쓰는데 이는 나물 중

류나물(菜: 빈조류(蘋藻類))만을 차려 올리는 단조로운 차림으로서 음악이 연주되지 않는 조출한 의식이다. 이에 비해 석전은 소[牛]·양(羊) 등 고기를 제물로 올리는 희생(犧牲)과 폐백(幣帛), 그리고 일무(佾舞)와 무악(舞樂)과 헌수(獻酬)가 있는 성대한 제사 의식이다.

석전은 석채·석전(舍奠)·정제(丁祭)·상정제(上丁祭) 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정제니 상정제니 하는 것은 석전을 봄 2월(음력), 가을 8월(음력)의 상정일(上丁日: 첫 丁日)에 모시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상대(上代)에 이미 산천·묘사에서 석전을 올렸으며 [『주례(周禮)』, 「춘관(春官)』], 때로는 출정하여 죄 있는 자를 잡아오면 학교에서 석전을 베풀어 선사에게 아뢰기도 하였다[『예기(禮記)』, 「왕제(王制)』]. 전자를 정기적(常時)인 석전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부정기적(非時)인 석전이다.

학교에서는 봄에 시(詩)·서(書)·예(禮)·악(樂)을 가르치는 교관(敎官)이 선사에게 석전을 올렸고 가을과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예기』 「문왕세자」편에 기록되어 있다. 선사란 앞서 간전대(前代)의 훌륭한 스승들을 일컫는 말이고, 여름을 말하지 않은 것은 봄에 준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주대(周代)에는 순(舜)·우(禹)·탕(湯)·문왕(文王)을 선성(先聖)으로 모시는 것이 고대 중국의 관례였다. 한(漢)나라 이후 유교를 국교로 받들게 되자 공자를 점차 선성·선사(先師)의 자리로 올려 문묘의 주향(主享)으로 모시는 동시에 석전으로 우러러 모시는 관례가 정착되었다. 후한(後漢)의 명제(明帝) 같은 제왕은 주공(周公)을 선성, 공자를 선사로 삼아 공자의 고택을 찾아 가서 석전을 올리기도 하였다. 위(魏)·수(隋)·당(唐)나라 이후로는 대체로 공자를 선성, 안회(顔回)를 선사로 받들어 석전을 올렸다. 명(明)나라에 와서 태학(太學)의 문묘를 대성전(大成殿)이라 일컬어 석전을 올리는 사당으로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석전이 시작된 정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최초로 태학이 설립된 것으로 미루어, 이때 석전도 함께 봉행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의 경우 국립학교 설립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오경박사(五經博士) 같은 명칭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오고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한 박사 아직기(阿直岐), 왕인(王仁)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국립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석전 의식을 봉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신라에서는 진덕여왕 2년(648)에 김춘추가 당나라에 건너가 국학(國學)을 찾아 석전 의식을 참관하고 돌아온 후 국학 설립을 추진하였고, 648년(신문왕 2)에 그 제도가 확립되었다. 특히 717년(성덕왕 16)에는 태감(太監) 김수충(金守忠)이 당나라에서 공자와 10대 제자 및 72 제자의 영정을 가져와 국학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석전 의식이 국학에서 봉행

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 역시 국립학교인 국자감에서 석전을 봉행하였으며, 1019년(현종 11) 8월에는 최치원을 선성묘에 종향(從享)하고, 현종 13년에 다시 설총을 종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현을 문묘에 배향하는 전통이 시작되었다.

성리학이 정착된 조선조에는 석전이 국가에서 주관하는 오례(五禮) 중 길례(吉禮)에 속하는 국가적 대사로써 봉행되어 왔다. 오늘날 석전이 봉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묘인 성균관은 고려 1303년(충렬왕 30) 6월에 고려의 수도 개경에 있던 국자감을 개칭한 것이며, 조선조 건국 이후 1398년(태조 7)에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 당시 성균관의 정전인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4성(聖), 10철(哲)과 송조 6현(賢) 등 21위(位)를 봉안했고,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는 우리나라의 명현(名賢) 18위와 중국의 유학자 94위 등 112위를 봉안하여 매년 춘추에 두 차례 석전을 봉행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37년부터는 양력 4월 15일과 10월 15일로 변경하여 실시하다가 해방 후인 1949년에 전국 유림대회의 결의로 5성위와 송조 2현만 봉안하고 그 외 중국 유현 108위를 매안(埋安)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18현을 대성전으로 올려 종향하고 춘추 석전 대신 공자 탄일인 음력 8월 27일에 기념 석전을 봉행하는 변화를 가졌다. 또 그 3년 뒤인 1953년에 공문 10철과 송조 6현을 복위하고 석전도 봄과 가을 두 차례, 곧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로 환원하여 현재까지 봉행하고 있다. 성균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234개 향교에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년 같은 날 석전을 봉행하고 있다.

석전대제는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석전대제에는 다섯 명의 헌관(獻官: 위패 앞에 잔을 올리는 제관)과 집례(執禮: 진행을 담당하는 제관), 대축(大祝: 제사의 축문을 읽는 제관)을 포함한 27명의 집사가 봉행하며, 이와 더불어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을 연주하는 41명의 악사와 팔일무(八佾舞)를 추는 64명의 악원을 합쳐 모두 137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다.

석전의 봉행은 종합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홀기(勿詰)에 의거하여 진행되는데, 국조오례의의 규격을 그 원형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석전대제는 전통적 제례의식이 온전하게 계승되어 오고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에도 남아있지 않는 옛 악기와 제기(祭器)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고전 음악인 문묘제례악과 팔일무, 제관이 입는 전통적인 의상과 고전적 의식 절차가 모두

화려하고 장중하여 예술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석전대제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집례 및 묘사(廟司)가 먼저 섬돌 아래에서 4배(拜)를 올린 뒤 손을 씻고 자기 위치에 선다.

① 창홀(唱筓) : 집례가 홀기를 부르기 시작한다. 전악(典樂)이 악사(樂士)와 무생(舞生)을 인솔하여 정해진 위치로 입장하면, 찬인이 대축(大祝)과 모든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섬돌 아래서 4배하도록 한다. 대축과 모든 집사가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손을 씻고 각각 자기 위치로 가서 선다. 묘사 및 봉향(奉香)·봉로(奉爐)가 대성전으로 올라 문을 열고 개독(開櫝)한다. 알자와 찬인이 초헌관(初獻官)·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분헌관(分獻官)을 인도하여 정해진 위치로 나아간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행사의 시작을 청하고 당하악(堂下樂)이 연주되고 문무(文舞)가 시작되면 헌관과 참례자 일동이 4배한다.

② 전폐례(奠幣禮) : 폐백을 드리는 예로서, 초헌관이 공자 신위, 안자 신위, 증자 신위, 자사 신위, 맹자 신위 순으로 세 번 분향하고 폐백을 드린 뒤 자기 위치로 돌아온다. 이때 당상악(堂上樂)을 연주하고 문무를 춘다.

③ 초헌례(初獻禮) :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로서, 초헌관이 공자 신위 앞으로 가면 당상악과 문무가 시작된다. 공자 신위에 술잔을 올리고 조금 물러서서 꿇어앉으면 대축이 축문을 읽는다. 초헌관은 안자·증자·자사자·맹자 신위 순으로 술잔을 올리고 자기 위치로 돌아온다.

④ 아헌례(亞獻禮) :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로, 아헌관이 공자·안자·증자·자사자·맹자 순으로 술잔을 올린다. 당하악과 무무(武舞)가 연주된다.

⑤ 종헌례(終獻禮) : 마지막 술잔을 올리는 예로, 종헌관이 앞의 순서대로 술잔을 올린다. 당하악과 무무를 춘다.

⑥ 분헌례(分獻禮) : 앞서 술잔을 올린 공자와 네 신위 이외에 종향(從享)되어 있는 사람에게 술잔을 드리는 예이다. 동무분헌관(東廡分獻官)과 서무분헌관(西廡分獻官)이 찬인의 인도를 받아 동종향 17위, 서종향 17위에 술잔을 올린다.

⑦ 음복례(飲福禮) : 제사에 쓴 술과 음식을 먹는 예이다.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로 음복하는 곳으로 나아가 술과 포를 음복한다. 대축이 철상(徹床)을 한다. 당상악을 그치고 당하악을 연주한다.

⑧ 망료례(望燎禮) : 제사가 끝나서 축문을 불사르는 것을 지켜보는 예이다. 알자가 초헌관

을 인도하여 축문 사르는 곳으로 나아가면 대축이 폐백과 축문을 불사른다. 알자가 초헌관에 게 예가 끝났음을 아뢰고 알자와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물러감으로써 행사가 모두 끝난다.

## 2. 향사 일정과 분정 집사

### 1) 향사(享祀)의 일정

용인향교는 매년 가을 공자탄신일에 석전제(釋奠祭)를 올리고 있다. 용인향교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8월 상정일(上丁日)에 석전제를 지냈으나 이후 공자탄신일에 맞추어 석전제를 올리고 있다. 본래 향교의 석전제는 봄가을 두 차례 올리는 것이 기본이나 용인향교는 춘계석전 1회만 올리고 있을 뿐이다. 일제강점기의 신문 기사를 보아도 춘계석전을 올린 기록이 신문 기사로 남아 있는데 이로 미루어보아도 현재 1회 밖에 석전제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로 보인다.

현재 용인향교의 대성전에는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공부자(孔夫子)를 비롯한 25명의 선성(先聖)과 선현(先賢)들의 위패(位牌)를 봉안하고 있다.

### 2) 분정집사록(分定執事錄)

석전제를 올리기에 앞서 헌관과 집사를 지정하는 일을 말하며 보통 석전제를 올리기 보름전 쯤에 좋은 날을 택해 임원들을 소집하고 제집사를 선정한다. 삭망 분향례를 올리는 날을 택해 회의를 열기도 하는데 이중으로 회의를 여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용인향교 석전제의 헌관과 집사는 다음과 같다.

- 헌관(獻官);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동무분헌관(東廡分獻官), 서무분헌관(西廡分獻官)
- 집사(執事); 전사(典祀) 1명, 집례(執禮) 1명 당하집례(堂下執禮 또는 解說執禮) 1명, 대축(大祝) 1명, 찬인(贊引) 1명, 알자(謁者) 1명, 사준(司尊) 2명, 봉향(奉香) 2명, 봉로(奉爐) 2명, 외봉작(外奉爵) 2명, 내봉작(內奉爵) 2명, 전작(奠爵) 2명



성균관이나 여타 향교의 경우 사준이나 봉향, 봉로, 봉작이나 전작이 3명씩 봉무(奉務)하는 경우가 많으나 용인향교는 2명씩인데 초헌관부터 아헌관, 종헌관의 헌작이 끝나고 분헌례가 시작될 때 한쪽의 봉향이나 봉로, 전작과 봉작을 맡아 겸임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원의 부족으로 인한 나름대로의 대책으로 보인다.

대성전 봉안 위패



공자 신위    안자 신위    증자 신위    자사 신위    맹자 신위    정호 신위    주희 신위



설총 신위    최치원 신위    안유 신위    정몽주 신위    김굉필 신위    정여창 신위    조광조 신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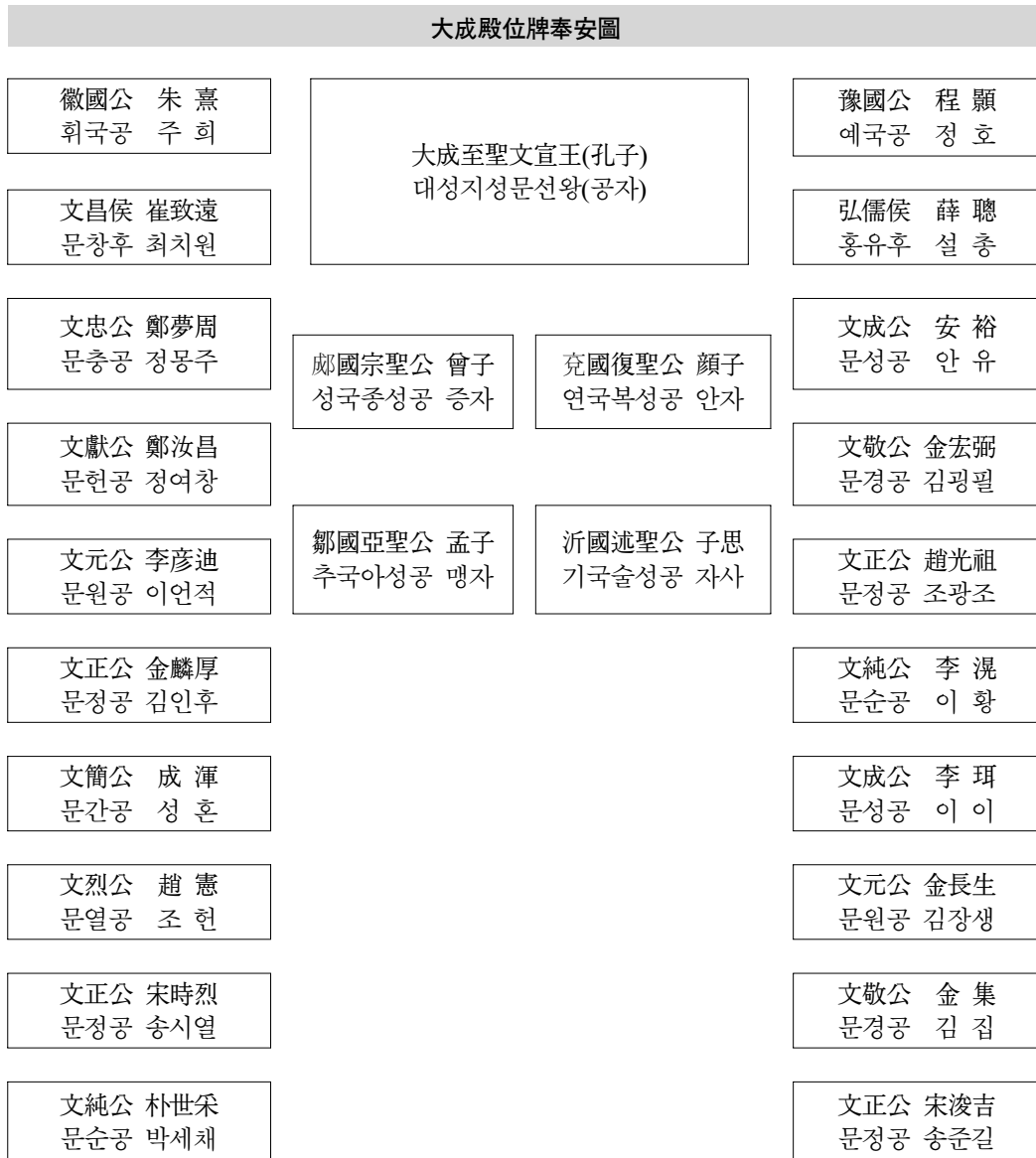
이언적 신위    이황 신위    김인후 신위    이이 신위    성훈 신위    김장생 신위    조헌 신위



김집 신위    송시열 신위    박세채 신위    송준길 신위

### 3. 대성전 봉안 위패의 배치

용인향교 대성전에 봉안된 문선왕(文宣王) 공자(孔子)의 위패를 비롯하여 5성위(五聖位), 송조 2현(宋朝二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 위패의 배치는 다음과 같다.



## 4. 석전제의 준비

### 1) 준비

용인향교의 석전제는 매년 가을 공자탄신일에 봉행한다. 석전제에 앞서 회의를 열고 제집사를 선정하고 석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다. 석전 전일(前日)에는 석전 습의(習儀)를 실시하는데 주로 집례와 집사를 맡은 임원들이 참석하며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도 예행연습을 한다. 석전 봉행의 예비 연습이라 할 수 있는 습의는 석전 하루 전 오후 1시부터 성균관과 전국 향교에서 동시에 행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용인향교의 경우 집사자로 선정되고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정상 아예 습의를 거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또 제수를 미리 진설해 놓는데 제수진설은 습의를 마친 뒤 당일 오후에 실시한다.



제집사천망회의 1



제집사천망회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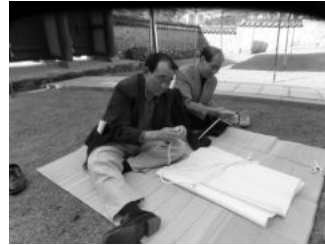
제집사교육



제기 세척



제기 정리



제주뎨개제작



제주 준비



축문서식필사

석전 당일의 봉행절차는 ①전폐례(奠幣禮) ②초헌례(初獻禮) ③아헌례(亞獻禮) ④종헌례 겸 분헌례(終獻禮 兼 分獻禮) ⑤음복례(飲福禮) ⑥망요례(望燎禮) 순으로 성균관의 문묘나 여타 지방향교와 동일하다.

## 2) 제찬(祭饌)·제주(祭酒)

제찬(祭饌)은 5성위(五聖位)는 8번(八簋)·8두(八豆)·2보(二簋)·2궤(二簋)·2성(二脛)·주(酒)·폐백(幣帛)이며, 종향위(從享位)는 2번(二簋)·2두(二豆)·1보(一簋)·1궤(一簋)·1성(一脛)·주(酒) 등이다.

제주(祭酒)는 5성위(五聖位)의 경우 예제(醴齊)를 희준(犧尊)에 담으며 초헌관이 올린다. 양제(醢齊)는 상준(象尊)에 담으며 아헌관이 올린다. 청주(淸酒)는 산뢰(山罍)에 담으며 종헌관과 분헌관이 올리며 종향위(從享位)도 청주를 쓴다.

## 3) 제관(祭官)

용인향교 석전제시 제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초헌관(初獻官): 석전제의 제주(祭主)로 오성위(五聖位)에 전폐례와 초헌례를 올리고 음복례와 망요례를 집행하는 제관으로 주로 지방관이 맡아왔다. 지금은 국회의원이거나 시장, 구청장, 또는 유림원로 가운데서 선정한다.

② 아헌관(亞獻官): 오성위에 두 번째 술잔(양제)을 올리는 제관이다.

③ 종헌관(終獻官): 오성위에 세 번째 술잔(청주)을 올리는 제관이다.

④ 분헌관(分獻官): 종향위에 술잔(청주)을 올리는 제관으로 2인의 분헌관이 동종향(東從享)과 서종향(西從享) 양편에서 각각 분향하고 제주를 올리는 제관이다.

⑤ 집례(執禮): 행사진행을 맡아 창홀(唱筓)이라 하여 홀기를 낭독하면서 의식을 집행하는 제관이다. 당하집례와 구분하여 당상집례라고도 한다.

⑥ 당하집례(堂下執禮): 원래는 동·서무 진행을 담당하는 집례였으나, 현재는 동·서무에 위패를 모시지 않아 대성전 월대 밑에 서서 홀기에 대한 한글해설을 담당한다. 부집례, 또는 해설집례라고도 하며 현재는 주로 여성유도회의 여성회원이 담당한다.

⑦ 대축(大祝): 대축은 초헌관의 좌측에서 축문을 쓰고 독축(讀祝)하며 초헌관이 헌폐(獻幣)시 폐백을 받아 제상에 올리며, 음복례와 망요례를 보조한다. 또 위패를 모신 주독(主楮)을

개폐하고 철변두(撤邊豆)를 보조하는 제관이다.

⑧ 전사관(典祀官): 제향의 일체사무를 관장하고 의례(儀禮)를 지휘하는 제관이다. 주로 전교를 지내거나 석전제에 경험이 많은 유림원로 중에서 선임한다.

⑨ 찬인(贊引): 집례와 축관 그리고 제집사를 인도하여 절차를 보조하는 제관이다.

⑩ 알자(謁者):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행사위치로 안내하는 제관을 가리킨다.

⑪ 봉향(奉香): 초헌관이 분향할 때 향합을 받드는 집사로 2명이다.

⑫ 봉로(奉爐): 초헌관이 분향례를 올릴 때 향로를 받드는 집사로 2명이다.

⑬ 봉작(奉爵): 준소에서 사준이 따른 술잔을 받아 헌관에게 건네주는 집사로 외복작과 내봉작이 있다. 각각 2명이 봉무한다.

⑭ 전작(奠爵): 헌관으로부터 술잔을 받아 신위 앞에 올리는 집사로 2명이다.

⑮ 사준(司樽): 제주를 맡아 준소에서 용작으로 작에 술을 따르는 집사로 2명이다.

#### 4) 헌관(獻官)의 예복(禮服)

##### ○ 제복(祭服)

국조오례(國朝五禮) 가운데 길례(吉禮)에 속하는 제례(祭禮)시에 헌관은 흑색(黑色)제복을 입는다. 제복은 종묘제례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양식으로 금관조복과 차이가 없으나 방심곡령이 더해진다. 또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한 색상으로 흑초의(黑綃衣)에 양관도 흑식(黑飾)이다. 그밖에 폐슬(蔽膝)이나 패옥(佩玉), 후수(後綬)는 금관조복의 양식과 동일하다.

① 초헌관(初獻官): 5양관(梁冠)을 쓰고 제복을 입는다.

② 아헌관(亞獻官): 4양관을 쓰고 제복을 입는다.

③ 종헌관(終獻官): 3양관을 쓰고 제복을 입는다.

④ 분헌관(分獻官): 3양관을 쓰고 제복을 입는다.

⑤ 집례(執禮): 3양관을 쓰고 제복을 입는다.

⑥ 당하집례(堂下執禮): 양관을 쓰고 제복을 입는다. 지금은 대부분 여성유도회에서 선발된 여성이 담당한다. 복장도 유건도포가 아니라 당의를 입는다.

⑦ 대축(大祝): 2양관을 쓰고 제복을 입는다.

⑧ 봉향(奉香) · ⑨ 봉로(奉爐) · ⑩ 봉작(奉爵) · ⑪ 전작(奠爵) · ⑫ 사준(司尊) · ⑬ 알자(謁

者)·⑭ 찬인(贊引):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으며 목화를 신는다.

○ 관복(官服)

삭망분향시(朔望焚香時)에는 적색(赤色)관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고 흑색제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금관조복(金冠朝服)은 조선시대에 신하들이 조정(朝廷)에 나아가 하례(賀禮)할 때나 경사시(慶事時) 입는 공복(公服)이다. 금관조복의 착용방법은 앞의 제관복과 동일하다. 다만 방심곡령은 착용하지 않는다. 용인향교에서 삭망분향시에는 분향관은 당상관에 해당되는 붉은색 관복에 사모관대를 착용하며 봉향과 봉로는 유건도포를 입는다.



당하집례



헌관 전면



헌관 측면



헌관 후면



전사 전면



전사 측면



전사 후면

○ 유건 도포(儒巾道袍)

한복을 입은 다음 행전을 치고 도포를 입는다. 도포는 하늘색이 보통인데 하늘과 학문을 탐구하는 색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며 예전에 선비들이 예복으로 착용하였다. 옷고름을 단정히 매고 그 위에 술띠를 맨다. 술띠는 도포의 품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신분에 따라 선비는 하늘색, 당상관 이상은 붉은색을 매었다. 술띠는 반드시 옷고름 위에서 나비고리를 내어 묶고 양사대 끝이 도포자락과 같이 찰랑거리게 한다. 유건은 눈썹위에까지 눌러 쓰며 이어진 판이 뒤편으로 가게 쓴다. 양 옆의 끈은 반드시 귀 앞으로 내려 묶는다. 유건은 민자관이라고도 하는데 그 형상이 백성 민(民)자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알자 전면



알자 측면



알자 후면



제집사 전면



제집사 측면



제집사 후면

요즘은 속에 한복을 입지 않고 양복위에다 행전을 치고 도포를 입고 그 위에 술띠를 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양말은 반드시 흰색으로 신어야하며 실내에서 걸을 때는 손을 공수한 채로 걸어야 한다.

용인향교의 석전시에는 현관복장은 명륜당에 준비해 놓는다. 양관과 의복, 신발 등을 현관 숫자에 따라 차례대로 갖추어 놓으며 현관이 도착하는 대로 착용하게 한다. 일부 임원이나 간사가 착용을 돕는다. 집사나 임원들은 교육관 옆에 있는 용서재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이는 현관들과 뒤섞이어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석전제에 참석하는 일부 유림들도 유건도포를 착용하기도 하며 향교에 준비되어 있는 유건만 착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 제복을 입는 순서

①행전(行纏): 흰 양말을 신고 한복을 입은 후 행전의 터진 부분을 정강이 안쪽으로 하여, 끈을 한 바퀴 돌려 다리 안쪽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 묶는다.

②상의(上衣)와 중단(中單), 폐슬: 상의와 중단을 착용하고 중단의 안옷고름과 바깥옷고름을 맨다. 중단앞에 부착된 囊[치마]를 바르게 고정시킨다. 이때 상의의 안과 밖의 옷고름은 매지 않는다.

③대대(大帶)와 후수: 대대에 부착된 후수를 의배(衣背), 즉 상의의 등 쪽 가운데에 부착한 후 좌우의 터진 곳으로 대대를 매는 끈을 넣어 중단 옷고름 위쪽 가슴에 매듭을 지어 묶는다. 당상관은 운학문(雲鶴紋)이 당하관은 연작문(練鵲紋)이 수놓아져 후수의 문양이 차이가 있다.

④방심곡령(方心曲領): 방심곡령을 어깨 뒤에 고정시키고 상의의 안고름과 바깥고름을 맨다.

⑤혁대(革帶): 좌우측 겨드랑이 밑에 각대를 걸 수 있는 고리와 끈이 있어 여기에 각대를 끼우고 옷고름 위로 잠금장치를 걸고 난후, 각대를 가슴 앞쪽에 바짝 붙이고 뒤쪽으로 각대를 늘어 떨어뜨린 후 겨드랑이 밑의 끈으로 고정시킨다.

⑥패옥(佩玉): 당상관은 푸른색의 패옥을, 당하관은 흰색의 패옥을 사용하며 좌우 겨드랑이 밑의 각대 고리에 각대와 함께 바짝 동여맨다. 이때 패옥이 뒤집혀 돌아가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킨다.

⑦예화(禮靴): 당상관은 와선(渦線)무늬를 당하관은 직선무늬의 예화를 착용한다. 부리에 있는 양쪽 끈을 발목에서 발뒤꿈치로 한 바퀴 돌린 다음 발목 쪽에서 매듭을 지어 묶는다.

⑧양관(梁冠)과 홀(笏): 당상관은 칠량관을, 당하관은 오량관을 착용하며 머리에 맞도록 끈으로 조정하고 충이(充耳)[귀마개]의 길이를 확인하고 눈썹위에까지 바짝 눌러쓴다. 마지막으로 홀을 잡는다.



### 5) 제기(祭器)

제기(祭器)는 향교에서 형(銅)·등(鄧)·모혈반(毛血盤)만 쓰지 않을 뿐 성균관의 제기와 같다. 그러나 용인향교의 경우 일반제기를 혼용한다. 이는 예산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엄숙하고 절제된 석전분위기와는 다소 간극이 있다. 현재 용인향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변(籩): 죽변(竹籩)이라고도 하며 대나무 가늘게 쪼개 그 겹대를 엮어서 만들었다. 양기(陽器)에 속하는 제기로 생과실과 물기가 없는 마른 제수를 담아 제상의 동쪽에 올리는 제기이다. 용인향교의 경우 굽이 높고 위가 평평한 접시모양의 제기를 사용한다.

② 두(豆): 목두(木豆)라고도 하며 나무를 깎아 만들어 옷칠을 한 제기로 음기(陰器)에 속하는 제기로 높이와 크기가 변과 같다. 채소나 젖은 제수를 담아 제상의 서편에 올리며 변과 두는 모두 짝수로 진설한다. 용인향교의 경우 변과 같이 일반제기를 사용하며 굽이 높고 깊이가 있는 제기를 사용한다.

③ 보(簋): 유기(鑪器)로 만든 제기로 장방형의 네모꼴을 하고 있으며 지방(地方), 즉 땅이 모난 모양을 따라 만든 제기로 음기(陰器)에 속하며 몸통 사방에 괴수(怪獸)모양의 장식이 있다. 도(稻: 쌀)와 량(梁: 기장)을 담는데 고대에는 쌀이 아닌 벼를 넣었다고 한다.

용인향교는 문선왕위에 방형의 닛쇠로 만든 보를 사용한다. 그러나 종묘제기에 비해 크기가 작고 사방의 괴수모양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라고 한다. 나머지 사성(四聖)위에는 일반 대접을 사용한다.

④ 궤(簋): 유기로 만든 제기로 천원(天圓), 즉 하늘이 둥글다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며 양기(陽器)에 속하는 제기로 몸통 양편에 괴수(怪獸)의 입으로부터 토해져 나오는 형상의 손잡이가 있다. 서(黍: 수수)와 직(稷: 피)을 담는다.

문선왕위에만 닛쇠로 만든 궤를 사용하는데 원형에 테두리에 선을 두른 간략한 형태이다. 나머지 사성위에는 일반 대접을 사용한다.

⑤ 조(俎): (俎床)이라고도 하며 나무로 만든 희생(犧牲)을 담은 제기로 도마 모양이다. 본래 도마로 쓰이다가 제기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소(牛)·양(羊)·돼지(豕)의 생육칠체(生肉七體)를 올릴 때 사용하는 제기이다. 문선왕 위에 올리는 돼지머리는 닛쇠로 만든 제기에 올리고 나머지는 스텐으로 만든 굽이 높고 장방형의 접시가 달린 적틀을 사용한다.

⑥ 비(篋): 폐비(幣篋)라고도 하며 대나무를 잘게 쪼개서 길대로 엮어서 만들 장방형의 제기로 뚜껑이 있으며 폐백을 담는다. 준상위에 진설하였다가 집폐헌폐(執幣獻幣)시 초헌관이 올리고 대축이 받아서 제상위로 놓는다. 폐백은 본래 모시(紵布)를 올리지만 지금은 베(麻布)나 창호지를 접어서 대용한다. 용인향교의 경우 폐비는 없다 대신 문선왕 제상 우측하단에 소반을 놓고 오성위에 올리는 폐백을 놓는다. 폐백을 창호지를 접어서 만들었고 장방형의 사기(沙器)접시 위에 올려놓았다.

⑦ 작(爵): 유기로 만든 술잔으로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를 비롯하여 궁중에서 사용하는 술잔을 한격을 높여 작(爵)이라고 한다. 작에는 천지인(天地人)을 상징하는 다리가 세 개 있으며 양 옆으로 작은 기둥이 솟아 있는데 한편은 용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작구(爵口)는 입을 대고 마시는 쪽은 둥글고 반대쪽은 조금 뾰족하다.

작은 처음에 준상위에 진설했다가 초헌관부터 헌작함에 따라 제상의 맨 앞쪽 왼편부터 차례로 놓여진다.

⑧ 점(玷): 유기로 만들며 작점(爵玷), 또는 작판(爵版)이라고도 하며 작을 올려놓는 받침이다. 정사각형의 얇은 판(版) 모양으로 천원지방(天圓地方)을 상징하여 가운데 원 모양의 무늬가 있으며 작을 올려놓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다. 작은 제상의 맨 앞쪽에 진설한다.

⑨ 희준(犧尊): 유기로 만든 제기로 소 모양으로 만들었고 위에 술통을 지고 있는 모양이다. 소는 대생(大牲)으로 동방의 대수(大獸)라 하여 큰 짐승이라는 뜻으로 음기(陰器)에 속하는 제기이다. 희준에는 초헌관이 올리는 술인 예제(醴齊)를 담는다. 용인향교의 경우 산뢰모양으로 된 놋쇠로 만든 준통을 사용한다.

⑩ 상준(象尊): 유기로 만든 제기로 코끼리 모양으로 만들었고 위에 술통을 지고 있는 모양이다. 상준에는 화려한 장식이 있으며 아헌관이 올리는 술인 양제(醴齊)를 담는다. 상(象)은 본래 남월(南越)의 대수(大獸)로 양기(陽器)에 속하는 제기이다. 상준과 희준은 소와 코끼리모양의 조각위에 술통을 올려놓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상준은 이국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용인향교의 경우 산뢰모양으로 된 놋쇠로 만든 준통을 사용한다.

⑪ 산뢰(山罍): 유기로 만든 제기로 표면에 산과 구름, 우레 무늬를 조각하였다. 이는 널리 천지만물에 혜택을 베푸니 임금이 널리 만백성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뜻을 형상화한 것이라 한다. 산뢰에는 종헌관이 올리는 술인 청주를 담는다. 종향 위에 사용하는 준통은 유기로 만든 둥근 단지 모양으로 구연부가 높고 넓게 벌어진 제기를 사용한다.

⑫ 떡(饗): 술향아리를 덮는 덮개로 가는 칩베로 만들어 구름무늬를 새겼다. 용인향교의 경우 떡 대신 창호지를 사용한다. 네모나게 자른 창호지로 준통을 덮은 후 창호지를 가늘게 왼쪽으로 꼬아 준비하며 왼쪽에 근봉(謹封), 오른쪽에 예제(醴齊), 양제(醢齊), 청주(淸酒)를 각각 한자로 표기하며 좌우로 늘어뜨려 단단하게 고정시켜 준비한다.

⑬ 용작(龍勺): 유기로 만든 술 뜨는 국자로 손잡이가 용머리 모양이다. 용작은 사준관(司樽官)이 준소에서 준통에서 제주를 떠서 작에 붓는데 사용하는 제기이다.

⑭ 향로(香爐): 유기로 만든 향을 사르는 제기로, 몸통에 천지인의 원리에 따라 다리가 세 개 있으며 뚜껑에 있는 구멍을 통해 향의 연기가 피어오른다. 몸통 양옆에 당간(幢竿)처럼 생긴 기둥이 솟아있어 위엄을 더하며, 이 기둥을 잡고 올리고 내리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몸통에 숯불을 담아 향을 사르는 데 사용하는 제기이다.

⑮ 향합(香盒): 유기로 만든 목향을 담은 제기이다. 천상(天上)의 혼(魂)을 모실 때 현관이 향을 세 번에 나누어 향로에 넣으며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향을 담아두는 제기이다. 향은 상록수인 향나무의 심재(心材)를 말려 가늘고 잘게 깎은 것을 담아 사용한다.

⑯ 촛대(燭臺): 촛대는 나무로 만든 것도 있으나 지금은 유기로 만들며 원뿔을 닮은 받침위에 죽절형(竹節形)의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초를 꽂을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촛농을 받는 접시가 있다.

⑰ 축판(祝板): 축판은 소나무로 만들어 옷칠을 한 얇은 장방형의 목판으로 축문을 붙여 사용하고 의식이 끝나는 망료례를 올릴 때 떼어서 불태운다.

축판은 축함에 넣어 비단보자기로 싸서 대축이 모시고 들어가며 초현관의 서편에서 독축할 때 사용한다. 축함은 나무로 만든 함으로 검은색으로 옷칠을 하며 뚜껑이 있다. 용인향교의 경우 대나무로 짠 사각형의 상자를 사용한다.

⑱ 관세기(盥洗器): 유제로 만들었으며 손을 씻는 그릇으로 안쪽에 물고기를 양각하여 손을 씻을 때면 마치 물고기가 뛰어 노는 모양을 한다. 여기에 관세작(盥洗勺)으로 세뢰(洗壘)의 물을 떠서 손을 씻는 제기로 제관들이 각자의 위치로 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고 청결하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현관용과 집사용의 구분이 없으며 관세작도 없다. 위편에 흰 수건을 걸어 놓는다.

⑲ 제상(祭床) 기타: 제상은 나무로 만들어 검은 칠을 하였고 오성위에는 각각의 제상이 있으며 공부자 신위전의 제상이 조금 크다. 오성위에는 각각의 제물을 진설하며 동서 양편의

종향위에는 작은 제상이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다. 종향위에는 향축을 비롯하여 간소한 제물을 진설한다.

②0 준상(樽床)은 동편 입구에 설치하며 종향위에 올리는 준상은 대성전 양측 입구에 따로 설치한다.

②1 관세상(盥洗床)은 대성전 동편 입구에 설치하며 헌관용과 집사용이 구분되어 있다.

②2 음복상은 제상 옆에 준비했다가 음복례시 사용하고 향로상은 오성위를 비롯한 모든 신위 전에 설치되어 있으며 망료상은 사용하지 않고 예감(瘞坎)에서 불사른다.

용인향교의 경우 성균관이나 문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제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초헌과 아헌, 종헌례에 쓰이는 준통과 용작, 그리고 제주를 올리는 작만 고례를 따르고 있을 뿐이다. 문선왕의 제상에 올리는 보와 궤는 천원지방의 원리를 따라 원형과 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세부장식이 고례(古例)와 다르다. 종향위에 올리는 술잔도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잔과 같다.

대부분의 제기는 스텐으로 만들어져 있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문선왕을 제외한 4성위에 올리는 보와 궤는 원형의 대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죽변과 목두역시 민간제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희생을 올리는 도마역시 스텐제기이다.

그러나 원형접시에 높은 굽이 달려있는 원형제기는 죽변을 대신하여 주로 마른제수를 담고 작은 주발에 등근 굽이 있는 원형제기는 목두를 대신하여 젖은 제수를 담고 있다. 돼지머리와 쇠고기적과 돼지고기 적을 올리는 제기는 장방형접시에 등근 굽이달린 제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육회와 소금을 올리는 제기는 사기그릇을 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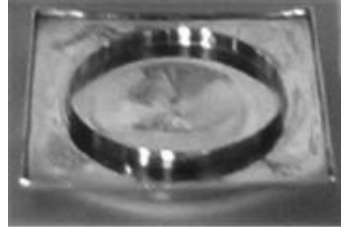
보



궤



갱반(분향시)



잔대



촛대



향탁



향로



향합



관세위



유기 주발(豆 대용 문선왕)



스텐 주발(豆 대용)



조(俎)



작(爵)



준(樽, 오성위용)



준(樽, 동서종향용)



용작(龍勺)



대접(궤 대용 사성위)



대접(보 대용 사성위)



소접시(형염용 제기)



공부자위 진설사진



8변8두(문선왕)



8변8두(사성위)



2변2두(송조 2헌 우리나라18헌)

## 6) 제수(祭需)

석전에 올리는 제수는 선성(先聖)과 선현(先賢)에게 올리는 예물(禮物)이다. 따라서 지극한 정성이 깃들어야 하는 것으로 정결하게 준비하며 용인향교의 제품(祭品)은 이보이궤(二簋二簋)에 팔변팔두(八邊八豆)이며 이성(二腥)을 2조 올린다.

제수는 희생(犧牲)이라 하여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나 양고기 등을 올리며 변두(籩豆)에도 날것을 사용하는데 이는 음식을 날것으로 먹던 고대(古代)의 유풍(遺風)이라고 하며 피와 생고기를 제수로 올리는 것은 그 혼의 생기를 빌리고자 함이라 한다.

제수는 본래 전사청에서 만들었으나 지금은 제향 며칠 전부터 준비한다. 인근 농협 하나로 마트 등에 주문 전일과 당일에 배송 받아 관리사와 간사가 준비하며 전교, 유도회장과 진설담당 장의들이 진설을 한다. 각각의 제수는 다음과 같다.

① 궤에는 수수쌀과 좁쌀을 넣는다. 수수와 조는 깨끗한 것으로 각각 1되가량 준비하며 제기에 그대로 담는다.

② 보에는 쌀과 기장을 넣는다. 쌀과 기장은 깨끗한 것으로 각각 1되가량 준비하여 그대로 넣는다. 기장 대신 보리쌀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조육(組肉)은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올린다. 조육은 날것을 그대로 올리며 정육점에서 매입하여 사용한다.

④ 장조림은 돼지고기 장조림과 쇠고기장조림을 쓴다. 작게 잘라 만든 장조림을 물기를 없게 하여 제기에 담는다.

⑤ 미나리는 가운데를 묶은 다음 밑동과 윗부분을 가지런히 잘라 쓴다.

⑥ 도라지는 껍질 제거한 후 가늘게 찢어 양옆을 가지런히 잘라 사용한다.

⑦ 육회는 쇠고기를 가늘게 썬 후 사용한다.

⑧ 젓갈은 조기를 올린다. 소금간을 하지 않은 조기를 물기를 제거한 후 담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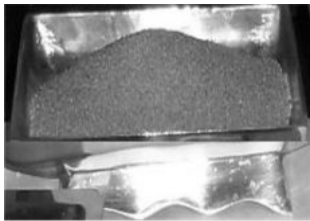
⑨ 무는 총각무(알타리 무)의 무청을 3cm가량 남기고 무의 아랫부분을 4쪽으로 썬다 사용한다.

⑩ 부추는 가운데를 묶은 후 양옆을 가지런히 자르고 제기에 올린다.

1) 희(犧)는 우(牛)와 희(義)가 더해진 글자로 ‘산 제물인 소’의 뜻을 나타낸다. 생(牲)은 우(牛)와 생(生)이 더해진 글자로 산 채로 신(神)에게 바치는 가축 곧 ‘산 제물’을 뜻한다. 기를 때는 축(畜)이라 하고 제사(祭祀)에 쓸 때는 생(牲)이라고 한다.

- ⑪ 북어는 통북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⑫ 잣[柏子]은 깬 것을 제기 위에 그대로 담는다.
- ⑬ 육포는 시장에서 사다 쓴다. 본래는 사슴고기로 만들어 썼다고 한다.
- ⑭ 밤은 피(皮)밤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그대로 사용한다.
- ⑮ 은행은 깨끗한 것을 골라 씻어 말린 뒤 그대로 담는다.
- ⑯ 염(鹽)은 소금이다. 입자가 굵은 깨끗한 소금을 그대로 담는다.
- ⑰ 대추[棗]는 마른대추를 깨끗이 닦은 후 제기에 담아 사용한다.
- ⑱ 호두(胡桃)는 껍질을 까지 않은 호두를 담아 올린다.

▶ 제수진설 사진



기장



조



쌀



수수



쇠고기 장조림



돼지고기 장조림



미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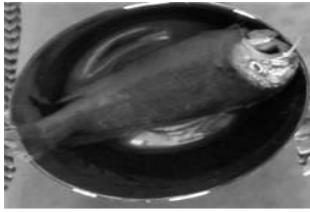


도라지



육회





전갈(굴비)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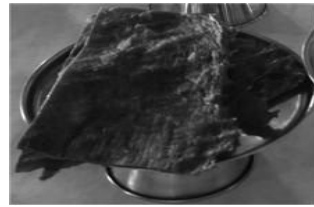
부추



복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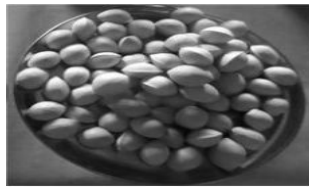
жа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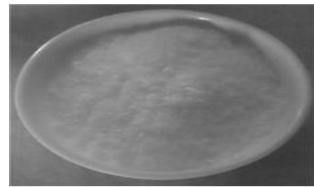
육포



밤



은행



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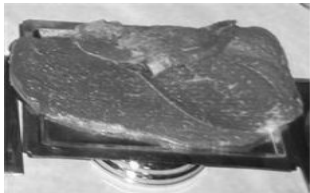
대추



호두



돼지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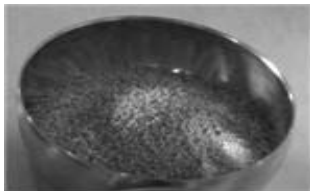
쇠고기



기장



쌀



조



수수



돼지고기적

제기 및 제수명세표<sup>2)</sup>

祭器名	祭需名	五聖位		東西廡		總數	備考
		器數	祭需量	祭品數	祭需量		
簠	稻	5.0	1.5升	20.0	6.0升	7.5升	
“	粱	5.0	1.5升	-	-	1.5升	
簋	黍	5.0	1.5升	-	-	1.5升	
“	粟	5.0	1.5升	20.0	6.0升	7.5升	
俎	牛肉	5.0	2.0斤	-	-	2.0斤	
“	豚首	1.0	1.0首	-	-	1.0首	
“	豚肉	4.0	2.0斤	2.0	4.0斤	6.0斤	
籩	肉脯	5.0	5.0包	-	-		
“	銀杏	5.0	5.0合	-	-	5.0合	
“	胡桃	5.0	5.0合	-	-	5.0合	
“	松子	5.0	5.0合			5.0合	
“	栗	5.0	5.0合	20.0	2.0升	2.5升	
“	棗	5.0	5.0合	-	-	5.0合	
“	北魚	5.0	5.0尾	20.0	20.0尾	25.0尾	
皿	天鹽	5.0	5.0合	-	-	5.0合	
豆	쇠고기 장조림	5.0	2.0斤	-	-	2.0斤	
“	돼지고기 장조림	5.0	2.0斤	-	-	2.0斤	
“	쇠고기 肉膾	5.0	2.0斤	-	-	2.0斤	
“	미나리	5.0	1束	-	-	1束	
“	도라지	5.0	1束	-	-	1束	
“	무 菁	5.0	1束	2.0	2束	3束 50合	달랑무 皿당 2介씩
“	젓갈 황새기젓	5.0	1升	2.0	2升	3升	
燭臺		2.0				2.0	
爵		15.0		20.0		15.0	
香盒		5.0		20.0		7.0	
香爐		5.0		2.0		7.0	
祝板		1.0		-		1.0	
笏板		2.0		2.0			正副2通
祭服		5.0着		2.0		7.0着	五聖位3獻 執禮. 大祝
官服		2.0					謁者, 贊人
祭服		3.0					典校, 執禮, 大祝

2) 척관법(尺貫法)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로 미터법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하였다.

**제주(祭酒)**

제주는 석전제에 올리는 술을 가리키는 말이다. 석전에 올리는 술은 초헌관과 아헌관, 종헌관이 올리는 술이 각각 다르다. 석전에서 초헌관이 올리는 술은 예제(醴齊)라 하고 아헌관이 올리는 술은 양제(醴齊)라 하며 종헌관은 청주(淸酒)를 올리는데 종묘나 문묘, 서원의 예도 같다.<sup>3)</sup> 예제(醴齊)는 술이 다 되어 술과 찌꺼기가 서로 어우러진 술로 희준(犧尊)에 담으며, 양제(醴齊)는 술이 다 되어 총백색(蔥白色)이 된 술이라고 하며 상준(象尊)에 담고 종헌관은 청주(淸酒)를 올리는데 산퇴에 담으며 종향위에도 청주를 사용한다. 예제는 술을 빚어 하룻밤 동안 익힌 술이라 하며 더러는 첨주(聃酒)라 하여 달짝지근한 술이라고도 하며, 양제는 백색으로 된 술기운이 농담이 약한 막걸리, 또는 탁주나 농



준소 오성위



준소 종향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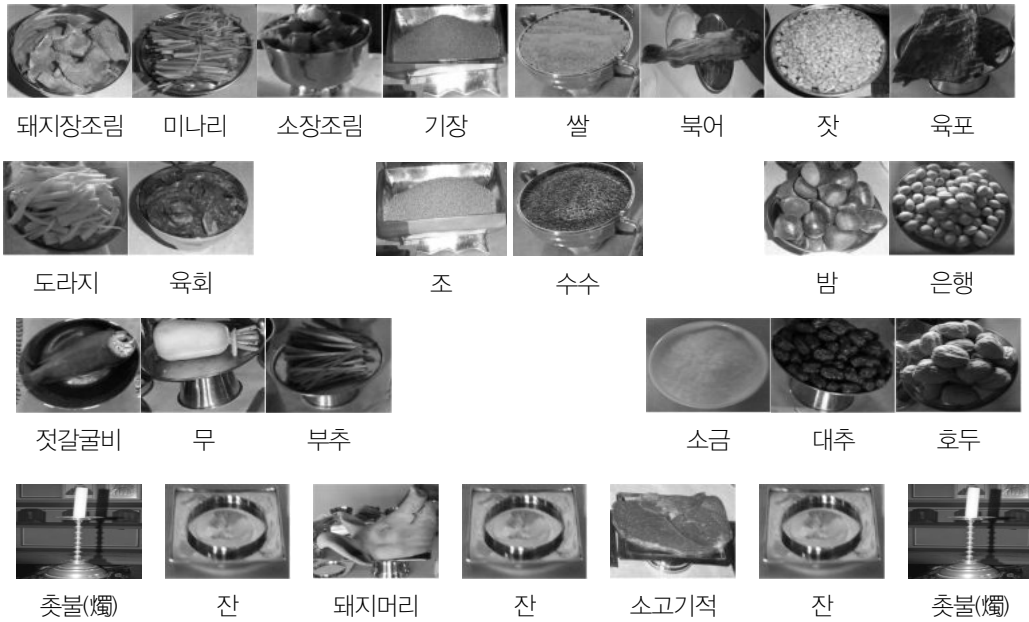
주(農酒)라고 하는 술이며 청주는 빛깔이 매우 옅고 푸르며 겨울철에 담가 여름철이 되어서야 완전히 익는 술이라 한다.<sup>4)</sup> 예전에는 향교에서 석전(釋奠)전에 미리 담가 사용했으나 지금은 시장에서 사다 쓴다. 또 예제와 양제, 청주를 구분하여 담지 않고 같은 제주를 사용하며 명칭만 다르게 쓰는 게 향교나 서원의 현실이기도 하다.

용인향교의 경우에는 3가지 술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초헌관 술인 예제에는 식혜를 담는다. 아헌관 술인 양제는 막걸리를 사용한다. 종헌관과 분헌례에 사용하는 술은 청주이다.(약주를 사용했으나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청주를 사용하고 있다) 식혜는 인근 하나로 마트에서 구입하고 막걸리나 청주 등도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제(齊)와 주(酒)는 모두 깨끗한 찹쌀과 순수한 누룩으로 만드는데 제(齊)는 맛이 옅은 맛으로 제사에 쓰이는 술이며 주(酒)는 맛이 진한 것으로 사람이 음복용으로 마시는 것이라 한다.

4) 醴齊는 一日宿酒요. 盎齊는 三日宿酒요. 淸酒는 五日宿酒라고도 한다.

오성위제수진설도(五聖位祭需陳設圖)



대성전 오성위 진설도(大成殿五聖位陳設圖)

右八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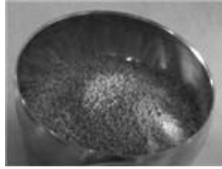
左八邊

右八豆				位牌	左八邊			
시해 (豕醢)	근저 (芹菹)	탐해 (醢醢)	궤량 (簋粱)	보도 (籩稻)	어수 (魚鱸)	진자 (榛子)	늑포 (鹿脯)	
돼지장조림	미나리	소장조림	기장	쌀	복어	잣	육포	
순저 (筍菹)	녹해 (鹿醢)		궤속 (簋粟)	보서 (籩黍)		율황 (栗黃)	능인 (菱仁)	
도라지	소육회		좁쌀	수수		밤	은행	
어해 (魚醢)	청저 (菁菹)	구저 (韭菹)			형염 (形鹽)	건조 (乾棗)	김인 (茨仁)	
젓갈조기	무	부추			소금	대추	호두	
		시성 (俎豕腥)		폐백 (幣帛)		양성 (俎羊腥)		
		돼지고기				소고기		
燭							燭	
		爵(初獻)		爵(亞獻)		爵(終獻)		

동서무종향위 제수진설도(東西廡從享位祭需陳設圖)



젓갈굴비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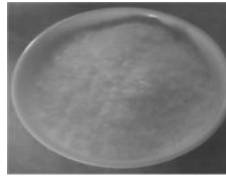
쌀



복어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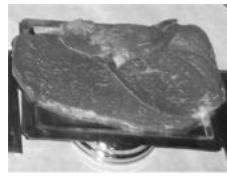
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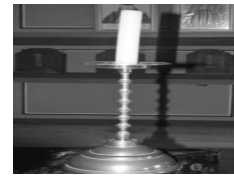
밤·대추



촛불(燭)



돼지고기적



촛불(燭)

동서무종향위 진설도(東西廡從享位陳設圖)

右二豆

左二邊

右二豆		位牌	左二邊	
어해 (魚醢) 젓갈조기	궤속 (簋粟) 좁쌀	보도 (簠稻) 쌀	어수 (魚鱸) 복어	
청저 (菁菹) 무		형염 (形鹽) 소금	울조 (栗棗) 밤·대추	
燭		시성 (俎豕腥) 돼지고기 爵(分獻)	燭	

진설은 석전제 전날 미리 시행하는 게 보통이다. 향교 가까이 있는 임원들이 참석하여 향교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진설을 하는데 보, 궤에 들어가는 쌀이나, 기장, 좁쌀과 같은

곡물이나 밤이나 은행, 대추 같은 제물은 미리 진설해 놓는다. 제주도 미리 올려다 창호지로 만든 떡으로 봉해 둔다. 보통 오후 5시 이전이면 진설이 끝나는데 진설 후 대성전 동쪽에서 북어 1마리와 막걸리 1잔으로 대제를 알리는 고유제를 올리는 것으로 전일 준비를 마치며 상하기 쉬운 돼지머리나 육회, 희생으로 올리는 생고기 등은 당일에 올린다. 석전제 당일 오전 10시 정도면 대성전 앞에 배석을 깔고 천막을 설치하며 음향시설을 갖추는 등 제향준비가 모두 끝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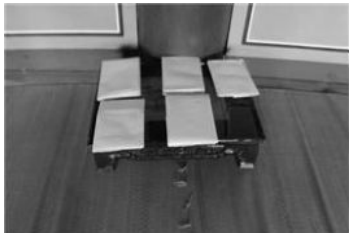
공부자위 진설



사성위 진설



아국십팔현위 진설



오성위 폐백



진설후 고유제

## 5. 봉행 절차

석전제가 시작되기 전에 현관과 집사, 참사자들은 명륜당 파에 모여 있다가 집례가 대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아래 서서 의식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먼저 분정된 현관과 집사를 호명하면 차례대로 각자의 자리에 선다. 이어 국민의례를 실시하고 전교의 인사가 끝나면 창홀에 따라 제향이 시작된다. 2017년 제향에는 정찬민시장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이어 집례의 진행으로 석전대제를 시작하였다.

용인향교의 석전제 진행은 다음과 같다.

집례와 제집사가 먼저 올라가 4배한 뒤 관세위에 나가 손을 씻고 각자의 위치에 선다. 전사

와 봉향, 봉로는 대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고 주독(主櫝)을 열고 제기의 뚜껑을 열고 복지(覆紙)를 거두며 촛불을 밝힌다. 이어 봉향과 봉로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 ○창홀(唱笏)

알자(謁者)와 찬인(贊引)은 다시 계단을 내려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참사 유생들을 인솔하여 올라온다. 헌관들은 대성전을 오른쪽에 두고 서쪽을 향해 나란히 서고 참사유생들은 대성전을 향해 마주보고 줄지어 선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 진설한 찬품(饌品)들을 점검하여 둘러보고 나온다. 알자는 행사하기를 청한다. 헌관 이하 유생 모두 4배한다.

#### ○행전폐례(行奠幣禮)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로 나아가 세수(洗手)한다. 대성지성문선왕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대축과 봉향·봉로는 올라간다. 초헌관이 세 번 향을 피운다. 대축은 폐비(幣篋)를 가져다 초헌관에게 준다.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獻幣)하고 대축에게 준다. 대축은 폐비를 신위 앞에 올린다. 다음은 복성공 신위전에 나간다. 세 번 향을 피운다. 대축은 폐비를 가져다 초헌관에게 준다.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하고 대축에게 준다. 대축은 폐비를 신위 앞에 올린다. 다음에 종성공, 술성공, 아성공의 신위 앞에 나아가 복성공 신위에서와 같이 한다. 차례로 끝나면 초헌관 이하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 ○행초헌례(行初獻禮)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대성지성문선왕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해 선다. 대성지성문선왕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해 선다. 내외봉작과 전작은 올라간다. 사준은 먹(麩)을 들고 예제(醴齊)를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준다. 외봉작은 작(爵)을 내봉작에게 준다. 내봉작은 작을 초헌관에게 준다. 초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獻爵)하고 전작에게 준다.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린다. 대축은 올라간다. 대축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동향해 무릎을 꿇고 앉는다. 축문을 읽는다. 대축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복성공 신위전에 나간다. 사준은 먹을 들고 예제를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준다. 외봉작은 작을 받아 내봉작에게 준다. 내봉작은 작을 초헌관에게 준다. 초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준다.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린다. 다음에

종성공, 술성공, 아성공의 신위 앞에 나아가 복성공 신위에서와 같이 한다. 차례로 끝나면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행아헌례(行亞獻禮)

아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세수한다. 대성지성문선왕 준소에 나아가 서향해 선다. 대성지성문선왕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해 선다. 사준은 떡을 들고 양제(醯齊)를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준다. 외봉작은 작을 내봉작에게 준다. 내봉작은 작을 아헌관에게 준다. 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준다.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린다. 복성공 신위전에 나간다. 사준은 떡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준다. 외봉작은 작을 내봉작에게 준다. 내봉작은 작을 아헌관에게 준다. 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준다.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린다. 다음에 종성공, 술성공, 아성공의 신위 앞에 나아가 복성공 신위에서와 같이 한다. 차례로 끝나면 아헌관을 모시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행종헌례(行終獻禮)

종헌례의 절차는 아헌례와 같다.

○행분헌례(行分獻禮)

분헌관은 각각 알자와 찬인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세수한다. 분헌관은 각각 알자와 찬인의 인도를 받아 종향위(從享位) 준소에 나아가 서향해 선다. 종향위전에 나간다. 각 봉향과 봉로는 올라간다. 세 번 향을 피운다. 각 봉작과 전작은 올라간다. 각 사준은 떡을 들고 술을 따라 작을 봉작에게 준다. 봉작은 작을 분헌관에게 준다. 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준다. 전작은 잔을 신위 앞에 올린다. 동서종향위도 이같이 한다. 알자와 찬인은 각각 분헌관을 모시고 제자리로 가고 각 봉향·봉로·봉작·전작·전사는 제자리로 간다.

○행음복례(行飲福禮)

내외봉작은 올라간다.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로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은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 헌관의 좌측에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내봉작은 음복상



을 갖추어 외봉작에게 준다. 외봉작은 음복상을 초헌관 앞에 갖다 놓는다. 외봉작은 음복잔을 대축에게 준다. 대축은 음복잔을 초헌관에게 드린다. 초헌관은 잔을 받아 다 마신다. 대축은 빈 잔을 받아 잔놓는 자리에 놓는다. 대축은 조(俎)를 초헌관에게 드린다. 초헌관은 조를 외봉작에게 준다. 외봉작은 조를 받아 동계로 내려간다. 알자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헌관은 4배한다. 변과 두를 거둔다. 대축은 들어와 변과 두를 거둔다. 헌관 이하 유생 모두(參祀者 전원) 4배한다.

○ 행망요례(行望燎禮)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로 망요위(望燎位)에 나아가 북향해 선다. 대축이 대바구니를 가지고 축판과 폐백을 취하여 서계로 내려와 구덩이 앞에 놓는다. 축문과 폐백을 불사르고 흙으로 반쯤 매운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축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와 찬인은 각각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봉향과 봉로는 올라가서 주독을 덮고 문을 닫는다. 찬인은 대축과 제집사(譚執事)를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가 다같이 4배한다. 찬인은 대축과 제집사를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와 당하집례는 배위에 나아가 4배한다. 집례와 당하집례는 나간다. 이것으로 석전대제는 끝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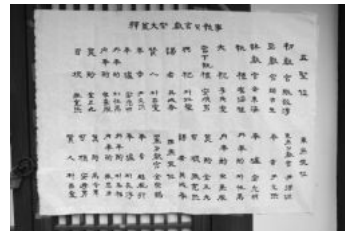
▶ 석전제 향사 진행사진



제향 준비



제향 준비



제향 준비



국민의례



전교 인사



시장 인사



제집사 입장



집례 및 제집사 사배



제집사 관세워 세수



집례 창홀



당하 집례 해설



헌관 제집사 정위치



개독



알자 초헌관전 청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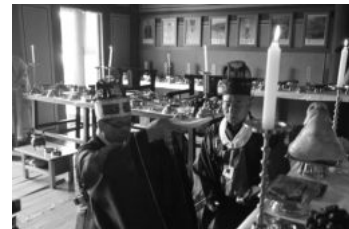
초헌관 관세



초헌관 삼상향



초헌관 삼상향



초헌관 헌폐



초헌관 감작



거먹작주



초헌관 헌작



대축관 독축



헌관집사 부복



참반원 부복



아헌관 관수세수



아헌관 헌작



중헌관 헌작



분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료례



폐독



예필



제집사 사배



집례 사배



참반원 음복

## 6. 흘기와 축문

용인향교의 석전제는 흘기에 의해 진행되며 제례순서는 성균관이나 전국의 모든 향교와 동일하고 아주 적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는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가 모두 동일한 조직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석전제 의식 또한 수천 년을 전승되며 정형화된 의례이기 때문이다.

용인향교 석전제 흘기는 다음과 같다.

### 용인향교 석전흘기(龍仁鄉校 釋奠笏記)

執禮以學案

獻官 및 諸執事呼名

開式辭(國民儀禮)

國旗에 對한 敬禮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典校人事

\*執禮及典祀謁者贊引 大祝及諸執事 階間拜位 北向四拜

\*집례와 전사알자와 찬인 대축과 제집사는 계간배위로 나아가 북향하여 사배하시오.

[鞠躬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盥水洗手 各就位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손을 씻고 각각 제자리에 나가시오.

\*典祀及奉香奉爐升 開扉 開櫝 啓蓋 點火

\*전사와 봉향 봉로는 오르시오. 문을 열고 주독을 열고 제기의 뚜껑을 열고 복지를 거두고 촛불을 켜시오.

\*奉香奉爐降復位

\*봉향과 봉로는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창홀(唱筭)

- \*謁者引各獻官入就位
- \*알자는 각 헌관을 모시어 제자리로 나가시오.
- \*贊引引儒生入就位
- \*찬인은 유생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나가시오.
- \*謁者引初獻官升自東階點視陳設訖環出
-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진설한 찬품들을 점검하여 둘러보고 나오시오.
- \*謁者請行事[謁者進初獻官之左白有司勤具請行事]
- \*알자는 행사하기를 청하시오.[알자는 초헌관의 왼편에서 삼가 행사하기를 청한다]
- \*獻官以下儒生在位者皆四拜[一般鞠躬]
- \*헌관 이하 참사자 전원은 사배하시오.  
[鞠躬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 행전폐례(行奠幣禮)

-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搯筭盥水悅手執筭]
-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 손을 씻게 하시오.
- \*引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北向跪
- \*대성지성문선왕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 \*大祝及奉香奉爐升[獻官跪而搯筭]
- \*대축과 봉향·봉로는 오르시오.
- \*三上香
- \*세 번 향을 피우시오.
- \*大祝以幣籠授初獻官
- \*대축은 폐비(幣籠)를 가져다 초헌관에게 주시오.
-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大祝奠于神位前[獻官執筭俯伏興平身]
- \*초헌관은 폐백을 받아 헌폐(獻幣)하고 대축에게 주시오. 대축은 폐비를 신위 앞에 올리시오.
- \*次詣復聖公神位前跪

\*다음은 복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三上香

\*세 번 향을 피우시오.

\*大祝以幣篚授初獻官

\*대축은 폐비를 가져다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하고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대축은 폐비를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宗聖公神位前跪[獻官跪而搢笏]

\*다음은 종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三上香

\*세 번 향을 피우시오.

\*大祝以幣篚授初獻官

\*대축은 폐비를 가져다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하고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대축은 폐비를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述聖公神位前跪[獻官跪而搢笏]

\*다음은 술성공 신위전에 나가시오.

\*三上香

\*세 번 향을 피우시오.

\*大祝以幣篚授初獻官

\*대축은 폐비를 가져다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하고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대축은 폐비를 신위 앞에 올리시오.

- \*次詣亞聖公神位前跪[獻官跪而搢笏]
- \*다음은 아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三上香
- \*세 번 향을 피우시오.
- \*大祝以幣篚授初獻官
- \*대축은 폐비를 가져다 초헌관에게 주시오.
-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하고 대축에게 주시오.
- \*大祝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 \*대축은 폐비를 신위 앞에 올리시오.
- \*初獻官以下降復位
- \*초헌관 이하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행초헌례(行初獻禮)

- \*謁者引初獻官詣大成至聖文宣王樽所 西向立
-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대성지성문선왕 준소에 나아가 서향해 서시오.
- \*引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 北向跪
- \*대성지성문선왕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內奉爵奠爵升
- \*내봉작과 전작은 오르시오.
- \*內奉爵奠爵入殿內內奉爵神門前南向立奠爵獻官之左東向立
- \*내봉작과 전작은 전내에 들어가 내봉작은 신문 앞에서 남향을 향해 서시오. 전작은 헌관의 왼편에서 동향을 서시오.
- \*司尊舉冪酌醴齊以爵授外奉爵
- \*사준은 떡(冪)을 들고 예제(醴齊)를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 \*外奉爵以爵授內奉爵
- \*외봉작은 작(爵)을 내봉작에게 주시오.
- \*內奉爵以爵授初獻官
- \*내봉작은 작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초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獻爵)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小退北向跪]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 \*大祝升
- \*대축은 오르시오.
- \*大祝詣獻官之左東向跪
- \*대축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讀祝文
- \*축문을 읽으시오.
- \*獻官以下皆興平身
- \*헌관이하 모두 일어나 평신하시오.
- \*大祝降復位
- \*대축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引詣復聖公神位前跪[獻官跪而搢笏]
- \*복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司尊舉幕酌禮齊以爵授外奉爵
- \*사준은 맥을 들고 예제를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 \*外奉爵以爵授內奉爵
- \*외봉작은 작을 받아 내봉작에게 주시오.
- \*內奉爵以爵授初獻官
- \*내봉작은 작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초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 \*次詣宗聖公神位前跪[獻官跪而搢笏]
- \*다음은 종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司尊舉幕酌禮齊以爵授外奉爵



- \*사준은 맥을 들고 예제를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 \*外奉爵以爵授內奉爵
- \*외봉작은 작을 받아 내봉작에게 주시오.
- \*內奉爵以爵授初獻官
- \*내봉작은 작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초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 \*次詣述聖公神位前跪[獻官跪而撝笏]
- \*다음은 술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司尊舉幕酌醴齊以爵授外奉爵
- \*사준은 맥을 들고 예제를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 \*外奉爵以爵授內奉爵
- \*외봉작은 작을 받아 내봉작에게 주시오.
- \*內奉爵以爵授初獻官
- \*내봉작은 작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초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 \*次詣亞聖公神位前跪[獻官跪而撝笏]
- \*다음은 아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司尊舉幕酌醴齊以爵授外奉爵
- \*사준은 맥을 들고 예제를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 \*外奉爵以爵授 內奉爵
- \*외봉작은 작을 받아 내봉작에게 주시오.
- \*內奉爵以爵授初獻官
- \*내봉작은 작을 초헌관에게 주시오다.

-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초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 \*謁者引初獻官降復位
-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 행아헌례(行亞獻禮)

-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搯笏盥水脫手執笏]
- \*아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로 나아가 손을 씻으시오.
- \*引詣大成至聖文宣王樽所 西向立
- \*대성지성문선왕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引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 北向跪[獻官跪而搯笏]
- \*대성지성문선왕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司尊舉冪爵醢齊以爵授外奉爵
- \*사준은 떡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 \*外奉爵以爵授內奉爵
- \*외봉작은 작을 내봉작에게 주시오.
- \*內奉爵以爵授亞獻官
- \*내봉작은 작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 \*引詣復聖公神位前跪[獻官跪而搯笏]
- \*복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司尊舉冪酌醢齊以爵授外奉爵
- \*사준은 떡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 \*外奉爵以爵授內奉爵
- \*외봉작은 작을 내봉작에게 주시오.
- \*內奉爵以爵授亞獻官
- \*내봉작은 작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 \*次詣宗聖公神位前跪[獻官跪而搢笏]
- \*다음은 종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司尊舉冪酌醴齊以爵授外奉爵
- \*사준은 떡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 \*外奉爵以爵授 內奉爵
- \*외봉작은 작을 내봉작에게 주시오.
- \*內奉爵以爵授亞獻官
- \*내봉작은 작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 \*次詣述聖公神位前跪[獻官跪而搢笏]
- \*다음은 술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司尊舉冪酌醴齊以爵授外奉爵
- \*사준은 떡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 \*外奉爵以爵授內奉爵
- \*외봉작은 작을 내봉작에게 주시오.
- \*內奉爵以爵授亞獻官
- \*내봉작은 작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亞聖公神位前跪[獻官跪而搢笏]

\*다음은 아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司尊舉罍酌盃齊以爵授外奉爵

\*사준은 맥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外奉爵以爵授內奉爵

\*외봉작은 작을 내봉작에게 주시오.

\*內奉爵以爵授亞獻官

\*내봉작은 작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謁者引亞獻官降復位

\*알자는 아헌관을 모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 행종헌례(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搢笏盥水悅手執笏]

\*종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로 나아가 손을 씻으시오.

\*引詣大成至聖文宣王樽所 西向立

\*대성지성문선왕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引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 北向跪

\*대성지성문선왕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司尊舉罍酌酒以爵授外奉爵

\*사준은 맥을 들고 술을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 \*外奉爵以爵授內奉爵
- \*외봉작은 작을 내봉작에게 주시오.
- \*內奉爵以爵授終獻官
- \*내봉작은 작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종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 \*引詣復聖公神位前跪[獻官跪而搢笏]
- \*복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司尊舉冪酌酒以爵授外奉爵
- \*사준은 맥을 들고 술을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 \*外奉爵以爵授內奉爵
- \*외봉작은 작을 내봉작에게 주시오.
- \*內奉爵以爵授終獻官
- \*내봉작은 작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 \*종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 \*次詣宗聖公神位前跪[獻官跪而搢笏]
- \*다음은 종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司尊舉冪酌酒以爵授外奉爵
- \*사준은 맥을 들고 술을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 \*外奉爵以爵授內奉爵
- \*외봉작은 작을 내봉작에게 주시오.
- \*內奉爵以爵授終獻官
- \*내봉작은 작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중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述聖公神位前跪[獻官跪而搢笏]

\*다음은 술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司尊舉鬯酌酒以爵授外奉爵

\*사준은 맥을 들고 술을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外奉爵以爵授內奉爵

\*외봉작은 작을 내봉작에게 주시오.

\*內奉爵以爵授終獻官

\*내봉작은 작을 중헌관에게 시오.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중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亞聖公神位前跪[獻官跪而搢笏]

\*다음은 아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司尊舉鬯酌盞齊以爵授外奉爵

\*사준은 맥을 들고 술을 따라 술잔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外奉爵以爵授內奉爵

\*외봉작은 작을 내봉작에게 주시오.

\*內奉爵以爵授終獻官

\*내봉작은 작을 중헌관에게 주시오.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중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謁者引亞獻官內外奉爵奠爵降復位

\*알자는 종헌관을 모시고 내외봉작 전작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행분헌례(行分獻禮)

\*謁者贊引各引分獻官詣盥洗位[搯笏盥水帨手執笏]

\*분헌관은 각각 알자와 찬인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으시오.

\*謁者贊引各引分獻官詣從享位樽所 西向立

\*분헌관은 각각 알자와 찬인의 인도를 받아 종향위(從享位) 준소에 나아가 서향해 서시오.

\*引詣從享位前跪[獻官跪而搯笏]

\*종향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各奉香奉爐升

\*각 봉향과 봉로는 오르시오.

\*三上香

\*세 번 향을 피우시오.

\*各奉爵奠爵昇而奠爵入殿內獻官之左右南北向立

\*각 봉작과 전작은 오르시오. 전작은 전내에 들어가 헌관 좌우에 남북을 향해 서시오.

\*各司尊舉罍酌酒以爵授奉爵

\*각 사준은 떡을 들고 술을 따라 작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分獻官

\*봉작은 작을 분헌관에게 주시오.

\*分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은 잔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東西從享位如儀

\*동서 종향위 의식은 앞과 같습니다.

\*謁者贊引各引分獻官各奉爵奠爵降復位

\*알자와 찬인은 각각 분헌관을 모시고 제자리로 가고 각 봉작 전작은 제자

리로 돌아가시오.

○ 행음복례(行飲福禮)

\*內外奉爵昇而內奉爵入殿內正前左側於飲福牀備

\*내외봉작은 오르시어 내봉작은 전내에 들어가 정전 좌측에서 음복상을 갖추시오.

\*謁者引初獻官詣飲復位 西向跪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로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으시오.

\*大祝詣飲福位獻官之左 北向跪

\*대축은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 헌관의 좌측에서 북향하여 꿇어앉으시오.

\*內奉爵飲福牀俱設授外奉爵

\*내봉작은 음복상을 갖추어 외봉작에게 주시오.

\*外奉爵飲福牀引詣初獻官之前

\*외봉작은 음복상을 초헌관 앞에 갖다 놓으시오.

\*外奉爵以爵福酒授大祝 大祝授初獻官

\*외봉작은 음복잔을 대축에게 주시오. 대축은 음복잔을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獻官受爵飲訖 大祝受虛爵復於坵

\*초헌관은 잔을 받아 다 마시오. 대축은 빈 잔을 받아 잔 놓는 자리에 놓으시오.

\*大祝以俎授初獻官 初獻官受俎以授外奉爵

\*대축은 조육을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초헌관은 조육을 외봉작에게 주시오.

\*外奉爵受俎降自東階出

\*외봉작은 조육을 받아 동계로 내려가시오.

\*謁者引初獻官降福位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獻官四拜

\*헌관은 4배하시오.

[鞠躬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徹籩豆

\*변과 두를 거두시오.



\*大祝升徹籩豆[各一少移]

\*대축은 들어와 변과 두를 거두시오.

\*獻官以下儒生在位者皆四拜[一般鞠躬]

\*헌관 이하 참사자 모두는 네 번 절하시오.

[鞠躬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 행망요례(行望燎禮)

\*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 北向跪[執禮帥贊者詣望燎位西向立]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로 망요위(望燎位)에 나아가 북향해 꿇어앉으시오.

\*大祝以篚取祝板及幣降自西階置於坎

\*대축은 대바구니를 가지고 축판과 폐백을 취하여 서계로 내려와 구덩이 앞에 놓으시오.

\*可燎置土半坎

\*불사르고 흙으로 반쯤 메우시오.

\*謁者引初獻官復位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大祝復位

\*대축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

\*알자는 초헌관 왼편에 나아가 예가 끝났음을 고하시오.

\*謁者贊引各引獻官及儒生次出

\*알자와 찬인은 각각 헌관 및 유생을 인도하여 나가시오.

\*奉香奉爐升 閉櫝閉扉

\*봉향과 봉로는 올라가서 주독을 덮고 문을 닫으시오.

\*贊引引大祝及諸執事俱復階間拜位 四拜

\*찬인은 대축과 제집사(諸執事)를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가 다 같이 사배하시오.

[鞠躬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贊引引大祝及諸執事以次出

\*찬인은 대축과 제집사를 인도하여 나가시오.

\*執禮復階間拜位 四拜

\*집례는 배위에 나아가 4배한다.

\*執禮以次出

\*집례는 나간다.

禮畢

○ 석전제 축문

<p>饗</p> <p>徽國公朱氏 我國十八賢</p> <p>尙</p>	<p>兗國復聖公顏氏 邠國宗聖公會氏 沂國術聖公孔氏</p> <p>鄒國亞聖公孟氏 以 先賢從享 豫國公程氏</p>	<p>欒盛庶品 式陳明薦 以 先師配享</p> <p>茲值誕辰 精禋是宜 謹以 牲幣醴齊</p> <p>大成至聖文宣王 伏以 道冠百王 萬世宗師</p> <p>龍仁市 器興區 廳長 張 敬 淳 敢昭告于</p>	<p>檀君紀元四千參百五拾年 歲次丁酉八月庚戌朔 二十七日丙子</p> <p>維</p> <p>釋奠大祭 祝文</p>
--------------------------------------	--	---	---

## 釋奠大祭 獻官 및 執事 薦望錄

癸巳年 孔紀 2554年

檀紀4336年(西紀 2003年)

五 聖 位		東 廡 從 位		
初 獻 官	李 起 昌	東廡分獻官	鄭 榮 載	趙 潤 元
亞 獻 官	李 容 萬	奉 香	朴 汝 熙	金 榮 鶴
終 獻 官	洪 在 九	奉 爐	昔 仁 甫	
執 禮	白 禹 鉉	外 奉 酌	金 成 福	朴 性 萬
大 祝	李 秉 穆	內 奉 酌	李 圭 玉	
當下執禮	朴 清 子	奠 酌	柳 千 熙	
典 祀	朴 址 榮	司 樽	鄭 文 教	
謁 者	李 龍 熙	謁 者	李 龍 熙	朴 性 萬
贊 人	李 大 熙			
奉 香	朴 汝 熙	西 廡 從 位		
奉 爐	昔 仁 甫	西廡分獻官	李 鍾 麒	朴 漢 哲
外 奉 酌	朴 性 萬	奉 香	洪 在 鎬	
內 奉 酌	李 圭 玉	奉 爐	朴 開 一	
奠 酌	柳 千 熙	外 奉 酌	金 鎮 赫	金 泰 洪
司 樽	鄭 文 教	內 奉 酌	金 昌 植	
盥 洗 位		奠 酌	鄭 德 教	
		司 樽	崔 光 燮	
		贊 人	李 大 熙	

癸巳年 孔紀 2555年

檀紀 4337年(西紀 2004年)

五 聖 位		東 廡 從 位		
初 獻 官	李 起 昌	東廡分獻官	鄭 榮 載	趙 潤 元
亞 獻 官	李 容 萬	奉 香	朴 汝 熙	金 榮 鶴
終 獻 官	洪 在 九	奉 爐	昔 仁 甫	
執 禮	白 禹 鉉	外 奉 酌	金 成 福	朴 性 萬
大 祝	李 秉 穆	內 奉 酌	李 圭 玉	
當下執禮	朴 清 子	奠 酌	柳 千 熙	
典 祀	朴 址 榮	司 樽	鄭 文 教	
謁 者	李 龍 熙	謁 者	李 龍 熙	朴 性 萬
贊 人	李 大 熙			
奉 香	朴 汝 熙	西 廡 從 位		
奉 爐	昔 仁 甫	西廡分獻官	李 鍾 麒	朴 漢 哲
外 奉 酌	朴 性 萬	奉 香	洪 在 鎬	
內 奉 酌	李 圭 玉	奉 爐	朴 開 一	
奠 酌	柳 千 熙	外 奉 酌	金 鎮 赫	金 泰 洪
司 樽	鄭 文 教	內 奉 酌	金 昌 植	
盥 洗 位		奠 酌	鄭 德 教	
		司 樽	崔 光 燮	
		贊 人	李 大 熙	

癸巳年 孔紀 2556年

檀紀4338年(西紀 2005年)

五 聖 位		東 廡 從 位		
初 獻 官	李 起 昌	東廡分獻官	李 鍾 麒	
亞 獻 官	洪 在 九	奉 香	朴 性 萬	
終 獻 官	鄭 榮 載	奉 爐	昔 仁 甫	
執 禮	朴 址 榮	外 奉 酌	金 鎮 赫	
大 祝	李 秉 穆	內 奉 酌	李 圭 玉	
當下執禮	趙 鹿 榮	奠 酌	朴 開 一	
典 祀	白 禹 鉉	司 樽	鄭 文 教	
謁 者	李 龍 熙	謁 者	李 龍 熙	
贊 人	李 大 熙			
奉 香	朴 性 萬	西 廡 從 位		
奉 爐	昔 仁 甫	西廡分獻官	朴 漢 哲	
外 奉 酌	金 鎮 赫	奉 香	洪 在 鎬	
內 奉 酌	李 圭 玉	奉 爐	金 泰 洪	
奠 酌	朴 開 一	外 奉 酌	金 成 福	
司 樽	鄭 文 教	內 奉 酌	韓 建 植	
盥 洗 位	都 淑 姬	奠 酌	孔 重 根	
		司 樽	崔 光 燮	
		贊 人	李 大 熙	

癸巳年 孔紀 2557年

檀紀 4339年(西紀 2006年)

五 聖 位		東 廡 從 位		
初 獻 官	李 起 昌	東廡分獻官	趙 潤 元	
亞 獻 官	李 啓 哲	奉 香	朴 性 萬	
終 獻 官	鄭 榮 載	奉 爐	昔 仁 甫	
執 禮	朴 址 榮	外 奉 酌	金 鎮 赫	
大 祝	李 秉 穆	內 奉 酌	金 在 喆	
當下執禮	趙 鹿 榮	奠 酌	朴 開 一	
典 祀	白 禹 鉉	司 樽	鄭 文 教	
謁 者	李 龍 熙	謁 者	李 龍 熙	
贊 人	申 春 雨			
奉 香	朴 性 萬	西 廡 從 位		
奉 爐	昔 仁 甫	西廡分獻官	朴 漢 哲	
外 奉 酌	金 鎮 赫	奉 香	朴 汝 熙	
內 奉 酌	金 在 喆	奉 爐	金 泰 洪	
奠 酌	朴 開 一	外 奉 酌	金 成 福	
司 樽	鄭 文 教	內 奉 酌	柳 千 熙	
盥 洗 位	都 淑 姬	奠 酌	孔 重 根	
		司 樽	韓 光 錫	
		贊 人	申 春 雨	

釋奠大祭 獻官 및 執事 薦望錄

癸巳年 孔紀 2558年

檀紀4340年(西紀 2007年)

五 聖 位		東 廡 從 位		
初 獻 官	李 起 昌	東廡分獻官	朴 漢 哲	
亞 獻 官	金 東 海	奉 香	金 榮 鶴	
終 獻 官	任 圭 宰	奉 爐	昔 仁 甫	
執 禮	朴 址 榮	外 奉 酌	金 鎭 赫	
大 祝	李 鍾 麒	內 奉 酌	金 在 喆	
當 下 執 禮	趙 鹿 榮	奠 酌	朴 開 一	
典 祀	洪 榮 杓	司 樽	吳 成 春	
謁 者	朴 性 萬	謁 者	朴 性 萬	
贊 人	洪 在 鎬			
奉 香	金 榮 鶴	西 廡 從 位		
奉 爐	昔 仁 甫	西廡分獻官	趙 潤 元	
外 奉 酌	金 鎭 赫	奉 香	李 鍾 銀	
內 奉 酌	金 在 喆	奉 爐	金 泰 洪	
奠 酌	朴 開 一	外 奉 酌	金 成 福	
司 樽	吳 成 春	內 奉 酌	韓 建 植	
盥 洗 位		奠 酌	孔 重 根	
		司 樽	韓 光 錫	
		贊 人	洪 在 鎬	

癸巳年 孔紀 2559年

檀紀 4341年(西紀 2008年)

五 聖 位		東 廡 從 位		
初 獻 官	徐 珽 碩	東廡分獻官	趙 潤 元	
亞 獻 官	李 起 昌	奉 香	朴 性 萬	
終 獻 官	鄭 榮 載	奉 爐	昔 仁 甫	
執 禮	李 秉 穆	外 奉 酌	金 榮 鶴	
大 祝	李 鍾 麒	內 奉 酌	洪 在 鎬	
當 下 執 禮	趙 鹿 榮	奠 酌	朴 開 一	
典 祀	朴 址 榮	司 樽	鄭 文 教	
謁 者	李 龍 熙	謁 者	李 龍 熙	
贊 人	李 大 熙			
奉 香	朴 性 萬	西 廡 從 位		
奉 爐	昔 仁 甫	西廡分獻官	金 鎭 赫	
外 奉 酌	金 榮 鶴	奉 香	李 鍾 銀	
內 奉 酌	洪 在 鎬	奉 爐	金 泰 洪	
奠 酌	朴 開 一	外 奉 酌	金 成 福	
司 樽	鄭 文 教	內 奉 酌	韓 建 植	
盥 洗 位		奠 酌	金 明 福	
		司 樽	崔 光 燮	
		贊 人	李 大 熙	

釋奠大祭 獻官 및 執事 薦望錄

癸巳年 孔紀 2560年

檀紀4342年(西紀 2009年)

五 聖 位		東 廡 從 位		
初 獻 官	徐 珽 碩	東廡分獻官	趙 潤 元	
亞 獻 官	朴 址 榮	奉 香	朴 性 萬	
終 獻 官	鄭 榮 載	奉 爐	昔 仁 甫	
執 禮	李 秉 穆	外 奉 酌	金 榮 鶴	
大 祝	李 鍾 麒	內 奉 酌	洪 在 鎬	
當下執禮	趙 鹿 榮	奠 酌	朴 開 一	
典 祀	白 禹 鉉	司 樽	鄭 文 教	
謁 者	李 龍 熙	謁 者	李 龍 熙	
贊 人	李 大 熙			
奉 香	朴 性 萬	西 廡 從 位		
奉 爐	昔 仁 甫	西廡分獻官	朴 漢 哲	
外 奉 酌	金 榮 鶴	奉 香	李 鍾 銀	
內 奉 酌	洪 在 鎬	奉 爐	吳 成 春	
奠 酌	朴 開 一	外 奉 酌	孔 重 根	
司 樽	鄭 文 教	內 奉 酌	韓 建 植	
盥 洗 位		奠 酌	金 明 福	
		司 樽	崔 光 燮	
		贊 人	李 大 熙	

癸巳年 孔紀 2561年

檀紀 4343年(西紀 2010年)

五 聖 位		東 廡 從 位		
初 獻 官	金 學 奎	東廡分獻官	李 亮 求	
亞 獻 官	李 鍾 麒	奉 香	朴 性 萬	
終 獻 官	朴 汝 熙	奉 爐	昔 仁 甫	
執 禮	白 禹 鉉	外 奉 酌	金 榮 鶴	
大 祝	李 秉 穆	內 奉 酌	洪 在 鎬	
當下執禮	李 建 求	奠 酌	朴 開 一	
典 祀	朴 址 榮	司 樽	金 壯 吉	
謁 者	李 龍 熙	謁 者	李 龍 熙	
贊 人	李 大 熙			
奉 香	朴 性 萬	西 廡 從 位		
奉 爐	昔 仁 甫	西廡分獻官	朴 漢 哲	
外 奉 酌	金 榮 鶴	奉 香	李 鍾 銀	
內 奉 酌	洪 在 鎬	奉 爐	吳 成 春	
奠 酌	朴 開 一	外 奉 酌	孔 重 根	
司 樽	吳 成 春	內 奉 酌	韓 建 植	
盥 洗 位		奠 酌	金 明 福	
		司 樽	李 成 熙	
		贊 人	李 大 熙	

釋奠大祭 獻官 및 執事 薦望錄

癸巳年 孔紀 2562年

檀紀4344年(西紀 2011年)

五 聖 位		東 廡 從 位		
初 獻 官	李 起 昌	東廡分獻官	朴 漢 哲	
亞 獻 官	李 鍾 麒	奉 香	朴 性 萬	
終 獻 官	趙 潤 元	奉 爐	昔 仁 甫	
執 禮	白 禹 鉉	外 奉 酌	金 榮 鶴	
大 祝	李 秉 穆	內 奉 酌	洪 在 鎬	
當 下 執 禮	李 建 述	奠 酌	朴 開 一	
典 祀	朴 址 榮	司 樽	鄭 文 教	
謁 者	李 龍 熙	謁 者	李 龍 熙	
贊 人	李 大 熙			
奉 香	朴 性 萬	西 廡 從 位		
奉 爐	昔 仁 甫	西廡分獻官	朴 汝 熙	
外 奉 酌	金 榮 鶴	奉 香	李 鍾 銀	
內 奉 酌	洪 在 鎬	奉 爐	吳 成 春	
奠 酌	朴 開 一	外 奉 酌	孔 重 根	
司 樽	鄭 文 教	內 奉 酌	韓 建 植	
盥 洗 位		奠 酌	金 明 福	
		司 樽	韓 光 錫	
		贊 人	李 大 熙	

癸巳年 孔紀 2563年

檀紀 4345年(西紀 2012年)

五 聖 位		東 廡 從 位		
初 獻 官	朴 址 榮	東廡分獻官	李 明 烈	
亞 獻 官	李 起 昌	奉 香	李 鍾 銀	
終 獻 官	李 鍾 麒	奉 爐	昔 仁 甫	
執 禮	李 根 求	外 奉 酌	金 榮 鶴	
大 祝	李 秉 穆	內 奉 酌	洪 在 鎬	
當 下 執 禮	全 英 子	奠 酌	朴 開 一	
典 祀	金 昌 植	司 樽	鄭 文 教	
謁 者	吳 成 春	謁 者	吳 成 春	
贊 人	李 大 熙			
奉 香	李 鍾 銀	西 廡 從 位		
奉 爐	昔 仁 甫	西廡分獻官	朴 漢 哲	
外 奉 酌	金 榮 鶴	奉 香	崔 光 燮	
內 奉 酌	洪 在 鎬	奉 爐	朴 基 福	
奠 酌	朴 開 一	外 奉 酌	孔 重 根	
司 樽	鄭 文 教	內 奉 酌	韓 建 植	
盥 洗 位		奠 酌	安 孝 男	
		司 樽	金 泰 洪	
		贊 人	李 大 熙	

## 釋奠大祭 獻官 및 執事 薦望錄

癸巳年 孔紀 2564年

檀紀4346年(西紀 2013年)

五 聖 位		東 廡 從 位		
初 獻 官	朴 址 榮	東廡分獻官	朴 性 萬	
亞 獻 官	李 鍾 麒	奉 香	李 鍾 銀	
終 獻 官	朴 漢 哲	奉 爐	昔 仁 甫	
執 禮	李 根 求	外 奉 酌	金 榮 鶴	
大 祝	李 秉 穆	內 奉 酌	尹 得 源	
當下執禮	安 順 男	奠 酌	朴 開 一	
典 祀	金 昌 植	司 樽	韓 建 植	
謁 者	吳 成 春	謁 者	吳 成 春	
贊 人	崔 海 植			
奉 香	李 鍾 銀	西 廡 從 位		
奉 爐	昔 仁 甫	西廡分獻官	李 大 熙	
外 奉 酌	金 榮 鶴	奉 香	孔 重 根	
內 奉 酌	尹 得 源	奉 爐	朴 基 福	
奠 酌	朴 開 一	外 奉 酌	張 基 鍾	
司 樽	韓 建 植	內 奉 酌	朴 昌 燮	
盥 洗 位		奠 酌	安 孝 男	
		司 樽	尹 文 熙	
		贊 人	崔 海 植	

癸巳年 孔紀 2565年

檀紀 4347年(西紀 2014年)

五 聖 位		東 廡 從 位		
初 獻 官	李 亮 求	東廡分獻官	金 正 九	
亞 獻 官	李 秉 穆	奉 香	李 鍾 銀	
終 獻 官	한 상 영	奉 爐	昔 仁 甫	
執 禮	李 根 求	外 奉 酌	金 榮 鶴	
大 祝	崔 海 植	內 奉 酌	尹 得 源	
當下執禮	安 順 男	奠 酌	朴 開 一	
典 祀	朴 址 榮	司 樽	張 寬 熙	
謁 者	吳 成 春	謁 者	吳 成 春	
贊 人				
奉 香	李 鍾 銀	西 廡 從 位		
奉 爐	昔 仁 甫	西廡分獻官	金 東 海	
外 奉 酌	金 榮 鶴	奉 香	孔 重 根	
內 奉 酌	尹 得 源	奉 爐	朴 基 福	
奠 酌	朴 開 一	外 奉 酌	安 光 明	
司 樽	張 寬 熙	內 奉 酌	朴 昌 燮	
盥 洗 位		奠 酌	安 孝 男	
		司 樽	禹 今 茸	
		贊 人		



## 釋奠大祭 獻官 및 執事 薦望錄

癸巳年 孔紀 2566年

檀紀4348年(西紀 2015年)

五 聖 位		東 廡 從 位		
初 獻 官	한 상 영	東廡分獻官	朴 開 一	
亞 獻 官	李 壽 吉	奉 香	李 鍾 銀	
終 獻 官	朴 漢 哲	奉 爐	朴 性 萬	
執 禮	李 根 求	外 奉 酌	金 榮 鶴	
大 祝	李 英 燮	內 奉 酌	尹 得 源	
當下執禮	安 順 男	奠 酌	金 正 九	
典 祀	朴 址 榮	司 樽	張 寬 熙	
謁 者	吳 成 春	謁 者	吳 成 春	
贊 人	韓 建 植			
奉 香	李 鍾 銀	西 廡 從 位		
奉 爐	朴 性 萬	西廡分獻官	金 東 海	
外 奉 酌	金 榮 鶴	奉 香	朴 長 淳	
內 奉 酌	尹 得 源	奉 爐	朴 基 福	
奠 酌	金 正 九	外 奉 酌	安 光 明	
司 樽	張 寬 熙	內 奉 酌	趙 鳳 行	
盥 洗 位		奠 酌	安 孝 男	
		司 樽	禹 今 茸	
		贊 人	韓 建 植	

癸巳年 孔紀 2567年

檀紀 4349年(西紀 2016年)

五 聖 位		東 廡 從 位		
初 獻 官	尹 承 鎬	東廡分獻官	李 鍾 銀	
亞 獻 官	李 明 烈	奉 香	安 金 鏞	
終 獻 官	朴 開 一	奉 爐	朴 性 萬	
執 禮	李 根 求	外 奉 酌	金 榮 鶴	
大 祝	李 英 燮	內 奉 酌	尹 得 源	
當下執禮	安 順 男	奠 酌	金 正 九	
典 祀	朴 址 榮	司 樽	張 寬 熙	
謁 者	吳 成 春	謁 者	吳 成 春	
贊 人	朴 昌 燮			
奉 香	安 金 鏞	西 廡 從 位		
奉 爐	朴 性 萬	西廡分獻官	金 東 海	
外 奉 酌	金 榮 鶴	奉 香	尹 文 熙	
內 奉 酌	尹 得 源	奉 爐	朴 基 福	
奠 酌	金 正 九	外 奉 酌	安 光 明	
司 樽	張 寬 熙	內 奉 酌	張 恩 周	
盥 洗 位		奠 酌	安 孝 男	
		司 樽	宋 熹 鳳	
		贊 人	朴 昌 燮	

釋奠大祭 獻官 및 執事 薦望錄

癸巳年 孔紀 2568年

檀紀4350年(西紀 2017年)

五 聖 位		東 廡 從 位		
初 獻 官	張 敬 淳	東廡分獻官	尹 得 源	
亞 獻 官	趙 吉 生	奉 香	尹 文 熙	
終 獻 官	金 東 海	奉 爐	安 光 明	
執 禮	崔 海 植	外 奉 酌	朴 性 萬	
大 祝	李 英 燮	內 奉 酌	宋 熹 鳳	
當下執禮	安 順 男	奠 酌	金 正 九	
典 祀	朴 址 榮	司 樽	張 寬 熙	
謁 者	吳 成 春	謁 者	吳 成 春	
贊 人	朴 昌 燮			
奉 香	尹 文 熙	西 廡 從 位		
奉 爐	安 光 明	西廡分獻官	金 榮 鶴	
外 奉 酌	朴 性 萬	奉 香	趙 鳳 行	
內 奉 酌	宋 熹 鳳	奉 爐	朴 長 淳	
奠 酌	金 正 九	外 奉 酌	朴 基 福	
司 樽	張 寬 熙	內 奉 酌	張 恩 周	
盥 洗 位		奠 酌	禹 今 茸	
		司 樽	安 孝 男	
		贊 人	朴 昌 燮	

## 제2절 삭망례(朔望禮)

삭망(朔望)은 음력으로 초하루와 보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삭망례는 전국의 모든 향교가 삭망일 아침에 대성전내외를 살피고 변고유무(變故有無)를 확인하고 성현(聖賢)의 혼령에게 문안인사를 올리는 의식이다. 예란 너무 잦으면 번거롭고 너무 멀면 소홀해진다하여 잣지도 않고 멀지도 않는 보름사이를 중심으로 후학들이 성현을 추모하는 의식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삭망례의 주관자는 향교의 전교로서 관복을 착용하고 홀을 잡으며 유림은 유건도포를 갖추어 전교의 통솔에 따른다. 집례의 창홀에 따라 신위전에 나아가 엄숙하고 경건하게 분향(焚香)을 올리고 곡배로서 사배(四拜)하여 성현을 추모하는 의식이다.



삭망분향진설



분향례

### ○ 분향봉심(焚香奉審) 절차

- ① 헌관(獻官)과 집사(執事)와 유생(儒生)들이 의관을 갖추고 명륜당(明倫堂)에서 대기한다.

- ② 시간이 되면 찬자(贊者)가 북을 쳐서 행사를 알린다.
- ③ 먼저 찬인(贊引)은 집례(執禮)를 인도하여 삼문(三門)안으로 들어가 계간배위(階間拜位)에 올라 사배(四拜)하고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 손을 씻고 집례는 계간(階間)으로 올라가 중문앞 서쪽 기둥 앞에 동향으로 선다.
- ④ 찬자는 제집사를 인도하여 계간으로 올라가 사배하고 관세위로 가서 손을 씻고 각자의 자리로 가서 북쪽을 향해 선다.
- ⑤ 헌관은 동쪽에서 쪽을 향해 선다.
- ⑥ 모든 유생들은 배석(拜席) 위에 북쪽을 향해 선다.
- ⑦ 헌관은 찬인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로 가서 손을 씻고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신위전(神位前)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 ⑧ 봉향(奉香)과 봉로(奉爐)도 헌관의 뒤를 따라 들어가 봉향은 헌관 오른쪽에서 서쪽을 향해 꿇어앉고 봉로는 헌관의 왼쪽에서 동쪽을 향해 꿇어앉는다.
- ⑨ 삼상향(三上香)시에는 봉향이 향합(香盒)을 받들고 봉로는 향로를 받들어 헌관(獻官)이 향을 세 번 집어 향로에 불사른다.
- ⑩ 봉향 봉로는 각각 신위전 제자리에 올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 ⑪ 대축(大祝)은 오르면서 헌관 왼쪽에 동향으로 꿇어앉고 헌관이하 모든 유생들은 부복(俯伏)하며 대축은 독축(讀祝)한다.(告由奉審 時에 限하여)
- ⑫ 헌관이하 모든 유생은 평신(平身)한다.
- ⑬ 대축은 축판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고 본래자리로 돌아간다.
- ⑭ 찬인은 헌관을 인도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 ⑮ 봉심관(奉審官) 이하 모든 유생은 사배한다.
- ⑯ 찬인은 헌관을 인도하여 출문(出門)한다.
- ⑰ 모든 유생은 차례대로 나간다.

#### 봉심 흘기(奉審笏記)

○ 執禮 先就 階間拜位

집례는 먼저 계간배위에 나아간다.

창홀 唱笏

○贊引引奉審官及奉香奉爐入階間拜位立

찬인은 봉심관과 봉향 봉로를 안내하여 계간배위에 서시오.

○奉審官及奉香奉爐皆四拜

봉심관과 봉향 봉로는 모두 사배하시오.

俯伏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奉審官及奉香奉爐詣盥洗位脫手各就位

봉심관과 봉향 봉로는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각 위치에 서시오.

○贊引引詣奉審官正位神位前北向俯伏

봉심관은 찬인의 인도로 정위 신위전에 북향하여 부복하시오.

○奉香奉爐陞

봉향 봉로는 오르시오.

○奉香奉香盒奉審官之右跪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나아가 봉심관의 오른쪽에 꿇어앉으시오.

○奉爐奉香爐奉審官之左跪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나아가 봉심관의 왼쪽에 꿇어앉으시오.

○奉審官 三上香 俯伏興

봉심관은 향을 세 번 올리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贊引引詣奉審官及奉香奉爐降拜位西向立

찬인은 봉심관과 봉향 봉로를 인도하여 배위에 내려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奉審官以下皆四拜

봉심관이하 모두 사배하시오.

俯伏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奉審官以下次出

봉심관이하 모두 차례대로 나가시오.

### 제3절 고유제(告由祭)

고유제(告由祭)는 어떤 일에 대한 사유를 신령에게 고하는 제사이다. 국가나 왕실, 사회, 가정에서 일상으로 행하던 의례의 하나로서, 장소와 절차는 사유와 숭배 대상에 따라 달랐다. 『국조오례의서례』 「길례」 변사(辨祀)에는 기고(祈告)가 있으며, 잡사(雜祀)는 상례(常例)가 있다고 하였다. 가례에는 집을 출입할 때 고유하거나 추증과 같은 집안의 일을 고유하는 제사가 있다.

국가에서는 국가나 왕실에 크고 작은 정치적·사회적·일생 의례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종묘와 사직에 고유하는 일이 당연하였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길례(吉禮)」 변사(辨祀)에서는 기고(祈告)가 있으며, 잡사(雜祀)는 상례(常例)가 있다고 하였다. 기고 대상은 사직·종묘·풍운뇌우·악해독·명산대천·우사 등이다. 이 기고는 비정기 제사로서, 수한(水旱)·질역(疾疫)·충황(蟲蝗)·전벌(戰伐)이 있으면 기(祈)하고, 봉책(封冊)·관혼(冠婚) 등 모든 국가의 큰일에는 고(告)하였다. 사당을 보수할 때에도 먼저 사유를 고하고서 이환안(移還安)하며, 산릉(山陵) 제사도 이와 같았다.

왕실 고유제의 사유는 이외에도 왕자녀의 탄생과 특별한 생일 등 각종 일생의례도 해당되었다. 특별한 생일이라는 것은 41세, 51세, 회갑, 칠순 등을 가리킨다. 또한 국왕의 승하 등 왕실 가족의 죽음이나 질환에서의 쾌유 등에도 고유를 하였다.

고유 대상은 위에 열거된 단사(壇社) 외에, 마조단(馬祖壇), 숭렬전(崇烈殿), 계성사(啓聖祠), 사현사(四賢祠), 봉상시신실, 원구단, 성황, 저경궁 등 매우 많다. 이곳에서는 주로 수리나 이진, 위패의 조성과 매안, 실화 등의 사유로 신주를 이환안(移還安)할 때 고유가 행해졌다. 또 해신에게 세곡을 운반할 때 무사하기를 빌거나, 도성의 주맥을 보토했을 때, 태실을 가봉할 때, 선원전을 증건할 때 등에도 이루어졌다. 국장에는 재궁 가칠을 시작하거나 상장에 필요한 재목을 벌채할 때 등 많은 절차에서 고유가 이루어졌다.

찬실준뢰(饗實樽罍)는 『국조오례의서례』에 사직정배위기고(社稷正配位祈告), 문소전과 의묘의 선고사유, 산릉의 선고사유 등이 보인다. 사직에는 2변(籩) 2두(豆)이며, 보궤(篚) 각 둘과 조(俎) 하나, 작(爵) 하나이다. 문소전 등에는 소박계(小朴桂) 4기, 홍백산자 5기, 다식 5기, 각색실과 6기 등 4줄로 차려진다. 산릉에는 약과 4기, 각색 실과와 나물 5기, 각색당과

떡 5기, 반갱(飯羹)과 시저 3기, 작 하나 등 5줄이다.



헌관집사 배례



관세



봉향



삼상향



독축



차출

고유문은 보통 1구에 4자씩, 4구(句)로 구성되었다. 국가체제 내의 모든 사당과 제단의 고유문은 정부에서 직접 지어 내려보냈다. 그 작성은 보통 홍문관·예문관·규장각 등 소속의 지제교가 담당하였다.

가례에서의 고유는 ‘일이 있으면 고한다[유사즉고(有事則告)].’고 하여, 집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사당의 조상에게 고하였다. 이는 보통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고하는 의례이다. 다른 하나는 제사 형식을 갖춰 고하는 의례이다. 후자에서 중시된 일이 추증(追贈), 적장자의 탄생, 지방 관리로 나갈 때, 돌아가신 부모의 생신, 관례와 혼례, 집안의 소중한 일을 자손에게 물려줄 때, 사당을 수리할 때, 이사할 때, 새 집에 모실 때 등이다. 추증 때에는 분황(焚黃)하는 의절이 포함되었다.

사당의 고유제는 차리는 제수가 햇과일을 담은 큰 소반과 술, 차 등이다. 제고비(諸考妣)를 모두 모셔놓고 행한다. 그 차례는 강신(降神)하고 분향재배한 뒤에, 참신(參神) 하고, 술을 따라 올리고서 재배하고 축문을 읽고, 사신(辭神)한다.

용인향교에서 행하는 고유제의 절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제수로 과일 등을 진설하지 않고 제주를 헌작하는 정도로 행한다. 용인향교의 고유제 때 사용하는 흘기의 서식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고유홀기(告由笏記)**

○執禮 先就 階間拜位訖盥水帨手就位

집례는 먼저 계간배위로 나아가 손을 씻고 제자리로 나아간다.

**창홀 唱笏**

○贊引引告由官及大祝奉香奉爐入階間拜位 西向立

찬인은 고유관과 대축 봉향 봉로를 안내하여 계간배위에 서쪽을 향해 서시오.

○告由官及奉香奉爐皆四拜

고유관과 봉향 봉로는 모두 사배하시오.

俯伏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告由官及諸執事盥水位帨手各就位

고유관과 제집사는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각 위치에 서시오.

○贊引引詣告由官正位神位前北向俯伏

고유관은 찬인의 인도로 정위 신위전에 북향하여 부복하시오.

○奉香奉爐陞

봉향 봉로는 오르시오.

○奉香奉香盒告由官之右跪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나아가 고유관의 오른쪽에 꿇어앉으시오.

○奉爐奉香爐告由官之左跪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나아가 고유관의 왼쪽에 꿇어앉으시오.

○奉審官 三上香 俯伏興

봉심관은 향을 세 번 올리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奉香奉爐各奠于神位前故處降復位

봉향봉로는 각 신위전 제자리에 올리고 본래자리로 가시오.



○大祝陞告由官之左東向跪

대축은 올라가 고유관의 왼편에 동향하여 꿇어앉으시오.

○告由官以下皆俯伏

고유관이하 모두 부복하시오.

○大祝 讀祝

대축은 축문을 읽으시오.

○告由官以下皆興平身

고유관 이하 모두 일어나 평신하시오.

○大祝還置祝板於故處降復位

대축은 축판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고 본래자리로 가시오.

○贊引引告由官降復位西向立

고유관은 찬인의 인도로 제자리로 돌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告由官以下諸執事皆四拜

고유관이하 모든 집사는 사배하시오.

俯伏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贊引引詣告由官諸執事以次出

찬인은 고유관과 제집사를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가시오.

耆老宴 祝文

維

檀君紀元四千參百五拾年 歲次丁酉九月庚辰朔 三十一日辛卯  
儒道會長 金東海 敢昭告于

大成至聖文宣王 神位前 伏以

世態變遷	光復以後	物質爲主	道義輕視
悖倫恣行	今纔大悟	依於儒教	人倫回復
奉受聖訓	欲明前途	耆老宴會	行事爲通
人性欲訂	參拜聖前	焚香四拜	伏惟
尊靈	嘉納其誠	惠施蔭助	茲敢
虔告謹告			

## 제4절 성년례(成年禮)

성년례는 사례(四禮)인 관혼상제(冠婚喪祭) 가운데 첫 번째 통과례(通過儀禮)로서 남녀가 출생하여 성년이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절차이다. 전통사회의 관례(冠禮)와 계례(笄禮)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다.

남자는 15-20세 사이에 성년이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땅아 내렸던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관(冠:모자)을 세 번 바꾸어 씌우고, 모자에 맞는 어른의 의복을 세 번 바꾸어 입힌다. 여자는 정혼(定婚)이 되면 혼인 3일전에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계(笄:비녀)를 꽂는다 하여 ‘계례(笄禮)’라 하였다. 관례와 계례의 참 뜻은 겉모양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 예로서 장차 아들로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게 하고, 아우로서 동생의 도리를 다하게 하며, 신하로서 신하의 할 일을 다 하게 하고, 젊은 사람으로서 젊은이의 도리를 다하게 하려는 데에 뜻이 있다.

### 1. 전통시대의 성년례

#### 1) 관례·계례의 유래

우리나라에 유교식 관례가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예교(禮敎)가 들어옴에 따라 전래된 것으로 본다. 고려의 4대 임금인 966년(광종 16)에 “왕자에게 원복(元服:관례의 옷)을 입히고 태자(太子)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관례의 처음 기록으로 보인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관례와 계례로 정착했으나 갑오경장 전후로 개화사상이 퍼지면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1895년(고종 32) 단발령이 내린 후로는 관례의식이 사라졌다.

이후 ‘각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973년 4월 20일에 제1회 성년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으나 4월이 적당하지 않아 1975년 5월 6일로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1985년부터는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매년 5월 셋 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개정하여 만 20세가 되는 젊은이에게 성년례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 2) 관례·계례의 요건과 시기

남자는 15-20세 무렵 『효경』이나 『논어』에 능통하고 예를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후에 좋은 달, 길한 날[吉日]을 점쳐서 행하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관례를 하는 그 해의 첫 달[正月] 중에 길일을 택해서 행하였다.

여자는 정혼이 되면 혼례식 3일전에 계례를 한다. 15세가 되도록 정혼이 안 되면 친인척의 부녀자 중에서 현명하고 예를 아는 사람을 빈으로 모시는데 계례일 3일 전에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 청한다. 계례를 한 후에 비녀를 뽑고 올렸던 머리를 다시 내린다.

성년이 되는 사람이나 그 부모에게 부모·조부모·백숙부모·형제자매의 이상의 상사(喪事)가 없어야 비로소 관례를 행할 수 있다. 4촌 형제·자매의 상사(喪事)라도 아직 장사를 지내지 못했을 때에는 관례를 할 수 없었다.

천자(天子)나 제후(諸侯), 왕세자는 12세가 되면 관례를 할 수 있었다.

## 3) 관례·계례의 효과

성년이 되어 관례와 계례를 치루면 어른으로써의 각종 대우를 받는데, 우선 말씨도 ‘해라’체에서 ‘하계’체로 바뀐다. 호칭에서도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고 자(字)나 당호(堂號)를 부른다. 서로 인사를 할 때에도 답배(答拜)한다. 일을 하고 난뒤 받는 노임도 성년이 되면 반품삿에서 온품삿을 받는다.

## 4) 관례·계례의 구성인원 및 복식

관례와 계례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빈(賓): 관례를 주관하는 주례자를 말하며, 학문과 덕망이 있고 예를 잘 아는 사람으로 모신다.
- \* 찬자(贊者): 빈의 수행자로서 예를 행할 때 보조하는 사람
- \* 집사(執事): 관례 절차의 진행을 도와주는 사람
- \* 계빈(戒賓): 계례를 주관할 주례자. 나이든 부인으로 현숙하고 예를 잘 아는 사람
- \* 시자(侍者): 계례를 행할 때 계빈을 도와주는 사람
- \* 집례(執禮): 관례·계례의 순서인 홀기를 읽는 사람

관례에서 착용하는 복식은 삼가례(三加禮) 때마다 다른데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시가례 의관(평상복): 치포관(緇布冠)·복건(服巾)·심의(深衣)·대대(大帶)·리(履)

재가례 의관(출입복): 모자(갓)·조삼(皂衫)·혁대(革帶)·혜(鞋)

삼가례 의관(예 복): 복두(幘頭)·난삼(爛衫)·혁대(革帶)·목화(木靴)

계례에서 착용하는 복장은 용잠(龍簪)·화관(花冠)·배자(褙子)·당의(唐衣) 등이다.

### 5) 관례·계례의 절차

전통사회에서의 관례와 계례의 절차는 제일 먼저 사당(祠堂)에 고유(告由)하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이후의 절차는 다르게 행해진다. 우선 남자의 관례에서 행하는 절차를 정리해 보인다.

① 주인고우사당(主人告于祠堂): 3일 전에 조상의 위패(位牌)를 모신 사당에 고유한다.

② 계빈(戒賓): 빈이 될 사람에게 계 한다.

관례를 주관하는 주례자로서 주인의 친구나 관자의 스승 가운데 학문과 덕망이 있는 어른을 큰 손님으로 모신다.

③ 전일일숙빈(前一日宿賓): 하루 전날 빈이 와서 묵는다.

④ 진설(陳設): 관례를 행할 장소를 진설하고 대야, 수건 등 기구를 배설한다.

⑤ 진관복(進冠服): 관(冠)과 의복, 신[履] 등을 정한 위치에 진설한다. 의복, 빗과 망건 등은 모두 방 가운데 탁자위에, 술 주전자와 잔과 소반을 의복 위쪽에, 복두, 건, 관등은 소반에 담아 깨끗한 수건으로 덮고 서쪽 계단 아래 탁자에 진열하고 집사자가 지킨다.

⑥ 주인이하서립(主人以下序立): 주인은 동쪽계단 아래에 서쪽을 향해 서고, 자제·친척들은 그 뒤에 서향해서 선다.

⑦ 빈지주인영입승당(賓至主人迎入升堂): 빈이 도착하면 주인이 맞이하여 당에 오른다.

⑧ 시가례(始加禮): 관자의 쌍 상투를 합치고, 망건을 씌우고, 시가 축사를 한 다음 치포관을 씌우고 복건을 씌우면 방에 들어가서 어른의 평상복인 심의를 입고 대대를 띠고 검은신[黑履]을 신고 나온다.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스러워질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한다.

⑨ 재가례(再加禮): 빈이 재가축사를 한 후에 치포관을 벗기고, 복건을 씌우면 방에 들어가

서 심의를 벗고 어른의 출입복인 조삼(皂衫도포)을 입고 사대를 띠고 가죽신[鞞]을 신고 나온다. 언어와 행동을 조심하고 어른스럽게 할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한다.

⑩ 삼가례(三加禮): 빈이 삼가 축사를 한 후에 갓을 벗기고, 복두를 씌우면 방에 들어가 조삼(皂衫)을 벗고 어른의 예복인 난삼(欄衫)을 입고 혁대를 하고 목화(木靴 목이 긴 신)를 신고 나온다.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한다.

⑪ 초례(醮禮): 술을 내려 천지신명께 서약을 하고 어른으로서의 주도(酒道)를 가르친다.

⑫ 빈자관자(賓字冠者): 빈은 관자에게 자(字)를 지어준다.

⑬ 관자현우존장(冠者見于尊長): 관례를 한 자는 어른들에게 인사드린다.

여자의 계례 절차를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고우사당(主人告于祠堂): 3일 전에 조상의 위패(位牌)를 모신 사당에 고유한다.

② 계빈(戒賓): 친인척의 부녀자 중에서 현명하고 예를 아는 사람을 빈으로 모시는데 주부가 직접 가서 청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 사람을 시켜 보낸다.

③ 진설(陳設): 계례를 행할 장소를 진설하고 기구를 배설한다.

④ 진복(進服): 화관·비녀·배자나 당의 등을 관례와 같은 방법으로 배열한다.

⑤ 서립(序立): 주부는 주인과 같은 자리에 서쪽을 향해 선다. 계례를 할 사람은 쌍갈래 머리를 하고 치마·저고리를 입고 방 중앙에서 남향해 선다.

⑥ 빈지주부영입승당(賓至主人迎入升堂): 빈이 오면 주부가 맞이하여 들어와 당(堂)에 오른다. 찬자를 두지 않고 시중드는 이로 대신하게 한다. 주부가 동쪽계단으로 오를 때 손님을 서쪽 계단으로 오른다.

⑦ 가계(加笄): 어른스러워지기를 당부하는 축사를 하고, 땡기를 풀고 머리를 올려 쪽을 짓고 비녀를 꽂는다. 화관을 쓰고 방으로 들어가 배자(당의)를 입고 나온다.

⑧ 다례(茶禮): 차를 내려준다.

⑨ 빈자계자(賓字笄者): 이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항상 부를 수 있는 별명인 당호를 지어 준다.

⑩ 계자현우존장(笄者見于尊長): 계례를 한 자는 어른들에게 인사드린다.

## 2. 현대의 성년례

현대에는 땅아 내린 머리가 없고, 상투를 틀거나 쪽을 찌는 일도 없기 때문에 관례나 계례라는 명칭이 합당치 않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른이 되는 의식인 관례나 계례를 성년례라 지칭하게 된 것이다.

성년례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는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법률적,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부여 받고, 신성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성년이 되므로 반드시 그 의식을 행해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는 것이다.

현대 성년례의 시기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남녀 모두 만20세가 되면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므로 만 20세가 되는 생일이나 그 해의 성년의 날(5월의 셋째 월요일)에 행한다.

### 1) 현대의 성년례 인원구성

성년례를 하려면 개별 성년례나 집단 성년례에 모두 다음과 같은 인원이 필요하다.

- \* 주 인: 개별 성년례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 집단성년례에는 주최자 대표와 가족대표
- \* 성년자: 성년례의 당사자
- \* 큰손님: 주례
- \* 사 회: 성년례 식순을 읽는 사람
- \* 안 내: 내빈 안내 및 성년례 일을 돕는 집사(執事).

### 2) 현대의 집단 성년례 절차

현대의 성년례 절차는 개별 성년례와 집단 성년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요즈음은 대부분 집단 성년례를 실시하므로 이에 대한 절차만 정리해 보인다.

\* 사회자가 홀기를 읽는 대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성년자는 정한 자리에 공수(拱手)하고 앉으십시오.
2. 가족 및 주최측은 정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3. 큰손님은 문 앞(밖)에 이르러 서쪽에서 동향해 서십시오.
4. 주인은 문 밖으로 나가 문 동쪽에서 서향해 서십시오.
5. 성년자·가족·주최측·내빈은 모두 일어나십시오.
6. 주인과 큰손님은 평경례로 서로 인사하고, 주인이 앞서고 큰손님이 뒤따라서 들어오십시오.
7. 주인은 동쪽의 정한 자리로 가서 서향해 서고, 큰손님은 서쪽의 대기석(待機席)으로 가서 동향해 서십시오.
8. 거례선언(擧禮宣言): 지금부터 ○○에서 주최하는 ○○○군(양) 외 ○○명에 대한 성년례를 ○○○ 선생님을 큰손님으로 모시고 거행하겠습니다. 주인은 큰손님을 단상의 자리로 안내하십시오.
9. 국민의례: 먼저 국민의례를 행하겠습니다.
10. 일동 경례: 모두 자기의 앞을 향해 평경례하십시오. 경례! 바로!
11. 성년자의 경례
  - \* 성년자 인사: 이제 성년자가 경례를 하겠습니다.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이므로 아무도 답변하지 마십시오.
  - \* 성년자는 손님을 향해 평경례를 하십시오.
  - \* 성년자는 가족을 향해 큰경례를 하십시오. 가족 중에서 성년자보다 아랫사람은 먼저 경례하십시오.
12. 문명(問名): ○○단체 ○○○께서 성년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성년자는 대답하십시오. 이어서 큰손님이 묻겠습니다. 성년자는 대답하십시오.  
(큰손님) 너희가 오늘 성년이 되는 ○○○군(양) 외 ○○명이냐?  
(성년자): 예, 그렇습니다.
13. 다짐: 큰손님이 성년자에게 성년선서를 받겠습니다.  
(큰손님) 성년자는 선서하겠습니까?  
(성년자) 예, 선서하겠습니다.
14. 성년선서와 서명: 성년자가 성년선서를 하고 서명을 하겠습니다.  
성년자는 탁자 위의 성년선서를 왼손으로 들고 오른 손바닥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성년선서를 한 다음 서명하십시오.



큰손님 이하 모든 참석자는 오른 손바닥을 왼쪽 가슴에 대고 성년선서를 받으십시오.  
모두 손을 내리십시오.

15. 성년선언과 서명: 큰손님께서 성년선언을 하고 서명하겠습니다.

16. 술 의식: 이제 술의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 집사(안내자)는 성년자 앞에 주안상을 차리고 잔반에 술을 부어 주례에게 받들어 올리십시오. 주례는 잔반을 가슴 높이로 올리고 술의 교훈을 내리십시오. 『술은 향기롭고 아름다워 모든 의식에 드리는 것이니, 분수에 맞게 마셔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고, 이제 천지신명께 다짐하고 마시게』

집사자는 주례로부터 잔반을 받아 성년자에게 주고, 성년자는 두 손으로 높이까지 올려 하늘에 다짐하고 모사에 꿇주하여 땅에 다짐하고 서쪽을 향해 앉아 남은 술을 마시십시오. 집사는 성년자에게 잔반을 받아 주안상을 원자리로 치우십시오.

\* 대부분 집단 성년례에서는 ‘술 의식’은 하지 않는다.

17. 큰손님 수훈:

\* 큰손님께서 성년자에게 교훈을 내리겠습니다. 성년자는 주례께 큰절을 한 후 앉고, 주례는 반절로 답배하십시오.

『그대가 만 19세로 성년이 되어 어엿한 사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가지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하하네. 이제부터 그대는 어른으로서의 몸가짐과 덕을 지녀 자기 관리에 충실하고 사회인으로서 대인관계에 원만하며 인격을 도야해서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하네. 예절바르고 정의로운 생활을 하여 조상과 부모님께 부끄러움 없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바라네.』

18. 성년자 경례: 이제 성년자가 경례를 하겠습니다. 성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서서 반절례로 답배하십시오.

\* 성년자는 앞쪽의 큰손님을 향해 큰경례를 하십시오.

\* 성년자는 오른쪽의 가족을 향해 큰경례를 하십시오.

\* 성년자는 뒤쪽의 손님을 향해 평경례를 하십시오.

\* 성년자는 북쪽을 향하십시오.

19. 일동 경례: 모두 자기의 앞을 향해 평경례 하십시오. 경례! 바로!

18. 내빈 축사:

- \* 내빈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큰손님은 단상의 의자에 앉으십시오. 주인은 내빈에게 축사를 청하십시오. 축사하실 내빈은 단상의 정한 자리로 가시고, 주인은 왼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년자는 평경례를 하고, 축사하실 내빈은 반경례로 답배하십시오. 경례! 바로!
- \* (내빈축사가 끝나면) 성년자는 평경례를 하고, 축사하신 내빈은 반경례로 답배하십시오.
- \* 축사하신 내빈은 원자리로 가서 앉으시고, 주인은 그분께 가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20. 주인 인사:

- \* 주인인 ○○○단체 ○○께서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인은 가족석·내빈석·큰손님에게 평경례하고, 인사말씀을 하십시오. 성년자는 평경례를 하고 주인은 반경례로 답배하십시오. 경례! 바로! (주인의 인사말이 끝나면) 경례! 바로!

22. 큰손님 하단

- \* 주인은 주례를 대기석으로 안내하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23. 주최측 행사: (이어서 주최측의 특별 행사가 계속된다.)

24. 필례 선언(畢禮宣言): 이상으로 ○○○에서 주최한 ○○○군(양) 외 ○○명에 대한 성년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절차를 모두 마치면 손님을 접대하고 사진 촬영, 선물 교환 등의 예후 행사 갖는다.



빈주인승당



성년서약



가례



다례



성년인사



귀빈축사

제7장 | **용인향교 인물록**



## 제1절 한국유학의 조종 포은 정몽주

일반적으로 한국에 성리학이 소개된 것은 고려 말기로 안향(安珦)이 원(元)으로부터 주자서(朱子書)를 도입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백이정(白頤正:1260~1340)·권부(權溥:1262~1346)·우탁(禹倬:1263~1342) 등의 연구와 보급에 의해 이제현(李齊賢:1287~1367)·이곡(李穀:1298~1351)·이색(李穡: 1328~1396) 등으로 이어지면서 수용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색은 1367년(공민왕 16) 성균관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鄭夢周: 1337~1392)·박상충(朴尙衷: 1332~1375)·이승인(李崇仁: 1349~1392) 등을 교관(敎官)에 임명하여 후진양성의 교육에 진력함으로써, 성리학이 비로소 흥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한국 성리학의 조종으로 추송된 인물이 바로 포은 정몽주이다.

포은 정몽주는 젊어서부터 ‘사장(詞章)은 지엽적인 재주에 지나지 않으며 그보다도 신심(身心)의 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학』과 『중용』 두 책 속에 갖추어 있다’고 하였다. 정몽주는 『사서(四書)』를 통하여 공맹(孔孟)의 기상과 집주(集註)를 붙인 주자(朱子)의 진정한 정신을 접하고 그것을 스스로 추찰하는 것을 학문의 요체로 삼았다. 사장학보다는 경학인 『사서』에 주력하였고, 공민왕 9년에 과거에 응시하여 삼장(三場)에서 연이어 모든 학생을 누르고 수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의 유학적 소양이 정밀하고 깊었음을 의미한다.

고려말 성균관에서의 교육 내용은 성리학 위주의 경학이었다. 이 당시 포은이 성균박사를 겸하였다는 것은 성리학에 밝았음을 의미한다. 포은은 많은 자료를 섭렵하여 성리학의 이해 깊이를 더하였다. 그의 강설을 더러 의심하는 사람들이 후에 호병문(胡炳文)의 『사서통(四書通)』을 접하고는 탄복하였다는데서 알 수 있다. 포은의 학문적 깊이는 이색이 지은 <산기 정몽주를 생각하며(憶鄭散騎)>라는 시와 이승인(李崇仁)이 지은 <달가 정몽주가 일본으로 사신감을 전송하는 시의 서문(送鄭達可奉使日本詩序)>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대부에 의해 사마천(司馬遷)에 비교되기도 하였으며, 이색은 그를 성리학의 조종으로까지 추대하였다.

포은의 학문에 대한 대강은 정도전의 평가에서도 가늠할 수 있는데, 정도전은 포은이 사서·오경을 토대로 경학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과 『중용』에서 이해한 명도(明道)와 전도(傳道)의 뜻을 중시하였다.

『선생(포은)은 『대학(大學)』의 제강(提綱)과 『중용(中庸)』의 회극(會極)에 있어서 도를 밝히고 전하는 뜻을 얻었고, 『논어(論語)』와 『맹자(孟子)』의 정미(精微)함에 있어서는 조존(操存)과 함양(涵養)의 요체와 체험(體驗)과 확충(擴充)의 방법을 알았으며, 『주역(周易)』에 있어서는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이 서로 체(體)와 용(用)이 됨을 알았고, 『서경(書經)』에 있어서는 정일(精一)과 집중(執中)이 성왕들이 전한 심법(心法)임을 알았으며, 『시경(詩經)』에 있어서는 민리물칙(民彝物則)에 근본하는 가르침을, 『춘추(春秋)』에 있어서는 도의(道誼)와 공리(功利)의 분변을 알았다.』

정몽주는 사서·오경에서 유교적 정치이념의 이론적 기초를 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포은은 『주역』에도 매우 밝았다. 그가 본래 역리(易理)에 밝았다거나 복희씨의 팔괘가 소옹(邵雍)에게 전술되었는데 그는 역학에 심취하여 이천(伊川)을 사모하였다는 이색의 평, 간괘(艮卦)의 6획(六畫)만 자세히 보는 것이 『화엄경』을 모두 읽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하여 이송인과 하륜(河崙)에게 직접 『주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만물을 돕는 공이 『주역』에 있다는 언급 등은 포은의 『주역』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가늠하기에 족하다.

포은 정몽주가 한국 성리학의 조종으로 추송되는 빌미가 된 것은 조선 중종시대 기묘사림이 여말선초의 5현을 문묘에 배향하기 위해 논쟁하면서부터이다. 정몽주에 대한 문묘배향 논의는 일찍이 세조와 성종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이제현이나 이색, 권근 등과 함께 거론되었으나 점차 단독적으로 거론되었다. 정몽주에 대한 문묘배향 논의가 있기 전에는 오히려 이제현이나 이색·권근·변계량(卞季良) 등이 그 대상이었다. 그런데 중종반정 후 사림 세력이 어느 정도 정치적 권력을 잡은 상황이 되자 정몽주 단독, 혹은 정몽주와 김굉필을 함께 묶어 문묘배향을 청하는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중종 5년과 9년 정몽주에 대한 문묘배향 논의가 있고 나서, 1517년(중종 12) 성균관 생원이었던 권전(權楨)이 다시 정몽주와 김굉필을 함께 문묘 배향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권전은 이 상소에서 정몽주를 우리나라 ‘유종(儒宗)’이라고 지칭하며, 그의 공적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그는 성리학에 대한 깊은 조예와 충의대절, 유교 예속의 확립과 유학 진흥의 공을 들어 정몽주를 유종으로 내세웠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 유종으로 정몽주를 내세운 점이며, 이전까지 정몽주는 주로 충의대절의 인물로 거론되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성리학의 대가로서 면모가 함께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다시 정몽주에서 김굉필에 이르는 도통 계보 잇기 작업으로 이어졌다.

조광조 일파는 김굉필이 비록 리학(理學)을 드러낸 공적은 별로 없지만 정몽주 이후 리학으

로 이끌고 심학(心學)을 이룬 공은 적지 않다면서 정몽주와 함께 종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몽주와 김굉필 양현에 대한 문묘종사운동을 결국 반만의 성공으로 끝나 버렸지만, 조광조는 계속해서 종종 앞에서 자신의 스승인 김굉필의 공헌을 강조하는 한편 그의 학문적 연원이 정몽주에게 있음을 말하였다. 결국 기묘사화로 김굉필에 대한 문묘종사운동은 잠시 주춤하였지만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제기되었다.

중종을 거쳐 인종 때에 이르면 이미 정몽주에서 시작하여 길재 - 김숙자 - 김종직 - 김굉필 - 조광조로 이어지는 이학(理學)의 연원과 도통관이 확립되었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사림 세력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선조 대에 이르러 거의 굳어지게 된다.

포은 정몽주가 ‘동방리학지조’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은 이색이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을 때 “몽주가 이론을 펼치는 것이 이렇게 말하거나 저렇게 말해도 이치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으니, ‘동방 리학의 조’라 추존할 만하다”라고 칭찬한 것에서 연원한다. 정도전은 정몽주가 사서·오경에 두루 통달하고 그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색은 정몽주의 견해가 『사서통』과 일치했다는 점과 더불어 『사서통』이 요로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고 빠트린 내용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주자의 학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황은 정몽주가 ‘동방리학지조’이나 그를 이은 김굉필과 조광조도 모두 성리학에 관한 저술이 드러나지 않아서 학문의 깊이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뒤 이언적에 와서 비로소 성리학에 대한 학문적 성취가 분명하여 제일가는 인물로 삼을 수 있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이(李瑋)는 정몽주의 학문에 대해 “유자(儒子)의 기상은 있지만, 학문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자라고 볼 수 없고, 더욱 이학(理學)의 조종으로 불리고 있음에 반대하면서 사직을 평안하게 하는데 노력한 충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논쟁을 두고 연구자들은 ‘이학(理學)’과 ‘도학(道學)’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홍원식은 ‘이학’보다는 ‘도학’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학이란 학문보다 실천을, 그리고 도통이란 학문적 계승보다 정신적 계승을 더 중시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몽주가 비록 성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주자 정통의 성리학을 따랐음은 알 수 있지만, 기묘사림들이 그를 유종으로 받드는 과정에서 ‘동방리학지조’라고 일컬어졌던 사실을 특별히 기억해내면서 그의 충절과 결합시켰고, 다시 그러한 그의 정통 계승자가 바로 자신들의 스승이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김굉필임을 굳히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묘사림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성 확보를 통한 존재 근거를 굳건히 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정암 조광조와 기묘명현

### 1. 도학 정치를 주도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정암 조광조(1482~1519)는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庵). 한성 출생이다. 개국공신 조온(趙溫)의 5대 손이며, 조육(趙育)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조충손(趙衷孫)이고, 부친은 감찰 조원강(趙元綱)이다. 어머니는 여흥 민씨(驪興閔氏)로 민의(閔誼)의 딸이다.

17세 때 어천찰방(魚川察訪)으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가, 무오사화로 화를 입고 평안도 희천(熙川)에 유배 중이던 김굉필(金宏弼)을 만나면서 성리학에 눈을 뜨게 된다. 김굉필은 전라도 순천으로 유배지를 옮기기 전 2년 동안 희천 유배지에서 조광조에게 학문을 전수했다. 당시는 사람과가 크게 화란(禍亂)을 입은 직후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성리학을 ‘재앙을 부르는 학문’이라고 하며 멀리 했다. 이때문에 성리학 공부에 몰두한 조광조를 두고 주변 사람들은 ‘광자(狂者)’ 혹은 ‘화태(禍胎)’라고 비방하였다. 김굉필이 갑자사화 때 죽임을 당하자 조광조에 대한 비난은 더욱 심했다. 그럼에도 조광조는 성리학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더욱 학문과 심신을 수양하였다.

1506년 중종반정 이후 당시 시대적인 추세는 정치적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1510년(중종 5)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이때 조광조는 초시(初試)에 장원하였고, 5년 후인 1515년에 성균관에서 치른 알성시(謁聖試)에서도 2등으로 급제하여 중종의 주목을 받으면서, 성균관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있었다. 성균관 유생들의 천거와 이조판서 안당(安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1515년(중종 10) 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라는 관직에 초임되었다. 그 해 가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전적·감찰·예조좌랑을 역임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는 유교로써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지치주의(至治主義)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정언이 되어 언관으로서 그의 의도를 펴기 시작하였다.

이 해 장경왕후(章敬王后, 중종의 제1계비)가 죽자 조정에서는 계비 책봉문제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순창군수 김정(金淨), 담양부사 박상(朴祥) 등이 폐위된 신씨(愼氏)를 복위시킬

것과 신씨의 폐위를 주장했던 박원종(朴元宗)을 처벌할 것을 상소했는데, 이때문에 대사간 이행(李衍)의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조광조는 대사간으로서 상소한 사람을 벌함은 언로를 막는 결과가 되므로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일이라 주장하고, 오히려 이행 등을 파직하게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이 커지고, 이후 기묘사화 발생의 동인이 되었다.

그 뒤 수찬을 역임하고 곧이어 정랑이 되었다. 1517년에는 교리로 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을 겸임했으며, 향촌의 상호부조를 위해 『여씨향약(呂氏鄉約)』을 8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조광조의 도학정치에 대한 주장은 대단한 것이었고, 이러한 주장을 계기로 당시의 학풍은 변화되어갔으며, 뒤에 이황(李滉)·이이(李瑋) 같은 학자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도학정치는 조선시대의 풍습과 사상을 유교식으로 바꾸어놓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즉, 조선시대에 서민까지도 주자의 『가례(家禮)』를 지키게 되어 상례(喪禮)를 다하고 젊은 과부의 재가도 허락되지 않게 되었다.

1518년 부제학이 되어서는 도학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사문(斯文)의 흥기를 자신의 임무로 자부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주(人主)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미신 타파를 내세워 소격서(昭格署)의 폐지를 강력히 주청,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를 혁파하는 데 성공하였다.

아울러 현량과를 통해 신진사류들을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시키는 실마리로 삼았다. 이들 신진사류들과 함께 훈구세력의 타도와 구제(舊制)의 개혁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수립에 나섰다. 그리하여 이들은 1519년(중종 14)에 이르러 훈구세력인 반정공신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들은 우선 정국공신(靖國功臣)이 너무 많음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성희안(成希顔) 같은 인물은 반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뽑혔고, 유자광(柳子光)은 그의 척족들의 권귀(權貴)를 위해 반정했는데, 이러한 유의 반정정신은 소인들이나 피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이들은 권좌에 올라 모든 국정을 다스리는 데 이(利)를 먼저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국가를 유지하기가 곤란함을 극력 주창하였다. 이의 실천 대안으로 반정공신 2·3등 중 가장 심한 것은 개정해야 하고, 4등 50여 인은 모두 공이 없이 녹을 함부로 먹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좋을 것이라는 위훈삭제(僞勳削除)를 강력히 청하고 나섰다.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마침내 훈구파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훈구파 중 홍경주(洪景舟)·남곤(南袞)·심정(沈貞)은 경빈 박씨(敬嬪朴氏) 등 후궁을 움직여 왕에게 신진사류를 무고하도록 하였다. 대궐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써 벌레가 파먹게 한 다음에 궁녀로 하여금 이를 따서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홍경주와 공조판서 김전(金詮), 예조판서 남곤, 우찬성 이장곤(李長坤), 호조판서 고흥산(高荊山), 심정 등은 밤에 신무문(神武門)을 통해 비밀리에 왕을 만나고는 조광조 일파가 당파를 조직, 조정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탄핵하였다. 이에 평소부터 신진사류를 비롯한 조광조의 도학정치와 과격한 언행에 염증을 느껴오던 왕은 훈구대신들의 탄핵을 받아들여 이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조광조는 김정·김구·김식·윤자임(尹自任)·박세희(朴世熹)·박훈 등과 함께 투옥되었다. 처음 김정·김식·김구와 함께 그도 사사(賜死)의 명을 받았으나,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의 간곡한 비호로 능주에 유배되었다. 그 뒤 정적인 훈구파의 김전·남곤·이유청(李惟淸)이 각각 영의정·좌의정·우의정에 임명되자 이들에 의하여 그 해 12월 바로 사사되었다. 이때가 기묘년이었으므로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한다.

그 뒤 선조 초 신원(伸冤)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다. 그 뒤 그의 학문과 인격을 흠모하는 후학들에 의해 사당과 서원이 설립되었다. 1570년 능주에 죽수서원(竹樹書院), 1576년 희천에 양현사(兩賢祠)가 세워져 봉안되었으며, 1605년(선조 38)에는 그의 묘소 아래에 있는 심곡서원(深谷書院)에 봉안되는 등 전국에 많은 향사가 세워졌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이이는 김광필·정여창(鄭汝昌)·이언적(李彦迪) 등과 함께 조광조를 동방사현(東方四賢)이라 불렀다.

## 2. 용인 출신의 기묘명현

### 공서린(孔瑞麟: 1483~154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창원(咸安). 자는 희성(希聖)·응성(應聖), 호(號)는 휴암(休巖). 창원공씨의 시조인 공소(孔紹)의 5대손이자, 공숙(孔淑)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공의달(孔義達)이다. 어머니는 죽산 박원인(朴元仁)의 딸이며, 처는 파평 윤영세(尹永世)의 딸이다.

공서린은 1507년(중종 2) 진사시를 거쳐 같은 해에 급제하였다. 낭관과 사간원 정언으로

있으면서 시정의 득실을 논하였으며, 1519년 좌승지로 재직할 때 기묘사화(己卯吐禍)가 발생했는데, 그 날 밤 입번 승지로 있다가 하옥되었으나 다음날 풀려났다.

이때 시사에 대해 격분하여 재상을 공격하고 화를 입은 선비들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파직은 당하지 않았으나 심정(沈貞)과 허항(許沆)에게 미움을 받아 중용되지 못하였다.

그 뒤 김안로(金安老)와 채무택(蔡無擇)이 집권했을 때 배척을 당해 황해감사로 나갔는데, 소장(疏狀)을 올려 당인(黨人)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극력 말하다가 관작을 삭탈당했다. 1522년 공조참의로 북경에 다녀왔으며, 1537년 부제학에 제수되었다. 이후 대사헌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공서린은 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조광조(趙光祖)·권발·김정국과 교유했으며, 천성이 말수가 적고 단아하고 신중하였으며, 강직하여 작은 것에 구애되지 않았다고 한다.

1792년(종조 16) 유교 숭상책에 따라 조선에 사는 공자의 후손들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여러 후손들 가운데 과거에 급제하고 절의를 지켰다 하여 문헌(文獻)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정통으로 삼게 하였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에 있으며, 공순택(孔順澤)이 지은 신도비가 있다.

### 김세필(金世弼: 1473~1533)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경주. 자는 공석(公碩), 호는 십청헌(十淸軒)·지비옹(知非翁)이다. 할아버지는 한성소윤(漢城少尹) 김근(金近), 아버지는 첨정 김훈(金薰)이며, 어머니는 진천(鎭川) 송씨 송학(宋翺)의 딸이며, 부인은 부사 이탁(李鐸)의 딸이다.

1495년(연산군 1) 사마시에 합격하고, 다음해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여러 관직을 거쳐 수찬, 사헌부지평에 올랐다.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거제도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으로 풀려나서 홍문관응교로 기용된 뒤에 사가독서의 은전을 입었다.

이후 전한·형조참판·부제학을 지내고 외직으로 광주목사(廣州牧使), 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어 대사헌·이조참판을 지내고, 1519년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19년 기묘사화로 조광조(趙光祖)가 사사(賜死)되자, 임금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규탄하다가 유춘역(留春驛)으로 장배(杖配)되었다.

1519년 조광조를 사사한 일을 규탄하다가 장배된 뒤 다시는 벼슬에 나가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십청헌(十淸軒)’을 짓고 후진을 양성하다가 생을 마쳤다. 학문함에 있어서 격물·치

자·정심을 앞세웠고, 글을 지음에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는 습관이 없었다고 하며, 여러 책을 두루 읽어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뜻을 추구함에 정밀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한다. 저서로는 『십청헌집(十淸軒集)』4권이 있다.

묘소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3번지에 있다. 송시열이 찬한 신도비가 있으며, 2002년에 건립한 십청헌 김세필선생 문학비가 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충주의 팔봉서원(八峰書院)에 향사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 이성동(李成童)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인천(仁川). 자는 차옹(次翁), 호는 졸옹(拙翁). 할아버지는 참판을 지낸 이중손(李仲孫)이고, 아버지는 판관(判官)을 지낸 이희안(李希顔)이다.

이성동은 조선 중기 연산군 대에 활약한 문신으로 기묘명현의 산사람이다. 1495년(연산군 1) 생원으로 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지평(持平)·사간(司諫)·직제학(直提學)·대사간(大司諫) 등을 역임하였다. 1518년(중종 13)에 충청도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이듬해 형조참의를 비롯한 신진 사류들이 몰락할 때 그 일파로 지목되어 관직에서 물러났다.

1520년에 예조참의로 다시 등용되었지만 그 다음해에 다시 조광조의 일파라는 이유로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1538년 판중추부사 최숙생(崔淑生)과 이장곤(李長坤) 등과 함께 복직되었다.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에 있다.

### 이자(李耜: 1480~1533)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차야(次野), 호는 음애(陰崖)·몽옹(夢翁)·계옹(溪翁). 이색(李穡)의 후손으로, 대사간 이예견(李禮堅)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 7) 진사가 되었고, 1504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해 사헌부감찰을 지냈다.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으로 북경에 다녀온 뒤 이조좌랑에 승진했지만, 연산군 난정 아래에서 관직 생활에 환멸을 느껴 솔로 세월을 보내다가 자청해 의성현령으로 나갔다.

1506년 중종반정 후에 발탁되어 홍문관수찬·교리 등을 지내다가 1510년(중종 5) 아버지의 상으로 관직을 떠났다. 1513년 복직하여 부교리·부응교·사간원사간을 역임하고, 이듬해 어머니의 상으로 사직했다가 1517년부터 홍문관전한·직제학을 거쳐 부제학에 승진하였다.

그 후에 좌승지로 옮겼다가 다음해에 대사헌이 되었다. 이 무렵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

등의 신진 서류들과 일파를 이루어 도화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그들의 급진적 개혁 정책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1518년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의 부사로 북경에 파견되었다. 이때 정사로 갔던 남곤(南袞)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된 것을 지성으로 간호해 회복하게 했는데, 이때문에 그는 기묘사화 후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1519년 귀국해 한성판윤·형조판서·우참찬 등에 임명되었다.

그는 사림파의 한 사람이었으나 성품이 온유하고 교제가 넓어 남곤·김안로(金安老) 등의 훈구 세력과도 원만하게 지냈다. 양파의 중간에서 반목과 대립을 해소하고 온건한 정책으로 유도하고자 했으나 급진 사림파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 사림파가 참화를 입게 되자 그도 여기에 연좌되어 파직·숙청되었다. 그 뒤 음성·충주 등지에 은거하여 세상을 등지고 독서와 시문으로 소일하고, 이연경(李延慶)·김세필(金世弼)·이약빙(李若氷) 등과 학문을 토론하며 여생을 마쳤다.

효도와 우애가 돈독했고 학문과 수양에 정력을 기울였다. 많은 사평(史評)을 썼으나 일찍 죽어 정리되지 못하였다. 『주자가례』를 독신했으며 자손들에게 그 실천을 유언하였다. 저서로는 『음애일기』와 시문집인 『음애집』이 있다. 『기묘명현록』에 올랐고, 충주의 팔봉서원(八峰書院)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 조광보(趙光輔)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지사(志士). 일명 광보(廣輔). 호는 방은(方隱). 연산군 때 임사홍(任士洪)이 권력을 장악하여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무인인 박영(朴英)에게 그를 참살(斬殺)하려고 권한 바 있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1507년(중종 2) 참의 유송조(柳崇祖), 호군 심정(沈貞), 전 승지 남곤(南袞) 등에 의하여 박원종(朴元宗)·노공필(盧公弼) 등을 해치려 하였다는 죄목으로 의관(醫官) 김공저(金公著), 서얼(庶孽) 박경(朴耕) 등과 함께 잡혀 국문을 당하였다.

대궐마당에서 국문을 당하면서 옛 글을 소리내어 외우다가 입회한 유자광(柳子光)에게 무오년에 현량(賢良)을 모함하여 죽인 소인이며 아첨하는 신하라고 매도하였고, 박원종에 대하여 서도 폐주(廢主: 연산군)의 나인을 첩실로 거느리고 있음을 힐책하였다. 동석한 성희안(成希顔)을 향하여 명유(名儒)이면서 유자광을 섬긴다고 비난하였고, 사신(史臣) 강홍(姜洪)·이말(李抹) 등에게는 사관(史官)으로서 자기의 말을 특서하여 둘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결국 장형(杖刑)

을 당하자 통곡을 그치지 않아 박원종 등으로부터 광인(狂人)으로 인정되어 석방되었다. 식견이 고명하였으나 거짓으로 미친체하여 스스로를 감추었다는 평을 들었다.

### 조광좌(趙光佐: 1483~152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한양(漢陽). 일명 조광좌(趙廣佐). 자는 계량(季良), 호는 회곡(晦谷). 증조부는 도총제(都摠制) 조모(趙慕)이고, 할아버지는 조종효(趙宗孝)이다. 아버지는 군수(郡守) 조훈(趙勛)이다. 형은 조광보(趙廣輔)이고 아우는 조광임(趙廣臨)이다.

조광좌는 1507년(중종 2)에 성균관 유생으로서 박경(朴耕)·김공저(金公著)의 옥사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 그러다 1518년(중종 13)에 좌랑(佐郎)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인 기묘년에는 지평(持平)이 되었다. 이때에 “중종반정으로 인해 공신(功臣)으로 책봉된 자 중에 공이 없이 책봉되어 녹을 받고 있는 자가 매우 많으니, 지금 용단을 내려 가려내지 않으면 뒤에 폐단이 많을 것이다.”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공의 유무를 다시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공신으로 정하여진 바를 고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답으로 거절당하였다.

1519년(중종 14)에 공신들의 공훈 삭제를 주장하고 나서다 오히려 훈구세력(勳舊勢力)의 공격을 받아 많은 선비들이 화(禍)를 입은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났으며, 이때 조광조(趙光祖)의 봉당으로 몰려 삭직되었다. 하지만 1521년(중종 16)에 일어난 신사무옥(辛巳誣獄) 때 연루되어 장살당하였다.

신사무옥이란 기묘사화 때 조광조(趙光祖) 일파를 두둔하였다는 혐의로 파직된 안당의 아들 안처겸(安處謙)이 일으킨 옥사(獄事)이다. 안처겸과 이정숙(李正叔)·권전 등은 기묘사화로 득세한 심정(沈貞)·남곤(南袞) 등이 사림(士林)을 해치고 왕의 총명을 흐리게 한다 하여 이를 제거하기로 모의하였는데, 함께 참석했던 송사련(宋祀連)이 이 사실을 고변(告變)하여 안처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된 사건이다.

## 제3절 도암 이재 선생과 그의 제자들

### 1. 기호학과 낙론의 종장 도암(陶菴) 이재(李緯)

도암 이재 선생은 조선후기 성리학의 대가이다. 자(字)가 희경(熙卿), 호는 도암(陶菴)·한천(寒泉)이다. 1680년(숙종 6) 9월 28일에 진사였던 이만창(李晩昌)의 아들로 태어났다. 모친은 여양부원군(驪陽府元君) 민유중(閔維重)의 따님이요,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의 외손녀가 된다. 태중(胎中)에 있을 때 모친 민씨의 꿈에 달이 손 가운데 들어와 광채가 방안에 가득하였다고 한다. 효종 때 학자인 이만성(李晩成)은 바로 그의 작은 아버지이다. 이처럼 그는 친가와 외가의 훌륭한 가통을 이어받았다. 다섯 살 때 부친을 잃고, 작은 아버지 밑에서 글을 배웠는데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안으로는 모친 민씨의 엄격한 계도를 받았다. 어려서부터 학문과 재능이 뛰어났던 그는 약관의 나이로 대소 문과에 급제하였다. 1702년(숙종 28)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고, 찬집청기사관(纂輯廳記事官)을 겸하여 『단종실록(端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1707년(숙종 33)에 다시 문과 중시(重試)에 급제하여 홍문관에 등용되었으며, 그후 헌납(獻納), 북평사(北評事)를 지내고, 한때 사가독서(賜暇讀書)자에 선발되기도 하였다. 1711년(숙종 37)에는 이조정랑이 되었으며, 문학(文學)을 겸직하여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1716년(숙종 42)에는 승지(丞旨)로 승진하였다. 이때 노론(老論)의 한 사람으로서 가례원류(家禮源流)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자 소론(小論)을 통박하였다. 이 당시 그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대하여 상당한 조예를 갖고 있었다. 훗날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을 체계화한 『사례편람(四禮便覽)』은 그의 주자가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저술된 것이다.

1719년(숙종 45) 한성부 우윤(右尹)으로 임명되었다. 재임 기간 중 임시로 영남균전사(嶺南均田使)의 책임을 맡고, 영남으로 내려가 전제(田制)의 문란을 일일이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조정에 진술하였다가 시기하는 대신들의 무고로 관직을 삭탈 당하였다. 뒤에 사실이 밝혀져서 다시 등용되어 함경도 관찰사가 되었다. 뒤에 대사헌·이조참판·대제학·한성부 판윤·공조판서 등 주요 관직을 역임하고 예조참판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종 즉위년 전후에 소론의 재집권으로 다시 삭직되었다. 이어 2년간에 걸쳐 정계를 흔들었던 이른바 신임

사회(辛壬士禍)가 일어났다. 이때 중부(仲父) 이만성(李晩成)이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였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 강원도 설악산 기슭으로 들어가 성리학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영조가 즉위하고 노론이 다시 집권하게 되자 그도 복직되었다. 그는 복직과 함께 신임사화를 일으킨 장본인들을 찾아내어 처벌할 것을 간곡히 주청하였다. 이때 당파의 폐단을 잘 알고 있는 영조는 탕평책을 폈다. 이를 빌미로 대신들은 ‘탕평(蕩平)’의 말에 맞춰 충신이나 역신을 혼용하여 벼슬길에 진출시키려 하였다. 시종 신임사화의 주동자를 처벌할 것을 주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728년(영조 4)에는 이인좌의 난이 평정된 것을 위문하고, 여주로 물러나와 살았다. 모친 민씨가 세상을 마치자 용인의 한천(寒泉) 선영에 장례를 지내고, 이로 인하여 용인에서 여생을 마칠 것을 다짐하였다. 다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지금의 이동면 천리 노루실 부근에 한천정사(寒泉精舍)를 마련하고 찾아드는 제자들과 함께 학문과 저술에만 몰두하였다.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벼슬에서 물러나와 은거하였던 이재는 무려 50권에 이르는 『도암집』과 『오선생휘언(五先生徽言)』, 『근사록심원(近思錄尋源)』, 『주형(宙衡)』, 『주자어류초절(朱子語類抄節)』,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筭疑)』, 『존양록(尊攘錄)』, 『심경집주초절(心經集註抄節)』, 『검신록(檢身錄)』, 『사례편람(四禮便覽)』, 『이송선생예의통편(二宋先生禮疑通編)』 등의 저술을 남겼다. 그의 저술 활동의 핵심은 주자 이이 송시열의 업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는 곧 탈주자학 측의 주자설 비판에 대비하는 저술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사례편람』은 그의 대표적인 저술이다. 이 책은 일상생활 중의 사례인 관혼상제 등의 예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8권 4책으로 되어 있다. 주자가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정리하여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은 훗날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에 관한 책 중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한 사대부 가정에서는 거의 집집마다 필수적인 책으로 소장할 정도였다. 그야말로 일상생활의 예전(禮典)이라 할만 했다. 또한 이 책은 관혼상제에 따르는 설명과 함께 일일이 도식(圖式)을 넣어서 보는 이는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도식은 우리나라의 민속, 복제 연구에 귀중한 사료이며, 친족관계의 법학 내지 봉건제도하의 사회적 연구 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재는 성리학설에서 이이(李珣)-송시열(宋時烈)의 정통주자성리학을 계승하였다. 송시열은 주자의 성리학에서 심(心)의 미발론(未發論)에 근거한 심성론(心性論)과 수양론(修養論)의 엄밀

한 이해를 추구하였다. 송시열 이후의 기호학파의 학자들은 내부적으로 심성론(心性論), 즉 사람과 동물의 성(性)이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쟁이 야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심기(心氣)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 ‘未發心體’를 서로 다르게 설명하였다. 그것은 미발(未發)에서 기질지성(氣質之性)의 유무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호낙논쟁(湖洛論爭)’으로 표출되었다. 호론은 심(心)은 청탁의 차이가 있는 기이므로 비록 미발심의 상태라도 선악의 요소가 병존하여 성인과 범인의 마음은 다르다고 하였다.[未發心體有善惡說, 聖凡心異論] 낙론은 심(心)이 기(氣)이기는 하지만 청탁의 차이가 있는 기품(氣稟)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어서 미발심의 상태에서 악을 말할 수는 없으므로 성인과 범인의 심은 같다고 하였다.[未發心體本善說, 聖凡心同論]

올곡학파의 후예이면서도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논변에서 종당에는 충청지역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호학파(湖學派)와 서울 경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낙학파(洛學派)로 분화되었다. 권상하로부터 시작되는 호학파는 이이 및 송시열의 학설에 충실했던 반면에, 김창협에서 비롯되는 낙학파는 송시열에 대한 심정적 동조에도 불구하고 철학 이론의 측면에서는 자유로운 입장을 보였다. 그들 학맥의 근원인 이이의 이론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용보다는 비판적 수용의 자세를 취하였다.

올곡의 학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리(理)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낙학의 이론적 경향은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논변에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짐승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오상(五常)을 다 가지고 있으며, 본래의 성(性)은 같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이는 한원진(韓元震), 윤봉구(尹鳳九) 등이 주장한 호론(湖論)에 반하는 논리로 낙론(洛論)의 입장을 대표한다.

이제의 이론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심(心)에 관한 논의이다. 이제는 심이 원칙적으로 기(氣)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심을 거론할 때는 성(性)과 기(氣)를 합해서 말해야 그 뜻이 완전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심의 본체는 맑고 고요하여 성인과 범인이 같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심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이이의 학맥에 있으면서도 리(理)의 위치를 고양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김창협의 경향과 일치한다.

이제는 사물에도 오상(五常)의 리(理)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람과 사물이 건순(健順) 오상(五常)의 리를 똑같이 얻었으나, 그 기의 치우침과 막힘으로 말미암아 사물은 온전히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김창협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재는 김창협이나 김창흡의 문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노론 명문가의 일원으로서 김창협 이후 낙학파의 거두로 활약하였다. 이재는 외부로는 소론 남인들을 반역, 이단으로 배척하면서 정치와 학문에서 노론의 의리와 학문을 고수하였다. 내부로는 호론과 논쟁하면서 낙논이 노론 성리학의 정통임을 자부하였다. 낙학파에서의 이재의 위치는 종장(宗匠)으로 지칭될 정도였다. 호학의 적극적인 옹호자 윤봉구에 맞서 낙학의 입장을 변호하였으며, 그의 문하에서 박성원(朴聖源), 김원행(金元行), 송명흠(宋明欽), 임성주(任聖周) 등과 같은 낙학의 쟁쟁한 이론가가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 조선의 정치와 학문세계를 주도했던 학파가 곧 이재가 이끌었던 노론계 낙학파였다. 이후 북학사상 역시 낙학파의 전통에서 나왔다.

일찍이 부친을 잃고 모친을 정성스럽게 봉양하였던 그는 지극한 효성으로도 소문이 났다. 상기(喪期)를 마치고도 매일같이 묘역에 올라 부복하였다. 말년에 걸음을 걷지 못하였을 때는 견여(肩輿)를 타고 부근의 언덕에까지 올라가 부복하니, 그곳을 첨경대(瞻敬臺)라 이름 지었다. 말년에 중풍을 얻어 여러 해 동안 고생하였는데, 집안사람들이 간호를 구실로 옛 고향인 화전리(花田里)로 옮길 것을 청하였다. 이에 편지를 써서 가까운 친구들을 이별하였으나, 길을 떠나 광주에 이르러 병이 악화되어 낙생(樂生)의 촌가에서 세상을 마쳤다. 1746년(영조 22) 10월 28일의 일이다. 향년 67세이다.

1775년(영조 51), 정조가 국정을 대리할 때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않고 ‘문정(文正)’이라는 시호가 내렸다. 묘소는 그가 만년에 우거하였던 이동면 천리에 마련하였다. 1802년(순조 2)에 용인의 유림과 제자들에 의해 그의 학문의 산실인 한천정사 터에 서원을 세울 것을 청하니, 허락하고 한천서원이라는 사액을 내렸다. 한천서원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철거되었다. 아직도 서원말이라는 동리 명칭과 은행나무만이 남아 있을 뿐 폐허된 상태 그대로이다. 현재 국립박물관에 전하는 영정은 이곳에 영당을 설치하면서 봉안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암 이재는 성리학 외에 서화(書畵)에도 뛰어났다. 일찍이 예조참판 홍우전(洪禹傳)과 오이주(吳履周)의 묘표를 썼으며, 김인후(金麟厚)의 비석도 그가 쓴 것이다. 용인에도 현재까지 그의 글과 글씨가 전한다. 내사면 송문리에 소재한 유복립(柳復立)의 정려 현액과 기흥면 지곡리에 있는 사은정(四隱亭)의 제영(題詠)이 바로 그것이다.

## 2. 도암 문하에서 배출된 용인의 유학자

이재는 벼슬에서 물러나 고양의 화전에 거주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49세 때 모친상을 계기로 용인의 한천으로 이주하여 한천정사에서 낙론을 강론하였고, 많은 생도들이 그를 추종하였다. 한천정사는 18세기 전반 낙학을 대효하는 강학소이자 이재 문인의 양성소였다.

한천정사에는 서울 경기지역의 현달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재와 인척이거나[閔翼洙 閔遇洙 宋明欽 宋文欽 李維 吳瑗], 우봉이씨 가문과 세교(世交)가 있는 노론계 명문의 후손[金元行 任聖周 鄭實 俞彦鑣]들도 다수였다. 한천정사에서는 조강(朝講)에는 주로 소학과 사서, 주장(晝講)에는 성리서, 석강(夕講)에는 시경 등을 강학하였다고 한다.<sup>1)</sup> 이재의 문인 김시탁(金時鑠)에 의하면 이재가 직접 강학하기도 하였지만, 한천정사의 강학을 주도한 이는 박성원(朴聖源)과 안구(安衢)였다. 도암의 문하에서 이름을 떨친 용인출신의 유학자를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이 채(李采: 1745~182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우봉(牛峯). 자는 계량(季亮), 호는 화천(華泉). 할아버지는 재(絳)이며, 아버지는 대사간 제원(濟遠)이다. 1774년(영조 50)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이듬해 휘령전(徽寧殿) 참봉에 제수되었다. 그 뒤 사헌부·호조·형조의 벼슬을 거쳐 돈녕부주부를 지냈다. 음죽현감이 되었을 때 무고로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여 학문에 전념함과 동시에 가업을 계승하는 데 힘썼다.

1790년(정조 14) 다시 벼슬길에 올라 홍릉령(弘陵令), 지례현감, 선산부사, 상주·충주·황주의 목사, 익위사의 위수·사어 등의 관직을 거쳐 호조참판, 한성좌우윤 및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저서로는 『화천집』 16권 8책이 있다.

### 이행상(李行祥 : ?~1800)

조선 후기 용인 출신의 학자.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공리(公履), 호는 왕림(旺林). 문강공(文康公) 이석형(李石亨)의 후손으로 익위(翊衛) 이신로(李莘老)의 손자이며, 통덕랑(通德郎) 이

1) 최성환, <조선후기 이재의 학문과 한천정사의 문인교육>, 『역사교육』 77집, 역사교육연구회, 2001. 83쪽.

철좌(李喆佐)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창원황씨이다.

이행상은 도암 이재의 문인으로 영조·정조 대에 활동한 학자이다. 후대에 학문 성과를 인정받아 송단(宋端)·성덕명(成德明) 등과 함께 이재 문하의 삼처사(三處士)로 불리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골에서 출생하였으며, 일찍부터 사서삼경에 통달하였다.

스승 사후에 유적을 정리하여 도암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말을 들었으며, 당시 유자들의 행위를 비판하고 포은 선생 묘소 동쪽 기슭 은적암(隱寂菴)에 사(社)를 세우고 시골 수재를 모아 가르치니 사람들이 왕림 선생이라 칭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곳을 왕림리라 하였다.

정조 때 경술(經術)의 선비를 구할 때 광릉참봉(光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1794년(정조 18) 70세에 수질(壽秩)로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올랐다. 사후인 1824년(순조 24)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필사본 『왕림유고(旺林遺稿)』가 있다.

### 정규채(鄭奎采)

조선 후기 용인 출신의 유생. 정규채는 한천서원(寒泉書院)이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는 데 기여하였다. 정규채 등은 이재(李穡)가 제향된 한천서원의 사액을 바라는 상소를 올렸으며, 당시 영중추부사였던 이병모(李秉模)의 추천으로 한천서원은 사액서원이 되었다.

## 제4절 조선시대 용인의 유학자

용인지역은 예로부터 유학과 관련이 깊다. 고려말엽에는 이석지(李釋之)가 남곡에 은거하여 학문에 몰두하였다. 조선건국 이후 1406년(태종 6)에 포은선생의 묘역을 모현면 능원리에 천장함으로써 전국 유림들의 주목을 끌었다. 조선조의 수도인 한양과 근접한 용인지역에는 용인향교와 양지향교가 다른 지역보다도 빨리 건립되었다. 일찍이 유학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과거급제자도 다른 군현보다 많았다. 구체적인 사례로, 강여중(康汝中)은 1419년(세종 1)에 문과 급제하여 보령현감을 지냈다. 황효원(黃孝源)은 1444년(세종 26)에 장원급제하여 우참찬에 올랐다. 그의 아들 강효문(康孝文)은 1450년(세종 32)에 문과급제 후 예조참판에 올랐다. 백암면 옥산리 출신 박원형(朴元亨)은 1423년(세종 14)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알성문과에 급제한 뒤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이말손(李末孫)은 1480년(성종 11)에 진사시에, 양지에 사는 유문창(柳文昌)과 허신(許信)은 생원시에 합격하는 등 한 해에 3명이 급제한 사례가 있다. 이사온(李思溫)은 1483년(성종 14)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조광조는 부친상을 당하고 3년간 시묘하는 동안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유학에 몰두하였다. 이는 용인지역 선비들의 유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6세기 이후 기묘명현들의 활약도 용인지역의 학문 경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조선 초기 향교 중심의 관학에서 사학 우선으로 변화하는 계기도 이때부터 형성되었다. 용인 유림의 공의(公議)로 정몽주와 조광조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서 두 선생의 묘도(墓道) 중간지점인 죽전에 죽전서원(竹田書院)을 창건하였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죽전서원이 소실되자 충렬서원, 심곡서원을 건립하였다.

용인지역에 충렬서원·심곡서원이 건립되면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 차례 사화와 전란을 겪고 난 조선왕조는 의리사상(義理思想)과 왕도정치(王道政治)를 공고히 하고자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면으로 정몽주를 동방이학의 조종으로, 조광조를 도학의 종장(宗匠)으로 추송하였다. 따라서 충렬서원·심곡서원에는 당대 최고의 학덕을 갖춘 인물들이 원장에 추대되기에 이른다.

충렬서원은 기호학과 중에서도 노론계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수선지지(首善之地)로 사론(士論)을 형성하고 공론(公論)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서원으로 인식되었다. 충렬서원의 역대원장

을 기록한 <충렬서원선생안>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충렬서원의 원장으로 역임한 인물 가운데 이정구·오윤겸·조익·김육·홍명하·송시열·김석주·민정중·박세채·권상하·이재·이정보·김원행·홍직필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경대부(京大夫)들이 서원의 원장인 관계로 “조선시대 사대부의 자제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한 이가 많았다고 하며, 한때는 능골에 400여 호가 살았다”고 전한다. 충렬서원을 중수하던 당시의 제반 상황을 기록한 <충렬서원중수록>에서도 충렬서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서원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용인지역에서 충렬서원·심곡서원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강학이 이뤄지자 서원을 중심으로 사숙(私塾)에서 수학한 인물들이 사회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시직(李時稷)을 들 수 있다. 그는 용인에서 출생하여 기호학파를 형성한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을 수학하였다. 1624년(인조2)에 문과 급제하여 시임봉상판관(時任奉常判官)이 되었다. 이시정(李時程)은 광해군 때 폐모론이 일자 모현면 능골로 낙향하여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을 가르쳤다. 18세기를 전후하여 정제두와 정찬조 역시 충렬서원을 출입하며 학문을 연마하였다. 이재는 이동면 노루실에서 태어나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으로 율곡선생을 사숙했다. 영조 초기에 노론의 입장에서 소론을 배척하는 상소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용인으로 낙향하여 저술과 후진을 가르치며 일생을 마쳤다. 이재의 제자인 이행상(李行祥)은 은적암(隱寂菴), 충렬서원, 서재사(書齋祠)를 오가며 후학을 가르쳤으며, 기호학파의 학맥을 계승하였다. 이행상의 『왕림유고(旺林遺稿)』에 충렬서원에서 수학한 문인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재의 문하에서 수학한 제자들의 성명을 부기(附記)하였는데 충렬서원의 유생인 정규채(鄭奎采)·김성로(金星魯), 한천서사(寒泉書社) 유생인 이경중(李景曾)·이채(李采), 용인유생인 박현수(朴玄壽)·정성채(鄭星采) 등과 송황중(宋璜中)·최석경(崔錫慶)·신덕우(辛德羽)·성봉묵(成鳳默)·정환흠(鄭煥歆)·이청수(李清秀) 등의 이름이 들어 있다.

용인지역은 한때 남인계와 서인계가 공존하기도 하였으나, 서인계가 노론·소론으로 분화되자 이재의 영향으로 노론계가 주도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이원명교수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용인은 전국 3백여 개 현(縣)에서 생원, 진사시인 소과에서 139명, 대과인 문과에서 53명의 급제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용인향교·충렬서원·심곡서원·한천서원·용인향숙의 교육적 역량이 얼마나 지대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충렬서원·심곡서원·용인향교를 통해 배출된 용인 출신의 유학자로 조선시대 용인의 유림을 이끈 대표적인 유학자를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김원립(金元立; 1590-1649)

갈천공 김원립은 1590년(선조 23) 음력 8월 2일, 전라도 남원에서 아버지 성진(聲振), 어머니 문화유씨(文化柳氏)의 4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선생의 관향(貫鄉)은 경주로,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 부(傅)가 그 시조(始祖)이며, 고려 말의 충신으로 이태조(李太祖)를 도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계림군(鷄林君) 김균(金澗)이 공의 파조(派祖)이다. 공(公)이 세 살 되던 해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조선 천지가 왜군의 지배하에 있게 되고, 그 이듬해에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니 공은 무척이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공은,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으로 왜군이 다시 조선에 들어오고, 그 이듬해 조·명(朝明) 연합군에 밀려 왜군이 일본 본토로 퇴각하여 임진 7년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야 늦은 나이인 12세 즈음에 서당에 나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1608년 선조의 뒤를 이어 광해군이 조선 15대 왕으로 즉위하였고, 공은 1613(광해군 5)년 생원시험에 합격하여 성균관의 태학생(太學生)으로 공부를 시작하였다. 1615년 이이첨(李爾瞻)을 중심으로 한 광해군의 북인(北人) 정권은 역모 죄를 들쭉워 영창대군(永昌大君)을 폐서인(廢庶人)시킨 뒤 죽이고, 그 어머니인 선조의 계비(繼妃) 인목대비(仁穆大妃)을 폐출(廢出)하는 음모를 꾸몄다. 공은 이때 생원 홍무적(洪茂績), 황시중(黃是中) 등과 연명하여 ‘모후(母后) 폐출에 반대하는 상소(上疏)’를 올렸다. 『광해군일기』 ‘광해군 7년 3월 25일조’에는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때 벼슬아치나 선비들 중 직언하고 단호히 비판한 사람은 사형당하거나 유배당하였다. 불꽃이 하늘까지 번지고, 사람들이 모두 발걸음을 신중하게 하며,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공과 홍무적은 동지 10여 인을 규합하여 항의문을 올려 단호하게 말하였으나, 승정원에서 여러 번 제지당하였다. 언제 화를 당할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명단에서 이름을 빼나가는 자가 매우 많았고, 최종 접수되었을 때는 단지 대여섯 사람뿐이었다. 3월 초엿새에 상소를 올리니, 4월 초하루에 광해군이 결재를 하지 아니하고 내려 보내었다.」

이 상소 건으로 공은 성균관에서 제적되고 과거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했으나, 요즘으로 말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이다. 1617년 인목대비가 폐서인되어 서궁(西宮)에 유폐되었다. 서슬 퍼런 광해군 치하에서 인목대비의 폐서인을 반대한 공으로서는 이제 과거시험을 통해 출사(出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었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政)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된 것이다. 공은 인조가 즉위한 그 이듬해에 발탁되어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에 제수되고 이후 제용감(濟用監) 직장(直長)으로 승진하였다. 같은 해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공은 충청도 공주까지 인조를 호종(扈從)하였다.

1627(인조 5)년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공은 전주까지 소현세자(昭顯世子)를 호종하였고, 이때 전주의 세자 조정에서 실시한 과거시험에 3등으로 급제하였으니 공의 나이 38세 되는 해였다. 이 과거시험에서 공이 제출한 시문(試文)이 <은우계성잠(殷憂啓聖箴)>이었는데, 이는 환난을 당하여 큰 고통에 빠진 세자를 위로하고 그 나아갈 길을 성찰케 하는 내용이었다. 1677년 전라감영에 부임한 공의 후손 제호(濟豪)가 전주에서 우연히 빗 도구를 쓴 이 시문 답안지를 발견하여 후대에까지 전해지고 있다.

과거에 급제한 이듬해부터 공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설서(設書), 승정원(承政院) 주서(注書), 예조좌랑(禮曹佐郎),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과 문학(文學), 예조정랑(禮曹正郎) 겸 춘추관(春秋館)의 기주관(記注官)을 지냈다. 1631년에는 잠시 외직인 부안현감을 지내고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사헌부 지평과 문학,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해운판관(海運判官), 성균관 사예(司藝)와 직강(直講), 사간원 헌납(獻納), 세자시강원 필선(弼善)으로 일했다.

1936(인조 18)년 공이 능주목사로 나가 있는 동안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공은 즉시 사병(私兵)을 불러 모아 전주로 나아가, 형님 원중(元重) 및 경주김씨 집안 여러 사람들과 병사들을 통합하고 함께 서울로 진격하였다. 이듬해 정월에 과천에 진을 치고 청나라 군사와 싸워 많은 공을 세웠으나 인조의 항복으로 눈물을 머금고 능주로 돌아갔다. 공이 돌아가시고 5년 후인 1653년 공을 비롯한 경주김씨 5군자를 제사하고 그 창의정신을 기리기 위해 임실 삼계에 용대사(龍臺祠)가 지어졌으나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어 지금은 유허비(遺墟碑)만 남아 있다.

1641년 다시 내직으로 돌아온 공은 통례원(通禮院) 우통례(右通禮), 성균관 직장, 사헌부장령(掌令)과 집의(執義), 사간원 사간(司諫), 군자감정(軍資監正), 종부시정(宗簿寺正)을 지냈으니, 공의 일생 동안의 공직생활은 역사·감찰·교육 부문에서 있었다. 공은 1647년 마지막

벼슬인 함경도 종성도호부사(鍾城都護府使)로 부임했으나, 조선인들이 월경(越境)하여 만주 땅에서 사냥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청나라의 항의와 압력을 받아 그 이듬해에 파직되었다.

벼슬을 모두 마친 공은 용인의 갈내 고을에 정착하여 노년을 보내다가 1649(인조 27)년 숨을 거두었다. 조정에서는 자헌대부(資憲大夫) 예조판서 겸 지경연(知經筵), 의금부도사, 춘추관·성균관 사예,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 오희도총부 도총관을 추증했다. 유해는 충주 봉황내에 모셔졌으며, 1699(숙종 25)년 동방18현(東方十八賢)의 한 분인 박세채(朴世采) 선생이 찬술한 신도비가 묘 아래에 세워졌다. 문집으로 『갈천집(葛川集)』이 있다. 용인 일대의 경주김씨는 대부분 공을 파조로 하는 갈천공파에 속해 있으며, 1985년 8월, 그 후손들에 의해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갈천공 김원립선생 창의근국기념비’가 건립되었다.

#### 이경증(李景曾: 1595~164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성(汝省), 호는 송음(松陰)·미강(眉江). 할아버지는 절도사 이원, 아버지는 군수 이통(李通)이다. 어머니는 영의정 유전(柳暉)의 딸이다.

1613년(광해군 5), 19세의 나이로 진사가 되었으나, 당시 폐모론이 일어나자 향리에서 두문불출하다가 인조반정 후인 1624년(인조 2)에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처음 전직에 임명되어 정언, 예조좌랑·병조좌랑을 거친 뒤 1626년(인조 4)에 다시 정언이 되었으나, 당시 계운궁우제(啓運宮虞祭)때 부원군 이귀(李貴)와의 의견 차이로 파직되었다. 그 뒤 다시 복직되어 전직·정언·문학을 거쳐 지평이 되었고, 정묘호란 때에는 왕이 강화로 피란을 가자 어사로서 호남에 내려가 식량 조달에 큰 공을 세웠다.

그 뒤 5~6년간은 양사의 지평·헌납·사간을 지냈으며, 세자시강원에서 사서·보덕 등을, 홍문관에서는 수찬·응교 등을 여러 차례 거쳤다. 이어서 검상을 거쳐 사인·형조정랑으로 승진되었다. 그 뒤 청주목사·응교·첨지가 되었고, 병자호란 때에는 병방승지로 호종하여 공을 세움으로써 환도 이후 도승지로 승격하고, 곧이어 병조판서 겸 비변사유사 및 군공청당상(軍功廳堂上)을 맡아 전국의 장사(將士)들의 공죄(功罪)를 잘 조사한 공으로 대사간이 되었다.

1638년에는 왜인들이 호란을 빙자하여 침구할 기세를 보이므로 그가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임기응변으로 일을 잘 처리하였다. 뒤에 병조판서가 되어 원접사(遠接使)로서 용만(龍灣)에 나갔다가 병으로 인하여 정직하였다가 1644년에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듬해에 조민(趙珉)



이라는 인물을 잘못 등용하였기 때문에 찬배(竄配)되었다. 1646년에 지중추부사로 시관이 되어 시제를 시휘(時諱)에 저촉되게 잘못함으로써 이식(李植)과 함께 삭출(削黜)되어 강교(江郊)에 은거하였다. 1649년(효종 즉위년)에 신원되어 관작이 회복되었다. 이경증은 권필(權鐔)의 문인이다.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데 묘비와 동자석, 망주석, 문관석을 갖추고 있다. 용인시 향토유적 제46호로 지정되었다. 신도비는 1774년(영조 50)에 건립되었는데, 전액(篆額)은 대제학 남유용이 쓰고, 비문은 권상하가 짓고 글씨는 윤양후가 썼다.

### 이시직(李時稷: 1572~1637)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유(聖兪), 호는 죽창(竹窓)이다.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 이석형(李石亨)의 6대손이며, 할아버지는 이정현(李廷顯), 아버지는 청암도찰방(靑巖道察訪) 이빈(李賓)이다.

1606년(선조 39) 사마시에 합격하고 1623년(인조 1) 별제가 되었다. 1624년(인조2) 직장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왕을 공주까지 호종하였다. 이어 종묘서직장을 거쳐 성균관전적이 되었다. 1635년(인조 13) 병조좌랑·사간원정언·사헌부장령·세자시강원필선 등과 장악원정·사복시정·봉상시정 등을 역임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에 들어갔다가, 강화가 함락되자 사복시주부 송시영(宋時榮)이 먼저 자결하자, 묘 돌을 파서 송시영을 매장하고 하나는 비워놓아 노복에게 자기를 그곳에 매장하도록 부탁한 다음 활끈으로 목을 매어 죽었다.

어려서 총명이 뛰어나 10세에 조호익(曹好益)에게 배웠으며, 뒤에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에 있으며, 같은 장소에 있는 장령증도승지죽창이공묘비명(掌令贈都承旨竹窓李公墓碑銘)은 1653년(효종 4)에 세워졌다.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강화의 충렬사(忠烈祠)와 회덕의 송현사(崇賢祠)의 별사에 제향되었다.

### 이시정(李時程: ?~1653)

조선 후기 용인 출신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중화(仲和).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

이석형(李石亨)의 6세손으로 아버지는 형조정랑(刑曹正郎) 이빈(李贄)이며, 어머니는 찬성(贊成)에 추증된 전의(全義) 이언우(李彦佑)의 딸이다. 부인은 현감 수안(遂安) 이형장(李亨章)의 딸이다.

이시정은 선조 대에서 광해군, 인조, 효종의 4대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형제애가 두터웠다. 1606년(선조 39)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한 뒤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1618년(광해군 10)에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모론이 일어나 고향인 용인으로 낙향하였다.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폐모론에 동조한 성균관 학생들에 대한 문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시정은 대사성 정엽(鄭擘)에게 이는 피치 못할 일이었으니 관대하게 해야 한다고 진언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으로 영남으로 피난했을 때는 정경세(鄭經世)를 만나 그 추천으로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가 되었다.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거쳐 남별전감조관(南別殿監造官)이 되었는데 이때 김자점(金自點)에게 관리를 종처럼 부리는 수모를 당하자 벼슬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낙향하였다. 이시정은 병자호란 때 전란을 피하는 등 고향에서 18년간 은거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에 있다.

#### 정제두(鄭齊斗: 1649년~1736).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사양(士仰), 호는 하곡(霞谷)·추곡(楸谷).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정몽주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우의정 정유성(鄭維城)이고, 아버지는 진사 정상징(鄭尙徵)이며, 어머니는 한산 이씨(韓山李氏)로 호조판서이기조(李基祚)의 딸이다.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이다.

조선에 전래된 양명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최초로 사상적 체계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경세론을 전개한 조선 후기의 양명학자이다. 몇 차례 과거시험에 실패한 뒤 1672년(현종 13)부터는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였다. 1680년(숙종 6)영의정김수항(金壽恒)의 천거로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종부시주부·공조좌랑에 임명되었다. 1688년평택현감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서연관(書筵官)을 비롯하여 상령군수·종부시주부·사헌부장령·사헌부집의에 임명되었다.

1709년 강화도 하곡(霞谷)으로 옮겨 살았으며, 호조참의·강원도관찰사·동지중추부사·한성부좌윤에 임명되었다. 1722년(경종 2)사헌부대사헌·이조참판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성균관좌

주·사헌부대사헌에 임명되었다. 1726년(영조 2) 이정박(李廷撲)이 그가 양명학을 한다고 배척했으나 영조의 보호를 받았다. 1728년의정부우참찬에 임명되었고, 1736년 세자이사(世子貳師)에 임명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주자학을 공부하다가 일찍부터 양명학에 심취하였다. 당시의 도학은 정통주의적 신념에서 양명학을 이단으로 배척했으나, 그는 확고한 신념으로 양명학의 이해를 체계화시키고 양명학파를 확립하였다.

그는 당시 주자학의 권위주의적 학풍에 대해 학문적 진실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오늘날에 주자의 학문을 말하는 자는 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곧 주자를 핑계대는 것이요, 주자를 핑계대는 데에서 나아가 곧 주자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그 뜻을 성취시키며, 주자를 끼고 위엄을 지어서 사사로운 계책을 이루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송시열(宋時烈)과 서신을 통해 경전의 뜻과 처신의 의리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고, 스승 박세채를 비롯하여 윤증(尹拯)·최석정(崔錫鼎)·민이승(閔以升)·박심(朴鑣) 등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양명학의 문제를 토론하였다.

박세채는 『왕양명학변(王陽明學辨)』을 지어 양명학을 비판하고, 그에게 양명학을 버리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제두는 “왕수인(王守仁)의 학설에 애착을 갖는 것이 만약 남보다 특이한 것을 구하려는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연히 끊어 버리기도 어려운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문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성인의 뜻을 찾아서 실지로 얻음이 있고자 할 뿐입니다.”라고 하며 결연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민이승과는 여러 차례 만나서 토론을 벌이거나 서신을 통해 조목별로 심즉리(心卽理)·치양지·지행합일·친민(親民) 등 양명학의 문제들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양명학과 주자학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민이승에게 왕수인의 글을 초록하여 제시하기도 하고, 『양지체용도(良知體用圖)』와 『여명체용도(麗明體用圖)』를 그려서 양명학의 심성론과 양지론의 도상적 표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왕수인의 심즉리를 받아들여 주자가 마음[心]과 이(理)를 구별하는 것을 비판하고 마음과 이의 일치를 주장하였으며, 이와 기(氣)의 이원화도 거부하고 이기합일론의 입장을 취하였다. 나아가 이가 마음과 일치되어 마음 밖에 이가 따로 존재할 수 없게 되기에 이가 공허하지 않고 실실하게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양지의 개념에 대해서 지각이나 지식의 뜻과 구별하여 성체(性體)의 지(知)요, 본연의

선(善)이며, 오상(五常)의 지(知)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여 성의 본체라 하였다. 『양지체용도』에서도 중심의 원 속에 마음의 성과 인의예지(仁義禮智), 마음의 본원과 양지의 본체를 동일시키고 있으며, 바깥의 가장 큰 원은 천지만물인 동시에 마음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는 심(心)·성(性)·정(情)의 관계도 성은 양지의 본체이고, 정은 양지의 작용이며, 마음은 바로 양지의 전체라 이해하였다. 또한 지행합일설에 대해서도 지와 행을 둘로 나누어 놓는 것은 물욕에 가려진 것이라 하고, 양지의 본체에서 보면 지와 행이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황과 이이의 성리설도 비판하면서 양명학의 확립에 전념하였다. 아들 후일(厚一)을 비롯하여 윤순(尹淳), 김택수(金澤秀), 이광사(李匡師) 형제 등이 그의 문인으로서 학풍을 계승하였으며, 그가 속하는 소론의 가학으로서 학파를 형성하여 강화도를 중심으로 표면에 나타나지 못한 채 계승되어갔다.

저서로는 양명학의 치양지설(致良知說)과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받아들여 저술한 『학변(學辨)』·『존언(存言)』, 경전 주석서인 『중용설』·『대학설』·『논어설』·『맹자설』·『삼경차록(三京筭錄)』·『경학집록』·『하락역상(河洛易象)』, 송대 도학자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인 『심경집의(心經集義)』·『정성서해(定性書解)』·『통서해(通書解)』 등이 있다.

## 제5절 조선시대 용인 출신 급제자

향교교육은 과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제도는 유학교육의 성과를 수렴하는 제도라고 할 때 지방에서의 유학교육도 과거제도와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향교는 지방 교육의 중심으로 지방 인재의 발굴과 육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향교의 융성에 따라서 그 지방의 인재가 얼마나 중앙에 진출하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과거 급제자의 정황을 바탕으로 해당 향교의 융성을 가늠할 수 있다.

조선 시대 용인 출신의 생원진사과 급제자는 122명에 달한다. 용인지역 유학교육의 중심이었던 용인향교의 융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용인출신 생원진사과 급제자를 분석해 보았다.

〈표6-2〉 조선시대 용인출신 생원진사과 급제자 현황

구분	계	세종	성종	중종	명종	선조	광해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생원	50	1	0	1	3	2	1	7	1	10	8	3	6	2	5
진사	72	1	1	2	0	1	3	7	0	7	9	7	1	4	29
계	122	2	1	3	3	3	4	14	1	17	17	10	7	6	34

위의 표에서 보듯이 용인출신으로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 생원과에 급제한 인물은 50명, 진사과에 급제한 인물이 72명으로 도합 122명이다.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세종대에서 선조대까지의 급제자가 12명에 불과한 반면,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광해군대부터 고종대까지는 급제자가 110명에 달한다. 특히 숙종~정조대까지의 급제자가 주목된다. 이 같은 수치는 해당 기간 동안 용인지역 유학교육의 융성을 시사하는 성과로 간주된다.

참고로 용인출신으로 생원과·진사과에 급제한 인물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도표〉 조선시대 용인출신 생원 진사과 급제자 현황 (급제연도순)					
연번	성명	본관	자	생년	급제년도
01	강효문(康孝文)	신천(信川)	자무(子武)		1447(세종29)
02	이말손(李末孫)		단부(端夫)		1480(성종11)
03	이숙종(李淑琮)	영천(永川)	가헌(可獻)		1522(중종17)
04	송혜(宋惠)	연안(延安)	언형(彦馨)		1528(중종23)
05	이영성(李永成)	용인(龍仁)	원기(遠期)		1528(중종23)
06	이여돈(李汝惇)	인천(仁川)	후부(厚夫)		1549(명종4)
07	이종운(李從運)	용인(龍仁)	중우(仲祐)	1531	1561(명종16)
08	심원하(沈源河)	청송(靑松)	응청(應淸)	1540	1564(명종19)
09	홍덕인(洪德仁)	남양(南陽)	선원(善元)	1531	1568(선조1)
10	정충전(鄭忠傳)	영일(迎日)	선술(善述)	1567	1606(선조39)
11	김효길(金孝吉)	삼척(三陟)	달경(達卿)	1571	1606(선조39)
12	하영서(河永緒)	진주(晉州)	중윤(重胤)	1563	1610(광해2)
13	이홍립(李弘立)	연안(延安)	백신(伯信)	1564	1613(광해군5)
14	안대수(安大遂)	광주(廣州)	성지(成之)	1575	1615(광해7)
15	장치상(張致祥)	단양(丹陽)	시망(時望)	1586	1616(광해8)
16	조원봉(趙遠朋)	한양(漢陽)	낙부(樂夫)	1648	1675(숙종1)
17	조종준(趙宗俊)	한양(漢陽)	태웅(太雄)	1650	1683(숙종9)
18	안서주(安瑞疇)	광주(廣州)	여구(汝九)	1658	1683(숙종9)
19	김정백(金廷白)	광주(光州)	중겸(仲謙)	1664	1684(숙종10)
20	박태창(朴泰昌)	나주(羅州)	성보(盛普)	1653	1689(숙종15)
22	홍구령(洪九齡)	남양(南陽)	태로(台老)	1640	1689(숙종15)
21	김환(金煥)	안동(安東)	자중(子重)	1650	1689(숙종15)
23	김인백(金仁白)	광주(光州)	원경(元敬)	1668	1690(숙종16)
24	김진(金鎬)	안동(安東)	자원(子遠)	1647	1693(숙종19)
25	심경(沈炯)	청송(靑松)	동야(東野)	1651	1693(숙종19)
26	정수주(鄭綏周)	동래(東萊)	이경(履卿)	1670	1705(숙종31)
27	이한진(李漢鎭)	덕수(德水)	백심(伯深)	1671	1715(숙종41)
28	한명대(韓鳴大)	청주(淸州)			1715(숙종41)
29	최완(崔琬)	화순(和順)	서규(瑞圭)	1675	1717(숙종43)
30	박용신(朴龍臣)	밀양(密陽)	운경(雲卿)	1659	1721(경종1)
31	김철(金哲)	안동(安東)	성여(聖興)	1691	1727(영조3)
32	이구(李球)	전의(全義)	진보(振甫)	1679	1727(영조3)
33	권답(權答)	안동(安東)	사우(士友)	1678	1729(영조5)
34	이가우(李嘉遇)	성주(星州)	열경(悅卿)	1691	1733(영조9)
35	정계주(鄭啓周)	초계(草溪)	희중(熙仲)	1706	1733(영조9)
36	유명상(柳命相)	진주(晉州)	택삼(宅三)	1712	1735(영조11)

연번	성명	본관	자	생년	급제년도
37	박사집(朴師緝)	반남(潘南)	사경(士敬)	1702	1744(영조20)
38	조언경(趙彦瓘)	한양(漢陽)	치회(稚晦)	1720	1747(영조23)
39	목조수(睦組洙)	사천(泗川)	경로(景魯)	1726	1747(영조23)
40	오태양(吳泰讓)	해주(海州)	득중(得仲)	1715	1750(영조26)
41	유정상(柳定相)	진주(晉州)	석삼(錫三)	1715	1750(영조26)
42	정지눌(丁志訥)	나주(羅州)	이민(李敏)	1724	1762(영조38)
43	남명관(南命寬)	의령(宜寧)	순경(舜卿)	1736	1768(영조44)
44	이횡(李鑛)	함평(咸平)	자화(子華)	1737	1773(영조49)
45	조언익(趙彦翼)	한양(漢陽)		1740	1773(영조49)
46	정재운(丁載運)	나주(羅州)	영회(永會)	1739	1774(영조50)
47	심능익(沈能翼)	청송(靑松)	원직(元直)	1744	1774(영조50)
48	김규(金圭)	안동(安東)	공서(公瑞)	1749	1777(정조1)
49	조해진(趙海進)	한양(漢陽)	정여(正汝)	1737	1777(정조1)
50	김완(金石+完)	경주(慶州)	도이(道以)	1731	1777(정조1)
51	윤칠중(尹喆中)	파평(坡平)	자명(子明)	1735	1777(정조1)
52	심성지(沈誠之)	청송(靑松)	사숙(思叔)	1739	1780(정조4)
53	이진옥(李振玉)	전주(全州)	미중(美仲)	1750	1780(정조4)
54	오태제(吳泰齊)	해주(海州)	희맹(希孟)	1730	1783(정조7)
55	김성욱(金星煜)	경주(慶州)	회이(晦而)	1742	1783(정조7)
56	정이록(鄭履祿)	광주(光州)	의지(宜之)	1752	1783(정조7)
57	김면진(金冕鎭)	경주(慶州)	휘서(徽瑞)	1756	1789(정조13)
58	이하운(李河運)	함평(咸平)	경빈(景賓)	1752	1790(정조14)
59	유경진(柳敬鎭)	진주(晉州)	사양(士仰)	1746	1792(정조16)
60	이한진(李漢鎭)	전주(全州)	원장(元章)	1760	1792(정조16)
61	윤준(尹濬)	파평(坡平)	경심(景深)	1768	1795(정조19)
62	오언옥(吳彦鈺)	해주(海州)	성진(聲振)	1771	1798(정조22)
63	윤심(尹深)	파평(坡平)	사청(士靑)	1745	1798(정조22)
64	조국인(趙國仁)	한양(漢陽)	사흥(士興)	1766	1798(정조22)
65	유달린(柳達麟)	진주(晉州)	치민(釋民)	1791	1804(순조4)
66	조경중(趙境中)	한양(漢陽)	붕지(朋之)	1788	1804(순조4)
67	이원록(李元祿)	전주(全州)	재중(在中)	1767	1814(순조14)
68	정갑(鄭玪)	광주(光州)	치일(釋一)	1778	1814(순조14)
69	이구세(李龜世)	전주(全州)	원령(元靈)	1782	1814(순조14)
70	원재경(元在敬)	원주(原州)	시보(時保)	1784	1816(순조16)
71	오기묵(吳基默)	해주(海州)	치온(釋溫)	1793	1822(순조22)
72	김형원(金馨遠)	경주(慶州)	명여(明汝)	1766	1825(순조25)
73	김익원(金翼遠)	경주(慶州)	봉래(鳳來)	1809	1834(순조34)

연번	성명	본관	자	생년	급제년도
74	강환(姜桓)	진주(晉州)	무백(武伯)	1808	1834(순조34)
75	조형면(趙亨勉)	한양(漢陽)	여중(汝中)	1805	1837(헌종3)
76	김익원(金益遠)	경주(慶州)	자순(子順)	1809	1840(헌종6)
77	오유묵(吳裕默)	해주(海州)		1802	1843(헌종9)
78	성혁수(成赫壽)	창녕(昌寧)	공리(公履)	1804	1846(헌종12)
79	유혜로(柳惠魯)	진주(晉州)	공전(公展)	1808	1849(헌종15)
80	김영희(金永喜)	경주(慶州)	석여(錫汝)	1826	1849(헌종15)
81	황종악(黃宗岳)	상주(尙州)	원방(元芳)	1814	1849(헌종15)
82	이용의(李用儀)	연안(延安)		1809	1850(철종1)
83	이용하(李鏞夏)	전주(全州)	효백(孝伯)	1820	1858(철종9)
84	이용협(李用協)	연안(延安)	공원(公元)	1827	1858(철종9)
85	정기현(鄭岐鉉)	영일(迎日)	봉래(鳳來)	1837	1859(철종10)
86	윤동식(尹東植)	파평(坡平)	군명(君命)	1790	1861(철종12)
87	김우상(金羽商)	경주(慶州)	한익(漢翼)	1827	1861(철종12)
88	이철영(李喆永)	전주(全州)	복여(福汝)	1825	1865(고종2)
89	정우섭(丁友燮)	나주(羅州)	순익(順益)	1832	1865(고종2)
90	이학년(李鶴年)	청해(靑海)	성여(聲汝)	1835	1867(고종4)
91	조종림(趙鍾林)	한양(漢陽)	순문(舜聞)	1828	1867(고종4)
92	오백선(吳百善)	해주(海州)	사원(士源)	1825	1867(고종4)
93	황종대(黃宗岱)	상주(尙州)	맹표(孟表)	1817	1867(고종4)
94	이능현(李能顯)	전주(全州)		1845	1876(고종13)
95	서상만(徐相萬)	대구(大邱)	사열(士悅)	1847	1876(고종13)
96	이원성(李元性)	청해(靑海)	선일(善一)	1843	1876(고종13)
97	이조연(李祖淵)	연안(延安)	경집(敬集)	1843	1876(고종13)
98	조진수(趙鎭洙)	평양(平壤)	주경(疇卿)	1837	1876(고종13)
99	남정휘(南廷徽)	의령(宜寧)	경신(景愼)	1855	1879(고종16)
100	이여소(李驪沼)	전주(全州)	원실(元實)	1805	1880(고종17)
101	이병렬(李炳烈)	전주(全州)	경렬(景烈)	1845	1882(고종19)
102	최우석(崔宇錫)	해주(海州)	여구(汝九)	1847	1882(고종19)
103	이규병(李奎炳)	우봉(牛峯)	성좌(聖佐)	1874	1888(고종25)
104	이근용(李根用)	우봉(牛峯)	성로(聖魯)	1831	1891(고종28)
105	이경재(李綱宰)	연안(延安)		1865	1894(고종31)
106	이원묵(李源默)	전주(全州)	현경(玄慶)	1874	1894(고종31)
107	이준(李埈)	청주(淸州)	명덕(命德)	1832	1894(고종31)
108	이장직(李章植)	한산(韓山)	성평(聖平)	1862	1894(고종31)
109	장세교(張世喬)	덕수(德水)		1877	1894(고종31)
110	정보섭(丁寶燮)	나주(羅州)	유현(惟賢)	1874	1894(고종31)



연번	성명	본관	자	생년	급제년도
111	장세철(張世轍)	덕수(德水)		1874	1894(고종31)
112	조익원(趙翼元)	한양(漢陽)	공려(公勵)	1859	1894(고종31)
113	이순필(李淳弼)	전주(全州)	은보(殷輔)	1875	1894(고종31)
114	정일영(鄭一永)	영일(迎日)	덕유(德有)	1874	1894(고종31)
115	오순선(吳醇善)	해주(海州)	공유(公儒)	1874	1894(고종31)
116	어명근(魚命根)	함중(咸從)		1874	1894(고종31)
117	안교형(安教亨)	순흥(順興)	치상(致常)	1874	1894(고종31)
118	민영선(閔泳善)	여흥(驪興)		1874	1894(고종31)
119	김영관(金榮寬)	김해(金海)	한경(漢卿)	1874	1894(고종31)
120	정대승(丁大升)	나주(羅州)	명중(明中)	1849	1894(고종31)
121	황재정(黃在鼎)	창원(昌原)		1879	1894(고종31)

한국의 유학사에서 용인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를 조선 숙종~정조대까지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기호학파의 중심 기지가 바로 용인이었다. 노론계 맹주인 우암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한 도암 이재는 용인에 한천정사를 건립하여 거주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낙론을 펼치며 호론을 견제하였다. 충렬서원, 심곡서원, 한천정사, 용인향숙 등 용인지역 유교교육의 틀을 마련하고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재이다. 한편, 남인을 대표하는 약천 남구만도 용인 파담에 거주하면서 정론(政論)을 펼쳤다.

조선시대에 용인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출사하고, 낙향한 이후에는 고향의 후학을 양성 하였던 인물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강 환(姜桓, 1808-?)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자는 무백(武伯)으로 제만(濟萬)의 아들이다. 27세 때인 1834년(순조 34) 갑오(甲午) 식년시(式年試)에서 진사(進士) 3등(三等) 17위로 급제하여 주부(主簿·종6품)를 지냈으며 수직으로 자헌대부 동지중추(資憲大夫 同知中樞)를 받았다.

### 강효문(康孝文 ?-1467)

본관 신천(信川)이며 자는 자무(子武)이고 강여중(康汝中)의 아들이다. 1447년(세종 29)에 소과에 합격하고 1450년(문종 즉위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합격하였다. 1455년 평안도 도사로 재임중 세조가 즉위하자 원종공신에 책봉되었고 1460년 야인 토벌을 위해 함길도 절제사

신숙주의 종사관으로 출정하여 큰 전과를 올리었다. 그 공으로 이조참판으로 승진하였다. 1467년 함길도 병마사로서 각 진관을 순시하던 중 세조의 인사정책에 불만을 품은 당시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전 회령부사 이시애에게 목숨을 잃었다. 이시애는 반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강효문이 한명회, 신숙주 등과 결탁하여 모반을 꾀해 죽였다고 조정에 거짓보고 하였다. 이로 인해 반역으로 논죄되었으나 1471년(성종 2)에 이 사실이 밝혀져 복권되었다.

**공윤항(孔胤恒: 1769- )**

본관은 곡부이며 자는 사홍(士弘)이다. 명현인 공서린의 9대손으로 용인에 거주하였는데 정조가 공자의 후손이며 명현 서린의 후손들을 우대할 방도를 모색하라는 권고에 따라 공윤항이 초계문신이 되고 이어서 초계문신친시에 장원하였다. 1794년 알성시에 응시하여 병과로 합격 하고 전적, 병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공자의 후손들은 본관을 창원, 곡부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공윤항의 과거 합격을 계기로 정조임금이 창원이라 하지 말고 곡부로 사용하라 하여 이후로는 창원이라 하지 않고 곡부라 하였다 한다.

**공재범(孔在範: 1847-)**

본관은 곡부이며 자는 우필(禹弼)이고 부는 광렬(光烈)이다. 거주지는 용인이며 1877년(고종 14)에 정시(庭試)에 합격하였다.

**권 답(權答 1687-?)**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사우(士友)로 한성판윤, 예조판서를 역임하며 충렬서원 원장을 역임한 권적의 아들로 1729년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권종수(權鍾秀: 1720-?)**

본관은 예천(醴泉)이고, 자는 중문(仲文)으로 아버지는 중덕(重德)이다. 영조 때인 1753년 식년시에 갑과로 합격하여 벼슬이 도사에 이르렀다.

**김 영(金垚 1707-?)**

본관은 삼척(三陟)으로 자는 경원이다. 1742년 증광시에 병과로 합격하였다. 아버지는 두찬

(斗燬)이고, 현감을 역임하였다.

#### 김 완(金 碗: 1731-?)

본관 경주이며 자는 도이(道以)이고, 김사호의 아들로 1771년(정조 1)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 김 환(金 緩: 1650~1744)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1650년(효종 1) 1647년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김효건과 청송심씨 사이에 태어났다. 자는 자중(子重)이며 호는 낙애(樂厓)이다. 1689년(숙종 15) 39세에 기사년 증광시(增廣試) 진사에 합격하였다. 이어 1691년(숙종 17) 신미년 증광시 갑과 3위에 합격하였다. 관직은 현감(縣監)·지사(知事)·군수(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1738년 80세를 넘겨 영조(英祖)를 인견하고 어필어제시(御筆御題詩)를 하사받았다. 이때 지중추부사가 되었으며 자헌대부 올라 기로사(耆老社)에 들었다. 92세인 1742년(영조 18) 9월 4일 동지돈녕부사 때 영조로부터 호랑이 가죽을 하사받았으며, 1744년(영조 20) 94세로 졸하였으며 8명의 임금을 모셨다.

#### 김규(金圭:1749~1798)

본관은 안동이며 1749년(영조 25)에 유학인 김윤중(金允中)과 기계유씨(杞溪俞氏) 사이에 태어났다. 자는 공서(公瑞)이며 1777년(정조 1) 28세에 정유년 식년시(式年試) 생원과에 합격하였다. 배위는 전주이씨 항주(恒冑)의 딸이다. 1798년(정조 22)에 졸하였다.

#### 김면진(金冕鎭, 1756-1836)

본관 경주(慶州)이며 통덕랑 김행간(金行簡)의 장남으로 태어나 기묘명현 심청헌 김세필의 10세손이다. 1729년(정조 13)에 과거에 합격하여 생원이 된 후 여러 벼슬을 거치다가 1836년 향년 81세로 졸하였다.

#### 김성욱(金星煜:1742-?)

본관은 경주이며 자는 화이(和而)이고 김낙요(金樂堯)의 아들이며 동생 성익(星燧), 성흙(星火+翁)이 있다. 1873년(정조 7)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김영관(金榮寬: 1874-?)**

본관 김해(金海)이고 자는 한경(漢卿)이다, 아버지는 김상원(김상원)이며 조선 마지막 과거인 1894년(고종 31)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김영희(金永喜: 1826-?)**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석여(錫汝)로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태어나 용인현 수여면 남동(현 처인구 남동)에 거주한 인물이다. 집안은 가난하였으나 아버이를 극진히 모시며 학업에 열중하여 1849년(헌종 15)에 소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던 중 모친상을 당하자 용인 집으로 내려와 장사를 지낸 뒤 여막을 짓고 시묘를 하였다. 추우나 더우나 맛 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소식을 하며 어머니를 그리워하였다. 시묘를 마친 후 어느 날 성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리를 헛디터 정신을 잃었을 때 홀연히 한 사람이 나타나 부축하여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주고 사라졌는데 주변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마을사람들은 하늘이 그의 효행에 감복하여 도와준 까닭이라 하였다 한다.이 사실을 전해들은 고종이 1891년 조봉대부(朝奉大夫:정4품 품계이름)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추증하고 효자정문을 내렸다. 이 효자정문은 현재까지 처인구 남동에 전해지고 있다.

**김익원(金益遠 1809-?)**

본관은 경주이며, 자는 자순(子順)으로 아버지는 김성주(金星柱)이다. 1840년(헌종 6)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김익원(金翼遠: 1809-?)**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봉래(鳳來)로 통덕랑 김성추(金星樞)의 아들로 태어나 1834년(순조 34)에 과거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김인백(金仁白: 1668-?)**

본관은 광주(光州)로 자는 원경(元敬)이고 아버지는 유학 김우망(金宇望)이다. 1690년(숙종 16)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김전(金鐫:1647~1734)**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1647년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김효건과 청송심씨 사이에 태어났다. 자는 자원(子遠)이며 46세인 1693년(숙종 19)에 계유년 식년시 생원과에 합격하였다. 배위는 김해김씨로 김숙의 따님이다. 수직(壽職)으로 첨지중추부사에 올랐으며 1734년(영조 10) 향년 88세로 졸하였다.

**김절(金哲:1691~1739)**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1691년(숙종 17)에 통덕랑을 지낸 김정주(金正胄)와 광주안씨(廣州安氏) 후익(後益)의 따님 사이에 태어났다. 자는 성여(聖與)이며 1727년(영조 3) 36세에 정미년 증광시(增廣試) 진사과에 합격하였다. 배위는 한양조씨(漢陽趙氏) 猗興(기흥)의 딸이다. 1739년(영조 15) 49세로 벼슬 없이 포의(布衣)로 졸하였다.

**김정백(金廷白: 1664-?)**

본관은 광주(光州)로 자는 중겸(仲謙)이며 아버지는 유학 김우석(金宇奭)이다, 1684년(숙종 10)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김정용(金廷龍, 1712-?)**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자는 사위(士偉)이고 아버지는 성언(聖彦)이다. 1778년 친림정시에 합격하여 호조 낭관을 역임하였다.

**김형원(金馨遠:1766-?)**

본관 경주이고 아버지는 김성한(金星漢)이다. 자는 여명이고 1825년(순조 25)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김형일(金衡-1669-?)**

본관 안동(安東)이며 자는 평숙(平叔)이다. 아버지는 정구(鼎九)로 1735년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찰방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1650년(효종 1) 1647년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김효건과 청송심씨 사이에 태어났다. 자는 자중(子重)이며 호는 낙애(樂厓)이다. 1689년(숙종 15) 39세에 기사년 증광시(增廣試) 진사에 합격하였다. 이어 1691년(숙종 17) 신미년 증광시 갑과 3위에 합격하였다. 관직은 현감(縣監)·지사(知事)·군수(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1738년 80세를 넘겨 영조(英祖)를 인견하고 어필어제시(御筆御題詩)를 하사받았다. 이때 지중추부사가 되었으며 자헌대부 올라 기로사(耆老社)에 들었다. 92세인 1742년(영조 18) 9월 4일 동지돈녕부사 때 영조로부터 호랑이 가죽을 하사받았으며, 1744년(영조 20) 94세까지 살며 8명의 임금을 모셨다.

#### 김효길(金孝吉: 1571-?)

본관 삼척(三陟)으로, 자는 달경(達卿)이다. 아버지는 유학 김추(金鍾)이고 1606년(선조 39)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 남명관(南命寬: 1786 ~ ?)

본관 의령(宜寧)이며 1736년(영조 12) 통훈대부(通訓大夫) 전행사포서별제(前行司圃署別提)를 지낸 남학정(南鶴貞)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순경(舜卿)이며 1768년(영조 44) 32세에 무자(戊子) 식년시(式年試) 생원과 3등 50위로 합격하였으며 과목은 일의(一疑)였다.

#### 목선항(睦善恒: 1771-?)

본관은 사천(泗川)이며 자는 사상(士常)이다. 아버지는 상후(相堉)이며 1735년 식년전시에 병과로 합격하여 예조 낭관을 역임하였다.

#### 목조수(睦祖洙: 1726 ~ ?)

본관은 사천(泗川)이며 1726년(영조 2) 진사(進士) 목회경(睦會敬)과 무안박씨(務安朴氏) 사이에 태어났다. 자는 경로(景魯)이며 1747년(영조 23) 정묘년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 50위에 합격하고, 1761년(영조 37) 신사년 정시(庭試) 병과(丙科) 19위로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正郎), 사직서령(社稷署令)을 지냈다. 안정복(安鼎福)의 문하에 드나들었다. 1779년(정조 3)에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칭호를 정하지 못하고 학자들에게 물은 일이 있는데, 송시열

의 현손인 송덕상(宋德相)은 전 임금의 살아 있는 비를 칭하는 ‘왕대비(王大妃)’로 의논하였다. 당시 예조의 낭관(郎官)으로 있던 목조수가 정조의 명을 받고 김양행(金亮行)에게 가서 이 문제를 물었으나 김양행은 예학에 어둡다며 답을 피하였다. 목조수는 순암을 찾아가 영조가 정조에게 조부가 되므로 ‘대왕대비’가 마땅하며 송덕상의 의논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안정복으로부터 한선제(漢宣帝)가 소제(昭帝)의 종손으로서 소제의 황후인 상관씨(上官氏)를 황태후가 아닌 태황태후로 칭했다는 전거를 들었다. 배위는 한산(韓山) 이지화(李至和)의 딸이다.

#### 박사집(朴師緝)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학생인 박필휴(朴弼休)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사경(士敬)이며 1744년(영조 20) 갑자년 식년시(式年試) 생원과 3등 30위와 같은 해 진사과 3등 3위로 양시(兩試)에 합격하였다.

#### 박세구(朴世九: 1864-?)

본관은 고령(高靈). 부는 우승(遇昇)이다. 신묘 증광시에 병과로 합격하였다.

#### 박용신(朴龍臣: 1659 ~ ?)

본관 밀양(密陽)이며 1659년(효종 10)에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성균생원(成均生員)을 지낸 박유겸(朴維謙)이다. 자는 운경(雲卿)이며 1721년(경종 1) 신축년 식년시(式年試) 생원과 3등 26위로 합격하였다.

#### 박태창(朴泰昌: 1653~1705)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1653년(효종 4)에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박세현(朴世櫛)이고, 어머니는 정원준(鄭元俊)의 딸이다. 자는 성보(盛甫)이고 호는 운계(雲溪)이다.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지내다 1695년(숙종 21)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고 1699년에 사헌부 지평(持平)·세자시강원 사서(司書)를 거쳐 1700년 이후 사헌부 장령(掌令)을 역임하였다. 배위는 이진겸의 딸이다. 1705년(숙종 31)에 졸하였다.

**송덕중(宋德中:임진 속중)**

본관은 여산(礪山)이며 자는 용경(龍卿)으로 식(弑)의 아들이다. 1740년 증광시에 합격하여 사간원 헌납, 사헌부 지평, 승정원 승지를 역임하였다.

**송혜(宋蕙)**

본관 연안(延安)이며 자는 언형(彦馨)이다. 아버지 송익수(宋益粹)는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부호군(行副護軍)을 지냈다. 1528년(중종 23) 무자년 식년시(式年試) 진사과 3등 8위로 합격하였다.

**심규로(沈奎魯:1761-?)**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화오(華五)로 집(楫)의 아들로 용인에서 태어났다. 1782년(정조 7) 경과에 병과로 합격하였다.

**심주택(沈周澤:1867-?)**

본관 청송(靑松)이고 아버지는 의윤(宜允)이다. 1890년 경과 별시에 병과로 합격하였다.

**어사필(魚史弼: 1629-?)**

본관은 함중(咸從)으로 진혁(震赫)의 아들이다. 1684년 정시에 병과로 합격하여 별제를 역임하였다.

**유성린(柳成麟: 1860-?)**

본관은 진주(晉州). 아버지는 성무(聖武)이며 1887년 정시에 병과로 합격하였다.

**유진삼(俞鎭三: 1839-?)**

본관은 천녕(川寧)이고 아버지는 봉재(鳳在)이다. 1882년 식년시에 병과로 합격하였다.

**윤치은(尹就殷: 1687-)**



본관은 남원(南原). 숙종 때 유학으로 1705년 식년시에 합격하여 찰방을 역임하였다.

**이 탁(李卓: 1863-?)**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부는 조연(組淵)으로 1887년(고종 24) 경과별시에 병과로 급제 하였다.

**이만중(李萬中: 순조 기묘)**

본관은 단양(丹陽)이고 부는 칭운(稱運)이다. 계유년 증광전시에 병과로 합격하였다.

**이범석(李範錫: 1868-?)**

용인에서 운하(雲夏)의 아들로 태어나 고종 신묘년에 증광시에 병과로 합격하였다.

**이상설(李尙高: 정조 정미)**

본관은 광주(廣州)이며 자는 치수(稚秀)이다. 부는 학연(學淵)이고 병오 식년전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승헌(李承憲: 순조 임자)**

본관은 청해(靑海)로 창석(昌錫)의 아들이다. 자는 취도(稚度)이고 통덕랑 품계를 가지고 1826년(순조 26)에 정시문과 병과로 합격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홍문관 교리를 역임하였다.

**이용의(李用儀: 1809~1885)**

본관은 연안으로 호는 쌍행당(雙杏堂)이다. 이석형의 후손으로 생부는 후명(厚明)이고 모친은 해주오씨이다. 1850년(철종 1) 증광시에서 진사가 되고 1853년(철종 3)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문장과 경학에 밝았으며 문집이 있다. 배위는 원주원씨이다.

**이용협(李用協: 1830~1875)**

본관은 연안으로 자는 공원(公元)이고 호는 우당(愚堂)이다. 이석형의 후손으로 생부는 후명

(厚明)이고 모친은 해주오씨이며 형은 용의이다. 1859년(철종 10) 사과(司果)를 지냈다.

**이이담(李以澹: 정조 계유)**

본관은 단양(丹陽)이고 자는 화진(和軫)이다. 부의 이름은 옹(翁)이며 갑인 문묘 작헌례 문과에 병과로 합격하였다.

**이종칠(李鍾七: 고종 병신)**

본관 여주(驪州)이고 부는 용우(容祐)이다. 병술 경과정시에 합격하였다.

**이취영(李取榮: 고종 병신)**

본관은 안성(安城)이고 자는 성여(誠汝)로 아버지는 종구(鍾久)이다. 고종 때 경진증광시에 합격하였다.

**임 근(任瑾: 임진생)**

본관은 풍천(豐川)이며 자는 영중(瑩仲)이다. 품계가 통덕랑으로 을유년 식년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임희원(任希遠: 무진생)**

본관은 풍천(豐川)이며 자는 경중(景仲)이다. 유학으로 무자년 식년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벼슬은 공의(工議)를 지냈다.

**전홍교(全洪教: 1835~ ?)**

본관은 용궁(龍宮)이며 자는 인오(仁五)이고 부는 지련(智鍊)이다. 경오년 식년 문과에 합격하였다.

**정계주(鄭啓周: 1706-?)**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는 희중(熙仲)이며 부친은 동지중추(同知中樞)를 지낸 내봉(來鳳)이

다. 1733(영조 9)년 생원시에 2등 2위로 합격하였고 1740년(영조 16) 문과에서 갑과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장감(將監)을 지냈으며 배위는 서흥김씨이다. 풍양(豐壤) 조중진(趙重鎭)이 지은 비문이 있다.

**정도채(鄭度采: 1776-?)**

본관은 연일(延日)이고, 자는 자장(子長)으로 아버지는 만제(萬濟)이다. 1800년 왕세자 관례를 경축하는 경과에 병과로 합격하였다.

**정성채(鄭星采: 1757~1832)**

본관은 영일이고 자는 회규(檜奎)이며 순제(順濟)의 아들이다. 증손 태용(泰鎔)이 귀하게 되어 통훈대부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추증되었다.

**정수주(鄭綏周: 1670~1731)**

본관은 동래이며 자는 이경(履卿)이며, 행백(行百)의 아들이다. 1731년(숙종 31) 증광시에 급제하였고 배위는 청주한씨이며 계배는 원주변씨이다.

**정승빈(鄭昇濱: 1704-?)**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대유(大猷)이며 아버지는 대현이다. 1735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합격하여 사예(司藝)를 역임하였다.

**정이옥(鄭履玉: 1735-?)**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덕수(德粹)이며 아버지는 관유(觀由)이다. 1765년 식년시에 병과로 합격하여 마전(麻田) 현감이 되었다.

**정찬조(鄭纘祖: 1659~1717)**

본관은 영일(迎日)이고 자는 효백(孝伯)이며 호는 하천옹(下天翁)이다. 부친 정구징(鄭龜徵)과 모친 영산신씨(靈山辛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어려서 모친

상을 당하였는데 상을 치르는 모습이 어른과 같았고, 행동이 예법(禮法)에 어긋남이 없어, 외재(畏齋) 이단하(李端夏)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학문에도 독실하였으며, 성현(聖賢)의 학문에 뜻을 두고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영모재(永慕齋)를 짓고 양쪽 협실에 박약(博約)과 진수(進修)라는 편액을 걸어두고, 친인척들의 자제들에게 강학하였다. 명성이 높아지자 배움을 구하러 찾아오는 자들이 많았다. 대사헌 윤봉구(尹鳳九)가 묘지명을 썼다.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정황(鄭鎬)·정수(鄭鏞)·정환(鄭緩)·정심(鄭鐔)이다.

#### 정찬창(鄭纘昌: 1661~1733)

본관은 영일이며 자는 필대(必大)이고 호는 문계(文溪)이다. 조부는 군수(郡守) 정운한(鄭雲翰)이고 부친은 정구징(鄭龜徵)이다. 문집이 있으며 묘는 제천 북면 한송리에 있으며 7대손 한영이 지은 묘갈이 있다.

#### 정찬휘(鄭纘輝: 1652~1723)

본관은 영일(迎田)이며 자는 경유(景由)이고 호는 궁촌(窮村)이다. 포은 정몽주(鄭夢周)의 11대손으로 아버지 원징(元徵)은 현풍 현감(玄風縣監)이며 어머니는 칠원 윤씨(漆原尹氏)이다. 약관으로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생이 되었는데 스승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평생을 두고 『대학』·『심경(心經)』·『근사록』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당대 독학(篤學)의 선비로 알려졌다. 1681년(숙종 7)에 송시열이 영중추부사로 기용되자 그를 등용할 것을 민정중(閔鼎重)과 함께 천거하여 공릉참봉(恭陵參奉)에 제수되었고 이어 봉사 직장을 거쳐 주부가 되었다. 이어 연산현감으로 3년간 있다가 사임하였으며, 그 뒤 평시서령(平市署令)·군자감판관(軍資監判官)을 거쳐 외직으로 나가 산음(山陰: 지금의 산청)현감이 되었다. 스승 송시열을 주야로 사모하여 우암이 제주도와 초산으로 귀양갈 때 중도에 스승을 맞이하였으며, 산음현감을 사직한 뒤 공주의 유성에 복거(卜居)하였다. 한편, 1679년 정몽주의 사손으로 물망에 올랐으나, 송시열의 문인이라 남인 오시수(吳始壽)의 반대로 사손이 되지 못하였다.

#### 정충전(鄭忠傳: 1567~ ? )

본관은 영일(迎田)이고 자는 선술(善述)이며 호는 구정(駒亭)이다. 포은 정몽주선생의 8세손

으로 정림(鄭霖)의 둘째 아들이다. 영일정씨 포은공파 주부공 종친회의 파조이다

1567년(명종 22) 사과공(司果公) 림(霖)의 둘째 아들로 경기도 용인에서 출생하였다. 관직에 오른 뒤부터는 지금의 서울인 한양에 이거하였다. 주부공의 자(子)는 선술(善述)이요, 호(號)는 구정(駒亭)이다. 묘소는 포은선생 묘소 우측 50미터 능선, 5대조 설곡(雪谷) 정보(鄭保)의 묘소 상단에 있다.

주부공은 1642년 인조 2년 이괄의 난 때 공을 세워 종묘직장(宗廟直長, 종7품)에서 호조의 광흥창(廣興倉) 주부(主簿, 종6품)로 2계급 특진되었다. 죽은 뒤에 통훈대부(通訓大夫) 군기시(軍器寺) 부정(副正, 정3품)으로 추증(追贈)되었다. 부인으로 숙인(淑人) 남양홍씨(南陽洪氏)와 전주이씨(全州李氏)가 있는데, 남양홍씨에게는 윤(倫) 필 교(僑) 협(俠) 4형제가 있다. 전주이씨에게는 현(峴) 한 분이 있다.

주부공 정충전의 이력은 널리 알려진 바 없어 자세하지 않다. 단지, 족보의 기록을 통해 광흥창 주부를 역임하였다는 사실과 사후 통훈대부로 추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관찰사였던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가 쓴 「충렬서원강당기(忠烈書院講堂記)」를 통해 문중의 대소사에 적극 가담하여 활동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기문을 보면, 1605년(선조 38년) 포은선생 묘소에 참배하였을 때 포은 선생과 정암 조광조선생의 향사를 이어오던 사우(祠宇: 竹田書院)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져 배향(配享)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주부공 정충전이 현감 정종선(鄭從善), 진사 이시형(李時亨) 등과 함께 관찰사에게 충렬서원(忠烈書院) 건립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주부공은 영일정씨 종사(宗事)에 깊숙하게 관여하였던 것 같다.

주부공의 부인인 숙인 남양홍씨는 병자호란(丙子胡亂) 후 청나라의 요구로 소현세자(昭顯世子), 봉림대군(鳳林大君)과 함께 볼모로 끌려 갈 때 압록강에서 모래 세 말(三斗)을 치마폭에 숨겨 가지고 가서 거처하는 자리 위에 펼쳐놓고 생활하다가 3년 후에 귀환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는 숙인 남양홍씨가 양반가의 부인으로서 오랑캐 땅을 밟지 않겠다는 충절(忠節)과 정절(貞節)을 지키겠다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한영(鄭漢永)

조선 말기 모현면 능원리 출신의 유학자.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윤칠(允七), 호는 모은(慕隱). 포은 정몽주의 18세손이고, 아버지는 정구현(鄭九鉉)이다.

정한영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발랐으며, 유가의 법도에 따른 특출한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정한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관직은 종사랑과 감리서주사(監理署主事)를 지냈다. 문집으로 『모은유집(慕隱遺集)』이 있다.

1937년 3월, 충렬서원 및 보린회(保隣會)에서 발기하고 각지의 유지들이 협찬하여 효자비를 건립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에 있다.

### 조 변(趙汧: 1500-1582)

본관 한양(漢陽) 이며 자는 호연(浩然), 호는 금제(琴齋)이고, 시호는 정익(貞翼)이다. 아버지는 응교와 동래부사를 역임한 광언(光彦)이며 대사헌을 역임한 조광조는 그의 족속(族叔)이다. 공은 어려서 안치겸과 친분이 두터워 친하게 지내다가 1521년 신사무옥(辛巳誣獄)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귀양을 가 19년 만에 풀려 나와 세상의 뜻을 버리고 거문고를 타고 시를 지으며 일생을 마쳤다. 80세가 되어 자손들이 수연을 베풀어 줄 때 기력이 건강하여 춤도 추고 시를 지었다 한다. 필력이 높아 해동 명필로 칭송이 높았다. 묘소는 배위 광주 안씨와 함께 포곡읍 영문리 영곡 마을에 있으며 후손들은 포곡읍 일원과 김량장동, 역북동 일원에 세거해오고 있다.

### 조경중(趙璟中: 1788-?)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자는 봉지(朋之)로 성균 생원 조해진(趙海進)의 아들이다. 1822년(순조 22)에 식년시에 응시하여 생원이 되었다.

### 조국로(趙國老: 1603-1675)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자는 사원(士元)이며 호는 운곡(雲谷)이다. 증조는 기묘명현 중의 한 사람인 조변(趙卞)이고 아버지는 사헌부 감찰을 역임한 조심(趙堯)이다. 어려서부터 글을 좋아하고 총명하여 1626년 한성시(漢城試)에서 장원하고 1627년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어머니와 함께 전라도 강진으로 피난하였다가 뒤 늦게 1649년(효종 1)에 벼슬길에 나아가 숙년전 참봉을 역임하였다. 이 후 1654년(효종 5) 내섬시 봉사(內贍侍奉事)로 있을 때 청나라 사신이 음에 공의 직분상 당연히 접대를 하여야 하나 인조임금의 삼전도에서 당한 굴욕이 생각나 접대를 거절하고 바로 사직하여 선영이 있는 용인으로

낙향하였다. 낙향하여서는 스스로 운곡노인(雲谷老人)이라 자호하고 문미에 청나라를 섬길 수 없다는 글을 써 걸었다.

그의 묘는 역북동에 있다가 현재 해곡동으로 이장하였으며 공의 후손들은 공의 유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운공공파 종회를 만들고 운곡 회관을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가 지은 <용인향교상량문>이 『모원초(慕遠抄)』에 전한다.

### 조국인(趙國仁: 1766-?)

본관은 한양(漢陽)이며 통덕랑 사근(思近)의 아들로 태어나 사충(思忠)에게로 입양되었다. 1798년(정조 22)에 식년시에 을과로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정조실록』에 “승지를 보내어 날자를 가려서 치제(致祭)하고 정암의 봉사손(奉祀孫) 국인으로 하여금 초사(初仕)에 조용토록 하라, 또 듣건대 시판을 벽에 걸어두어 예의를 갖추어 제사를 받들지 못하니 집 한채를 사주어 향화를 받들게 하라.”는 기록이 있다.

또 음에 이자와 정암 조광조, 회곡 조광좌, 방은 조광보와 함께 지은 지곡동에 있는 사은정(四隱亭)이 쇠락하자 세분의 후손들이 합심하여 사은정을 중수하는데 솔선하였다. 안정복(安鼎福)이 쓴 『대록지(大鹿誌)』를 보완하여 1817년(순조 17)에 목활자본으로 출간하였다.

### 조규승(趙奎昇: 1769-?)

본관은 한양(漢陽)으로 자는 윤희(允和)이다. 아버지는 환(煥)이고 1804년(순조 4) 식년시에 유학으로 병과에 합격하였다.

### 조수인(趙守仁: 1769-?)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자는 정부(靜夫)로 아버지는 사근(思近)이다. 1809년(순조 9)에 용인에 거주하며 증광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조국인의 생가 아우이다.

### 조언익(趙彦翼: 1740-?)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아버지는 통덕랑 조중수(趙重遂)이다. 1773년(영조 49) 증광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다.

**조언형(趙彦炯: 1720-?)**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자는 치회(稚晦) 부는 중우(重遇)로 생부는 통덕랑 중수(重遂)이다. 1747년(영조 23) 식년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다

**조원봉(趙遠朋: 1648-?)**

본관은 한양(漢陽)으로 자(字)는 낙부(樂夫), 1675년(숙종 1)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아버지는 행군자감봉사(行軍資監奉事)를 역임한 조한수(趙漢叟)이다. 청도현감을 역임한 후 1813년에 그의 선정을 기리기 위한 송덕비가 청도읍 월곡리에 전해진다.

**조익원(趙翼元: 1859- )**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자는 공려(公勵), 부친은 유학 조종기(趙鍾夔)이다. 1894년(고종 31) 식년시에서 생원이 되었다.

**조종림(趙鍾林: 1828-? )**

본관 한양(漢陽)이고 자는 순문(舜聞)으로 아버지는 성균생원 조헌교(趙獻敎)이다. 1687년(고종 4)에 식년시에 응시하여 진사가 되었다.

**조종우(趙鍾宇: 1832-?)**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자는 대성(大聲)이다, 아버지는 진동(進東), 계동(啓東)으로 1873년에 식년시 갑과로 합격하였다.

**조종준(趙宗俊: 1650-?)**

본관 한양(漢陽)으로 자는 태웅(太雄)이다. 1683년(숙종 9) 증광시(增廣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아버지는 장사랑 조세벽(趙世璧)이다.

**조진수(趙鎭洙: 1837-?)**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자는 주경(疇卿)이며 아버지는 형규(亨逵)이다. 생부는 정규(貞逵)이다. 1876년(고종 13)에 식년시에 응시하여 생원이 되었다.

**조해진(趙海進: 1737-?)**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자는 정여(正汝)로 생원 언형(言炯)의 아들이다. 1777년(정조 1)에 증광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다.

**조형면(趙亨勉: 1805-?)**

본관 한양(漢陽)으로 자는 여중(汝中)이다, 현감 조국인(趙國仁)의 아들로 태어나 1837년(헌종 3)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현감으로 재임 중 1848년(헌종 14)에 증광별시(增廣別試) 병(丙)과로 합격하였다.

**최창부(崔昌溍: 1871-?)**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아버지는 정석(定錫)이다. 1898년 별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한진계(韓鎭榮: 1790-?)**

본관 청주(淸州)이고 자는 대임(大臨)이다. 아버지는 치준(致駿)으로 헌종 때인 1849년 식년 전사에서 병과로 합격하였다.

**홍백익(洪百翼: 1762-?)**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아버지는 완(椀)이며 자는 공평(公坪)이다. 1792년 식년시에 병과로 합격하였다.

## 제6절 근·현대 용인의 유학자

근·현대시기 용인의 유림은 대부분 ‘명륜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용인 명륜학교는 일제의 식민지화 교육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던 시기에 ‘민족교육’을 교육 목표로 설립되었다.

용인명륜학교에서 주도적으로 강학(講學)을 담당한 인물은 동전(東田) 맹보순(孟輔淳: 1862-1933)이다. 그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태어나 9세 때 신갈에 세거한 김운수(金雲水)<sup>2)</sup>에게 한학을 배우고, 15세 때 아우 서정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묵암(默庵) 심성택(沈聖澤)의 제자이기도 하다. 1894년에 생질 김학조의 권유로 신갈 금화산(金華山: 지금의 기흥구 상갈동 상미)에 거처를 옮기고 후학을 가르쳤다. 1897년에는 상촌(桑村)에 강사(講舍)를 지어 강학하였다. 1906년에 이르러 학생들이 넘쳐나 학당에 수용하기가 어려워지자 용인향교에 들어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부대신을 역임한 이도재(李道宰)와 함께 명륜학교를 설립하여 신구학문 교육에 힘썼다. 1910년 국치를 당하자 만주로 건너가 이동녕 등과 함께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신문을 발행하며 제자인 김혁(金赫)과 이영선 등을 가르쳤다. 고종(高宗)의 승하로 귀국하여 3년 상을 치른 후 심곡서원(深谷書院)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마쳤다. 그는 심곡서원 부지가 남에 손에 넘어가게 됨에 따라 용인지역 유지들과 함께 부지를 되찾아 오늘에 이르게 하였으며, 모현면 능원리 충렬서원 터에 충렬사를 다시 세우는데도 주도하였다.

용인명륜학교의 정황을 살필 수 있는 『용인명륜학교일기』가 남아 있어 근현대시기 용인 유림의 활동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용인지역의 정신적인 구심체가 명륜학교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교에서 배출한 학생들은 용인지역에서 근대교육의 지도자로 활동하거나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다. 어대선(魚大善)·이영선(李榮善)·김혁(金赫)과 같은 독립운동지사가 바로 명륜학교의 교사인 맹보순의 문하에서 배출된 인물이다.

『용인명륜학교일기』는 근대시기 용인향교의 실태와 용인지역 유학의 면모를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일기를 통해 용인향교의 유학 전통을 명륜학교가 계승했으며, 근대시기

2) 『경주김씨 갈천공파 족보』에 따르면 金雲水는 본명이 佐商이며 金學祖에게는 증조부가 된다. 김학조의 생부이자 맹보순의 姊兄인 華植의 조부이다.

용인유림들의 활동을 살필 수 있다. 명륜학교와 기호학교에서 수학한 정우용이 훗날 용인향교 초대 전교로 부임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전통이 계승되고 있다. 이 시기의 용인지역 유학자들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권중철(權重哲: 1884-1955)

안동권씨 원(願)계 섭문파(澁門派) 참판공종중(叅判公宗中)의 후손으로 1884년(고종 21) 7월 11일 갑신(甲申)에 용인 기흥읍 서천리에서 권석규(權錫圭)의 셋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문묘(文廟)의 직원을 역임하였으며, 용인향교 제2대 전교로 재임하였다. 부인은 숙인(淑人) 수안이씨(遂安李氏)이다. 1955년 12월 26일 을미(乙未)에 세상을 떠났다. 묘소는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종종 합동묘역에 있다

#### 김학조(金學祖: 1855~1926)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입향조인 갈천공(葛川公) 김원립(金元立)의 11대 손이다. 자는 성술(聖述)이고 호는 성재(誠齋)이며 아버지는 원식(元植)이다. 생부(生父)는 화식(華植)으로 백부인 원식에게 출계하였다. 어머니는 신창(新昌) 맹씨(孟氏)로 용인지역의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동전(東田) 맹보순(孟輔淳) 선생의 누님이다.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초기 용인지역의 대표적 유림의 한사람으로 간재(良齋)전우(田愚)선생을 이은 야우(野愚) 서정순(徐廷淳)선생의 문인이며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선생의 문인들과도 교류가 있었다.

1871년(고종 28)에 실시된 과거에서 진사(進士)에 급제하였고 용인, 수원 일대에서는 김학조라는 실명보다 김진사(金進士)로 더 유명했다.

신갈초등학교의 전신인 명륜학교(明倫學校)에 깊이 관여하였고, 충렬서원(忠烈書院)의 복구에 앞장섰다. 또 집에 사숙(私塾)을 열고 동전 선생을 초청하여 용인지역의 교육과 독립운동가 양성에 주춧돌을 놓았다. 충렬서원 입구에 공적비가 있다.

#### 김 혁(金赫:1875-1939)

오석 김혁 장군은 1875년 10월 6일, 용인시 기흥구 농서리에서 법부(法部) 참서관(參書官)이었던 아버지 김태식(金泰植)과 어머니 윤현숙(尹顯淑) 사이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장군은 조

선 인조(仁祖) 때의 문신(文臣) 갈천공(葛川公) 김원립(金元立)을 파조(派祖)로 하는 경주김씨갈천공파의 후손이다. 장군은 태어나 장년기까지는 문중(門中)의 항렬(行列)에 따라 지은 학소(學韶)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으나, 1912년 대종교(大倮敎)에 입교하면서 김혁(金赫, 또는 金爍)이라는 이름도 같이 쓰면서, 1919년 3.1운동 직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고부터는 전적으로 김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장군은 어린 시절 용인향교(龍仁鄕校)에서 공부하였다. 당시 용인향교에는 대유학자 동전(東田) 맹보순(孟輔淳) 선생이 좌장으로 있었다. 맹보순 선생은 1862년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김수운 선생과 야우(野愚) 서정순(徐廷淳)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선생은 1894년 용인으로 초빙되어 와서 후학을 가르쳤는데, 김혁 장군과 용인에서 3.1운동 때 피살된 어대선 선생, 중국에 망명하여 독립군으로 활약한 이영선 선생 등이 그때 맹보순 선생 밑에서 공부하였다. 맹보순 선생은 1906년 학부대신을 역임한 이도재(李道宰) 선생과 함께 용인향교에서 명륜학교(현 신갈초등학교의 전신)를 설립, 교육에 힘쓰다가, 1910년 국치를 당하자 만주로 건너가 이동녕(李東寧) 선생 등과 함께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신문을 발행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김혁 장군은 1898년 6월, 대한제국무관학교(大韓帝國武官學校)의 1기생으로 입학하였다. 대한제국무관학교는 1896년 1월에 설립되었으나 고종의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인해 불과 5명의 졸업생만을 배출하고 문을 닫았다가 대한제국 수립 이듬해인 1898년에 신식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다시 설치되었는데, 이때 장군이 입학한 것이다. 김혁 장군은 1년 반 가량의 교육과 훈련을 마치 후 1900년 1월 육군 보병참위(步兵參尉)로 임관되었다. 장군은 그해 7월 황실 직속의 친위(親衛) 제1연대 제1대대에 부임한 후 이어서 고종황제를 근접 보위하는 시위(侍衛) 제1연대 제3대대에서 근무하다가, 1907년 일제의 강압적 군대해산에 의해 육군정위(陸軍正尉)로 퇴임하였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데 일생을 바치겠다는 꿈도 군대해산으로 무참히 꺾여버리고, 바로 이어 1910년 나라조차 일제에 병탄(併呑)되자 김혁 장군은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갔다. 조국은 이미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으니, 국외에서나마 일제와 싸워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장군은 만주 땅을 근 1년여 동안 순방하면서 같은 뜻을 갖고 활동하는 지사(志士)들을 만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 1912년 대종교에 입교했다. 단군신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종교는 기본적으로 일제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국내외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대종교에 의탁했다. 일제의 수탈을 피해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도 대부분 대종교 신도였으므로 만주를 근거지로 무장투쟁을 벌이자면 자신도 대종교 신도가 되어야 함을 장군은 만주 순방을 통해 터득한 것이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김혁 장군은 용인의 만세운동을 적극 이끌어 기흥지역에서도 일제에 항의하는 시위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나 비폭력 무저항 만세운동은 일제의 혹독한 탄압으로 곧 그 한계를 드러냈다. 1919년 5월, 장군은 가까스로 일제의 눈을 피해 중국 봉천성(奉天省) 무송현(撫松縣)으로 망명했다. 무송현은 산악이 중첩하고 있는 천연의 요새지였으므로 이를 활용해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할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그해 8월, 장군은 윤세복(尹世復), 김호(金虎) 등의 동지와 수백 명의 애국청년 동지들을 규합하여 흥업단(興業團)을 조직하였다. 흥업단은 표면상으로는 산업을 진흥시키며 무송현에 이주해 온 동포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고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항일무장투쟁을 목표로 세우고 혁명민중 계몽훈련과 독립기지 건설에 심혈을 기울였다

1920년, 장군은 안도현 삼인방에서 홍범도(洪範圖), 이청천(李青天) 등과 함께 의용군을 조직하고, 이어 이를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로 확대했다. 1921년 1월에는 소련 접경구역인 밀산현 부근에서 대한독립군을 조직하고 군사부장으로 대일항쟁을 총지휘하였으나 일본군에 밀려 노령(露嶺) 지역으로 넘어갔다. 1922년 8월, 장군은 노령 지역에서 다시 만주로 돌아와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를 결성하고 군사부감으로 취임했다. 1923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 국민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24년에는 현천묵(玄天默), 조성환(曹成煥), 나중소(羅仲昭), 김규식(金圭植) 선생과 함께 대한독립군정서를 조직, 활동하였다.

김혁 장군은 1925년 3월 영안현 영고탑에서 김좌진(金左鎭) 장군과 함께 신민부(新民府)를 결성하고 그 최고 책임자인 중앙집행위원장에 취임했다. 신민부의 군사위원장 김좌진 장군은 김혁 장군의 대한제국무관학교 7년 후배로, 이 학교에서 습득한 군사경험을 토대로 무장 항일 투쟁을 이끈 인물이었다. 이해에 신민부가 독립군 양성을 위해 묵릉현 소추풍에 성동사관학교를 설립하자 장군은 교장, 김좌진은 부교장에 취임했다. 1926년에는 위하현 석두하자(石頭河子)에서 일제의 요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살왜단(殺倭團)을 조직했다.

그러나 조국의 광복을 위해 풍찬노숙(風餐露宿)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김혁 장군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28년 1월 25일 오전 8시경, 중동선(中東線) 석두하자에서 신민부 총회를 개최하던 중 일제 경찰의 급습을 받아 김혁 장군은 유정근(兪正根) 등 1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체포된 것이다. 장군은 1929년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신의주감옥, 평양감옥을 거쳐 서대문감옥에서 복역 중 1935년 5월 26일 병세가 위중하여 가출옥으로 출옥하였다. 그러나 1939년 4월 23일, 김혁 장군은 오랜 감옥 생활로 극도로 쇠약해진 끝에 순국하였으니, 장군의 나이 64세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으며 유해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다. 기흥구 구갈동 오석공원에 ‘오석 김혁 선생 독립운동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2002년에는 국가보훈처에 의해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바 있다.

### 남정휘(南廷徽: 1855 ~ ?)

본관은 의령(宜寧)이며 1855년(철종 6) 통사랑(通仕郎) 전행선공감가감역(前行繕工監假監役)을 지낸 남주원(南周元)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경신(景愼)이며 1789년(고종 16) 기묘년 식년시(式年試) 진사과 3등 20위로 합격하였다.

### 맹보순(孟輔淳: 1862~1933)

일제강점기 용인 지역에서 활동한 유학자이자 교육자. 1862년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태어나 9세에 신갈 운수(雲水) 김좌상(金佐商)에게 한학을 배우고 15세에 야우(野愚) 서정순(徐廷淳)에게 제자의 예를 올리고 가르침을 받았다. 1894년 신갈 금화에 와서 후학을 가르치다 1906년 용인향교(龍仁鄉校)에서 학부대신을 역임한 이도재(李道宰)와 함께 명륜학교를 설립하여 신구 학문 교육에 힘썼다. 1910년 국치를 당함에 만주로 건너가 이동녕 등과 함께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신문을 발행하며 제자인 김혁(金赫)과 이영선 등을 가르쳤다.

고종의 승하로 귀국하여 3년 상을 치른 후 심곡서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능골의 충렬사를 다시 세웠다. 심곡서원 부지가 남에 손에 넘어가게 됨에 따라 용인 지역 유지들과 함께 부지를 되찾아 오늘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곳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마쳤다.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도봉산에서 안성시로 이장하였다. 문집으로 『동전문집(東田文集)』이 있으며, 작품으로 『한사경변(韓史警變)』과 『민영환 장례의 만사』 등이 있다.

### 맹이술(孟頤術: ?-?)

유학자 맹보순과 파평윤씨 사이에서 1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한학을 공부하다가 명륜학교에 들어가 신구학문을 함께 배웠다. 성장하여 지곡동의 한산이씨 이승각의

딸과 혼인한 후 1남1녀를 두며 어려운 가정을 꾸리다가 부친이 항일 운동을 펴기 위하여 만주에 간 후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를 찾아 만주에 가서 사망하였다. 외아들 맹두섭은 대한청년단 기흥지역 단장으로 반공운동에 앞장섰고 심곡서원 장의로 활동하였다.

#### 민영선(閔泳善: 1874~ ?)

본관은 여흥(驪興)이며 1874년(고종 11) 민귀호(閔龜鎬)의 아들로 태어났다. 1891년(고종 28) 신묘년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 520위로 합격하였다.

#### 서상만(徐相萬: 1847 ~ ?)

본관은 대구(大丘)이며 1847년(현종 13)에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유학(幼學)인 서창순(徐昶淳)이다. 자는 사열(士悅)이며 1876년(고종 13) 병자년 식년시(式年試) 생원과 2등 21위로 합격하였다.

#### 성혁수(成赫壽: 1804 ~ ?)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1804년(순조 4)에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성균진사인 성영묵(成永默)이며 어머니는 윤침(尹枕)의 딸이다. 자는 공리(公履)이며 1846년(현종 2) 식년시(式年試) 생원과 2등 4위로 합격하였다. 음관(蔭官)으로 하급직인 여러 벼슬을 역임했다. 배위는 청주한씨(淸州韓氏) 익상(益相)의 딸이다.

#### 신현봉(申鉉鳳: ?-?)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명륜학교를 졸업 후 지역유지로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의 아들 신용철은 1946년 좌향초등학교 설립시 학교부지를 희사하였으며 2~4대 원삼면장을 역임하였다. 손자 신동준(申東準)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냈고, 손자 신동권(申東權)은 원삼농협장을 역임하면서 원삼면 농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 신현수(申鉉秀: ?-?)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처인구 원삼면 좌향리의 농가에서 태어나 한학을 공부하다 현 언남

동에 있는 용인향교 내에 명륜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유지로 활동하며 농업에 종사한 인물이다. 공의 아들은초등학교교사로 활동하고 후손들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묘소는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에 있다.

### 어대선(魚大鮮: 1871~1920)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출신의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 본관은 함중, 호는 시제(時齊). 아버지 어윤응(魚允應)과 어머니 순흥 안씨 사이에서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대선은 200여년 조상대대로 살아온 현 기흥구 언남동에서 태어나 인근 용인향교에서 수학한 후 서울에 이거 생활하면서 1906년 용인향교에 맹보순이 설립한 명륜학교에 들러 후학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1919년 유학자인 동전(東田) 맹보순(孟輔淳)과 함께 만세시위에 참가할 것을 협의하고 맹동전은 신갈에서, 어대선은 파고다공원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어대선은 파고다공원 시위자들을 인솔하고 독립운동 격문을 배포하다 체포 투옥되었다. 석방 후에 이영선(李榮善)과 임시정부 독립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3년형을 받았다. 옥중에서 중병을 얻어 가출옥되어 고향인 용인으로 오다 현 광주시 낙생면 길 위에서 서거하였다. 서거 후 선향인 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안장되었다가 1968년 독립유공자에 추서된 후 대전국립묘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이장하였다. 1968년에 대통령표창을, 1980년에 국민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 유 정(柳挺: 1874~ ?)

조선 말기 용인 출신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아버지는 유무근(柳茂根)이다. 1874년(고종 11) 수원부 양지현(현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출생하여 유학(幼學)으로서 1893년(고종 30)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였다.

### 이도재(李道宰: 1848~1909)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일(聖一), 호는 심재(心齋)·운정(簣汀). 서울 출신. 아버지는 명익(溟翼)이었으나 건익(建翼)에게 입양되었다.

1882년(고종 19) 생원으로서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홍문관부수찬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6월 경상좌도암행어사, 10월 강원도암행어사를 거쳐 승정원동부승지에 특제(特除),



1884년 참의군국사무(參議軍國事務)·강원도독련어사(江原道督鍊御史)·좌부승지를 역임하고 이 조참의가 되었다. 1885년 성균관대사성을 거쳐 1886년 호군으로 재임 중 사대수구파에 의해 고금도에 유배, 가극안치(加棘安置)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개화파 정부가 수립되자 풀려나와 공무협판으로 군국기무처의원(軍國機務處議員)이 되었고, 이어 전라도관찰사로 부임, 그 해 12월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全奉準)을 순창에서 사로잡아 서울로 압송하였다. 이듬해 5월 지방 관제개혁에 따라 전주부관찰사가 되고, 이어 부장으로 군부대신에 임용, 곧이어 학부대신으로 바뀌었으나 단발령이 강행되자 이에 반대, 사직하였다.

1896년 동로선유사(東路宣諭使)로 특파, 강원도 지방 의병의 선유에 나섰고, 이어 중추원의관을 거쳐 궁내부특진관이 되었다. 1898년 외부대신·비서원경(秘書院卿)을 거쳐 농상공부대신이 되어 그 해 7월에 설치된 양지아문(量地衙門)의 총재관을 겸임하였다. 10월에 다시 학부대신이 되어 비서원경을 겸하고 지식영(池錫永)의 건의를 들어 한성의학교 설치를 인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 교육기관을 세우는 데 기여하였다.

이어 내부대신서리·궁내부특진관을 거쳐 경효전제조(景孝殿提調)가 되었다. 1899년 법부대신이 되어 고등재판소재판장을 겸하고, 이어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귀족원경을 거쳐 1900년 7월 평안북도관찰사에 발령, 1902년 3월까지 근무하였다. 그 뒤 재차 시종원경(侍從院卿)·궁내부특진관을 거쳐 그 해 11월 홍문관학사, 12월 육군부장(陸軍副將)으로 철도원총재가 되었다.

1903년 초 외부대신, 그 해 말에 평안북도관찰사, 1904년 충청남도관찰사를 거쳐 내부대신·표훈원의정관(表勳院議定官)을 역임하고 다시 농상공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 1905년 다시 내부대신에 발령되었다. 경상북도·평안남도·충청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전라남도관찰사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1906년 용인에 내려와 현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용인향교(龍仁鄉校)에 유학자 맹보순(孟輔淳)과 함께 용인 지역 최초의 근대 중등 교육 기관인 명륜학교(明倫學校)를 건립하고 교장을 역임하였다. 후학 양성에 전념하던 이도재는 1909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에서 사망하였다.

1906년 8월 그 동안의 공적으로 태극장(太極章)을 서훈받고, 그 뒤 장례원경·시종원경에 임명되었으나 1907년 7월 총리대신 이완용의 모함으로 박영효 등과 함께 나문정죄(拿問定罪)·죄인을 잡아다 신문하고 죄를 판단하여 결정함)당하였다. 글씨에 뛰어났다. 시호는 문정(文貞)

이다.

### 이은직(李殷植:1892-1931)

본관은 한산(韓山)으로 시조로부터 25세이며 음애공으로부터 13세손으로 지곡리에서 승필(承弼)의 아들로 태어나 승찬(承瓚)에게로 양자되었다. 한학을 연마하고 명륜학교에서 공부한 후 지역유지로 활동하였다. 성품이 강직하여 집안은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다 하며, 그의 손자 양구는 기흥 읍장과 시의원을 역임한 후 현재 용인향교 전교로 활동하면서 전통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일명 탁성거사(卓星居士)라 부르기도 하며, 묘소는 지곡2동 다랑동에 있다.

### 이재의(李載毅)[1773~1839]

조선 후기 용인 출신의 유학자. 본관은 전주이며, 자는 여홍(汝弘), 호는 문산(文山)이다. 덕천군의 14대 손으로 증조할아버지는 정조 때 병조판서를 역임한 이주국(李柱國)이며, 아버지는 이응오(李應五), 어머니는 안동김씨이다.

이재의는 박윤원(朴胤源), 송계간(宋啓幹)의 문인으로 1801년(순조 1)에 성균관 생원시에 합격한 유학자로 철종 때 형조판서를 지낸 홍직필(洪直弼)과 동문수학한 노론계열의 유학자이다. 이재의의 큰아들이 영암군수로 있을 때 영암에 기거하면서 강진에 유배 온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과 시문으로 토론을 한 시문이 전한다. 당시 당파싸움이 격렬하던 시기에 노론의 문산과 남인인 정약용이 시를 주고 받았다 함은 문산을 이해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하겠다.

저서로 『문산집(文山集)』이 전한다. 11권 4책 목판본으로, 1870년(고종 7) 막내 아들인 이 건식(李建式)이 편집·간행했다. 1권부터 8권까지는 시(詩) 825수가 있으며, 9권부터 11권까지는 문(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가운데는 단군을 찬양한 「단군대(檀君臺)」, 금강산의 경치를 읊은 「동유록(東遊錄)」이 돋보인다. 부록으로 정약용과 주고받은 시집인 「이산창화집(二山唱和集)」이 있고 「자찬연보(自撰年譜)」도 있다. 그의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에 있다.

### 이조연 (李祖淵: 1843~1884)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자는 경집(景集)이며 호는 완서(翫西)이다. 용규(用奎)의 아들이다.

1880년(고종 17) 사헌부감찰로서 개항 후 처음으로 파견되는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이듬해 다시 수신사 조병호(趙秉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1882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해 고선관(考選官)으로 청나라에 가서 영선사 김윤식(金允植)을 따라 텐진(天津)에 간 유학생과 공장(工匠)들의 실정을 조사하였다.

이어 흥선대원군이 임오군란 때에 조선에 진입한 청국군에 의하여 청나라에 끌려간 뒤 통리기무아문주사(統理機務衙門主事)로 사은 겸 진주사(謝恩兼陳奏使) 조영하(趙寧夏)의 종사관이 되어 청나라에 가서 흥선대원군 수금(囚禁)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귀국하였다. 이해에 청나라의 제도를 본떠 군제개혁이 단행되자 친군영좌감독(親軍營左監督 : 뒤의 左營使)이 되고, 이어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기계국총판(機械局總辦)·혜상공국총판(惠商公局總辦)·이조참의·함경북도병마절도사 등을 지냈으며, 1884년에는 협판군국사무(協辦軍國事務) 겸 기계국총판을 지냈다.

친청(親淸) 정치행적으로 개화당으로부터 사대당이라고 지목을 받아오던 중 1884년 갑신정변 때 우정국사건이 벌어지자 이에 참석하였던 그가 국가대사가 벌어진 틈을 눈치 채고 궐내로 들어가려던 중 전영사(前營使) 한규직(韓圭稷), 후영사(後營使) 윤태준(尹泰駿) 등과 같이 개화당 행동대에 의하여 피살되었다. 뒤에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 정관해(鄭觀海: 1873~1949)

일제강점기 용인에서 활동한 유학자.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성삼(聖三), 호는 관란(觀瀾). 초명은 정동로(鄭東魯)이다. 정관해는 경기도 용인군 지역을 중심으로 후학 양성과 전통 고수에 힘쓴 유학자로서, 일제강점 직후인 1912년부터 해방 공간인 1947년까지의 한문 일기를 남기고 있다. 일기를 통해 신식 교육의 도입으로 인성 교육을 강조하였던 전통 교육이 무너짐을 개탄하면서, 혼자 힘으로라도 전통을 지키겠다는 교육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는 경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일제의 침탈로 피폐해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농상(農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기록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경기도 용인군 지역의 생활상을 잘 알 수 있다. 정관해의 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관란재일기(觀瀾齋日記)』로 간행되었다.

### 정우용(鄭禹鎔: 1884-1966)

정우용(鄭禹鎔)은 민족수난과 전환기 시대에 용인에서 평생 교육사업에 헌신한 인물이다.

호를 ‘송포(松圃)’라 하였다. 영일정씨 포은공파의 주부공계(注簿公系) 후손이다. 그의 호에서 포은 정몽주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용인군 동변수청동(지금의 기흥구 청덕동)에서 출생하였다. 그리고 1925년에 수여면 남리 대촌(大村: 지금의 처인구 남동 태성고 부근)으로 이사하여 삶을 이곳에서 마쳤다.

1893년(9세)부터 1906년(24세)때까지 동전(東田) 맹보순(孟輔淳)과 김학조(金學祖)의 문하에서 한학을 수학하였다. 1907년부터 1910년 전후에는 기호학교(畿湖學校)에서 신학문을 수학하였다. 정우용은 바로 기호학교 제1회 졸업생이다. 이후 1931년까지는 구성, 신갈, 용인, 양지의 공립보통학교 훈도로 재임하여 후학 양성에 헌신하였다. 1932년 학교를 퇴직한 이후에는 야학(夜學)을 열어 계도하고, 용인지역사회의 산업진흥, 계몽 활동에 전념하였다. 초대 대통령선거시 용인군 선관위 위원장을 맡았다. 지방자치제 실시 무렵 수여면 남리 리장을 맡기도 하였다. 용인향교 제1대 전교로 취임하여 용인지역의 유학보급에 헌신하였다.

송포 정우용이 살았던 시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민족수난과 전환기이다. 구국정신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신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시기이다. 1908년(융희 2)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여 신교육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향교를 ‘명륜학교’로 개칭하고, 전통 학문과 신학문을 함께 교육하였다. 용인향교가 용인명륜학교로 개칭하여 신교육을 실시한 것도 이 무렵이다. 용인명륜학교는 많은 인재들이 입학하였다. 청덕동에서 거주하던 정우용도 그중 한 사람이다. 정우용은 용인명륜학교에서 1907년 2월부터 1907년 6월까지 5개월 간 맹보순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1909년에 기호학교(지금의 중앙고등학교) 특별과(사범계)를 입학하여 1910년에 26세로 졸업하였다. 이 당시 기호학교의 교장은 유길준(兪吉濬)이었다. 입학자격은 한문에 소양이 있는 20세~30세의 청장년으로 민족교육에 열성이 있는 자로 국한하였다.

기호학교를 제1회로 수료한 정우용은 용인지역에서 신교육의 훈도로서 22년간 근무하였다. 처음 부임한 곳은 1909년에 구성에 세워진 ‘용인사립보통학교’이다. 당시의 용인(지금의 구갈동)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므로 서울에서 신교육을 수료한 명망 있는 훈도들이 다투어 이 학교에 부임하려 하였다. 이 학교는 용인 최초의 신교육체제 학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925년 무렵 자택을 수여면 대촌으로 옮긴 뒤 양지공립보통학교로 전근하였다. 양지 역시 양지현의 치소(治所)로 용인지역 근대문화의 중심이다. 정우용은 1926년부터 1931년까지 5년

간 근무하였는데 이때 도보로 출퇴근하였다고 한다.

정우용은 22년간의 교직을 떠난 뒤에는 용인지역의 산업진흥과 계몽운동, 봉사에 헌신하였다. 우선, 신교육을 야학(夜學)과 사회계도의 장으로 확대하였다. 1934년에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청장년을 대상으로 자택의 사랑방에서 야학을 개설하였다.

정우용은 청소년기에 향숙과 향교에서 전통학문을 수학한 것을 바탕으로 노년기에는 용인향교, 양지향교, 충렬서원 등의 제향과 관리에도 주도적 역할을 다하였다. 이 세 곳은 모두 정우용의 청장년기에 깊은 연관이 있었던 곳이다. 그는 용인향교를 개칭한 용인명륜학교에서 강학하였으며, 양지공립보통학교에서 훈도로 근무하였다. 충렬서원은 그의 선조 포은선생을 봉향하는 곳이다. 남달리 유학 보급과 실천에 관심을 기울였음도 주목된다.

1945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선거 때는 용인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촉탁되어 수행하였다. 평소의 신념이었던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민주정치 실현에 기여한 셈이다.

송포 정우용은 민족수난기요, 시대적 전환기에 출생하여 용인지역에서 사회산업 등 각 분야에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교육과 계몽활동에 헌신하였으며, 빈곤자에게 식량을 제공하며 자선을 베풀었다. 삼일당한의원의 이종근 원장에 의하면 당시 용인 사람들은 그를 ‘정훈도 선생(鄭訓導先生)’ 또는 ‘정주사(鄭主事)’로 불렀다고 한다. 정우용은 1966년 1월 19일 83세로 일생을 마감하였다.

### 정회식(鄭會植: 1890-1948)

본관은 봉화(奉化)이고 자는 경례(敬禮), 호는 겸窩(謙窩)이다. 정도전(鄭道傳)의 17대손으로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한학을 배우고 15세에 관례를 치루었다. 관례 때 빈(賓)은 당대의 명망 있는 유학자 야우(野遇) 서정순(徐廷淳)이었다. 이를 인연으로 1909년 야우의 제자인 맹동전이 운영하는 용인향교에 나아가 성리학 체계를 수립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급격한 서구문물의 유입과 국권이 상실됨에 지금까지 깊이 닦아온 학문이 영역이 좁아짐에 고향에 돌아가 산음강당을 짓고 후학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예의도덕을 교육하며 전통의 맥을 지키려 노력하였다. 각종 시문, 동전맹보순선생행장, 만사 등을 수록한 『겸와유고(謙窩遺稿)』를 남기었다.



제8장 | **용인향교 문헌록**



## 제1절 고문헌 소재 기사

### 1. 『조선왕조실록』 소재 기사

#### ○ 성종 2년 신묘(1471, 성화 7)/4월 17일(기미)

배맹달(裵孟達)이 와서 아뢰기를, “신(臣)이 지난 정미년에 용인(龍仁) 사람 박유(朴瑠)의 딸을 취(娶)하여 첩(妾)으로 삼고 1남 1녀를 낳았다가, 병진년에 아버지의 명(命)을 따라 그녀를 버리고, 정사년에 김씨(金氏)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만약에 박씨의 딸이 실로 신의 아내가 된다면, 신이 김씨(金氏)에게 장가들 때에 박씨가 어찌 아내를 두고 취처(娶妻)하였다고 신을 허물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정사년으로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한 마디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야 고(告)하니, 그는 신의 아내가 되지 아니함이 명확합니다. 그 받았다고 하는 혼서(婚書)는 위조(僞造)한 것이니, 신의 아버지가 서명(署名)한 다른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용인(龍仁)의 관아에서 공초(供招)에 응한 데에서 정처(正妻)라 일컬은 것은, 박씨의 아우 박자후(朴自厚)가 향교(鄕校)의 동료들에게 편출당할까 두려워하여 애걸(哀乞)하였기 때문입니다.”하였다.

裵孟達來啓曰: “臣, 去丁未歲, 娶龍仁人朴瑠女子爲妾, 生一男、一女; 丙辰歲, 因父命棄之; 丁巳歲, 娶金氏爲妻。 若朴女, 實爲臣妻, 則臣娶金氏時, 朴何不以有妻娶妻咎臣乎? 且自丁巳年, 至今三十餘年, 無一言, 而乃今告之, 其非爲臣妻明矣。 其所納婚書僞造耳。 觀臣父署名他文書, 則可知矣。 臣於龍仁官納招稱正妻者, 以朴之弟自厚, 恐爲鄕校儕輩所黜, 哀乞故云耳。”

<成宗實錄, 3冊/ 卷10:7b>

#### ○ 성종 21년 경술(1490, 흥치 3)/윤 9월 15일(갑오)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영릉(英陵)을 배알하고 여러 고을을 순수(巡狩)해 살피니, 경기의 백성이 모두 그 폐단을 받았다. 그러나 어가가 머문 땅에는 노고와 소비가 더욱 많았으



니, 사리로 보아 마땅히 넉넉하게 돌보아야 할 것이다. 여주(驪州)·이천(利川)·양지(陽智)·용인(龍仁)·광주(廣州)의 인민들에게는 금년의 전조(田租)를 절반으로 감할 것이며, 여주·이천 향교에 각각 쌀 30석을, 용인 향교에는 20석을 내려 주어서 유생들의 학과를 권장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라.”하였다.

傳旨戶曹：殿謁英陵，巡省諸邑，畿甸之民竝受其弊。然駐蹕之地，勞費尤多，理宜優恤。驪州、利川、陽智、龍仁、廣州人民，減今年田租之半，驪州、利川鄉校各賜米三十碩，龍仁鄉校二十碩，以爲勸課之資。

<成宗實錄, 38冊/ 卷245:9a>

### ○ 중종 23년 무자(1528, 가정 7)/9월 8일(정축)

승정원이 경술년에 성종이 영릉에 참배한 전례를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다른 으레 하는 일은 다 임시하여 하겠으나 여주(驪州)에서 사람을 뽑는 일은 이번에 거행해야 할 것인데, 미리 중외(中外)에 하유(下諭)하여 사람을 뽑으면 관복(冠服) 등 여러 일도 미리 갖추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환궁할 때에 지나는 각 고을의 향교(鄉校)에도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해야 하겠다. 연안 부부인(延安府夫人) 전씨(田氏: 대비의 어머니)의 묘(墓)가 용인(龍仁)에 있는데, 갈 때에는 재계(齋戒) 때문에 치제할 수 없으나, 환궁할 때에 친제(親祭)할 수는 없더라도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해야 하겠다.”하였다.

政院以庚戌年成宗拜英陵之例書啓。傳曰：“他餘例事，則皆當臨時爲之，取人于驪州之事，則今當可行，預諭中外。若取人則冠服諸事，亦可以預備。還宮時所經各邑鄉校，亦當遣官致祭也。延安府夫人田氏【大妃母氏】墓在龍仁。往時以齋戒，不可致祭也，還宮時，雖不可親祭，亦當遣承旨致祭也。

<中宗實錄, 32冊/ 卷63:7b>

### ○ 중종 23년 무자(1528, 가정 7) /9월 13일(임오)

“또 여주(驪州)의 향교(鄉校)에서 친제(親祭)하시는 일을 하문(下問)하셨습니다마는, 이달에는 이미 문묘(文廟)에서 친제하려 하시는데 제사는 번거롭게 할 수 없으니,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또 인물을 시취(試取)하는 일은, 각각 그 고을에서 시취하면 대가(大駕)가 멈추는 폐단이 많이 있을 것이니, 용인(龍仁)과 이천(利川)의 유생(儒生)을 여주에 모아서 시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且驪州鄉校親祭事下問。但於今月，既欲親祭于文廟，祭不可煩瀆，雖遣官致祭甚當。且取人事，若各於其官取之，則大駕多有留停之弊。龍仁、利川儒生，聚于驪州試取似當。〈中宗實錄，32冊/卷63:10a〉

### ○ 숙종9년 무자(1683, 康熙 22년) / 3월 5일(정미)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이 상계한 바, 지난 번 종사(從祀) 때 예조(禮曹)에서 지방의 일을 맡은 지위(知委)<sup>1)</sup>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각 읍에서 봉행하는 데 이르렀는데 의례(儀禮)가 다른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 듣건대 용인향교에서 송조사현(宋朝四賢)의 위치(位次)가 옛 제도에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령(縣令) 장훤(張愼)이 석채일(釋菜日)<sup>2)</sup>에 고을의 유림과 상의해서 개정(改正)하였습니다. 성묘(聖廟)의 모든 일에 있어서 조정의 분부가 있지 않으면, 각 읍(邑)이 감히 멋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장훤이 생소하고 망령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잘못을 깨달은 뒤에야 감사(監司)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죄를 문책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때마침 감사가 활에 맞아서 아직 상계하지 못하였습니다. 일의 실체를 말씀드리면 장훤은 마땅히 망솔(妄率)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망령되게 한 것은 생소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설진(設賑)<sup>3)</sup> 때 수령을 체직하여 바꾸는 것은 또한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장훤은 중죄(重罪)로 추고(推考)하십시오. 지방을 맡은 지위(知委)가 각도의 향교 봉안에 행차할 때는 작도(作圖)를 함께 올려 보내어 개정할 것인지를 고찰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길 “그렇게 하라. 장훤은 생소한데서 나온 것이니 중죄로 추고함이 옳다.”고 하였다. 출전: 예조등록(禮曹謄錄)

左議政閔鼎重所啓，頃者從祀時，禮曹之知委外方者，不能詳悉，以致各邑之奉行，多不如儀。今聞

- 
- 1) 지위(知委): 예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가리켜 보이거나 명령하여 알려 주는 일을 이르던 말, 또는 그 일을 맡은 관리를 뜻함.
  - 2) 석채일(釋菜日): 석전일(釋奠日)과 같은 말임.
  - 3) 설진(設賑): 진휼(賑恤)을 실시(設施)함.

龍仁鄉校, 宋朝四賢位次, 有違於舊制, 縣令張楨, 乃於釋菜之日, 邑儒相議改正, 聖廟凡事, 非有朝家分付, 則各邑, 不敢自擅, 而楨, 生疏妄作, 及其覺悟之後, 具報監司, 請被罪譴, 適值監司遭彈, 姑未啓聞。以事體言之, 楨, 宜有妄率之罪, 而然其妄作, 出於生疏之致, 況此設賑之時, 守令遞易, 亦甚重難。張楨, 則從重推考, 知委外方, 各道鄉校奉安次第, 竝皆作圖上送, 以爲考察改正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張楨, 出於生疏之致, 從重推考, 可也。出禮曹謄錄

<承政院日記, 297冊/탈초본 15책> 151a-b>

### ○ 고종 2년 을축(1865, 동지 4)/7월 30일(임진)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 유치선의 공문(公文)을 접하니 ‘용인현(龍仁縣) 향교 대성전의 바깥 들보와 바깥 서까래에 비가 새서 천정의 흙이 떨어졌습니다. 장차 올 가을 석전(釋奠)과 함께 올릴, 고유제와 되돌려 봉안하는 제사의 향축을 본조가 계품하여 내려보내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용인현 향교 대성전을 개수하는 일에 있어서, 올가을 석전을 겸하여 올릴 개수 고유제와 옮겼다가 되돌려 봉안하는 제사의 향축을 즉시 해사로 하여금 관례에 의거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하고, 축문 속의 조사도 지어내도록 하는 것도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 고종 5년 무진(1868, 동지 7)/7월 29일(갑진)

또 아뢰기를, “조금 전에 경기 감사 이의익(李宜翼)이 보낸 이문을 보니 ‘용인현(龍仁縣) 향교의 성전(聖殿)이 건립한 지 오래되어 동서의 무너진 곳을 수리하는 일이 몹시 시급하다. 이에 이번 가을 석채(釋菜) 때 겸하여 사유를 고하고 수리하고자 한다. 그러니 고유제(告由祭)·이안제(移安祭)·환안제(還安祭)를 지내는 데 쓸 향축(香祝)을 본조에서 계품한 다음 내려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용인현 향교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 이번 가을 석채 때 겸하여 사유를 고한 뒤 거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니 고유제·이안제·환안제를 지낼 때 쓸 향축을 즉시 해당사로 하여금 전례대로 마련해서 내려보내게 하고, 축문 가운데 넣을 내용을 지어내는 일도 일체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 고종 9년 임신(1872, 동지 11)/1월 21일(병오)

또 아뢰기를, “방금 전에 경기 감사 박영보가 보낸 공문을 보니, ‘용인현(龍仁縣) 향교의

대성전 및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이하의 여러 곳이 비가 새고 퇴락하여 지금 막 기와를 새로 이고 바닥을 새로 깔았는데, 이안(移安)하는 것은 오는 2월 1일에 하기로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니 고유제와 이안제, 환안제를 지내는 데 필요한 향축을 예조에서 계품한 다음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용인현 향교의 대성전을 수리할 때 고유제와 이안제, 환안제를 지내는 데 필요한 향축을 즉시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전례에 비추어 마련해서 내려보내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고종 37년 경자(1900, 광무 4)/8월 7일(병자, 양력 8월 31일)

“인가는 많지 않습니다만, 홍릉(洪陵)에서부터 봉표한 곳까지 새로 길을 내게 되면 그사에 전답이 필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구종서(具鍾書)가 신을 찾아왔는데, 구종서는 바로 군장리(君壯里)에 무덤을 쓴 구가(具家)의 자손입니다. 용인(龍仁)에 있는 옛 향교(鄉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양주(楊州) 진벌면(眞筏面)에 있는 윤가(尹家)와 이가(李家)의 산을 사급(賜給)하도록 이미 처분하셨으니, 주본(奏本)을 올려 계하(啓下)를 청하겠습니다.’고 말하는 것을 신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까만, 이 일에 대하여 주본을 올리는 것은 어떠합니까?”

## 2. 『학교등록(學校謄錄)』 소재 기사

#### ○ 인조 19년 신사(1471, 성화 7)/ 정월 29일

향교를 수개(修改)하다

경기감사(京畿監司)의 장계(狀啓)에 “가평군(加平郡) 향교(鄉校)가 오래지 않아 쓰러질 듯하니, 중수(重修)할 길일(吉日)을 잡아서 내려 보내소서. 용인현(龍仁縣) 향교의 위판(位版)·제기(祭器)·제복(祭服)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다음 달 초하루에 봉안(奉安)하고 초이틀에 석전제(釋奠祭)를 겸행(兼行)하겠습니다.”고 하였다. 이 일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啓目)에는, “모든 향교를 중수할 때 서울에서 별도로 날을 잡아 내려 보낸 규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평군 향교를 수개할 때 선고사유제(先告事由祭)·이안제(移安祭)·환안제(還安祭)에 쓸 향축(香祝)만 마련하여 내려 보낼 때에 편안한 날을 잡아 설행(設行)하되, 용인현 향교의

위판은 석전제 전에 봉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전제를 지낼 날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으니 향축을 마련하여 내려 보내는데, 기일에 미치지 못할 형편입니다. 전례대로 편안한 날을 잡아 봉안하여 제사를 설행하도록 행문이첩(行文移牒)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그대로 윤희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鄉校修改

京畿監司狀啓, 加平郡鄉校, 不久頽壓, 重修吉日, 推擇下送, 而龍仁縣鄉校位版祭器祭服, 已爲措備, 來初一日 奉安, 初二日 釋奠祭兼行事據 曹啓目, 凡鄉校重修時, 自京別無擇日下送之規. 今次加平郡鄉校修改時, 先告事由, 移還安祭, 香祝叱分, 磨鍊下送, 隨時卜日設行爲白乎矣, 龍仁縣鄉校位版, 釋奠 前 奉安亦爲白良置. 釋奠之日, 只隔一日, 香祝磨鍊下送之際, 勢未及期, 依前例隨時卜日 奉安祭事, 行移何如, 啓 依允.

<學校謄錄, 1冊/ 15面>

○ 1663년(현종 4) 8월 26일

향교의 위판(位版)을 고쳐 쓰다.

1. 경기 감사(京畿監司)의 장계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이 장계를 살펴보니, 용인현 향교(龍仁縣鄉校)의 위판 중에 예국공(預國公) 정호(程顥)의 ‘호(顥)’ 자(字)와 낙국공(洛國公) 정이(程頤)의 ‘이(頤)’ 자가 모두 삼수변(三水邊)으로 잘못 쓰여진 것을 이제야 살펴보고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살펴보고 알았으면 서둘러 고쳐 쓰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위판을 고쳐 써서 봉안(奉安)하되 고쳐 쓸 때 성묘(聖廟)에 선고사유제(先告事由祭) 때 쓸 향축(香祝)은 해사(該司)로 하여금 속히 마련하여 내려 보내도록 해서 편한 때에 날을 잡아 설행(設行)하도록 행문 이첩(行文移牒)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윤희한다고 계하하였다. 한원(翰苑)에 이송(移送)하다.

鄉校位版 改書

一. 京畿監司狀啓 據曹 啓目 粘連 啓下是白有 亦觀此狀啓 則龍仁縣鄉校位版中 預國公程顥之顥字 洛國公程頤之頤字 皆添以三水邊 誤書焉 白有如何 今始覺察是如焉白有置 既焉覺察之後 則不可不 急時改題 同位版改題奉安焉白乎矣 改書時 聖廟先告事由祭香祝 令該司急速 磨鍊下送 隨時 卜日 設行事 行移何如啓 依允 移送翰苑 <學校謄錄, 2冊/ 38面>

○ 1683년(숙종 9) 3월 초5일

향교의 위치(位次)를 사사로이 이정(厘正)한 현령(縣令)을 추고(推考)하다

1. 올해 3월 초5일 주강(書講)에 입시(入侍)하였을 때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얼마 전 중사(從祀)할 때 예조에서 외방에 통지한 것이 상세하지 못하여 각 읍에서 봉행(奉行)한 것이 의절(儀節)대로 하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 들으니, 용인현 향교(龍仁縣鄉校)에는 송조(宋朝) 4현(四賢)의 위치가 예전 제도를 위반하였는데 현령 장훤(張楨)은 도리어 석채일(釋菜日)에 고을 선비들과 상의하여 성묘(聖廟)를 개정(改正)하였다고 합니다. 무릇 일은 조정의 분부가 있지 않으면 각 읍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도 상선은 생소(生疎)하여 엉뚱한 짓을 하였고 잘못을 깨달은 뒤에는 사유를 갖추어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죄를 받기를 청원하였으나 마침 감사가 탄핵을 당하는 바람에 아직 조정에 계문(啓聞)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의 체모로써 말하건대 장훤은 마땅히 함부로 경솔하게 일을 처리한 죄가 있으나 그가 엉뚱한 짓을 저지른 것은 일에 생소한 까닭에 나온 것이고 하물며 지금 기근(饑饉)이 들어 진정(賑政)을 설행하는 때에 수령을 갈아치우는 것은 또한 더욱 어려우니, 장훤은 종종추고(從重推考)<sup>4)</sup>하고 이어 예조로 하여금 외방에 통지하여 각 읍 향교의 봉안(奉安)하는 차서(次序)를 모두 그림으로 그리어 올려 보내게 하여 살피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장훤이 한 것은 생소한 까닭에 빚어진 일이니 종종 추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4) 종종추고(從重推考): 예전에, 벼슬아치의 죄과를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엄히 따져 캐고 살피는 일을 이르던 말.

향교의 위치(位次)를 그린 도형(圖形)을 올려 보내게 하다.

鄉校位次 私自厘正 推考

一. 今三月初五日 晝講入侍時 左議政 閔鼎重所啓 頃者從祀時 禮曹之知委外方者 不能詳悉 以致各邑之奉行 多不如儀 今聞龍仁縣鄉校 宋朝四賢位次 有違於舊制 縣令張楨 乃於釋菜之日 與邑儒相議 改正聖廟 凡事非有朝家分付 則各邑不敢自擅 而楨生疎妄作 及其覺悟之後 具報監司 請被罪譴 適值監司遭彈 姑未啓聞云 以事体言之 楨宜妄率之罪 而然其妄作 出於生疎之致 況此饑饉設賑之時 守令遞易 亦甚重難 張楨則從重推考 仍令禮曹 知委外方 各邑鄉校奉安次序 竝皆作圖上送 以爲考察改正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張楨所爲 出於生疎之致 從重推考 可也

鄉校位次 圖形上送

<學校謄錄, 3冊/ 78面>

○ 1686년(숙종 12) 2월 14일

용인향교(龍仁鄉校)를 이건(移建)하다

1. 예조의 계목(啓目)에, “운운(云云)했습니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윤이제(尹以濟)의 이 장계(狀啓)를 살펴보니, 용인현 향교(龍仁縣鄉校)가 임진년(壬辰年1592년 선조 25년)의 병화(兵禍) 중에 불에 탔으므로 그 뒤에 우선 다른 곳에다가 임시로 창건(創建)하였는데 이제 세월이 오래 흘러서 거의 모두 손상되었으므로 장차 옛터에 옮겨 지으려고 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외방에서 풍수설(風水說)에 현혹되어 향교를 옮겨 짓게 해 달라고 청원하는 폐단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일찍이 수교(受教)로 인하여 일체 방색(防塞)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인현 향교는 병란(兵亂) 때 불에 타버리는 바람에 임시로 다른 곳에 창건하였는데 이제는 성묘(聖廟)가 부서지고 손상이 돼서 다시 짓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풍수설에 현혹되어 해 터로 옮기려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 이때를 인하여 옛터에 옮겨 짓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편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회이(回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龍仁鄉校移建

一. 曹 啓目云云 京畿監司 尹以濟 狀啓 則龍仁縣鄉校 壬辰兵禍中 見曉乙仍于 其後姑爲權創於 他處是白如乎 今之歲久 舉皆傷毀 將欲移建於舊基 令該曹 稟處 亦爲白有臥乎所 年來外方 惑於風水 請移鄉校之弊 比比有之是白乎等以 曹因受教 一切防塞是白如乎 今次龍仁縣鄉校毀 兵亂時灰燼之餘 權創於他處 至今聖廟破傷 不可不改建 而此與惑於風水 移設新基有異 因此時 許令移建舊基 似爲便當 以次回移何如 啓依允 <學校謄錄, 3冊/ 110面>

○1721년(경종 2) 6월 29일

향축(香祝)

1. 예조에서 올린 계목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하였습니니다. 용인현 향교(龍仁縣鄉校)에서 대성전(大成殿)의 4성위(聖位)를 봉안한 곳과 동무(東廡)에 크게 물이 새고 좌우(左右)의 풍차 및 신문(神門) 안 동서(東西)쪽 담장이 허물어진 곳 등을 수개할 때에 선고사유제(先告事由祭)와 이안제(移安祭)·환안제(還安祭)에 쓸 향축을 해사로 하여금 선례를 살쳐 마련하여 신속히 내려 보내게 하여 편한 때에 날을 잡아 실행하라는 뜻으로 회이(回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香祝

一. 曹 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向前龍仁縣鄉校 大成殿四聖位 奉安處 東廡大毀洩漏 左右風遮 及神門內 東西墻垣崩頽等處 修改 先告事由祭 移還安祭香祝 今該司 照例磨鍊 急速下送 隨時卜日 設行之意 回移何如 啓依允

<學校謄錄, 4冊/ 22面>

○ 1722년(경종 3) 4월 초9일

향축(香祝)

1. 예조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니다. 전에 용담(龍潭)과 임실(任實) 두 고을의 향교(鄉校)에서 성전(聖殿)에 비가 새는 곳을 수개(修改)할 때 선고사유제(先告事由祭)와 이안제(移安祭)·환안제(還安祭)에 쓸 향축과, 장단부 향교(長端府鄉校)에



서 동무(東廡)의 처마 밖에 있는 은행나무와 서무(西廡)의 처마 밖에 있는 판목(板木)을 베어낼 때 고유제(告由祭)에 쓸 향축을 해사로 설행하도록 하고, 용인현 향교(龍仁縣鄉校)를 중수(重修)한 뒤에 환안제에 쓸 축문(祝文)의 연호(年號)가 이미 다르므로 축문을 개서(改書)하여 내려 보내라고 하였으니, 해사로 하여금 신속히 개서하여 내려 보내게 하되 예전 축문은 도로 올려 보내 향실(香室)로 하여금 정결한 곳에서 불에 태우라는 것을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한다고 계하하였다.

香祝

一. 曹 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向前龍潭任實鄉校 聖廟兩漏處修改時 先告事由 移還安祭香祝 及長端府鄉校東廡簷外杏木 西廡簷外板木斫伐時 告由祭 香祝 今該司 照例磨鍊 下送 隨時卜日 設行爲白乎弥 龍仁縣鄉校重修後 還安祭 祝文 年號既異 改祝下送亦爲白有置 今該司急送 改書下送爲白乎矣 舊祝文乙良 還爲上送 令香室淨處 燒火之意 并以分付何如 啓依允

<學校謄錄, 4冊/ 28面>

### 3. 지지류(地誌類) 문헌 소재 기사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1, 중종26, 권10). 경기, 용인현

[학교] 향교; 현(縣) 동쪽 2리에 있다.

[學校] 鄉校; 在縣東二里

-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1665, 효종6). 용인현

[학교] 향교; 옛날에는 현(縣) 동쪽 2리에 있었다. 지금은 현 북쪽 1리로 옮겼다.

[學校] 鄉校; 舊在縣東二里 今移縣北一里

- 『용인현읍지(龍仁縣邑誌)』(1531, 중종26, 권10)

[공해] 향교; 북쪽에 자리해서 남쪽을 향하고 있음.

[公廨] 鄉校; 子坐午向

○ 『여지도서(輿地圖書)』(1760, 영조36), 용인현

[공해] 향교; 성전 3칸으로 앞에 퇴를 달음. 신문 3칸. 전사청 3칸. 제기고 3칸. 명륜당 3칸. 좌우측 앞에 퇴를 달음. 대문 3칸. 동서협문 각 1칸. 행랑 7칸.

[公廡] 鄉校; 聖殿三間 前退 神門 三間 典祀廳 三間 祭器庫 三間 明倫堂 三間 左右前退 大門 三間 東西挾門 各一間 行廊 七間

○ 『용인현읍지(龍仁縣邑誌)』(1842~43, 京畿誌 권4)

[공해] 향교; 북쪽에 자리해서 남쪽을 향하고 있음.

[公廡] 鄉校; 子坐午向

○ 『용인현읍지(龍仁縣邑誌)』(1871, 고종8)

[향교] 성전 3칸. 대청 3칸. 앞에 퇴를 달음. 신문 3칸. 전사청 3칸. 제기고 3칸. 명륜당 3칸. 좌우측 앞에 퇴를 달음. 동재 4칸. 서재 4칸. 외삼문 3칸. 홍살문 1칸.

[鄉校] 聖殿 三間 大廳 三間 前退 神門 三間 典祀廳 三間 祭器庫 三間 明倫堂 三間 左右前退 東齋 四間 西齋 四間 外三門 三間 紅箭門 一間

○ 『용인군지도읍지(龍仁郡地圖邑誌)』(1899, 광무3)

[향교] 성전 3칸. 대청 3칸. 앞에 퇴를 달음. 신문 3칸. 전사청 3칸. 제기고 3칸. 명륜당 3칸. 좌우측 앞에 퇴를 달음. 동재 4칸. 서재 4칸. 외삼문 3칸. 홍문 1칸.

[鄉校] 聖殿 三間 大廳 三間 前退 神門 三間 典祀廳 三間 祭器庫 三間 明倫堂 三間 左右前退 東齋 四間 西齋 四間 外三門 三間 紅門 一間

## 제2절 향교, 서원 개인소장 문헌

### 1. 용인향교 상량문(龍仁鄉校上樑文)

조국로(趙國老)

삼가 생각하건대, 가을에는 예서(禮書)를 익히고, 겨울에는 시경(詩經)을 공부함은 선왕께서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서이다. 하(夏)나라의 교(校)와 은(殷)나라의 서(序)를 설치한 것은 삼대(三代)가 인륜을 밝히기 위해서이다.<sup>5)</sup> 비록 다시 질(質)과 문(文)<sup>6)</sup>이 서로 기인하였으나, 전후의 법도가 한가지였고, 하나의 순박한 여율은 간혹 달랐으나 하늘이 내려준 성품은 같았다. 이런 까닭으로 주(周)나라에서는 고을에 상(庠)을 설치해 대부(大夫)가 삼물(三物)<sup>7)</sup>로 만민을 흥기시키고, 순(舜)임금은 교육을 펼쳐 사도(司徒)<sup>8)</sup>가 오상(五常)<sup>9)</sup>으로 백성을 교화하였다.

우리 향교 명륜당은 병란을 한 번 겪고 나서 오랫동안 대들보를 중창하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에 생도들이 학업을 익힐 장소가 없어서 청아(菁莪)<sup>10)</sup>한 교화가 시들었고, 식자(識者)들이 교육하는 자리가 비워져 탄식하게 되면서 무성한 잡초만 자랐다. 다행히 문옹(文翁)<sup>11)</sup>의 교화를 입어 멀리 태고의 도연(陶然)<sup>12)</sup>함에서 나아갔으며, 무성(武城)의 현가(絃歌)가 마침내 공부

5) 교(校)·서(序)·상(庠)은 모두 중국 고대에 설치한 학교이다.

6) 질(質)은 꾸미지 아니한 본질을 뜻하며, 문(文)은 다듬어 세련되게 꾸민 것을 말한다. 동양의 문질론(文質論)은 이 둘을 대상으로 한 논리이다.

7) 삼물(三物): 육덕(六德)·육행(六行)·육예(六藝)를 지칭함.

8) 사도(司徒):관직명. 삼공(三公)의 하나.

9) 오상(五常):오륜(五倫:仁義禮智信)과 같은 말임.

10) 청아(菁莪): 본래 무성한 쭉을 뜻하는 말인데 전의되어 무성한 쭉과 같이 많은 인재(人材)를 교육함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11) 문옹(文翁): 한(漢)나라 여강(廬江)사람으로 경제(景帝) 때 성도(成都)에 관학을 설치하여 고을의 자제들을 모아 교육하고, 요역을 면제해주었으며, 우수한 자는 관리로 등용하였다. 무제(武帝) 때 이르러서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학교를 세우게 되었다.<漢書 卷89, 文翁傳>

자의 미소에 들어갈 수 있다.<sup>13)</sup> 그러므로 수레에서 내린지 오래지 않아 전인이 겨를이 없어 하지 못했던 것을 잘 수리하였다. 몇 길의 담장을 쌓아 은연중에 종묘처럼 아름답게 되었고, 백리 고을을 아울러 추로(鄒魯)<sup>14)</sup>의 고장으로 변화시켰다. 구재(鳩財)<sup>15)</sup>함이 번거롭지 않았으며, 이에 길일을 택하여 경영하니 빨리 진행되었기에 무지개 들보를 들어 올리게 되었도다.

拋樑東	들보를 동쪽에 던지니
日觀峯高仰止中	일관봉 높아 우러르며
天地氤氳生意發	천지기운 생기가 발동하고
昆蟲草木得春風	곤충 초목들도 봄바람을 만났네
拋樑西	들보를 서쪽에 던지니
遊者如斯日易低	가는 세월 이 해와 같이 쉽게 지나니
當惜寸陰君子志	짧은 시간을 아낀 군자의 뜻을 알고
工夫到此日提撕	공부가 이에 이르도록 매일 분발해야 하리
拋樑南	들보를 남쪽에 던지니
高懸絳帳聚青衿	높이 매단 붉은 휘장 아래 선비가 모이고
坐看牆壁人皆向	앉아서 보니 사람들 모두 장벽을 향했는데
誰是吾身日省三	누가 제 몸을 날마다 세 번 성찰하는가
拋樑北	들보를 북쪽에 던지니
列侍間如是拱極	나란히 모시고 은은하게 북극성을 향하네
萬古人心遂不茅	만고에 인심이 모색되지 않았으니
寔吾夫子開其基	우리 공부자께서 그 기틀을 여셨네
拋樑上	들보를 위로 던지니
有天高廣人皆仰	하늘 높고 넓어 사람들 모두 우러르네

12) 도연(陶然): 편안하고 느긋하게 즐기는 모습을 형용한 말임.

13) 무성현가(武城絃歌)- 있었다.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의 원님으로 있을 때 공자가 그곳을 가니 현가의 소리가 들렸다. 공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닭을 잡는데 어찌하여 소 잡는 칼을 쓰냐.”고 농담하였다고 한다. 현가는 거문고나 비파 등으로 시나 노래를 읊는 것을 말한다. 자유가 학교를 설치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예와 악을 교육함을 흡족하게 생각하여 한 말이다. <論語, 陽貨篇> 전의되어 “조그마한 고을 수령의 어진 정사”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14) 추로(鄒魯): 추나라의 맹자(孟子)와 노나라의 공자(孔子)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며, 전의되어 “문교(文教)가 흥성한 지방”을 뜻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15) 구재(鳩財); 재물을 거두어 모음.

仰之不可階以升	우리러 볼 수 없어 계단에 오르니
其廣其高焉得量	그 넓이와 높이를 어찌 헤아리리.
拋樑下	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萬世生民蒙聖化	만세의 백성들이 성스러운 교화를 입고
賴有斯文未喪天	하늘이 사문을 망치지 않는 힘을 입으며
能回白日宜行野	밝은 세상 회복하여 밤에도 행해야 하리

삼가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에 선비들이 모두 당에 오르고, 백성들은 함께 이 집에 와서 위로는 인륜을 밝히고, 그 가운데 교화가 있으며, 장차 풀을 드리우는 바람[偃草]<sup>16)</sup>을 행하고, 마른 싹에 내리는 비가 되게 하소서.

#### [원문]

伏以 秋禮冬詩 先王所以化俗 夏校殷序 三代所以明倫 雖復質文相因 前後之揆也一 淳灘或異 降衷之性則同 是以周鄉置庠 大夫與萬民以三物 舜官敷教 司徒率百姓於五常 惟我鄉校明倫堂 奧自兵燹之一經 久欠樑木之重榑 生徒無隸業之所化息 菁莪 識者有倚席之嘆 鞠爲茂草 幸賴文翁教化 遠出太古之陶然 武城絃歌 遂入夫子之苑[莞]爾 故於下車之不久 克修前人之未遑 期使敷仞之牆 隱然宗廟之美 兼將百里之邑 變爲鄒魯之邦 鳩財不煩 爰擇吉日 營葺是亟 載舉虹樑

拋樑東 日觀峯高仰止中 天地氤氳生意發 昆蟲草木得春風  
 拋樑西 遊者如斯日易低 當惜寸陰君子志 工夫到此日提撕  
 拋樑南 高懸絳帳聚青衿 坐看牆壁人皆向 誰是吾身日省三  
 拋樑北 列侍閭如是拱極 萬古人心遂不茅 寔吾夫子開其基  
 拋樑上 有天高廣人皆仰 仰之不可階以升 其廣其高焉得量  
 拋樑下 萬世生民蒙聖化 賴有斯文未喪天 能回白日宜行野

伏願上樑之後 士皆升堂 民皆到屋 人倫明於上 教化在其中 將行偃草之風 有如枯苗之雨

16) 원문의 언초(偃草)는 “풀이 바람에 쓰러지다”는 뜻으로, 전의되어 “백성을 교화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2. 경기 용인현 향교 단청과 포진이 풀어져 훼손된 곳을  
개수할 때 먼저 고유하며 올리는 글  
(京畿龍仁縣鄉校丹青鋪陳渝傷處修改時先告事由文)

홍경모(洪敬謨:1774~1851)<sup>17)</sup>

維席有傷 자리엔 상처가 있고  
維壁亦壞 벽면 역시 무너져서  
禮當改修 개수함이 마땅한 예이기에  
庸伸虔告 삼가 경건하게 고합니다.

다시 봉안할 때의 제축문(還安祭祝文)

有圯斯葺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有渝斯修 헤진 곳을 개수하였기에  
敬告還安 삼가 다시 봉안함을 고하고자  
旨酒思柔 맛있는 술을 따라 올립니다.

17) 홍경모(洪敬謨:1774~1851):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경수(敬修). 호는 관암(冠巖).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정조 때 동몽교관, 순조 때 성균관 유생으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시독관, 대사성, 이조참의, 병조판서, 판돈령부사를 하였다. 문집으로는 『관암전서(冠巖全書)』가 있다.

### 3. 용인향교 통고문(龍仁鄉校 通告文)

自上古 以來로 東方은 禮義之國이라 稱함은 五倫과 三綱이 有함이니 檀君以下 四千餘年을 倫綱으로 行習傳來해 오던바 從近以來로 風俗이 變動되어 明倫이 解弛하고 文化發展이 頹敗 될뿐 不望뿐이라 這間三十六年을 倭人惡政下에 苦痛이 甚多하고 自外國으로 流入된 異端之 教만 勝行되어있고 元來에 遵守하던 儒教는 有形無形之境에 至하였으니 우리同胞民族이여 可謂寒心哉로다 然而다 天運이 循環하여 國運이 復興되어 韓國이 獨立됨으로 政治을 革新케 하고 教化를 發展케 하므로 李大統領께서 公報室을 通하여 우리 民族은 倫綱을 잘 지키라는 談話文을 發布하셨고 成均館長으로부터 儒道會를 組織하라는 通牒이 有之라 이리므로 우리 는 近來에 微弱하던 儒道를 더욱이 更新하여 將來兒童에게 잘 가르쳐주고 잘 배우게 하여 歷史的인 五聖二賢과 我 東方十八賢 先生의 道德을 崇慕하여 大韓을 禮義之國으로 世界列國 에 자랑이 됨을 바라노라 然而나 우리가 倫綱과 道德을 배우려면 先聖先賢을 追慕해야하고 先聖先賢을 追慕하려면 鄉校를 重說하여야한다 그러자면 龍仁郡 駒城面 彦南里所在 龍仁鄉 校는 大成一棟만 겨우 남아 있고 其他 明倫堂 外 東西齋와 內外三門이 모두 없어졌으므로 秋季釋奠舉行時에 祭官들이 暫時라도 居處할 곳이 없아오니 困難莫甚이라 急急한 處地로서 는 于先 明倫堂一棟과 內三門만이라도 建設해야 할 터인데 財力을 求出할 方途가 없아오니 可歎可歎이라 郡內에 계신 儒林諸氏께서 誠心誠意를 다 하시고와 協助하여 주셔서 成事가 되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입니다.

一九五九年 己亥 夏月

出典: 『竹軒文集』

#### 4. 용인 명륜당 중건 상량문(龍仁明倫堂重建上樑文)

대개 물에는 백가지 하천이 있으며, 바다가 조종(朝宗)이 되는 것은 지대(至大)함 때문이다. 산에는 구름이 있으나 오악(五岳)을 넘지 못하는 것은 지고(至高)함 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어 도학(道學)도 역시 이 같음이 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성과 아버이를 섬기고 효성하는 도와 성현을 흠모하고 존경함과 도덕 문장의 아름다움은 지고(至高) 지대(至大)함이 있어 존재하며, 당시 인사들이 경앙(景仰)할 뿐 아니라 천추(千秋)에 이르기까지 선비들이 누군들 우러러 흠모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이로써 나라에서는 선성(先聖)에게 석전(釋奠)을 올리고, 향당(鄉黨)에서는 현사(賢士)를 제향하는 의례가 있는 것이다. 본 향교 역시 그 한가지이다.

무릇 명륜당(明倫堂)의 칭호는 회암(晦菴) 주부자(朱夫子)가 쓴 것으로, 이를 복사해서 현판을 단 것이다. 그 이후로 한 고을 서인(庶人)의 자제들이 쇄소응대(灑掃應對)하고 진퇴(進退)하는 예절<sup>18)</sup>,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sup>19)</sup>의 학문과 오륜삼강(五倫三綱)의 행실을 모두 이 명륜당에서 배우게 되었다. 이 당사(堂舍)는 유림 중에서 계승하여 보수해왔는데 시절과 세상이 바뀌어 유교가 쇠퇴하여 당사를 보살피 수리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실로 선비들이 민첩하지 못한 때문이다. 또한 6.26사변 당시에 전체가 퇴락하고 무너져 지금까지 빈 터만 남아 있다가, 다행히 은혜를 입어 바야흐로 건축중에 있다. 인파인건(寅破寅建)<sup>20)</sup>은 13년 사이요, 파시건일(破時建日)<sup>21)</sup>은 해자(亥子)의 월건(月建)으로, 천운(天運) 이 “가면 돌아오지 않음이 없다”[無往不復]는 때이다.

이 명륜당은 이미 부숩져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일념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니 한 해가 되지 않아 빛나고 새로워졌다. 허물며 사람의 오륜(五倫)은 마음에 갖춰져 있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므로 지덕(至德)으로써 나날이 새롭게 하면 덕(德)이 유행하여 나라를 매우 새롭게

18) 쇄소응대진퇴(灑掃應對進退): 청소하고 사람을 접대하며 나아가고 물러난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기본예절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19)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 육예(六藝)를 지칭하는 말로 예절, 음악, 활쏘기, 승마, 독서, 셈하기를 말한다.

20) 인파인건(寅破寅建): 풍수(風水)의 이기론(理氣論) 가운데 포태법(胞胎法)을 토대로 한 수법(水法)에 나오는 용어이다. 이에 따르면 “庚坐에 寅破는 絶”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을 근거 삼아 후손이 끊기는 자리(絶孫之地)라고 한다. 여기서는 경인년(庚寅年)에 부숩지고, 임인년(壬寅年)에 건축하게 됨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21) 파시건일(破時建日): 부숩진 시각과 건립한 일자를 뜻하는 말임.



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을 위세로 정부는 요순시대의 정치를 본받고자 하고, 유도(儒道)를 회복하여 밝게 함에 사람은 힘써 추로(鄒魯)의 도를 배우면 어찌 지고(至高) 지대(至大)하지 아니하겠는가. 우리 고을의 석유(奭儒)는 길이 이어받아서<sup>22)</sup>하고 시(詩)와례(禮)를 배워서 사문(斯文)의 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증견한 명륜당의 새로운 모습을 수레바퀴를 돌리듯이 경영하여 매우 빛날 수 있도록 갖춰야 할 것이다.

상량하는 일을 도우려 노래한다.

兒郎偉 拋樑東	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던지니
城山曉日破昏曠	성산의 새벽해가 어두운 산을 부수고
我朝文治會如許	우리나라 문치를 허락하는 듯하며
肯說當時輔弼功	당시를 긍정하는 말은 공적을 보필하네

兒郎偉 拋樑西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던지니
龍華堂上暮雲低	용화당 위 저녁 구름은 낮게 드리우고
朝天揖讓今安在	천자를 배알하던 이 지금은 어디 있는가
落月堪聽遠雁啼	지는 달만 힘겹게 먼 기러기 소리를 듣네

兒郎偉 拋樑南	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던지니
龍潭水色抱靑藍	용담의 물빛은 청람을 품었으며
麗妓高節千秋恨	여기의 높은 절개 천추의 한으로
形勝遺餘野老談	형승만 야로의 이야기에 남았다네

兒郎偉 拋樑北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던지니
霽月光風誰會得	제월광풍 <sup>23)</sup> 을 누가 얻을 수 있으랴
看取玻瓈十畝方	살펴보니 유리가 십묘 <sup>24)</sup> 지역에 펼쳤는데
淤泥不變紅蓮色	어니 <sup>25)</sup> 는 변하지 않아 붉은 연꽃색이네

22) 원문의 ‘궁구궁당(肯構肯堂)’은 부친이나 선조의 뜻을 계승하여 길이 이어받음을 뜻하는 말임.

23) 제월광풍(霽月光風): 비 온 뒤에 부는 시원한 바람과 밝은 달을 말함.

24) 십묘(十畝): 『시경(詩經)』 위풍(魏風)의 편명인데, 이 시는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벼슬을 버리고 전원(田園)에 돌아가 살려는 뜻을 담은 내용이다. 전의되어 전원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작은 땅을 뜻한다.

兒郎偉 拋樑上 어영차, 들보를 윗쪽으로 던지니  
法華山立幾千丈 법화산은 몇 천길 높이 솟아 있고  
駿奔多士攝威儀 바빠 움직이는 많은 선비들 위의를 갖추며  
遺像凜然皆瞻仰 유상의 늠름한 모습을 모두 우러르네

兒郎偉 拋樑下 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重建明堂修棟榭 명륜당을 중건하고 대들보를 보수하니  
振發文風似線長 문풍을 떨쳐서 실처럼 장구하여  
于于襟佩摠儒雅 당당한 선비들 모두 유아<sup>26)</sup>하여라

앞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에 기초가 영원히 확고하고, 변두(籩豆) 더욱 빛나며, 유도(儒道) 더욱 번성하여 집집마다 시례(詩禮)을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서기 1962년 임인 겨울 시월 그믐날

---

25) 어니(淤泥): 빛깔이 붉고 차진 흙.

26) 유아(儒雅): 시문을 짓고 읊는 멋이나 풍치, 또는 학문이 깊고 태도가 의젓함을 뜻하는 말이다.

[원문]

龍仁明倫堂重建上樑文

蓋水有百川而朝宗于海는 以其至大也요 山有丘陵而無過五岳은 以其至高也라 道學之於人也에 亦有是爲하니 其忠君愛國之誠과 事親爲孝之道와 慕聖尊賢之敬과 道德文章之美 有至高至大者 存爲則不啻當時人士之景仰은 至於千秋冠巾衣帶之士가 孰無尊仰景慕之心也리오 是以로 國有釋奠先聖之舉하고 鄉有俎豆賢士之儀하니 本鄉校則亦其一也라 凡明倫堂之稱號는 晦菴朱夫子 書之而複寫懸板矣라 自始以來로 一鄉庶人之子弟 灑掃應對 進退之節과 禮樂射御書數之文과 五倫三綱之行을 皆授學於此堂中矣리라 此堂舍는 儒林中에서 繼繼承承하야 由來修補라가 時移世變에 儒教衰施하야 不顧修堂하니 此實士子之不敏云故也러니 又況六二五事變當時에 全爲頹敗하야 至于今 空墟餘存하다가 行得蒙恩하야 方在建築中也라 寅破寅建은 十三年之間이요 破時建日은 亥子之月이라 天運이 無往不復일새 此堂之旣破而重新也라 一念之欲新은 不泮歲而煥然 卽新은 況人之五倫은 具於心而欲自心이오 以至德日新則 德之流行이 可以至新于國矣리라 革命爲勢에 政府는 欲效唐虞之治하고 儒道復明에 士林은 力學鄒魯之道하면 此豈非至高至大也哉아 吾鄉爽儒는 肯構肯堂하고 學時學禮하야 不外乎斯文之道矣哉인저 重建明倫堂之新貌 經營輪爲하야 極備燦然矣

助學歌樑

兒郎偉拋樑東 城山曉日破昏嶮 我朝文治曾如許 肯說當時輔弼功  
 兒郎偉拋樑西 龍華堂上暮雲低 朝天揖讓今安在 落月堪聽遠雁啼  
 兒郎偉拋樑南 龍潭水色抱青藍 麗妓高節千秋恨 形勝遺餘野老談  
 兒郎偉拋樑北 霽月光風誰會得 看取玻璃十畝方 淤泥不變紅蓮色  
 兒郎偉拋樑上 法華山立幾千丈 駿奔多士攝威儀 遺像凜然皆瞻仰  
 兒郎偉拋樑下 重建明堂修棟榭 振發文風似線長 于于襟佩摠儒雅  
 伏願 上樑之後 基礎永固 籩豆增輝 儒道益盛 不墜詩禮家聲

西紀一九六二年 壬寅 冬十月 晦日

## 5. 용인향교 명륜당 중건기(龍仁鄉校明倫堂重建記)

상서(庠序) 학교(學校)는 삼고(三古)시대의 인륜을 밝히고, 유교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런 까닭에 왕궁(王宮) 국도(國都)로부터 향당(鄉黨) 여항(閭巷)에 이르기까지 배움이 없지 않게 하고, 총명하고 준수한 사람을 모아서 교도(教導)하고 성취코자 하였다. 그러므로 나라에는 성균관 성전(聖殿)이 있고, 읍에는 향교가 있으며, 향(鄉)에는 서원이 있는데 삼고시대의 제도를 모색하여 창설한 것이다. 이로써 집집마다 추로(鄒魯)의 풍화가 있고, 집집마다 낙민(洛閩)의 학문이 있으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며 또한 훌륭하지 아니한가. 실로 만세(萬世) 온 천지에 걸쳐 어긋나거나 바뀌지지 않을 법전이다. 돌아보건대 본 교궁(校宮)은 성균관 성전(聖殿)과 동일한 사례이다.

아! 세도(世道)에 높고 낮음이 있고, 인사(人事)에는 흥하고 폐함이 있나니 이 또한 천도(天道)가 다시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치이다. 이 명륜당은 6.25사변 당시에 퇴락해져서 빈터만 있었을 뿐이다. 기해년 여름에 전교로부터 중건 통문을 발행하고 누차 협의하였으나 우리 마을의 유림 가운데는 전혀 중건의 묘책이 없었는데 천운(天運)이 다시 돌아오지 않음이 없었다. 성균관장이 문교부에 소통하여 남한의 각 향교에 50만원씩 은사(恩賜)하였는데 본 향교는 특별히 60만원을 받았다. 이 금액으로는 명륜당 건축비에 태반 부족하므로 수년 동안 경과하다가 다행히 본 면사무소 숙직실을 매도한다는 말이 있으므로 군면(郡面)의 직원과 향교 임원이 호상협의하여 염가로 매수하였다. 다행히 목재와 기와가 합당하기에 즉시 임인년 중동(仲冬)에 공역을 시작하여 다음해 3월에 준공을 고하였으니, 가히 며칠 안 되어 완성된 격[不日成之格]이라 이를 만하였다. 이 집의 칸수는 모두 6칸인데 대청(大廳)이 3칸, 양쪽의 협실(夾室)이 각각 1칸 반으로 구성되었다.

이 집은 높은 곳에 위치하여 아래를 내려다보고, 평지에 임했으며 먼 들판에는 가로로 푸른 하천이 빗겼고, 원근의 모든 산이 마룻방 창문 자리 사이에 다투어 모였다. 무릇 모두 상개(塋塹)<sup>27)</sup>한 경치를 포괄하였다고 이를 만하며, 또한 넓고 확 트여서 강학하는 제군자가 마음에 품은 생각을 펼칠 만하였다. 그러한즉 이 집에 올라서 학문을 하는 자들은 오성이현(五聖二

27) 상개(塋塹): 위치가 높아서 멀리 앞을 바라보기 좋은 곳.

賢)<sup>28)</sup>과 우리나라 18현(十八賢) 선생의 도덕 문장을 모범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당호(堂號)는新安(新安) 주부자(朱夫子)가 이름하고 글씨를 써서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대략 그 사실을 초록하여 전말을 기록한다.

계묘년 봄 3월 일

[원문]

夫庠序學校는 三古之所以明人倫也와 立儒教也라. 故로 自王宮國都로 至於鄉黨閭巷의 莫不有學하고 哀集聰明俊秀者而教導成就焉이라 然而 國焉而有成均聖殿하고 邑焉而有鄉校하고 鄉焉而有書院則 摸索三古之制而刼設者也라 是以로 戶戶에 有鄒魯之風하고 家家에 有洛閩之學하니 豈不美哉며 不亦善乎아 案亘萬世窮天地而不悖不易之典也라 顧茲本校宮則 與成均館聖殿으로 同一例也라 噫라 世道 有汚隆하고 人事有興廢하니 是亦天道 剝往復來之理也라 此明倫堂則 六二五事變當時에 頽敗而 但有空墟矣라 己亥夏月에 自典校로서 重建通文을 發行하고 累次協議에 吾鄉儒林中으론 頓無重建之妙策이러니 天運이 無往不復하야 自成均館長이 通于文教部하야 南韓各校에 金五十萬圓式 恩賜하므로 本校則 特受六十萬圓也라 此額으로 明倫堂 建築費에 太半不足임으로 數年을 經過타가 倖有 本面事務所 宿直室을 賣渡云故로 郡面職員과 鄉校任員이 互相協議하야 以廉價로 買收矣러니 僥倖木材與器瓦가 可合也故로 卽爲壬寅仲冬에 始役하야 翌年 三月에 告竣하니 可謂不日成之格也라 此堂 間數則 總六間에 大廳三間 兩便夾室 各一間半으로 構成也라

斯堂也는 處高而瞰下 平臨하고 迥野에 橫帶清川而遠近諸山이 爭集於軒窓 凡席之間하니 庶可謂該括塽壇之景而亦可以敞豁 講磨諸君子之襟懷也라 然則登斯堂而爲學者는 模範於五聖二賢과 我東方十八賢先生之道德文章也哉인저 此堂號는 新安朱夫子 名之書之而傳之來世矣러라 畧草其事하야 由之顛末焉

癸卯 春三月 日

28) 오성이현(五聖二賢): 5성은 공자·안자·증자·자사·맹자를 지칭하고, 2현은 정호·주자를 지칭한다.

## 6. 용인향교 중수기(龍仁鄉校重修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의(禮儀)의 나라로 불려졌다. 용인은 문향(文鄉)이다. 선유(先儒)들의 현인과 성현들을 공경하고 흠모하는 정성이 후세에 규범으로 여겨졌다. 또한 유림(儒林)이 중시하는 바는 예의엄직(禮義廉直)에 있었다. 그런 까닭에 본군의 향교가 6백여년 이래로 얼마나 보수(補修)를 거쳤는지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어 혹은 퇴락하고 혹은 무너졌으며, 혹은 엷어지고 혹은 넘어가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어찌 성의가 부족해서 그러한 것이리요. 비록 중수하고자 하였으나 일은 거대하고 힘은 약해서 역대 임원이 감히 뜻을 낼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전임 전교(典校)인 조성래(趙成來)씨는 한양(漢陽)의 별족인데 취임 이래로 성현을 호위(護衛)하는 정성과 더불어 시국을 근심하고 도(道)를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 소임을 완수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사람의 일은 계술(繼述)하는 것이 중대하다. 만약 이 성역(聖域)의 존엄한 성묘교궁(聖廟校宮)이 퇴락하였는데도 보수하지 않는다면 어찌 유림(儒林)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분개하여 중수(重修)할 뜻을 두고 여러 차례 모여 논의를 한 나머지 향교 대지를 매각하여 일부는 위답(位畓)을 구입하였는데 남은 것은 불과 몇 백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극력으로 본군 출신으로 당시 문공부장관인 이용희(李雄熙) 공과 도지사 및 군수에게 청원하여 원조를 구하였다. 거액은 없으나 관재(官財) 1억 3천만원을 배려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였다. 착공한 지 3년 남짓하여 준공하니 동떨어진 몇 집의 땅에 전폐된 집이 겹쳤고, 조석으로 왕래하여 임원들과 더불어 공인(工人)을 독려하니 첩첩이 고생이라 할 만하였다. 완급(緩急)에 따라서 대성전을 중수하고, 명륜당을 중건하고, 내외삼문, 담장, 수복사(守僕舍) 일체를 차례로 수축(修築)하니 휘비조혁(翬飛鳥革)<sup>29)</sup>에 일경(一境)이 윤환(輪奐)<sup>30)</sup>이라 어찌 장대하지 않으며, 우리 사림들 가운데 누군들 기뻐하며 축하하지 않겠는가. 다시 축하의 뜻을 훗날 유자(儒者)에게 전하여 교체하지 말지어다. 또한 현임 전교 이영희(李英熙)씨는 연안(延安)의 세가(世家)이다. 그가 성현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정성과 선을 고양하여 열어온 뜻으로 앞서 기록한 조전교(趙典校)의 공로를 빗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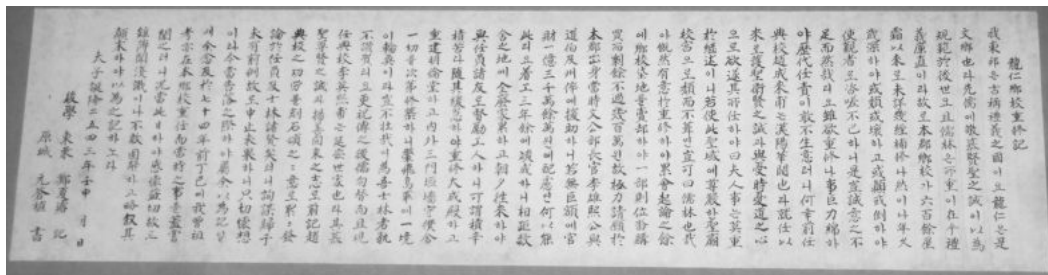
29) 휘비조혁(翬飛鳥革): 새가 날개를 펴고 나는 것같이 집이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말한다.

30) 윤환(輪奐): 「윤(輪)」은 굴곡이 있고 광대하다는 뜻이며, 「환(奐)」은 크고 성대하다는 뜻으로 곧 건물이 크고 화려한 것을 뜻한다.

새겨 칭송하려고 누누이 임원 및 사림 제현들에게 발론하였는데 자문함에 전례에 아직 없다는 데 귀일하여 중지하고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단지 간절한 생각만을 품었을 뿐이다. 지금 낙성을 고하는 즈음에 나에게 기문을 부탁하므로 내 생각이 74년 전인 정사년에 미쳤는데 나의 증조부 역시 본 향교의 중임을 맡아서 당시의 일을 대부분 일찍이 들은 것이었다. 더우기 오늘을 맞이하여 감회가 더욱 절실하다. 그러기에 비록 들은 바가 얇고 아는 바가 적으나 감히 고사하지 못하고 대략 그 전말을 기록하여 기(記)로 삼고자 하노라.

공자 탄신 2543년(1992년) 임신 월 일

후학 동래 정하선(鄭夏璿) 기록하고 원성 원창식(元蒼植)이 쓰다.



용인향교 중수기

## [원문]

我東方은 古稱禮儀之國이요 龍仁은 是文鄉也라 先儒에 敬慕賢聖之誠이 以爲 規範於後世요 且儒林은 所重이 在乎禮義廉直이라 故로 本郡鄉校가 六百餘星霜 以來로 未詳幾經補修나 然이나 年久歲深하야 或頽或壞하고 或顛或倒하야 使觀者 로 咨嗟不已니 是豈誠意之不足而然哉리요 雖欲重修나 事巨力綿하야 歷代任員이 敢不生意러니 何行前任典校趙成來甫는 漢陽華閭也라 就任以來로 護聖衛賢之誠 과 與憂時憂道之心으로 欲遂其所任하야 曰夫人事는 莫重於繼述이니 若使此聖域 에 尊嚴한 聖廟校宮으로 頽而不葺면 豈可曰 儒林也哉아 慨然有意於重修하야 累 會起論之餘에 鄉校垞地를 賣却하야 一部則位畚購買而剩餘不過幾百萬원 故極力 請願於本郡出身當時文公部長官李雄熙公與道伯及州倅에 援助하니 若無巨額에 官財一億三千萬원에 配慮면 何以能此리요 着工三年餘에 竣成하니 相距數舍之地 에 全廢家累하고 朝夕往來하야 與任員諸友로 督勵工人하니 可謂積辛積苦라 隨其 緩急하야 重修大成殿하고 重建明倫堂하고 內外三門垣墻守僕舍 一切를 次第修築 하니 翬飛鳥革에 一境이 輪奐이라 豈不壯哉며 爲吾士林者 孰不讚賀리요 更祝傳 之後儒 勿替而且現任典校李英熙甫는 延安世家也라 其慕聖尊賢之誠과 揚善開 來之志로 前記趙典校之功勞를 刻石頌之之意로 累累發論於任員及士林諸賢矣러 니 詢謀歸于未有前例 故로 中止未果하니 只切懷想이라 今當告落之際하야 屬余 以爲記일새 余念及於七十四年前 丁巳에 我曾祖考亦在本鄉校重任而當時之事를 蓋嘗聞之러니 況當此日하야 感懷益切故로 雖薄聞淺識이나 不敢固辭하고 略敘其 顛末하야 以爲之記하노라

夫子誕降二五四三年 壬申 月 日

後學 東萊 鄭夏璿 記

原城 元蒼植 書



7. 용인향교교궁중수기(龍仁鄉校校宮重修記)<sup>31)</sup>

六二五動亂后 明倫堂은 一次 重修하였으나 校宮이 全般的으로 頹落하고 垣牆은 全壞된 實情에 趙成來甫가 典校로 赴任하여 京畿道廳 및 龍仁郡 當局에 修築 要請을 하는 한 便, 儒林總會에서 駒城面 所在 垞地를 賣渡하여 南四面에 位土를 買受하고 餘裕資金으로 大成殿 앞뜰 階段을 修築하고 關係官署에서 積極 協助 많은 豫算을 投立 左記와 如히 諸工事を 完工하니 校宮에 面貌가 一新되다

記

工事名	工事年度	施工內譯
大成殿 앞 階段工事	一九八三. 七. 一四	鄉校自體資金
守僕室新築	一九八六. 六. 二四	
明倫堂新築	一九八七. 七. 八	龍仁郡廳(예강환)
大成殿 앞 內三門 垣牆一部	一九八六. 三. 一五	
外三門, 紅箭門, 垣牆一部	一九八九. 七. 一二	
守僕室 앞 垣牆 및 通行門 設置	一九九〇. 一	(김학규) 現 國會議員 協助

以上 諸工事を 監理하면서 回想하건대 六百餘年間이나 萬難을 克復하고 持續保存하며 오신 先儒僉賢의 慕聖之心과 以民敎化의 功績 感銘 깊이 欽慕하며 特히 一九八〇年代의 校宮修築에 不顧家事하고 專力하여 業績에 至大한 典校 趙成來甫의 勞苦를 衷心으로 致賀드리고 後繼儒林僉位의 永久保存과 同時 儒道重興의 先捧이 되시기를 期待하면서 校宮大修築의 概要를 茲에 略述하노라

一九 年 月 日

31) 이 자료는 용인향교에 소장된 『鄉校增修 및 現況』 서류철에 수록된 원고본을 전재한 것이다.

## 8. 전 전교 이영희 공적기(前典校李英熙功績記)

선(善)을 고양하고 공(功)을 포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법전이요, 사림(士林)이 먼저 할 일이다. 지금은 서양의 조류가 동방에 넘쳐흘러서 인류가 짐승들과 다름이 없다. 이때를 당하여 오직 순수한 마음과 진실된 뜻으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사람이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삼가 생각하건대, 용인향교 전임 이영희(李英熙) 전교는 재임시에 희수(稀壽)를 맞이하여 그 가손이 헌수축강(獻壽祝岡)하는 잔치를 베풀고자 하였는데 공이 불가하다고 하여 중지하고 베풀지 아니하였다. 그 자금 이백수십만원의 거금을 본 향교 교육기금으로 적립하였다. 앞서 말한 바 사람이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한 것이다. 이는 모두 성현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니, 누군들 찬양하고 공경하며 흠모하지 않겠는가. 대략 그 사실을 기록하여 그 미덕을 현창(顯彰)하노라.

공기(孔紀) 2545년(서기1993년) 5월 일

원로위원 정하선(鄭夏璿) 짓고, 용인향교 전교 김건중(金建中) 쓰다.

### [원문]

夫揚善褒功은 國家之常典이요 士林之先務也라 方今西潮東溢하여 人類無異於 翔走하니 當斯時也하여 惟純心誠意로 堪人所難堪하고 行所難行하여 無愧于天하고 無作于人者 能幾人才아 謹按龍仁鄉校前任李英熙典校는 在任時에 當稀壽之年하여 其子孫이 欲設獻壽祝岡之筵而公이 以爲不可라하여 中止未果하고 以其資金貳百數十餘萬金之巨額으로 本鄉校教育基金積立하니 前所謂行人所難行者

也 而皆出於慕聖尊賢之誠하니 孰不讚揚而敬慕哉아 略敘其實하야 彰其美德하노  
라

孔紀二五四五年 五月 日

元老委員 鄭夏璿 撰

龍仁鄉校典校 金建中 書



## 9. 윤리도의 선양교육 기금 조성에 대한 취지문 (倫理道義宣揚教育 基金造成에 對한 趣旨文)

科學文明의 發展으로 經濟가 成長하여 生活이 향상되고 物質文明은 濶闊해졌으나 無分別한 西歐文物의 流入으로 西歐化傾向에서 精神文化인 倫理와 禮義 道德이 紊亂해지고 傳統的인 우리의 美風良俗이 解弛하여서 情緒는 메말르고 利己主義가 澎湃하여 淳厚한 人心과 人格性은 衰退 一路에 向하고 있으니 차마 目不忍見 坐視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祖上들은 貧困한 生活 속에서도 道德과 서로의 禮義를 信條로 하며 人間愛와 謙讓으로 秩序를 지키셨고 禮를 崇尚하여 四物을 敎訓으로 하셨으니 貧困 속에서도 마음이 豐饒로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하여 東方禮儀之國을 이루셨으나 오늘의 後孫들이 그 뜻을 받들지 못하고보니 罪悚함을 禁할 수 없습니다.

鄉校는 元來 周知하시는 바 人才養成機關으로서 孔子님을 비롯하여 聖賢들을 모시고 知識과 人格을 陶冶하는 敎養의 道場이었으나 社會制度의 變遷으로 近來의 鄉校는 春秋釋奠의 香火를 이어가는 實情으로서 우리 儒生들은 참으로 自省하며 大悟覺醒하여 鄉校本然의 任務가 아쉬움을 깨닫고 自淨해야겠다고 自歎을 하여 마지 않습니다.

晚時之歎은 있사오나 儒生들도 先儒의 敎訓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後生들에게 傳授하여 連綿無窮한 子孫萬代에 이어갈 責任을 共感하며 이에 打開策은 倫理道德敎育만이 匡正할 수 있는 方途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當鄉校에서는 社會秩序定立을 위하여 後進敎育에 뜻을 모아 倫理道德敎育基金을 마련코저 鄉校 및 儒道會 任員들이 우선 誠金을 據出하였으나 老年의 儒生들이라 收入源이 없는 處地에서 誠意를 다하였으나 力不足이라 本意는 아니오나 다시 江湖諸賢과 鄉士와 後孫을 우려하시는 有志 여러분과 뜻을 함께 하고저 本趣旨를 올려 同參을 仰望합니다.

바라옵건대 적극적인 協助와 鞭撻로 有終의 美를 걷을 수 있게 하여주심을 仰望합니다.

一九九三年 二月 日

龍仁鄉校 典校 李英熙  
儒道會 龍仁支部長 柳正熙  
任員 및 儒生一同

### 제3절 용인명륜향교 일기

#### 1) 『용인명륜학교일기』의 배경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서구문물의 유입과 정치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전통 유학교 육기관인 향교의 교육이 약화되고, 새로운 교육제도가 요구되는 시기였다. 용인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용인향교가 ‘명륜학교(明倫學校)’라는 명칭으로 개교하였고, 유학과 신교육을 병행하였다. 『용인명륜학교일기』는 바로 그 같은 사실을 증빙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일기는 백순재(白淳在)가 『한국학보』11집(1978)에 처음 소개하였다.<sup>32)</sup>

『용인명륜학교일기』의 원본은 양지(洋紙)에 필사하여 한장(韓裝)으로 제책되었다. 무곽(無廓) 무계(無界)로 매면 12행이 중심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1행의 글자수도 일정하지 않다. 책의 규모는 20×23.5cm이고 분량은 30장이다. 묵서(墨書)로 되어 있다. 표지의 책명(冊名)은 『日記冊』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大韓光武十一年 丁未 二月 朔 日 始”라고 기록하였다. 앞표지 안쪽에는 ‘日記冊 李容健’이라 기록하였다. 이 같은 기록을 근거로 이 자료를 ‘용인명륜학교일기(龍仁明倫學校日記)’라 지칭한 것이다. 백순재는 <해제>에서 이 자료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일기는 광무 11년 정미(1907) 2월 1일부터 동년 7월 2일까지 만 5개월 2일간 쓰여진 일기로 경기도 용인[구성]에 소재한 명륜학교 일기인 것이다. 이 일기의 성격을 따져보면 표제는 ‘명륜학교일기’라 되어 있지만, 학교일기는 공식문서 형식의 일기가 아니고, 학교와 관계가 있던 인사의 사(私) 일기로서 비교적 학교생활의 동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어느 개인 중심의 자유로운 입장에서 쓰여진 일기라 할 수 있다.』<sup>33)</sup>

32) 필자가 1978년도에 일지사에서 『韓國學報』에 수록된 이 자료를 발견하고, 복사하여 고 박용익 전용인문화원장에게 전해주었는데 이후 방치되었다가, 1998년도에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펴낸 『駒城面誌』에 부록으로 원문과 번역문을 게재하였다.

33) 白淳在, <龍仁明倫學校日記에 대하여>, 『韓國學報』 11집(4권2호), 일지사, 1978, 264쪽.

이 일기를 쓴 이용건(李容健)은 용인 사람으로 명륜학교에서 상주하였던 학생으로 생각된다. 일기 가운데 교우(校友)인 정우용(鄭禹鎔), 김홍배(金鴻培), 송시순(宋時純), 최병균(崔秉均) 등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들과 비슷한 연배일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정우용은 1884년(고종 21)에 출생하여 1966년에 삶을 마쳤다.

## 2) 용인명륜학교의 설립과 운영

‘명륜학교’는 일제의 식민지화 교육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던 시기에 ‘민족교육’을 교육 목표로 설립되었다. 전국에서 향교를 ‘명륜학교’라 개명하고 유학과 신교육을 함께 강학하던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대략 1905년~1910년 기간 동안 설립되고, 1915년 전후해서 폐교된 것으로 추정된다.<sup>34)</sup> 용인명륜학교가 개교한 것은 『용인명륜학교일기』의 다음 기사로 보아 1906년 5월 7일이나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sup>35)</sup>

- 5월 7일 정유 맑음: 오늘은 곧 개교일임.
- 5월 11일 신축 맑음: 이른 아침에 어대선(魚大善)씨가 선생님을 내방함. 오후에 전 선생님이신 이생원(李生員) 어른이 오심.
- 6월 18일 정축 맑음: 친구 최도균(崔道均), 김홍배(金鴻培) 두 사람이 교장(校長)이 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서울에 감.

위의 기록에서 용인명륜학교의 강학을 주도하였던 맹보순 이전에 ‘이생원’이 전 선생님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인명륜학교일기』의 기사가 종료된 날짜는 1907년 7월 2일이며,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 내용은 단발령에 대한 찬반의 글이다. 6월 18일자

34) 용인명륜학교가 폐교된 이후로 1909년 6월 17일 사립용인보통학교가 세워졌으며 이는 다시 1910년 4월 공립 용인보통학교가 되었다. 1917년에는 학교를 기흥구 신갈동으로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신갈초등학교가 이 학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35) 이에 대해선 김태근의 <1907년 전후 용인지역의 근대학교 설립운동과 국채보상운동> (『용인향토문화연구』, 8집, 용인향토문화연구회, 2007, 89-93쪽)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다.

일기에 교장[이도재]이 잡혀갔다는 기사를 보면, 이 학교의 학생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단발령에 반대하는 등의 저항을 보이자 폐교하게 됨으로써 일기가 종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36)</sup>

용인명륜학교 설립과 운영에 가장 공력을 기울인 사람은 『용인명륜학교일기』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성재 어른[誠齋丈]’, 즉 김학조(金學祖)이다. 그는 조선말기와 일제시대 초기 용인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이다. 조선말기 수원 출신의 대표적 유학자인 야우(野愚) 서정순(徐正淳)의 문인이다. 외삼촌인 맹보순을 초빙해 갈촌(葛村)의 학당을 열어 후학을 양성케 하였으며, 용인명륜학교가 개교한 이후에도 학교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24년 총렬서원 복구에도 앞장섰다. 그의 교유인물 가운데는 화서학파(華西學派)의 문인들이 많다.

용인명륜학교의 교장은 이도재(李道宰:1848-1909)였다. 그의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모현면 능원리에 세거를 형성한 이석형(李石亨)의 후예이다. 자는 성일(聖一), 호는 심재(心齋)·운정(簣汀)이다. 강위(姜瑋)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그는 1894년 개화파 정부가 수립되자 군국기무처의원이 되었으며, 1895년 군부대신을 거쳐 학부대신이 되었으나 유길준(兪吉濬) 등이 단발령을 강행하자 반대상소를 올리고 사직 후 귀향했다. 그 뒤 내부대신서리·법부대신·의정부찬정 등을 지냈다.

용인명륜학교에서 주도적으로 강학(講學)을 담당한 인물은 동전(東田) 맹보순(孟輔淳:1862-1933)이다. 그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태어나 9세 때 신갈에 세거한 김운수(金雲水)<sup>37)</sup>에게 한학을 배우고, 15세 때 야우 서정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묵암(默庵) 심성택(沈聖澤)의 제자이기도 하다. 1894년에 생질 김학조의 권유로 신갈 금화산(金華山:지금의 기흥구 상갈동 상미)에 거처를 옮기고 후학을 가르쳤다. 1897년에는 상촌(桑村)에 강사(講舍)를 지어 강학하였다. 1906년에 이르러 학생들이 넘쳐나 학당에 수용하기가 어려워지자 용인향교에 들어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부대신을 역임한 이도재(李道宰)와 함께 명륜학교를 설립하여 신구학문 교육에 힘썼다. 1910년 국치를 당하자 만

36) 참고로 『동래명륜학교일사』의 기사에 의하면 동래명륜학교는 1908년 5월 28일 개교하였다. 일사의 기록이 종료된 날짜는 1909년 12월 29일이다. 무주명륜학교는 1909년에 개교하였다.

37) 김운수는 맹보순의 누이의 시아버지이다.



주로 건너가 이동녕 등과 함께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신문을 발행하며 제자인 김혁(金赫)과 이영선 등을 가르쳤다. 고종(高宗)의 승하로 귀국하여 3년 상을 치른 후 심곡서원(深谷書院)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마쳤다. 그는 심곡서원 부지가 남에 손에 넘어 가게 됨에 따라 용인지역 유지들과 함께 부지를 되찾아 오늘에 이르게 하였으며, 모현면 능원리 충렬서원 터에 충렬사를 다시 세우는데도 주도하였다.

용인명륜학교의 강학은 맹보순 외에도 외부 유학자를 초빙하거나 심곡서원에서 강회(講會)로 진행되었다. 구성의 하마비에 사는 어대선(魚大善)씨 댁에서 강회를 하였다는 기사를 보면 특정 유학자의 집에서도 강회를 실시하였던 것 같다. 정기적인 강회는 삭망(朔望)과 상사일(上巳日) 등에 실시하였으며, 때로는 군수나 용인 관내 유림들도 참석하였다.

- 2월 16일 정축 맑음: 이 날은 정암서원에서 강회(講會)하므로 본교의 여러 친구들이 모두 참강(參講)하였음.
- 3월 3일 갑오 아침 비, 오후 맑음: 이 날 향사례와 군자단(君子團) 회의를 행함. …(생략)…이날은 마침 상사일(上巳日)이라 또한 강회(講會)를 겸하였다.
- 3월 29일 경신 맑음: 오후에 성재 어른이 학교에 오심. 오는 초하루에 신원서숙(新院書塾)에서 강회(講會)하는 일을 상의하려 하셨으나 선생님이 노성에 가신 뒤라서 부득이 이철규(李喆圭), 김복현(金福鉉) 두 친구에게 명하고 보내심.
- 4월 15일 을해 맑음: 이 날은 강회가 있으므로 군수와 모모 여러 사람들이 역시 참석하여 청강함.
- 6월 1일 경인 맑음: 오늘은 강회(講會)하는 날이므로 모모제씨가 참석함.
- 7월 1일 경인 잠시 비가 오다 잠시 개입: 이 날은 하마비(下馬碑) 사문 어대선(魚大善)씨 댁에서 강회(講會)를 실시함. 군수 어른이 동참하였음.

용인명륜학교의 강학은 문학(文學)·실업(實業)·법률(法律)·유석(儒釋) 4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5일자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군에 사는 맹보순은 수원군의 儒林의 領袖이자 저명한 학자인데, 시국변천을 개탄하여 유림 몇몇과 협의하여 수원군에 명륜학교를 세우고 文學, 實業, 法律, 儒釋 등 4개 과를 개설했으며 학도는 1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sup>38)</sup>

다음 일기에서 보듯이 용인명륜학교 학생들은 강회 외에도 심곡서원의 향사에 참여하였다.

- 2월 15일 병자 맑음: 이 날은 정암선생(靜庵先生)의 제향일이므로 학생 여러 친구와 함께 향사에 참여하고자 모두 심곡서원에 들어갔음.

용인명륜학교의 운영은 주로 용인지역 유지들의 지원과 학생들의 과량미(課糧米)로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월 20일 신사 맑음: 친구 김복현(金福鉉)의 부친께서 양미(糧米)와 의복을 가져 오셨음.
- 3월 25일 병진 맑음: …(생략)… 박은용(朴殷容), 박문용(朴文容) 두 친구의 부친이 과량미(課糧米) 한 짝을 신고 와서 옷을 주고 본교에서 자고 갔음.
- 4월 2일 임술 맑음: …(생략)… 하지홍의 집에서 과량미(課糧米) 10여말과 남초(南草) 1동을 실어왔다고 함.
- 6월 2일 신유 맑음: …(생략)… 친구 김복현(金福鉉) 부친이 쌀과 감귤을 신고 오심. 친구 조태형(趙台衡)이 백미를 신고 옴. 친구 신현수(申鉉秀)가 백미를 신고 옴.

용인명륜학교의 강학은 용인향교의 명륜당에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대부분 용인향교에서 기숙하면서 수학하였다. 다음에서 보듯이 봄과 여름철에 갈아 옷을 챙기러 본집에 돌아갔다는 기사가 빈번히 보인다.

---

38) 1908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인과 양지는 수원군에 편입되었다. 이 보도기사에서 명륜학교의 소재를 ‘수원군’이라 표기한 것은 그 때문이라고 본다.

- 3월 25일 병진 맑음: 성재 어른이 본집에 가심. 어제 친구 이길선(李吉善)이 제사가 있어 본집에 감. 친구 이철규(李喆圭)가 봄옷을 새로 입고자 본집으로 감. 친구 김홍배(金鴻培) 역시 봄옷을 입으러 광주(廣州) 산운(山雲)에 감. 오늘 길선, 철규 두 친구가 돌아옴.

학생들은 주로 기흥(器興)·수지(水枝)·모현(慕賢)·용인(龍仁)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수원(水原)·광주(廣州)·양지(陽智) 등지에서도 입교하였다. 일기에 거론된 학생은 대략 40명 정도이다. 연령은 대략 20세 전후가 가장 많았고, 하마비(下馬碑)에 사는 박복흥(朴福興) 같은 학동(學童)과 정관빈(鄭官賓)처럼 기혼자(既婚者)도 있었다. 일기에 기록된 학생들의 이름만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김동규(金東圭), 김동설(金東說), 김복현(金福鉉), 김비학(金丕學), 김정현(金正鉉), 김지덕(金智德), 김홍배(金鴻培), 김홍제(金弘濟), 김화영(金夏榮), 맹이술(孟頤述), 맹호술(孟灑述), 박문용(朴文容), 박복흥(朴福興), 박은용(朴殷容), 송시순(宋時純), 양증(昂曾), 이기상(李起祥), 이길선(李吉善), 이민귀(李敏貴), 이은식(李殷植), 이의선(李義善), 이철규(李喆圭), 이철수(李喆洙), 이철수(李喆秀), 이철의(李喆議), 이철혁(李喆赫), 이희철(李喜哲), 정관빈(鄭官賓), 정덕용(鄭德鎔), 정우용(鄭禹鎔), 조창복(趙昌福), 조태형(趙台衡), 최도균(崔道均), 최병균(崔秉均), 최영보(崔永甫), 최영부(崔泳溥), 홍범화(洪範華),

### 3) 『용인명륜학교일기』의 내용

『용인명륜학교일기』는 용인의 유생 이용건이 광무 11년 정미(1907) 2월 1일부터 동년 7월 2일까지 만 5개월 2일간 기록한 일기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음력으로 월 일·간지·날씨를 기록하고, 명륜학교 내외의 일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기록할 사항이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별다른 일이 없었음[終日無事]’으로 기록하였다. 명륜학교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보일 정도로 대부분이 명륜학교와 관련된 기사이다. 이용건의 이력을 추적하고자 일일이 검색해보았지만 5월 23일자 일기에서 “고모부 대상(大喪)이라

내중 백남성(白南星)의 집에 갔다가 저물게 도착하였다.”는 기록만 발견했을 정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용건은 명륜학교의 학생이면서 학교의 일을 보좌하였던 인물로 추정된다. 일기를 쓴 기간을 그가 명륜학교에 기숙하면서 학교 일을 보좌하였던 기간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용인명륜학교일기』의 내용은 크게 명륜학교 관련 인물의 신변잡기, 1907년 상반기의 사회상, 작문으로 구분해 정리할 수 있다.

### 명륜학교 관련 인물의 신변잡기

『용인명륜학교일기』에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은 성재 김학조이다. 학교의 재정적 지원 뿐 만아니라, 강회(講會), 야유회(野遊會), 애경사(哀慶事) 등에 참여하여 독려하는 정황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다. 교장 이도재의 근황, 교사 맹보순의 내왕과 교외 활동이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출입과 신변사를 소략하게 기록하였다.

### 1907년 상반기의 사회상

『용인명륜학교일기』에서 주목되는 기사는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예민한 반응과 용인 지역민의 활동상황, 면암 최익현 순절, 한일협약에 대한 반대 성토와 매국 칠적에 대한 규탄 내용 등이다. 다음 일기에서 보듯이 용인명륜학교에서는 1907년 2월 11일 국채보상운동의 일을 통보 받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 4월 10일까지 모금 활동을 벌였다.<sup>39)</sup>

면암 최익현의 장례식에 참여한 것은 어떤 사람의 행차에 선생과 학생 2명이 동행한 것이다. 직접 통보를 받지 않고도 자진해서 동참하는 애국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안성 결사회의 통문을 접수했다는 기사는 이 당시 지역사회의 사회참여 활동상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이다.

○ 3월 27일 무오 맑음: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거취를 물으니 면암선생(勉菴先生)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노성(魯城)에 간다고 하였음…(생략)…다음 날 노성에 갈 때

39) 이에 대해선 김태근의 논문에 자세히 언급되었다.

박문용(朴文容), 송시순(宋時純) 두 친구가 배행하고 함께 가기로 함.

- 6월 15일 갑술 맑음: …(생략)…저녁을 먹고 난 후에 안성(安城) 결사회(決死會) 통문이  
마지막으로 본교에 도착함.

### 작문(作文)

작문 문제는 문학(文學) 과목에서 제시한 과제로 생각되며, 작문 문제의 답안은 우수하다고 평가된 것을 일기를 쓴 이용건이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 우리의 학문이 변함이 없는가>라는 문항 옆에 작은 글씨로 쓴 “자평(子平)이 김이상(金履祥) 허백운(許白雲)을 대신하여 지었다.”라는 첨기가 있는데, 이를 증빙한다.

『용인명륜학교일기』에 정리된 문항은 다음에서 보듯이 31개 항목이다.

- 마음은 몸의 주재(主宰)이며, 만사의 근본으로 혼매(昏昧)하고 요잡(擾雜)하면 일신의 주인이 없고, 만사의 강상이 없어지니 어떻게 공부하면 혼요(昏擾)의 즐거움을 없앨 수 있겠는가.[心者一身之主宰 萬事之根本 而昏昧擾雜 則一身無主 萬事無綱 用何工夫 而能無昏擾之樂耶]
- 흐르는 물은 어찌 썩지 않는가.[流水何以不腐]
- “모독하면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말한 것인가.[瀆則不告 何謂則不告也]
- 밭(勃)에 부조(浮躁)와 천로(淺露) 같은 사람이 어찌 벼슬과 녹봉을 누리리요. [勃等浮躁 淺露 豈享爵祿之器耶]
- 홀로 있음을 삼가함에 대해 논함.[慎獨齋論]
- 어찌 강남이 약하다고 해서 방촌의 칼이 없겠는가.[豈以江南寡弱 無方寸之刃乎]
- 진왕(秦王)에게 부(缶)를 치도록 청한 것을 논함[請秦王擊缶論]
- 오곡이 익지 않은 것은 제패만 못하다.[五穀不熟 不如菑穉]
- 배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키고 땀나무를 문에 쌓아둠.[鑿舟沈之積薪于門]
- 세 번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음.[三過其門而不入]
- 기복론[起復論]
- “무릇 천하에 노쇠하고 지쳐 늙은 자, 병든 자, 외롭고 서러운 고아, 홀아비, 과부가

있는데 모두 내 형제와 연관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소연할 데가 없다.”를 논함.[凡天下之疲癯 殘疾 惇獨寡 皆吾兄弟之顛連 而無告者也 論]

- “진(秦)나라를 섬멸하고자 함은 하나인데 형경(荊卿)은 ‘도(盜)’라 말하고, 자방(子房)은 ‘한인(韓人)’이라 말함은 어째서인가.”를 논함.[欲殲秦一也 荊卿曰 盜 子房曰 韓人 何也 論]
- 나와 함께 요치(淖齒)를 베고자 하는 자는 오른쪽 소매를 걷어라.[欲我與 誅齒者 袒右]
- 활짝 핀 화원의 꽃이 일찍 피면 도리어 먼저 화원을 시들게 한다.[灼灼園中花 早發 還先萎 苑]
- 대장(大匠)을 대신하여 깎는데 손을 다치지 않기를 바람.[代大匠斲 希不傷手]
- 의로운 도끼[義斧]
- 오래도록 공경함[久而敬之]
- 왕이 마음을 고치기를 날마다 바라다 [王庶幾改之 日望之]
- 나무가 넘어가면 너의 집이 없어진다.[木顛 無爾屋]
- 십년간 선비를 양성해서 그 쓰임은 하루에 있다.[十年養士 其用在於一日]
- 오로(五路)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도 작은 연못에 앉아서 물고기만 보다.[聞五路兵起 坐小池觀魚]
- 돈을 좋아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不愛錢 不惜死]
- 동짓날에 관문을 닫음[至日閉關]
- 어찌 우리의 학문이 변함이 없는가.[豈吾之學 無以變]
-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몸을 가지런히 경계하고 목욕하면 상제에 제사할 수 있다.[雖有惡人 齊戒沐浴 則可以祀上帝]
- 진(秦)나라 구관조(九官鳥)를 조문함[弔秦吉了]
- 하늘이 낸 장부(丈夫)가 어찌 우연이리오.[天生丈夫 豈偶然哉]
- 다시 눈을 뜨고 문인들에게 말함.[更開眼 語門人]
- 단발(斷髮)을 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에 대해 논함[斷髮可與不可論]
- 불가론[不可論]

작문문제의 전거는 유학의 기본서인 『성학십도(聖學十圖)』, 『맹자(孟子)』, 『주역(周

易), 『소학(小學)], 『근사록(近思錄)』외에도 『삼국지(三國志)], 『송사(宋史)』 등이 있다. 유학의 기본서에서는 수양론(修養論)·절의론(節義論)·경세론(經世論)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삼국지(三國志)], 『송사(宋史)』 등에서는 우국충정을 함양하고 독려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발령의 불가함을 다룬 글에서는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서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일기 뒷부분에는 <충군가(忠君歌)> <효친가(孝親歌)>(大菴作) <형제가(兄弟歌)>(李吉善作) <효친가(孝親歌)>(誠齋作) <충군가(忠君歌)>(誠齋作) <용사가(隆師歌)> <신효가(新孝歌)> <충군가(忠君歌)> 등 7편의 가사(歌詞)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가사작품은 애국계몽운동에 중요한 작용을 했음이 분명하다.

#### 4) 『용인명륜학교일기』의 사료적 가치

이 일기가 씌어진 1907년은 일제침략이 더욱 노골화되고, 이에 따른 대사건들이 연속되어 국민여론이 비등하였던 시기이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으며, 헤이그밀사사건, 한일정미칠조약의 체결, 고종황제의 강제퇴위, 군대해산이 있었다. 바론 전년도인 1906년에는 대마도에 억류되었던 최익현이 순절하였다. 단발령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일제에 의한 한국군의 강제 해산 사건은 훗날 항일의병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용인명륜학교일기』는 불과 5개월 2일간의 짧은 기간의 기록이지만, 이 당시의 정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명륜학교 학생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적극 참여하여 용인관내 여러 지역을 순방하며 모금하는 정황을 살필 수 있다. 면암 최익현의 장례를 노성(魯城)에서 치른다는 소식을 접하고, 선생과 학생이 참여하는 정황도 기록되어 있다. 한일정미칠조약에 대해 분노하고 성토했던 용인 유림들의 충정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칠적(七賊)에 대한 규탄을 문장으로 지어서 공유하려는 정황이 담겨져 있다. 비록 용인명륜학교 학생들의 정서를 기록한 일기라는 제한적인 면이 있으나, 이 일기의 기록을 통해 당시 국민감정의 실태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용인명륜학교일기』를 통해서 용인지역의 정신적인 구심체가 명륜학교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교에서 배출한 학생들은 용인지역에서 근대교육의 지도자로 활동하거나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다. 어대선(魚大善)·이영선(李榮善)·김혁(金赫)과 같은 독립운동지사가 바로 명륜학교의 교사인 맹보순의 문하에서 배출된 인물이다.

『용인명륜학교일기』는 근대시기 용인향교의 실태와 용인지역 유학의 면모를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일기를 통해 용인향교의 유학 전통을 명륜학교가 계승했으며, 근대시기 용인유림들의 활동을 살필 수 있다. 명륜학교와 기호학교에서 수학한 정우용이 훗날 용인향교 초대 전교로 부임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전통이 계승되고 있다.



## 용인명륜학교일기(번역문)

이용건(李容鍵)

일 기: 1906년(대한광무 11) 정미(丁未) 2월 일 시(始)

용인명륜학교 일기

○ 2월 1일 임술 맑음: 선생님이 돌아오심. 원근의 학도(學徒)들이 모모를 강학하고, 여러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청강하였음.

○ 2월 2일 계해 맑음: 친구 정덕용(鄭德鎔)이 학교에 찾아왔음.

○ 2월 3일 갑자 맑음:

○ 2월 4일 을축 비와 눈이 섞여 내림. 저녁 무렵<sup>40</sup> 친구 이길선(李吉善)이 본집으로 갔음.

○ 2월 5일 병인 맑음: 이날은 향교 제향날이므로 임원이 모두 모였다. 학교의 여러 생도들도 역시 제향에 참사하였음.

○ 2월 6일 정묘 흐림: 종일 별다른 일이 없었음.

○ 2월 7일 무진 맑음: 친구 이철수(李喆秀)가 양성 승원(升院)에 갔음.

○ 2월 8일 기사 흐림: 수원 능동에 사는 친구 김복현(金福鉉)과 그의 사촌 형제가 학교에 들어옴.

○ 2월 9일 경오 종일 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림. 초목들이 싹틀 기세를 보이고, 새가 나무를 엮어 등지를 트니 바로 사물이 생동하는 때가 되었다.

○ 2월 10일 신미 흐리고 일기가 고르지 못함.

○ 2월 11일 임신 맑음: 나라에서 채무보상의 일로 통보가 와서 재학생 모두 각각 의연금을 내기로 함.

○ 2월 12일 계유: 본교 모든 학생들이 통첩을 지니고 군 경내에 돌아다니며 고지하였다. 나 역시 송시순(宋時純)과 함께 학교 통문을 갖고 서변(西邊) 이현 독정리 이의관

---

40) 원문의 ‘승석(僧夕)’은 승려가 저녁을 먹을 때라는 뜻이다. 전의되어 ‘이른 저녁’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李議官) 집으로부터 죽전 김봉필(金奉弼) 집에 이르렀다. 그의 선생인 주사 박상익(朴相翼)씨 역시 출연금 1원을 내고, 학생 5명이 각각 10전씩을 냈다. 또 현암 최영보(崔永甫) 집에 이르니 형제가 합하여 60전을 냈다. 저녁 무렵에야 손동 이청송(李靑松)씨 집에 이르렀기 때문에 머물러 잤으며, 밤늦도록 주인과 담화하였음.

○ 2월 13일 갑술 맑고 흐림: 아침 후 동막골 오위장 남창원(南昌元)씨 집과 월촌 윤생원 집에서 태정리 안종우(安鍾祐) 집에 도착함. 주인과 안형수(安亨洙), 이석사(李碩士)<sup>41)</sup> 3인이 통문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각각 출연금 10전을 냈다. 또 곡현(曲峴) 이동(梨洞)으로부터 서봉동(栖鳳洞) 윤씨덕에 이르러 점심을 얻어먹은 뒤에 또 그 동리 이참봉(李參奉) 집에 이르렀다. 그의 아드님 이철영(李徹榮) 역시 30전을 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각 10전을 내서 받은 뒤에 곧바로 성복동 이재오(李在五) 집에 이르렀다. 그의 선생인 참봉 이원도(李源道)씨 역시 의연금 10전을 내면서 말하길 “이 돈이 매우 적으나 뜻으로 받아 달라”고 하며, 수없이 칭찬하였다. 뒤에 또 정평(亭坪) 박씨집에 이르렀다. 학생들 여럿이 의연금을 내려하였으나 선생이 부재중이라 생각만하고 내지 못하였다. 내가 여러 차례 강권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해가 저물고자 하여 겨우 본집에 돌아와 잤음.

○ 2월 14일 을해 맑음: 일찍 아침 식사 후에 송시순(宋時純)과 함께 학교에 들어오니, 친구 이철규(李喆圭)와 김복현(金福鉉)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조금 뒤에 친구 김홍배(金鴻培)와 이길선(李吉善)이 또 나갔음.

○ 2월 15일 병자 맑음: 이 날은 정암선생(靜庵先生)의 제향일이므로 학생 여러 친구와 함께 향사에 참여하고자 모두 심곡서원에 들어갔음.

○ 2월 16일 정축 맑음: 이 날은 정암서원에서 강회(講會)하므로 본교의 여러 친구들이 모두 참강(參講)하였음. 친구 이철규(李喆圭), 김홍배(金鴻培)는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하였음.

○ 2월 17일 무인 맑음: 오후에 현암(현암) 최영보(崔永甫)가 의연금 35냥을 가지고

41) 이석사(李碩士): 석사(碩士)는 이름이 아니고 이 당시 학식이 있는 남자를 지칭하는 호칭이다. 생원(生員), 참봉(參奉), 주사(主事), 박사(博士) 등과 같은 호칭임.

학교에 와서 얘기하고 갔음. 친구 이철의(李喆議)가 또 와서 담화하고 갔음. 선생님이 어두울 무렵에 본집에 돌아가셨음.

○ 2월 18일 기묘 흐림: 눈과 비가 섞여 오다가 잠시 그침. 친구 이철혁(李喆赫)과 학교에 들어와서 놀다 갔음.

○ 2월 19일 경진 맑음: 진사(進士) 어른신이 백미 한 짝을 고진가(庫進家)에 실려 보냄. 진사 어른은 아들이 병환으로 인하여 입교할 수 없음을 전함. 양증(昴曾)과 김지덕(金智德) 역시 본집으로 감.

○ 2월 20일 신사 맑음: 친구 김복현(金福鉉)의 부친께서 양미(糧米)와 의복을 가져 오셨음.

○ 2월 21일 임오 맑음: 이 날은 포곡 소운동사숙(巢雲洞私塾)의 학도 박승연(朴昇燃)이 학도들과 의연금 105냥을 본교에 납부하고, 광주에 사는 김창봉(金參奉)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잠시 이야기하고 갔음.

○ 2월 22일 계미 맑음: 아침 후에 마곡(麻谷)에 사는 윤생원(尹生員) 어른신이 와서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가심. 친구 정우용(鄭禹鎔)이 와 있었음. 또 능곡 이겸승(李兼承)의 서찰이 본교에 도착함. 친구 이의선(李義善)이 경성에서 옴. 하마비(下馬碑)에 사는 학동 박복흥(朴福興)이 책씻이를 하고자 송편을 성대하게 차려 와서 본교의 여러 친구들이 모두 잘 먹었음.

○ 2월 23일 갑신 맑음: 동변(東邊) 백현서숙(栢峴書塾)에서 의연금 30냥을 학도 권씨를 시켜 본교에 보내주어 영수함. 학동 윤경동(尹慶童)이 본교에 수학함. 송시순(宋時純)이 근친(覲親)하고자 본집에 감.

○ 2월 24일 을유 맑음: 오늘은 청명절임. 날씨가 온화함. 바로 짐승들이 자미(藝尾)<sup>42)</sup>하는 날이다. 선생님이 누님의 부음(訃音)을 듣고 본댁에 가심. 본교의 제생과 교장이 문후차 능동(菱洞) 이판서(李判書) 집에 갔음.

○ 2월 25일 병술 맑음: 이 날은 한식날이라 친구 정덕용(鄭德鎔), 이철규(李喆圭)와 재종(再從) 이철수(李喆守)가 각기 본집에 감. 또 친구 김복현(金福鉉)과 사촌동생 김정

42) 원문의 '자미(藝尾)'는 부지런히 새끼를 낳음을 뜻한다.

현(金正鉉)이 본가에 감. 나 역시 불참함. 봄바람이 다다른 곳엔 만물이 흥흥(欣欣)하여 기쁜 기색이 있음.

○ 2월 26일 정해 맑음: 성재(誠齋)<sup>43)</sup> 어른께서 지금 참담한 지경을 당하였으므로 친구 김홍배(金鴻培)와 최병균(崔秉均)이 위문차 갈천(葛川)에 갔다가 학교에 들어왔음.

○ 2월 27일 무자 약간 맑음, 약간 흐림: 선생님이 본택에 가셨다가 돌아오셨음. 친구 송시순(宋時純)과 와서 참석함. 저녁때 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림.

○ 2월 28일 기축 흐림: 잠시 비가 내렸다가 잠시 개임. 성재 어른께서 말을 타고 학교에 들어오셨음.

○ 2월 29일 경인 맑음: 친구 정우용(鄭禹鎔)과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음.

○ 2월 30일<sup>44)</sup> 신묘 날이 질게 흐려짐: 선생님이 서원석(徐元錫) 집에 행차하심. 성재 어른이 군수를 방문하심.

○ 3월 1일 임진 종일 큰 비가 내림: 밤까지 그치지 않아서 나도 부득이 입교 하지 못하였음.

○ 3월 2일 계사 개임: 이 날 덕성동(德成洞) 사는 하지흥(河智興)이 수학차 금침(衾枕)과 양식을 본교에 보내음. 남양(南陽) 사는 이해암(李海菴) 어른이 왕림하시어 선생님과 잠시 향사례를 하심. 와서 학교 동료에게 들은즉 고진(庫眞)<sup>45)</sup>이 신병으로 사망하였으며, 매우 참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음.

○ 3월 3일 갑오 아침 비, 오후 맑음: 이 날 향사례와 군자단(君子團) 회의를 행함. 맞진 술과 안주를 장만하고 거문고 비파를 연주하였는데 모든 풍악이 구비되었으며 고요하고 청아함이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하였다. 군수 역시 참석하고 마칠 때 말하기를 “매우 즐거웠다”고 하였다. 날이 저문 뒤에 파하였다. 이날은 마침 상사일(上巳日)이라 또한 강회(講會)를 겸하였다.

○ 3월 4일 을미 맑음: 성재 어른이 본택으로 가심. 오후에 직동(直洞)에 사시는 오호

43) 성재(誠齋): 김학조(金學祖)의 호임. 이 당시 김학조는 갈천에서 거주하였으며, 용인명륜학교의 재정적 후원자였음.

44) 원문에는 ‘그믐[晦日]’으로 기록하였음.

45) 고진(庫眞)은 모현면 능골의 연안이씨 덕으로 출가한 맹보삼의 누이를 지칭함.

연(吳浩然)씨와 모모씨(某某氏)가 거문고로 이별곡을 연주하였다. 선생님은 성학(聖學)을 시켜 술을 사오게 하시고 서로 즐기다가 파하심. 동막곡(東幕谷) 이문백(李文伯)이 학교를 살펴보고자 와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가셨음.

○ 3월 5일 병신 맑음: 종일 별다른 일이 없었음. 선생님이 여러 친구들에게 작정(酌定)하여 작문공부를 하게 하였음.

○ 3월 6일 정유 맑음: 김지덕(金智德)이 출교함. 하지홍(河智泓) 부친이 지나가는 길에 학교에 들어왔다가 가심.

○ 3월 7일 무술 맑음: 선생님이 이기상(李起祥) 집에 가심. 신촌(新村)에 사는 참봉 이태익(李泰翼)씨와 함께 학교에 오셨음.

○ 3월 8일 기해 맑음: 친구 맹호술(孟灑述)과 그의 백씨[兄]가 함께 집으로 돌아감. 농사일에 전념하기 위함이었음.

○ 3월 9일 경자 아침엔 맑음, 낮엔 흐림: 성재 어른이 말을 타고 학교에 오심. 선생님도 말을 타고 지곡(芝谷)에 행차함. 친구 이철규(李喆圭)의 부친이 학교에 들어와서 잠시 담화하고 가심. 어떤 붓장수[筆商]가 와서 먹[墨] 한 동을 팔고 감.

○ 3월 10일 신축 맑음: 친구 이철수(李喆洙)의 부친이 오셔서 말하는 가운데 송사(訟事)가 있었다고 함. 오후에 선생님이 돌아오심. 마곡의 윤석민(尹錫民)씨가 와서 말하기를 “바람도 온화하고 날씨도 따뜻하며 온갖 꽃이 화창합니다. 이같이 좋은 날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라건대 며칠 뒤에 술을 들고 산에 올라 꽃을 관상하고 물가에 가서 고기 잡으며 즐겨 놀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기상(李起祥) 집에서 술과 떡을 성대하게 장만하여 군수와 선생님, 그리고 성재 어른을 청하여서 성대하게 즐김. 잠시 있다가 또 학교의 여러 친구들을 청하여 멋진 안주를 보태어 후하게 접대함. 공주 사는 김일충(金一忠)씨가 제자 한사람을 데리고 와서 입교시키고 유숙한 다음에 상경하였음.

○ 3월 11일 임인 맑음: 성재 어른이 본집에 가심. 박참봉이 와서 선생님을 뵈고 갔음.

○ 3월 12일 계묘 맑음: 친구 정우용(鄭禹鎔)이 본집에 갔다가 돌아옴. 친구 맹치정

(孟致正)이 길을 가다가 잠시 들어왔다가 갔음.

○ 3월 13일 갑진 흐림: 성재 어른이 학교에 오심.

○ 3월 14일 을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큰 비가 내림. 개인 뒤에 경치가 더욱 기이하얏음.

○ 3월 15일 병오 맑음: 이 날은 강독하는 날이므로 곡동(谷洞)의 강학생(講學生)이 모두 모임. 군수 역시 참석하여 청강함. 오후에 김복현(金福鉉), 하지홍(河智泓) 두 친구가 각각 본집으로 나감.

○ 3월 16일 정미 맑음: 친구 이길선(李吉善)이 본집에 감. 오후에 성재 어른이 여러 학생과 함께 기산정(岐山亭)에 올라가 술을 마시고 늦봄의 풍경을 시로 읊으며 즐기다가 어두울 때 파하여 돌아감.

○ 3월 17일 무신 맑음: 심곡(深谷)의 안주사(安主事)<sup>46)</sup> 어른이 오시어 선생님과 담화하시고 가심. 오후에 어떤 노인이 찾아오셨음.

○ 3월 18일 기유 여우비<sup>47)</sup>: 종일 별다른 일이 없었음.

○ 3월 19일 경술 맑음: 진천(鎭川)에 사는 필공(筆工) 최석사(崔碩士)<sup>48)</sup>가 학교에 와서 자고 갔음.

○ 3월 20일 신해 맑음: 친구 이의선(李義善)이 무슨 사건이 있어 곧 상경함. 수원에 사는 이희철(李喜哲)이 학교에 들어와 담화하고 갈천(葛川)으로 갔음.

작문 문제: 마음은 몸의 주재(主宰)이며<sup>49)</sup>, 만사의 근본으로 혼매(昏昧)하고 요잡(擾雜)하면 일신의 주인이 없고, 만사의 강상이 없어지니 어떻게 공부하면 혼요(昏擾)<sup>50)</sup>의 즐거움을 없앨 수 있겠는가.

46) 주사(主事)는 이전에, 벼슬이 없는 남자 이름을 점잖게 대접하여 이르던 호칭임.

47) 원문의 ‘日雨’는 해가 떠 있는데 비가 내림을 뜻함. 곧 여우비가 내림을 말한다.

48) 석사(碩士)는 예전에, 관직(官職)이 없는 선비를 높여 이르던 호칭임.

49) 이이(李瑀)의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제8도 <심학도(心學圖)>에 “마음은 몸의 주재이요(心者一身之主宰)라는 구절이 있다.

50) 혼요(昏擾)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을 뜻함.

마음을 어찌하여 몸의 주재(主宰)이며 만사의 근본이라 말하는가. 거울과 같은 것이니 본래 맑은 사물이나 먼지가 많아서 가려지면 비출 수가 없다. 그런 까닭에 반듯이 먼지를 닦아내야만 밝음을 회복할 수 있다. 만약 마음에 주재함과 근본 됨이 없다면 어찌 혼요에 가려짐을 없앨 수 있으리오. 옛말에 이르기를 “천군(天君)이 태연하면 백체(百體)가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였고,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귀와 눈으로 성색(聲色)을 즐기고자 함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님이 없다. 그런 까닭에 우선 마음을 바로 하여 공부하고, 마음을 헛되어 움직이지 않게 함을 마치 반명(盤銘)<sup>51</sup>에 이른바 악(惡)을 제거하기를 몸을 씻으며 때를 벗기 듯하고, 비록 성색의 아름다움이라도 일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마음과 몸이 오로지 하나가 되고 만사가 문란하지 않게 되며, 맑기가 거울에 먼지를 제거한 것과 같아지나니 어찌 혼요에 가려진 바가 있겠는가.

○ 3월 21일 임자 맑음: 친구 이의선(李義善)의 부친이 오심. 친구 이길선(李吉善)이 그의 재종[6촌]을 대신하여 하마비(下馬碑)에 갔음.

○ 3월 22일 계축 맑음: 오후에 가는 비가 부블부슬 내림. 종일 별일이 없었음.

○ 3월 23일 갑인: 어제 비가 연일되고 개이지 않음. 비가 오락가락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견디기 어렵게 함.

○ 3월 24일 을묘 개임: 친구 이의선(李義善)이 포곡(蒲谷)에 내려오고, 둔전(屯田)에 사는 정국섭(丁國燮)이 찾아옴.

○ 3월 25일 병진 맑음: 성재 어른이 본집에 가심. 어제 친구 이길선(李吉善)이 제사가 있어 본집에 감. 친구 이철규(李喆圭)가 봄옷을 새로 입고자 본집으로 감. 친구 김홍배(金鴻培) 역시 봄옷을 입으러 광주(廣州) 산운(山雲)에 감. 오늘 길선, 철규 두 친구가 돌아옴.

51) 원문의 ‘반명(盤銘)’은 ‘탕왕반명(湯王盤銘)’의 준말로, 중국 은(殷)나라의 탕왕(湯王)이 자신이 쓰는 쟁반에 새긴 글을 뜻한다.

작문 문제: 흐르는 물은 어찌 썩지 않는가.

대개 산이 이지러지지 아니함은 초목이 무성하기 때문이며, 문지도리[戶樞]가 썩먹지 않는 것은 매일같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만약 산에 풀과 나무가 없으면 어찌 이지러지지 않으며, 매일같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문지도리가 썩먹지 않으리오. 그런 까닭에 연못물은 가득해도 흐르지 않아 썩거니와 흐르는 물은 흘러서 쉬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사람의 총명한 정신도 또한 이와 같다. 독서에 먼저 밝은 덕을 익히는 공부를 하여 탕왕(湯王)이 반명(盤銘)처럼 이른바 진실로 날마다 새롭게 한다면, 나날이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동정(動靜)과 어묵(語默) 사이에 부지런히 하여<sup>52)</sup> 잠시라도 끊이지 않는다면 정신이 청명(淸明)하여 물이 썩지 아니함과 같아진다. 그렇지 않으면 청명한 것도 다시 혼미해져서 정신이 사라지고 닫치고 감추어져서 연못물이 썩는 것과 같아진다. 바라건대 우리들은 마음을 기르고 뜻을 길러서 흐르는 물이 썩지 아니하며, 문지도리가 썩먹지 않듯이 하여보세.

홍배(鴻培)가 저물녘에 본교에 도착함. 박은용(朴殷容), 박문용(朴文容) 두 친구의 부친이 과량미(課糧米) 한 짝을 싣고 와서 옷을 주고 본교에서 자고 갔음.

○ 3월 26일 정사 만나절은 맑고, 만나절은 흐림: 박은용(朴殷容), 박문용(朴文容) 두 친구가 술 한 병을 가져와서 여럿이 같이 마심. 오후에 역동(驛洞)에 사는 박사 정좌섭(丁佐燮)이 학교에 들어와 말하길 송사(訟事)의 일로 동헌(東軒)에 들렀다고 함. 저녁 무렵에 붓장사 최석사(崔碩士)가 와서 자고 감.

○ 3월 27일 무오 맑음: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거취를 물으니 면암선생(勉菴先生)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노성(魯城)에 간다고 하였음. 친구 최도균(崔道均)이 수학차 입교하였음. 선생님은 제사가 있기 때문에 본집으로 가심. 다음 날 노성에 갈 때 박문용(朴文容), 송시순(宋時純) 두 친구가 배행하고 함께 가기로 함.

○ 3월 28일 기미 흐림: 오후에 비가 내림. 종일 별다른 일이 없었음.

52) 원문의 ‘勤勤孳孳’는 매우 부지런히 움직임을 뜻한다.



○ 3월 29일 경신 맑음: 오후에 성재 어른이 학교에 오심. 오는 초하루에 신원서숙(新院書塾)에서 강회(講會)하는 일을 상의하려 하셨으나 선생님이 노성에 가신 뒤라서 부득이 이철규(李喆圭), 김복현(金福鉉) 두 친구에게 명하고 보내심.

○ 4월 1일 신유 맑음: 역동(驛洞)에 사는 정진사(丁進士) 어른이 송사가 있어 읍사무소에 가시는 길에 학교에 들리심. 친구 정관빈(鄭官賓)이 상치(喪妻)한 것을 듣고 매우 놀라고 슬퍼하였음.

○ 4월 2일 임술 맑음: 김홍제(金弘濟), 김동규(金東圭), 하지홍(河智泓) 여러 친구가 옷을 갈아입으려 본집에 감. 학교에 있는 여러 친구는 수청동(水淸洞) 정관빈(丁官賓)의 집에 위문하고 돌아감. 하지홍의 집에서 과량미(課糧米) 10여말과 남초(南草)<sup>53)</sup> 1동을 실어왔다고 함.

○ 4월 3일 계해 맑음: 대암(大菴) 어른이 본집에 가심. 종일 별다른 일이 없었음.

○ 4월 4일 갑자 맑음: 진천(鎭川) 백학동(白鶴洞)에 사는 사문(斯文) 한경석(韓景錫)씨가 선생님을 심방하러 학교에 들어옴. 오후에는 현암(玄巖)에 사는 최영보(崔永甫)가 수학차 입교하였으나 마침 선생님이 부재중이라 감. 하지홍(河智泓)이 돌아옴.

○ 4월 5일 을축 맑음: 성재 어른께서 오시어 학교의 여러 학생들과 함께 갈천(葛川)에서 천렵함. 오후에 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종일 개이지 않아서 모두 성재 어른 댁에서 잤음.

○ 4월 6일 병인: 아침엔 비, 오후에 갬. 여러 친구들과 동반하여 학교에 돌아감. 미음(溪陰)에 사는 승지(承旨) 이재운(李載允)씨가 그의 선생 면암(勉菴) 어른 장례로 상경하는 길에 갈천에 들러서 주자영정(朱子影禎)에 참배하고 갔음.

○ 4월 7일 정묘 개입: 친구 김복현(金福鉉)이 본집에 감. 학교의 여러 친구들과 함께 용주사(龍珠寺) 관광차 오후에 복현의 집으로 갔음.

○ 4월 8일 정묘 맑음: 이른 아침에 곧 용주사로 가서 금불상과 근처 경치와 절경을 구경하고 풍월을 한 절구를 지음. 오후에 또 용능(隆陵)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 홍범화(洪範華)를 만남. 그의 갈 길을 물으니 그도 역시 용주사를 간다하여 잠시 회포를

53) 남초(南草)는 담배잎을 지칭함.

품. 또 능동 김복현의 집에 잤음.

○ 4월 9일 기사 맑음: 아침 후에 여러 친구들과 더불어 학교에 돌아온 즉 선생님은 이미 돌아오심. 박문용(朴文容), 송시순(宋時純) 두 친구도 이미 와 있었음.

○ 4월 10일 경오 흐림: 오후에 큰 우레와 비가 오는데 김진사(金進士) 어른이 지곡(芝谷)에 가심. 선생님은 서원석(徐元錫)의 집을 방문하심. 호동(虎洞)에 사는 석사(碩士) 고정현(高鼎鉉)씨가 학교의연금 5원을 가지고 왔으며 비 때문에 유숙하고 이튿날 갔음.

○ 4월 11일 신미 흐림: 대성전이 퇴락하여 본교의 유사(有司) 어른 김교연(金教演)씨가 기술자를 데려와서 기와를 고치었음.

○ 4월 12일 임신 맑음: 오후 강원도 철원에 사는 사문(斯文) 최광열(崔光烈), 성열(成烈) 형제와 더불어 사문 박헌식(朴憲植), 여러 어른신이 오심. 저녁식사 후에 차례로 책 1편을 암송함.

○ 4월 13일 계유 잠시 비가 오다가 잠시 맑음: 이른 아침에 성재 어른이 학교에 오심. 친구 맹치정(孟致正)이 집에 일이 있어서 본집으로 감.

○ 4월 14일 갑술 맑음: 종일 별다른 일이 없었음.

○ 4월 15일 을해 맑음: 이 날은 강회가 있으므로 군수와 모모 여러 사람들이 역시 참석하여 청강함.

작문문제: “모독하면 가르쳐 주지 않는다.”<sup>54)</sup>고 하는데 어찌하여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말한 것인가.

점을 쳐서 가르쳐 주거나 가르쳐 주지 않거나 하는 것은 마음의 정성(精誠)이 어떠한가에 있을 뿐이다. 단지 무당에게 점을 쳐서 맞는 것만이 아니다. 학문에 있어서도 말하면 또한 그러하다. 배우는 자는 마땅히 힘써 노력하고 게을리 하지 않으며 학문을 실천하여야 한다. 가르치는 자도 역시 기뻐하며 열심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만약 방심하고

54) 『주역(周易)』 몽괘(蒙卦)의 괘사(卦辭)의 일부이다. “한 번은 가르쳐 준다. 재 삼함은 모독하는 것이다. 모독한 즉 가르쳐 주지 않는다(初筮告. 再三瀆. 瀆則不告)”

듣는 것을 가볍게 하여 두 번, 세 번 물어본 즉 가르치는 자도 역시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대학』에 이르기를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만약에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책은 책이고, 나는 나일뿐이니 살피지 아니할 수 있는가. 정성이 있으면 쇠와 돌도 꿰뚫을 수 있다고 한다. 바라건대 우리들이 들은 바를 존중하고 아는 바를 행하여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두면 누가 기꺼이 충성으로써 기꺼이 가르쳐 주지 않겠는가.

○ 4월 16일 병자 맑음: 친구 송시순(宋時純)이 의복을 갈아입으려고 본집에 감. 저녁 때 친구 최도균(崔道均) 형제가 갈천(葛川)으로 갔음.

○ 4월 17일 정축 흐림: 금곡(金谷)에 사는 김참봉(金參奉) 어른이 오시어 선생님과 함께 담화하시고 가심. 요즈음 신문에 의하면 각 대신들이 모두 사직소(辭職疏)를 냈다고 함.

○ 4월 18일 무인 비가 내리다가 맑고, 흐리다가 개이고. 혹은 우레가 치고, 일기가 괴상함. 집에 돌아가는 때 길에서 비를 맞고 귀가함.

○ 4월 19일 기묘 흐림: 수복(守僕)<sup>55)</sup>이 학교 돈 25냥을 빌려감.

○ 4월 20일 경진 맑음: 이 날 어떤 붓장사가 와서 분첩 3개를 팔고 감. 보라동(甫羅洞)에 사는 조문형(趙文衡)이 수학차 입고함.

작문문제: 발(勃)에 부조(浮躁)와 천로(淺露) 같은 사람이 어찌 벼슬과 녹봉을 누리리요.<sup>56)</sup> 소학을 논함. 배행검(裴行儉).

어찌 부조(浮躁)와 천로(淺露) 두 사람이 작록을 누릴만한 그릇이 안 되느냐고 말하는

55) 수복(守僕): 조선시대에 묘(廟)·사(社)·능(陵)·원(園)·서원(書院) 등에서 청소하는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56) 『소학(小學)』 제6편 선행(善行)3/ 실경신(實敬信)7. 사지치원(士之致遠)에 나오는 말임. 「士之致遠, 先器識而後文藝. 勃等, 雖有文才, 而浮躁淺露. 豈享爵祿之器耶. 楊子, 沈靜, 應得令長, 餘得令終, 爲幸. 其後, 勃, 溺南海, 照鄰, 投潁水, 賓王, 被誅, 炯, 終盈川令. 皆如儉之言」.

가. 대개 사람들은 부조 천노는 하는 일과 물건마다 어찌 침정(沈靜)<sup>57)</sup>하고 진중(珍重)하겠는가 하며, 또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다. 그러면 비록 재예(才藝)와 문명(文名)이 있다고 해서 작록의 그릇에 무슨 보탬이 되는가. 그러하기 때문에 선비가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도량과 식견을 앞세우고, 글재주는 뒤로 해야 한다. 재주와 덕이 겸비된 뒤에야 작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조와 천로를 침착함[沈]과 안정됨[靜] 둘 사이에서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왕발(王勃)과 노조린(盧照隣) 낙빈왕(駱賓王)은 모두 수령(守命)의 자리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오직 양형(楊炯)은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으므로 수령 정도의 벼슬은 누릴 수 있겠다 하였으니, 배행검(裴行儉)의 말이 천추에 부조(浮躁)가 경계할 바가 되었다고 하겠다.

○ 4월 21일 신사 맑음: 군수 어른이 풍악을 즐기고자 백련사에서 놀기로 정하고 성재 어른을 청하였다. 여러 학생 4·5인이 함께 행차함. 친구 송시순(宋時純)이 돌아옴.

○ 4월 22일 임오 맑음: 성재 어른과 여러 학생이 함께 학교로 돌아왔음.

○ 4월 23일 계미 맑음: 이 날은 곧 윤매음(尹梅陰) 어른의 회갑이므로 학교 전체를 청하였는데 진수성찬으로 후하게 접대하였다. 각자 수운(曄韻)<sup>58)</sup> 한 수를 지음.

○ 4월 24일 갑신 맑음: 성재 어른이 관련된 일이 있어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심. 이범구(李範九)가 입교하여 선생님을 뵈고 감. 저녁때 하동촌(下東村) 반월리(半月里)에 사는 안형달(安亨達)씨와 송석사(宋碩士)가 와서 자고 갔음.

○ 4월 25일 을유 맑음: 오후에 우레 치며 큰 비가 내림. 우박이 뒤섞여 내렸는데 이는 한 나라의 재앙이다.

작문문제: 홀로 있음을 삼가함[慎獨齋]에 대해 논함.

57) 침정(沈靜): 마음이 가라앉고 조용함.

58) 수운(曄韻): 회갑을 축하하는 시를 말함.

홀로 있음을 삼가고 삼가지 아니함에 군자와 소인이 구분된다고 함은 어떤 이유로 말하는 것인가. 군자는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홀로 아는 때라도 한 가지 마음으로 삼가지 않음이 없으며 스스로 겸손한 자이며, 소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악을 행하고, 드러난 때에는 선을 행하는 척한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며 남을 속이는 것이니 어찌 보탬이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남이 자기를 보기를 폐와 간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말하길, 열개 눈으로 보고 열 손으로 가리킨다고 하였으니 비록 홀로 처하여 알지라도 항상 열개 눈으로 보고 열 손으로 가리키는 때처럼 한다면 어찌 스스로 속이는 폐단이 있겠는가. 성현이라 할지도 생각 없이 미치광이가 되나니 하물며 우리들이야. 터럭 두께의 차이가 천리 멀기와 같으니 가히 삼가지 아니하며 가히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비유하면 풀을 뽑음에 싹과 뿌리를 뽑는 것만 같지 못하고, 물을 막음에 근원을 막는 것 같지 못하다. 선을 행함에 호색을 좋아하듯 하여 더욱 세밀하게 살필 것이며, 악한 일을 없앴을 악취를 미워하듯 하여 싹이 눈뜨기 전에 없애야 한다. 사람이 새의 먹이를 먹지 않음은 물과 불을 밟지 아니함만 못하건만, 악을 마땅히 없애고 선을 마땅히 행해야 함을 알지 못하니 가히 탄식할 이다. 네 가지 그른 것이 오면 큰 도적을 이기려 듯하여 항상 조심하고 삼가하여 자신에게 쾌족하게 하면 덕이 몸에 배고 마음과 몸에 널리 번지리니 홀로 있음을 삼가지 아니하겠는가.

○ 4월 26일 병술 개임: 친구 이범구(李範九)가 학교에 들어옴. 양증(昴曾)이 학교에 들어옴. 대암(大菴)이 본집에 감.

○ 4월 27일 정해 비가 오다가 개임: 종일 별다른 일이 없었음.

○ 4월 28일 무자 맑음: 학교에 들어와 보니 어제 저녁 후에 서원석(徐元錫)이 학생들을 청하여 술과 떡을 대접하였다고 함.

○ 4월 29일 기축 맑음: 이기상(李起祥)의 집에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청하여 술과 떡을 대접하였음.

○ 4월 30일 경인 비: 이 날은 사봉(沙峯)어른을 청하여 수강함.

작문문제: 어찌 강남이 약하다고 해서 방촌의 칼이 없겠는가.<sup>59)</sup>

형정(邢貞)<sup>60)</sup>이 위왕(魏王)의 명으로 오(吳)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오왕(吳王)<sup>61)</sup>이 도정(都亭)에 이르러 맞이하였다. 형정이 국문(國門)<sup>62)</sup>에 들어와서도 수레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거만한 기색이 있거늘, 장소(張昭)<sup>63)</sup>가 형정을 꾸짖어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는 총명하고 웅렬(雄烈)하신 군주이시나 불행히 너의 나라에 몸을 맡기게 되었다. 너는 임금을 공경하는 도를 모르는가. 감히 스스로를 존대하고 불경함이 이 같은가. 네가 대국임을 믿고 그런 것인가. 소국을 업신여기어 그런 것인가. 지금 열 발자국 이내에서는 너의 대국임을 믿지 못할 것이다. 삼가 들어라. 우리나라가 비록 약하다 하나 군사가 백만이 되고, 주(周)나라 땅으로 호랑이를 쏜 활이 있으며, 항우(項羽)를 베었던 칼이 있다. 하물며 방촌(方寸)의 칼이 없겠는가. 옛말에 이르길, ‘임금이 욕을 당하고 신하가 죽는다[主辱死臣]’ 말이 있다. 밖에는 어진 선비들이 있고, 조정에는 총렬스런 신하가 있다. 이처럼 ‘임금이 욕을 당하고 신하가 죽는다’는 목전의 사실을 당하여 어찌 너의 권세를 제어함이 없겠는가. 예(禮)에는 공경하지 않음이 없고, 법에는 행하지 않음이 없다. 예에는 공경함이 옳다. 법은 행함이 옳다. 또한 하늘을 날고 땅속을 들어가는 재주가 없이 일개 조비(曹丕)의 사신이 남의 나라의 임금을 업신여기고서 감히 분에 넘치는 마음이 생기는가. 또한 물리지 않는 욕심에 의지하고 너처럼 무례한 자를 천하의 사람들이 미워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땅속에서라도

59) 삼국지』오서(吳書) 장소전(張昭傳)에 나오는 말이다.

60) 형정(邢貞): 삼국시대 위나라 사람. 태상(太常)과 중위(中尉)를 지내고, 고평후(高平侯)에 봉해졌다. 위문제 황초(黃初) 2년(221) 황명을 받들어 오나라에 가서 손권(孫權)을 대장군(大將軍)에 임명하고 오왕(吳王)에 봉했다. 교만하고 예의가 부족해 장소(張昭)에게 문책을 당하고, 또 오나라 장수 서성(徐盛) 등이 격분하는 것을 보고는 얼굴빛을 고치고 예경(禮敬)했다.

61) 오왕(吳王): 손권(孫權)을 가리킴.

62) 국문(國門): 칠사(七祠)의 하나. 도성 문을 관장하는 신령(神靈)의 제사(祭祀). 또는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지칭함.

63) 장소(張昭): 삼국시대 오나라 팽성(彭城) 사람. 자는 자포(子布). 손책(孫策)이 창업하자 장사(長史)와 무군중랑장(撫軍中郎將)에 올라 큰 신임을 받았다. 손권(孫權)이 사부의 예로 대했다. 황초(黃初) 2년(221) 손권이 위나라에 신하가 되기를 청하자 조비가 형정(邢貞)을 보내 손권을 오왕으로 임명했다. 형정이 오만하여 수레에서 내리지 않자 소리를 질러 꾸짖어 내리게 하였다고 한다.

미워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였다.

서성(徐盛)<sup>64</sup>이 또한 분개함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빗겨 흘렸으니 강동(江東)의 장상(將相)들이 충렬스럽고 절의를 높음을 우리들은 천추에 사모하고 우리를 것이다.

○ 5월 1일 신묘 비가 내리다가 맑음: 성재 어른이 서울로부터 학교에 들어오심.

○ 5월 2일 임진 종일 비:

○ 5월 3일 계사 아침엔 비, 오후에 갸: 전교생이 각각 본집으로 감.

○ 5월 4일 갑오 맑음: 종일 별다른 일이 없음.

○ 5월 5일 을미 아침엔 흐림 오후엔 맑음: 선생님과 성재 어른이 사은정(四隱亭)에 행차하심. 여러 친구들 5·6인 함께 가서 청강함. 어두울 무렵에 돌아갔음.

○ 5월 6일 병신 맑음: 이 날 기산정(岐山亭)에서 친렵하고, 시를 짓고 술 마시며 하루종일 즐김. 군수가 참석하고 젊은이와 어른이 다함께 모임. 저물게 파해서 돌아갔음.

○ 5월 7일 정유 맑음: 오늘은 곧 개교일임. 김화영(金夏榮)이 장원례(壯元禮)로 술과 떡을 잔뜩 차려서 갖고 옴. 마곡(麻谷) 윤사봉(尹沙峯) 어른과 매암(梅岩) 어른 사촌 형제가 함께 오심. 박은용(朴殷容) 4촌 형제가 본집에서 학교로 들어옴.

작문문제: 진왕(秦王)에게 부(缶)를 치도록 청한 것을 논함

큰 것으로 작은 것을 능멸하는 것은 이치에 마땅한 것이며, 임금이 욕되면 신하가 죽는 것은 의(義)에 마땅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진왕(秦王)이 조왕(趙王)을 멸시하고 65) 민지(澠池)에서 베푼 회맹연(會盟宴)에서 조왕에게 비파를 타도록 청하니, 왕이 연주

64) 서성(徐盛): 오나라 장수. 『삼국지』오서(吳書) 서성전(徐盛傳)에 의하면, 손권이 오왕이 되자 그를 건무장군(建武將軍)에 임명하고 도정후(都亭侯)로 봉했다. 후에 안동장군(安東將軍)으로 바뀌고 무호후(蕪湖侯)에 봉해졌다.

65) 민지회(澠池之會): 진왕(秦王)이 조(趙)나라를 치고 하남성 민지(澠池)에서 베푼 회맹연(會盟宴)을 말함. 이 자리에서 인상여(蔣相如)는 아주 현란하고 능숙한 달변으로 진왕과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논쟁을 벌여, 조나라 왕이 굴욕당하는 것을 면하게 했음.

하였다. 인상여(蔣相如)는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진왕에게 부(缶)를 치도록 청하였다. 진왕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좌우 신하들이 그를 찌르려 하였다. 상여는 머릿발을 세우고 담력을 발휘하여 눈을 크게 뜨고 크게 꾸짖어 말하였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보배와 구슬을 왕이 감히 망령스럽게 욕심내어 15성(城)과 바꾸기를 청하였기에, 보배와 구슬을 가지고 성에 이르렀는데 보배와 구슬만 빼앗고 성을 주지 않았다. 이는 사람을 속여 물건을 빼앗은 것이며, 강하다 하여 약한 나라를 능멸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처럼 우리 임금에게 무례할 수 있는가. 진(秦)나라도 만승지국(萬乘之國)이요. 조(趙)나라도 만승지국이니, 이로써 보면 어찌 진나라에게 손해를 보게 하겠는가. 지금 왕께서 우리 왕에게 놀기를 청하였으니, 손님과 주인의 예로써 공경함이 옳을 것이다. 우리 임금이 비파를 연주한다면 왕은 부를 연주하는 것이 예에 마땅한 일이니 왕은 사양하지 마십시오. 왕께서 만약에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상여(相如) 비록 노둔하나 사나운 호랑이 빙하(憑河)의 용기<sup>66)</sup>가 있으니 다섯 걸음 안에서는 진나라의 무리를 믿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살피소서.”하였다.

사람으로 신하가 된 자가 임금이 치욕을 당함을 보고 어찌 한갓 우연이라고만 하겠는가. 죽음 또한 피할 수가 없다. 하물며 정괘(鼎鑊)의 두려움이 앞에 있고, 도검(刀劍)이 뒤에 있음에랴. 진왕이 비록 기쁘지 않으나 부득이 부를 치고 두 나라의 임금이 술자리를 파하였다. 진나라는 끝내 조나라에게 군사를 가하지 않았다. 상여의 울부짖음과 맹렬한 용기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 몸을 엄파(廉頗)에게 굽혀 서열을 다투지 않은 것에서 또한 공적인 것을 우선하고 사적인 것을 뒤로 했음을 볼 수 있다.

오후 덕동(德洞)에 사는 이민귀(李敏貴)가 수학차 학교에 들어옴.

○ 5월 8일 무술 맑음: 현암(玄巖) 최영부(崔泳溥) 역시 수학차 학교에 들어옴. 오후에 지곡(芝谷) 사는 이은직(李殷植)이 수학차 학교에 들어옴. 선생님은 교장 이도재(李道宰)씨 문후차 나귀를 타고 능곡(菱谷)에 행차하심.

66) 빙하(憑河): 황하(黃河)를 맨발로 건넌다는 뜻으로 위험한 행동이나 무모한 용기를 비유한 말.



오곡이 익지 않은 것은 제패만 못하다.<sup>67)</sup>

맹자가 논하기를 “백곡 중에 오곡이 가장 맛있고 좋으며 또 백성의 식량으로 생산되는 것이 어찌 제패(莠稗)만 같지 못하겠는가. 비록 가장 맛있는 것은 다만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 고 말한 것은 어째서 인가. 천시(天時)가 화합하고 비와 이슬이 고루며, 밭에서 일하며 농사에 힘써서 익어야 펼쳐지는 것이다. 만약 불행히도 천시가 화합되지 못하고, 비와 이슬이 고르지 못하며, 무성한 잡초를 뽑지 못하여 익지 않으면 오히려 제패가 익은 것만도 못하다. 어찌 곡식의 속성이겠는가. 다만 사람이 힘을 썼는가, 힘쓰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옥(玉)에 비유한다면 비록 보배라 할지라도 반드시 쪼고 연마한 뒤에 빛이 날 수 있는 것이다. 가래나무가 좋은 재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르고 다듬은 뒤에야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옥을 쪼고 연마하지 않는다면 기와돌과 다름이 없다. 가래나무를 자르고 다듬지 않는다면 다른 나무와 다를 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인(仁)이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학문이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음의 결과라고 말하여도 역시 그러하다.

대개 우리들의 배우는 바는 공자와 맹자가 서로 전한 법심(法心)이다. 또한 하늘에서 얻어 본래 밝은 것이다. 백가(百家)의 여러 무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찌 단지 아름다우나 익지 않은 것만을 믿어서인가. 우(禹)임금 같은 성현도 촌음을 다투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중용』에 이르기를 군자는 배우지 않았다 해도 이미 배웠다고 하니, 반드시 그 완성함이 있어야 한다. 또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능한 것도 이미 백번을 한다고 하였다. 이같은 마음을 밀고나가서 힘쓰며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마치 반명(盤銘)<sup>68)</sup>에 이른 바 진실로 날로 새롭게 하고, 나날이 새롭게 하며. 또 새롭게 하여 잠시라도 끊이지 않게 한 뒤에야 참으로 성공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산을 만듬에 있어 아홉 번 공을 들였어도 한 삼태기에 어그러지는 것과 같다. 길을 가는데 반쯤 가다가 그만둔

67) 『맹자(孟子)』 『고자장구상(告子章句上)』에 나오는 말임.

68) 반명(盤銘): 탕왕(湯王)이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하여 소반에 글씨를 새겨놓았다고 함.

다면 일찍이 다른 길을 가서 마치는 것만 못하다. 또한 오곡이 익지 않은 것은 제패가 익은 것만 못하다. 전에 세운 공이 애석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어찌 도움이 있는가.

○ 5월 9일 기해 맑음: 선생님이 돌아오심. 친구 최도균(崔道均) 형제가 입교함.

배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키고 땔나무를 문에 쌓아둠. 유기(劉錡)

전쟁은 사지(死地)이다. 나라의 승패와 존망의 기회가 달려 있는 것이다. 예전에 병법(兵法)에 이르길, “사지(死地)에 빠진 뒤에야 살고, 망지(亡地)에 설치한 뒤에야 살아남는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가볍게 보는 자는 비록 사마양저(司馬穰苴)<sup>69)</sup>의 용맹이 있다 해도 반듯이 죽는다. 이로써 거록(鉅鹿)<sup>70)</sup>의 전투에서 항자(項籍)<sup>71)</sup>는 배를 침몰시키고 술단지(沈船破釜)를 깨부셨으며 3일간의 식량만 가지고 병졸에게 필사의 뜻을 보였다. 그런 뒤에야 막강한 진(秦)나라의 무리를 쳐부수고 위엄을 천하에 떨쳤다. 한신(韓信)은 배수진을 치고 조(趙)나라 군사를 쳐부수고 마침내 큰 공을 이루었다. 이로써 보면, 결사적으로 싸우고 나서야 산다. 유기(劉錡)<sup>72)</sup>는 비록 두 사람의 용기와 같지 않으나 국가의 중대한 임무를 담당하였다. 금노(金奴)가 요란할 때 어찌 분발하지 않았겠는가. 또 순창성(順昌城)에 양식을 넉넉히 하여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땅이었다. 배를 뚫어 침몰시키고, 문에 땔나무를 쌓아서 두 사람이 술단지를 깨부수고 배수진을 편 연후에 결사적으로 싸워서 독목(禿木)의 머리를 베고, 휘하 군사를 치하하였으며, 휘종(徽宗) 흠종(欽宗) 두 임금의 도타운 은혜를 갚고, 이름을 죽백(竹帛)에 드리웠으니<sup>73)</sup> 또한 능멸하지 않으리라. 빼앗아 불리함이 있으면 내 집을 불사르고, 적의

69) 사마양저(司馬穰苴): 제(齊)나라 경공(景公)을 섬긴 장군. 병서인 『사마법(司馬法)』을 저술함.

70) 거록지전(鉅鹿之戰): 항우(項羽)가 배수진을 쳐서 군사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고 일거에 장한이 지휘하던 진나라 진압군을 격멸한 전투.

71) 항자(項籍): 항우(項羽)의 다른 이름.

72) 침선과부(沈船破釜): “배를 침몰시키고 술단지를 깨다.”라는 뜻으로 배수진의 방법을 말함. 과부침주(破釜沈舟)의 전략.

73) 유기(劉錡): 송(宋)나라의 장수로 수하의 군사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적을 만나면 반드시 승리하였음.

74) 죽백(竹帛)은 죽간(竹簡)과 포백(布帛)을 합친 말로, 어떤 훌륭한 일을 하여 이름을 후세에 영원히

손에 치욕을 받지 아니하니 어찌 대장부의 일이 아니리오.

○ 5월 10일 경오 맑음: 오후에 친구 이범구(李範九)가 본집에 감.

세 번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음.<sup>75)</sup>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만약 대성(大聖) 우(禹)임금이 그 집 문을 세 번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으니 어째서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세 번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대략 천하를 위하고 집을 돌보지 않은 때문이다. 홍수가 하늘에 차고 넘치며 회산양릉(懷山襄陵)<sup>76)</sup>때를 당하여 금수와 사룡(蛇龍)의 해가 날로 심해졌다. 만민의 생사 운명이 또한 조석간에 달렸다. 홍수의 근심이 이처럼 위급한데 어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었으리. 만약 나라가 없어진 뒤라면 위로는 군부(君父)의 목숨을 구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만민의 목숨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치수(治水)하여 완성했다고 해도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모가 있으나 방해받지 않고 나라를 우선으로 하고 가정을 뒤로 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임금이 치수하는 8년간은 세 번씩이나 그 집 문을 지나며 울음소리를 듣고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매일같이 부지런히 힘써서 구천(九川)의 물을 사해로 흘러가게 하였다. 우임금의 노력이 이같이 어려운 뒤에야 사람들이 평지를 얻어 살 수 있었으니 비록 백 번 그 집 문을 지난다 해도 들어갔겠는가. 이로써 보건대 덕이 만방에 끼친 공적은 백세를 덮을 것이다.

○ 5월 11일 신축 맑음: 이른 아침에 어대선(魚大善)씨가 선생님을 내방함. 오후에 전 선생님이신 이생원(李生員) 어른이 오심. 죽산 좌전에 사는 신현봉(申鉉鳳)과 현수(鉉秀) 삼중형제가 수학차 입교함. 양지 대대(大垓)에 사는 김동설(金東說)과 아이 조창복

남김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75) 『맹자(孟子)』 <이루장, 하(離婁下)>에 나오는 말임.

76) 회산양릉(懷山襄陵): 도도한 홍수가 산릉을 에워싸고 삼킬 듯이 넘실거리는 것을 말한다.

(趙昌福)이 본교에서 수학함.

○ 5월 12일 임인 맑음: 쇠현(鈞峴)에 사는 학빈 이도사(李都事) 어른이 오셨다가 잠시 뒤에 원천(遠川) 사위집으로 행차하심.

○ 5월 13일 계묘 반나절은 흐리고 반나절은 맑음: 이도사(李都事) 어른이 원천으로부터 오심.

○ 5월 14일 갑진 맑음: 친구 김홍배(金鴻培) 부친이 오심.

○ 5월 15일 을사 맑음: 이 날은 망강(望講)이므로 서로 읍례를 행한 후에 차례대로 1편을 암송함. 망강을 파한 뒤에 환성자(還省者)가 5·6인 이었음.

○ 5월 16일 병오 맑음: 이도사(李都事) 어른이 본택으로 가심. 오후에 선생님과 성재 어른이 김하영(金夏榮) 집에 행차하시어 문병하고 돌아가심.

○ 5월 17일 정미 맑음: 홍배(鴻培) 부친이 본택으로 가심. 김동설(金東說)이 병으로 인하여 본집에 감.

○ 5월 18일 무신<sup>77)</sup> 맑음

○ 5월 19일 기유 맑음: 들으니 머리를 단발한다는 소문이 자자함.

○ 5월 20일 경술 아침엔 흐리고 오후엔 맑: 친구 이범구(李範九)가 와서 독서함.

○ 5월 21일 신해 아침엔 흐리고 늦게 비 내림: 가히 풍년들 징조임.

○ 5월 22일 임자 흐림: 친구 맹이술(孟頤述)이 입교함.

기복론(起復論)<sup>78)</sup>

친상(親喪)의 고통<sup>79)</sup>은 오래갈수록 더욱더 슬퍼진다. 그러기에 삼년상(三年喪)을 입는 것이 천하의 통상(通常)이다. 임금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 참여 하는 것은

77) 원문에는 ‘무인(戊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신(戊申)’의 오류이다. 이하 6월 25일까지 간지(干支)가 밀려서 잘못 기록되어 있다. 번역문에서는 바로잡아서 적는다.

78) 기복(起復): 부모의 상중(喪中)에 벼슬자리에 나아감.

79) 원문의 ‘창거통심(創鉅痛深)’은 “상처가 커서 그 아픔이 아주 크다.”는 뜻이며, 바로 친상(親喪)의 고통을 뜻하는 말이다.

천도(天道)로써 정한 것이고, 인정(人情)인 것이다. 예(禮) 가운데 중대한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어찌 소홀히 할 수 있는가. 비록 “아들이 출생한 지 삼년이면 부모의 품을 벗어난다.”<sup>80)</sup>고 말하지만, 만에 하나 은혜를 갚고자 하는데 어찌 삼년이 특별한가.

기복(起復)하여 공직을 행함에 삼년상 전에는 임금의 명이 있더라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기에 만약 태평스럽고 별일이 없는 때라면 군자는 감히 탈정(奪情)<sup>81)</sup>한다. 만약에 전쟁<sup>82)</sup>으로 피할 수 없는 때이며,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면 피할 수가 없는 때라면 부득이 정을 억제하고 업무에 돌아가 상복(喪服)<sup>83)</sup>을 입고 일을 다스릴 경우 매곶(靺鞨)<sup>84)</sup>에 권(權)하게 함은 부당하고, 금보(金寶)의 장식은 예(禮)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백금(伯禽)<sup>85)</sup>이 서용(徐戎)을 정벌한 것은 부득이 기복(起復)하여 공직을 행한 것이다. 왕의 위급함에 미쳐 기복하지 않고 공직을 행함에 반드시 백금처럼 하여야 가당한 것이다.

오호라. 지금 임금은 저마(苴麻)<sup>86)</sup>의 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이처럼 중대한 삼년상에 이(利)를 쫓는 자들은 편히 먹고, 비단옷을 입었다고 한다. 이는 국가의 위급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니 가히 탄식할 노릇이다.

“무릇 천하에 노쇠하고 지쳐 늙은 자, 병든 자, 외롭고 서러운 고아, 홀아비, 과부가 있는데 모두 내 형제와 연관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소연할 데가 없다.”<sup>87)</sup>를 논함.

모든 사람과 사물은 건양(乾陽), 곤음(坤陰)의 기를 얻어 몸이 되며, 또 건건(乾健),

80) 『논어(論語)』 『陽貨』 第10에 나오는 구절이다.

81) 탈정(奪情): 복(服)을 벗게 함으로써 돌아간 부모에 대한 정(情)을 빼앗는다는 뜻으로, ‘부모 상중인 사람에게 출사(出仕)를 명함’을 이르는 말.

82) 원문의 금혁(金革)은 전투할 때 쓰이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전의되어 ‘전쟁’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83) 원문의 ‘묵취(墨纒)’는 ‘검은 상복’을 뜻한다.

84) 매곶(靺鞨): 붉은 슬갑의 군복(軍服)을 말함.

85) 백금(伯禽): 노(魯)나라 주공(周公)의 아들로 상중(喪中)에 출정하였다.

86) 저마(苴麻)는 상복을 짓는 재료인데 전의되어 상중(상중)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87) 『성학십도(聖學十圖)』 『서명(西銘)』에 나오는 말임.

곤순(坤順)의 뜻을 얻어 성품이 된다. 그런 까닭에 이(理)로써 말하자면 건곤(乾坤)이 나의 부모요. 만민이 나의 동포이며, 만물이 나의 동료이다. 제왕은 부모의 으뜸이다. 또 구분해 말한다면 만물의 생물에서 오로지 사람이 가장 신령하고 또 총명하며, 사단(四端)을 갖추고 만선(萬善)을 구비한 자이다. 그러나 각각 어버이는 그 어버이요. 각각 아들은 그 아들로 다르다. 이로써 보건대, 이(理)는 하나이나 달리 나뉘진다. 이(理)의 마땅한 것을 어찌 나뉘져서 다르다고 불평할 것인가.

나의 동포형제 가운데 노쇠한 자, 병든 자, 고아, 홀아비, 과부 등 네 부류와 연관되어 있으나 하소연 할 데가 없는 자는 천하의 궁핍한 백성이다. 문왕(文王)이 정치를 행하고 인(仁)을 베풀어 먼저 이 네 부류를 구휼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며, 좋아하는 바를 서로 즐기고, 악한 바를 서로 미워하여 거동을 친형제와 같이 다름이 없게 하였으며, 이 궁핍한 백성들로 하여금 즐기는 바 있게 하였다. 그리고 강함을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는 폐단을 없게 하였으니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진(秦)나라를 섬멸하고자 함은 하나인데 형경(荊卿)<sup>88</sup>은 ‘도(盜)’라 말하고, 자방(子房)<sup>89</sup>은 ‘한인(韓人)’이라 말함은 어째서인가.”를 논함.

일단 원수를 갚은 것으로 말한다면 당시 두 사람은 각기 진(秦)나라를 섬멸하려 함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의(大義)로 말한다면 원수에 크고 작아 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어째서인가. 비유한다면 조말(曹沫)<sup>90</sup>은 나라를 위해 원수를 갚고자 제(齊)나라 환공(桓公)을 협박하였다. 예양(豫讓)<sup>91</sup>은 원수를 갚고자 조(趙)나라 양자(襄子)<sup>92</sup>

88) 형경(荊卿): 봉래 이름은 형기(荊軻). 중국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자객으로 진시황(秦始皇)을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침.

89) 자방(子房): 한나라 장량(張良)의 자(字).

90) 조말(曹沫):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장수. 노나라와 제(齊)나라가 여러 차례 전쟁하였으나 항상 노나라가 졌는데, 조말도 세 번 패배를 당하여 그 원한을 풀 기회를 엿보다가 제와 노 두 임금의 강화하기 위해 기(柯)라는 곳에서 회합할 때, 조말이 노나라 임금을 모시고 가 제나라 임금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칼을 들이대고, 빼앗아간 땅을 도로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91) 예양(豫讓): 전국시대(戰國時代) 진(晉)나라 의사(義士).

92) 조양자(趙襄子): 전국시대 초기 조(趙)나라의 제후.

를 죽이려 하였다. 이는 원수의 큰 것이다. 섭정(聶政)<sup>93</sup>과 점리(漸離)<sup>94</sup>는 단지 호협한 기운으로 사사로운 은혜에 매수되어 타인의 원수를 갚았으니 이는 원수의 작은 것이다. 형경(荊卿)은 일개 사사로운 원한으로 비수(匕首)를 독항도(督亢圖)에 숨겼으며<sup>95</sup>, 번오기(樊於期)<sup>96</sup>의 목을 얻어 함에 담은 뒤에 진시황을 찌르고자 하였다가 도리어 해를 입게 되었다. 그 일을 논한다면 섭정(聶政) 점리(漸離)의 유형으로, 실로 강도가 할 짓이다. 자방(子房)은 5대째 재상으로 한(韓)나라의 교목세가(喬木世家)<sup>97</sup>이다. 통분을 이기지 못하고 원수를 갚고 나라를 회복하고자 죽은 아우를 장사 지내지 아니하였으며 창하(滄河)의 장사[力士]를 얻어 박랑(博浪)<sup>98</sup> 모래밭에서 영황송(嬴皇松)을 저격하였다. 그 일을 논한다면 조말(曹沫)과 예양(豫良)의 유형이다. 해와 달처럼 충성되고 역사에 가장 큰 의(義)이다. 제(齊)나라 양공(襄公)이 9세의 원수를 회복하였음은 역사에서 크게 여긴다. 비록 “진(秦)나라를 섬멸하고자 함은 하나인데 ‘도(盜)’라 말하고, ‘한인(韓人)’이라고 말함은 영황송(嬴皇松)만이 이를 알 것이리라.

나와 함께 요치(淖齒)<sup>99</sup>를 베고자 하는 자는 오른쪽 소매를 걷어라.

“나라가 어지러워진 뒤에 어진 재상을 생각하고, 집이 가난해진 뒤에야 어진 아내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만약 나라가 어지럽고 어진 재상이 없으면 그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진다. 집이 가난하고 어진 아내가 없다면 그 집은 더욱 가난해진다. 그런 까닭에 민왕(湣王)의 일로써 말하는데 역시 어진 재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93) 섭정(聶政): 전국시대의 한(韓)나라의 용사. 엄중자(嚴仲子)의 부탁으로 재상 한傀(韓傀)를 죽임.

94) 점리(漸離): 형가(荊軻)의 친구. 그의 원수를 갚으려다 피살됨.

95) 독항도는 연나라의 땅인 독항의 지형을 그린 지도이다. 연나라 태자가 진시황을 죽이려고 자객 형가(荊軻)를 보내며, 신물(信物)로 독항이 땅을 바치겠다고 지도를 함에 보냈는데, 형가가 지도 속에 감춰놓은 비수로 진시황을 찌르려다가 실패하였다. 진시황은 대노하여 연나라를 쳐서 멸하였다.

96) 번오기(樊於期): 전국시대 말기의 장수. 본래 진(秦)나라의 장군이었는데, 가족들이 모두 사형을 당하자 연(燕)나라로 달아나 연나라 태자(太子)인 단(丹)에게 투항했다.

97) 여러 대에 걸쳐 중요한 벼슬을 지내 나라와 운명을 같이하는 집안.

98) 박랑(博浪): 하남성(河南省) 양무현(陽武縣) 남쪽에 위치한 땅

99) 요치(淖齒): 초나라 장수로, 제나라 민왕(湣王)이 거(莒) 땅으로 달아나자 그를 구원하러 왔다가 살해하였다.

제(齊)나라 전체가 모두 연(燕)나라에 들어가 성중에 머물렀는데 날씨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려 하였다. 밖에는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개이지 않았다. 이는 실로 존망(存亡)의 가을이었다. 요치(淖齒)가 초(楚)나라의 구원 장수로서 귀순하여 신하되었으니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연나라와 그 땅을 나누고자 도리어 임금을 살해하고, 힘줄을 뽑아서 사당 들보에 걸었다. 이는 만고에 짝할 수 없는 대역부도(大逆不道)한 일이다. 같은 하늘에 있을 수 없는 원수이다.

왕손가(王孫賈)<sup>100</sup>가 임금을 잃은 신하로 피눈물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시장에 들어가 크게 외치기를 “춘추의 법에 난신적자(亂臣賊子)<sup>101</sup>는 모두 찾아서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선왕의 깊은 원수를 갚고자 하면 배에 심지를 박아 불을 밝히고, 머리를 바가지로 만들어 마신다고 해도 그 죄가 남을 것이다.”하였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어찌 탄식을 가눌 수 있으랴.

아! 너희 여럿 병사들 가운데 나와 더불어 요치(淖齒)를 목 베고, 너희가 우리 왕의 원수를 갚아 씻어주려 한다면 모두 우측 소매를 걷고 나와라. 이에 기꺼이 따르는 자가 4백여명이 되었다. 마침내 요치를 죽이고 그 살을 쪼개어 선왕의 치욕을 씻고, 왕자 법장(法章)을 옹립하였다. 그런 다음에 상구(桑鳩)의 유허를 회복하였으며, 태공(太公)의 유업을 계승하였다.

오호라. 왕손가의 충성은 신하가 된 자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활짝 핀 화원의 꽃이 일찍 피면 도리어 먼저 화원을 시들게 한다. 노공질(魯公質)

“달이 차면 기울고, 해가 중천에 오르면 곧 이운다.” 이것은 천도(天道)의 자연스런 이치이다. 그런 까닭에 일을 함에 있어 말하여도 또한 그러하다. 어째서인가. 사물 사물 마다 모두 빠르게 성공한 것은 빠르게 실패한다. 늦게 나아가면 오래간다. 화원에 있는 꽃과 시냇가 둔덕의 소나무 두 개를 보면, 화원의 꽃이 일찍 피어서 봄바람에 활짝

100) 왕손가(王孫賈): 춘추시대 위(衛)나라 사람. 영공(靈公) 때 대부(大夫)를 지냄.

101) 난신적자(亂臣賊子):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자를 말함.



피어 불붙은 듯하면, 사람들은 모두 고운 빛깔을 받아 완상한다. 10여일이 지나지 않아 하룻밤 에 비바람이 지나면 뒤집어져 진흙에 깔리게 되고, 완상하는 사람 또한 드물고 우마(牛馬)가 밟고 지난다.

대장(大匠)을 대신하여 깎는데 손을 다치지 않기를 바람. 근사록(近思錄)

대개 천하의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법이다. 각각 기술자가 있어서 이루는 것이다. 그 기술을 익히지 않고 능한 사람을 듣지 못하였다. 뿔[骨角]을 다루는 자는 우선 칼과 톱으로 다듬은 뒤에 줄[鑿錫]로써 쓸며, 옥석을 다루는 자는 우선 망치로 쪼고 나서 숫돌로 간다. 그런 뒤에야 매끄럽고 윤택이 나는 것이다. 만약에 기술을 익히지 아니 한다면 어찌 다루는데 실마리가 있음을 알고, 더욱 그 정성을 다할 수 있겠는가.

대장(大匠)은 우선 그림쇠[規]·자[矩]·수준기[準]·먹줄[繩]을 사용하며, 비록 천 칸이나 되는 광대한 집을 짓더라도 깎는데 순서가 있다. 뿔을 다루는 자처럼 다듬고[切], 다시 쓸며[磋], 옥석을 다루는 자처럼 쪼고[琢], 다시 갈아[磨]내는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만약에 그 법이 없이 대장(大匠)을 대신해서 깎는다면 비록 한 칸의 초가집을 짓는 데 깎는 차례가 없어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게 되며 손만 다칠 뿐이다. 어찌 반문농부(班門弄斧)<sup>102</sup>와, 우공이산(愚公移山)<sup>103</sup>과 다르겠는가. 비유하면 학문이 뛰어나지 않은 채 벼슬한다면, 어찌 대장을 대신해서 깎는데 손을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인가.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사십에 비로소 벼슬하여 우유함영(優遊涵泳)<sup>104</sup>하였다.”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벼슬하는 자는 대장이 깎는 것처럼 수신(修身)을 본(本)으로 삼고, 치국(治國)을 말(末)로 여겨야 한다. 도(道)가 이루어진 뒤에 벼슬하여 손을 다치는 폐단

102) 반문농부(班門弄斧)는 “노반(魯班)의 집 문 앞에서 도끼를 숨씨 있게 다룬다.”는 뜻으로, 재주꾼 앞에서 잘난 체함을 비유한 말이다.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다.”는 말과 같은 뜻의 속언이다.

103) 우공이산(愚公移山):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

104) 우유함영(優遊涵泳):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학문을 완미(玩味)함.

에 이르지 않는 것이 옳다.

오호라. 지금 벼슬과 녹봉을 흠친 자들은 처음에는 양양자득(揚揚自得)<sup>105</sup>하나, 뒤에 는 귀양가며 쫓겨나는 죄를 면하지 못하는데 어째서인가. 학문이 뛰어나지 못한 채 벼슬한 때문이다.

#### 의로운 도끼[義斧]

‘의부(義斧)’란 무엇을 일러 말하는 것인가. 의(義)는 ‘끊고 나누는[斷制裁割]<sup>106</sup> 도(道)의 이치이며, ‘도끼[斧]’는 끊고 나누는[斷制裁割] 도(道)의 사물이다. 사람에게 의부(義斧)가 있음은 천도(天道)에 이(利)가 있고, 사시(四時)에 가을이 있는 것과 같다. 천도는 비·이슬·서리·눈이 내리는 이치이며, 사시는 봄에 나서 가을에 죽은 기운이다. 그런 뒤에야 만물이 이루어지고, 천시(天時)를 영원히 누리게 된다. 그런 까닭에 억천 만사가 의로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무리가 배를 가득 채울 것을 의심하여 미리 결정하지 못하면 모두 무슨 일을 얻으려한다. 봉황은 천 길을 날며 주려도 조[粟] 따위는 먹지 않는다. 소나무는 사시를 일관하지만 추위에도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최고의 영장으로 써 새만도 못하는가. 비록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굳세고 위엄스런 의가 없다면 만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의롭지 않다면 한 소쿠리의 밥과 한 쪽박의 물[一簞食 一瓢飲]이라도 취하지 않는다. 그 의가 천종만호(千鍾萬戶)<sup>107</sup>라면 어찌 사양하겠는가.

그러기에 백이(伯夷) 숙제(叔齊)는 수양산의 고사리를 캐 먹을지언정 주(周)나라의 조[粟]를 먹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이 의는 아니다. 순(舜)임금이 요(堯)임금의 천하를 얻었으나 그 의를 크다고 여기는 않는다. 의가 이르는 바는 가마솥[鼎鑊]과 톱칼[鋸刀]이라도 어찌 두렵다고 하겠는가. 도끼가 치는 바가 얽혀진 뿌리[盤根]와 뒤섞인 돌[錯石]

105) 양양자득(揚揚自得): 뜻을 이루어 몹시 잘난 체하며 경솔하게 행동함.

106) 『대학장구(大學章句)』에 나오는 말이다. 인(仁)은 온화자애(溫和慈愛)의 도리이며, 의(義)는 단제재할(斷制裁割)의 도리라고 하였다.

107) 천종만호(千鍾萬戶): “천 잔의 술과 만 채의 집”이라는 뜻으로 매우 부귀함을 표현하는 말임.

이라도 어찌 없애지 못하겠는가.

오호라. 우리들은 먼저 자신을 극복하고 욕심을 버려서 일신의 주재(主宰)가 되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선하지 못함이 있다면 외로운 군졸이 강적을 만난 것과 같다. 죽음을 버리고 앞을 향하니 절벽이 만 길이나 가렸고, 물과 얼음이 떨어지므로 동쪽 남쪽 모두 불가하며, 중반 사이에 경계가 없어 앞을 우러러보고, 뒤를 돌아보아도 중반 위에는 낙하(落下)로 가려졌다. 그런 뒤에야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이로써 일을 통제하면 어떤 일인들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로써 공(功)을 도모한다면 어떤 공(功)인들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의(義) 부(斧) 두 글자로써 집안을 제도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준적(準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5월 23일 계축 맑음: 이 날은 고모부 대상(大喪)이라 내종 백남성(白南星)의 집에 감. 저물게 도착하였음.

○ 갑신 5월 24일 맑음: 이 날은 제삿날이라 모모제씨와 함께 저녁 제사에 참례한 후 조객(弔客)이 집안 가득하여 술과 떡을 대접하였음.

○ 5월 25일 을묘 맑음

○ 5월 26일 병진 흐림: 이 날 저녁 때 본교에 돌아와서 잤음.

○ 5월 27일 정사 비: 종일 비가 와서 가지 못하고 또 잤음.

○ 5월 28일 무오 비: 오후에 맑음. 성재 어른이 집에 농장지경(弄璋之慶)<sup>108</sup>이 있어 가셨다가 이날 학교에 들어오심.

○ 5월 29일 기미 맑음: 김홍배(金鴻培) 부친이 서울로부터 학교에 들어오심.

○ 6월 1일 경인 맑음: 오늘은 강회(講會)하는 날이므로 모모제씨가 참석함. 하지홍(河智弘) 부친이 서울로부터 학교에 들어오심.

○ 6월 2일 신유 맑음: 하지홍(河智弘)이 부친을 모시고 본집으로 감. 김홍제(金弘濟)와 동규(東圭)가 본집으로 감. 친구 김복현(金福鉉) 부친이 쌀과 감귤을 싣고 오심. 친구 조태형(趙台衡)이 백미를 싣고 옴. 친구 신현수(申鉉秀)가 백미를 싣고 옴. 이은식(李

108) 농장지경(弄璋之慶): 아들을 낳은 경사를 뜻함.

殷植) 부친이 선생님을 방문하고 가심.

○ 6월 3일 임술 맑음: 사문(斯文) 어대선(魚大善)씨가 학교에 들어오셨다가 바로 가심.

○ 6월 4일 계해 맑음: 친구 정우용(鄭禹鎔)의 부친이 학교에 들어오셨다가 바로 가심.

○ 6월 5일 갑자 흐림: 김하영(金夏榮)이 여러 날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날 학교에 들어와서 기뻐함.

○ 6월 6일 을축 비: 종일 별다른 일이 없었음.

○ 6월 7일 병인 맑음: 김동설(金東說)이 얼마 전에 병으로 인하여 집에 갔다가 이날 조창복(趙昌福)과 같이 학교에 들어옴.

○ 6월 8일 정묘 맑음: 학생 전원이 우물을 파기위하여 종일 파냈으나 물이 나오지 아니하여 역사(役事)를 마치지 못함.

○ 6월 9일 무진 맑음: 오후에 수원 백봉에 사는 참봉 서상춘(徐相春)씨가 그의 아들 교육을 위하여 금일 인솔하고 오심.

○ 6월 10일 기사 비: 단비가 때맞춰 오니 가히 풍년들 징조이다.

○ 6월 11일 경오: 잠시 비가 오다가 잠시 맑음. 우물 파던 작업이 4일 만에 역사를 마침.

오래도록 공경함[久而敬之] 안평중(晏平仲) 이름은 영(嬰)임.

어떤 것을 “오래도록 공경한다.” 말하는가. 사람이 친구가 없으면 좋은 말을 듣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친구가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직도 없다. 그 친분은 먼 듯하나 관련된 바는 매우 친하다. 보탬이 되는 친구가 셋이요, 손해를 끼치는 친구가 셋이니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친구 간에 공경함을 위주로 하여 덕(德)으로써 인(仁)을 도운 뒤에야 바야흐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즉 친구를 선택함에 어찌 자기보다 낮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군자의 사귀는 물 같이 맑고, 소인의

사김은 달기가 단술[甘醴]과 같다. 맑은 물은 몇 천년에 이르러도 흘러서 쉬지 않고, 단술은 며칠만 되어도 시어져서 먹지 못한다. 그러한즉 군자의 사김은 오래가고, 소인의 사김은 짧다. 훌륭하도다. 안평중(晏平仲)<sup>109</sup>의 사람과 사김에 오래도록 공경함이어.

오호라. 동지 여러 친구들은 절차탁마(切磋琢磨)를 서로 권하고, 희학경박(戲謔輕薄)<sup>110</sup>하지 말자. 지란지실(芝蘭之室)<sup>111</sup>에 들어가듯 하여 오래도록 그 향기가 나지 않으면, 친구를 사김에 반드시 안평중이 오래도록 공경하듯이 하여야 할 것이다.

왕이 마음을 고치기를 날마다 바라다 [王庶幾改之 日望之]<sup>112</sup>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이 천하를 다스리고 성군(聖君)이 된 것은 반드시 어질고 훌륭한 재상이 있어 그 말을 듣고, 그 도를 실행하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질고 훌륭한 재상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같은 성군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비록 탕왕과 무왕에는 미치지 못하나 천하를 다스리는 도를 행하여, 정치를 왕성하게 펴서 어짐을 베풀었다.[發政施仁]<sup>113</sup> 그런데 어찌해서 탕왕과 무왕 같은 성군지 되지 못하였는가.

오호라. 이 당시는 여러 나라가 부국강병(富國強兵)하는 술책을 주요하게 여기고, 성인의 도를 천하게 여겼다. 진(秦)나라는 상양(商鞅)<sup>114</sup>을 등용하였고, 초(楚)나라와 위(魏)나라는 오기(吳起)<sup>115</sup>를 등용하였다. 그러기에 맹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대도(大道)를 펴고자 하였는데 대도가 세상에 행해지지 않자 천리 길을 가서 제나라 선왕을 만나

109) 안평중(晏平仲): 공자의 수제자로 안자(晏子)라는 존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110) 시시덕거리며 우스갯말을 하고, 생각이 깊지 않고 조심성이 없어 말과 행동이 가벼움을 뜻한다.

111) 지란지실(芝蘭之室): 좋은 향기가 풍기는 방이라는 뜻으로, 선인 군자(善人君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임.

112) 『맹자(孟子)』 『공손추 장구하(公孫丑 章句下)』에 나오는 말임.

113) 발정시인(發政施仁)은 『맹자(孟子)』 『양혜왕장구 상(梁惠王章句 上)』에 나오는 말임.

114) 상양(商鞅): 전국시대 진나라의 정치가. 위나라 왕의 서자 출신으로 성은 공손(公孫), 이름은 양(鞅)이다. 흔히 공손양으로 불린다. 진나라 효공에게 등용되어 강력한 변법을 시행함으로써 중앙집권 체제와 법치주의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115) 오기(吳起): 위(衛)나라 사람으로 용병(用兵)을 좋아했다. 일찍이 증자(曾子)에게 배우고 노(魯)나라의 국군을 섬겼다.

누누이 언급하였다. 선왕이 듣지 아니하므로 호연히 돌아갈 뜻이 있어 주(晝) 땅을 나와서 사흘간 유숙하며 머뭇거렸다. 윤사(尹士)가 다른 사람과 말하기를 “맹자가 천리 길을 와서 왕을 만나보았으나 뜻이 맞지 않으니 마땅히 속히 떠나야함이 옳다. 지금 주(晝) 땅을 나와서 사흘간 유숙하며 머뭇거리고 있다. 이는 필히 혜택을 구하려 함이다.”고 하였다. 맹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길 “윤사가 어찌 내가 하려는 바를 알겠는가. 내가 하려는 바는 왕이 후회하고 고치기를 기대하며 매일 소망한 것이다. 어찌 혜택을 구하려 함이겠는가. 사흘간 유숙하고 주 땅을 떠난 것은 차마 왕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이다. 왕이 만약에 고쳤다면 반드시 나를 돌이켰을 것이다. 만약에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도를 행하였다면 어찌 한갓 제(齊)나라 백성만을 편안하게 하고, 천하의 모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겠으며, 어찌 탕왕과 무왕 같은 성군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논평하여 말한다. 소인이라면 임금에게 간언하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발끈 화를 내고 떠나며 하루 정도 노력하고 유숙하는 것으로 마칠 것이다. 맹자는 사흘이나 유숙하며 주 땅을 떠나면서도 왕이 마음을 고치기를 날마다 바랬던 것이다. 성인의 너그러운 어짊과 큰 덕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나무가 넘어가면 너의 집이 없어진다. 탁목조(啄木鳥)<sup>116)</sup>

나무의 수많은 가지와 잎은 뿌리에 근본하고, 물의 수많은 흐름은 샘[源]에 근본한다.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어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으며, 물이 샘이 없으면 어찌 마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호라. 지금 산중턱에 남은 고목이 있는데 쪼지 않아서 넘어가려 한다.

아! 저 딱따구리여. 그 나무에 등지를 틀고 그 나무를 쪼면 나무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말한다면, 제비와 참새는 집에 등지를 두었음에도 불이 마룻대와 추녀에 붙어서 장차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는가. 불이 새끼에게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어미새는 후후 소리 내며 즐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갑자기

116) 탁목조(啄木鳥): 딱따구리를 말함.

하룻밤에 비바람이 들이닥쳐서, 나무가 넘어져 너의 집이 없어질 뿐 아니라, 그 나무에 서식하는 다른 새들도 역시 동지를 잃고 방황할 것이다.

오호라. 딱따구리여.

오호라. 나무를 쫓 것인가. 나무를 쪼지 않을 것인가.

오호라. 슬프도다. 지금의 시국을 당하여 간사한 무리들의 찬역(篡逆)<sup>117)</sup>을 견잡을 수 없음을 말한다면 딱따구리보다 백배나 더하다. 어째서인가. 외국인과 사귀어 강세를 빌어다가 그 임금에게 벼슬을 하고서 도리어 그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불을 가져다 쌓아놓은 땔나무 아래에 두고 그 위에 누워서 그것을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어찌 특별히 나라와 집안만 망할 뿐이겠는가. 온 나라의 사람들 역시 그 화를 입어서 동서로 떠돌 것이다. 그 죄를 논한다면. 천만번 죽여서 배에 심지를 박아 등불을 밝혀야 할 것이다. 어찌 온 나라 동포의 분통을 씻을 수 있으리오.

오호라. 슬프도다.

○ 6월 12일 신미 맑음: 모든 학우들이 우물 공사를 마친 후에 남산 아래 맑은 시내 물에 목욕함. 오후에 관곡(官谷)에 사는 박사 정좌섭(丁佐燮)씨가 같이 고생하였다가 학교에 들어오심. 친구 이철규(李喆圭) 이민귀(李敏貴)가 옷을 갈아 입고져 본집에 감. 진천사는 친구 김비학(金丕學)이 학교에 들어옴.

○ 6월 13일 임인 맑음:

십년간 선비를 양성해서 그 쓰임은 하루에 있다.

대개 세상을 다스림에 무사할 때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 쓰임은 반드시 훗날 위급한 때에 있을 것이다. 나라가 오랫동안 평안할 이치가 없고, 나라가 오랫동안 어지러울 이치도 없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에도 천도(天道)의 상도(常道)이다. 이때 문에 나라에서 선비를 양성하면 비록 생각지 않은 변란이 있다 해도 막을 수 있는 것이

117) 찬역(篡逆): 임금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함.

다. 만약에 나라에서 선비를 양성하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변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인가. 비록 세상이 평온하고 무사해도 선비를 양성함은 불가피하다. 옛날에 성왕(聖王)이 천하를 다스림에 선비를 양성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다스렸겠는가. 모든 일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면 세우고, 미리 정하지 못하면 세우지 아니하였다. 성곽의 병사를 쓰는데도 역시 예정하고서 후환을 도모하는 것이다. 맹자가 말하지 아니 하였는가. 닭과 돼지를 길러 그 고기를 먹고, 뽕나무를 심어 비단옷을 입는다. 만약 선비를 양성해서 쓰임이 없다면 어찌해서 양성하는 것인가. 십년간 오래토록 선비를 양성해서 하루의 위급함에 선비를 쓴다. 이로써 보건대 선비를 양성하는 날은 많고, 선비를 쓰는 날은 적다.

오호라 슬프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고, 큰 것이 작은 것을 능멸하는 때이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우리 대만이 가장 약하고 작다. 5백년 종묘사직이 이미 불타는 집 가운데 있으며, 2천만 백성이 새는 배 위에 있다. 이는 임금은 욕되고 신하는 죽는 날이다. 장차 어찌 할 것인가. 아! 십년간 선비와 장부를 양성하였다면 마땅히 변두리에서 죽어 말가죽으로 시신(屍身)을 씻을 것이다. 어찌 아녀자 손 안에서 밥이나 찾았겠는가. 오늘,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비록 시퍼런 칼날을 목에 대고, 끓는 기름을 살갗에 붓는다 해도 마음을 합하고 죽는 힘을 다해 아직 불타지 않은 집에서 종사를 회복하고, 아직 새지 않는 배에서 백성을 구해야 한다. 모모 여러 도적들을 밝혀 찢어 죽여서 그 고기를 쪼개고, 그 고기를 먹어서 군부(君父)의 만에 하나 욕됨을 씻으며, 이 나라를 태평세계로 만들게 된다면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모든 일이 역지로 엮고 끌어다가 한 것인데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군부의 치욕을 씻을 것인가.

오호라. 여러 선비들은 힘쓸지어다. 힘쓸지어다. 요즈음 신문에 의거하면 모모 7명의 도적이 신조약에 어압(御押)<sup>118</sup>하고 대리하여 3건의 일을 사과하였다. 군부(君父)를 위협하였다는 말에 머리가 멍해졌으며, 차마 보지 못하고, 차마 말하지 못할 일이다.

118) 어압(御押): 임금의 수결(手決)을 찍은 도장.



○ 6월 14일 계유 가뭄이 극심함. 모든 곡식이 다 말랐으니 앞으로 아무 것도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언제나 비가 오리요.

○ 6월 15일 갑술 맑음: 모든 학생이 갈천(葛川) 성재 어른덕에 가서 두어 잔 술을 서로 권하고, 목욕도 하고 종일토록 놀다가 서늘할 무렵에 학교에 돌아옴.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안성(安城) 결사회(決死會) 통문이 마지막으로 본교에 도착함.

○ 6월 16일 을해 맑음: 여러 학생 몇이 본집에 감.

○ 6월 17일 병자 맑음: 이민귀(李敏貴) 본집에서 술 1통을 학교에 보냄.

오로(五路)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도 작은 연못에 앉아서 물고기만 보다.  
제갈량(諸葛亮)

승상(丞相) 제갈량이 새로 대상(大喪)을 치르고 후주(後主)는 어리고 약하였으며, 천하는 셋으로 나뉘지고 익주(益州)는 피폐하였다. 이때는 실로 존망(存亡)이 위급한 가을이었다. 오(吳)나라 위(魏)나라의 맹획(孟獲)<sup>119</sup> 맹달(孟達)<sup>120</sup>이 오로(五路)의 병사들을 이끌고 고약(孤弱)하고 위급한 시기를 틈타서 봉기(蜂起)하였으나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다만 작은 연못의 노니는 물고기만 지켜보았으니 어찌서인가. 영웅의 처사가 어찌 소홀했겠는가. 비록 위급한 일이 있으나 먼저 막을 계책을 생각하고, 그런 뒤에야 위급한 일을 막았다. 막을 수 있는 계책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위급한 일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

전쟁이란 지혜로 싸워서 이긴 것은 있어도, 힘으로 싸워 이겼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제갈공명의 고명한 충절로 오로의 병사가 봉기하였음을 듣고도 어찌 한갓 편안히 작은 연못 위에 앉아서 물고기나 보고 있었겠는가. 반드시 무궁한 계책을 깊이 생각하고 오로의 병사를 막고자 하였을 것이다. 만약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단지 물고기만

119) 맹획(孟獲): 삼국시대 촉한(蜀漢) 때 이족(彝族)의 수령. 용개(雍闓)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촉에 반기를 들었다. 제갈량이 남정(南征)하면서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자 감동을 받은 나머지 다시는 반역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였다.

120) 맹달(孟達): 삼국시대 촉한의 장수. 처음에는 익주태수 유장(劉璋)의 장수였으나 유비에게 투항했다.

바라보았다면 어째서 5월에 여수(瀟水)을 건너 불모의 땅에 깊숙이 들어갔겠는가. 이같이 한 뒤에 간흉(姦凶)을 물리치고 한나라 왕실을 일으켜 회복하였으며, 옛 도움으로 돌아갔다. 공명의 충절이 아니면 누가 이처럼 할 수 있었겠는가.

돈을 좋아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송사(宋史)

돈이란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다. 죽음이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다. 나라가 불행하게 위급한 시기에 돈이 아니면 어떻게 삼군(三軍)의 양식을 충족하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강한 세력을 막을 것인가. 이런 까닭에 나라가 있고 임금이 있는 뒤에야 재물이 있고 삶이 있는 것이다. 만약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죽은 뒤에 돈을 좋아한다 해도 어느 곳에 쓸 것인가. 비록 죽음을 두려우나 어느 곳에서 살 것인가. 소인은 종신토록 재물을 지키다 죽는다. 후한(後漢)의 양기(梁冀)와 진(晉)나라의 석숭(石崇)이 그렇다.

막혔도다. 악비(岳飛)<sup>121)</sup>의 말이여. 훌륭하도다. 악비의 말이여. 나라의 태평은 “돈을 좋아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에 있다.

오호라. 송(宋)나라 연성(衍城)의 난 때 문신은 돈을 좋아하지 않았고, 무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어찌 금노(金奴)의 강함을 근심하였겠는가.

오호라. 지금 우리 대한에는 금노의 강적보다 백배가 있어 거의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죽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로지 민충정(閔忠正)과 최면암(崔勉菴)만 돈을 좋아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죽음으로 절의(節義)를 지켰다. 나머지 벼슬에 있는 자는 돈을 좋아했을 뿐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했다. 외적의 강세에 끼여서 군부(君父)를 욕되게 하였으니 만고에 어찌 이 같은 대역(大逆)이 있는가.

121) 악비(岳飛): 남송 초기의 무장이자 서예가. 정강의 변 이후 ‘악가군’이라는 대군벌을 이루어 금나라의 침공을 저지하는 등 많은 무훈을 세웠다. 금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하는 이상파와의 대립으로 투옥되기도 했으나 후에 누명을 풀고 진충보국(盡忠輔國)의 구국 영웅으로 추대되었다. “문신이 돈을 좋아하지 않고, 무관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천하가 태평하다(文臣不愛錢, 武臣不惜死, 天下太平矣)”라는 말을 남겼다.

오호라. 동지들이여. 돈을 좋아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서 군부(君父)의 위급함에 나아가자.

일찍이 보건대, 천하에 가장 어려운 것은 나라를 회복하는 것보다 극심한 것이 없다. 천하에 잇기 어려운 것은 나라를 잃은 것보다 극심한 것이 없다. 이와 같이 가장 어렵고, 잇기 어려운 것이 어찌 하루아침 저녁 사이에 이르렀는가. 비록 잇지 못할 원한이 있더라도 오래되면 쉽게 잇고, 편안하면 쉽게 나태해진다. 그러기에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어 고신(苦身)하고 노력해서 사졸(士卒)과 함께 고락을 같이하면 어찌 나라를 회복하는 도리가 없겠는가. 병서(兵書)에 말하길, “부드러운 것으로 굳센 것을 이길 수 있으며,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였다. 저들이 비록 우리보다 백배 강하다고 하나, 반드시 이같이 부지런히 힘쓴 뒤에 저들의 해이한 시기를 틈타서 치면 어찌 이기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구천(句踐)이 회계(會稽)의 재앙에서 죽을 마음은 있으나 살아서 즐길 생각은 없었다. 원한을 머금고 고통을 참으며 패망하고 남은 군졸 4천명으로써 회계산에 거처하면서 20여년간 나라를 회복하고 복수할 마음을 길렀다. 자나 깨나 잇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겹치는 채색옷을 입지 않았다. 앉았을 때는 땀나무에 누웠고. 서 있을 때는 쓸개를 맞보았다. 백성들과 함께 그 수고로움을 함께 한 뒤에 강한 오(吳)나라를 멸망시켜 회계산의 치욕을 씻었으며, 제후의 으뜸이 되어 주(周)나라 왕실의 약함을 구제하였다. 그때 조금이라도 죽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고, 쓸개를 맞보지 않았다면 어찌 회계산의 치욕을 씻고, 제후의 으뜸이 될 수 있었겠는가.

○ 6월 18일 정축 맑음: 친구 최도균(崔道均), 김홍배(金鴻培) 두 사람이 교장(校長)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서울에 감.

○ 6월 19일 무신 맑음: 친구 김복현(金福鉉)과 사촌동생 정현(正鉉)이 본집에서 학교로 들어옴.

○ 6월 20일 기묘 맑음

○ 6월 21일 경진 맑음: 친구 최도균(崔道均)이 갔다 옴. 친구 김홍배(金鴻培)가 광주

산운면(山雲面)에 있는데 내일 온다고 전함. 저녁때 작은 비가 내림.

○ 6월 22일 신사 흐림: 정오 쯤에 장마비가 세차게 내리다가 그쳤음. 아침 후에 김홍배(金鴻培), 송시순(宋時純), 김동설(金東說)이 돌아옴.

#### 동짓날에 관문을 닫음[至日閉關]

동짓날에 관문을 닫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천공(天工)<sup>122)</sup>을 사람이 대신하는데, 사람에게 선(善)이 있어 만사가 된다. 마치 하늘에 양(陽)이 있어 만물이 생기는 것과 같다. 천시(天時)와 인사(人事)는 정(靜)이 불안함이 없는 뒤에야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양(陽)이 아직 차지 않았는데 움직이면 천도(天道)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善)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움직이면 인도(人道)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순음(順陰)과 고양(固陽)에 미친다. 만약 한 번에 문득 나와서 함께 사물이 샘솟는다면 어찌 일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초목은 그 액을 거두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 없고, 곤충은 움크리지 않으면 그 몸을 떨칠 수 없다. 이때문에 동짓날에 일양(一陽)이 움직이나 매우 정결(淨潔)한 기운에 피부가 찢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진다. 궁동(窮冬)<sup>123)</sup>에 쌓아두고, 무(無) 가운데 유(有)를 머금으며 사물의 마음이 생기고 불쑥 머리를 내밀어야 보는 것이다. 이런 즉, 하늘의 정(靜)은 미양(微陽)을 키워 만물을 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선왕(先王)은 천도를 관찰하여 관문을 닫고, 정(靜)이 미양(微陽)을 키움으로써 인사가 천도와 합치됨을 보이는 것이다. 선단(善端)은 매우 희미하나 장경지양(莊敬持養)<sup>124)</sup>하고, 생의(生意)를 배양하며, 깊이 잠기고 고밀(固密)하게 하면 새어 나가는 도(道)가 없으니 살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호라. 하늘의 뜻에 거스른 자는 망하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살아남는다. 우리들은 학문에 열심히 하여 하늘이 양(陽)을 감췄다가 발산하고, 선왕이 관문을 닫았다가

122) 천공(天工): 하늘이 백성을 다스리는 조화를 말함.

123) 궁동(窮冬): 음력 설달을 가리키는 말임,

124) 장경지양(莊敬持養): 학문과 수신을 하는 방편으로 장경(莊敬)은 엄숙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지양(持養)은 마음을 확실히 잡고 수양함을 뜻하는 말이다.

그 남음을 보여주듯이 해야 한다. 양(陽)은 아직 차지 않았는데 발산함이 없다. 선(善)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움직이려는가.

어찌 우리의 학문이 변함이 없는가. 자평(子平)이 김이상(金履祥) 허백운(許白雲)을 대신하여 지음

사람은 만경창파를 허공에 댈 수가 없는 것과 같다. 배는 바람에 따라 멋대로 왕래한다.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흐른다. 그러한즉 쉽게 전복이 된다. 어찌 배의 속성이겠는가. 그러하기에 배를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단단히 매고 가득 실은 뒤에 안전한 곳에 있어야 전복하는 일이 없다. 사람의 선악에 있어서도 역시 정해진 곳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인도하면 선하게 되고, 악으로 인도하면 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즉 사람을 가르쳐 안전한 곳이 있게 함은 배를 때어 안전한 곳에 있게 하는 것과 같다. 대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인의예지(仁義禮智) 네 가지의 덕이 있지 않을 수 없다. 기쁨에 구속됨이 있고, 사람의 욕심에 가려서 밝지 않은 것이다. 만약에 기질을 바꾸고 부지런히 배우고 그침이 없다면 우리가 덕을 밝힘[明德]에 있어 어찌 밝음을 회복[復明]하지 못하겠는가. 단청(丹青)은 비록 좋으나 흰색이 없으면 볼 못하고, 오미(五味)는 비록 맛이 있으나 단 것이 없으면 조화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가 학문에 나아감은 오미가 조화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식초와 젓갈이 조화되면 시고 짠 맛이 변하는 것이다.

옛 사람이 선비가 3일간 떨어져 있다가는 ‘눈을 씻으며 서로 대한다[刮目相對]’하는데 지금 그대들이 나를 본지 3일이 되었는데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우리의 학문이 그대를 변하기에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그대가 학문에 뜻을 두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공부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다. 매일같이 사물을 사용하는 가운데도 있다. 지금 보건대 나의 말과 행동이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바라건대 우리들은 “어름은 물에서 생기는 것이나 물보다 차고, 청색은 쪽에서 나는데 쪽보다 푸르다”고 하는 이치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로써 뜻을 세워 조석으로 부지런히 하자.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몸을 가지런히 정결하고 목욕하면 상제에 제사할 수 있다.

대개 제사는 몸이 지극히 정결함에 있으며, 외모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 만약 상제가 비록 아름다운 미모가 있다고 하나 정결한 정성이 없다면 제사할 수 있는가. 비록 아름다운 외모는 없다고 하나 정결한 정성이 있으면 제사할 수 있는가. 옛말이 이르지 않았던가. 정성이 이르면 쇠나 돌도 뚫을 수 있다고. 비록 무염(無鹽)<sup>125</sup>의 악취가 있어도 그 몸을 목욕하고 재계(齋戒)하여 지극히 정결하면 상제에게 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제가 깊은 곳에 거처하며, 비록 서자(西子)<sup>126</sup>의 아름다운 자질이 있다 해도, 그 몸이 더럽고 재계하여도 불결하면 상제에게 제사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모두 코를 가린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이 서자(西子)와 같아도 아직까지 재계하고 목욕하여 정결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하물며 추하기가 무염과 같으며 재계하고 목욕하여 정결하지 않은 자가 있겠는가. 이로써 아름다움이란 더러워지면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된다. 악한 사람은 스스로 새롭게 한 뒤에 그 악을 씻어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아름다움이란 재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한 뒤에야 그 아름다움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된다.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으로써 선(善)이 작다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악은 작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된다. 모두 잘못을 고치고 스스로 새롭게 하여야 한다. 추악한 사람이 그 몸을 재계하여 상제에게 제사하였듯이 하고, 서자가 그 몸을 더럽혀 다른 사람들이 코를 가리게 한 것처럼 하지 말자.

진(秦)나라 구관조(九官鳥)를 조문함

오호라 슬프다. 너는 비록 미물(微物)이나<sup>127</sup> 사람의 말이 통하고, 앵무새보다 지혜

125) 무염(無鹽): 중국 제(齊)나라 무염(無鹽) 지방의 여자로 너무나 못생겨 40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했다. 후세 사람들은 그녀를 추녀(醜女)의 대명사로 일컫는다

126) 서자(西子): 서시(西施)를 가리킨다. 성(姓)은 시(施)인데, 집이 저라(苧蘿) 완사촌(浣紗村) 서쪽에 있어 서시라는 이름을 얻었다. 춘추시대 말기 월(越)나라의 유명한 미인으로 오왕(吳王)에게 바쳐져 총애를 받았다. 후세에 절세미인(絕世美人)의 대명사로 쓰인다.

127) 원문에는 한국학보의 자료편에는 ‘再微雖物’로 기록하고 있는데 ‘爾雖微物’의 오류로 보인다.

롭다. 너는 본래 중원의 사물이나 절의가 있어 그런 것이리라. 너는 오랑캐 땅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리라. 내가 너를 팔고자해서 그런 것이리라. 어찌하여 먹지 않고 죽었는가. 봉황이 비록 절의가 있다고 말하나 단지 굶주려 좁쌀을 쪼지 않았으며, 저 새는 비록 효성스런 새라고 하나 단지 어미새에게 반포(反哺)<sup>128</sup>했을 뿐이다. 너의 높은 절개를 논한다면 백이(伯夷) 숙제(叔齊)가 수양에서 굶주려 죽었으나 너보다 더하지 않을 것이다. 천길 동해 노련(魯連)<sup>129</sup>의 자취, 만리 천산(天山) 속국의 절개로 불행하게 빈주(賓主)<sup>130</sup>를 만나서 굶어죽기에 이르렀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우열함이어. 이 몸은 끝까지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한갓 많은 금을 생각했을 뿐이며 너로 하여금 굶어죽게 하였으니 부끄럽도다. 나의 삶이 어찌 너의 죽음보다 낫겠는가. 나충(裸蟲)<sup>131</sup> 3백 가운데 사람이 영장이고, 우족(羽族) 3천 가봉황이 영장이다. 나 또한 사람이 되어서 화이(華夷)<sup>132</sup>를 구별하지 못하고, 봉황이 비록 고결하다하나 역시 화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너는 화이를 구별하여 죽음에 이르러서도 의(義)를 저버리지 않았도다. 너의 죽음은 나로 하여금 경계(警戒)토록 하였도다. 너는 진정 본보기가 될 것이며, 너는 진정 사람들의 추앙하는 바가 될 것이다. 봉황의 영장되는 바가 될 것이다. 나는 도대체 불민하고, 지금 너는 이미 죽었도다. 지금 비록 비통해 하나 다시 살아날 수 없도다. 다시 볼 수 있다면 편안하게 구천(九泉)으로 돌아가거라. 후세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 같은 절의를 조정하여 우리나라를 도와줄진저.

하늘이 낸 장부(丈夫)가 어찌 우연이리오.

하늘이 낸 장부는 우연이 아니다. 장부가 장부되는 까닭 역시 우연이 아니다. 어찌

128) 반포(反哺): 먹이를 씹어서 뱉은 다음 다시 새에게 먹인다는 뜻이다.

129) 노련(魯連): 전국시대 제(齊) 나라의 고사(高士)인 노중련(魯仲連)을 말함.

130) 빈주(賓主): 황제 속국(屬國)의 임금을 지칭하는 말.

131) 나충(裸蟲): 깃털이나 비늘이 없는 동물. 전의되어 사람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132) 화이(華夷): 중국과 그 주변의 오랑캐. 문명국과 미개국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편히 놀고, 몹시 취하여 초목과 더불어 썩을 수 있겠는가. 그런 때의 사람을 장부라 이름붙이나 사실은 반대로 여자만도 못하다. 여자는 의복도 짓고,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다음으로 지아비에게 올린다. 혹 아버가 죽더라도 가지 않나니 이에 일마다 절개가 있는 것이다. 지금 소위 장부라 하는 자는 한가로이 살고, 편안히 놀며, 장기 바둑과 음주를 업으로 삼아서 위로는 부모 봉양을 돌보지 않고, 아래로는 처자의 생육을 돌보지 않는다. 친구와 어울려 즐겨 놀며 날을 보내다가 초목과 함께 썩는다. 어찌 장부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가. 중봉(重峯) 조헌(趙憲)선생은 이에 매우 격분하고 간절하게 이 말을 하였다. 어찌 범범하게 지나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여자가 되지 않고 다행히 남자가 되었다. 어찌 편히 놀며 하는 일 없이 결국은 초목과 함께 썩을 수 있는가. 마땅히 뜻을 독려하고 힘써 노력하며, 학문에 부지런하고, 의리를 널리 궁구하며, ‘목숨을 바쳐 의를 취함[捨生取義]’ 네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천하를 다스려 만민으로 하여금 태평하고 성대를 열고, 뜻을 세워 대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그런 뒤에야 장부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같지 않다면, 도리어 여자만도 못한 것이다. 어찌 장부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가.

다시 눈을 뜨고 문인들에게 말함.

신하와 임금 사이는 물고기와 물, 나무와 흙 같다.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고, 나무는 흙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물이 마르면 고기 또한 따라 죽게 되고, 흙이 무너지면 나무 또한 따라서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임금이 욕되면 신하는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런 의리이다.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죽는 지경에 신하가 되어서 나라를 사랑하고 도타운 은혜를 받고서도 죽지 않는다면 충(忠)이 아니다. 죽어서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효(孝)가 아니다. 이로써 보건대, 충효를 함께 온전히 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비록 나라는 망하고 임금이 죽는 지경이라도 나라를 회복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정책이 있으나 죽는 것도 또한 충이 아니고 효가 아니다. 나라를 회복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정책이 없는데 살아 있는 것 또한 충이 아니



고 효가 아니다. 그러하기에 백이(伯夷) 숙제(叔齊)는 끝내 회복의 정책이 없으므로 조금도 신체를 훼손함이 없이 수양산에서 굶주려 죽었다. 산방(山房)<sup>133)</sup>은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박사랑(博沙浪)에서 진황(秦皇)을 저격하였다. 이 몇 사람은 만고에 걸쳐 보기 어려운 자들이다.

오호라. 명운(明運)이 불행하고 황천(皇天)이 무정하여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죽었도다. 유종주(劉宗周)<sup>134)</sup>는 열렬한 충의(忠義)로써 죽어서 절개를 지키고자 하고, 신체와 머리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기에 감히 훼손할 수 없으므로 곡식을 끊고 먹지 않으며 죽고자 눈을 감았다. 20여일에 이르자 기력과 정신이 더욱 강건하고 예전의 눈보다 더욱 총명해졌다. 그리하여 다시 눈을 뜨고 문인들에게 말하기를 “인간이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으나 지금 내가 굶어죽고자 하는데 20여일인데도 죽지 아니하였다. 이는 반드시 하늘이 돕고 신이 도운 것이다. 장차 대명(大明)을 회복할 운세이다.”고 하였다. 마침내 그 문인과 함께 창의(倡義)하고 충성을 다하여 명(明)을 부지하였으나 끝내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는 천운의 불행이며 명운(明運)의 불길인 것으로, 유종주의 죄는 아니다. 당초 굶어죽으려고 한 것은 충효를 함께 온전히 하려는 뜻이었다. 때면 이 일을 논하면서 어찌 강개하고 비탄함을 가눌 수 있으랴.

○ 6월 23일 임오: 구름 끼고. 장마비가 비가 오다가 그침. 성재 어른댁에서 옥림(玉林)이라는 과일 백 여개를 학교에 갔다 주셔서 학생들이 모두 달게 먹음.

○ 6월 24일 계미: 붓장사 최서방이 서울에 와서 전하기를 “경성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대한(大韓)의 병정 4백여명이 대포에 맞아 죽고 나머지는 다 도주하였다”고 말함.

○ 6월 25일 갑신 맑음: 내일은 사모님 생신이므로 친구 맹이술(孟頤述)이 선생님을 모시고 집에 돌아감. 저녁 후에 우물에 가서 떡으로 고사지냄.

○ 6월 26일 을유 맑음: 하오 8시에 선생님이 돌아오시고, 성재 어른은 본집에 돌아

133) 산방(山房): 남송(南宋) 시기의 관료이자 문학가인 주남(周南)의 호임.

134) 유종주(劉宗周): 명(明)나라 절강성(浙江省) 산음(山陰) 사람. 자는 기동(起東)이고, 호는 염대(念臺)이다.

가심.

○ 6월 27일 병술 맑음

○ 6월 28일 정해 혹은 구름, 혹은 맑음: 친구 김복현(金福鉉), 정현(正鉉)이 스스로 본집에서 돌아옴. 참외 한 짝을 싣고 와서 학교 전체가 골고루 나눠먹음. 장마비가 쏟아 지다가 멈춤. 우레 소리가 매우 급하고, 번갯불이 번쩍거림. 친구 맹이술(孟頤述)이 돌아옴. 친구 최영부(崔永溥)가 학교에 돌아옴. 친구 이길선(李吉善)의 부친이 모찌떡[牟餅]을 한 광주리를 갖고 오셔서 학교 전체가 골고루 나눠먹음.

○ 6월 29일 무자 구름:

○ 6월 30일 기축 혹은 비, 혹은 맑음

○ 7월 1일 경인 잠시 비가 오다 잠시 개입: 이 날은 하마비(下馬碑) 사문 어대선(魚大善)씨덕에서 강회(講會)를 실시함. 군수 어른이 동참하였음.

○ 7월 2일 신묘 맑음

단발(斷髮)을 할 것인가 앓을 것인가에 대해 논함

내가 한가하게 앉아 있는데 산창(山窓) 아래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와 방문하였다. 문을 열고 보니, 비록 몸에 양복을 입고, 머리에는 모자를 썼다. 그 말과 음성을 들어보니 전일에 익숙하게 보았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단발이 옳다고 설명하며 말하길,

“지금 세계 각국이 모두 단발 후에 개명(開明) 발달하였는데 어찌하여 우리 한국만 단발하지 않아서 판열에서 각국의 수모를 받는다. 안으로는 야만(野蠻)이라고 칭하니, 춘몽(春夢) 중에서 깨지 못하는 것 같다. 만약 대한의 온천지를 일절 단발하여 개명한다면 단발 또한 옳은 것이 아닌가. 양생으로써 논한다면, 머리칼이 있어 해로움이 백이라면 이로움은 하나도 없다. 두뇌는 정신이 모이는 곳이며 혈액이 관통하는 곳으로 몸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다. 머리를 묶어 상투를 만들기 위해 말털로 단단히 묶으면 정신이 혼미하여 흩어지고, 혈액이 통하지 아니한다. 이는 스스로 싹을 키워 양생의 해를 짓는 것이다. 어찌 이보다 심함이 있겠는가. 이렇게 보면 단발하는 것이 이로움이 둘이다.

하나는 세계 정치의 발달을 알게 되고, 외인의 억제를 받지 않음이며, 하나는 몸을 양생 하는데 정신이 총명하고, 혈맥이 관통하며, 머리가 더욱 가볍고 편해짐이다. 어찌 단발 하지 아니하고 그 이로우를 쫓지 않겠는가.” 하였다.

### 불가론(不可論)

나 또한 단발이 불가함을 설명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비록 각국이 모두 단발하고 개명하였다고 하는데, 애급[埃及:에집트], 파란[波蘭:폴란드], 인도(印度), 안남[安南:베트남] 등 여러 나라는 도리어 단발하고 망하였으니 어찌 된 것인가. 그런즉 단발하여 개명하였다는 것은 헛된 말이다. 우리나라는 비록 피폐하고 미약하나 지금 이후로 위로는 공경(公卿)이 직책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며, 아래로는 선비와 백성이 그 업무에 열심을 다하여 몽치면 저들이 비록 우리나라보다 백배 강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어찌 업신여김을 당하겠는가. 머리칼을 자르고 자르지 않는 것이 어찌 국권과 종사(宗社)에 관계되는가. 만약 단발하고 개명 발달하지 아니한다면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이루지 못하여 도리어 개가 되는 따위이다. 또 조환(鳥桓)<sup>135</sup>의 더러운 풍속을 어찌 구구하게 흉내 낼 수 있겠는가. 영국, 미국, 법국[法國:프랑스], 덕국[德國:독일]은 개명하여 부강함이 또한 정치가 발달한 까닭이지 단발 때문이 아니다. 어리석도다. 그대의 말이여. 만약에 단발하여 총명하다면 산승(山僧)은 더욱 총명하고, 용맹하고, 오래 살 것이다. 총명하고, 오래 사는 것이 머리칼이 있는 자와 더불어 다름이 없으니 어찌 된 것인가. 그대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 개화만 알고, 그 실은 인심을 어지럽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사람은 묵묵히 대답도 못하고 물러갔다.

135) 조환(鳥桓): 중국 북방의 야만 족속임.

## 충군가 서문

임금과 신하는 의(義)로써 합하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忠)’ 한 글자는 곧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절의이며, 철상철하(徹上徹下)<sup>136</sup>하게 중요한 도(道)이다. 대개 허다한 벼슬아치가 나가서는 그 임금에게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평일에 배우고 연구하는 노력도 하는 바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득실(得失)을 근심하는 사이에 본래의 뜻을 저상(沮喪)<sup>137</sup>하게 되며, 한갓 아첨하는 얼굴과 웃음으로 구차하게 임금의 뜻에 맞추려 한다. 임금의 마음이 옳지 않음을 보고도 한 마디 말로 정직하게 간함이 있지 않다. 국정의 잘못을 보고도 진실을 행하는 일이 있지 않다. 마음속에 임금의 뜻이 불과함으로 가득하나니 이는 벼슬과 복록을 흠치는 것이며, 사적인 이익으로 공적인 것을 해치는 것일 뿐이다. 인의(仁義)에 이른 즉,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 능력이 없다. ‘고 한다. 그리고도 그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은 자가 있지 않다. 이로써 충직한 신하는 도로써 섬기고, 행하지 않음을 말하되, 아니하면 신을 신고 떠난다. 만약 극도로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서는 버리고 갈 수 없다. 그리한즉 “우리가 국권을 만회해야함을 잊지 말자[以不忘吾挽回國權]” 8자를 몸에 부적으로 차고, 칼이 앞에 있고 가마솔이 앞에 있더라도 그 마음은 항상 자강불충(自強不隳)<sup>138</sup>하고, 중류(中流)에서도 지주(砥柱)를 지탱하고<sup>139</sup> 흔들어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뒤에야 가히 ‘충(忠)’이라 일컬을 수 있다. 그런즉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의리를 강할 것인가. 대개 성현의 수많은 말씀이 이 이룬(彝倫)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직 우리 함께 고통 받는 사람이 어찌 명백하게 강구(講究)하지 않는가. 나 역시 장직한 남아로 절대 칠실(漆室)의 탄식을 참을 수 없다. 그러하기에 감히 황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대략을 서술하여 올면서 노래한다.

136) 철상철하(徹上徹下):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고 철저하게. 철두철미(徹頭徹尾)와 같은 뜻임.

137) 저상(沮喪): 기력이 꺾이어 기운을 잃음

138) 자강불충(自強不隳):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 조금해하지 않음.

139) 지주중류(砥柱中流): 황하 중류의 지주산. 역경 속에서도 의연하게 버티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용기를 비유하는 말이다.

## 忠君歌序

君臣以義合者也故忠之一字卽於人臣事君之節徹上徹下之要道也蓋許多官守者就不有欲忠其君之心然平日講究之力有所未至故沮喪素志於患得患失之際徒次阿容諂笑苟合人主之意見君心之非未嘗有一言正直之諫見國政之失東嘗有事眞實之行而滿腔主旨不過是偷官竊祿私利害公已而至於仁義則曰吾君不能也然而不亡其國者未之有也是以忠直之臣以道事之言不行不則必納履而去若當亂極之時不能委而去之則唯以不忘吾挽回國權八字爲一身佩符雖刀劍在鼎鑊在前而其心常自強不愆撐砥柱於中流撓之而不變然後可謂忠也然則今日吾儕故學何事故講何義蓋聖賢千言萬語不外乎此彝倫之教也唯我同苦之人豈不明白而講究哉余亦剛腸男兒切不勝漆室之嘆故敢革荒唐之說以敘其略之泣而歌曰

唯我青年 同苦들은	忠君二字 準의合계
衣我食我 杼힘이며	産斯長斯 杼공인고
君禮臣患 뿔뿔흠은	古往今來 通誼로다
文明하던 리大韓	禮樂法度 壯할시고
百年五의 治隆호고	三千里의 土沃호니
化洽호은 리蒼生	巍巍聖德 위모루는
今日讀書 무엇하오	盡忠節目 講磨호세
長夜寒枕 잠을씨고	白日中天 빛기시셔
三角石의 精銳갈며	寒江水에 憤恨씻세
偷官竊祿 호지말고	見危授命 잊지마라
桂庭血竹 刀柄지여	佞革穢棘 비어너며
勉菴彩虹 浮橋지여	淫雨狂崖 씨러너세
우리學徒 團體되여	挽回權權 호여볼가
此時節은 何時節고	復國호야 忠臣이니
獨立自由 挽回호면	堯舜乾坤 이아닌가
太平煙月 康衢夜의	絶唱호는 忠君歌로
獻祝호세 獻祝호세	皇上前에 獻祝호세
如天聖德 無疆호사	萬歲萬歲 萬萬歲라

## 孝親歌 大菴作

此身이여 此身이여  
 父母遺體 바드시니  
 黃金白玉 좃타흔들  
 千鍾萬戶 좃타흔들  
 頂天足地 杼功인들  
 一出言과 一舉足の  
 此身이여 此身이여  
 父母哺抱 호오시니  
 千金裘와 八珍味로  
 此於吾親 불가호며  
 體健骨大 杼심인줄  
 一着衣와 一對飯에  
 우리同胞 兄弟들은  
 父母恩功 갑풀진딘  
 家之有無 말을말고  
 衣服飲食 썩를츠즈  
 扇枕溫被 호라거든  
 承順色養 호라거든  
 克諧以孝 호라거든  
 一時半點 놀지말고  
 此日一去 不再來라  
 人生百歲 舊沒中の  
 어화 우리 同志드라  
 百行中の 根源이오  
 忠君弟長 이노호면  
 어화우리 高堂白髮

重敬홀스 此身이여  
 劬勞之息 罔極하다  
 이몸보듬 더더重하랴  
 이몸읍심 貴홀손가  
 생각호오 생각호오  
 父爲母爲 잊지마세  
 重敬홀스 此身이여  
 養育之恩 罔極하다  
 衣我食我 호는스름  
 厚於吾親 불가호드  
 싱각호오 싱각호오  
 父爲母爲 잊지말게  
 一曲我歌 明聽호오  
 至誠으로 孝養호세  
 盡心渴力 周旋호여  
 無飢無寒 지공호게  
 漢黃香을 본바드며  
 曾夫子를 본바드며  
 虞舜氏를 본바드셔  
 至誠으로 孝養호게  
 父母白髮 두렵도다  
 事親홀썩 몇날인고  
 孝親二字 힘을씨세  
 五倫上的 綱領이라  
 立身揚名 절노되지  
 萬壽無疆 비러보세

兄弟歌 李友吉善作

一陣高群 彼鴈兮여  
彼徹物이 若此커든  
同本이여 同本이여  
ᄃ여보세 ᄃ여보세  
原隰求矣 ᄃ일스름  
榮華럽드 榮華럽드  
式相好矣 好色 ᄃ고  
兄의몸이 너몸이오  
食則同案 ᄃ여보고  
妻子好合 ᄃ온後의  
一家兄弟 旣翁 ᄃ면  
兄弟歌를 絶唱 ᄃ여

兄弟行列 分明 ᄃ다  
況乎人이 不如乎아  
우리兄弟 同本이여  
兄弟友愛 ᄃ여보세  
兄弟뵈게 쏘잇던가  
孔門爭死 榮華럽지  
患苦賊讐 惡鼻 ᄃ세  
弟의몸이 너몸이니  
寢則共被 ᄃ여보세  
兄弟旣翁 되리로다  
四海兄弟 推反 ᄃ디  
不愧鴈兮 ᄃ여보세

## 孝親歌 誠齋所作

어화우리 同胞들아	孝親 흔번 ㅎ여보세
父子有親 일너씨니	孝親 흔번 ㅎ여보세
父母업시 어셔느나	孝親 흔번 ㅎ여보세
愛之育之 ㅎ섯시니	孝親 흔번 ㅎ여보세
萬古聖人 大舜됨도	孝아니고 무엇인가
孔子가튼 大成됨도	孝經으로 傳授 ㅎ니
至德要道 이온인가	孝親 흔번 ㅎ여보세
그만못 ㅎ 식마귀도	反哺報恩 ㅎ옛시니
孝親 흔번 ㅎ옵시다	어화 우리學校덜라
洒掃應對 禮을잡으	昏定晨省 ㅎ여보세
日用三牲 孝아니니	承順色養 ㅎ옵시다
身體髮膚 傷치마오	立身揚名 쵸홀시고
推以事實 ㅎ계데면	以顯父母 그아닌가
推以事實 禽兔 ㅎ세	以顯父母 디홀손가
庸天因地 ㅎ여설낭	養親 흔번 ㅎ여보세
恨을마오 恨을마오	菽水之養 恨을마오
事親色養 ㅎ던이논	西河王延 그아닌가
八廚其甘 하던이논	隱居董生 그아닌가
예전스름 一日 養을	三公으로 不擾 ㅎ소
世上스름 無道 ㅎ야	不順屏親 ㅎ太일네
博奕飲酒 業을습아	惰其四肢 ㅎ옛시니
우리同胞 警戒 ㅎ여	孝親 흔번 ㅎ옛보세
어화 우리學徒더라	以孝事必 ㅎ옛보세



## 忠君歌 同

君臣有義 일루미니  
 君父업시 뉘메기느  
 治而教之 하여씨니  
 以德調業 大忠人은  
 以是諫非 하던이느  
 그만못흔 蜂蟻들도  
 忠君흔번 하여오시다  
 輔之翼之 禮을줍아  
 退思補過 하여다다  
 詔諛逢逝 忠아닌가  
 不變松柏 구둔마음  
 砲聲如雷 하더라도  
 赴湯蹈火 할지라도  
 예전忠臣 만컨마느  
 閔桂庭의 血竹느셔  
 崔勉菴의 義虹빛겨  
 엇지하여 姦細輩는  
 文明中華 엇지하고  
 어화 우리學徒드라  
 傳村四方 하더리도  
 萬仁遊賢 하여다가  
 爲相爲卿 自任하여  
 垂拱平章 우리皇帝  
 大韓獨立 절로되지  
 天下之人 引領하니  
 忠君歌를 高唱하여

忠君흔번 하여보세  
 忠君흔번 하여보세  
 忠君흔번 하여보세  
 伊尹周公 그아닌가  
 比干王蠋 그아닌가  
 君臣之義 分明하네  
 어화 우리同志들으  
 採順其美 하여보세  
 匡求其惡 하여보세  
 面折廷爭 하여보세  
 立節死義 하여보세  
 戰陣無勇 孝아닐식  
 有進無退 하여보세  
 大韓節死 빛도다  
 四時一色 푸르리고  
 白日青天 눅피췌다  
 貪權勢樂 하려다가  
 列疆奴隸 되엇는가  
 新舊學問 심씨설앙  
 不辱業曾 하여보세  
 器機製造 發達하세  
 事君澤民 하여보세  
 耕田鑿井 우리百姓  
 太平乾坤 이아닌가  
 願立願耕 말일손가  
 一國同胞 興起하계

## 隆師歌

어화 우리同志드라	隆師 흔번	헉여보세
君父一體 일우미니	隆師 흔번	헉여보세
教之導之 헉섯시니	隆師 흔번	헉여보세
傳道受業 헉섯시니	隆師 흔번	헉여보세
百世之師 되시니는	伯夷之聖	그아닌가
繼往開來 헉신이는	孔子大成	그아닌가
그만못흔 百그들도	先生 업시	안되니
隆師 흔번	어화 우리學徒드라	
洒掃應對 禮을줍아	愛之如文	헉여보세
師嚴道尊 일우미니	敬之如文	헉여보세
無犯無隱 헉여셔앙	服勤至死	헉여보세
春風坐了 헉던일은	明道 빛던	그씩로세
有體有用 헉던學은	安定先生	그아닌가
章句諸書 헉신이는	朱晦菴의	功이로세
我東先輩 거룩하다	예전聖賢	만컨마는
靜退粟沙 諸先生은	闡明斯道	하섯니
尊華大義 헉신이는	宋尤菴의	功이로세
詢詢余之 헉신말씀	誠心奉教	헉여보세
近來學術 怪異 헉여	人心蟲感	第一 일네
虛誕之說 밋지마오	功利之誘	賤함이니
似是其非 누알손가	先生之言	미드시오
어화 우리學徒드라	隆師 흔번	하여보세

## 新孝歌

語話語話 同胞드라  
 父母恩功 生覺흐면  
 非父母之 血肉이면  
 拊我鞠我 하섯시니  
 父母功德 갑죽흐면  
 天池間에 重흐기는  
 泰山갓치 놉흔恩功  
 父母恩功 生覺흐니  
 人之異於 禽獸者는  
 反哺흐던 彼鳥也여  
 三千之罪 許多컨만  
 嗟我同志 同胞드라  
 大舜曾子 本을바다  
 昏定晨省 흐려니와  
 養心志도 흐려니와  
 陸續懷橘도 하여보며  
 孟宗竹筍 王祥鯉여  
 萬物之衆 最貴로셔  
 不忘흐세 不忘흐세

孝親一歌 드리보소  
 仰心이고 嘆息일식  
 이너一身 何處生고  
 劬勞心力 흐엿도다  
 昇天이 罔極도다  
 父母박게 더重흐가  
 一朝一夕 갑흘손가  
 사러生前 갑흘손가  
 五倫三綱 잇심일세  
 羽族三千 孝島로다  
 罪莫大於 不孝일식  
 至誠孝親 흐여불가  
 父母生前 孝誠흐세  
 冬溫夏淸 흐여불가  
 養口體도 아니할가  
 子路負朱 하여보세  
 出天之孝 分明토다  
 不如鳥之 反哺乎아  
 孝親二字 不忘흐세

## 忠君歌

우리大韓 同胞드라	忠君一歌 드러보쇼
普天之下 다王土며	率土之濱 다王臣일다
康衢煙月 擊壤歌도	우리皇上 大德일식
億兆蒼生 사는功은	若非君德 伊誰功고
如此君德 잡즈흐면	寤寐不忘 이질손가
忠君흐세 忠君흐세	부디부디 忠君흐세
父母에게 極孝할리	人君에게 不忠홀가
忠臣道 非別無事라	求忠臣於 孝門일식
修身齊家 증잘흐면	忠君治國 아니할가
王蠋之言 本을바다	아모조록 忠君흐세
烈女不更 二夫흐고	忠臣不事 二君일원
一片丹心 작은마음	吾王前에 쏘다볼가
萬鍾祿을 누린후의	盡忠報國 흐여볼가
우리大韓 一天地로	
堯之日月 비취보고	舜之乾坤 되여볼가
우리皇上 德澤으로	堯舜之治 흐여볼가
傳說가튼 忠心으로	高宗가치 化흐볼가
夷齊가치 守節흐여	名傳千秋 흐여보세
富國强兵 忠君인가	陳善閉邪 忠君일식
布聖德於 無疆흐고	安生靈於 無窮흐세
忠與不忠 何處分고	欺君忠君 이아닌가
嗟我 同志들은	
亡秦事 跡懲흐여	覆宗絶嗣 말게흐세

## 龍仁明倫學校日記(原文)

李容鍵

日 記

大韓光武 十一年 丁未 二月 日始

龍仁 明倫學校 日記

二月 一日 壬戌 陽 先生主還 次遠近學徒 講某某 諸丈參席 聽講

二月 二日 癸亥 陽 鄭友德鎔 來校

二月 三日 甲子 陽

二月 四日 乙丑 雨雪交作 僧夕時 李友吉善 往于本第

二月 五日 丙寅 陽 是日 鄉校釋菜之辰 故齋任咸集 校中諸生 亦參祀

二月 六日 丁卯 陰 終日無事

二月 七日 戊辰 陽 李友喆秀 往于陽城升院

二月 八日 己巳 陰 水原陵洞居 金友福鉉從兄弟 入校

二月 九日 庚午 終日 細雨靡靡 草木 皆有崩動之氣 飛鳥構木爲巢 正是生物之時也

二月 十日 辛未 陰 日氣不調

二月 十一日 壬申 陽 以國債報償事 本校亦發通 而留學生諸益 各出義金

二月 十二日 癸酉 本校諸生 各持通牒 輪告一郡境內 余亦與宋時純 持學校通文 自西邊  
伊峴篤亭里李議官家 至竹田金奉弼家 其先生朴主事相翼氏 亦出議金一元 其學童五名 各出  
義金十錢 又至玄岩崔永甫家 永甫兄弟 合出六十錢 僧夕時 到蓀洞李青松家 因而留宿 與主  
人丈 夜久談話

二月 十三日 甲戌 陽合陰 朝後 自東幕谷南五衡將昌元氏家 與越村尹生員家 到台亭里  
安鍾祐家 主人與安亭洙 李碩士三人 覽通文後 相勸念 各出義金十錢 又自曲峴梨洞 至栖鳳  
洞尹氏家 得食午飯後 又至同里李參奉家 其令胤徹榮 亦出義金三十錢 其諸人 各出十錢受後  
卽至星卜洞李在五家 其先生李參奉源道氏 亦出義金十錢 曰斯金些少 以義受之 餘無數稱贊  
後 又至亭坪朴氏家 學生諸人 欲出義金 而次先生不在 爲念不出 余婁婁強勸 終不聽 日將欲  
有 纔到本篇[sic第]宿

二月 十四日 乙亥 陽 早朝後 與宋時純 卽入校 李友喆圭 與金友福鉉已到 小頃 金友鴻培 李友吉善且出

二月 十五日 丙子 陽 是日 卽靜菴先生祭享 故學伴諸益 欲參享祀 皆入深谷書院

二月 十六日 丁丑 陽 是日 講會于靜菴書院 本校諸益 皆參講 獨李友喆圭 金友鴻培 以病不得參

二月 十七日 戊寅 陽 午後 去[sic玄]<sup>140</sup>岩崔永甫 持義金三十五兩 而入校談話而去 李友喆議 又來談而去 先生主 乘昏 還次本第

二月 十八日 己卯 陰雨雪交作 暫止 李友喆赫入校 暫遊而去

二月 十九日 庚辰 陽 進士丈 白米一駄 輸于庫進家 眞[sic進]士丈 以兒患 不得入校云 昂曾智德 亦出于本第

二月 二十日 辛巳 陽 金友福鉉樁丈 糧米與衣服 持來

二月 二十一日 壬午 陽 是日 蒲谷巢雲洞私塾 學從朴昇燃 與學童 持義金百五兩 納于本校 廣州居 金參奉來校 與先生主 暫間談譚而去

二月 二十二日 癸未 陽 朝後 麻谷居 尹生員丈來 與先生主閑談而去 次鄭友禹鎔 來臨 又菱谷李兼承書札 來到本校 李友義善 自京城 來到 下馬碑朴童福興 次畢卷之禮 松餅盛設 而來 與校中諸益 善喫

二月 二十三日 甲申 晴而陽 東邊栢峴書塾 義金三十兩 使學徒權 送于本校 領受 尹童慶童 受學于本校 宋時純 以觀親之意 往于本第

二月 二十四日 乙酉 陽 今日 卽清明節也 風和日暖 正鳥獸孳尾之辰也 先生主聞姝氏訃音 行次于本宅 校中諸益 以校長問候次 往于菱洞李判書家

二月 二十五日 丙戌 陽 是日 寒食節 故鄭友德鎔 李友喆圭 與再從喆守 各出本第 又金友福鉉 與從弟正鉉 往于本家 余亦不參 春風所至 萬物欣欣 皆有喜色

二月 二十六日 丁亥 陽 誠齋[sic齋]丈 今見慘境 故金友鴻培 崔友秉均 以慰問次 往于葛川 而入校

二月 二十七日 戊子 微陽微陰 先生主行次于本宅 而還次 又宋友時純 來參 僧夕時 細雨靡靡

二月 二十八日 己丑 陰 乍雨乍晴 誠齋[sic齋]丈 騎馬而入校

二月 二十九日 庚寅 陽 鄭友禹鎔 搭乘汽車而上京

140) 원문의 오류는 그대로 적고 [sic]로 표기하고 바로잡았다.

晦日 辛卯 日騎沈陰 先生主行次于徐元錫家 誠齋[sic齋]丈 訪問于本倅

三月 一日 壬辰 終日大雨連 夜不絕 故我亦不得入校

三月 二日 癸巳 晴 是日 德成洞居 河智興 以受學次 衾枕與糧米輸 來本校 南陽居 李海菴丈來臨 與先生主 暫行鄉射禮 來聞學倅 則庫真 以身病死焉云 聞甚慘酷

三月 三日 甲午 朝雨午陽 是日 行鄉射禮 僉君子團會席 旨酒嘉肴 盛設而觥籌 交錯琴瑟 諸樂具奏 其靜清雅 如怨如慕 射中 本倅亦參 竟曰 湛樂 暮而後罷席 是日 適上巳日 又兼講會

三月 四日 乙未 陽 誠齋[sic齋]丈 往于本宅 午後 直洞居 吳浩然氏 與某某氏 彈琴離別曲 先生主使聖學 沽酒相歡以罷 東幕谷李文伯 以學校觀光次來 暫間談話而去

三月 五日 丙申 陽 終日無事 先生主 使諸益 酌定 作文工夫

三月 六日 丁酉 陽 金智德 出校 河智泓春仗 自京過路 入校而去

三月 七日 戊戌 陽 先生主往于李起祥家 與新村居李參奉泰翼氏 作伴臨校

三月 八日 己亥 陽 孟友灝述 與其伯氏 作伴而還家 着攝農務 務之故也

三月 九日 庚子 朝陽午陰 誠齋[sic齋]丈 騎馬而入校 先生主又騎馬 而行次于芝谷 李友喆圭春丈 入校 暫間談話而去 次何許筆商 來買墨一同而去

三月 十日 辛丑 陽 李友喆守春丈 來臨 言吾有訟云 午後 先生還 次麻谷尹錫珉氏來 言和風輕暖 萬和方暢 如此良辰 不可虛度也 願諸益 某日 携酒 登山賞花 臨溪而漁 以下青遊如何云 李起祥家 酒餅盛設 而請本倅丈 與先生主 又請誠齋[sic齋]丈 而盛遊 俄而 又請校中諸益 嘉酒嘉肴 接待頗厚 公州居 金一忠氏 率其弟子一人 入校 留宿 而卽上京

三月 十一日 壬寅 陽 誠齋[sic齋]丈 往于本第 朴參奉來臨 謁先生主而去

三月 十二日 癸卯 陽 鄭友禹鎔 往于本第而還 孟友致正 歷路暫入而去

三月 十三日 甲辰 陰 誠齋[sic齋]丈 入校

三月 十四日 乙巳 自朝至暮 大雨如注 晴後 物色益奇

三月 十五日 丙午 陽 是日 卽講日 故谷洞講生 咸集 本倅亦參席 聽講 午後 金福鉉 河智泓 兩友 各出本第

三月 十六日 丁未 陽 李友吉善 往于本第 午後 誠齋[sic齋]丈 與諸益 登歷妓山亭 壺酒軸詩 以觀三春之風景 乘昏而罷歸

三月 十七日 戊申 陽 深谷 安主事丈 入校 與先生 談話而去 次午後 何許老人 來臨

三月 十八日 己酉 日雨 終日無事

三月 十九日 庚戌 陽 鎮川居 筆工崔碩士 入校 宿昔而去

三月 二十日 辛亥 陽 李友義善 有何事件 卽上京 水原居 李喜哲 入校 與談話 而往于葛川

作文問題 心者一身之主宰 萬事之根本 而昏昧擾雜 則一身無主 萬事無綱 用何工夫 而能無昏擾之樂耶

心者는 何謂一身之主宰며 萬事之根本오 譬如鏡焉호니 本是箇明之物而但爲塵垢所弊 則不能照故로 必磨去塵垢然後其明을 可復也니 苦心無主宰根本則何能無昏擾之弊耶아 古語云天君泰然이면 百體從令이라호고 云心不在焉이면 視而不見호고 聽而不聞이라호니 耳目聲色之欲이 無非心之所欲也故로 先用正心工夫而心不妄動을 如盤銘所謂去惡을 沐浴其身而去垢호야 雖聲色美者라도 一不動念이면 心體專一而萬事不紊호야 明如鏡之去塵也호리니 豈有昏擾之弊者耶

三月 二十一日 壬子 陽 李友義善春丈 來臨 李友吉善 代其再從 往于下馬碑

三月 二十二日 癸丑 陽 午後 細雨霏霏 從日無事

三月 二十三日 甲寅 昨雨 連日 不晴 雨勢支離 令人難堪

三月 二十四日 乙卯 晴 李友義善 下來蒲谷 而屯田居 丁國燮 來臨

三月 二十五日 丙辰 陽 誠齋[sic齋]丈 往于本第 昨日 李友吉善 有忌 故往于本第 李友喆圭 春衣新着次 往于本第 金友鴻培 亦春衣新着次 往于廣州山雲 今日 吉善喆圭 兩友還

作文問題 流水何以不腐

夫山之不虧는 草木茂盛之故也며 戶樞之不蠹는 日日動作之故也니 苦山無草木則其何以不虧며 戶樞之無動作則其何以不蠹也리요 故澤水는 滯而不流故腐어니와 至於流水호야 는 流而不息故不腐호니 人之聰明精神이 亦如是焉호니 讀書에 先習明明德之工夫호야 如湯之盤銘所謂苟日新이어든 日日新호고 又日新호야 動靜語默之間에 勤勤孳孳호야 無少間斷則精神이 清明而如水之不腐호고 否則明者 復昏而而精神이 消沮閉藏호야 如澤水之腐호리니 願吾儕는 養心養情을 如流水之不腐와 戶樞之不蠹也

鴻培 暮抵本校 朴殷容朴文容 兩友春丈 課糧米一駄載來 與衣件本校 宿昔而去

三月 二十六日 丁巳 半陽半陰 朴殷容朴文容 兩友沽酒一壺 與諸益 歡飲 午後 驛洞 丁



博士佐燮 入校 言以訟事 入東軒云 僧夕時 筆商崔碩士 來宿昔而去

三月 二十七日 戊午 陽 早朝 何許人來 而問其去就 則勉菴先生護葬次 往于魯城云 崔友道均 受學次 入校 先生主 有忌 故往于本第 明日 欲行次于魯城 故朴文容宋時純 兩友倍行次 偕往

三月 二十八日 己未 陰 午後 雨 終日無事

三月 二十九日 庚申 陽 午後 誠齋[sic齋]丈 入校 講會于來朔 新院書塾 相約矣 先生主 行次于魯城後 不得如約 李喆圭金福鉉 兩友命送

四月 初一日 辛酉 陽 驛洞 丁進士丈 有訟 入邑路 臨校 鄭友官賓 有喪配云 聞甚警慘

四月 二日 壬戌 陽 金弘濟 金東圭 河智泓 諸友 衣服段着之意 各歸本第 校中諸益 往于水清洞官賓家 慰問而歸 聞則 河智泓家 課糧十餘斗 與南草一把 載來云

四月 三日 癸亥 陽 大菴丈 往于本第 終日無事

四月 四日 甲子 陽 鎮川白鶴洞居 韓斯文景錫氏 尋訪先生主次 入校而去 午後 玄巖居 崔永甫 受學次 入校 適值先生主 不在而去 河友智泓 還

四月 五日 乙丑 陽 誠齋[sic齋]丈 與校中諸益 川獵於葛川 午後 細雨靡靡 終日不晴 故因而留宿于誠齋[sic齋]丈家

四月 六日 丙寅 朝雨午晴 與諸益相伴 還校 洙蔭居 李承旨載允氏 往于其先生勉菴丈葬禮 上京之路 入于葛川 瞻拜朱子影禎 而去

四月 七日 丁卯 晴 金友福鉉 往于本第 校中諸益 龍珠寺觀光次 午後 往福鉉家

四月 八日 戊辰 陽 早朝 卽往于龍珠寺 觀金佛之形象 景概絕勝 各作風月一絕 午後 又觀隆陵 而歸路 逢洪友範華 問其去就 則吾亦龍珠寺觀光次 來此云 暫間敘懷 而又至陵洞福鉉家 宿昔

四月 九日 己巳 陽 朝後 與諸益 作伴卽還校 則先生主已還次 朴文容宋時純 兩友 已至

四月 十日 庚午 陰 午後 大雷雨 金進士丈 往于芝谷 先生主訪問徐元錫家 虎洞居 高碩士鼎鉉氏 學校義捐金 五元 持來 滯雨 宿昔而去

四月 十一日 辛未 陰 大成殿 積落 故本校有司丈 金教演氏 來使工匠 改瓦

四月 十二日 壬申 陽 午後 江原道鐵原居 崔斯文光烈 成烈兄弟 朴斯文憲植 諸丈來臨 夕後 序誦一篇

四月 十三日 癸酉 乍雨乍陽 早朝 誠齋[sic齋]丈 往于本第 孟友致正有家務 往于本第

四月 十四日 甲戌 陽 終日無事

四月 十五日 乙亥 陽 是日 卽講會 故本倅 與某某諸氏 亦參席 聽講

作文問題 瀆則不告 何謂則不告也오

卜之告不告이 亦在於心之誠如何耳니 非但卜筮上爲然이라 就學問上言之라도 亦然호  
니 學者 | 當勉力不怠호야 以實學問則教者亦欣欣然熱心告之어니와 若放心泛聽호야 再三  
學問則教者 | 亦不告호리니 故로 大學에 言心不在焉이면 視而不見聽而不聞食而不知其味  
라 호니 若心不在焉면 書自書我自我 | 니 可不察哉아 誠之所到金石可透라 호니 願吾儕는  
尊所聞行所知호야 銘心刻骨이면 誰不樂告以忠哉

四月 十六日 丙子 陽 宋友時純 衣服改着之意 往于本第 僧夕時 崔友道均兄弟 往于  
葛川

四月 十七日 丁丑 陰 金谷居 金參奉丈 來臨 與先生主談話而去 據近日新聞 則各大臣  
皆辭職疏云

四月 十八日 戊寅 或雨 或陽 或陰 或晴 或雷 日氣乖常 歸家時 中路蒙雨 而歸

四月 十九日 己卯 陰 守僕 貸學校錢 二十五兩 去

四月 二十日 庚辰 陽 是日 何許筆商 來賣粉楮三介而去 甫羅洞居 趙文衡 以受學次  
入校

作文問題: 勃等浮躁淺露 豈享爵祿之器耶 論小學 裴行儉

何謂浮躁淺露 則非享爵祿之器也오 夫人이 浮躁淺露 則事事物物에 豈得其沈靜珍重哉  
리오 又人이 不信不호리니 然而雖有才藝文名이는 何益於爵祿之器也 | 리오 故로 士之致遠  
先器識而後才藝호야 才德兼備然後에 爵祿을 可得矣리니 躁淺與沈靜二者之間의 可不察哉  
아 王勃與盧照隣駱賓王은 皆不得令長호되 唯楊炯이 以沈靜故로 得爲令長하니 裴行儉之言  
이 爲千秋浮躁者之所戒也歟고너

四月 二十一日 辛巳 陽 本倅丈 以風樂 以卜白蓮之遊 又請誠齋[sic齋]丈 諸益四五人  
偕行 宋友時純還

四月 二十二日 壬午 陽 誠齋[sic齋]丈 與諸益 還校

四月 二十三日 癸未 陽 是日 卽尹梅陰丈回甲 故請學校 以珍差盛設 接對頗厚 各作碎  
韻一首

四月 二十四日 甲申 陽 誠齋[sic齋]丈 有所關事 搭乘汽車 上京 李範九 入校 謁先生主而去 僧夕時 下東村半月里居 安亨達氏 宋碩士 來宿昔而去

四月 二十五日 乙酉 陰 午後 雷雨大作 雨雹交雜 此是 一國之災也

作文問題: 慎其獨 論

獨之慎不愼에 君子小인이 分焉하니 何謂也오 君子則雖隱微之中과 獨知之時라도 無一念不謹 而自謙者也오 小人則 爲惡於隱微之中 而詐善於顯明之時하니 是則自欺 而欺人이니 何益之有哉 리오 故로 人之視已 如見其肺肝然이라 又曰十目所視며 十手所指라 하니 雖獨處知之也라도 常如十目所視 十手所指之時 則豈有自欺之弊哉 唯聖이라도 罔念作狂이요 況於吾輩乎아 毫釐之差의 千里繆焉이라하니 可不愼哉며 可不懼哉아 譬如除草에 莫如拔茅하고 防水에 莫如塞源故로 爲善의 如好好色하니 益加精察하고 去惡의 如惡惡臭而去未萌이니 人莫不鳥喙之不可食과 與水火之不可蹈인마는 未知惡之當去 與善之當爲也하니 可勝嘆哉아 四非之來 如克大賊하야 兢兢業業 而快足於已 則德潤於身 而心體廣胖하니 可不愼獨乎

四月 二十六日 丙戌 晴 李友範九入校 昂曾入校 大菴往于本第

四月 二十七日 丁亥 或雨或晴 終日無事

四月 二十八日 戊子 陽 入校聞 則昨日夕後 徐元錫請學徒 以酒餅 待之云

四月 二十九日 己丑 陽 李起祥家有忌 故請學校 而以酒餅 待之

四月 三十日 庚寅 雨 是日 請沙峯丈 受講

作文問題: 豈以江南寡弱 無方寸之刃乎

刑貞魏王命使于吳時 吳王迎至都亭 候之 貞入國門下 不下車 而反有騎人之色 張昭責貞曰 吾君聰明雄烈之主也 不幸而屋身於爾國也 汝不知敬主之道 敢自尊大而若此不敬 爾恃大國而然歟 慢侮小國而然歟 今十步之內 不得恃汝大國 敬而聽之 吾國雖寡弱 帶甲百萬 且有周處射虎之弓 品蒙斬羽之劍 況無方寸之刃乎 古語云 主辱死臣 野有賢智之士 朝有忠烈之臣 當此主辱臣死之日 豈無制汝之權乎 禮無不敬 而法無不行 禮則敬之 可也 法則行之 可也 又非昇天入地之才 而一介曹丕之使 侮人國之主 而敢生覬覦之心 且依無厭之欲 似汝無禮者 不惟天下之人疾之 抑亦地中之思疾之 汝何處容之哉 徐盛 又不勝忿憤 涕泣橫流 江東將相之

忠烈高義 吾儕千秋慕仰也

五月 初一日 辛卯 或雨或陽 誠齋丈 自京城入校

五月 初二日 壬辰 終日雨

五月 三日 癸巳 朝雨午晴 校中諸益 各歸本第

五月 四日 甲午 陽 終日無事

五月 五日 乙未 朝陰午陽 先生主 誠齋丈 行次四隱亭 諸益五六人 偕往 聽講 乘昏而歸

五月 六日 丙申 陽 是日 川獵于妓山亭 以詩酒 竟日湛樂 本倅來參 少長咸集 暮而罷歸

五月 七日 丁酉 陽 今日 卽開校日也 金夏榮 以壯元禮 酒餅盛設而來 麻谷尹沙峯丈 梅岩丈從兄弟 俱來臨 朴殷容四從兄弟 自本第入校

作文問題: 請秦王擊缶論

以大凌小 理之常也 主辱臣死 義之常也 故秦王蔑視趙王 澠池之會 請趙王鼓瑟 王鼓之 相如不勝痛忿 復請秦王擊缶 王亦不肯 而左右欲刃之 相如髮豎膽掉 張目大叱 曰前日吾國之寶玉 王敢生妄 欲請易以十五城 奉璧而至 空取璧而不與城 是則欺人取物 恃強凌弱 而然歟 秦亦萬乘之國 趙亦萬乘之國也 由此觀之 則何捐於秦哉 今王請吾王遊 敬之以賓主之禮 可也 若此無禮於吾君乎 吾王鼓瑟 則王則擊缶 禮之當然 王不姑謝焉 王若不聽 相如雖鴛 有暴虎憑河之勇 五步之內 不得恃秦國之衆 王其察哉 爲人臣者 見君受辱 而豈徒偶然哉 死且不避 況畏鼎鑊之在前 刀劍之在後歟 秦王雖不悅 不得已擊缶 兩君各罷酒 秦終不能加兵於趙 相如之咆哮猛氣 於此可見 屈身於廉頗 而不與爭列 又觀先公後私也

午後 德洞居 李敏貴 受學次 入校

五月八日 戊戌 陽 玄巖崔泳溥 亦受學次 入校 午後 芝谷居 李殷稷 受學次 入校 先生主 以校長李道宰氏問候次 騎驢而行于菱谷

孟子論 夫百穀之中 五穀最美且好 而民之所食 而生者也 豈不如第稗乎 雖曰最美者 只在於熟不熟 如何耳 何也 天時之所和 雨露之所調 服田力穡 熟則已布 若不幸 而天時不和 雨露不調 蕪穢不治 而不熟 則反不如第稗之熟 豈穀之性歟 只在於人之力不力 如何耳 竊譬之玉者 雖曰寶 必琢磨而後 其光可求也 梓者 雖曰良材 必切磋而後 其器可用也 若玉不琢磨 則歟

瓦石無異 梓不切磋 則歟他木不異 故仁之熟不熟果 學問之熟不熟 言之亦然 大抵 吾人之所學 孔孟相傳之法心也 且所得乎天而本明者也 百家衆技之類 最美者 豈徒恃其美者 而不熟乎 以若大禹之聖 寸陰是競 況於吾輩乎 中庸云 君子不學 則已學之 必要其成 又曰 人一能之 已百之 推此心而勉力不怠 如盤銘所謂 苟日新 日日新之 又日新之 而無小間斷 然後 眞成功 則句也 若不然 而如爲山 九功虧一簣 中途而行 半途而廢 早不如他道之有成 又如五穀之不熟 不如第稗之熟 可謂前功可惜 何益之有哉

五月 九日 己亥 陽 先生主 還次 崔友道均兄弟 入校

鑿舟沈之積薪于門 劉錡

夫戰者死地也 國之勝敗存亡之機係焉 向也 兵法曰 陷之死地而後生 置之亡地而後存 故輕敵者 雖有司馬穰苴之勇 必死 是以鉅鹿之戰 項籍則沈船破釜 持三日糧而以示士卒之 必死之意 然後破强秦之衆而威振天下 韓信 則背水陣 而破趙軍 終成大功 由此觀之 則皆決死而後者 生也 錡雖不如二者之勇 擔當國家之重任 當此金奴擾亂之時 豈不一奮發哉 且順昌城厚糧 足可用武之地也 鑿舟沈之 積薪于門 如二者之破釜 背水然後 決死而戰 斬秃木之頭 而致之麾下 以報徽欽兩宗之厚恩 而名垂竹帛 則亦不倭哉 脫有不利者 則卽焚吾家 而不受辱於敵手 豈非丈夫之事哉

五月 十日 庚子 陽 午後 李友範九 往于本第

三過其門而不入

或有問於余曰 以若大聖禹三過其門 而不入 何也 余應之曰 三過其門 不入 無他 大抵爲天下者 不顧家 當此洪水 滔天浩浩 懷山襄陵之時 禽獸蛇龍之害 日益甚焉 萬民生死之命 且在朝暮 洪水之患 若此其急 豈其少弛哉 若傾國覆之後 上不救君父之命 下不濟萬民之命雖治水而成 何益之有哉 故雖有父母 不妨 先國而後家 故禹之治水也 八年 於外 三過其門 聞啓之口 + 孤口+ 孤泣而不入 惟惜寸陰 而日愆孜孜 決九川之水 而歸之四海 禹之用功 必如此艱難然後 人得平土而居之 雖百過其門 可入乎 由此觀之 則德被萬邦功 蓋百世也歟

五月 十一日 辛丑 陽 早朝 魚大善氏 來訪先生主 午後 前先生主 李生員丈來臨 竹山佐

田居 申鉉鳳 與鉉秀三從兄弟 受學次 入校 陽智大垈居 金東說 與趙童昌福 受學于本校

五月 十二日 壬寅 陽 釗峴居 學賓李都事丈來臨 少頃 行次于遠川婿家

五月 十三日 癸卯 半陰半陽 李都事丈 自遠川來臨

五月 十四日 甲辰 陽 金友鴻培春府丈 來臨

五月 十五日 乙巳 陽 此日 卽望講 故行相揖禮後 序誦一篇 罷講後 還省者五六人

五月 十六日 丙午 陽 李都事丈去次于本宅 午後先生主 誠齋丈行次于金夏榮家 問病而歸

五月 十七日 丁未 陽 鴻培春丈行次于本宅 金東說 以病往于本第

五月 十八日 戊寅[sic申] 陽

五月 十九日 己卯[sic酉] 陽 聞時毛則斷髮聲 藉藉云

五月 二十日 庚辰[sic戌] 早陰午晴 李友範九來讀

五月 二十一日 辛巳[sic亥] 早陰晚雨 可謂豐兆也

五月 二十二日 壬午[sic子] 陰 孟友頤述入校

#### 起復論

夫創鉅痛深者 其愈久愈遲 故三年之喪 本是天下通常也 自天子 以至於庶人 一是皆參之 以天道制之 以人情者也 禮之重者 莫過於此 豈可忽哉 雖曰 子生三年 然後 免於父母之懷 欲報萬一之恩 豈特三年哉 夫起復行公 三喪之前 雖有君命 不行 故若盛世無事之時 則君子敢奪情 若金革不避之時 若非其人不可避之時 則不得已 抑情循務 墨綬治事 俾從權於鞅韜 不當 有金寶之飾 禮之可也 故伯禽之征徐戎也 不得已 起復行公 以赴王之急 不起復行公 必如伯禽 可也 嗚呼 今之人君 不奪禮於苴麻 而若此重大三年之喪 從其利者 而安乎食 稱衣錦 是非救國家急 又忘父母之恩也 可勝嘆哉

凡天下之疲癯 殘疾 惇獨寡 皆吾兄弟之顛連 而無告者也 論

夫人物 各得乾陽坤陰之氣 而爲體 又得乾健坤順之志 而爲性 故以理言之 則乾坤者 吾之父母也 萬民者 吾之同胞也 萬物者 吾之儕輩也 帝王者 父母之宗子也 又以分言之 則萬物之生 唯人最靈且哲 而具四端 備萬善者 而各親其親 各子其子之殊 由此觀之 則理一而分殊 以理之當然 何嫌分之殊哉 凡吾同胞兄弟中 疲癯殘疾惇獨鰥寡 四者之顛連 無告者 天下之窮民也 文王發政施仁 先此四者 恤而保之 存而養之 所好相與好之 所惡相與惡之 儀如親兄弟

無異 使此窮民 有所樂也 而無恃强凌弱之弊 則可不樂哉

欲殲秦一也 荊卿曰 盜 子房曰 韓人 何也 論

蓋 以一段 報讐 言之 則當時 兩人之各欲殲秦 無一毫之差 而大義言之 則讐有大小不同者 何也 竊讐之 曹沫則 欲爲國報仇 以劫齊桓公 豫讓則 欲爲報仇 欲殺趙襄子 是則讐之 大者也 聶政漸離 則但以豪俠之氣 爲私恩所買 以報他人之讐 是則讐之 小者也 荊卿 以一介私怨 暗藏匕首於督亢圖 又得樊於期之首 以函盛其首 而後欲刺萬乘帝 而反爲被害 論其事 則聶政漸離之類 眞强盜之所爲者也 子房則 五世相 韓之喬木世家 不勝痛忿 而欲報仇復國 弟死不葬 而得滄河力士 狙擊嬴皇松 博浪沙中 論其事 則曹沫豫良[讓]之類也 日月精忠 春秋大義也 齊襄公 復九世讐 春秋大之 雖曰 殲秦一也 曰盜 曰韓人 松 此可知也

欲我與 誅齒者 袒右

夫國亂 思良相 家貧 思賢妻 何謂也 若亂而無良相 則其國益亂 貧而無賢妻 則其家益貧矣 故以潛王之事 言之 亦無良相 故也 齊之舉國 盡入於燕 而臨淄城中 日月昏昏 而將冥卽墨 野外 風雨急急而不晴 此誠存亡秋也 淖齒 以楚之救將 且委質爲臣 盡忠輔國 可也 欲與燕 分其地 反弑其君 而擢其筋 懸之廟梁 此萬古無雙之大逆不道也 不共戴天之讐也 王孫賈不勝孤臣泣血之悲 入市大呼 曰春秋之法 亂臣賊子 人人得而誅之 欲報先王之深讐 雖然腹爲灯 飲頭爲口 罪唯有餘 吉念及此 曷勝嘆哉 嗟 爾衆士 若與我 共誅齒 爾欲雪吾王之讐者 皆袒右而出 於是 樂從者四百餘人 逐殺淖齒 而分其肉 而雪先王之恥 立王子法章 然後 復桑鳩之遺墟 以繼太公之遺業 嗚呼 王孫賈之忠 爲人臣者 效則歟

灼灼園中花 早發 還先萎苑 魯公質

月滿則虧 日中則[移] 是天道自然之理也 故就事上言之 亦然 何者 事事物物 皆速成則速敗 晚就則長久 以園中之花 與澗畔之松 二者 觀之 園花早發 春風灼灼如燃 人皆受其妍光而玩之 不過十日 一夜風雨之所過 翻作泥上之壓 則玩者 亦稀少 而牛馬踐踏 澗松 則長帶春光 鬱鬱含翠 人皆慕其高節 而不忘過百年 霜雪之所過 一無枯者 何 人不慕仰 而牛馬 豈得踐踏哉 花則早發而先萎 故牛馬踐踏 松則晚翠而不枯 故人皆慕仰 由此觀之 則速成則速敗 晚就則長久 可知也 夫爵祿者 君之所以來賢臣也 豈得哉 登高必早 行遠必自邇 故君子之仕也 先修其身 後治天下 不修其本 而求其末 不務其始 而無其終 豈有是理也 學者當者 園中之

花 勿求速成之貴夫

代大匠斲 希不傷牛[sic手] 近思錄

大抵 天下之事 有始有終 各有其工而成焉者 不聞不用其工夫而能者也 治骨角者 先切以刀鋸 後磋以鑢錫 治玉石者 先琢以椎鑿 後磨以沙石 然後 能使滑澤 若不用工夫 豈知治之有緒 而益致其精哉 夫大匠 先用規矩準繩 雖構廣廈千間 斲之有序 如治骨角者之既切而復磋之 治玉石者之既琢而復磨之 有始有終 苟無其法 而代大匠斲 雖構茅屋一間 斲之無序 有始無終 而徒傷手而已 何異般[sic班]門之弄 斧愚公移山哉 竊比 學不優而登仕 何異於代大匠斲 希不傷手哉 子曰 四十而始仕 優遊涵泳 故仕者 如大匠之斲 以修身爲本 以治國爲末 道既成 然後仕 不至[sic傷]手之弊 可也 嗚呼 今之偷官竊祿者 始則揚揚自得 而後不免竄逐之罪 何者 學不優而登仕故也

義斧

夫義斧者 何謂而言也 義者 斷制裁割道之理也 斧者 斷制裁割道之物也 人之有義斧 如天道之有利 四時之有秋 天道 則有雨露霜雪之理 四時 則有春生秋殺之氣 然後 萬物成爲 天時永享 故億千萬事 無不以義成者 群疑滿腹 猶豫未決 則濟得甚事 鳳飛千仞 飢不啄粟 松貫四時 寒亦不變 以人之最靈者 不如鳥乎 雖有仁愛之心 無剛硬凌烈之義 則萬事 何所成哉 如其非義 一簞食一瓢飲 不可取也 如其義 千鍾萬戶 何可辭哉 故夷齊 採首陽之薇 而不食周粟 非其義也 大舜受堯之天下 而不以爲大其義也 義之所至 鼎鑊鋸刀 何是畏哉 斧之所擊 盤根錯石 豈有不滅者乎 嗚呼 吾儕 先克已斷欲 爲一身之主宰 小有不善 如孤軍卒遇強敵 舍死向前 壁立萬仞 滴水滴凍 無可東可南 半間不界 瞻前顧後 半上落下之弊 然後 萬事皆成 以此制事 何事不成 以此量功 何功不成 以義斧二字 爲齊家治國平天下之準的也歟

五月 二十三日 癸未[sic丑] 陽 是日 卽姑母夫大忘 故往于內從白南星家 暮而抵

五月 二十四日 甲辰[sic寅] 是日 卽祭日 故某某諸氏 俱參 進夕祭後 弔客滿堂 以酒餅待之

五月 二十五日 乙酉[sic卯] 陽

五月 二十六日 丙戌[sic辰] 陰 是日 僧夕時 還本校 因而宿

五月 二十七日 丁亥[sic巳] 雨 滯雨 不還省 而又宿



五月二十八日 戊子[sic午] 雨 午晴 誠齋丈 近日有弄璋之慶 向日往于本宅 是日 入校

五月二十九日 己丑[sic未] 陽 金鴻培春丈 自京入校

六月 初一日 庚寅 陽 今日 講會 故某某諸氏 參席 河智弘春丈 自京入校

六月 二日 辛卯[sic酉] 陽 河智弘 陪其春丈 往于本第 金弘濟 與東圭 往于本第 金友福 鉉春丈 糧米一駄 與杏柑子 輸來 趙友台衡 白米一駄 輸來 申友鉉秀 白米一駄 輸來 李殷植 春丈 訪門先生主而去

六月 三日 壬辰[sic戌] 陽 魚斯文大善氏 入校 須臾去

六月 四日 癸巳[sic亥] 陽 鄭友禹鎔春丈人 入校 少而去

六月 五日 甲午[sic子] 陰 金夏榮 多日病侵之餘 今入校 可喜

六月 六日 乙未[sic丑] 雨 終日無事

六月 七日 丙申[sic寅] 陽 金東說 向者 以病歸家 今日 與趙童昌福 伴作入校

六月 八日 丁酉[sic卯] 陽 舉校 以鑿井爲事 終日掘之 不得水 故役未畢

六月 九日 戊戌[sic辰] 陽 午後 水原栢峰居 徐參奉相春氏 以其子教育之意 今率而來

六月 十日 己亥[sic巳] 雨 甘露時注 可謂豐兆也

六月 十一日 庚子[sic午] 乍雨乍陽 鑿井四日後始畢役

久而敬之 晏平仲名嬰

何謂 久而敬之也 夫人無友 則不聞善言 故自天子 以至於庶人 未有不須友而成者 其分若疎 而所關爲至親 有益者三友 損者三友 損益二者 可不察哉 朋友之間 以敬爲主 以德輔仁 然後 方可謂之友也 然則 擇友 豈不勝已哉 君子之交 淡如水 小人之交 甘如飴 淡水則 至幾千年 流而不息 甘飴則 至於幾日 酸而不食 然則 君子之交 長 而 小人之交 短也 善哉 晏平仲 與人交 久而敬之 嗚呼 同志諸益 切磋琢磨 相勸 而戲謔輕薄 不爲 如人[sic入]芝蘭之室 久不聞其香 交友 必如晏平仲之久而敬之也歟

王庶幾改之 予日望之

大抵 湯武之王天下 而爲聖君 必有賢相良佐 聽其言 行其道之故也 若無賢相良佐 豈有如此聖君哉 故齊宣王 雖未及湯武 而用王天下之道 發政施仁 則豈不爲湯武之君哉 嗚呼 當是時 列國 次[sic以]富國強兵之術 爲主 以聖人之道 爲賤 秦用商鞅 楚魏用吳起 故孟子 以王天下之大道 道不得行于世 千里 見齊宣王 屢屢言及矣 宣王 不能用 浩然有歸志 出書三宿而

濡滯 尹士與人言 孟子 千里見王 不遇 當速去 可也 今出晝三宿而濡滯 是必于澤也 孟子 聞而言 曰尹士 惡知予之所欲哉 夫予之所欲 王後悔 而庶幾改之 日望之 豈以于澤哉 三宿而出晝 不忍舍王而去也 王若改之 則必反予 若聽吾言 行吾道 豈徒齊民安 天下之民舉安 豈不爲湯武之君哉 評曰 小人則 諫於其君 而不受 則必悻悻然 怒之 去 則窮日之力而宿 孟子則 三宿而出晝 王庶幾改之 日望之 聖人之寬仁大德 於此可見也

木顛 無爾屋 啄木鳥

木之千柯萬葉 本於根 水之千流萬派 本於源 木無根 其何以不顛 水無源 其何以不渴 嗚呼 今有餘半腹之古木 不啄欲顛 噫 彼啄木鳥 巢於其木 而反啄其木 木未顛 因謂之 安與鶯雀處堂 火及棟宇 不知禍之將及已 火未及子 母喉相樂 何異哉 忽然 一夕 風雨聽至 不特木顛 無爾屋而已 樓[sic棲]於其樹之他鳥 亦失巢彷徨 嗚呼 啄木鳥 嗚呼 啄木 休啄木哉 嗚呼 痛哉 當今時局 奸細輩之篡逆不渡 言之 百倍於啄木鳥 何者 次交外人鳥之強勢 仕於其君 而反害其君 與抱火 厝於積薪之下 而臥其上 恩[sic思]謂之安者 何異哉 豈特亡國敗家而已 一國之人 亦被其禍 而飄泊東西 論其罪 千斬萬戮 燃腹爲燈 豈雪一國同胞之痛忿哉 嗚呼痛哉

六月 十二日 辛丑[sic未] 陽 舉校 畢井役後 沐浴于南山下清溪而歸 午後 官谷居 丁博士佐變氏 以同苦次 入校 李友喆圭李友敏貴 各衣服改着之意 往于本第 向日 鎮川居 金友丕 學 入校

六月 十三日 壬寅[sic申] 陽

十年養士 其用在於一日

夫治世 無事之時 養士 何也 其用必在於後日危急之時也 國無長平之理 國無長亂之理 古往今來 天道之常也 是以國有養士 則雖有不虞之變 亦可禦也 若國無養士 而遭不虞之變 則何以禦之乎 雖平世無事之時 養士 不可避也 古昔 聖王之治天下 舍此養士 而何以治之乎 凡事豫定 則立 不豫則不立 城郭用兵 亦豫定 而所以圖後患也 孟子不云乎 鷄彘而食其肉 樹桑而[衣]其帛 若養士而無用 何以養之乎 養士於十年之久 用士於一日之急 由此觀之 養士之日多 用士之日少也 嗚呼 痛哉 此時 何時 弱肉強食 以大凌小之時也 今世界各國 我韓 最弱且小 而五百年宗社 幾在燒屋之中 二千萬生靈 將在漏[船]之上 此是 君辱臣死之日也 此將

奈何 嗟爾 十年養士丈夫 當死於邊 以馬革裸屍 豈在兒女子手中 而索飯乎 此日 此日 不再來 雖白刃交項 沸油侵膚 同心戮力 復宗社於屋未燒 濟生靈於船未漏 顯戮某某諸賊 而分其肉 謀[sic食其]肉 以雪君父萬一之辱 而使此一國 次作泰平世界 則豈不快哉 豈不樂哉 凡事周羅牽引 舍今不爲 則何日 雪君父之辱哉 嗚呼 衆士勉哉 勉哉 據近日新聞 則某某七賊 御狎于新條約 代理謝過三件事 威劫君父之說 頭骨爽然 不忍見 不忍言者也

六月 十四日 癸卯[sic酉] 旱氣太甚 百穀盡枯 將至大無 何日雨哉

六月 十五日 甲辰[sic戌] 陽 學校 往葛川誠齋家 以數盃酒 相勸 沐浴 終日遨遊 而乘涼 還校 夕後 安城結死會通文 末倒本校

六月 十六日 乙巳[sic亥] 陽 諸益數人 往于本第

六月 十七日 丙午[sic子] 陽 李敏貴本第 酒一壺 送于本校

聞五路兵起 坐小池觀魚 諸葛亮

丞相亮 新遭大喪 後主幼弱 三分天下 益州疲弊 此誠危急存亡之秋也 吳魏孟獲孟達 恙五路之兵 乘此孤弱危急之時 而蜂起 小不動念 徒觀小池之遊魚而坐 何也 夫英雄之處事 豈可忽哉 雖有危急之事 先思能禦之計 然後 以制危急之事 不思能禦之計 則何以制危急之事乎 夫戰者 有鬪智而勝者 未聞鬪力而勝者也 以孔明之高明忠節 聞五路之兵起 豈徒晏然坐小池上而觀魚乎 必深思無窮之策 欲制五路之兵也 若小不動念 而徒觀魚 何故 五月 渡瀘 深入不毛之地乎 如是然後 攘除姦凶 興復漢室 還于舊都 非孔明之忠 孰能如此乎

不愛錢 不惜死 宋史

夫錢者 人人之所愛者也 死者 人人之所惜者也 國家不幸 危急之時 非錢 何以足三軍之糧 不死 何以禦強之勢哉 是故 有國有君 然後 有財有生 若國破君亡 然後 雖愛錢 何處用之 雖惜死 何處 生之乎 小人則 終身守財死 而後漢之梁冀 晉之石崇 是也 杜哉 岳飛之言 善哉 岳飛之言 國之泰平 在於[不]愛錢 不惜死 二者 嗚呼 有宋衍城之亂 文臣不愛錢 武臣不惜死 何患乎金奴之強哉 嗚呼 今我韓 有百倍於金奴之強敵 幾至國破君亡之境 獨閔忠正崔勉菴不愛錢 不惜死 而杖義死節 其餘在位者 不啻愛錢 惜死而已 以挾外賊之強勢 窘辱君父 萬古 豈

有如此之大逆乎 嗚呼 同志諸人 不愛錢 不惜死 以赴君父之急

嘗瞻 天下之最難者 未有甚於復國 天下之難忘者 未有甚於亡國 如此最難 難忘者 豈致於一朝一夕之間哉 雖有不忘之冤 久則易忘 逸則易怠 故必銘心刻骨 苦身勞力 與士卒 同甘苦 豈無復國之理乎 兵書云 柔能制剛 弱能制強 彼雖強百倍於我 必如此勤苦而後 乘彼懈怠之時 而伐之 豈無不勝之理乎 句賤之於會稽之厄 有死之心 無生之樂 含冤忍痛 以敗亡餘卒五千人 保棲於會稽山 教養二十餘年 復國報讐之心 寤寐不忘 食不加肉 衣不重彩 而坐則臥薪 立則嘗膽 與百姓 同其勞而後 滅強吳 以雪會稽之恥 霸諸侯 以救周室之弱 其時 少有不死之心 而不嘗膽 豈雪會稽之恥 而霸諸侯

六月 十八日 丁未[sic丑] 陽 崔友道均金友鴻培 聞校長被捉 上京

六月 十九日 戊申[sic寅] 陽 金友福鉉與從弟正鉉自本第入校

六月 二十日 己酉[sic卯] 陽

六月 二十一日 庚戌[sic辰] 陽 崔友道均 往返 金友鴻培 在廣州山雲面 明日來云 僧夕微雨

六月 二十二日 辛亥[sic巳] 陰 午時量 霖雨滂滂而止 朝後 金友鴻培還 宋友時純 金東說還

至日閉關

至日閉關 何故也 大抵 天工 人其代之 而人之有善 而爲萬事 猶天之有陽 而生萬物也 天時人事 無不安靜 而後成焉 故陽未滿而動 則天道不成 善未至而動 則人道不成 此及順陰而固陽 若一下便出來 與事物滾了 豈不壞事哉 草木不斂其液 不能敷其榮 昆蟲不蟄 其身不能以振奮 是以 冬至之日 一陽雖動 而淨淨潔潔之氣 裂膚墮指 窮冬積之 無中含有 而生物之心 闐然而見 是則 天之靜養微陽 而欲生萬物也 故先王觀天道 閉關 而靜養微陽 以示人事之合天道 而善端甚微 莊敬持養 培養生意 深潛固密 無所泄之道 可不察哉 嗚呼 逆天者 亡 順天者 興 吾儕熱心學問 如天之藏陽而發散 先王之閉關 而以示其餘 無陽未滿而發散 善未至而動哉

豈吾之學 無以變 子平 代金履祥 許白雲

夫人如萬頃蒼波之不繫空 舟隨風 任意往來 東吹則東流 西吹則西流 然則易爲覆敗 豈

舟之性哉 故用舟者 必繫繫 滿載而後 有定處 無覆敗 人之於善惡 亦定處 故導之以善 則爲善 導之以惡 則爲惡者也 然則 教人而有定處 猶繫舟而有定處也 蓋人之初也 莫不有仁義禮智四者之德 有氣稟之所拘 人欲之所蔽而不明 若變化氣質 而勤學無間 則在我之明德 豈不復明哉 丹青雖好 非白不能乎 五味雖美 非甘不能和 故夫士之就學 猶五味之在和 醞醞既和則 酸醎頓變 古人士別三日 刮目相對 今子見我三日矣 小無變也 吾之學 無足變子而然耶 子無志學 問而然耶 夫工夫 非別件事也 日用事物之間也 今見 予之言辭動止 少無頓變 可知也 唯願 吾儕不知冰生於水而寒於水 青出於藍而青於藍之理 否 以此立志 日夕勤做哉

雖有惡人 齋戒沐浴 則可以祀上帝

夫祭祀 在於身至靜潔 不在於貌之妍美 至如上帝 雖有妍美之貌 而無致潔之誠 則可祀乎 雖無妍美之貌 而有潔之誠者 可祀也 古語不云乎 誠之所到 金石可透 雖有無鹽之醜惡 沐浴其身 而齋戒致潔 則可以祀上帝 而上帝居愔 雖有西子之美質 污穢其身 而齋戒不潔 則不可祀上帝 而人皆掩鼻 然則美如西子 未有不齋戒沐浴潔者 況乎 醜如無鹽 而有不齋戒沐浴而潔者乎 是以美者 則污而喪其美 惡人則自新而後 洗其惡 故美者 齋戒自潔而後 其美尤美 吾儕以所得乎天之本性 勿以善小而不爲 惡小而不爲 儕改過自新 如惡人齋戒其身 而祀上帝 不爲西子之污穢其身 而爲人之掩鼻哉

弔秦吉了

嗚呼 哀哉 再微雖物[sic爾雖微物] 能通人語 彗干鸚鵡 爾本中原之物 有節義而然歟 爾厭胡地而然歟 我欲賣爾而然歟 胡爲乎不食而死也 鳳雖云有節 但以飢不啄粟 彼鳥雖稱孝鳥 但以反哺其母 論爾高節 夷齊之餓死首陽 於汝 何加焉 千尋東海 魯連之躅 萬里天山 屬國之節 不幸而遇貧主 至於餓死 憾矣 憾矣 愚劣哉 此身卒不堪飢寒 而徒思多金 今爾餓死 愧哉 我之生 豈愈於爾之死也 裸蟲三百 人爲長 羽族三千 鳳凰爲長 我亦爲人 不辨華夷 鳳凰雖潔 亦不辨華夷 爾猶辨華夷 至死不去義哉 爾之死也 使我能爲戒之 爾眞爲戒之 爾眞爲人之所仰也 鳳凰之所長也 我都不敏 今爾已死 今雖悲痛 不能復生焉 得復見 安歸九泉 復改生於後世 而操如此節義 以助我國也歟

天生丈夫 豈偶然哉

天生丈夫 非偶然也 丈夫之所以爲丈夫 亦非偶然也 豈可逸遊荒醉 與草木同腐乎 然時

之人 名曰丈夫 而其實 反不如女子 女子專製衣服 供饋酒食 上奉父母 次供家夫 或有父死不去 此有事有節也 令之所謂丈夫者 閑居逸遊 以博奕飲酒爲業 上不顧父母之養 下不顧妻子之育 與朋友相對戲嬉度日 與草木同腐 豈不愧丈夫之名乎 重峰趙先生 於此深激 切發此語 豈可泛泛過之乎 吾儕生於此世 不爲女子 幸男子 豈可逸遊無事 卒與草木同腐耶 當勵志勤力 勤於學問 廣究義理 以舍[sic捨]生取義 四字 銘心刻骨 以一裁天下 使萬民開太平 爲立志 以成大業 然後 乃名丈夫 若不如是 反不如女子矣 豈不愧丈夫之名乎

#### 更開眼 語門人

夫臣之於君 猶魚之於水 木之於土 魚則 有水而後生者也 木則 有土而後生者也 水竭則 魚亦從滅 土壤則 木亦從亡 自然之理也 君辱臣死 自然之義也 夫國破君亡 爲人臣子 愛國厚恩而不死 非忠也 死而毀傷身體 非孝也 由此觀之 忠孝兼全 實難者也 雖有國破君亡之境 有復國濟民之策而死 亦非忠非孝也 無復國濟民之策而生 亦非忠非孝也 故夷齊 則終無復之策 故小無毀傷身體 而餓死於首陽 山房則 欲爲復國 狙擊秦皇於博沙浪 此數人 亘萬古之所罕睹者也 嗚呼 明運不幸 皇天不弔 國破君亡 劉宗周 以烈烈忠義 欲死守節 而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故遂絕穀不食 而欲死闔目 至於二十餘日 氣力精神 益強健 聰明於前日 故更開眼 語門人 曰人間無不食而生者 今吾欲餓死者 二十餘日而不死 是必天祐神助 將恢復大明之運 遂與其門人 欲倡義盡忠 扶明 終末復國 是則天運之不幸 而明運之不吉 非宗周之罪也 當初餓而欲死者 忠孝兼全之志也 每論此事 豈勝慨慷悲嘆哉

六月 二十三日 壬子[sic午] 雲 而霖雨 或注 或止 誠齋宅 玉林百餘介 入校 校中 甘喫

六月 二十四日 癸丑[sic未] 筆商崔書房 自京城下來云 城內有大端之戰 大韓兵丁 四百餘名 大砲之下 卽死 其皆逃走

六月 二十五日 甲辰[sic申] 陽 明日 卽師母主生辰 故孟友頤述 侍先生而歸家 夕後以餅 告祀于井

六月 二十六日 乙酉 陽 下午八點分 先生主還次 誠齋[sic齋]丈 往于本第

六月 二十七日 丙戌 陽

六月 二十八日 丁亥 或雲或陽 金友福鉉 正鉉 自本第而還 眞策一駄 持來 故學校均食 霖雨或注或止 雷聲甚急 電光顛顛 孟友頤述還 崔友永溥還校 李友吉善春仗 牟餅一簞 持來 故校中均食

六月 二十九日 戊子 雲

六月 晦日 己丑 或雨或陽

七月 初一日 庚寅 乍雨乍晴 是日 設講于下馬碑 魚斯文大善氏宅 本卒丈同參

七月 二日 辛卯 陽

#### 斷髮可與不可論

余閑坐 山窓下 忽有一人來訪 開戶而視之 雖身着洋服 而頭戴帽子 聞其語音 則及前日熟視之人也 其人說明斷髮之可 曰今世界名國 皆斷髮而後 開明發達호되 狽我韓不斷髮 坂列受各國之侮 內有野蠻之稱 如在春夢之中 而不覺 若使大韓一天地 一切斷髮 而開明 斷髮不亦可乎 以養論之 有髮之害百 無一利 夫腦頭者 精神之所會處 血脈之貫通 赴一身上 第一重地 束髮爲髻 以馬毛堅縛 精神迷散 血脈不通 是自作之藥 養生之害 豈有甚於此哉 由此觀之 則斷髮之利 有二焉 一是 開眼世界政治發達 而不受外人之壓制也 一是 一身養生精神聰明 而血脈貫通 頭飾益輕便 豈不斷髮 而從其利者乎

#### 不可論

余亦說斷髮之不可 曰君雖各國 皆斷髮 而開明 若埃及波蘭印度安南諸國 反而斷髮而亡何也 然則 斷髮而開明者 盡虛言也 我國 雖疲弊微弱 自今以後 上則公卿盡職事君 下則士民各盡其業 熱心團體 則彼雖強百陪於我國 我國 豈敢慢侮哉 髮之斷不斷 何關於國權宗社乎 若斷髮 而不開明發達 則畫虎不成 反爲狗者之類也 次鳥桓之汚俗 豈可區區效瀕哉 英美法德之開明富強 抑亦政治發達之故也 非斷髮之故也 庸愚哉 君言 若斷髮而聰明 山僧則益聰明 驍勇壽考可也 其聰明壽考 與有髮者 無異 何也 君但知外飾之皮開化 而不知其實徒亂人心者也 其人 默默不對而退





# 부록



## 용인향교 정관 및 제규정

### 龍仁鄉校 諸般規則

檀紀紀元 4335(2002) 2.28.

### 龍仁鄉校 定款

#### 第 1 章 總 則

##### 第 1 條: 名 稱

龍仁鄉校라 稱한다(이하 本 鄉校라 함).

##### 第 2 條: 所在地

京畿道 龍仁市 駒城邑 彦南里 335番地 (龍仁鄉校 內에 둔다.)

##### 第 3 條: 目 的

本 鄉校는 儒道精神에 立脚하여 道義闡明과 倫理의 扶植을 實踐하고 大道를 宣揚하여 社會秩序를 醇化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 4 條:

本 鄉校는 第 3條의 目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遂行한다.

1. 文廟의 維持管理
2. 儒教教義의 實踐과 研究
3. 儒林人口의 管理와 教育
4. 本 鄉校 附設 明倫大學 運營을 통한 儒教의 繼承과 傳播
5. 其他 目的에 附合되는 事業

## 第 2 章 儒林總會의 構成

### 第 5 條

儒林總會는 鄉校의 最高 議決機構로서 다음 各 號에 의하여 構成한다.

1. 鄉校 任員全員(典校, 掌議, 監查)
2. 儒道會支部會 任員全員(支部會長, 副會長, 總務, 監查)
3. 鄉校校區 內 各 읍면별 儒林 代表 5人 以內

단 鄉校의 校區는 용인읍, 포곡면, 모현면, 수지면, 구성면, 기흥면, 남사면

4. 儒林總會의 會員은 鄉校 校區內에 居住하는 者로 한다.
5. 儒林代表 選出 方法은 成均館長이 따로 定한다.

## 第 3 章 任 員

### 第 6 條

本 鄉校 任員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典校 1人
2. 監查 2人
3. 掌議 35人

### 第 7 條

任員의 選出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典校는 儒林總會에서 選出하여 成均館長이 任命 한다.
2. 掌議는 典校가 推薦을 하여 儒林總會의 議決를 거쳐 成均館長이 任命한다.
3. 監查는 儒林總會에서 選出한다.

### 第 8 條

1. 任員의 任期는 典校 3年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再任 할 수 있으며 前任者의 殘任 期間은 自動的으로 連任할 수 있다.

2. 如他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第 4 章 任員의 職務

##### 第 9 條:

1. 典校는 本 鄉校를 代表하며 鄉校內의 事務를 總括한다.
2. 掌議는 典校를 補佐하고 典校의 指揮를 받아 鄉校 運營에 任한다.
3. 監查는 本 鄉校의 歲入歲出 豫算 決算 其他 財産 管理를 監查하여 總會에 報告하며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 第 10條:

1. 本 鄉校 運營을 圓滑히 하고 第 3條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業務分掌을 둔다.
  - ① 儀典掌議: 文廟管理를 하며 一般儀典도 總括한다.
  - ② 總務掌議: 職印管守, 豫算編成, 決算報告書 作成, 文書 受發, 他部署에 속하지 않는 事項을 管掌하며 本 鄉校는 形便에 따라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 ③ 涉外掌議: 涉外 宣傳 弘報에 觀한 事務를 管掌한다.
  - ④ 幹 事: 本 鄉校의 幹事는 典校가 任命하고 鄉校 運營業務에 從事하며 本 鄉校는 形便에 따라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 第 5 章 會 議

##### 第 11條:

1. 本 鄉校의 會議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任員會로 區分한다.
2. 定期總會는 每年 1回로 하고 2月中에 開催하며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 ① 典校 및 任員 選出
  - ② 定款 財政 및 改定

- ③ 歲入歲出 豫算審議 및 決算承認
  - ④ 財産處分에 관한事項
  - ⑤ 任員會에서 議決된 事項
  - ⑥ 其他 鄉校 運營에 대한事項
3. 任時總會는 典校가 필요할 時와 掌議 10人 以上の 要求 時에 典校가 召集한다.
4. 任員會는 年 上下半期 2回로 하며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 ① 業務執行에 관한事項
  - ② 事業計劃의 運營에 대한事項
  - ③ 豫算 決算書의 作成
  - ④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 ⑤ 定款의 變更事項
  - ⑥ 財産管理에 관한事項
  - ⑦ 總會에 附議할 案件
5. 各種會議 議長은 典校가 된다.

第 12條:

- 1. 本 鄉校의 諸般事項 議決은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2. 可否 同數人 때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 6 章 財 政

第 13條:

本 鄉校의 財政은 基本財産 收入과 地方自治團體 補助金과 財團補助金 및 贊助金으로 充當한다.

第 14條:

本 郷校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일부터 12月 31日로 한다.

## 第 7 章 元老會議

第 15條:

1. 本 郷校에 重要 施策遂行을 諮問하기 위하여 元老會議를 둘 수 있다.
2. 元老會議는 元老委員으로 構成하며 元老委員은 郷校 典校, 儒道會支部長을 歷任한 者와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를 典校가 推戴하여 任員會議 同意를 얻어 委囑한다.
3. 典校의 諮問이며 議決權은 없다.

## 第 8 章 賞 罰

第 16條:

本 郷校運營에 熱과 誠을 다하여 열심히 參與한 者에 대하여는 任員會의 議決을 얻어 表彰하고 郷校運營의 名譽를 損傷 시키거나 諸般規定을 違反하거나 社會的 倫理道德的으로 指彈을 받을 事項이발생 된 者는 總會의 議決를 얻어 除名한다.

## 第 9 章 補 則

1. 本 定款은 檀君紀元 4333年(2000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 明倫大學運營規程

### 第一章 總則

第一條 (目的) 儒學理念에 立脚하여 人生教化 教育을 實施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名稱) 龍仁鄉校 明倫大學이라 稱한다.

第三條 (設置) 第一條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大學을 設置한다.

#### (1) 明倫大學

第四條 (位置) 本 大學의 事務所는 駒城邑 彦南里 335番地 龍仁鄉校 內에 둔다.

### 第二章 任員

#### 第五條 (選出 및 任員定數)

任員은 다음과 같이 두되 掌議總에서 理事와 監事를 選出하고 餘他任員은 理事長이 引選하여 掌議總會에서 認准을 받아야 하며 理事長은 典校가 副理事長은 儒道會 支部 會長이 當然職으로 한다.

- (1) 顧問.....若干名
- (2) 理事長.....1名
- (3) 副理事長.....1名
- (4) 理事.....8名
- (5) 總務.....1名
- (6) 幹事.....1名
- (7) 監事.....2名

第六條 (任務)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 (1) 理事長은 理事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運營한다.
- (2) 副理事長은 理事長을 補佐하며 理事長 有故時에는 理事長 任務를 代行한다.
- (3)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理事會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審議 決定 處理 한다.
- (4) 總務는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會務를 掌理한다
- (5) 幹事는 總務의 指示를 받아 會務를 處理 한다.
- (6) 監事는 本會 規律 維持와 經理事務를 監査하여 定例會議時 報告 한다.
- (7) 顧問은 會長(理事長)의 諮問에 應 한다.

第七條 (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補選者는 前任者의 任其間으로 한다.

### 第三章 會 員

第八條 (掌議總會) 會議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1) 定期總會는 每年 1月中에 開催하고 다음事項을 決議한다

- (가) 事業 計劃案 承認 (나) 豫 決算案 承認
- (다) 會則 改正案 承認 (라) 任員選出
- (마) 其他事項

(2) 臨時總會는 理事長이 必要 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掌議 三分之二 以上이 會議資料를 明示하며 召集을 要求 할 때는 理事長은 遲滯없이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第九條(定足數) 總會는 在籍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但 可否동수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갖는다.

#### 第 四 章 理 事 會

第 十 條 (構成) 理事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 한다.

(1) 典校를 當然職으로한 理事長인 議長과 掌議總會에서 選出한 九名 以內의 理事로 構成한다.

(2) 理事會는 다음 各號 事案을 審議 承認 한다.

가. 特別會計 豫算 및 決算審議

나. 教育事業 計劃 樹立

다. 規程의 變更事項

라. 各 決議된 狀況을 다음 會議時에 報告한다.

마. 會議錄에는 理事長 및 理事2名の 捺印이 있어야 한다.

第 十一條 (理事會定足數)

(1)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 贊成으로 決議 한다.

(2)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 議長이 決定한다.

第 十二條 (理事會召集)

(1) 理事會 召集은 議長 또는 議長職務代行 理事가 召集한다.

(2) 在籍理事 3分之2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議長은 遲滯없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 第 五 章 (大學의 運營)

第 十三條 (任免)

(1) 本 大學의 學長은 典校가 當然職으로 한다.

(2) 儒學의 專門教育 및 講師와 社會著名 人士를 學長이 招聘 한다.

第十四條 (學長)

- (1) 本大學 學長 1人和 副學長 1人を 둔다.
- (2) 學長은 學務를 統轄 하고 大學을 代表 한다.
- (3) 副學長은 學長을 補佐하며 學長 有故 때에는 學長의 職務를 代行 한다.

第十五條 (業務)

大學의 業務處理를 爲하여 總務部를 두고 部長 1名을 둘 수 있다.

第十六條 (修業其間)

- (1) 本大學의 修業其間은 1年으로 하고 每年 4月에 入學하고 同年 10月에 修了한다.
- (2) 教育日程은 每週 2回 以上으로 하고 每日修業日에 2時間씩 受講하기로 한다.

第十七條 (教育科程) 本大學의 教育科程은 다음과 같다.

- (1) 儒學(儒林의 姿勢)
- (2) 生活禮節(倫理道德)
- (3) 漢文指導(明心寶鑑)
- (4) 地域社會의 儒林 活動

第十八條 (入學資格) 各 儒道會員 및 成人 男女老少 不問코 典校가 認定하는 社會團體 및 個人 志願者中에서 選拔한다.

第十九條 (入學定員) 本大學은 學生定員을 各班 50名으로 하고 形便에 따라 增減할 수 있다.

第二十條 (入學節次) 本大學에 入學하고자 하는者는 所定節次에 必要한 書類를 提出하여 야 한다.

第二十一條 (修了證授與) 所定の 課程을 修了한 者에게 修了證을 授與 한다.

第二十二條 (徵收金) 入學金 및 授業料는 全額無料로 하며 受講時 必要한 教材代는 一部 徵收할 수 있다.

第 六 章 財 産 과 會 計

第 二 十 三 條 (資 産 의 區 分)

- (1) 財 産 은 基 本 財 産 과 普 通 財 産 으 로 한 다.
- (2) 基 本 財 産 은 全 無 狀 態 이 나 但 鄉 校 忠 孝 館 을 教 育 의 場 으 로 使 用 함 이 基 本 財 産 으 로 並 用 한 다.
- (3) 普 通 財 産 은 龍 仁 市 教 化 補 助 金 및 其 他 收 入 金 으 로 한 다.

第 二 十 四 條 (財 産 管 理)

基 本 財 産 과 普 通 財 産 의 運 營 管 理 는 典 校 (學 長) 가 責 任 管 理 한 다.

第 二 十 五 條 (經 費) 經 費 는 다 음 과 같 이 充 當 한 다.

- (1) 市 補 助 金 및 其 他 收 入 金
- (2) 特 志 家 의 贊 助 金

第 二 十 六 條 (會 計 年 度) 會 計 年 度 는 當 年 1 月 1 日 부 터 12 月 31 日 로 한 다.

第 七 章 (褒 賞)

第 二 十 七 條 (褒 賞)

- (1) 本 大 學 發 展 에 寄 與 한 功 勞 가 顯 著 한 會 員 및 社 會 人 士 를 褒 賞 한 다.
- (2) 品 行 이 方 正 하 고 學 業 成 績 이 優 秀 하 며 勤 勉 誠 實 한 學 生 에 게 褒 賞 한 다.

附 則

本 運 營 規 程 은 檀 君 紀 元 4335 年 (2002) 年 2 月 8 日 부 터 施 行 한 다.

## 儒道會 會則

### 第一章 總則

第 1條 本會는 龍仁鄉校 龍仁支部 儒道會라 稱한다.

第 2條 本會는 龍仁鄉校 所在地인 龍仁市 駒城面 彦南里 335番地에 두고 市·邑·面 單位로 支會를 둔다.

第 3條 本會는 儒教精神에 立脚하여 道義의 闡明과 倫理의 扶植을 實踐하여 修齊治平의 大道를 宣揚하여 社會秩序를 醇化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經營 한다.

1. 經典 및 學術研究 發表
2. 地方鄉校 및 儒林機關의 發展育成에 關한 事項
3. 教化 社會福祉事業에 關한 事項
4. 儒林研修 親睦에 關한 事項(別途會 組織)
5. 其他 本會 目的 達成에 關한 事項

### 第二章 會員

第 5條 本會 會員은 本會의 教旨에 贊同하여 登錄한 者로 한다.

但, 異教團體에 加入한 者는 本會會員이 될 수 없다.

第 6條 本會의 會員으로 加入하고자 하는 者는 所定の 節次를 畢하여야 한다.

第 7條 本會 會員은 다음의 權限을 가진다.

1. 議決權
2. 選舉權
3. 被選舉權

但, 本會 正副會長의 被選舉權에 限하여는 滿40歲 以上の 會員이라야 한다.

第 8條 本會 會員은 本會에서 定한 諸規程을 遵守하여야 한다.

第三章 任員과 任務 · 任期

第 9條 本會는 다음과 같이 任員을 두되 正副會長과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하고, 餘他 任員은 會長이 人選하여 總會의 認準을 받아야 한다.

1. 顧 問 若干名
2. 會 長 1名
3. 副 會 長 2名
4. 總 務 1名
5. 運營委員 5名
6. 監 事 2名

第 10條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運營 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는 副會長中 高齡者가 職務를 代行 한다.
3. 總務는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會務를 處理 한다.
4. 運營委員은 教化 및 道義宣揚 運動 教育 訓練 등을 管掌한다.
5. 監事는 本會의 規律維持와 會員의 審査 및 表彰·懲戒·復權에 對한 事項과 經理의 事務를 監査하여 定例會議時에 報告 한다.
6.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 11條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補選된 者는 前任者의 殘任其間으로 한다.

第四章 會 議

第 12條 會議는 總會 · 分期會 · 臨時會議로 한다.

1. 總會는 每年 1月中에 開催하고 다음 事項을 議決 한다.

- ※ 事業計劃 樹立
- ※ 豫決算承認
- ※ 會則改正
- ※ 任員選出
- ※ 其他 必要한 事項

2. 分期會議는 分期初月中에 開催 한다.

3. 臨時會議는 會長이 必要하다 認定할 때 會員 3分之1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監事 2人이 要求할 때 會長이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第 13條 會議는 會員過半數 出席과 出席會員 過半數의 議決로 한다. 可否同數일 때는 會長이 決定 한다.

第 14條 運營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會長이 召集 한다.

## 第 五 章 財 政

第 1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 1日부터~12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 16條 本會의 經費는 特別會費 · 贊助金으로 한다.

## 第 六 章 褒 賞 및 懲 戒

第 17條 本會 會員으로서 本會를 爲하여 功績이 顯著한 者は 議長團과 監事の 決議에 依하여 中央會 內申表彰 한다.

第 18條 本會會則에 規定된 事項을 違背하였거나 總會 決議事項 順應치 아니 하였을 때나 異敎團體에 加入 하였을 때는 監事로 監察케하여 如實이면 中央에 上申하여 除名 또는 解任케 한다.

第 19條 本會 總會에서 通過한 날로부터 效力을 發한다.

1996年 3月 2日부터 施行 한다.

1996. 7. 16 施行

1997. 9.22 1차 개정

## 儒道會 親睦會則

1996. 7. 16 制定

### 第一章 總 則

第 1條 本會는 龍仁支部 儒道會 親睦會라 稱한다.

第 2條 本會 事務所는 龍仁鄉校 內에 둔다.

第 3條 本會는 儒林 相互間의 友好 增進과 親睦을 圖謀하고 哀慶 相助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條 本會 會員의 基本資格은 龍仁 鄉校掌議, 顧問, 元老, 監事, 龍仁支部 儒教會 正·副會長, 總務(支部會 總務임)로 한다.

### 第二章 會員의 權利와 義務

第 5條 本會 會員은 아래와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1. 會員은 會則을 遵守하고 所定의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2. 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진다.

### 第三章 任員 및 會議

第 6條 本會 任員은 다음과 같이 두되, 會長, 副會長職에는 儒教會 龍仁支部 會長, 副會長이 自動으로 臨하며,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하고 其 任期는 3年으로 한다.

1. 顧 問 若干名
2. 會 長 1人
3. 副 會 長 2人

- 4. 總 務 1人
- 5. 監 事 2人

第 7條 (任員의 任務)

-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括 한다.
-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 時는 職務를 代行한다.
- 3. 總務는 會長의 指示에 依據 會務를 處理 한다.
- 4. 監事는 會費의 收入 支出 狀況을 監査하여 總會 및 定例會議時에 報告 한다.
- 5. 顧問은 總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推薦하며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 8條 (會議의 種類)

- 1. 總會는 每年 1回 1月中에, 定例會議는 分期初月에 하며,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臨時會議를 會員 3分の 1 以上 또는 監事의 要求가 있을 때 會議를 會長이 召集하고 會議를 主宰 한다.
- 2. 緊急을 要할때는 書面決議로 代할 수 있다.

第 9條 (定足數) 會議는 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前項의 決議權은 會員의 出席하는 다른 會員에게 書面으로 委任할 수 있다.

第 10條 (會費) 本會 會費는 會議費와 特別會費로 한다.

- 1. 會議費는 每會마다 10,000원으로 한다.
- 2. 特別會費는 中要行事 및 特別한 狀況이 있을 때 徵收한다.

第 四 章 總會 議決 事項

- 第 11條 1. 會則 改正에 關한 事項
- 2. 任員選出에 關 한 事項
- 3. 其他 事項





第 14條 本會의 事業年度는 1月 1日부터 12月末까지로 한다.

第 15條 會長은 定期 總會 20日前에 監査를 畢한後 定期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附 則

1. 本 회칙은 1996年 7月 16日부터 施行 한다.
2. 第 13條의 效力은 1997년 7月 17日부터 發生 施行 한다.
3. 本 會則 第 12條 2, 3 4項은 1997年 9月 22日 4/4分期 定期會에서 滿場一致로 改正하였다.

## 獎學會 規約

(1992. 6. 3.제정)

- 第 1 條 本 獎學會의 名稱은 龍仁鄉校獎學會라 稱하고 事務所는 龍仁鄉校에 둔다.
- 第 2 條 本 獎學會는 龍仁鄉校官 內 (龍仁邑 浦谷面, 慕賢面, 水枝面, 駒城面, 器興邑, 南四面) 內에 居住하는 儒道會員으로 構成 한다.
- 第 3 條 本 獎學會의 基金은 會員 또는 特志家의 贊助金으로 充當한다.
- 第 4 條 本 獎學會는 會員 또는 會員子女의 獎學 또는 學術研究 教養書籍 刊行 等 儒道 普及 昂揚을 目的으로 한다.
- 第 5 條 平會의 會計年度는 陰曆 8月 1日부터 翌年 7月 末日로 한다.
- 第 6 條 本會의 委員會를 두고 委員은 龍仁鄉校 典校 掌議, 儒道會支部長, 副支部長으로 構成 한다.
- 第 7 條 本會에 아래 定員을 둔다.
- 會長 1人(但 初代會長은 李英熙로 한다)
  - 副會長 2人
  - 總務 1人
  - 幹事 1人
  - 監事 1人
- 審査委員 7人 內外로 하고 典校 儒道會長 部長은 自動委員이 된다.
- 第 8 條 各任員은 委員會에서 選任하고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第 9 條 本會는 總會, 委員會, 任員會를 두고 總會는 年1回 秋期釋奠祭享日로 하고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會員 3分の 1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開催한다.
- 第 10 條 委員會 및 任員會는 隋時 必要 時에 開催 한다.
- 第 11 條 本會 運營上 必要할 때는 任員會에서 施行細則을 定할 수 있다.

第 12 條 任員의 任務는 아래와 같다.

會 長 :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 全般業務를 統轄 한다.

副會長 : 會長을 補佐하고 2人中 年長子가 會長 有故時 代行한다.

總 務 : 豫算, 決算, 經理, 一般業務 一切를 ○○ 한다.

幹 事 : 總務를 補助하고 會議 時는 會議錄을 作成 整理한다.

監 事 : 年 1回 定期的으로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고 必要 時에 業務監査  
를 할 수 있다.

審査委員: 獎學金 支給 對象者 選定 및 獎學 事業에 必要한 審査를 한다.

第 13 條 本會에 아래 ○○을 ○○ 한다.

1. 會員錄
2. 任員錄
3. 一般書類
4. 會計書類
5. 會議錄
6. 獎學生 臺帳
7. 其他 必要한 臺帳

## 용인향교 소장문서 목록

2017년 7월 17일 현재

연번	문서명	작성자	연도
01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1972
02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1989
03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1990
04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1991
05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1992
06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1993
07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1994
08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1995
09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1996
10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1997
11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1998
12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1999
13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2001
14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2002
15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2003
16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2004
17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2005
18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2006
19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2007
20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2008
21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2009
22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2010
23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1)	용인향교	2011
24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2)	용인향교	2012
25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2013

연번	문서명	작성자	연도
26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2014
27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2015
28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2016
29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용인향교	2017
30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1989
31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1990
32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1991
33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1992
34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1993
35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1994
36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1995
37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1996
38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1997
39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1998
40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1999
41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01
42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02
43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03
44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04
45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05
46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06
47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07
48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08
49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09
50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10
51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11
52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12
53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13
54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14
55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15
56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16

연번	문서명	작성자	연도
57	수지결산철(收支決算綴)	용인향교	2017
58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1994
59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1995
60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1996
61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1997
62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1998
63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1999
64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01
65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02
66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03
67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04
68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05
69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06
70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07
71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08
72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09
73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10
74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11
75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12
76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13
77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14
78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15
79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16
80	교육관계서류철(教育關係書類綴)	용인향교	2017
81	예규(例規)	용인향교	1972
82	석전홀기(釋奠笏記) (本,副)	용인향교	
83	제복착용법(祭服着用法)	용인향교	
84	용인향교증수및현황철(龍仁鄉校增修現況綴)	용인향교	
85	사무인계인수서(事務引繼引受書)	용인향교	1993
86	남사면소재위토건(南四面所在位土件)	용인향교	
87	비품대장(備品臺帳)	용인향교	

연번	문서명	작성자	연도
88	성금록(誠金錄)	용인향교	1994
89	전교인사대장(典校人事臺帳)	용인향교	
90	위촉장교부대장(委囑狀交付臺帳)	용인향교	2008년이후
91	각종서식	용인향교	
92	수료증교부대장(修了證交付臺帳)	명륜대학	2002년이후
93	유도회관계서류철(儒道會關係書類綴)	용인유도회	1971~79
94	유도회관계서류철(儒道會關係書類綴)	용인유도회	1979~81
95	유도회임원명부(儒道會任員名簿)	용인유도회	
96	유도회헌장(儒道會憲章)	용인유도회	1970
97	수료증교부대장(修了證交付臺帳)	용인유도회	2006년이후
98	유도회지부회장인사대장(儒道會支部會長人事臺帳)	용인유도회	
99	유도회헌장조직세칙(儒道會憲章組織細則)	용인유도회	
100	이력서철(履歷書類綴)	용인유도회	
101	구성유도회회원명부(駒城儒道會會員名簿)	구성유도회	2006년이후
102	여성유도회명단(女性儒道會名單)	여성유도회	
103	참고서류(參考書類) 13건	성균관	



## 용인향교 장서목록

조사기간: 2017년 7월 4일~7일  
조사정리자: 강남대학술조사원 이윤지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1	公州鄕校誌	李惠熙	公州鄕校	1999
2	淸州鄕校誌(上下)	吳昇植, 金悅經	淸州鄕校	1995
3	泰安鄕校誌	윤길상	泰安鄕校	2007
4	扶餘鄕校誌	尹弘德	扶餘鄕校	2007
5	燕岐鄕校誌	朴鍾寬	燕岐郡 燕岐鄕校	2008
6	溫陽鄕校誌	權泰臣	溫陽鄕校	2007
7	洪州鄕校誌	韓羽泰	洪州鄕校	2005
8	德山鄕校誌	李殷斗	德山鄕校	1990
9	定山鄕校誌	尹弘洙	定山鄕校	2002
10	通津鄕校誌	李河淸	通津鄕校	2002
11	禮泉鄕校誌	金玟榮	禮泉鄕校	2004
12	忠州鄕校誌	李庸信	忠州鄕校	1992
13	永同鄕校誌	金基成	永同鄕校	2015
14	安義鄕校誌		安義鄕	2009
15	求禮鄕校誌	李康漢	求禮鄕校	2008
16	連山鄕校誌	김선원	연산향교	2015
17	堤川鄕校誌	李喆源	堤川鄕校	2003
18	報恩鄕校誌		報恩鄕校	2003
19	永春鄕校誌		단양군청, 영춘향교	2012
20	沔川鄕校誌	尹重夏	沔川鄕校	2000
21	天安鄕校誌	尹汝鴻	天安鄕校	2009
22	錦山鄕校誌	錦山鄕校誌編纂委員會	錦山鄕校	2007
23	龍安鄕校誌	龍安鄕校誌編纂委員會	龍安鄕校	1997
24	珍山鄕校誌	朴贊雄	珍山鄕校	2013
25	海美鄕校誌	李鉉雄	海美鄕校	2004
26	永春鄕校誌	咸溶守	永春鄕校	1989
27	陰城鄕校誌	金敬浩	陰城鄕校	1988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28	盈德鄉校誌		盈德鄉校	1998
29	恩津魯城鄉校誌		恩津鄉校, 魯城鄉校	1998
30	富平鄉校誌	宋世求	富平鄉校	1990
31	鎭川鄉校誌	金柄天	鎭川鄉校	2012
32	結城鄉校誌	金東契	龍安鄉校誌編纂委員會	2008
33	黃澗鄉校誌	曹永鎬	黃澗鄉校	1991
34	安義鄉校誌	愼寅範	安義鄉校	1993
35	大興鄉校誌	朴大熙	大興鄉校	1993
36	延豐鄉校誌	慶錫鍾	延豐鄉校誌發刊委員會	1986
37	靑陽鄉校誌	李啓福	靑陽鄉校	2002
38	沃溝鄉校誌	高世坤	沃溝鄉校誌刊行編纂委員會	2002
39	禮山鄉校誌		禮山鄉校誌編纂委員會	
40	鴻山鄉校誌	金永淑	鴻山鄉校	2001
41	韓山鄉校誌	羅胃運	韓山鄉校	2003
42	丹陽鄉校誌		단양군, 단양향교	2010
43	光州鄉校誌	奇世樂	광주향교재단	2012
44	國譯 知川書院誌	金景梓	慶州金氏桑村公派宗會	2006
45	午渚書院誌	李淳熙	午渚書院	2006
46	龍洲書院誌	辛宇爽	龍洲書院	2008
47	華山書院誌	權五焄	해돋이	2002
48	巖谷書院誌	韓相宇	巖谷書院	2015
49	眉山書院誌		眉山書院儒會	1992
50	坡山書院誌	任聖彬	坡山書院	1994
51	月峯書院誌	조순	月峯書院	2011
52	江陵鄉校誌	金振天, 崔善邦	강릉향교	2009
53	東海鄉校誌	李象錄	東海鄉校	2002
54	襄陽鄉校誌	朴春燮	襄陽鄉校	1999
55	三陟鄉校誌	崔垞達	三陟鄉校	2000
56	麟蹄鄉校誌	李萬石	麟蹄鄉校	2014
57	杆城鄉校誌	김낙곤	杆城鄉校	1989
58	楊口鄉校誌	尹熙完	楊口鄉校	2009
59	杆城鄉校誌	金在元	杆城鄉校	1996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60	麟蹄鄉校誌		麟蹄鄉校	1996
61	喬桐鄉校誌	신봉균	喬桐鄉校	2012
62	富平鄉校誌	宋世求	富平鄉校	1987
63	迎勝書院誌	全炳瑞	迎勝書院	2013
64	畿內寺院誌	京畿道		1998
65	紹修書院誌		紹修書院	2007
66	彰節書院誌	李廷睦	彰節書院	2003
67	水谷書院誌	安昇圭	水谷書院	2001
68	方山書院誌	院誌編纂委員會	方山書院	1996
69	玉溪書院誌	玉溪書院		1994
70	平昌鄉校誌	金玉衡	平昌鄉校	2002
71	鐵原鄉校誌	金圭章	鐵原鄉校	1997
72	洪川鄉校誌	高光桓	洪川鄉校	2002
73	大靜鄉校誌	姜承善	大靜鄉校誌編纂委員會	2006
74	濟州鄉校誌	秦孟河	濟州鄉校	2000
75	文化柳氏忠景公派大譜(全五卷)	柳汀永	文化柳氏忠景公派大譜 編纂委員會	2003
76	全南鄉校文化史	崔泰均	全羅南道鄉校財團	2004
77	錦雲年誌	安商燮	韓國明倫會	2011
78	京畿道鄉學總監	羅基昌	京畿道鄉校財團	1999
79	京畿金石大觀	任仕彬	京畿道	1998
80	成均館儒道會 六十年史	변은섭	성균관유도회 총본부	2007
81	鎭安鄉校誌	李駙洙	鎭安鄉校	1989
82	同福鄉校誌	李商圭	同福鄉校	2002
83	樂安鄉校誌	宋基文	樂安鄉校誌編纂委員會	1991
84	高敞三鄉誌	羅弘燦	高敞三鄉誌編纂委員會	1991
85	光州鄉校誌乾	吳仁均	光州鄉校誌編纂委員會	2003
86	光州鄉校誌坤	吳仁均	光州鄉校誌編纂委員會	2003
87	茂長鄉校誌	朴東洙	茂長鄉校	2004
88	唐津鄉校誌	李殷昶	唐津鄉校	1993
89	高興鄉校誌	柳濟寅	全羅南道 高興郡 高興邑 杏丁里	2015
90	和順鄉校誌	崔相玉	相順鄉校	1999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91	綾州鄉校誌	梁東厦	綾州鄉校誌編纂委員會	1999
92	忠義土錄	盧地燮	社團法人光州, 全南忠義土顯彰會	1992
93	鎭安鄉校誌		진안향교, 진안문화원	2009
94	寧越鄉校誌	金形珍	寧越鄉校	
95	淳昌鄉校誌	淳昌鄉校誌編纂委員會	淳昌鄉校	2014
96	雲峰鄉校誌	金鍾成, 吳元鐸	雲峰鄉校	2014
97	潭陽鄉校誌	鞠淳豪	潭陽鄉校	1997
98	昌平鄉校誌	高在亨	昌平鄉校	1997
99	高敞鄉校誌	崔垆鎔	高敞鄉校	2005
100	興德鄉校誌	高錫相	興德鄉校	2004
101	同福鄉校誌	조주환	同福鄉校	2015
102	光陽鄉校誌	李丙斗	光陽鄉校	1995
103	谷城鄉校誌	丁宗杓	谷城鄉校	2005
104	玉果鄉校誌	沈在植	玉果鄉校	2002
105	康津鄉校誌		康津鄉校	2014
106	全州鄉校誌	李在龍	全州鄉校	2004
107	旻安鄉校誌	朴德載	旻安鄉校	2005
108	寶城鄉校誌	崔相典	寶城鄉校	2010
109	南原鄉校誌	金在昌	南原鄉校誌編纂委員會	1995
110	蘿州鄉校誌	崔泰均	蘿州鄉校	1993
111	麗水鄉校誌	丁壽吉	麗水鄉校	2007
112	咸陽鄉校誌	趙來洪	咸陽鄉校	2009
113	懷仁鄉校誌	禹快命	懷仁鄉校	2006
114	광양鄉校誌	鄭鉉武	광양향교	2009
115	靈光鄉校誌		靈光鄉校誌編纂委員會	2011
116	秦仁鄉校誌	李熙滿	秦仁鄉校誌編纂委員會	1996
117	井邑鄉校誌	李孟圭	井邑鄉校	2011
118	高山鄉校誌	沈壽哲	高山鄉校	2010
119	長水鄉校誌	朴喜穆	長水鄉校	2001
120	龍潭鄉校誌		진안향교, 진안문화원	2011
121	梁山鄉校誌	孫圭永	梁山鄉校	1998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122	彦陽鄉校誌	曹永道	彦陽鄉校	2006
123	義城鄉校誌	李柱洛	義城鄉校	1999
124	丹陽鄉校誌	文龍鎬	丹陽鄉校	2008
125	東來鄉校誌	東來鄉校	東來鄉校編纂委員會	2010
126	善山鄉校誌	金慶默	善山鄉校	2010
127	慶山鄉校誌(全)	徐智洙	慶山鄉校	2010
128	仁同鄉校誌	宋必珩	仁同鄉校	2006
129	楊州鄉校誌		楊州鄉校	2001
130	楊根鄉校誌	金裕哲	楊根鄉校	1999
131	砥平鄉校誌	李榮宰	砥平鄉校	1999
132	竹山鄉校誌	李鎮恒	竹山鄉校	2011
133	抱川鄉校誌	崔宗圭	抱川鄉校	2001
134	交河鄉校誌	柳演秀	交河鄉校	2005
135	新寧鄉校誌	朴敬源	新寧鄉校	2002
136	機張鄉校誌	機張鄉校誌編纂委員會	機張鄉校	2006
137	萬頃金溝金堤鄉校誌	金相培	萬頃金溝金堤鄉校誌發刊推進委員會	1996
138	蔚山鄉校誌		蔚山鄉校	1999
139	大邱鄉校誌	具璟會	大邱鄉校	1998
140	青松鄉校誌	沈明澤	青松鄉校	2010
141	昌原鄉校誌(全二冊)	昌原鄉校誌委員會	昌原鄉校	2004
142	高陽鄉校誌	李世濬	高陽鄉校	2007
143	交河鄉校誌	李圭煥	交河鄉校	1989
144	振威鄉校誌		振威鄉校	2007
145	加平鄉校誌		加平鄉校	2007
146	利川鄉校誌	羅基昌	利川鄉校	1999
147	漣川鄉校誌	金命濬	漣川鄉校	2006
148	驪州鄉校誌	崔賢重	驪州鄉校	1992
149	陽城鄉校誌	兪炳萬	陽城鄉校	2010
150	積城鄉校誌	洪性鳳	積城鄉校	2010
151	永川鄉校校誌		永川鄉校校誌發刊委員會	4335
152	慈仁鄉校誌	朴熙珠	慈仁鄉校	2002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153	禮安鄉校誌	權台淵	禮安鄉校	2002
154	漆原鄉校誌	周永寬	漆原鄉校	2002
155	蔚珍鄉校誌		蔚珍鄉校	2004
156	尙州鄉校誌	金正基	尙州鄉校	2001
157	興海鄉校誌		興海鄉校	2003
158	義興鄉校誌	洪淵守, 李戩萬	義興鄉校	2000
159	平澤鄉校誌	平澤鄉校誌編纂委員會	平澤鄉校	1985
160	披州鄉校誌	沈載賢	披州鄉校	1997
161	果川鄉校誌	鄭泰高	鄉校誌編纂委員會	1998
162	安城鄉校誌	金夏經	安城鄉校	2007
163	平澤鄉校誌	孔在奎	平澤鄉校誌編纂委員會	2006
164	金浦鄉校誌	趙東和	金浦鄉校誌編纂委員會	2004
165	大學·中庸	洪載坤	學民文化社	2008
166	江華鄉校誌(上下)	李書成	江華鄉校誌編纂委員會	2010
167	平海鄉校誌		平海鄉校	2005
168	龍宮鄉校誌(上下)	李世護	龍宮鄉校	2005
169	東萊鄉校誌		東萊鄉校誌發刊委員會	1997
170	河東鄉校誌	金商鎔	河東鄉校誌編纂委員會	2003
171	高靈鄉校誌	金騏秀	高靈鄉校	2002
172	晋州鄉校誌	李正大	晋州鄉校	1997
173	固城鄉校拾遺錄	許廷萬	固城鄉校誌編纂委員會	2003
174	咸平鄉校誌	李建豐	咸平鄉校	1997
175	咸安鄉校誌	李正均	咸安鄉校	2010
176	星州鄉校誌	呂相建	星州鄉校	2011
177	奉化鄉校誌	金圭東	奉化鄉校	2006
178	傑州鄉校誌	權商睦	傑州鄉校	2003
179	山淸鄉校誌	李奉雨	山淸鄉校	2010
180	金海鄉校誌(上下)	曹景容	金海鄉校	2007
181	河陽鄉校誌(全)	蔡光洛	河陽鄉校	2005
182	安東鄉校誌	柳東熙	安東鄉校	1992
183	淸道鄉校誌	李鍾億	淸道鄉校	1998
184	比安鄉校誌	禹昌龜	比安鄉校	2014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185	昆陽鄉校誌	姜浦德	昆陽鄉校	2015
186	昌寧鄉校誌(全)	河在榮	昌寧鄉校	2012
187	英陽鄉校誌		英陽鄉校	2012
188	巨濟鄉校誌	尹炳五	巨濟鄉校	2013
189	豊基鄉校誌	金鎭商	豊基鄉校	2013
190	寧海鄉校誌	南永式	寧海鄉校	2013
191	慶北鄉校誌	金相虎	慶北鄉校誌發展協議會	2013
192	軍威鄉校誌	鄭圭東	軍威鄉校誌編纂委員會	2004
193	密陽鄉校誌	李彦出	密陽鄉校誌刊行委員會	2004
194	漆谷鄉校誌	車鎭元	漆谷鄉校	2001
195	居昌鄉校誌	李在鮮	居昌鄉校	2002
196	南海鄉校誌		南海鄉校	1998
197	固城鄉校誌	諸明水	固城鄉校誌編纂委員會	2002
198	羅州鄉校誌	김평호	羅州鄉校	2016
199	進菴處士遺稿		觀瀾齋	2014
200	담당 송우용 선생 유묵집	담당송우용선생 추모사업회	시시울	2010
201	松山柯誌	의정부향토사연 구회		1997
202	龍西稿			
203	圃愜鄭周先生 事蹟集	鄭寅和	迎日鄭氏圃愜公波宗約 院	2001
204	義谷遺文	朴勝秉	義谷遺文刊行委員會	2007
205	主峰華稀壽稿	李在學		1998
206	咸從世稿(上下)	咸從魚氏文貞公 派宗親會		2001
207	泮宮風雅		光州鄉校	2005
208	敬慕齋落成紀念詩集(全)	姜茂成	敬慕齋推進會	1996
209	景陶齋先生文集	禹億基	仁山齋	1996
210	高陽市民族世居史	李永瓚	고양씨족협의회	2011
211	韓國名賢遺蹟	任文錫	大韓忠孝思想顯彰會	1982
212	姜必覆先生傳記	姜信唱	태화인쇄	2005
213	國譯車原規雪寃記	朴彭年	發刊委員會	1998
214	國譯蘭菊社詩輯	李雨燮	金海市廳	2005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215	黃溪集	張基德	刊行委員會	2003
216	濟州鄉校誌		濟州鄉校	1985
217	坡州儒林寶鑑	李圭煥	坡州文化院	1987
218	菊史文稿	李宗源	忠州儒道會	
219	譯註 明庵集	정식	와우출판사	2003
220	維石遺稿	曹仁鎭	昌平鄉校	2007
221	嘉隱集	최중규	포천鄉校	2000
222	春坡八句詩集	梁得承	信永印刷企劃	1998
223	立軒文稿	申鉉德	學古堂	2011
224	민충정공 유고	韓萬年	一潮閣	2000
225	慶尙南道鄉校誌	孫星模	慶尙南道鄉校財團	2011
226	眉山散稿	김건식	일광	2009
227	竹軒文集	金鴻烈	慶州金氏宗親會	1986
228	國譯松菴實記	朴煥珍	竹山朴氏忠顯公派大宗會	2002
229	石堂實紀	趙觀行		1998
230	葛川先生文集	林見鍾	恩津林氏大宗會	1994
231	圃隱鄭先生文集		迎日鄭氏圃隱公派宗約院	1985
232	河西全集(上下)		河西全集紀念 事業會	1988
233	履齋遺稿	趙鶴九	起鍾族譜社	1994
234	成均館儒林新報入選詩集	崔炳贊	奈提文化研究會	1996
235	慶壽集		全義李氏典書公派宗會	1990
236	野言記略	吳成根	羅州吳氏兵曹參議公宗中	2007
237	无極集(1,2)	梁海春	南原梁氏著存齋宗會所	1997
238	澤風當遺事錄	洪正杓	砥平鄉校	2002
239	圃隱鄭夢周先生事蹟集	鄭然澤	迎日鄭氏圃隱公派宗約院	2001
240	愚坡先生續集	李鍾夏	平和譜文社	1988
241	愚坡先生續集	李鍾夏	平和譜文社	1988
242	愚下遺集	高光斗	湖南文化社	2003
243	南川遺稿	曹秉晋	保文堂出版社	2011
244	旌節詞(沙川書院誌)	이두영	양주鄉校	2000
245	信齋集	李壽源	起昌族譜社	1997
246	成均館青衿錄(儒案)卷1	崔根德	編纂委員會	1997
247	韶園先生文集(上下)	同人學會	韶園先生文集刊行委員會	2010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248	雲卿文集	鄭洛瓚	編纂委員會	2010
249	孝節婦 咸陽吳東女 女士 德行讚揚 漢詩集	李炯南	열림기획	2004
250	全國漢詩白日場詩集	具璟會	大邱鄉校	1997
251	石山遺稿	李鏗	全州李氏讓寧大君派大宗會	1990
252	譯註樗軒先生文集	李千培	延安李氏譯註公派大宗會	1988
253	國譯宣城誌		刊行委員會	1993
254	河西全集(上中下)		紀念事業會	1988
255	國譯忠節祠誌	寶性鄉校	編纂委員會	
256	東園遺稿	丁海昌	羅州丁氏月軒公派宗會	1999
257	迎日鄭氏圃隱公派宗約院五十年史	鄭義哲	宗約院	2005
258	奎軒先生文集	金建中	雉岩宗中	1989
259	十清軒先生文集		記念事業會	1982
260	勉叟先生神道豎碑詩集	李鐘世	明星印刷所	
261	全南鄉校文化史	崔泰均	全南鄉校財團	2004
262	學語(乾坤)			
263	大丘月村丹陽禹氏文書	金炫榮	韓國古書學會	1994
264	彪村黃喜先生文集		長水黃氏大宗會	2001
265	蘇武平海吳公信男事蹟集	吳正元	平海吳氏嘉義公波門中	2002
266	南陽宋氏文獻錄	宋基喆	南陽宋氏文宗會所	1998
267	直齋遺稿	校曹仁鎭	昌平鄉校	2007
268	夢現李圭昌博士古稀紀念白日場 和韻	徐禎一	新亞出版社	1995
269	國譯敬齋先生文集	張志允	蘇山書院	2001
270	芝山 愼王鏞 孝行錄	白源宅	譜典出版社	2016
271	李世環將軍實記		光山李氏峙村派宗中	2006
272	景遠錄	李鍾寬	全義, 禮安李氏 花樹會 本部	1996
273	포천문화원의 10년	최중규	포천문화원	1996
274	牛峰李氏農齋公派門中寶鑑第二 輯	李仁寧	牛峰李氏農齋公派門中	1996
275	碧山集	孫龜植	新羅出版社	2005
276	상우당(尙友堂) 시집(時集)	許恒茂	陽川許氏忠貞公派親會	2010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277	結城張氏豎碑記	張基德	結城張氏東雲公孫宗親會	2001
278	安東의 鄉校와 書院	柳昌熏	安東地域鄉校書院發展協議會	2005
279	松齋遺稿		驪興閔氏忠貞公派松三宗中	2006
280	玄風鄉校記樸集	郭東厚	玄風鄉校	2005
281	韓國金石文全書(上下)	李昌世	亞細亞文化社	1976
282	竹軒集			
283	石蓮淵原錄	表相洙	採山齋	1989
284	耽陵君神道建立	李寬鎔	耽陵君神道建立推誰委員會	1985
285	廣州鄉校古文書集成 一輯	俞德穆	廣州鄉校	2014
286	杆城鄉校誌	高城郡杆城鄉校	江原道高城郡文化院	1985
287	西崗李公讚孝錄			
288	恥齋文公孝行豎碑詩集	卞廷煥	慶州韓國漢詩研究院	1987
289	明倫堂重建誌		義興鄉校	1987
290	野窩文集全			
291	花田詩集	蔡賢杓	花田以友會	1992
292	蘆山祠誌	朴善培儒會	蘆山祠	1999
293	東國八學士田來事蹟錄			
294	卞孝子清鴻家傳孝行錄			
295	全國漢詩白日場詩集	崔麟寧	水原鄉校	2009
296	기산록 -삶의 발자취-	이양구	정우DPC	2014
297	음애 이자와 기묘사립	정만조 외 3인	(주)지식산업사	2004
298	용인문화원 55년사	이종민	용인문화원	2010
299	유교문화유산탐방 배움여행 旅遊길라잡이	한범수	(사)한국관광학회 유교문화활성화지원사업단	2013
300	孝와 禮節	김선병	성균관유도회 경기도본부	2005
301	효행록	최창규	성균관	2002
302	청소년이 알아야 할 예절	成均館	成均館	2009
303	漢文으로 배우는 靑少年 忠孝禮	成均館	成均館	2009
304	일본문화사신론	홍윤기	한누리미디어	2011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305	한국의 명가 포은종가	홍순석	민속원	2014
306	韓國經營哲學	민정기	우삼	2016
307	세계 속의 한국정신	서정기	한국학술정보	2005
308	항일무장독립운동가 김혁	김학민	학민사	2002
309	笏記類集三卷			
310	선비마을 2006년 창간호		成均館 儒道會 總本部	2006
311	한글+漢字문화		全國漢字教育推進總聯合會	2006
312	기전문화예술	양인석	경기문화재단	1999
313	傳統文化	姜信沆	전통문화연구회	2008
314	南巢羅孟獻戲墨展		成均館 明倫堂	2002
315	개실마을과 점필재 김종직 선생	이명도	아카데미 문화	
316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학술용역보고서		경기도	2006
317	백촌 김문기 선생	조종업	백촌한국학연구원	2008
318	傳統文化	이계황	전통문화연구회	2008
319	實踐禮節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2008
320	老人生活	안필준	대한노인회	2007
321	성균관장 서정기 선생 도덕부흥대강연회	서정기	성균관 존경각	2014
322	우리가 지켜야 한다	邊瑠燮	成均官儒道會	2005
323	민중유교논총		동양문화연구소	2007
324	시현실	원탁희	예맥	2015
325	아름다운 우리예절	趙南喆	成均官儒道會 京畿道本部	2012
326	聖賢要訓	金淵雷	문진	2014
327	벽상갈화	한국효문화센터	디자인피싱	2012
328	도산書院 의절	金炳日	博約齋	2015
329	한민족의 사직대제	이근도	사직대제보존회	1998
330	韓國文化遺蹟總覽		韓國文化遺蹟總覽編纂委員會	2001
331	麥溪 崔氏, 函을 열다	최중수	과천문화원	2010
332	남강공 실기	권진택	남강공 실기 편찬위원회	2011
333	城南金石文大觀	南善祐	城南文化院	2003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334	地名由來集		京畿道	1987
335	鄉土遺蹟總覽		京畿道	1987
336	駒成面誌	송재권		1998
337	문헌소재고양관련사료집1	오수길	고양문화원	2007
338	羅州吳氏世蹟	吳正烈	羅州吳氏永成齋	1999
339	高興鄉校誌	金鉉棕	高興鄉校	1999
340	龍仁農協三十五年史	노용득	용인농업협동조합	1996
341	始興人物考		慕賢同志會	1985
342	江華鄉校誌	江華鄉校誌編纂委員會	江華鄉校	1986
343	日休堂實記	崔沫東	六義錄發行推進委員會	1987
344	奎軒先生文集	雉岩宗中		1989
345	族譜回想四十?史	回想社		1994
346	全南鄉校院宇大觀	全羅北道 鄉校團財	圓光大學校 鄉土文化研究所	1994
347	起昌族譜社		韓國漢詩協會	2001
348	儒道	徐一沫	성균관유도회대구광역시본부	2011
349	慶州儒敎文化遺蹟	이주덕	경주향교	2010
350	明倫	都鎬京	明倫誌編輯委員會	2006
351	韓國人物儒學史(1~4)	김인호	한길사	1996
352	存養齋 李季甸의 生涯와 行錄	申千滉	景人文化社	2001
353	성균관 정관 및 관련 규정집	서정기	성균관 총무처	2014
354	會議資料		成均館	2008
355	南海祠宇總覽		남해사우발전협의회	2014
356	우리의 生活禮節		成均館儒道會 京畿道本夫	2007
357	유교문화유산탐방	최근덕	성균관	2011
358	紀念事業白書	李原綱	퇴계선생탄신오백주년 기념사업후원회	2002
359	創立十週年記念詩集		陽川鄉校漢詩學會	2013
360	선비마을	邊瑤燮	成均館 儒道會 總本部	2006
361	실천예절개론	柳齋東	敎文社	1997
362	東圃集(卷之全)		李仁學	1992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363	白村 金文起 研究	金永高	東方圖書	1996
364	한권으로 읽는 사기열전	박효완	아이템박스	2013
365	일본 속의 백제 구다라	김재엽	한누리미디어	2008
366	한시백일장집록	심진황	황성문화원	1996
367	儒敎思想研究	崔根德	儒敎學會	1994
368	고사성어집	김상태	울곡문화사	1987
369	구다라의 향기(1~3)	김재엽	한누리미디어	2015
370	先祖가 남긴 漢詩集1	이정옥	평민사	2016
371	쉽고 흥미로운 용인의 문화유산	정찬민	용인시청	2015
372	용인역사문화지도	조길생	용인문화원	2015
373	명륜교재	최재성	경기도 鄉校재단	
374	선비문화	이성무	남명학연구원	2010
375	선비문화	이성무	남명학연구원	2010
376	선비문화	이성무	남명학연구원	2008
377	선비문화	이성무	남명학연구원	2008
378	선비문화	이성무	남명학연구원	2007
379	선비문화	이성무	남명학연구원	2007
380	선비문화	이성무	남명학연구원	2004
381	선비문화	이성무	남명학연구원	2011
382	선비문화	이성무	남명학연구원	2012
383	철들고 보니 백발이네	엄익선	동방출판인쇄	2011
384	忠貞公 鄭雷鄉 傳記		廣州文化院	
385	은행나무 숲길을 따라	안기열	한누리미디어	2006
386	文化柳氏忠景公派大譜(全五卷)	柳汀永	文化柳氏忠景公派大譜 編纂委員會	2003
387	鎭岑鄉校	李建正	鎭岑鄉校	2013
388	知足堂內外忠烈記	趙漢哲	진솔	
389	沙潭遺稿			
390	문헌소재고양관련사료집2	한학수	고양문화원	2008
391	鄉隱公遺事	密陽朴氏糾正公 派通政公門中		1995
392	東萊忠烈奈全國漢詩白	金泰瑀	東萊鄉校	1999
393	포천의 사·단·정려	최종규	포천문화원	1997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394	曉齋遺稿	會翊	春壽堂漢漠房	2010
395	霞川遺集全	高熙柱, 高光斗		2006
396	洛濱亭略	金宰顯	敦腔堂	2012
397	南城米壽韻帖	裴震基		1997
398	愛國志土 金永相		井邑文化院	
399	駒城農協三十年年史	김기선	구성농업협동조합	2005
400	國譯馮谷先生文集		雲巖書院	2005
401	柳巷先生詩集		유항사상연구원	2012
402	勤王泮宮日誌	任重護	人物研究所	1994
403	南山1000年大觀	김기식	상산김씨 대종회	2016
404	任實鄉校六百年史	윤鳳澤	任實鄉校六百年史編纂委員會	2015
405	儒教大事典	安鍾萬	博英社	1990
406	全國漢詩白日場詩集	朴源俊	水原鄉校	2015
407	명륜교재(明倫教材)	최재성	경기도 鄉校재단	
408	한 권으로 읽는 어린이 충효예	최창규	성균관	2000
409	한 권으로 읽는 청소년 충효예	최창교	성균관	2000
410	韓國忠孝思想과 國民精神教育	朴性洙	成均館	1979
411	雪嶽山永天菴과 三淵金昌翁先生	金道允	永嘉文化社	2005
412	受難略史	金錫源	成均館儒道會	1984
413	國譯校宮記輯錄	심윤중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414	寒閭當李裕堧史學叢書		모음출판사	1983
415	儒道寶鑑	李柄善	가나靑寫眞 出版部	2007
416	龍仁詩友會全集		龍仁文化院	
417	全國漢詩白日場詩集	崔麟寧	水原鄉校	2011
418	道德復興運動 資料集		成均館	
419	마을예절	서정기	성균관 존경각	2014
420	단계별 사자소학	成均館	成均館	2005
421	大學·中庸集註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1991
422	우리의 生活禮節	최창규	성균관 출판부	2002
423	청소년을 위한 생활예절	노병덕	성균관	1993
424	단계별 효경충경	최창규	성균관	2000
425	儒學教材		京畿道 鄉校財團,	1987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儒道會 京畿道本部	
426	예절일기	成均館	成均館	2005
427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예절서	成均館	成均館	2002
428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정낙묵	보리	1993
429	儒林便覽	成均館	儒道會總本部	1983
430	全國漢詩白日場詩集	崔麟寧	水原鄉校	2010
431	全國漢詩白日場詩集 追慕詩集	홍재구	용인문화원	2005
432	금광명경(金光明經)			
433	明堂	서정환	신아출판사	2006
434	全國漢詩白日場詩集	崔麟寧	水原鄉校	2013
435	磨學碑林	비림조성사	임영선	2013
436	세계 속의 한국예절	송영현	살림터	2004
437	四隱亭誌	趙炳玉	四隱亭保存會	2004
438	先覺者 柳巷 韓脩	한익수	유항사상연구원	2009
439	柳巷思想	한익수	유항사상연구원	2012
440	논어강설	서정돈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1
441	용인학길라잡이	이홍근	용인시민신문	2012
442	典禮要覽		淸權祠	1993
443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교사용 지도서	成均館	成均館	2002
444	용인사람 용인이야기	김장호	용인문화원부설 용인문화연구소	2012
445	서울市友	최병렬	서울특별시 시우회	2013
446	세계최고 선진용인		용인시 공보관실	2009
447	鄉校·書院 총람		한국관광학회 유교문화활성화지원사 업단	2014
448	청년유사 교육자료집1		한국관광학회 유교문화활성화지원사 업단	2014
449	유교아카데미/배움여행 '여유(旅儒)' 진행 鄉校·書院 선정공모		한국관광학회 유교문화활성화지원사 업단	2014
450	2014 유교문화활성화 운영지원	한국관광학회	한범수	2014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유교문화활성화 지원사업단		
451	(季刊) 儒林	성균관유교방송		2015
452	(季刊) 儒林	성균관유교방송		2015
453	유교문화체험 연수교재 어린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성균관장	문화체육관광부	2011
454	천년의 역사를 담고있는 鄉校·書院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유교문화 활성화 지원사업단	2016
455	배움여행 여유		문화체육관광부	
456	정도전의 사상	金煥根	예람	
457	名筆法書選集(45)	朴龍寬	雲林堂	1987
458	名筆法書選集(15)	朴龍寬	雲林堂	1975
459	한글판본체연구			
460	名筆法書選集(44)	朴龍寬	雲林堂	1987
461	名筆法書選集(2)-II	朴龍寬	雲林堂	1986
462	名筆法書選集(32)	朴龍寬	雲林堂	1987
463	名筆法書選集(9)	朴龍寬	雲林堂	1982
464	名筆法書選集(33)	朴龍寬	雲林堂	1987
465	名筆法書選集(5)	朴龍寬	雲林堂	1983
466	名筆法書選集(3)	朴龍寬	雲林堂	1975
467	名筆法書選集(4)	朴龍寬	雲林堂	1983
468	月刊書藝		미술문화원	2014
469	龍仁墨緣展	안병한	용인묵연	2014
470	第27回 碧山墨緣展	김창섭	벽산서예연구실	2016
471	大韓民國靜菴揮毫大展	정암 조광조 선생 승모 선양회	서예문인화	2016
472	月荷人朴術	趙成達	서예문인화	2013
473	제10회 대한민국주왕산서예대전	김수홍 외 등저	청문학당	2014
474	第25回 碧山墨緣展	김창섭	벽산서예연구실	
475	儒大誌	金南田	光州儒敎大學 總學生會	2013
476	월간 墨家		墨家	2006
477	나의 行草書로 본 四書와 道德經	許萬基	한국경제과학연구원	2005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478	詩書聖畫題選集	朴龍寬	雲林堂	1990
479	亞細亞文藝	宋炳勳	亞細亞文藝社	2010
480	단계별 사자소학	成均館	成均館	2002
481	아름다운 우리예절	趙南喆	成均官儒道會 京畿道本部	2007
482	유교문화체험 연수교재 학부모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성균관장	문화체육관광부	2011
483	어린이생활예절	노병덕	성균관	1993
484	우리의 生活禮節	최근덕	성균관 출판부	1997
485	古文眞寶大全(全二冊)	共載坤	學民文化社	1992
486	明心寶鑑	최상일	太乙出版社	2007
487	(배우며 실천하는) 사자소학	성균관 출판부	성균관	2004
488	儒大誌	李在瑄	光州儒敎大學 總學生會	2015
489	孝經大義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1996
490	東洋古典譯註叢書34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9
491	東洋古典譯註叢書33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9
492	東洋古典譯註叢書32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8
493	東洋古典譯註叢書31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7
494	東洋古典譯註叢書30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7
495	東洋古典譯註叢書29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6
496	東洋古典譯註叢書28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6
497	東洋古典譯註叢書27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5
498	東洋古典譯註叢書26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5
499	東洋古典國譯叢書23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1994
500	東洋古典譯註叢書12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1
501	東洋古典譯註叢書7-1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9
502	東洋古典譯註叢書7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9
503	東洋古典譯註叢書34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8
504	東洋古典譯註叢書5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7
505	東洋古典譯註叢書4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6
506	東洋古典譯註叢書3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5
507	東洋古典譯註叢書2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3
508	東洋古典譯註叢書1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1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509	周易 附諺解1	洪載坤	學民文化社	1998
510	書傳 附諺解3	洪載坤	學民文化社	1990
511	書傳 附諺解2	洪載坤	學民文化社	1990
512	書傳 附諺解1	洪載坤	學民文化社	1990
513	詩傳 附諺解3			
514	詩傳 附諺解2			
515	詩傳 附諺解1			
516	孟子 附諺解2			
517	孟子 附諺解1			
518	論語 附諺解3	洪載坤	學民文化社	2003
519	論語 附諺解2	洪載坤	學民文化社	2003
520	論語 附諺解1	洪載坤	學民文化社	2003
521	大學·中庸 附諺解全	洪載坤	學民文化社	2000
522	小學(全)	洪載坤	學民文化社	1990
523	韓國姓氏族譜(上下)		韓國姓氏族譜編纂委員會	
524	忠烈書院誌		龍仁文化院 鄉土文化研究所	2009
525	深谷書院誌	尹永基	深谷書院	2002
526	濟州儒教發展史	文泰秀	濟山印刷社	2013
527	국역 태학지(上下)	김경수	成均館	1994
528	春秋1	洪載坤	學民文化社	2000
529	春秋2	洪載坤	學民文化社	2000
530	禮記1	洪載坤	學民文化社	1990
531	禮記2	洪載坤	學民文化社	1990
532	禮記3	洪載坤	學民文化社	1990
533	禮記4	洪載坤	學民文化社	1990
534	成均館大學校 六百年史(人)	정범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535	成均館大學校 六百年史(地)	정범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536	成均館大學校 六百年史(天)	정범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537	東洋古典譯註叢書14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2004
538	東洋古典國譯叢書9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1998
539	東洋古典國譯叢書8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1998
540	東洋古典國譯叢書7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1998

연번	도서명	발행인	발행처	출판연도
541	東洋古典國譯叢書6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1998
542	東洋古典國譯叢書5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1993
543	東洋古典國譯叢書4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1993
544	懸吐完譯 論語集註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1990
545	懸吐完譯 大學·中庸集註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1991
546	東洋古典國譯叢書20	李啓晁	傳統文化研究會	1993
547	서당한문교재2	홍재곤	학민문화사	2007
548	서당한문교재4	홍재곤	학민문화사	2007
549	서당한문교재3	홍재곤	학민문화사	2007
550	서당한문교재1	홍재곤	학민문화사	2010
551	通鑑節要1	洪載坤	學民文化社	1999
552	通鑑節要2	洪載坤	學民文化社	1999
553	泗川鄉校史	尹有德	泗川鄉校	2016
554	文義鄉校誌		文義鄉校	2016
555	廣州古文書集成二輯	李揆錫	廣州鄉校	2015
556	忠州鄉校誌	金衡珠	忠州鄉校	2017
557	竹林先生文集			
558	月瀛堂文輯			
559	竹林先生文集卷十三			
560	松坪公文集			
561	2017문화제향교육 문묘석전의례	兪相根	楊根鄉校	2017
562	용인구성농협45年史	최진홍	구성농업협동조합	2017
563	봉래양사업유적대관	홍순석	포천문화원	2017

## 대한노인회 용인지회 임원 현황

(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용인시지부 연혁	
1967.07	용인면 경로회 발족
1981.04.29	(사)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용인군지부 인가
1996.03.01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용인시지회
2005.10.30	용인시 행정조직 개편(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2006.01.01	용인시 행정개편에 의거 3개구 지회로 조직 운영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용인시지부 역대 회장 명단			
구 분		성명	재임기간
용인군지부	1대	인용성	1981.11.28~
	2대~4대	라복용	1982.11.19~
	5대~7대	류종철	1991.03.02~
	8대	남용희	2000.04.01~
	9대	류강희	2003.04.01~
처인구 지회	1대~2대	류강희	2006.01.01~13.12.31
	3대	유충희	2014.01.01.~ <b>현 재</b>
기흥구 지회	1대~2대	이양구	2006.01.01~13.12.31
	3대	이수길	2014.01.01~16.10.13
	4대	조영재	2016.10.14.~ <b>현 재</b>
수지구 지회	1대	주기돈	2006.01.01~09.12.31
	2~3대	이경숙	2010.01.01~16.02.31
	4대	정지걸	2017.02.14.~ <b>현 재</b>

## 역대 용인군수 · 시장 현황

역대군수 명단			
대수	직명	성명	재직기간
1	군수	고주현(高周鉉)	1948. 01. 01-1949. 03. 01
2	군수	조병준(趙病浚)	1949. 03. 18-1949. 12. 30
3	군수	이하재(李夏載)	1949. 12. 30-1950. 06. 25
4	군수	김태근(金泰根)	1950. 06. 25-1950. 12. 25
5	군수	유인상(柳寅相)	1950. 12. 25-1953. 01. 15
6	군수	이승화(李承和)	1953. 02. 15-1954. 03. 16
7	군수	채민석(蔡民錫)	1954. 03. 16-1954. 04. 15
8	군수	박태근(朴泰根)	1954. 04. 15-1956. 04. 16
9	군수	이승열(李承烈)	1956. 04. 16-1958. 08. 09
10	군수	이주진(李州鎭)	1958. 09. 09-1959. 10. 23
11	군수	이규복(李圭復)	1959. 10. 23-1960. 05. 23
12	군수	한영수(韓英洙)	1960. 05. 23-1961. 04. 23
13	군수	정운창(鄭雲昌)	1961. 04. 23-1961. 07. 20
14	군수	천정근(千貞根)	1961. 07. 20-1962. 08. 01
15	군수	윤자순(尹滋舜)	1962. 08. 01-1964. 01. 31
16	행정사무관	장용순(張容淳)	1964. 02. 01-1965. 03. 26
17	행정사무관	김명식(金明植)	1965. 03. 27-1967. 12. 09
18	행정사무관	이상직(李相直)	1967. 12. 10-1968. 09. 25
19	행정사무관	문일수(文逸秀)	1968. 09. 26-1970. 01. 19
20	서기관	이건우(李建雨)	1970. 01. 20-1971. 08. 20
21	서기관	오호선(吳好善)	1971. 08. 21-1973. 05. 06
22	서기관	윤병하(尹秉夏)	1973. 05. 07-1976. 08. 04
23	서기관	계창희(桂昌希)	1976. 08. 05-1979. 04. 18
24	서기관	조동환(趙東煥)	1979. 04. 19-1980. 07. 30
25	서기관	박명서(朴明緒)	1980. 08. 01-1982. 05. 31

대수	직명	성명	재직기간
26	서기관	이재천(李在天)	1982. 06. 01-1983. 04. 10
27	서기관	최병호(崔炳鎬)	1983. 04. 11-1983. 12. 26
28	서기관	김상호(金相鎬)	1983. 12. 27-1985. 03. 10
29	서기관	송인식(宋仁植)	1985. 03. 11-1986. 03. 10
30	서기관	박계민(朴桂敏)	1986. 03. 11-1988. 06. 11
31	서기관	예강환(芮剛煥)	1988. 06. 12-1989. 10. 19
32	서기관	김학규(金學珪)	1989. 10. 20-1991. 01. 13
33	서기관	진용관(陳庸寬)	1991. 01. 14-1993. 03. 28
34	서기관	우종오(禹鍾五)	1993. 03. 29-1994. 01. 02
35	서기관	윤병희(尹炳熙)	1994. 01. 03-1995. 03. 28
36	서기관	이병선(李炳宣)	1995. 04. 12-1995. 06. 30
37	정무직(군수)	윤병희(尹炳熙)	1995. 07. 01-1996. 02. 9

#### 역대시장 명단

대수	시장	재직기간
1	윤병희(尹秉熙)	1996. 03. 01-1998. 06. 30
2	윤병희(尹秉熙)	1998. 07. 01-1999. 07. 20
3	예강환(芮剛煥)	1999. 09. 10-2002. 06. 30
4	이정문(李正文)	2002. 07. 01-2006. 06. 30
5	서정석(徐正錫)	2006. 07. 01-2010. 06. 30
6	김학규(金學奎)	2010. 07. 01-2014. 06. 30
7	정찬민(鄭燦敏)	2014. 07. 01-현재

## 역대 용인군의회 시의회의장 현황

용인군 · 시의회 의장 명단		
구분	성명	재임기간
용인군의회	남용희	1991.04.15 ~ 93.04.12
	이정문	1993.04.13 ~ 95.02.02
	조원행	1995.02.13 ~ 95.04.12
	구본설	1995.04.13 ~ 95.06.30
	장익순	1995.07.11 ~ 96.02.29
용인시의회	장익순	1996.03.01 ~ 97.01.10
	이재완	1997.01.30 ~ 98.06.30
	이정문	1998.07.09 ~ 00.03.24
	황신철	2000.04.07 ~ 00.07.08
	양승학	2000.07.09 ~ 02.06.30
	이우현	2002.07.03 ~ 04.06.30
	이우현	2004.07.02 ~ 06.06.30
	조성욱	2006.07.03 ~ 07.12.04
	심노진	2007.12.05 ~ 08.07.02
	심노진	2008.07.03 ~ 10.06.30
	이상철	2010.07.01 ~ 12.06.30
	이우현	2012.07.01 ~ 14.06.30
	신현수	2014.07.01 ~ 16.06.30
	김중식	2016.07.01 ~ 현재

## 역대 기흥구청장 현황

역대 기흥구청장 명단

구분	성명	재임기간
제1대	양진철	2005.10.31. ~ 2006.09.19
제2대	이계철	2006.09.20. ~ 2007.06.06
제3대	김동해	2007.06.07. ~ 2008.04.14.
제4대	안승덕	2008.04.15. ~ 2008.12.30.
제5대	김명진	2009.01.02. ~ 2010.12.30.
제6대	이병설	2010.12.31. ~ 2011.07.10.
제7대	이재문	2011.07.11. ~ 2012.12.20
제8대	김영명	2012.12.21. ~ 2013.07.30.
제9대	김도년	2013.08.06. ~ 2015.07.05
제10대	유봉석	2015.07.06. ~ 2015.10.04
제11대	김홍동	2015.10.09. ~ 2016.08.15
제12대	윤승호	2016.08.16. ~ 2017.01.30
제13대	박상섭	2017.02.08. ~ 2017.06.29
제14대	장경순	2017.07.10. ~ 현 재



## 지역과 상생하는 기흥농협

기흥농협은 조합원 및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상생의 사업으로서 지역의 구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는 영농자재의 환원으로 매년 2억 원 이상을 지원하여, 농가 영농비 부담을 경감 하고 있으며, 농기계 무상 수리 및 소농기계 무상 임대를 통한 영농기술 향상에 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농협 이용권 지급을 통하여 조합원의 실생활에 활기를 넣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다 높은 도약을 향하여 기흥농협은 끊임 없는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소로 지역 복지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조합원의 여가 활용에 보다 나은 삶의 선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약 20여 개의 생활강좌, 어학, 취미, 스포츠 등의 강좌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흥농협 한규혁 조합장은 농협을 이용해 주시는 모든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농협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슬로건을 통하여 기흥농협이 조합원과 고객에게 멘토의 역할로서 상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는 기흥농협을 종합업적평가 1위의 명예와 2017년도 농협 창립56주년 총화상을 수상하여 기흥농협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꾀하고자 농협 여성대학을 운영 하고 있으며, 현재 23기까지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약2,300명의 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은 수료생들의 자율 운영을 통하여 여성대학 산악회 및 지역 복지단체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로청년회, 마라톤 동호회, 향토문화의 융흥농악대, 농협 유소년 축구대회, 농협컵 축구대회, 농협조합장기 게이트볼대회, 줌마텔라 축구단 운영에 적극 지원하여 지역과 조합원과의 하나 된 결속의 구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며 모두가 행복한 농협을 꿈꾸며” 기흥농협은 지역 주민과 조합원과의 열린 경영을 통하여, 항상 사랑받는 농협으로 뛰고 있습니다.

역대 기흥농협조합장 명단		
초대~2대	조철원	1969.10.31~1976.03.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개리 리동조합 합병 -&gt; 용흥단위농업협동조합</li> <li>○종합시설 신축 (사무실 및 연쇄점,예식장 - 2층 174평)</li> <li>○비료(양곡)창고 신축</li> <li>○고매연쇄점 분점 개점</li> </ul>
3대~5대	한영희	1976.03.09~1985.03.08
		○자립봉사조합으로 승격
6대~9대	김용기	1985.03.09~1997.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시설 신축이전(신갈리 60-10,542평)</li> <li>○신갈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변경</li> <li>○자매결연-양평지체농협, 부남농협, 기아서비스,신갈라이온스클럽</li> <li>○갈천지소,구갈지점 개점</li> </ul>
10대~13대	김종기	1997.11.24~2015.0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천지점,고매지점,녹원지점,한일지점 개점</li> <li>○경제사업장이전(보라리), 보라지점으로 명칭변경</li> <li>○갈천지소를 강남지점으로 명칭변경 및 이전</li> <li>○상호금융예수금 5천억 달성</li> <li>○기흥장례식장, 강남병원 협력체결</li> <li>○신축청사로 이전, 기흥농협으로 명칭변경 (보라동 418-12)</li> </ul>
14대~	한규혁	2015.03.2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금융 6천억 달성</li> <li>○여주 점동농협 자매결연</li> <li>○한림대학병원 협력체결</li> <li>○제56회 농협중앙회 총화상 수상</li> <li>○2016년도 도시형농협 3그룹 1위 달성</li> </ul>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구성농협

“초심(初心), 농심(農心), 민심(民心)을 가슴에 새기고 농업인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구성농협은 1957년 설립한 동변리(청덕리, 상하리, 중리, 동백리)농업협동조합과 구성리(보정리, 언남리, 마북리, 죽전리)농업협동조합을 합병하여 1970년 4월 20일 구성농업협동조합으로 창립 발족된 이후 어언 4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시간들은 오늘날의 구성농협이 있게 한 근간인만큼 지난 48년 우리농협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100년의 미래를 희망차고 슬기롭게 준비하려 합니다.

이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최고의 농협, 농협다운 농협”이라는 위상과 발전이 있기까지 지난 48년 동안 우리 구성농협과 언제나 같이하며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1,485여명의 조합원님과 임직원 그리고 21만6천여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원로 조합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48년 전“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보릿고개 시절의 어려운 형편에도 성심성의껏 정성을 모아 협동조합운동에 동참하였고, 우리 농업, 농촌의 어려웠던 실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협동조합운동 전개를 위해 불철주야 발품을 아끼지 않고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한 조합원님과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존경을 표하며, 이러한 희생이 있었음에 오늘날의 구성농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구성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상호금융 여·수신 금액 8천여억원을 돌파하고, 5천7백억원의 자산 규모로 성장 발전하였으며, 특히 함께 나눔 사회공헌 대상 2년 연속 수상으로 구성농협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오늘날 세계화에 따른 금융시장 및 유통시장의 개방과 지속적인 FTA체결 및 국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소비자 심리 위축 등으로 우리의 농업과 농촌경제의 전망은 아직

도 암울한 환경에 처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성농협은 새로운 패턴의 고난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새로운 환경에 변화하고 적응하는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제학자의 말과 같이 우리 농협도 하루하루 변화해가는 환경 속에 지금까지의 영예만을 생각하며 버틸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우리농협 창립 48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재평가함으로써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여야만 할 시기임을 절감합니다.

구성농협은 농업인 복지 및 실익지원과 지역주민들과 함께“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 새가치 창조! 구성농협”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새로운 사업성장 동력을 마련하며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고 도시형 협동조합의 혁신적 모델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대 조합장 현황〉

구 분	성 명	재직기간
초대 ~ 2대	윤 용 운	1970.4.20.~ 1976.7.15.
3대 ~ 4대	조 희 원	1976.7.16.~ 1982.7.15.
5대 ~ 8대	박 지 영	1982.7.16.~ 1982.7.15.
9대 ~ 11대	김 기 선	1994.1.18.~ 2006.1.17.
12대 ~	최 진 홍	2006.1.18.~ 현 재

## 용인향교 휘보

연도	일자	내역
1400	정종2년	용인향교 건립
1471	성종2	용인향교의 동료들에게 편출당할까 두려워 박유의 훈서를 위조했다는 사건을 문초함
1490	성종21	영릉을 배알하고 여주·이천향교에 각각 쌀 30석을, 용인향교에는 20석을 내려 주어서 유생들의 학과를 권장하는 바탕으로 삼게 함.
1528	중종23	영릉을 배알하고 환궁할 때 용인향교와 연안부부인전씨(延安府夫人田氏)의 묘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함. 용인과 이천의 유생을 여주에 모아서 시취함
1531	중종26	용인향교는 현의 동쪽 2리에 위치함
1665	효종6	용인향교를 현의 북쪽 1리로 옮김
1683	숙종9	석채일(釋菜日)에 송조사현(宋朝四賢)의 위치(位次)를 현령 장횡(張植)이 옛 제도에 어긋나게 개정하여 문책함
1760	영조36	[향교] 성전 3칸으로 앞에 퇴를 달음. 신문 3칸. 전사청 3칸. 제기고 3칸. 명륜당 3칸. 좌우측 앞에 퇴를 달음. 대문 3칸. 동서협문 각 1칸. 행랑 7칸
1842		[향교] 북쪽에 자리해서 남쪽을 향하고 있음 (子坐午向)
1865	고종2	경기감사 유치선이 용인향교 대성전 개수를 건의함.
1868	고종5	경기감사 이의익(李宜翼)이 용인향교 대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건의함
1871	고종8	[향교] 성전 3칸. 대청 3칸. 앞에 퇴를 달음. 신문 3칸. 전사청 3칸. 제기고 3칸. 명륜당 3칸. 좌우측 앞에 퇴를 달음. 동재 4칸. 서재 4칸. 외삼문 3칸. 홍살문 1칸.
1872	고종9	용인향교의 대성전·동무(東廡)·서무(西廡) 등여러 곳의 기와와 바닥을 새로 깔고 이안(移安)을 2월 1일로 정함.
1899	고종36	[향교] 성전 3칸. 대청 3칸. 앞에 퇴를 달음. 신문 3칸. 전사청 3칸. 제기고 3칸. 명륜당 3칸. 좌우측 앞에 퇴를 달음. 동재 4칸. 서재 4칸. 외삼문 3칸. 홍문 1칸
1906		용인명륜학교 개교
1950		6.25전쟁으로 향교 건물 전소.
1963		명륜당 재건
1971		대성전 기와, 방풍판 중수

연도	일자	내역
1983	04.11	구성면 대지 1,539평 매각
1983	05.14	남사면 방아리 논 4,334평 매수
1983	07.14	대성전 앞 계단공사
1984	04.12	정기총회(유도회 경기도본부)
1984	02.25	趙成來 전교임명장 수여(성균관장 李載瑞)
1985	03.05	전기가설
1985	08.20	우물공사
1985	09.22	성균관 유도회 총회
1986	04.01	유도회 정기총회(유도회 경기도본부)
1986	06.24	수복실 증축
1986	08.18~28	청소년 충효교육 (4개 학교 강당 참여인원 총 1,195명) 대상 및 일시: 용인상고 8월 18일, 신갈고 8월 22일, 용인여고 8월 28일, 태성고 8월 27일 교과목: 삼강오륜, 충효정신, 전통예의, 가정윤리 강사: 정영대, 원창식
1987	03.12	정기총회
1987	04.24	유도회 정기총회(유도회 경기도본부)
1987	07.08	명륜당 개축
1987	08.11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효자효부 선행자 표창 수상자: 모현면 남풍희(南豐熙)
1988	03.15	내삼문 담장 일부공사
1989	07.12	외삼문 담장 일부공사
1989	08.18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효자효부선행자 표창 효부상: 차호숙(車好淑), 박청자(朴淸子)
1989	08.25	유림연석회의 부의사항: 추기 석전 행사준비
1989	09.11	임시 이사회(경기도향교재단)
1989	12.15	정기 이사회(경기도향교재단)
1990		수복실 앞 담장공사. 통행문 설치. 대성전 앞 경사지 잔디 공사
1992		대성전 20평, 신삼문 3칸, 명륜당 15평, 외삼문 3칸, 홍살문 1칸, 수복실 30평
1996	02.09	김건중 전교 경기도향교재단평위원회 상무이사로 선임
1996	02.24	掌議, 支會長 성균관 주최 '孔子展' 전시회 관람
1996	03.04	96년도 정기총회 및 임원 개선(구성면사무소회의실)
1996	03.04	정기총회에서 교육업무를 유도회로 이관하기로 함.

연도	일자	내역
1996	03.29	충효교육강사 5명 성균관장 위촉장 수여. 용인시 청소년예절교실 전임강사 위촉.
1997	01.10	정기이사회 개최
1997	01.17	충효교육결과 및 계획 통보
1997	01.28	운영위원회 개최
1997	02.15	정기총회 개최
1997	02.15	재단법인 이사 취임승인 취소건의
1997	02.15	정기총회 개최
1997	02.15	96년도 결산 및 실적보고 97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설명
1997	02.27	평의원 임명장 수여 및 평의원회
1997	03.05	안성유기점에서 오성위잔 15조를 구입함
1997	03.14	성균관임원 임명장 수여
1997	03.18	춘기석전일자 보고
1997	03.25	충렬서원 정기총회 개최
1997	04.01	임시총회 개최
1997	04.12	향교제복구입비 보조금 신청
1997	04.17	전교회의 개최
1997	04.20	석전대제 봉행의견서 제출
1997	04.29	전국향교현황 제출
1997	04.03	평의원 제2차회의 개최
1997	04.07	경기도 유도회총회 개최
1997	04.09	향교재산법 개정 전국추진위원회 설립
1997	05.01	석전대제 축문 수정
1997	05.01	화서 이항로선생에 대한 오염섭 논문이 부당함 지적 취소 건의
1997	05.12	석전대제 봉행 이사회 결의
1997	05.20	성균관장 선출을 위한 유림총회 개최
1997	06.10	충효교육강사 교육
1997	06.10	충효교육강사 교육
1997	06.11	향교임원 일동 선진지견학실시 (오산 켈리사, 천안 독립기념관, 온양 민속박물관)
1997	06.18	성균관 분규에 대한 고언
1997	06.27	97년도 충효교육운영
1997	06.04	97년도 충효교육운영지침

연도	일자	내역
1997	07.16	청소년충효교육 실시
1997	07.28	동성동본혼인자신고예규에 대한 의견
1997	07.31	동성동본금혼법의 불합치결의 대책
1997	07.4	유도회 용인지부 여성유도회조직
1997	07.05	효행 표창대상자 추천
1997	07.0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보안 일람표
1997	08.12	가족법 대책회의
1997	08.13	성균관행정관계 정상화협조 의뢰
1997	08.19	전사청 복원 건의
1997	08.26	97년도 효행자표창 및 도의선양대회
1997	08.28	제복 5착, 관복 2착 구입.
1997	08.08	추계석전대제 봉행지침 통보
1997	09.01	97년도 효행자 표창 및 도의선양교육
1997	09.12	유도회경기도본부 도의선양교육 효부 및 공로자 표창 - 효부상 : 구성면 김민자, 수지 김성숙 - 공로상 : 기흥여성유도회 김병희
1997	09.22	임시 향교임원 및 유도회원 교육
1997	09.22	공부자탄강기념 작헌례 봉행
1997	10.13	제7회 아산 효행대상자 결과 회보
1997	10.23	신년인사회 참석 신청안내
1997	11.06	경로모범단체 표창 상신
1998	02.11	정기총회 개최
1998	02.02	석전대제일자 통보
1998	03.	성균관유교교육원 출장교육 안내
1998	03.	성균관특보 발간
1998	03.20	유도회 중앙회 정기총회 및 회장선거
1998	03.23	성균관 정기총회 개최 통보
1998	04.22	유도회중앙회정기총회 개최 및 선거 중헌개정 발의
1998	04.22	휴경지경작 의뢰
1998	04.25	유도회 중앙회 정기총회 참석 요망
1998	04.03	향교재해예방 및 주변환경관리 요청
1998	05.18	98년도 유도회중앙회 개최 및 회장선거 공고
1998	05.23	사직대제의 필요성 건의
1998	06.12	유도회중앙회장 선거입후보자 추천



연도	일자	내역
1998	06.17	향교보조금 지급
1998	06.03	가족법개악저지를 위한 비상총회 개최
1998	06.07	유교개혁 선언
1998	06.30	유학대학원 지도과정학생 추천의뢰
1998	07.13	98년도 효행자 표창
1998	08.14	98년도 효행자표창 및 도의선양교육실시
1998	08.19	전사청 복원 건의
1998	08.22	임원회 개최
1998	08.28	가족법비상대책회 투쟁지침시달
1998	09.07	가족법개정에 대한 서명운동 전개
1998	09.08	유도회 경기도본부 주최 효자효부 표창 및 도의선양교육 참가(30명)
1998	09.10	성균관건학6백주년기념행사 참가
1998	09.11	한자교육필요성
1998	09.20	천막 2개, 배석 20장, 제기구 구입
1998	10.12	시공보실 담당계장 내방 전사청 건축부지 검토
1998	10.17	석전대제 봉행
1998	10.23	98년도 성균관 임시총회 개최 성균관장 선거(최창규 관장 선임)
1998	10.27 ~28	경기도재단주최 향교총무장의회 참석 강화유적지 관람
1998	11.02	임원 선진지 견학 (청주향교, 송광사, 김유신사당, 칠장사)
1998	11.06	충렬서원 추향에 참사
1998	11.09	성균관 제25대 관장 최창규박사 취임
1998	11.11	장의 10명 선임 발령
1998	11.18	가족법개악 반대시위
1998	12.18	향교 동측에 아파트건축 신축 심의회의 참석
1999	03.02	용인향교 정기총회
1999	03.02	김건중(金建中) 전교임명 상신(성균관장 崔昌圭)
1999	04.27	전교 임명장 수여(성균관)
1999	05.05	충렬서원 향사
1999	10.06	석전대제 거행 표창패: 이학의, 이강신
2000	03.01	온겨레 손담기 운동 참가(향교 임직원 31명)

연도	일자	내역
2000	03.15	2000년도 정기총회 개최, 임원보결선출 이기창 전교선출 이돈녕 유도회장선출 유강희 유도회 부회장선출 박지영·이양구 감사 선출
2000	03.22	충효교육관 40평 설계 계획을 2층 60평으로 건립할 것을 시와 협의 확정
2000	04.04	성균관 가족법 대체 위원회 주최 회의 참석
2000	04.11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서 가족법 수호 동참동의서를 받음
2000	04.17	동의서를 성균관장에게 발송
2000	04.25	성균관유도회 총본부 회의 참석
2000	04.28	전교 이기창 선임장 수령 및 성균대성전에 고유
2000	04.29	신구전교 이취임식 개최
2000	04.29	2/4분기 유도회원 정기연수회 개최
2000	05.09	성균관주최 전국전교회의 참석
2000	05.19	용인지부유도회 사무 인계인수
2000	06.19~20	충효교육강사 수강(전교 이기창, 장의 백우현)
2000	07.07	호주제폐지를 위한 토론회 참가(프레스센터)
2000	07.18~22	용인초등학교 충효교육실시
2000	07.24~27	모현초등학교 충효교육실시(충열서원 주최)
2000	08.3	용인관내 향교서원 전교·원장 회의개최
2000	08.08	충효교육관 입찰
2000	08.15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행사 참가
2000	09.18	향교임원회 개최 추계석전대제 의례연수 4/4분기 유도회 정기연수회
2000	09.24	추계석전대제 거행
2000	08.11~	향교 충효교육관 건립 착공(2001 02. 20완공)
2000	10.04	유도회경기도본부 주최 도의선양교육 시 효자 효부 표창 - 효자상: 수지 최광섭 - 효부상: 모현면 김민자
2000	10.17	향교재단 평의원회 참석
2000	10.20	성균관 가족법 수호 비상총회 참석
2000	12.03	충효교육관 상량식 거행 (전교 상량문작성, 집필 장의 서인석)
2000	12.07	전국유림가족법 개정정지결기대회 개최

연도	일자	내역
		(용인향교 42명 참석)
2000	12.22	경기도향교재단 평의원회 참석
2001	02.09	2001년도 정기총회 개최
2001	02.10	충효교육관 소요 비품 제청
2001	02.12	정평중학교 1.2학년 인성교육실시
2001	03.15	향교건물 영선 제청 대성전 수리, 명륜당, 내.외삼문, 진입로확장, 홍살문 복원
2001	04.25	향교재단 평의원회 회의 참석
2001	05.08	제의도구 구입차 안성 맞춤주물공방 탐방
2001	06.25	성균관 주체 충효교육 강사 수강 2일간
2001	07.09	충효교육관 준공식 소요경비 제청
2001	07.16	충효교육관 및 사무용 비품 일괄 검수
2001	07.16	용동중학교 충효교육 실시
2001	07.18~20	능원초등학교 충효교육 3일간 실시
2001	07.20	유도회경기도본부 주최 도의선양교육 시 효자 효부 표창 - 효부상: 보정리 정정옥, 신갈리 송왕연
2001	07.23~27	태성중학교 1학년 충효교육 실시 참가인원 150명 강사: 이기창, 조운원, 백우현, 이세구
2001	08.11	충효교육관 준공식 준비임원회의 개최
2001	08.23~24	유도회 경기도본부주최 선현지 시찰행사 참가 (거제도. 외도. 해금강. 남원 광한루)
2001	08.28	충효교육관 준공식 거행 감사장 수여: 용인시장, 전전교, 서강종합건설사장
2001	09.18~20	향교 도서대장 정리
2001	09.21	남사면 소개 향교 답 작황 답사
2001	10.05	유도회 도본부 시행 충효 표창식에 참석(25명)
2001	10.09	향교 임원회의 개최
2001	10.13	추계 석전대제 거행
2001	10.22	향교임원 선진지 시찰 여행 (안동 도산서원: 퇴계500주년 기념행사)
2001	11.26	안성맞춤 주물공방 제기 구입차 탐방(3명)
2001	11.27	서울 종로 3가 고려만물사 예복 구입차 탐방(3명)
2001	12.03	성균관 정화위원회의 참석 (본회 경기도 대표로 부회장에 선출됨)

연도	일자	내역
2001	12.20	정화위원회의에 참석
2002	01.22	성균관 정화위원회 참석
2002	01.27	명륜대 강사연수 협의회 개최
2002	02.10	2002년도 정기총회 개최
2002	03.02	경기도 향교재단 평의회 참석
2002	03.06	성균관 정화위원회 참석
2002	04.12	성균관 정화위원회 참석
2002	04.16	명륜대 입학식 거행(매주 화. 수요일 2시간) - 수상 공로상: 조남숙
2002	04.23	성균관 임원 총회 참석
2002	04.25	유도회 경기도 본부 총회 참석
2002	05.17	유도회 용인지부 연수회 개최
2002	06.26	명륜대학운영 규정 및 교육계획.학생모집 요강 작성완료 향교건물 수리 및 단청 요청(대성전, 명륜당, 내. 외삼문, 홍살문)
2002	07.12~13	성균관 주최 충효교육 강사 연수 수강
2002	07.22~27	충효교육실시 교과목: 충효, 한문, 생활예절, 참가인원 150명 장소 구성초등학교 강사: 이기창, 조운원, 백우현, 이세구
2002	08.10	향교대성전 명륜당 내삼문 수리 및 단청시공(용인시)
2002	08.17	용인향교 전교 임명(李起昌)상신(향교재단경유 성균관장)
2002	08.17	향교 유도회 지부회장(柳康熙), 부회장(朴址榮)임명상신(경기도유도회 경유,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2002	08.20	2002년도 유럽지도자교육 참석(5명)
2002	09.30	향교임원 및 3/4분기 유도회용인지부 연수회
2002	10.03	추계석전대제 거행
2002	10.08	유도회경기도본부 주최 도의선양교육 시 효자 효부 표창 - 효자상: 임승규 - 효부상: 이복자
2002	10.17	기로연 행사 거행
2002	11.02	성균관 정화위원회 참석
2002	10.16	용인향교 명륜대학 제1기생 수료식( 26명 수료) 교과목: 명심보감, 생활예절(기본예절/관/혼/상/제) 강사: 이기창, 조운원, 백우현, 유강희, 이수길 교육기간 2002. 04. 24~10.16
2002	11.08	양지향교 명륜대학 제1기생 수료식거행 참석
2002	11.10	향교건물(대성전.명륜당. 내삼문) 수리 및 단청 완료

연도	일자	내역
2002	11.21	성균관 정화위원회 참석
2002	12.05~06	유림지도자 연수교육 참석
2002	12.27	향교재단 평의원회 및 이사회 참석
2003	01.27	명륜대운영계획 및 학생모집요강 작성과 명륜대운영계획 제청
2003	02.07	성균관 정화위원회 경기도 대표회의에 참석
2003	02.14	향교재단 경기도 평의원회의에 참석
2003	02.18	2003년 정기총회 개최
2003	03.05	향교 현황과약 제출(총 등록인원 271명) -전교 1명/ 원로 5명/ 장의 46명/ 향교등록 출입유림 35명/ 유도회원 184명 -건물보유: 대성전, 명륜당, 유림회관(충효교육관) -주소: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335번지
2003	03.24	유도회 총본부 총회 참석
2003	03.28	명륜대 강사협의회 개최 (명륜대 입학식 및 수업일수 지도반성확정)
2003	04.10	명륜대학 2기생 입학식 거행
2003	04.19	가족법 개정 저지투쟁 동의서(2인) 제출
2003	04.29	성균관 임원 정기총회 참석
2003	05.22	경기도 문화관 주최 4개국 효문화현황 발표회 참석
2003	05.23	성균관유도회 및 씨족연합회 주최 호주제폐지 반대궐기대회참석
2003	05.29	충효교육관 교육용 책상 및 사무용 책상 27조 구입. 컴퓨터 1조구입
2003	06.03	용인향교 임원회의 개최(향교임원 임명장 수여식 거행)
2003	06.10	호주제 폐지 및 친양자제 입법 반대 궐기대회 45명 참석
2003	06.16	명륜대 수강생 선진지 시찰(고창)
2003	06.25	호주제폐지 및 친양자제도 결사반대 서명서 제출(96부)
2003	06.30	국고무료추천(전문 인성예절강사 양성)(10명 추천) -제출처: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교육기간: 7월 7일~11일(4박 5일간 40시간) -참여자: 조록영, 조윤원, 강숙현, 정정예, 채선정, 문민희, 장춘희, 정영숙, 유성희, 오성춘
2003	07.11	성균관 주최 호주제 폐지 개악 반대회의 참석
2003	07.11	향교명륜당 지붕 기와 공사
2003	07.15	성균관주최 충효교육 강사 연수회 수강 차 2명 참석(전교 지부회장)
2003	07.21~25	충효교육실시 교과목: 효, 생활예절, 제례, 한자

연도	일자	내역
		- 참가인원: 48명    장소: 마북초등학교 - 강사: 이기창, 조운원, 백우현, 이세구
2003	08.12	경기도향교재단 현 이사장 및 사무국장 본 향교 봉심차 내방
2003	08.14	유도회경기도본부 주최 도의선양교육 시 효자 효부 표창 - 수상자: 효부상 우성숙, 효자상 백제화
2003	08.16	2003년도 유림 지도자 교육 참석(전교 이기창외 6명)
2003	08.26	성균관장 선거 참석(최근덕 관장 당선)
2003	09.23	본 향교 추계석전대제 거행
2003	10.08	유도회 경기도 본부주최 연수회 및 충효 시범자 표창식 참석
2003	10.13	2003년도 기로연 실시
2003	10.13~23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유림지도자 교육 - 조운원, 류성희, 장춘희, 오성춘, 정영숙, 임맹례, 조록영
2003	11.05	명륜당지붕 및 홍살문 준공
2003	11.12	용인향교 명륜대학 제 2기생 수료식(수료 32명) - 교과목: 명심보감, 생활예절(기본예절/관/혼/상/제) - 정근상: 김경남, 도숙희    - 감사장 정영숙 - 강사: 이기창, 유강희, 조운원, 백우현, 이수길
2003	12.01	용인향교 여성유도회 결성 선진지 시찰 (평창·단양일원)
2003	12.29	향교 대성전 마루 수리
2004	02.10	2004년 정기총회 개최(전교 이기창)
2004	04.11~27	성균관 유도회 유림 지도사 교육 - 참여: 이기창, 류강희, 조록영, 백우현
2004	05.17	기로연 실시
2004	09.30	한자교육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 참여명단 제출(성균관)
2004	10.10	석전대제 실시
2004	10.22	유도회경기도본부 주최 도의선양교육 시 효자 효부 표창 - 수상자: 효부상 이현자, 효자상 이수길
2004	10.22	2004년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참석(전교 이기창외 19명)
2004	11.04	용인향교 명륜대학 제 3기생 수료식( 30명 수료) - 교과목: 명심보감, 생활예절(기본예절/관/혼/상/제) - 수상: 김화조, 오향림, 김명순 - 강사: 이기창, 조운원, 유강희, 백우현, 조록영, 이수길
2004	11.18	2004년도 유림 지도자 교육 참석(전교 이기창외 4명)
2004	11.24	실천 예절지도사 교육(향교 여성유도회원 자격취득)

연도	일자	내역
		주관: 성균관 유도회 교육원 대상: 정영숙, 임맹례, 김분경, 강숙현, 최정숙, 조록영
2004	12.13	2004년 서원 현황 보고(성균관) - 심곡서원 - 031)261-6750 -주소: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203-2번지 -심곡서원: 원장 윤영기, 총무 박한철 - 충렬서원 - 031)333-6129 -주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118-4번지 -충렬서원: 원장 정영재, 총무 이세구
2004	12.15	戶主制守護 凡國民 躡起大會 開催 -장소: 서울역광장 13시~16시 -참여인원: 47명
2004	12.24	2004년도 용인시 관내 향토유적지 순례(참여 31명) -신청: 용인문화원 -신청자: 용인향교 전교 이기창
2005	01.13	여성유도회 강좌 수강장면 취재(구성 여성풍물단 소개) (용인시민신문 280호 임효정 기자)
2005	01.27	여성유도회 주최 한복바로입기와 바른 절하기 교육
2005	02.03	경기도 향교재단 이사회 참석
2005	02.03	1. 27 한복 바르게 입고 바른 절하기 교육 및 시연장면 소개(용인시민신문 283호 함승태 기자) -올바른 세배법 시연 : 남자세배 오성춘, 여자 도숙희
2005	02.28	2005년도 본 향교 총회개최 여성유도회 풍물단 지신밟기 및 전통놀이 체험 -출발 구성읍사무소- 용인향교 농악한마당 및 전통놀이
2005	03.03	2. 28 여성유도회 주최 구성여성풍물단 대보름맞이 지신밟기 행사 진행 소개(용인시민신문 286호 이현주 기자)
2005	03.04	성균관임원회의 참석
2005	03.12	명륜대 강사회의
2005	03.18	명륜대 제4기생 입학식
2005	03.25	경기도 유도회 총회 참석
2005	04.19	예실본 조직회 개최(충효교육관)
2005	05.26	여성유도회 시연회 개최
2005	05.28	고용원채용에 대한심의(이기창, 유강희, 박지영, 이수길) 2005. 06. 01~임명장 수여(대상자 도숙희)
2005	07.18	향교임원회 개최
2005	08.26	경기도 향교재단 이사회 참석
2005	09.01	성균관 회의참석 및 임명장 수령

연도	일자	내역
2005	09.02	충효교육 강사 협의회 개최
2005	09.06	하반기 명륜대학 개강
2005	09.08~12	충효교육실시 교과목: 효, 생활예절, 제례, 한자 -참가인원: 348명 -장소: 용인초등학교 -강사: 이기창, 조운원, 백우현, 이세구
2005	09.12	실천 예절지도사 교육(향교 여성유도회원 자격취득) 주관: 사)한국전례원 대상: 정영숙, 임맹례, 김분경, 류성희, 문민희, 채선정, 최정숙, 원순엽, 도숙희
2005	09.15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 충효교육 개강
2005	09.20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 충효교육 종강
2005	09.26	향사준비 차 향교 임원회 개최
2005	09.30	석전대제
2005	10.24	기로연 개최
2005	10.28	향교 주최 여성유도회 주관 함싸기 강좌 실시 강사: 이기창 장소: 충효교육관
2005	11.02	용인향교 명륜대학 제 4기생 수료식( 32명 수료) -교과목: 명심보감, 생활예절(기본예절/관/혼/상/제) -수상: 유문상, 한광옥, 김매자, 백미순, 김화자 -강사: 이기창, 조운원, 유강희, 백우현, 조록영, 이수길
2005	11.24	향교재단 연수회의 유림지도자교육 참석: 이기창, 이수길, 박지영, 홍재호, 석인보, 도숙희
2005	12.02	여성유도회 연수회 개최
2005	12.27	경기도 향교재단 이사회 참석
2005	01~12	여성유도회 프로그램 개강: 민요, 풍물, 문학, 붓펜반 -강사: 민요 강명숙, 문학 김태호, 풍물 이주명, 붓펜 박계순
2006	01.11	성균관 임원회의 참석
2006	01.23	명륜대생 및 여성유도회 모집광고 게시
2006	02.04 ~03.09	사)한국전례원 예절지도사 교육수료 - 류성희, 문민희, 정영숙, 김분경, 오향임, 임맹례, 최정숙, 원순엽, 도숙희
2006	02.07	경기도 향교재단 이사회의 참석
2006	02.09	여성유도회 3부 입학식 거행
2006	02.14	향교정기총회 실시
2006	02.24	명륜대 강사회의 개최



연도	일자	내역
2006	02.25	향교재단 이사회의 참석
2006	03.16	명륜대 입학식 거행(제 5기생)
2006	04.18	경기도 유도회 정기총회(임원개선)
2006	04.25	성균관 임원회 참석(헌장개정)
2006	05.09	향교재단 이사회의 참석
2006	05.29	향교재단 평의원 회의 참석
2006	06.10	2006년 “사랑의 편지쓰기” 참여(명륜문학반 김수자) -향교 명륜문학 김수자 -일반부 가작수상(2006-3호) -주최: 사)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
2006	06.16	성균관 전교회의 참석
2006	06.29~30	성균관 주최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 교육 - 참여: 이기창, 조운원, 박지영
2006	07.25	용인정보학교 인성교육 실시
2006	07.28	폭우로 인한 경내 잔디 사태유실
2006	07.31 ~08.04	청소년 인성교육실시 -교과목: 효, 생활예절, 제례, 한자 -수료: 194명 -장소: 언동초등학교 -수상: 박성렬, 박승식, 노지수 -강사: 이기창, 박지영, 조운원, 백우현, 오성춘
2006	08.10	평택향교 임직원 인성교육
2006	08.18	여성유도회에서 백암 세광정신요양원 위문공연
2006	09.26	한복 바로입고 바른 절하기(여성유도회 주관) 참여 30명 강사: 조록영 시연: 오성춘, 도숙희
2006	09.29	시민의 날 행사에 여성유도회 거리공연 참석
2006	10.09~07	향교 경내 잔디교체(용인시 문화관광과)
2006	10.13	향교 임원회 개최(제 집사 천망)
2006	10.14	폭우로 인한 경내사태 복구 완료
2006	10.18	석전대제 거행
2006	11.08	명륜대학 5기생 수료식( 23명 수료) -교과목: 명심보감, 생활예절(기본예절/관/혼/상/제) -수상: 엄철하, 김수자, 조갑조, 임점순 -강사: 이기창, 조운원, 유강희, 오성춘, 조록영, 이수길
2006	11.10	명륜대학문학반 『은행나무숲길따라』제 1집 발간
2006	11.11~14	향교 상수도 설치(용인시 문화관광과)
2006	11.14	성균관 주최 임원 연수회(천안에서 2일간)

연도	일자	내역
2006	11.20	기로연 실시
2006	11.22	향교재단회의 참석
2006	11.29	향교재단 평의원 회의 참석 향교재단 유림지도자교육 수료: 이기창, 박지영, 이수길, 이대희, 도숙희
2006	12.01	여성유도회 1년간 교육 발표회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2006	12.26	향교재단 정기이사회 참석
2006	12.28	향교재단 평의원 회의 참석
2006	01~12	여성유도회프로그램: 풍물, 문학, 붓펜반, 소고반 운영 - 프로그램 및 강사: 붓펜 박계순/ 문학 김태호/ - 풍물고급 이주명/ 풍물기초 김영진/ 소고 조선의
2007	01.15	명륜대생 및 연수반생 모집광고 게시
2007	02.07	성균관 이사회의 참석
2007	02.13	향교재단 이사회의 참석
2007	02.15	향교 붓펜반 개강식 거행
2007	03.02	구성동회 탐방(농악부시연장 대차차)
2007	03.07	향교부설 명륜대 강사회의 개최
2007	03.08	향교 정기총회 및 유림지도자교육
2007	03.13	향교부설 명륜대 제 6기생 입학식 거행
2007	04.12	용인봉사센터 협의회장 이·취임식 축하공연 출연(25명) 공연내용: 운우풍뢰 공연장소: 복지문화센터
2007	04.13	향교재단 이사회의 참석
2007	04.24	용인여성 007 기·예 경진대회 참가(향교 명륜문학) -시상: 용인시장 참가부문: 시 -수상내용: 최우수 전영자/ 우수 이은경/ 장려 공영란
2007	04.29	“가족사랑 나무사랑”편지 쓰기 행사 참여 - 향교 명륜문학 김수자 - 일반부 입선(제2007-23호) - 주최: 사)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
2007	05.03	성균관장 취임식에 참석
2007	05.04	여성유도회 위문공연(향교 풍물, 민요, 소고) 25명 -공연내용: 운우풍뢰, 화관무, 산조 -공연장소: 세광 정신요양원(용인시 백암면 소재)
2007	05.22	기흥구 노인대학 인성교육 강의(전교)
2007	05.29	대성전 및 향교제반 공사 개시

연도	일자	내역
	~08.29	내용: 기와, 기둥 6개, 벽면/ 내. 외삼문 기와/ 명륜당 계단) 시행: 용인시 문화관광과/ 시공: 주)세이프건설
2007	06.05	향교 대성전 개수공사 개시 고유식 거행
2007	06.07	평택군 진위초등학교 인성교육(전교)
2007	06.09	제6회 수원화성주부국악제 전국대회참가(향교 풍물, 민요) 참가부문: 풍물, 무용 수상: 북돋움상 주관:사)전통예술원 우리소리 장소: 경기도만석공원
2007	06.25~26	성균관 청소년 인성강사교육 참여 - 강사위촉: 박지영, 도숙희
2007	07.11	향교재단주최 평택고등학교 전교생 인성교육의 강사로 전교 참석
2007	07.12	향교재단 이사회에 참석
2007	07.30 ~08.04	청소년 인성교육실시 교과목: 효, 생활예절, 제례, 한자 수료: 30명 장소: 교동초등학교 수상: 최이나, 이지혜, 김남정, 김무경 강사: 이기창, 조운원, 박지영, 백우현, 오성춘, 도숙희
2007	08.17	냉 난방기(사무실, 교육관) 설치(용인시 보조금)
2007	08.20~25	청소년 인성교육실시 교과목: 효, 생활예절, 제례, 한자 수료: 27명 장소: 향교 충효교육관 수상: 박호성, 조은솔, 민선홍, 박호경 강사: 이기창, 조운원, 박지영, 백우현, 오성춘, 도숙희
2007	08.29	대성전 및 보수 공사 완공
2007	08.30	정수기 사무실 직수설치(용인시 보조금) 교육관 이동식 대여(물 구입으로 유지)
2007	09.10	명륜대학문학반 『봄, 오다』 김태호 제 5시집 발간
2007	09.14	용인정보학교 인성교육 실시(강사 전교 이기창)
2007	09.17	능원초등학교 충효교육실시(강사 전교 이기창)
2007	09.21	능원초등학교 충효교육실시(강사 전교 이기창)
2007	10.07	석전대제 거행 -수상자: 효부상 이효균, 공로상 송형호
2007	10.11	기로연 협의회 개최
2007	10.17	명륜대학문학반 『은행나무숲길따라』 제 2집 발간
2007	10.19	유림전통문화 시연회(기로연) 행사실시 -수상자: 효자상 홍준순, 효부상 임선경

연도	일자	내역
		-명륜대학 시 서 작품전시
2007	01~10.30	여성유도회 프로그램: 풍물, 소고(구성동사무소 대여 교육장소 공사관계로 사용불가), 민요반(소음관련 민원) 폐강 - 붓펜, 문학반 향교 교양강좌 연속운영  여성유도회 프로그램: 풍물, 소고, 문학, 붓펜, 소고반 - 프로그램 및 강사: 붓펜 주수영/ 문학 김태호/ - 풍물 이주명/ 풍물 2 김영진/ 소고 조선의
2007	11.21	향교재단 유림지도자교육 수료: 박지영, 이수길, 홍재호, 오성춘, 도숙희
2007	11.29	향교재단 평의원 회의 참석
2007	12.14	아시아문예사 시부문 등단 -등단시 제목 : 배웅 -등단시인 효송 김수자(향교 명륜문학 회원)
2007	12.18	명륜대학 6기생 수료식( 23명 수료) 교육기간: 3~11.30 -교과목: 명심보감, 생활예절(기본예절/관/혼/상/제) -수상: 나보철, 김진옥, 박선아, 김수자 -강사: 이기창, 조운원, 박지영, 백우현, 오성춘, 조록영
2007	12.21	정기 이사회 참석
2007	12.22	주)독서신문 한국 현대시문학연구소 등단 - 등단시인 효송 김수자(향교 명륜문학 회원) - 한국현대 시문학 상 - 제목: 가시유월 - 한국현대시문학연구소 독서신문
2007	12.27	향교 재단 평의원회에 참석
2007	12	여성유도회 해체: 풍물, 소고 폐강/ 문학, 붓펜 명륜대 진행
2008	01.15	명륜대생 및 연수반생 모집광고 게시
2008	02.13	전기설비 안전점검
2008	02.18	향교부설 명륜대 강사회의 개최
2008	02.26	충효교육관 판넬 및 차단기 교체공사(용인시 문화관광과)
2008	02.28	용인향교 정기총회
2008	02.29	용인향교 정면 진입로 정비요청 (기흥구청장, 용인시장)
2008	03.12	향교부설 명륜대 제 7기생 입학식
2008	03.20	성균관 정기총회
2008	03.25	유도회 도 본부 총회
2008	04.21	명륜당 좌측 담장보수(용인시 문화관광과)

연도	일자	내역
2008		아시아문예 시부문 등단: 향교 명륜문학회 시인 신상희
2008		아시아문예 시부문 등단: 향교 명륜문학회 시인 전영자
2008	06.26~27	성균관 하기청소년 인성교육 강사교육 - 참여: 박지영, 오성춘, 도숙희
2008	07.24~30	청소년 인성교육(교동초등학교) 및 수료식(수료 55명) -수상: 박예지, 김은지, 강채현, 임진아, 김지호, 김홍민, 윤정빈, 박상성 -강사: 이기창, 박지영, 조운원, 오성춘, 이대희, 도숙희
2008	07.30	용인향교 유림 임시총회 소집 안내장 발송
2008	08.13	용인향교 유림총회(전교 선출) 18대 신입 전교 박지영 임기 2008. 8. 16~2011. 8. 15
2008	08.27	성균관주최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강사교육 - 참여: 박지영, 도숙희
2008	08.28	(재)경기도향교재단 세무교육
2008	09.19	용인향교 전교 사령장 수여
2008	09.26	석전대제 거행
2008	10.10	임원 및 장의 선진지 견학(참여 30명) -견학장소: 여주 목아박물관, 명성황후 생가
2008	10.13	향교 전압승압
2008	10.17	유림전통문화 시연회(기로연) 행사실시 수상자: 효자상 임순택, 효부상 김영순 명륜대학 시 서 작품전시
2008	11.07~10	용인시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공사 실시
2008	11.17	소화전공사 실시
2008	11.26	소방훈련 및 소방시설 점검
2008	12.10	경기도 향교재단 유림지도자 교육
2008	12.17	명륜대학 7기생 수료식(23명) 교과목: 명심보감, 생활예절/관/훈/상/제, 서예, 붓펜, 문학 수상: 김방자, 배부레, 임화자 강사: 이기창, 조운원, 박지영, 백우현, 오성춘, 조록영
2009	01.02	문학반 시무식
2009	01.06	서예반 붓펜반 시무식
2009	02.12	향교총회 유도회장 선출
2009	02.23	경기도 향교재단 총회
2009	03.17	전교 협의회

연도	일자	내역
2009	03.23	유도회 경기도본부 총회
2009	03.25	성균관 총회
2009	04.01	명륜대학 한문 개강
2009	04.07	유도회장 임기인수
2009	04.13~14	전교수련회(청주)
2009	04.28	향교재단 평의회
2009	05.15	명륜대학문학반 『아지매 모셔 춤추다』 김수자 시집 발간
2009	05.27~28	전교임원합동연수(영주)
2009	06.11	신갈중 한복 바르게 입고 바른 절하기(강사 도숙희)
2009	06.16 ~12.10	향교제초 희망근로자 2명 배정(용인시청, 기흥구청 관리)
2009	07.23~29	청소년 인성교육(구성초등학교) 및 수료식(수료 58명) 수상: 윤주성, 김유희, 김솔비, 김유인, 박유진, 고지윤 강사: 박지영, 백우현, 조운원, 오성춘, 정덕교, 도숙희
2009	08.19~24	담장 쌓기 명륜당 옆 4칸(7.3 폭우 담장유실)용인시 명륜당 독 및 경 내외 채우고 고름(7.12 장마유실)기흥구청
	08.22 ~10.17	용인향교 풍류를 노래하다 주최: 용인시 -주관: 공커뮤니케이션 -장소:용인향교
2009	08.26	전교협의회
2009	09.10	향교재단 평의회
2009	09.14	보일러실 외벽공사(용인시)
2009	10.05	장의임원회의 제집사 천망
2009	10.15	석전대제 거행 수상: 효부상: 김주기, 효자상 이상명
2009	10.15	명륜대학 문학반 『은행나무숲길따라』 3집 발간
2009	10.16	경기도본부 충효교육 효행자 시상(수상자: 장기원)
2009	10.20	전교협의회
2009	11.26	경기도향교재단 유림지도자교육(5명)
2009	12.29	경기도 향교재단 평의회
2009	12.30	용인향교 부설 명륜대학 수료식(수료 88명) 수상: 이상범, 이영자, 안순남, 김수자, 김방자, 이동빈, 임화자, 박선아, 신상희, 이은경 교과목: 한문 대학, 서예 한글, 서예 한문, 붓펜, 문학 -강사: 대학 이기창, 서예·붓펜 주수영, 문학 김태호
2010	01.05	서예 1반 붓펜반 시무식

연도	일자	내역
2010	01.06	서예 2반 시무식
2010	01.08	문학반 시무식
2010	02.25	향교총회
2010	03~12	향교제초 희망근로자 2명 배정(용인시청, 기흥구청 관리)
2010	03.17	성균관유도회 총회
2010	03.24	유도회 경기도본부 정기총회
2010	03.29	전교협의회
2010	03.31	성균관 정기총회
2010	04.07	경기도 향교재단 평의원회
2010	05	명륜대학 수강생 견학 용인시 문화유적 탐방
2010	06.08 ~90.04	향교진입로 정비, 배수로, 오수관 공사(용인시) (진입로 확장 및 홍살문 보수)
2010	07.11~14	청소년 충효교육 강사교육(영주 선비문화수련원) -청소년인성교육강사 위촉(백우현, 이근구, 오성춘)
2010	10.26	제 5회 유림서예대전 출품(수상자: 송병숙, 도숙희)
2010	09.10	경기도 향교재단 평의원회
2010	09.30	석전대제제집사 천망 회의
2010	10.04	석전대제 거행
2010	10.13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효행자표창(대상자: 김남옥) 성균관 유도회 경기도 본부
2010	10.18	명륜대학 수강생 견학 용인시 문화유적 탐방
2010	10.22	유림전통문화 시연회(기로연) 행사실시 수상: 공로상 박여희 명륜대학 시 서 작품전시
2010	11.26	경기도향교재단 유림지도자 교육(5명)
2010	11.30	용인향교부설 명륜대학 수료식(84명) 수상: 황종익, 조성진, 안순남, 임기숙, 방종임, 이동빈, 임화자, 오성춘, 이재규, 이은경, 강순원 교과목: 한문 중용, 서예 한글, 서예 한문, 붓펜, 문학 강사: 중용 이기창, 서예·붓펜 주수영, 문학 김태호
2010	12.13~17	청소년 인성교육(포곡초등학교) 및 수료식(수료 177명) 강사: 박지영, 백우현, 조운원, 오성춘, 정덕교, 이수길
2010	12.29	경기도 향교재단 임시 평의원(전교)회의 개최
2011	01.04	서예반 붓펜반 시무식
2011	01.05	서예반 시무식

연도	일자	내역
2011	01.07	문학반 시무식
2011	01.26	성균관 전교회의
2011	02.25	향교총회
2011	03.02	한문(중용)반 개강
2011	03.03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정기총회
2011	03.16 ~12.16	향교 제초희망근로자 3명 배정지원(용인시)
2011	03.23	유도회 경기도 본부 정기총회
2011	03.28	전교협의회
2011	03.31	성균관총회
2011	04.22	문학반 시낭송회(홍윤기 박사 초청)(장소: 효송가)
2011	06.29	청소년 교육강사회의
2011	07.21	향교 유림임시총회(전교 선출) 19대 재임 전교 박지영 임기 2011. 8. 16~2014. 8. 15
2011	07.25~29	청소년 인성교육(어정초등학교) 및 수료식 수료 20명 수상: 박민규, 송인원, 윤지환, 이준 강사: 이기창, 박지영, 조운원, 이근구, 이대희
2011	08.26	향교재단 평의원회
2011	09.15	성균관 전교 회의
2011	09.24	석전대제 거행
2011	09.30	명륜대학문학반 『은행나무숲길따라』 4집 발간
2011	10.06	유림전통문화 시연회(기로연) 행사실시 수상: 효부상 김현정 은행나무 숲길 따라 참여자 전달 명륜대학 시 서 작품전시
2011	10.12	전교협의회(이천)
2011	10.13	구성유도회
2011	10.14	경기도 향교재단 회의 및 효행자 표창(수상자: 김정기)
2011	10.18	용인문화 유적투어: 향교신청 명륜대학생 44명 참여 용인문화원 주최 4코스; 와우정사-농촌테마파크-세종옛돌박물관- 허균 및 허씨 5문장묘소-미평리약사여래
2011	10.19	담장 부분 보수
2011	10.30	성균관 유교방송개국 주식공모 투자동참(총 65만원) (이종기 20, 이대희 10, 공중근 10, 정영재 15, 한건식 10)



연도	일자	내역
2011	11.30	용인향교부설 명륜대학 수료식(87명) 수상: 조성진, 안순남, 이동빈, 임화자, 이재규, 이은경, 오성춘 교과목: 한문 중용, 서예 한글, 서예 한문, 붓펜, 문학 강사: 중용 이기창, 서예: 붓펜 주수영, 문학 김태호 시 낭송: 이은경, 이상덕, 공영란
2011	12.08	경기도향교재단 유림지도자 교육(5명)
2011	12.29	경기도 향교재단 평의원회
2012	01.10	서예반 붓펜반 시무식
2012	01.11	서예반 시무식
2012	01.13	문학반 시무식
2012	01.13	성균관 정기회의
2012	02.09	향교총회
2012	03.07	한문(논어반 개강)
2012	03.15	성균관 정기총회
2012	03.26	향교재단 평의원회
2012	03.27	성균관 유도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2012	04.03	향교재단 이사장 이취임식
2012	4.10~30	교육관 돌레 바닥 방수공사(용인시 문화관광과)
2012	04.17	성균관 유도회 경기도본부 정기총회
2012	05.15	용인문화 유적투어: 향교신청 명륜대학생 40명 참여 용인문화원 주최 4코스; 와우정사-농촌테마파크-세종옛돌박물관- 허균 및 허씨 5문장묘소-미평리약사여래
2012	06.28	충효교육임원회
2012	07.31	제 7회 성균관유림서예대전 출품(수상: 송병숙, 전교협의회(양주)
2012	08.06~11	청소년 인성교육(지곡초등학교) 및 수료식 수료 43명 수상: 민수필, 강지은, 장유정, 임은성 강사: 박지영, 조운원, 이근구, 정덕교, 이대희
2012	10.12	석전대제 거행
2012	10.16	경기도본부 도의선양교육 및 효행자표창
2012	10.18	유림전통문화 시연회(기로연) 행사실시 명륜대학 시 서 작품전시
2012	10.25	유림지도자교육(5명)
2012	11.15	구성유도회
2012	11.16	전교협의회(가평)

연도	일자	내역
2012	11.30	용인향교부설 명륜대학 수료식(101명) -수상: 조성진, 안순남, 임화자, 이재규, 공영란, 강신철, 전영자 -교과목: 한문 논어, 서예 한글, 서예 한문, 붓펜, 문학 -강사: 논어 이기창, 서예·붓펜 주수영, 문학 김태호 -시 낭송: 강신철, 전영자, 공영란
2012	12.28	경기도향교재단 평의원회
2013	02.21	재단전교회의
2013	02.28	향교총회
2013	03.02	한문(논어)반 개강
2013	03.22	심곡서원 향사
2013	03.28	성균관 총회
2013	03.06	향교재단 평의원회
2013	04.10	충렬서원 향사
2013	04.08	재단전교회의
2013	04.29 ~07.27	향교 정면 우측부터 대성전 뒤쪽 담장공사 -용인시 발주 및 지원(현영종합건설)
2013	05.19	성균관 회의
2013	05.20~24	동백초등학교 방문
2013	06.04	용인문화 유적투어: 향교신청 명륜대학생 44명 참여 용인팔경 테마코스: 선유대-조비산(조천사)-곱등고개와 용담조망- 어비낙조(동도사) (용인문화원 주최)
2013	08.05 ~08.09	청소년 인성교육(나곡초등학교) 및 수료식(수료 21명) -수상: 김시은, 박주원 -강사: 박지영, 조운원, 이근구, 이대희
2013	09.26	재단전교회의
2013	10.10	선행자표창
2013	10.01	석전대제 거행
2013	10.10	유림전통문화 시연회(기로연) 행사실시 -명륜대학 시 서 작품전시
2013	10.17	경기도본부 효행자 표창
2013	10.18	충렬서원 향사
2013	11.22	유림지도자교육(향교재단)
2013	01~11.30	명륜대학 실시 -교과목: 한문 논어, 서예 한글, 서예 한문, 붓펜, 문학 -강사: 논어 이기창, 서예·붓펜 주수영, 문학 김태호

연도	일자	내역
2014	02.18	향교총회
2014	02.20	재단전교회의
2014	02.21	향교재단 평의원회
2014	02.26	전교협의회(여주)
2014	02	사)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부 초대작가 위촉 - 초대작가 갈피 안순남
2014	03.05	한문(논어)반 개강
2014	03.06	서예반 개강
2014	03.07	서예반, 문학반 개강
2014	03.13	성균관장 선출
2014	03.17	심곡서원 향사
2014	03.25	구성유도회
2014	03.28	성균관 총회
2014	04.08	재단전교회의
2014	04.16	충렬서원 향사
2014	05.02	성균관 유도회의
2014	05.20	신사임당의 날 기념 예능대회 참석
2014	06.20	전교협의회(고양향교)
2014	07.15	향교유림총회(전교 선출) -20대 신입 전교 이양구 임기 2014.8.16~2017.8.15
2014	08	典校 器汕 李亮求 “기산록(器汕錄) -삶의 발자취-” 발간 1936.12.12~2013.12월의 삶의 기록을 남기고파 어릴적 기억을 더듬고 일기장을 뒤적여 연보와 연수기, 산행기, 관광기를 정리 고향의 부아산을 넣어 “기산록(산과 물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란 뜻의 표지명으로 발행
2014	08.08	구성유도회
2014	08.14	전교업무 인수인계
2014	09.01	정찬민 시장 면담
2014	09.13	사)한국서화교육협회 경기도지부 추천작가 위촉 -제 14-384호 추천작가 효천 도숙희
2014	09.16	석전대제 제집사 천망회의 -공로패수상:박지영 전전교 -성균관 효열 충의상 수상: 박지영 전전교
2014	10.13	충렬서원 향사
2014	10.25	명륜대학 문학반『나는 봄꽃이고 싶다』단인서 시집 발간

연도	일자	내역
2014	11.14	이상일 국회의원 향교 방문
2014	11.26	유교문화활성화사업 설명회 참석
2014	11.29	심곡서원 용인학술심포지엄 참석
2014	12.02	명륜대학 문학반 시낭송회
2014	12.02	재단전교 평의원회
2014	12.12	성균관 전교회의
2014	12.18	성균관 발전기금 성금모금통장 개설
2014	01~12	명륜대학 실시 -교과목: 한문 논어, 서예 한글, 서예 한문, 문학 -강사: 논어 전철근, 서예 최은일, 장정숙, 문학 김태호
2015	01.12~13	배움여유 청년유사교육 참석 -청년유사 우금용, 장의 박창섭, 장의 이영섭
2015	01.13	용인시 보조금관련 실무자교육, -장소 시간: 용인향교 충효교육관 2시~4시 -교육진행: 용인시 윤재순, 류기욱, 이순영 -참석: 용인향교, 양지향교, 심곡서원, 충열서원
2015	01.23	유교아카데미 운영협의 회의 - 김학경, 최해식, 우금용(언남동 산골)
2015	02.02	청년유사 교육참석(서울여성재단 대방동 11~6시)
2015	02.04~ 02.17	전교 이양구 병가원 제출
2015	02.04~ 04.29	유교아카데미 전문 교양강좌 실시 수요일 9시~13시 총 12강 -수료인원: 29명 개강 4월 29일 수료 4월 29일 -전문강사: 임현규, 안은수, 유승상, 안장리, 홍순석, 박종수 -교양강좌: 김학경, 방동민, 홍순석, 홍정우, 김옥란, 유승상, 이오규 -주관: (사)한국관광학회 유교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2015	02.10	유향금의원 구성동 시 예산과장 주무대동 향교방문
2015	02.25~ 04.29	유교아카데미 독서토론 실시 수요일19~21시 총 10강 -수료인원: 11명 개강 2월 25일 수료 4월 29일 -강사: 박상리, 홍순석, 진성수, 송종서, 이기범
2015	02.27	향교재단 평의원회의 -공로 표창장: 박지영 전전교
2015	02.28	-콜로키움 대비 충효교육관 계단 전등설치
2015	03.07	사)한국미술협회경기도지부 미술인대전 운영위원 위촉 -운영위원 갈피 안순남

연도	일자	내역
2015	03.08	전교 이양구 사직원 제출(총회결과 사직서 반려)
2015	03.09	성균관 발전기금 기부
2015	03.10	향교 정기총회
2015	03.10	성균관유도회 용인지부회장 상신(회장 김동해)
2015	03.12	용인시탐장 방문 공사담당 대동 : 사무국장면담 - 서고, 화장실, 식목에 대해 논의
2015	03.14 ~05.16	배움여행여유 1박 2일 총 4회차 1차 3. 14~15일: 51명      2차 3. 28~29일: 44명 3차 4. 25~26일: 40명      4차 5. 15~16일: 37명 1박 2일간 코스: 향교(분향체험) -정몽주묘역 -심곡서원 - 민속촌(숙박, 공연체험) -화성행궁 -수원화성 -향교(해산)
2015	03.21 ~05.09	아카데미 청소년 인성예절교실 실시 토요일 9~13시 총 15강 수료인원: 23명      개강 3월 21일      수료 5월 9일 강사: 김학경, 박기숙, 홍순석, 이정은
2015	03.31	성균관 정기총회
2015	04.02	-구성교회 땅에 대성전 차폐용 나무식목
2015	04.06	용인시청 토지사용승낙서 구성교회 요청(수목식재)
2015	05.09	‘양성평등 성년례’ 향교 명륜당(성남인문교육원)
2015	05.26	향교 서원 보조금지원관련 교육참석(장소 심곡서원) 용인시주관 용인향교, 양지향교, 심곡서원, 충렬서원
2015	06.01	새누리당 용인을 당원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2015	06.04	향교재단 임시평의회회 참석
2015	06.05	향교 별 법인카드 발급 사용 현황 재단 제출
2015	06.15	성균관 임시총회(관장 유고로 인한 정관개정의 건)
2015	06.22	향교 일반회계 법인카드발급
2015	06.23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예산변경 교부신청 제출
2015	06.29	임시총회(성균관 유도회 경기도본부)
2015	06	문예운동등단 - 시 부문 - 시 제목: 모내기 - 등단시인 박난민 - 명륜문학 회원
2015	07.03	향교제초관련 아카시아제거(용인시 용역 1명 배정)
2015	07.07	-경기도 서화대전 출품 (수상 이동빈)
2015	07.09	향교 서고 및 제기고 신축관련 건축허가 위임장요청(위임장 향교재단/ 위임자 건축사사무소 사야)
2015	07.13	향교 사무실 방충망 설치
2015	08.03	충효 및 도의선양 “문인화 ·사군자반” 개강

연도	일자	내역
		-벼루, 벼루받침, 깔판, 먹, 기계 준비
2015	08.05	충효 및 도의선양 “문인화 사군자반”(신설 개강) 8월~12월 -일시: 수요일 10시~12시 강사: 정태균
2015	08.06	성균관장 서정기 쾌유성금 전달
2015	08.18	성균관장 선거참여 (성균관장당선 어윤경)
2015	08.22	유도회구성지회 단합대회(회장 박성만)
2015	08.27 ~11.24	서가(용서재)신축공사 (용인시 문화관광과) -예산: 1억7천만원 -면적 10평 -방 3칸 - 바닥 마루 -돌레 마루 -여닫이문
2015	09.12	사)한국서화교육협회 경기도지부 추천작가 위촉 -제 15-377호 추천작가 효천 도숙희
2015	09.14	화장실신축 요청 우편제출
2015	09.15	향교재단 평의원 회의
2015	10.06	제 10회 성균관유림서예대전(서예출품 수상자 8명: 한명숙, 안순남, 심춘무, 안태평, 이동빈, 이승호, 홍완순)
2015	10.09	석전대제 거행
2015	10.10	법화산가요제 참석(성금전달)
2015	10.20	도의선양교육 및 효행자 표창(수상자 이해선)(외14명) 성균관 유도회 경기도 본부
2015	10.29	유림 지도자교육 참석(5명)
2015	10.30	명륜대학문학반『구다라의 향기』김수자 제 2시집 발간
2015	10.31	유림전통문화 시연회(기로연) 행사실시 -명륜대학 시 서 작품전시
2015	11.10	명륜대학문학반『동물의 세계』김태호 시집
2015	11.20	용인문단 제 19집 발간 기념회 참석
2015	11.21	서가공사 마감
2015	11.26	향교 보조금 사업비 미지원 통보(향교재단)
2015	11.26	향교재산 찾기 추진실적통보(향교재단) 전 1필지 1,055㎡(용인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 87-1)
2015	12.15	명륜대학문학반『향교에 길을 묻다』제 5집 발간
2015	12.18	연말정기 평의원회의 참석(11시 향교재단 회의실 3층)
2015	12.18	전교 협의회의 참석(11:30 향교재단 회의실)
2015	01~12	명륜대학 실시 -교과목: 한문 논어, 서예 한글, 서예 한문, 문학 -강사: 논어 전철근, 서예 최은일, 장정숙, 문학 김태호

연도	일자	내역
2016	01.06	아카데미 관광프로그램 발표회 참석 3명 사무국장 청년유사 사무부장
2016	01.08	명륜문학회 동인지(향교에 길을 묻다) 출판 기념회 및 시 낭송회 14시
2016	01.15	유교사업단 B 실사(방문 김미영교수)
2016	01.18	아카데미 A 실사 4시(방문 허종은교수)
2016	01.20	문화관광 프로그램 선정 확정 확인
2016	01.25	아카데미 A 성인 및 청소년 사업선정 확정 확인
2016	01.26~27	청년유사 안동선비문화수련원 교육 참석
2016	01.28	전교 경기도향교재단 선거 투표 참석
2016	01.28	향교재단 평의원회의
2016	01.29	아카데미실무자교육 참석(성균관대 600년기념관)
2016	02.17	3.8일 총회 대비 유도회 예산관련 회의
2016	02.23~24	청년유사 교육
2016	02.25	아카데미 전문 교양 개강(매주 목 14시~18시)
2016	03.05	청소년인성교육 개강(매주 토 9~13시)
2016	03.05 ~05.28	아카데미 청소년인성교육(수강 33명, 수료 23명, 장소 향교) 강사: 김학경, 방동민, 허익현, 한영희, 박기숙
2016	03.08	향교총회
2016	04.08	향교 문학반 시낭송 10시(우리랜드)
2016	04.02~03	아카데미 문화관광 1박 2일 1차
2016	04.28	성균관유도회본부 열린간담회 참석
2016	04.30	성남문화교육원 성년례 실시(10~12시)
2016	04.30 ~50.01	아카데미 문화관광 1박 2일 2차
2016	05.02~04	청년유사 교육
2016	05.19	아카데미 성인 종강 수료식
2016	05.21~22	문화관광 1박 2일 2일차
2016	05.28	아카데미 청소년 인성교육 종강 수료식
2016	06	사)한국미술협회경기도지부 미술문화인대전 심사위원 - 심사위원 갈피 안순남
2016	07.05	성균관 임시총회
2016	07.11~12	청년유사 유교문화활성화사업 해단식 참석
2016	07.11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공로상 수상(제 16-109호)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연도	일자	내역
2016	07.18	용인향교 용인서부경찰서장(박주진)내방
2016	07.22	문학반 시낭송회 (2시~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2016	07.21	행주산성서예공모 대상(수상자 서예강사 최은일)
2016	07.27	청소년(어린이 2~3학년용)유건도포 구입
2016	08.16	향교 경 내외 제초
2016	09.01	양지향교전교 방문 전교님과 문화원장 면담
2016	09.02	경 내 외 제초
2016	09.08	화장실 공사확정 관련방문(재성종합건설 문화재부이사 윤민영 ) 9.19~12.19 약 90일간
2016	09.12	심곡서원 향사 참석
2016	09.12	용인시 김표, 한주건설이사 황철원 교육관 및 서가 리모델링 관련 방문(11월간 공사진행)
2016	09.20	석전대제 제집사 천망회의 및 기로연 협의회실시
2016	09.22	이천서예대전 공모(수상자: 이승호, 한명숙, 홍완순)
2016	09.23	경내 외 제초(대성전 옆 잣나무 밑 포함)
2016	09.23	성균관 임시총회
2016	09.24	법화산 축제 방문 성금전달
2016	09.27	석전대제 거행
2016	09.29	화장실 신축공사: 면적 27.94m <sup>2</sup> 용인시 자체 공사(공사비 2억) 구분: 남 3칸, 여3칸, 장애인 1칸, 수납 1칸 공사기간 9. 19~12. 19(90일간)
2016	10.05	성균관 대한민국 유림서예대전출품 (수상자: 김정화, 안순남, 이승호, 홍완순, 심춘무, 도숙희)
2016	10.11	유림전통문화 시연회(기로연) 행사실시 명륜대학 시 서 작품전시
2016	10.12	충렬서원 추계향사 참석
2016	10.18	제초 명륜당 쪽 제초제 시험살포
2016	10.21	성균관 유도회 70주년 전국유림총화대회
2016	10.25	유도회 선진지견학(추사고택) 출발 8:25
2016	10.25	향교재단 회계업무 실무자교육
2016	11.01~30	충효교육관 및 서가 리모델링(예산지원 향교집행) -공사비총 44백만원(문체부 39백만원/ 용인시 5백만원) -교육관: 천장택스, 냉난방, 전등, 바닥장판, 벽 페인트, 싱크대, 수도, 수납장, 신발장, 칠판(사무실: 창문, 바닥, 페인트, 전등)



연도	일자	내역
		-용서재: 책장, 책상, 의자, 냉 난방기이전(교육관에서)
2016	11.01~30	충효교육관 리모델링 공사관련 강좌실시 및 휴강 -맹자반 농협 3층 -문학반 구성도서관 지하 세미나실 -서예, 문인화반 11월 휴강
2016	11.12~30	교육관 공사시작~ 천장 텍스 검사 차 떼어 감
2016	11.19	음애공고택 준공식 참여(전교 외 9명)
2016	12.01	교육관 서예 목요반 첫 수업실시
2016	12.13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청금록 등재신청
2016	12.21	향교재단 평의원회의
2016	01~12	명륜대학 실시 교과목: 한문 논어, 서예 한글, 서예 한문, 문학 강사: 논어 전철근, 서예 최은일, 장정숙, 문학 김태호
2017	01.02	안영희 TV중
2017	01.13	경기문화재단 문화재돌봄 사업 경미수리팀 방문: 17년 향교관리: 계획세워 조금씩 진행 전문성 있는 부분은 기동수리팀 투입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함
2017	01.19	신년인사: 전교 외 14명(강사 및 학생대표)
2017	01.24	華亭趙英在:향교표지석,하마비건립기금1백만원 증
2017	01.25	대한민국명인미술대전 초대작가 위촉 - 제 223호 초대작가 효천 도숙희
2017	02.11	향교표지석 및 하마비 주문관련(충남석재방문 전교 외 3명)
2017	02.16	경기문화재단 문화재 돌봄 팀 향교 시설물 관리
2017	02.21	향교지관련회의 전교 외 5명
2017	03.07	정기총회 및 하마비, 향교표지석 제막식
2017	03.11	심곡서원향사 참석 (전교 외 7명)
2017	03.16	성균관장선거 참석 전교, 유도회장 (김영근 당선)
2017	03.24	유도회 표창(대상자 박창섭) 외 3명 참석
2017	04.07	향교지 발간 협의회의 실시(문화원장, 전교 외 10명) 향교지발간 추정예산 총 3천만원 (문화원 2천만원+ 용인시 추경 5백만원+향교자부담 5백만원)
2017	04.11	경기문화재단 문화재 돌봄 팀 향교 시설물 관리 향교 제조관리자 제조 제살포
2017	04.12	용인향교 사군자 문인화반 강사 정태균 심미기행 전 18명 참여(전주 교동아터센터)
2017	04.25	경기문화재단 문화재 돌봄 팀 향교 시설물 관리

연도	일자	내역
2017	04.29 ~05.14	단청공사 명륜당, 용서재, 교육관테두리(용인시 문화예술과) 용인시 문화예술과 지원
2017	05.19	향교제초담당자 방문 아카시아나무 정리
2017	05.26	문학반 시 낭송회(사갈의 눈 내리는 마을)
2017	05.26	향교지발간 집필위원회의(문화원)참석(3명)
2017	06.10	24절기와 우리문화이해하기 강좌(강사 김학경) 청덕사계누리마을 주민 23명 참여
2017	05.18 ~06.13	향교 홍보 리플렛 제작(용인시 문화예술과장 황규섭)
2017	06.08	사업설명회참석(국장, 부장)
2017	06.09	경기문화재단 문화재 돌봄 팀 향교 시설물 관리
2017	06.19	문화관광 공모 프레젠테이션참석(유사,부장)
2017	06.22	유교아카데미 선정 워크숍 참석(국장,유사,부장)
2017	06.24	성남인문교육원 성년례
2017	06.29	향교지관련 자문위원회 협의
2017	07.05	사무실누수 및 명륜당 외부 수도공사(용인시 문화예술과)
2017	07.05	경기문화재단 문화재 돌봄 팀 향교 시설물 관리
2017	07.11	향교제초담당자
2017	07.13 ~11.16	아카데미 전문 교양강좌 실시 (총 36강 18회)
2017	07.17~19	유교 아카데미 전문가양성교육 1차 참여(국장 최혜식) ※ 2차 9.11~13 3차 11.6~8
2017	07.18	용인시 제복구입계획서 제출 및 향교지관련 문화원방문 회의(전교, 부장)
2017	07.19	경기문화재단 문화재 돌봄 팀 향교 시설물 관리
2017	07.21	제조관리자 향교 내 외 제조
2017	08.01	전교임기만료 14일자 사표제출
2017	08.08	전교 선임 임시총회 개최: 21대 전교 이양구 연임추대 임기: 2017년 8월 16일~ 2020년 8월 15일
2017	08.12	사)한국서화교육협회 초대작가 위촉 - 제 1722호 초대작가 효천 도숙희
2017	08.18	전주최씨평도공중중 향교지 자료 등기로 받음
2017	08.24	유교아카데미 전문교양강좌 실사
2017	08.25	향교지 발간 성참금(각 문중, 장의 34명 모금) 송금(문화원) 성참금 총 19,950,000원

연도	일자	내역
2017	08.30	경기도유도회본부 회장 이규형 향교지 발간 축사를 우편 받음
2017	08.30	2018년 사업계획서 용인시 방문 제출(유도회장, 부장) 8건 - 운영비, 명륜대학, 충효교육, 석전대제, 전통문화시연회, 석전대제 제복구입, 누수, 교육관 비가림막 요청 사업계획
2017	08.31	김중호 명륜문학회원 시인등단 -등단 처 : 산림문학 - 등단 시 제목 : 물고기 날다
2017	09.01	김민기 의원 향교지 축발간사 요청으로 향교지 내용 관련 질의 및 향교 애로사항 질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서 제출관련 답변 김대정 의원 및 김언년 구성동장 향교방문: 사업계획서 제출 의 성당 주차부지에 수녀숙소 추진 중으로 향교의 주차가 문제 될 것을 토론 함
2017	09.22	경기문화재단 문화재 돌봄 팀 향교 시설물 관리 -문화재 지킴이 1팀: 명륜당 청소, 거미줄제거 약 살포 -문화재 지킴이 2팀: 대성전 외부바닥, 명륜당 벽 틈새 메우기 지붕후면 와구토, 외삼문 상단 벽 시멘트)
2017	09.25	경기문화재단 문화재 돌봄 팀 향교 시설물 관리 -경내계단 명륜당청소 거미줄제거 대성전 부분 담장 와구토
2017	09.26	제초관리자 향교 내 외 제초
2017	10.07	심곡서원향사 참석 (전교 외 8명)
2017	10.13	용인시 향토문화유산발전 유공자 용인시장 상 수상 - 김태호 : 용인향교 명륜대학 문학반 강사 - 박개일, 박창섭, 장관희 : 용인향교 장의 - 장소:용인시장실 - 수상축하: 문학회원 및 향교임원
2017	10.13	명륜대학 문학반『바람꽃지동소리』시인 김태호 시집발간 -8번째 시집(전 7권의 시집 중 낭송하기 좋은 시 선집)
2017	10.16	석전대제 거행
2017	10.25	용인문화 유적투어: 향교신청 명륜대학생 39명 참여 용인문화원주최 4 코스: 와우정사-법륜사-농촌테마파크-이주국장 군고택-최은희고택-3.1독립운동기념공원
2017	10.31	유림전통문화 시연회(기로연) 행사실시 명륜대학 시 서 작품전시
2017	11.02	경기문화재단 문화재 돌봄 팀 향교 시설물 관리 - 담장기와 부분 보수 및 명륜당 청소
2017	11.06	충렬서원향사 참석 (전교 외 5명)
2017	11.06-08	유교문화활성화사업 전문가양성교육 참여(사무국장 최해식)
2017	11.07	경기도 향교재단 유림지도자교육 참석(전교, 유도회장)

연도	일자	내역
2017	11.08	제조관리자 향교 내 외 제조
2017	11.09	경기문화재단 문화재 돌봄 팀 향교 시설물 관리 - 담장기와 부분 보수 및 명륜당 청소
2017	11.11	구성동민의날 명랑운동회(경찰대 운동장) 참석(사무국장, 부장)
2017	11.14	향교지관련 회의(문화원) 11시: 전교 이양구, 문화원장 조길생, 유도회장 김동해, 실무위원장 홍순석, 간행위원장 정양화, 조사단장 이종구, 김태근, 보조 박명희, 도숙희
2017	11.25~26	월봉서원 기세등등 여유만만 용인향교 20명 월봉서원 20명-1일차: 무양서원(몸살림선비체조), 풍영정(시 한수 한마당), 월봉서원 승덕 사봉심 월봉로맨스 고통묘소~백우정 빙월당(우리도 그들처럼 理와 氣가있는 강연, 자경야담)및 숙박, 2일차: 무등산역사길(충장사, 풍암정, 취가정)
2017	12.02~03	사무실 복사기 점검(무상교체 7일경) 및 컴퓨터 수리(최재봉)
2017	12.05	성균관 전국유림발전 결의대회 및 토론회 참여 및 국회의원 김민기, 표창원 의원 사무실 응원 차 방문 - 토론회 장소 및 시간 :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10시~1시 - 참여: 전교 이양구, 유도회장 김동해, 장의 이진규, 조성린, 최종실, 이근구, 장은주, 이상구, 명륜대 수강생 안행규, 원순업, 최영란, 이점숙. 부장 도숙희 총 13명 남한산성투어 - 진행강사 : 아카데미 교양강사 이한성교수 - 인솔 : 사무국장 최해식 외 참여인원 총 10명
2017	12.04	전기 안전점검(교육관전등 누전진단) 용인시
2017	12.06	복사기 무상교체 기증 및 컴퓨터 및 복사기 재점검(최재봉)
2017	12.06	경기문화재단 문화재 돌봄 팀 향교 시설물 관리 - 명륜당 청소 및 충효교육관 여단이창(장석빠짐) 부착
2017	12.08	향교지발간 2차 교정 회의(홍순석교수 진행) - 용인향교 용서재 11시~1시 -참여: 전교 이양구, 홍순석, 정양화, 이근구, 이영섭, 장관희, 박명희, 도숙희 총 8명
2017	12.12	용인향교 발전공로상 성균관장상 수상 - 수상자 전교 이양구

## 용인향교지 발간 성참록

龍仁鄉校誌 發刊 誠參錄			
성참자	소속/직책	연락처	금액
용인유도회	회장 김동해	용인시 기흥구 용인향교로 12-6 용인유도회	5,000,000
이명렬	용인향교장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255-1	300,000
박한철	심곡서원원장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08-1	300,000
이양구	용인향교전교	용인시 기흥 한보라 2로 14번길4-9	500,000
김수자	향교 문학반	용인시 기흥구 중동 626-3	100,000
이현규	음애공 원로 전 문화원장	용인시 기흥 흥덕동4로 30번길 302-1201	300,000
이진규	음애공 회장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243	200,000
이무규	음애공 이사	용인시 수지 성복2로174 수지자이A105-702	100,000
이백규	음애공 이사	수원시 팔달구 아주로 39길 10-4	100,000
이태구	음애공 총무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526 살구골진덕	100,000
한산이씨	회장 이진규	한산이씨 음애공 종친회	500,000
이근규	용인향교장의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410-7	100,000
이재규	용인향교장의	용인시 기흥 중동 826-1 덕인 312	500,000
이원구	음애공 이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71-1	150,000
도숙희	향교사무부장	용인시 기흥구 용인향교로 44-1	100,000
최해식	향교사무국장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63길 14	300,000
향토보존회	회장 안준희	구성향토문화보존회	300,000
박지영	향교 전 전교	용인시 기흥 동백죽전대로 175길 4-10	500,000
사은정보존회	회장 조성린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55길 11	1,000,000
순천김씨	회장 김동해	순천김씨어사공파 구성소종중회	1,000,000
구성농협	조합장최진홍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성농협	1,000,000
기흥농협	농협장한규혁	용인시 기흥구 기흥농협	1,000,000
경주김씨	경주김씨문간	경주김씨 문간공파 종중	500,000
이병목	총렬서원장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파담로 140-15	300,000
경주김씨	감수 김학민	경주김씨 하갈 종중	500,000
김진모	김혁장군손자	갈천공 김혁장군 독립운동가후손	500,000

614 부록

조영재		용인시 기흥구 산양로 71	300,000
전주최씨	회장 최완영	전주최씨 평도공파 종친회	1,000,000
전주유씨	총회장유기영	전주유씨 목계공파 종중	500,000
이경배	이영희전교 자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우림센타 910	300,000
정성교	용인향교 장의	용인시 처인 포곡 영문로 64 베네치아A 105-1404	500,000
영일정씨	영일정씨종친	영일정씨 종친회	1,000,000
한양조씨	한양조씨종친	한양조씨 양경파 종친회	1,000,000
이종구	문화원 연구소장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201길 31-11	100,000
강명희	명륜대 수강생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50,000
향교사군자반	회장김병언	사군자 문인화반 회원일동	200,000
이재완	의회전의회장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300,000
조봉행	용인향교장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100,000

## 용인향교지 편찬위원회

사업총괄	조길생	용인문화원장
	이양구	용인향교 전교
위원장	정양화	용인문화원 부원장
부위원장	김동해	성균관유도회 용인지부회장
실무위원장	홍순석	강남대 교수
감수	김학민	경주김씨 갈천공파 하갈종중 전 회장
자문위원	이석호	전 연세대 교수
	박지영	전 용인향교 전교
	최진홍	구성농협조합장
	한규혁	기흥농협조합장
	이수길	전 노인회장
	김진수	양지향교 전교
	박한철	심곡서원장
	이병목	충렬서원장
	정성교	장의 전 용인시국장
편집위원	이종구	용인학연구소장
	김태근	용인학연구소 부소장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
	최해식	용인향교 사무국장
	이영섭	용인향교 유도회 총무
	이근구	용인향교 장의
	장관희	용인향교 장의
	박청자	전국여성유도회부회장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행정간사	주인자	용인문화원 총무과장
자료정리	박명희	용인문화원 주임
향교간사	도숙희	용인향교 사무부장

## 龍仁鄉校誌

발행일 2017년 12월 22일  
엮은이 용인향교지편찬위원회  
펴낸이 이양구 · 조길생  
펴낸곳 용인향교 · 용인문화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향교로 12-6  
TEL: 031-284-5020  
FAX: 031-284-5020  
E-mail: dosh69@hanmail.net  
만든곳 한국문화사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서울숲IT캐슬 1310호  
02-464-7708

### <비매품>

- \* 이 책의 내용 및 사진의 사용권한은 용인향교와 용인문화원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사를 금합니다.
- \* 이 책은 용인문화재단 지원금과 용인향교 유지들의 성참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